장편소설

붉은 흙

김 청 남

문학예술출판사
주체100(2011)

우리 여기서 다시 살아 일어나리라

—희생당한 애국시인의 노래중에서—

수천만 인간들의 머리우에 가지가지 재난과 불행을 들씌운 전쟁은 그러기 위해 이미 어딘가에 존재하고있은듯이 날이 갈수록 격렬해지고있었다.

그러나 자연은 자연대로 계절의 수레우에 황금가을을 실어왔다. 지평선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면 금빛을 띤 논벌과 둔덕의 수수밭, 이슬맞은 메밀밭과 목화밭은 아침노을로 활활 불타는것 같다. 고요한 논과 밭의 잘 여문 곡식포기들속에서는 살진 메뚜기들이 툭—툭 탄력있게 튀여오르고 과원의 무르익은 향기는 큰길에까지 풍겨온다.

논벌 한복판을 쭉— 가르고 뻗어나간 신작로의 이쪽과 저쪽에 검은 폭탄구뎅이들만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것은 평화로운 보통날의 풍요한 가을처럼 느껴졌을것이다. …

1

1950년 9월 중순 어느날 이른아침에 승용차 한대가 중부조선의 소도시 벽성군소재지를 떠났다. 인적드문 새벽거리는 고요하였고 길

가의 나무가지들과 풀들에는 은으로 주조한듯 한 묵직한 이슬이 맺혀 있었다. 맑게 개인 푸르른 하늘에는 흩어진 흰구름들이 드문드문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떠있었다.

풀과 나무가지들로 촘촘히 잘 위장한 풍친 승용차는 정적이 깃든 작은 도시를 천천히 미끄러지듯 빠져나와 신천군소재지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차는 속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다. 지난 여름철 장마에 씻기고 패인 길은 울퉁불퉁하여 최속으로 달리는 풍차는 마치 파도 사나운 바다우에 뜬 쪽배처럼 솟아오르기도 하고 잦아들기도 하였다. 승용차가까이에서는 푸짐히 내린 아침이슬에 흠뻑 젖은 길가의 덤불들과 잔물결치는 언덕들, 골짜기들이 맞받아 헤엄쳐오고 멀리서는 누런 황금전야가 빙빙 돌아가면서 승용차와 나란히 서북쪽을 향해 달려갔다. 이따금 우불구불한 길을 따라 야산밑을 돌 때면 절벽에 가리워 한쪽차창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하였다. 승용차안으로 가을날 이른아침의 상쾌하고 싱싱하고 짜릿하며 싸늘한 기운이 밀려들었다.

차안에는 농립모를 이마 깊숙이 눌러쓴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룡진이 앉아있었다. 그는 차안 뒤좌석의 등받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 며칠밤 잠을 자지 못해 부어오른 두눈을 지그시 감고있었다. 보름전인 지난 9월 1일에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열린 력사적인 내각 24차전원회의에 참가했던 리룡진은 회의가 끝나자 곧바로 황주, 신계, 곡산, 연백, 옹진, 벽성일대에 나가 농업생산을 전시체제로 개편하는 사업, 당면한 현물세판정사업, 추수, 명년도영농준비사업을 현지에서 독촉하고 추궁하고 도와주고나서 지금 신천군으로 가고있었다. 그간 리룡진의 모든 사고와 의식은 오직 회의에서 하신 장군님의 결론 《전시농업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을 자의 눈금처럼 정확하게, 어김없이 관철하려는데 집중되여있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들을 집행하고 관철하는데서 정확성과 신속성은 그 어떤 환경에서든지 리룡진에게 변함없는 철칙으로, 신조로 되여있었으며 거기서 그는 생의 기쁨과 긍지와 보람, 행복과 희열을 느끼군 하였다. 지금도 룡진은 달리는 승용차안에서 이제 신천군에 도착하여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 줄곧 생각하고있었다.

최속으로 질주하던 승용차는 신천—8키로메터라고 쓴 리정표가

까이의 후미진 야산밑에서 갑자기 급정거하였다. 순간 룡진은 감고있던 눈을 번쩍 뜨면서 묵직해보이는 머리를 들었다. 시원한 호남아형인 그는 류달리 큰 눈우에 널직하니 자리잡은 숱많은 검은 눈섭을 미간으로 약간 모으며 낮으나 잘 울리는 침착한 목소리로 운전사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요?》

《항공입니다, 위원장동지.》

윤기흐르는 동글동글 말린 까만 머리칼끝이 모자채양 한옆으로 비죽이 나온 장난군총각처럼 보이는 운전사청년은 짤막하게 대답하면서 서둘러 차의 발동을 껐다. 그리고는 긴장이 어린 눈빛으로 하늘을 살펴보았다. 앞쪽 양떼들처럼 보이는 흰구름이 뜬 하늘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같은 특이한 적비행기소리가 들렸다. 적들의 비행기편대는 불시에 급강하면서 멀지 않은 논벌쪽에 총포탄을 퍼붓기 시작했다.

운전사청년은 차안의 뒤좌석쪽으로 빠르게 얼굴을 돌리면서 불안이 느껴지는 챙챙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동지! 위험합니다. 빨리 내려 대피하십시오!―》

그러나 룡진은 승용차의 뒤좌석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댄채 꿈쩍않고 태연하게 앉아있었다. 그는 불의에 나타난 적비행기의 위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는것 같았다.

《영철이, 그냥 가자구…》

룡진은 뒤좌석에 비스듬히 몸을 기댄채 긴장한 운전사청년의 얼굴을 얼핏 스쳐보고나서 태연한 목소리로 나직하니 말했다. 유난히 정기도는 그의 검은 눈동자는 지칠줄 모르는 왕성한 힘과 정력을 나타내고있었다. 벽성군소재지에서 출발한 그 순간부터 룡진의 머리속에는 오직 한가지 생각, 즉 이제 신천군에서 수행해야 할 산더미같은 일거리들과 사업에 대한 생각뿐이였다.

《위원장동지,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어서빨리 내리십시오!》

운전사청년은 딱 잡아떼듯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는 운전칸문을 열고 재빨리 내리더니 다급히 룡진이 앉아있는 뒤쪽문을 열었다.

《어서 내려 대피하십시오―》

그러자 차안에서 골격이 굵직굵직하고 얼굴이 볕에 탄 큰 키의 리

룡진이 마지못해 내리듯 천천히 행길우에 내려섰다. 수수한 옷차림에 밀짚농립모를 깊숙이 눌러쓴 그는 모든 점이 평범하고 소박한 농민같았으나 굳센 아래턱과 상대편의 눈길을 서늘케 하는 그의 크고 검은 눈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여나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미간에 모여든 숱진 검은 눈섭에는 룡진의 억센 성격과 강의한 의지가 엿보였다.

《영철이, 밤을 새우더니 몹시 피곤한 모양이구만. 내가 운전할테니 뒤에 앉아 눈을 좀 붙이라구!—》

룡진은 애젊은 운전사청년의 어깨를 스스럼없이 가볍게 툭 치고는 앞의 운전칸쪽으로 성큼 다가갔다.

순간 운전사청년은 황급히 운전칸문을 막아서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위원장동지, 그런게 아닙니다. 전 얼마전에 폭격속으로 위원장동지를 태우고 다닌다고 민청회의에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룡진은 몇순간 말없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운전사의 얼굴을 주시했다.

《그래…》

그는 운전사의 고집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상급의 기분을 거슬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의무를 리행하면서 자기의 정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는 애젊은 운전사의 결심을 존중하였다. 룡진은 승용차곁에서 물러나 적비행기들이 돌아치는 하늘쪽은 보지도 않고 야산기슭을 천천히 거닐었다. 거기에는 애소나무들이 빽빽이 서있었는데 해빛은 나무가지들과 잎사귀들사이를 뚫고 흘러들어 자랄대로 자란 짤막한 풀잎의 이슬들에 반사되여 아롱거렸다. 이슬이 맺혀 무죽해진 풀들은 땅우로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화려하게 자란 찔광이나무는 꼭대기로부터 무성한 풀속에 그루를 박은 줄기에 이르기까지 온통 거미줄에 휘감겨있었는데 잘디잔 이슬방울이 한벌 맺힌 거미줄은 진주빛으로 반짝거렸다. 산뜻한 바람을 타고 쌉쌀그레한 쑥냄새와 싱그러운 송진냄새가 풍겨오는 풀숲의 곳곳에는 애어린 흰버섯이 갈색모자를 쓰고 서있었고 소나무들사이로 얼핏얼핏 나비들이 날으는것이 보였다. 소나무들사이에 듬성듬성 서있는 올밤나무밑의 풀숲에는 반들반들한 밤알들이 떨어져 널려있었다. 룡진은 잘디잔 이슬방울들이 맺혀 구슬처럼 반짝이는 잘 여문 올밤알들을 풀숲에서 주어들었다.

도내의 여러곳을 다니느라 며칠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룡진은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것을 느꼈다. …

벌판상공을 저공하면서 미친듯이 돌아치던 적비행기편대는 누런 담벽처럼 보이는 논벌에 몇차례 기총탄을 퍼붓고는 갑작스레 도망치듯 남쪽으로 사라졌다.

승용차는 다시 발동을 걸고 야산굽이를 돌아 벌판길을 달리기 시작하였다. 룡진은 차의 뒤좌석에 앉아 눈을 감은채 여전히 침묵하고있었다. 뒤좌석의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댄 그는 손에 쥔 매끈매끈한 밤알들을 굴리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들었다. 지금 그의 의식속에는 얼마전 신천군에서 도에 올려보낸 금년도수확고판정수자가 거듭 떠오르고있었다. 그 수자는 도내의 다른 군들에 비해 퍽 높은것이였는데 그것은 례년에 드문 기록적인 작황이였다. 물론 적비행대의 야수적인 폭격과 각가지 난관속에서도 농사를 이악하게 잘 지은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러나 초보적인 료해에 의하면 실지작황은 그런 기록적인 정도까지는 못된다는것이였다. 분명 여기에는 그저 스쳐지날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룡진은 내심 생각하고있었다.

《위원장동지, 신천군에 들어섰습니다.》

운전사는 벽성군소재지를 떠나면서부터 무엇엔가 줄곧 생각을 집중하고 말 한마디 없는 룡진에게 조용히 알렸다.

손에 쥔 밤알들을 굴리면서 사색에 잠겨있던 룡진은 감고있던 눈을 떴다. 눈이 깔깔하였다. 폭이 좁은 도로는 앞에 농가 몇채가 서있는 마을어구에서 목조다리를 건느고 나지막한 언덕들을 오르내리면서 점점 치달아올라 5리가량 저쪽에 보이는 복우촌마을로 통하고있었다. 복우촌에서 도로는 벌판우에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야산쪽으로 사라졌다. 신천군 룡문면에 들어선것이다.

룡진은 길량쪽에 펼쳐진 논과 밭들의 작황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약간 롱질하는듯 한 선량한 미소를 띠우고 운전사를 향해 무랍없이 말을 던졌다.

《영철이, 그래 민청에서 비판을 받았다는건 사실이나?》

《사실인가구요?… 원, 말두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혼뜨검나보긴 난생처음입니다. 정말 넋살이 떨어졌습니다.》

운전사는 자기가 혼쌀났던 이야기를 히죽히죽 웃으면서 천연스레 과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룡진의 볕에 탄 얼굴에 얼핏 미소가 떠올랐다사라졌다. 그가 파악한데 의하면 운전사청년은 각종 자동차에 대해 모르는것이 없고 운전기술이 뛰여나게 높았으며 체육과 음악에도 재간이 있는 청년이였으나 생활에서 무슨 문제든지 과장해서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과장하는 놀음은 아주 위험한거요. 그런 나쁜 버릇은 굳히기 전에 민청앞에서 스스로 비판을 하고 떼버리라구!…》

룡진은 마치 운전사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 사색속의 그 누군가를 향해 말하듯 차창밖의 논벌들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위원장동지, 그럼 제가…》 하고 운전사는 불시에 주눅이 든듯 어름어름 대답하였다.

《운전사동무, 차를 세우시오!》

룡진은 갑자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엄격하고 실무적인 어조로 지시하였다. 운전사는 무슨 일인가 의아한 시선으로 차의 앞과 좌우를 살피면서 제동을 걸었다.

승용차는 작은 마을앞을 조금 지나 행길 한가운데 멎었다. 조금후에 차가 멎어선 도로 한옆으로 외출복차림에 불룩한 가방을 든 중년남자가 지나가자 룡진은 차문을 열고 내려섰다.

《복우리 리위원장동무 아니요?》

행길 한옆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던 중년남자는 우뚝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아니?… 도위원장동지, 안녕하십니까?》

허우대가 큰 중년의 리위원장은 뜻밖인듯 몇걸음 황황히 다가서며 룡진에게 굽석 인사했다.

《어디로 가던 길이요?》

룡진은 오랜 로동으로 굳어지고 장알이 박힌 두툼한 리위원장의 손을 잡으면서 잘 울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군에 회의갑니다.》

《몇시까지 가면 되오?》

《9시까지 도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룡진은 팔목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군에는 나와 함께 가면 늦지는 않겠소. 이리 오시오.》
룡진은 늘쌍 그러듯이 제 논에 들어서는 실농군의 심정으로 앞장서서 행길아래 축축한 논판으로 들어섰다.
《리내 전반적인 작황이 어떻소?》
누렇게 익은 벼이삭 몇개를 뽑아들면서 룡진은 뒤따라 논판으로 내려선 허우대 큰 리위원장에게 물었다.
《네, 전반적으로 결실이 잘됐습니다.》
《도에 올라온 군적인 예정수확고종합수자는 작년보다 훨씬 높은것으로 보고되였소. 리위원장동무, 아마 동무네 리의 예정수확고도 군에 그렇게 보고되였을거요.》
《그렇습니다.》
《군에 평당 평균 얼마로 보고했소?》
《한키로 팔백으로 보고했습니다.》
《한키로 팔백?…》 하고 룡진은 나직이 뇌이면서 리위원장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렇습니다.》
리위원장은 룡진의 꿰뚫어보는듯 한 번쩍이는 시선을 마주보지 못하고 오른손에 들었던 가방을 왼손으로 옮겨들면서 웬일인지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어물어물 대답했다.
《리위원장동무, 우리 몇군데 평뜨기를 해보고 가지 않겠소?》
룡진은 즉시 몇군데 논을 지정하였다. 그러자 리위원장은 별스럽게 허둥거리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어쩐지 그의 눈섭밑이 떨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지나가는듯싶었다. 그러는 리위원장을 얼핏 스쳐보면서 룡진은 낮으나 엄격한 어조로 말했다.
《회의에는 늦지 않을테니 념려마오. 가서 여기 논의 주인을 불러오시오.》
룡진의 엄한 지시를 듣고 주춤거리며 서있던 리위원장은 불룩한 가방을 논뚝에 놓더니 급히 마을쪽으로 걸어갔다.
《영철이, 자와 저울을 가져오라구!—》

룡진의 말이 떨어지자 의례히 그러리라고 기다리고있은듯 운전사가 재빨리 차안에서 자, 저울, 키, 훑개, 낫들이 들어있는 왕골구럭을 들고 질척질척한 논판으로 뛰여왔다.

룡진은 착실한 실농군처럼 깐깐히 자로 평수를 재고 낫으로 척척 솜씨있게 벼를 베여 벼알들을 훑어낸 다음 허실없이 그것을 전부 저울에 달았다. 그러는 사이에 리위원장이 마을쪽에서 순박해보이는 중로배의 논임자와 함께 서둘러대며 논판으로 다가왔다.

《수고합니다. 미국놈들의 폭격속에서도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여기 논에서 평당소출이 얼마였습니까?》

룡진이 서글서글 웃으며 논주인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한키로 삼백이였지요.》 하고 순박해보이는 논임자는 얼마간 목소리를 떨면서 석쉼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그러니 작년과 같구만요. 방금 몇군데 평뜨기를 해보았는데 정확히 한키로 이백구십그람 나갑니다.》

《네, 작년과 대비하면 대체로 모든 논들이 어방비방하지요.》

수염이 더부룩한 중로배의 농민은 이리저리 눈길을 돌리면서 빙그레 웃음을 띠고 어줍게 응대하였다.

《정말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룡진은 순박하고 근면한 농민의 수고를 진정으로 치하해주었다. 그는 축축한 논뚝우에 벼짚을 깔아놓고 논주인과 마주앉아 얼마동안 농사이야기를 나눈 다음 자리에서 일어섰다. 룡진은 농민과 작별하고 승용차가 서있는 행길쪽으로 걸으면서 리위원장에게 엄격한 목소리로 추궁했다.

《동무는 어째서 예정수확고를 그렇게 과장해서 군에 보고하였소? 면과 군에서 예비를 찾으라는 압력이 있은게 아니요?》

룡진은 리위원장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상대방의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는것을 시사했다.

《국가를 속이고 허풍이나 치면서 회의를 해선 뭘하겠소.》

룡진은 솟아오르는 분격을 지그시 누르면서 차곁으로 다가가 차문을 열었다.

《타오.》

그러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허우대 큰 리위원장은 주춤거리며 선뜻 차안으로 들어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룡진의 독촉을 받고 차에 올라 송구스러운듯 엉거주춤하니 앉았다.

승용차는 복우, 삼황, 사정, 청송리를 지나 신천거리에 들어섰다. 그동안 룡진은 침묵한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네거리를 지나 군인민위원회건물이 있는쪽으로 들어서던 차는 불쑥 골목길에서 풍만한 녀인을 선두로 음식들과 술병이 들어있는 바구니와 함지, 다반을 든 녀인들이 차앞으로 나서는찰나에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멎었다. 녀인들은 질겁하여 소리를 지르며 차앞에서 물러서는데 일행중의 딱 바라진 한 남자가 도위원장차를 알아보고 굽석 인사를 하면서 황급히 녀인들을 앞세우고 차앞을 지나갔다.

《박동무…》 하고 지금까지 침묵하고있던 룡진이 곁에 앉아있는 복우리 리위원장에게 나직이 물었다.

《맨앞의 저 동무는 군인민위원회 경리과장동무가 아니요?》

《네, 경리과장동무입니다. 그뒤의 뚱뚱한 녀인은 동양음식점주인인데… 도위원장동지가 오시는걸 알고 아마…》

일순 룡진의 표정은 더 엄해졌다. 풍차가 군인민위원회 마당으로 들어서자 어지간히 몸이 좋은 군위원장과 키는 작은편이나 역시 몸이 난 서기장이 이미 대기하고있은듯 차앞으로 마주걸어나왔다. 차에서 내린 룡진은 그들을 따라 현관안으로 들어서 복도를 지나 군위원장방으로 들어갔다.

그리 크지 않은 군위원장방에는 큰 책상과 결상들이 놓여있고 깨끗이 회칠을 한 흰벽에는 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는데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가 붙어있었다. 남쪽으로 난 창문너머로는 100메터가량의 철도가 집들사이로 토막쳐보였다.

군위원장에게서 각 면들과 리들의 가을추수정형과 전시체제로 개편한 정형, 현물세판정, 래년도영농준비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후에 룡진은 그에게 물었다.

《군위원장동무, 도에 제출한 예상수확고수자는 정확하오?》

《…》

군위원장은 번쩍이는 룡진의 시선과 엄격한 물음에 대답을 못하고

당황하여 흘끔 의미있는 눈길로 곁에 선 서기장을 바라보았다. 탄탄한 체구에 당돌해보이는 서기장은 말없이 머리를 떨구고있었다.

룡진이 엄한 어조로 다시 물었다.

《군적인 수확고를 종합하면서 면과 리들에는 얼마나 나가보았소?》

《…》

《책상우에서 만든것같아 묻는거요. 오면서 복우리의 실지작황을 판정해본바에 의하면 동무네가 도에 올려보낸 예상수확고수자는 과장된것으로 판단되오.》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서있는 군위원장과 서기장의 얼굴에 굵은 땀방울이 내돋기 시작했다. 그때 군인민위원회 한 직원이 손기척을 하고 방안으로 들어와 룡진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서기장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무엇때문인지 흡족한 기분으로 서기장에게 잘 들리는 귀속말로 말했다.

《경리과장동무에게서 방금 련락이 왔습니다. 다 차려놓았다고… 곧 모시고 오랍니다.》

사색이 된 서기장이 빨리 나가라고 눈짓하자 직원은 무엇인가 무거운 공기를 감촉한듯 두말없이 급히 문밖으로 나갔다.

룡진은 그가 나간 다음 걸상에서 일어나 방을 거닐면서 서기장에게 물었다.

《식사준비를 했소?》

《그렇습니다, 도위원장동지.》

땀을 흘리며 서있던 서기장이 얼마간 활기를 띠고 대답했다.

《비용은 어디서 내오?》 하고 다시 묻는 룡진의 선이 굵은 얼굴에 날카롭고 비양대는듯 한 표정이 떠올랐다.

《…》

《농민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앞에서 허풍을 치며 진실하지 못한 수확고를 꾸며내는가 하면 국가재산을 가지고 제멋대로 손님대접을 하고… 지금이 어느때요? 나라가 피를 흘리며 전쟁을 하고있소. 생사를 걸고 적들과 판가리싸움을 하고있단 말이요!－》

룡진의 곤두선 검은 눈섭은 방금이라도 그의 얼굴에서 떨어져나갈것만 같았다.

《경고하오. 앞으로 다시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누구든지 엄격히 취급하겠소.》

룡진의 목소리에서는 분노를 가까스로 참고있는것이 느껴졌다.

《가서 취소하고 오시오!》

사색이 되여 어쩔바를 모르고 서있던 서기장은 땀방울을 뚝뚝 떨구면서 바람에 불린듯 황황히 방을 나갔다.

룡진은 주먹을 꽉 쥐고 무거운 걸음으로 방을 거닐며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이곳 군의 책임일군들속에서 나타난 이런저런 결함들이 도위원장인 자기 사업의 부족점과 관련이 없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다. 전쟁발발이후 그는 많은 시간을 전선원호와 당면한 사업에 몰두하면서 농촌사업에 주의를 덜 돌렸던것이다.

룡진은 지금 침묵속에서 방을 거닐며 자신을 아프게 매질하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한마디한마디를 똑똑히 힘주어 말했다.

《군위원장동무, 우리들이 결함을 극복하고 내각24차전원회의에서 주신 장군님의 강령적과업들을 정확히 집행관철하려면 농민들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무는 어떻게 생각하오?》

《도위원장동지!》

꼿꼿한 부동자세로 긴장하여 서있던 군위원장이 번쩍 정신을 차리고 자기자신도 놀랍게 생각하면서 뜻밖에도 쟁쟁한 목소리로 서슴없이 응대하였다.

《저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집한 리위원장들의 협의회도 각 면들에 직접 나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소. 그 협의회들에는 나도 참가하겠소.》

룡진은 얼마간 부드럽게, 그러나 요구성이 느껴지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아직도 까딱않고 긴장하여 서있는 군위원장쪽으로 꿰뚫어 보는듯 한 날카로운 시선을 피뜩 던지고 창가로 걸어갔다.

(이 군위원장은 실무능력도 있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밤을 새우며 투신하는 귀중한 장점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다. 이것은 사업을 통해 충분히 료해되고 파악된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자기자신도 모르게 공명심에 사로잡히는 결함과 상부에 잘 보이려고 하는 약점이 있다.) 하고 룡진은 창가에 서서 철길쪽을 바라보며 생각하였다.

창문너머 집들사이로 토막쳐보이는 철길쪽에서 무엇을 호소하는듯한 기적소리가 들렸다.

(모든 사업에서 정력이 있고 열정적인 기질인 이 군위원장은 자기결함도 단호하게 극복할것이다. 그러나 어루만지지 말고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룡진은 이곳 군에서 자신이 하여야 할 사업계획에 바로 이 사람의 치명적인 약점을 타격하여 고쳐주는것도 포함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리룡진은 군소재지에 2시간가량 머무르고 면과 리로 나갔다.

2

후미진 야산밑에 자리잡은 교실근처에서 까까머리사내아이들이 장난에 팔려 정신없이 놀고있는데 문득 수업종소리가 울려왔다. 학생아이들은 산등성이 잔디밭과 과수원울타리곁의 무성한 수풀속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무엇에 놀랜 한떼의 새무리처럼 일시에 우르르 산밑으로 막 뛰여갔다.

까까머리사내아이들이 달려가는 야산밑의 교실앞에는 눈부실만큼 흰 저고리에 진곤색치마를 받쳐입은 처녀교원이 서있었다. 탐탐하면서도 아련해보이는 처녀의 온몸에서는 건강과 탄력이 넘쳐흐르고있었지만 웬일인지 길다란 속눈섭에 덮인 두눈에는 수심과 애수가 비껴있었다. 조금후에 교실로 들어선 처녀는 좀전과는 다르게 눈을 빛내이면서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어린 학생들을 향해 말했다.

《산길에서는 덤비면서 뛰여다녀선 안됩니다. 모두 알았습니까?》

《네!ㅡ》

나어린 학생들이 챙챙한 목소리로 일제히 대답했다.

《그런데 영일학생은 왜 아직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누구랑 함께 놀았습니까?…》

선생님의 물음에 아이들은 얼른 대답을 못하고 서로 소곤거리면서 웅성거렸다.

《함께 논 학생이 없습니까?》 하고 녀선생이 다시 묻자 교실의 맨

뒤에서 얼굴에 긁힌 자욱이 있는 학생이 코를 훌쩍거리며 일어섰다.
《선생님, 영일이는 저하고 파수원울타리곁에서 처음에는 같이 놀댔는데 그다음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영일학생이 들어온 다음 함께 공부를 시작하자요.》
처녀선생은 학생들에게 조용히 복습을 하라고 이르고나서 교실을 나와 오솔길을 따라 과수원쪽으로 올라갔다.
풀숲에 던져진 댕기처럼 좁다란 산등성이오솔길에는 취할듯 한 마른 쑥냄새와 향긋한 풀냄새가 진하게 풍겨왔다. 푸릉푸릉 새들이 날으는 가까운 풀숲에서는 벌들이 붕붕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녀선생은 다박덤불이 자란 비탈의 릉선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걸음을 멈추었다.
《영일학생이예요?》
《…》
인기척은 차츰 가깝게 들려왔으나 그쪽에서는 아무런 응대가 없었다. 잠시후에 누렇게 물들어가는 오리나무가지들사이로 중위의 견장을 단 내무원청년이 불쑥 나섰다.
《순애동무요?》
《에그머니!—》 하고 처녀교원은 약간 당황하여 흠칫 멈춰섰다.
《놀랬어?》
《아이, 어쩌면…》
나직한 처녀의 목소리에는 전혀 다른 여러 감정— 놀램과 기쁨과 슬픔의 음향이 울렸다. 그 처녀의 유순하고 선량해보이는 눈에 떠올랐던 놀라움이 사라지자 기쁨이 반짝이고 뒤따라 까닭모를 눈물이 핑 돌았다. 처녀와 마주선 내무원청년의 검실검실한 얼굴에는 어린애의 티없는 웃음같은 밝고 깨끗한 미소가 떠올랐다.
《여기서 만날줄은 나도 생각못했어. 난 교실로 순애를 찾아가던 길인데… 참, 오늘수업은 끝났소?》
《이제 마지막수업시간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로는 왜 올라왔소?》
《장난에 팔려 아직도 정신없이 놀고있는 학생을 찾아나왔어요. … 아이, 그 애가 오나봐요.》
처녀의 말대로 그들이 마주서있는 좁다란 오솔길쪽으로 까까머리장

난군 학생아이가 풀숲을 마구 헤치며 다가오고있었다. 눈물자욱이 력력한 아이의 되박이마에는 풋밤알만 한 멍든 자욱이 뿔처럼 솟아있었고 풀어헤친 옷자락과 바지가랭이에는 검불들과 우엉씨가 잔뜩 들어붙어있었다.

《영일학생, 어떻게 된 일이예요? 종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녀교원 순애는 장난군애의 온몸에 다닥다닥 들어붙은 우엉씨며 검불들을 깐깐히 뜯어주며 부드럽게 물었다.

《…》

장난군아이는 머리를 떨구고 발장난만 하면서 응대가 없었다.

《장난이 지나쳐요. 이것봐요, 이마에 멍까지 들었어요.》

순애는 학생아이들앞에서 언제나 그러하듯이 탐스런 머리를 조금 숙이고 단어와 문구를 정확히 띠여서 말했다.

《선생님, 아닙니다. 잠잘기 잡으러 과수원에 들어갔댔는데… 라지오를 듣던 사람들이 자기들을 놀래웠다고 성이 나서 막 때렸습니다. 거젚서리 아닙니다.》

장난군아이는 갑자기 훌쩍훌쩍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영일학생, 알겠어요. 그런데 거젚서리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해야 합니다. 잠잘기가 아니라 잠자리이고…》

순애의 말에는 이 고장의 토배기사투리가 전혀 없었으며 발음은 목안에서 미리 다듬어내놓는것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했다.

《얘야!》

지금껏 말없이 한쪽에 비껴서있던 내무원인 철수가 무엇때문인지 불시로 긴장해지면서 장난군아이의 앞으로 다가섰다.

《라지오를 듣고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냐?》

《저기 과수원의 사과움에 있어요.》

까까머리 학생아이는 흠집투성이의 손등으로 이리저리 눈물을 씻으면서 으슥한 과수원쪽을 가리켰다.

《순애, 수업이 끝나면 그냥 거기 있으라구. 내가 과수원에 가보겠소.》

철수의 눈빛은 순식간에 달라지면서 사납게 번쩍거렸다.

《가지 말아요. 그런 무뢰한들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순애는 방금전과는 전혀 딴사람처럼 달라진 그를 놀랍게 바라보며

만류했다.

《그런게 아니요. 요즘…》

무슨 말인지 하려다가 그만두고 철수는 덤불을 마구 헤치며 곧바로 과수원을 향해 달려갔다. 덤불너머로 사라진 철수를 바라보며 섰던 순애는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한숨을 내쉬고 학생아이쪽으로 돌아섰다. 장난군아이는 아직도 서럽게 흐느끼고있었다.

《영일학생, 이젠 됐어요. 어서 가서 공부를 하자요.》

순애는 학생아이를 앞세우고 오솔길을 따라 교실쪽으로 내려갔다.…

마지막수업을 끝낸 다음 순애는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교실에 홀로 앉아 철수를 기다렸다. 한낮이 지나면 이 교실은 해가 산비탈에 가리워 볕이 들지 못하여 서늘하고 축축하였지만 그는 지금 그런것을 느끼지 못했다. 순애의 마음속에는 털어버릴수 없는 불안이 지꿎게 밀려들고있었던것이다.

이름높은 곡창지대인 신재령나무리벌에서 유년시절부터 친숙한 그들의 사랑은 불행하게도 처음부터 순조롭지 못했다. 그 리유는 오래전부터 두 가정의 아버지들이 서로 사이가 나빴던때문이였다.

순애의 아버지인 임성욱은 미국놈들의 무차별폭격에 면소재지 례배당이 불타 무너지기 전까지 목사로 있었다. 언제 어디서나 정중하고 조용한것을 좋아하는 임목사는 소란스럽고 거치른것을 질색하였는데 바로 철수의 아버지인 리인민위원회 위원장 조영모가 성격이 거칠고 우락부락하였으며 걸핏하면 고함을 지르군 하는 과격한 사람이였다.

한편 해방전세월부터 불공평한 하느님에게 쌍욕을 퍼붓던 조영모는 예나지금이나 거짓과 위선을 참지 못하는 성미였는데 그는 면소재지 례배당의 임성욱목사를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찬 사람으로 단정하고있었다. 이처럼 격렬한 감정의 표현을 싫어하며 항상 나직하고 부드럽고 무한히 정중한 임성욱목사와 언제나 충동적이고 격하기 쉬운 리위원장 조영모의 성격은 물과 불처럼 판이하고 대조적이였다. 언제인가 임성욱은 애지중지하는 외동딸인 순애에게 부드러우면서도 신중한 목소리로 《얘야, 단념해라. 너는 소란스러운 그 집에 들어가서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한다. 이건 내가 오래 생각한끝에 하는 말이다.》 하고 말했었다. 그런데 조영모는 벌써 그보다 먼저 외아들인 철수에게

《네가 정신이 온전한 녀석이냐?… 하필이면 그 많은 체니중에 목사집 체니를 고르다니… 이놈아, 애초에 싹 걷어치워라!》 하고 험악한 욕설을 퍼부었었다.

사랑하는 아들딸들의 남다른 관계에 대한 두 집 아버지들의 견해는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각기 이러하였으나 자식들은 그들대로의 지향과 꿈을 안고있었다. 그런데 요즘 마을에서는 리위원장집에서 인물 잘나고 마음씨고운 착실한 며느리감을 골라놓고 군내무서에 있는 아들이 집에 들리기를 기다린다고들 말하고있었다. 사실여부는 그 누구도 정확히 몰랐지만 동네소문은 그러하였다. …

(혹시 그때문에 그가 군에서 불쑥 마을에 온 모양인가?…)

순애는 키낮은 학생들의 걸상에 옴짝 않고 앉아 바람소리, 가랑잎이 버석대는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그는 지금까지 사랑하는 철수와 자기사이에는 그 어떤 뛰여넘을수 없는 막연한 함정이 놓여있는듯이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거칠것 없는 푸른 들판, 해가 잘 비치는 꽃핀 들판처럼 생각되기도 하여 고민도 하였고 기뻐도 했었다. 기실 지금도 순애는 자기들의 사랑이 거의나 불가능한것처럼 생각하면서도 한편 그 행복이 차례졌으면 하는 욕망사이에서 어떻게 마음을 다잡아야 할지 갈팡질팡하고있었다.

(참, 내가 왜 이런 뒤숭숭한 생각을 하고있담. …)

순애는 나직하니 한숨을 내쉬고나서 뒤숭숭한 생각을 털어버리려는듯 소리없이 걸상에서 일어나 교실앞의 작은 공지로 나왔다. 거기에는 군데군데 풀이 자라있었다. 그는 지꿎게 마음속에 파고드는 괴로운 자기의 생각을 잊으려고 공지의 잡초들을 뽑기 시작하였다. 살결고운 순애의 자그마한 손에서는 싱그럽고 향긋한 풀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순애!ㅡ》

언제 다가왔는지 등뒤에서 철수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에그머니ㅡ》

자기 생각에 옴한채 풀을 뽑던 순애는 소스라치듯 놀라며 훌쩍 일어섰다. 그러는 순애를 여겨보며 철수는 빙그레 웃었다.

《풀을 뽑드랬어?》

《네, 우리 군에 도위원장동지가 내려오셨대요. 도위원장동지는 큰길로 지나갈 때마다 여기 교실에 늘 들리군 했어요. 애들이 공부하는 것도 보고 교실주변을 돌아보시군 했는데…》

철수와 마주선 순애는 두입귀에 따스한 미소와 아지 못할 서글픔을 띠우고있었다.

《참, 그렇지…》

철수는 순애가 이야기하는 동안 부드럽고 정확한 그의 목소리에 매혹된듯 잠잠히 듣고있다가 같이 풀을 뽑기 시작했다.

《과수원에서 그 무뢰한들을 만났어요?》 하고 순애가 풀을 뽑으면서 생각난듯 조용히 물었다.

《그림자도 없었소. 순애, 경각성을 높여야 해. 얼마전에 두라면에서 면당위원장 암살미수사건이 있었소. 그 사건에 관계한 몇놈은 체포하였는데 더러 새여나간 놈들이 있어! 개새끼들!… 요즘 반동놈들이 더욱 발악하고있단 말야. …》

조용히 이발을 갈며 이렇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왔고 눈빛은 사납게 번뜩거렸다. 순애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긴장감을 느끼면서 사나와진 철수를 띠여보았다. 그 순간 순애는 평소에 철수를 대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그를 인정사정이란 모르는 무섭기만 한 인간으로 판단할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럴만큼 철수의 표정은 날카롭게 보였던것이다.

교실앞 공지의 잡초들을 말끔히 다 뽑고 일어선 순애와 철수는 키낮은 잡관목들과 덤불속을 오불꼬불 빠져나간 오솔길을 따라 묵묵히 산등성이로 올라갔다.

야산우에는 작달막한 야생능금나무 한그루가 서있었는데 그 주변에는 누렇게 시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드럽고 싱싱한 맛이 있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다. 야산우로 올라온 그들은 말없이 서로 약속이라도 한것처럼 거기에 앉았다. 고추잠자리들이 낮추 떠도는 머리우의 어디에선가 새들이 날으는 소리가 들리고 부드러운 금잔디밭에서는 산메뚜기들이 툭—툭 용수철처럼 탄력있게 튀여올라 사르락거리며 잔등으로 기여올랐다. 잔디밭에 핀 이름없는 아련한 꽃들에서는 비로도처럼 보르르한 산벌들이 붕붕거리고있었다. 야산중턱쪽에서 산비둘기가

그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기라도 하는것처럼 연방 《어ㅡ디?》, 《어ㅡ디?》 하고 구성지게 울었다. 뒤따라 그들이 앉아있는 가까운곳에서 다른 산비둘기가 《여ㅡ기!》, 《여ㅡ기!》 하고 화답했다.

순애와 철수는 저 멀리 아아한 구월산밀까지 아득히 뻗어나간 마을쪽지평선을 바라보고있었다. 거기서는 하늘가가 땅우에 내려앉아 마치 집들의 지붕에 떠받들려있는것 같았다.

《순애, 우리 고향의 가을은 정말 좋구만…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고장처럼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은 없을거야!》

철수는 잔등으로 기여오르는 메뚜기를 잡아 허공으로 날리며 환희에 넘친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난 우리 고향의 가을이 제일 좋구만. 순애는 봄을 좋아하지?》

《그래요. 제게는 봄이 좋아요.》

진곤색치마로 무릎을 감싸고 폭신한 잔디우에 앉은 순애는 쌉쌀그레한 향내를 풍기는 풀대를 꺾어 만지작거리면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응대했다.

《참 순애, 우리들이 아이적에 저기 논고에서 게잡이하던게 생각나? 그때 순애는 큼직한 참게의 집게에 물려 울음을 터뜨렸드랬지. 그때가 어제 있은 일처럼 생생히 추억되누만.… 정말 즐거운 철부지시절이였지…》

철수는 만져보고싶을만큼 함함하고 윤기흐르는 처녀의 숱많은 까만 머리너머 아득한 논벌쪽을 바라보며 소년같은 깨끗한 미소를 지었다. 순애의 티없이 말쑥한 얼굴에도 유순하고 부드러운 웃음이 피여올랐다. 처녀의 머리속으로 갈피없는 추억의 단편들이 주마등처럼 끊임없이 얼핏얼핏 스쳐지나갔다.

《동무의 기억은 정확치 않군요. 난 그때 눈물을 흘렸지만 소리내여 울지는 않은것으로 기억하고있어요.》

《그랬던가…》

그들은 이처럼 처음에는 하고싶은 말과는 별로 상관없고 긴요하지도 않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았다. 그들은 둘이 다같이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싶었고 침묵이 닥쳐올가봐 겁을 냈던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침묵이 오고야말았다.

철수는 사랑하는 순애의 부드럽고 정확한 말씨에 매혹되듯이 지금은 그 처녀의 침묵에 매혹되여 말없이 앉아있었다. 한참동안 그들은 잠자코 앉아서 어딘지 저 멀리 농가들이 있는 마을쪽에서 드문드문 들려오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며 야산밑을 지나가는 달구지의 덜커덕거리는 바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순애!》 하고 드디여 철수쪽에서 먼저 침묵을 깨쳤다.

《나한테 왜 묻지 않아?》

《…》

탐스런 머리를 다소곳이 숙인채 순애는 말이 없었다. 그는 오래동안 침묵했다. 즐거웠던 유년시절의 옛꿈에 잠겨있는지 아니면 괴로운 현재를 생각하고있는지…

《요즘 순애는 혼자서 마음고생을 각별히 많이 했을터인데…》

철수는 괴로움이 뚜렷이 느껴지는 음성으로 말하고 한숨을 쉬였다.

순애는 얼핏 련민에 찬 눈길을 들었다. 그 순간 두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처녀는 자기를 애무하는 청년의 불타는 눈길을 마주보지 못하고 곧 머리를 숙인채 발밑의 싱싱한 잔디잎을 무의식적으로 뜯었다. 그러는 처녀의 손은 알릴듯말듯 가늘게 떨렸다. 순애는 철수의 눈빛에서 무엇이라고 말로써는 도저히 표현할수 없는 짜릿한 기쁨을 느꼈던것이다.

한편 철수는 유순하고 선량한 처녀의 말없는 시선은 모든것을 말하고있다고 생각했다. 그렇다, 처녀는 오히려 자기가 괴롭고 참기 어려운 마음고생을 하더라도 모든 일이 철수, 자기가 행복하기만을 마음속깊이 바라는것이다.

돌연 청년은 아직까지 그렇게 다 말하리라고는 자신도 생각지 못하였던 모든것을 말하고싶은 충동이 솟구쳐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철수는 자기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어느 하나도 빼놓지 않고 꺼리낌없이 다 털어놓고 이야기했다. 처녀가 물었더라면 오히려 그렇게까지는 다 말하지 않았을것이다.

《난 부모님들에게 며느리감을 고르느라 공연히들 부산을 피우지 말라고 한마디하고는 일체 혼사이야기에는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았어. …》 하고 그는 언짢은듯 한 표정으로 조용히 혼자말처럼 덧붙였다.

《할수 없는 일이지. 고생 많이한 좋은 부모님들이긴 하지만…》
《…》
《순애, 속을 태우지 말라구. 나의 가슴속에는 단 한사람이…》 하고 철수는 문득 말을 뚝 끊었다. 그리고는 크고 억센 자기의 손으로 부드럽고 흰 순애의 작은 손을 꽉 쥐였다.
순애는 흑흑 하고 가늘게 흐느끼면서 머리를 깊이 숙였다. 철수의 마지막말은 그의 확고부동한 내면의 목소리라는것을 처녀는 심장으로 느꼈던것이다.
저녁빛이 짙어졌다. 바람이 구월산쪽에서 깃털같은 검푸른 구름을 몰아오고있었다. 어딘가 야산밑의 늪쪽으로부터 진펄의 담담한 냄새와 습기와 감탕냄새가 풍겨오고 머리우 야생능금나무에서 이름을 알수 없는 자그마한 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야산의 빽빽이 서있는 잡관목 줄기우에 저무는 해빛그림자가 얼씬거렸다. 아득히 펼쳐진 벌판 군데군데 섬처럼 들어앉은 마을의 집들에서 저녁연기가 오르고있었다.
《순애, 집으로 가자구.》 하고 철수는 가슴이 후련하게 신선한 공기를 들이키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야산밑으로 내려온 그들은 달구지바퀴자욱이 깊숙이 패인 울퉁불퉁한 소로길에 들어섰다. 마을로부터 여기 야산쪽으로는 인기척이 거의 없는 여러갈래의 길들이 얼기설기 뻗어있었다.
그들이 들어선 한적한 길은 물이 가득찬 늪들을 에돌기도 하고 다자란 왕골과 땅버들이 무성하게 우거진 우묵한 곳으로 사라지기도 하고 황이 든 풀밭으로 오불꼬불 뻗어나가기도 하였다.
해저무는 들판의 사방에서 풀벌레들의 각가지 소음과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리고 머리우에서는 하루살이떼가 떠돌고 모기들이 앵앵거렸다. 이따금 그들의 발밑에서 갑작스레 푸릉푸릉 새들이 날아오르고 뒤따라 늪쪽에서 물오리떼가 흰깃을 번쩍거리며 솟아올라 벌판우로 낮추 떠가기도 하였다. 발자국소리에 놀란 개구리들이 첨벙첨벙 물속으로 뛰여드는 소리도 들렸다.
마을은 이제 그리 멀지 않았지만 그들은 줄곧 말없이 걸었다. 두두룩한 당재언덕에서 좁다란 길은 끝나고 왼쪽으로 꺾이여 농가들과 들판사이로 나있는 골목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뽕나무 몇그루가 서있는

거기에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외딴집이 있었는데 수수대울타리너머로 꿀꿀거리는 돼지들과 헛간기둥에 뿔을 비벼대고있는 하얀 염소들이 엿보였다.

골목길은 외딴집앞을 지나 거기서 곧바로 마을 한복판으로 뻗어있었으나 그들은 말없이 그 집을 에돌아 마을을 안고도는 서강가를 따라 걸었다.

잔잔한 강물은 소리없이 유유히 흐르고있었다. 길다란 풀잎사귀들이 물결을 따라 동동 떠내려가다가 석당다리 교각어방에서 검은머리타래처럼 서로 엉키여 검푸르게 보이는 수면우에서 맴돌았다. 그 주변에서 생겨났다가 없어지군 하는 푸르스름한 물방울들이 석양속에 스며들고있었다. 잔뜩 늘어진 해묵은 수양버들가지들이 물우에 비끼여 희끄무레하게 보이는 저편 방뚝쪽에서 철썩!— 묵직한 잉어가 물을 차고 뛰여올랐다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방뚝과 강변에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의 그림자 하나 없었다. 농가들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시간이였던것이다. 인적없는 강변을 걷는 그들은 내내 말이 없었지만 두사람은 제가끔 꼭같이 하나의 달콤한 고민에 잠기여있음을 느끼고있었다. 그것은 마치도 끊임없이 울려나오는 넋의 속삭임이 그들서로의 목소리를 억누르고있는것 같았다. 그들은 둘이 다같이 이 불안한 기쁨에 속을 태우면서도 그러한 속심을 서로 나누려고는 하지 않았다. 래일의 시련과 장애물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행복에만 취해있고싶었던것이다.

마을쪽으로 들어오는 그들의 앞에 집짐승이 다니느라 짓이겨놓은 진창판이 나졌다. 거기를 지나느라면 흐물흐물한 논뚝을 뛰여건너야 했다. 어렵지 않게 훌쩍 뛰여넘은 철수는 이럴가저럴가하고 발디딜자리를 고르느라고 기우뚱거리며 망설이는 순애에게 말없이 손을 내밀었다. 순애는 수집은듯 얼굴을 숙인채 그의 손을 잡고 동뚝을 뛰여건넜다.

그들은 마을입구에 들어섰다. 차츰 마을로 들어갈수록 뜨락들은 점점 좁아지고 집들은 서로 처마를 잇대고 바투 다가붙어있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컹컹 개짖는 소리가 들리는 마을의 집들은 서서히 저녁어스름에 잠겨들고있었으며 길가에는 구수한 낟알익은 냄새와 생선굽는 냄새가 떠돌고있었다. 려인숙과 국수집, 가게방들이 늘어선

아래장거리를 지나 컴컴한 골목길로 들어서던 그들은 떠들썩한 소리에 놀라 문득 멈춰섰다. 바로 순애의 집 대문앞쪽에서 벅적 떠드는 소리가 들렸던것이다.

《여보 임목사, 정말 래일 길닦이동원에 못 나오겠단 말이요?》

철수의 아버지인 리위원장 조영모의 격한 목소리였다. 뒤따라 나지막하면서도 정확한 임성욱목사의 말소리가 들렸다.

《리위원장, 일손이 없어 그러는거요.》

《무슨 배짱놀음이요?… 그래 말하는 사람은 동원나오면 무슨 변이 나오?》

《나는 감기에 앓는중이라고 이미 말했소.》

《감기도 무슨 병이요? 다른 사람은 뭐 몸이 편해서 다니는줄 아오?…》

《리위원장, 그런 무례한 말은 삼가하오.》

《뭐요?!…》

별안간 채찍으로 후려치듯 조영모는 고함을 질러댔다.

《인민정권을 뭘루 알고 배짱이요? 하느님을 믿구 그러오?… 전선에서는 지금 우리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있소. 새파란 젊은이들이 쓰러지면서도 나라를 지켜 싸우고있단 말이요. 그런데 뭐 말을 삼가하라구? 여보 임목사, 전쟁때 고의로 동원을 회피하는것이 뭔지 알기나 하오? 그게 바로 반동행위란 말요!—》

《여보시오 리위원장, 너무 그러지 마시오. 다른 사람도 자기의 량심을 가지고 사는거요. 이번 동원에는 못 나가겠소.》

임성욱은 격분과 모욕감때문에 침을 꿀꺽 삼키며 무엇인지 말하려다가 모여온 동네사람들을 얼핏 바라보고는 돌아섰다. 그리고는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꼭같은 보조로 걸어다니는 자기의 습관대로 걸음을 재게 하지 않고 대문을 지나 뜨락안으로 들어가버렸다.

《흥, 량심?…》

조영모는 역겨운듯 시커먼 길바닥에 침을 탁 뱉았다. 그리고는 모여선 사람들에게 무슨 구경거리인가고 소리를 내질렀다. 동네사람들은 슬금슬금 집집으로 흩어져갔다. 지팽이삼아 막대기를 짚고 서있던 조영모는 다리가 못 견디게 쑤시는듯 걷지 못하고 오래동안 관절을 주무르며 끙끙거렸다. 그러다가 그는 다리를 심하게 절름거리면서

어둠속의 한부분으로라도 화한듯 옴짝 않고 서있는 순애와 철수의 앞을 지나 개들이 짖어대는 컴컴한 골목길로 걸어갔다.

3

리위원장 조영모는 지독하게 쑤시는 관절의 동통때문에 미간을 찌프리고 물날은 회색캬바직 웃옷 단추를 채우면서 끙끙거리며 방을 나왔다. 언제나 잡다한 일들과 번거로움이 따르는 아침이였다. 채 솟아오르지 못한 해가 지평선 저쪽에서 꾸물거리고있었다.

조영모는 힘겹게 퇴마루를 내려 온밤 관절이 쏘아 퉁퉁 부어오른 왼쪽다리를 겨우 내디디면서 지팽이로 짚고다니는 나무막대기를 기대둔 뜨락 한쪽의 늙은 대추나무밑으로 걸어갔다.

크지 않은 마당 한켠에는 아침이슬에 함빡 젖은 푸르싱싱한 야채밭이 있고 그 주위로 빙 둘러친 수수대울바자에는 누렇게 마른 호박넝쿨이 얼기설기 감겨있었다. 기와를 인 나지막한 집처마에는 마늘 몇타래가 드리워있었으며 굴뚝모퉁이의 헛간에는 지난해의 묵은 짚단과 가마니들이 무둑히 쌓여있었다.

집처마에서 뜨락을 건너 늙은 대추나무사이에 가로질러 매놓은 빨래줄에는 뜨개양말, 치마, 저고리, 두툼한 겨울솜옷이 뚝뚝 굵은 물방울들을 떨구고있었다. 야채밭근처의 울바자쪽에 몰려서있던 닭무리에서 얼룩얼룩한 암닭 한마리가 뒤뚝거리며 쏜살같이 달려나오더니 빨래줄에서 떨어진 물방울을 먹이로 알고 부리로 톡 쪼았다. 뒤이어 야채밭쪽에서 중닭 몇마리가 우르르 일시에 따라오고 굴뚝모퉁이와 울바자곁에 있던 닭들도 불시에 모여들었다. 아둔한 얼룩암닭은 작은 머리를 갸웃거리다가 젖은 빨래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을 이번에도 먹이로 알고 더 세차게 톡 쪼았다. 모여든 닭들은 서로 먼저 쪼으려고 이쪽저쪽으로 뛰여다녔다. 유독 묵은 수닭 한마리만은 거기에 끼여들지 않고 점잖게 멀찌감치서 빛이 날고 군데군데 찢어진 불그레한 큰 변두를 한쪽으로 기웃하고 얼룩암닭의 아둔함과 햇닭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듯이 서서 바라보고있었다.

큰길쪽에서 삽을 든 풍만한 중년녀인이 서둘러대며 꽉 닫긴 대문을 열고 앞뜨락으로 들어섰다. 마당에 몰려들었던 닭들은 후닥닥 놀라 사방으로 뚱겨 달아났다.

《아니 여보, 밤새껏 한잠도 못 자고 앓구서… 그 몸으로 어딜 나가겠시꺄? 좀 누워있구려, 고집부리지 말구…》

중년녀인은 불시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며 막대기를 짚고선 조영모에게로 다가서며 요란스레 혀를 끌끌 찼다.

《누워있으면 더 답답하단 말야!… 한데 당신은 도대체 길닦이현장에선 왜 슬쩍 빠져들어오는거요?》 하고 조영모는 따지듯이 로친네에게 물으며 입가의 근육을 실룩거렸다.

《령감, 큰일났수다. 글쎄 이 일을 어쩌면 좋겠시꺄? 철수 그녀석이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훌쩌덕 군으로 들어가버렸시다.》 하고 녀인은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소란이야?》

조영모는 여전히 무뚝뚝한 목소리로 웨치듯이 말했다.

《그 애 혼사를 이번에는 결판지으려고 하지 않았시꺄. 그런데 그녀석은 무슨 귀신이 붙었는지 어떤 체니두 선보려 하지 않으니 그래 그게 야단 아니우?…》

울상이 된 녀인은 야단스레 삽자루를 집어던지고 퇴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조영모는 또 관절이 쏘는 모양 얼굴을 찌프리고 말이 없었다. 말총처럼 뻣뻣해보이는 총이 센 머리칼이 삔두룩히 일어선 그의 얼굴은 고열로 상기되였으며 류달리 두툼한 입술은 텄고 목은 쉬여있었다. 벌판과 마을의 집집을 쉴새없이 돌아다니며 현물세판정사업, 추수, 전선원호 등 당면한 사업에 몰두하느라 그는 자기 몸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고 또 그럴 경황도 없었던것이다.

《령감, 철수 그녀석은 그저 줄창 임목사집 딸만 생각하고있지 않시꺄… 사실 그 체니인즉 얌전하고 인물이 환한데다 식자까지 겸비하였으니 빠지는데가 없지…》 하고 녀인은 흘끔 조영모의 기색을 살피고나서 말을 이었다.

《령감, 이제라도 눈을 꾹 감고 철수녀석 생각대로 그 체니와 제꺽 혼사를 해주고마는게 어떻겠시꺄?》

《그건 정신빠진 소리야! 사상이 얼떨떨한 목사집과 피를 섞어선 안돼!―》

조영모는 조금도 양보없이 퉁명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에이그, 이건 어디 의논이나 해보겠시까. 제집안에서두 큰소리구 밖에 나가서도 저러니 누가 좋다고 하겠시까!… 령감, 동네에서들 령감을 리위원장이 아니라 욕설위원장이라고들 한대요. 그걸 알고나 있시까?》

《그따위 말들은 사상이 틀려먹은 나쁜놈들이 내돌리는 허튼 수작들이야!―》

그는 갑자기 사나와지면서 날카롭게 눈을 번쩍거렸다. 그리고는 총이 센 머리칼을 삔두룩히 세우고 땅이 패이게 내려박듯 나무막대기를 쿡쿡 내짚으며 서둘러 집뜨락을 나섰다.

행길가로 나서자 조영모는 벌써 어느 사이에 가정내의 이런저런 시름들을 다 잊어버리고 당면하게 집행해야 할 사업들과 산더미같은 일거리들을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각가지 긴요한 일들에 대한 생각에 골몰하면서 그는 길닦이공사를 하고있는 신작로쪽으로 걸어갔다.

마을의 한복판을 가르고 지나간 신작로에는 속새풀과 나무가지들로 위장한 소달구지와 마차들이 모래며 자갈, 황토를 가득 싣고 분주히 오가고있었으며 삽과 곡괭이, 가래를 든 사람들이 벅적 떠들어대면서 길을 닦고있었다. 행길가에 바투 다가앉은 집들의 지붕우에서는 빨갛게 익은 김장고추며 땅땅하게 잘 영근 하얀 박들이 떠오르는 해빛에 반짝거리고있었다.

조영모는 신선한 아침공기를 페부 깊숙이 들이마시고 쑤셔대는 왼쪽다리를 절름거리면서 마을사람들이 일하는 정미소앞으로 다가갔다.

《위원장 나오시우―》

《심하게 앓는다더니 좀 어떻시까?》

《허, 그놈의 관절염이 야단이로군. 그놈의 병엔 신통한 약두 없거던…》

길닦던 마을사람들은 그에게 허리를 굽석하기도 하고 머리만 가볍게 끄덕이기도 하고 그저 빙그레 웃기도 하면서 저마끔 한마디씩 인사를 하는데 조영모는 웬일인지 긴 담배대를 물고 한켠에 떨어져앉아

있는 로인에게로 곧바로 걸어갔다.

《언년이 할아버진 그만 들어가보슈.》 하고 그는 마을사람들을 둘러보며 누구에게라없이 목쉰 소리로 물었다.

《왜 이렇게 동원 안 나온 집이 많소?》

마을사람들은 모두 잠잠했다. 그때 행길가의 나무밑에 앉아서 쉬고 있던 어리숙해보이는 한사람이 훌렁 자리에서 일어나며 관절마디가 으드득 소리를 내도록 기지개를 켰다. 그리고는 버드렁금이발을 드러내며 분명치 않은 소리로 대답했다.

《이런 일에는 힘센 남정들이 동원나와야 한다구 그라니께 그렇잖나요.》

어리숙해보이는 사람은 쉴새없이 눈을 껌벅거렸다. 신작로우의 우묵하게 패인 곳을 메우던 조영모는 머리를 번쩍 들고 어리숙한 그 사람의 얼굴을 피뜻 쳐다보고는 말없이 삽질만 하였다. 좀 모자라는 그와 상대하고싶지 않았던것이다.

《여보게 만수, 그건 자네 처가 그릉하던가?》 하고 담배연기에 코수염이 노랗게 된 중년농민이 시까스르며 큰소리로 말을 보탰다.

《분명 저 사람 처가 그릉했을거야…》

《헤헤… 잘두 아는군.》

어리숙한 농민은 버드렁금이발을 드러내고 히죽이 웃으면서 모래가 들어간 검정고무신을 벗어들고 툭툭 털었다.

《만수 이 사람, 내 언제부터 자네한테 한가지 묻고싶은게 있었네.》 하고 이번에는 행길밑의 공지에서 가래로 흙을 떠올리던 체소한 사람이 가래줄을 당기는 곁의 사람에게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뭔데?…》

버드렁이는 자기를 놀려대려는줄도 모르고 쉴새없이 눈을 껌벅거리면서 터무니없이 작아보이는 머리를 기웃했다. 곁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서로 눈들을 끔쩍거리고 소리없이 시물시물 웃고있었다.

가래줄을 당기던 체소한 사람은 천연스레 시치미를 뚝 떼고 물었다.

《그건 다른게 아니구 드살이 센 자네 처한테 늘쌍 쥐여사는것 같아서 묻는건데… 자네 밤에는 제구실을 하나?》

《헤… 별걸 다 물어대는군.》

몸을 기우뚱했던 어리숙한 버드렁이는 버릇처럼 눈을 껌벅거리면서 분명치 않은 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했다.

《물어보나마나 손바닥을 보듯이 뻔한거야. 필경 저 사람 만수가 당해내지 못할걸!…》 하고 코수염이 노란 중년농민이 입을 한껏 벌리고 길쭉한 손바닥으로 옆구리를 누르면서 큰소리로 웃어댔다.

《옳아, 기승스럽고 입심 센 저 사람 처는 다른 힘도 세겠지-》

《으하하…》

일하던 사람들과 쉬던 사람들이 일시에 어깨를 흔들어대며 웃어제꼈다.

《헤- 또 쌍소리들을 하는군. 터무니없는 사람들이야!-》

어리숙한 버드렁이는 멋적은듯 버룩하니 웃음을 띠우고 훌렁 자리에서 일어나 조영모가 일하는 곳으로 가서 수굿하고 삽질을 했다.

해는 어느새 행길우에 높이 솟아올라있었다. 먼지이는 행길의 좌우켠에는 무르익은 곡식들이 찌는듯 한 더위에 고개를 숙이고있었다. 행길 상공의 푸른 하늘에서는 바람에 찢기운 흰구름들이 헤염치고 해별은 끊임없이 땅을 곧추 내려쪼이고있었다. 신작로는 화끈 달아올라 열기를 내뿜기 시작하고 땡별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땀이 번들거렸다.

웃장거리쪽에서 상고머리에 밀짚농립모를 눌러쓴 다부지게 생긴 면위원장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논판쪽으로 홱 집어던지고 성급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영모동무, 동무네 리 담당구간은 아직두 끝나지 못했구만. 다른 리들에서는 모두 끝났소. 다그치오. 도위원장동지가 벌써 떠났다고 군에서 전화가 왔소!…》 하고 신작로를 두루 살피면서 면위원장이 추궁조로 독촉했다.

조영모는 어디가 심히 아프기라도 한듯이 낯을 찌프렸다. 그는 이래저래 심사가 좋지 않아 아무말없이 삽날을 문문한 땅에 콱 박고 허리를 쭉 폈다.

《참 영모동무, 요새 관절염이 또 말썽을 부린다지? 어서 여기 걱정말고 동무는 들어가 쉬오. 한데 동무네 서기장은 뭘하고있소? 언제봐도 늘쌍 달팽이처럼 잔뜩 사무실에만 들어박혀서… 여보, 마차!-》

이것저것 갑작스레 서두르군 하는 성급한 면위원장은 자갈을 싣고 행길로 지나가는 마차를 향해 다급히 소리쳤다.
《동창리요?》
《그렇시다. 와와… 이런 쳐죽일 놈의 말새끼 도깨비가 붙었나…》
늙수그레한 마차군은 갈때사나운 말을 채찍으로 후려쳐서 멈춰세웠다.
《마차의 자갈을 전부 여기에다 쏟아놓소!》
면위원장이 신작로 한복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마차군에게 지시했다.
《여기는 우리 동창리 담당이 아닌데요.》 하고 마차군은 불만조로 응대했다.
《동창리는 방금 끝났소. 어서 자갈을 부려놓고 황토 한마차만 더 실어오시오.》
《그래두 우리 리위원장한테 가서 알아봐야 하지 않겠나요.》
마차군은 미심쩍어했다.
《그곳 리위원장한테는 내가 말할테니 걱정말고 그렇게 하오.》
성급한 면위원장은 목소리를 높여 총알처럼 빠른 말투로 마차군을 향해 말했다. 그러자 마차군은 마지못해 응하듯 푸접없이 대답했다.
《알겠시다.》
그때 면인민위원회 녀지도원이 무엇때문인지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면위원장앞에 가까이 다가서서 뭐라고 나직이 알렸다. 면위원장은 머리를 끄덕이고 갑작스레 돌아서서 조영모에게로 다가갔다.
《영모동무, 빨리 끝내오. 도위원장동지가 지금 애들의 교실에 들렸다오. 내 이제 곧 지원로력을 보내주겠소.》
《그만두시우. 우리 리의 담당은 우리 힘으로 끝내겠수다. 마을사람들전체를 동원시켜서라도…》
조영모는 목갈린 소리로 무뚝뚝하게 말을 던지고는 행길을 건너 다리를 심하게 절름거리면서 마을의 집들쪽으로 걸어갔다.
《그참, 성질두…》
다부진 면위원장은 담배를 피우려고 바지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냈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갑작스레 다시 집어넣고 신작로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석당교쪽으로 올라갔다.
《자, 빨리들 자갈을 부리지 않겠시까? 리위원장기분이 신통치 않

는데 그러다간 고함소리를 듣겠시다.》

마차우에서 자갈을 부리우던 한 농민이 해빛을 피하여 행길 나무밑에 앉거나 비스듬히 기대고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기저기서 쉬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후득후득 일어나 마차곁으로 모여들었다.

《도위원장이 우리 면에 무슨 일로 나온다우?》

늙수그레한 마차군은 부스럭부스럭 잎담배를 말면서 마차우에 올라선 코수염이 노란 농민에게 뜨직뜨직 물었다.

《큰어른들의 일을 어떻게 우리들이 알겠시꺄. 아니, 저기…》 하고 코수염이 노란 농민은 별안간 마차우에서 행길로 뛰여내리며 다급한 소리로 웨쳤다.

《여보시오! 빨리 마차를 행길복판에서 비켜세우오!—》

《왜 그러시우? 무슨 일인데…》

행길밑의 풀밭에 쭈그리고앉아 잎담배를 피우던 마차군은 길다란 목을 쑥 뽑아들고 무슨 일인가 의아해서 두리번거렸다.

《저기 차가 오는걸 보지 못하우? 도위원장어른의 차같단 말이여!》

어느새 마차군은 행길우로 훌쩍 뛰여올라와서 감탕물이 흐르는 도랑쪽으로 바싹 마차를 비켜세웠다. 길닦던 사람들도 한쪽으로 물러서서 빠르게 다가오는 승용차를 바라보았다. 행길의 먼지를 차던지며 속도있게 달려오던 승용차는 차츰 속도를 늦추더니 천천히 사람들의 앞으로 지나갔다. 위장망을 씌운 차안에는 까까머리 장난군아이들이 가득 타고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았던 되박이마사내애가 길닦던 사람들속의 한 농민을 향해 《아버지—》 하고 손을 흔들어대며 장한듯이 목청껏 소리쳤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여? 장난군인 애들만 가득 탔어!》

사람들은 볕에 그을은 길다란 손을 채양처럼 펴들고 승용차가 사라진 면인민위원회 앞마당쪽을 어이없이 바라보며 술렁거렸다.

《허, 모를 일이로군. 차안에는 도위원장어른이 없었거던.》 하고 코수염이 노란 농민이 잘 들리는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한데 자네가 분명히 살펴봤나?》

근시인 한 농민이 눈을 쪼프리며 흥분된 목소리로 그에게 물었다.

《그렇지 않구. 난 차안을 여겨봤어!》

《그참, 별일이지. …》

《허허, 그녀석들이 호강이군.》

승용차가 지나가고 사람들이 모여서서 술렁거리며 떠드는 소리에 놀랜 말이 행길밑 도랑쪽으로 바투 다가서자 마차는 위태롭게 한켠으로 쏠리면서 기우뚱했다.

《와!— 와!— 저런 백정놈의 말새끼 정신이 쑥 빠졌나?》

술렁거리는 사람들속에 끼여있던 마차군이 불시에 욕설을 퍼부으며 마차앞으로 달려가 채찍을 휘둘렀다. 그러자 말은 요란스레 코를 불며 채찍을 피해 껑충 뛰면서 모재비걸음으로 도랑창에 내려섰다. 어쩔새없이 마차는 엇비듬히 도랑창으로 굴러떨어지고 와르르 자갈들이 쏟아져내렸다. 헉헉 더운김을 내뿜는 말의 벌거죽죽한 코구멍은 크게 벌어지고 입에서는 걸쭉한 거품이 흘렀다.

《이런 쳐죽일 놈의 말새끼라구야!…》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나이지숙한 마차군은 왼손으로는 말의 벌름한 코등을 아귀차게 그러쥐고 오른손으로는 힘껏 고삐를 당기면서 행길우로 잡아끌었으나 마차는 도랑창의 감탕속으로 점차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제길, 뭣들 보구 섰시까. 좀 밀든가 당기든가 하구려!—》

마차군이 버럭 성을 내며 고함을 질러대자 길닦던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왁작 떠들어대며 마차에 달라붙었다. 마차군은 지독한 욕설을 퍼부으면서 채찍을 휘둘러 흠씬 땀이 배여 두귀를 쫑긋거리는 말을 신작로우에로 잡아끌었다. 그러나 말은 지친듯 투르르 코를 불고 허우적거리면서 종시 빠져나오지 못했다. 행길가의 집들에서 사람들이 쓸어나오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도랑창에 빠진 마차를 도우려고 모여들었다.

감탕물이 흐르는 행길가의 도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누런 들판의 울퉁불퉁한 논뚝길로 농립모를 눌러쓴 리룡진이 걸어오고있었다. 좁다란 논뚝에서 신작로우로 올라서던 그는 도랑창에 깊숙이 빠져든 마차를 밀고 잡아끌며 벅적 떠들어대는 사람들속에 끼여들었다.

《자, 일시에 힘을 씁시다. 하나, 둘, 셋!—》

진창이 잔뜩 게발린 마차마퀴를 붙잡고 밀면서 룡진이 례의 잘 울

리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얼마후 간난신고끝에 발굽우의 빳빳한 털까지 진창투성이가 된 지친 말과 마차는 신작로우로 드디여 올라섰다. 피둥피둥 살진 말의 펀펀한 엉뎅이가 땀에 젖어 해빛에 번들거리고 된경을 치른 말은 헉헉 더운김을 내뿜었다.
《자, 이제는 쏟어진 자갈을 제꺽 길우로 퍼올려야겠수다.》
길닦으러 나왔던 한 농민이 삽으로 도랑창속의 자갈들을 퍼올리며 석쉼한 목소리로 동네사람들에게 말했다. 마차를 끌어낸 마을사람들은 일시에 달라붙어 자갈을 퍼올리기 시작했다.
룡진은 그들에게 물었다.
《이 바쁜 가을철에 모두들 무슨 일로 길거리에 나와있습니까?》
《헤… 이 량반이 한심두 하군.》
버드렁이는 눈을 버릇처럼 쉴새없이 껌벅거리며 농립모를 쓰고 바지가랭이가 이슬에 후줄근히 젖은 수수한 옷차림의 낯모를 룡진을 훑겨보며 나무랬다. 뒤따라 도랑에서 손재게 자갈을 퍼올리던 나이들어 보이는 농민이 허리를 쭉 펴면서 룡진에게 물었다.
《우리 면에서 사는것 같지 않은데… 어디로 가는 길손이요?》
《여기까지 왔지요.》
룡진은 빙그레 웃으며 선선히 응대했다.
《여보시오, 눈치는 어디 동냥이라도 보낸 모양이구려. 서두르는걸 보구도 모르겠소.》 하고 손이 잰 농민은 나무라듯 혀를 차며 말을 덧붙였다.
《벌써 닦았어야 할 길을 질질 끌어오다가… 도에서 큰 간부어른이 내려온다고 해서 복닥불이 일었단 말이요.》
《전쟁때문에 미처 손이 미치지 못해 그렇게 됐겠는데 도에서 누가 온다고 서둘러댈건 없지요.》
룡진의 볕에 탄 얼굴에 약간 조롱하는듯 한 미소가 얼핏 떠올랐다 사라졌다.
《쉬— 여보시오, 말조심하우!—》 하고 이번에는 코수염 노란 농민이 룡진을 나무랐다. 그리고는 면인민위원회쪽을 흘끔 바라보고 룡진의 곁으로 저벅저벅 다가와 멈춰서서 잘 들리는 나직한 귀속말로 이

렇게 타일렀다.

《도위원장은 범같은 성미에 사자처럼 엄한 사람이랍디다. 공연히 군과 면간부들이 올리뛰구 내리뛰며 다니겠소. 이런 때 괜히 말을 헛놓다간 된경을 치우!ㅡ》

《그래요. 그럼 말을 조심해야지요.》

룡진은 약간 조롱하는듯 한 선량한 미소를 띠고 말하고는 도랑건너 논벌쪽의 샘터에서 손을 씻고 행길로 올라섰다.

《여보슈, 도랑창에서 마차를 끌어내느라고 수고했시다. 갈길이 바쁘지 않으면 한대 피우고 가지 않겠시꺄?…》

마차군은 미안한듯 큼직한 담배쌈지를 그에게 불쑥 내밀면서 말을 이었다.

《독한 잎담배웨다.》

《그럽시다.》

룡진이 선뜻 잎담배쌈지를 받아들고 한대 말기 시작하자 사람들 여럿이 여기저기서 독한 잎초맛을 보려고 모여왔다.

《허ㅡ 세월은 정말 좋은 세월이로군. 우리 집 애녀석이 도에서 제일웃어른인 도위원장의 차를 타보다니…》 하고 한마을사람이 두툼하니 독한 잎초를 말아물고 승용차가 사라진 면인민위원회앞마당쪽을 건너다보며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옳은 말이웨다.》

마차군이 제꺽 호응했다.

《나는 이 고장에서 40년동안 살아오지만 일본놈때는 도지사는 커녕 군수의 코도 말코인지 개코인지 보지두 못했수다.》

마차군의 말투가 하도 진지하게 들려서 룡진은 소리내여 웃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은 인민의 정권이 아닌가요.》

《그래서 세월이 좋다는거지요.》

《금년농사형편은 어떻습니까?》

룡진이 굵직하게 만 담배를 피우면서 한 농민에게 물었다.

《지랄치는 미국놈폭격속에서 그만하면 수수끔하게 됐지요.》

《여기선 현물세판정에 대해 무슨 의견들이 없습니까.》

《글쎄, 좀 과하게 판정된 논밭들이 더러 있긴 하지만 뭐라우. 피

흘리며 싸우는 전선에 더 많은 식량을 보내줘야 하지 않겠시꺄.》
《헤헤… 거 정말 신통하게 우리 집 녀편네하고 꼭같은 소릴 하는군.》 하고 버드렁이가 눈을 껌벅거리며 불쑥 끼여들었다. 그는 담배연기에 사래가 들여 쿨룩쿨룩 기침을 하고나서 장한듯이 말을 보탰다.
《난 그때문에 녀편네하구 대판으로 막 싸웠는데두…》
《여보게 만수, 그래 그 집안싸움에서 자네가 이기기라도 했나? 보나마나 또 필경 꼼짝을 못했을테지. 그건 뻔한 리치야!…》
《알지도 못하구 그라지 말라요. 난 뭐 늘쌍 밸두 없이 사는줄 아슈, 흥ㅡ》
버드렁이는 갑자기 이상하게 사람이 달라지면서 살기를 띠고 코웃음쳤다.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다 깜짝 놀랐다. 어느때나 늘 어리숙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으로 보이던 그가 금시 눈앞에서 뜻밖에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표독한 사람으로 나타났던것이다.
그때 석당교쪽에서 황토실은 소달구지를 불이 나게 몰아대며 조영모와 다부진 면위원장이 달려왔다. 독한 잎담배를 피우며 쉬던 마을사람들은 후득후득 자리를 털며 일어났다.
《명서동무, 안녕하오?》
룡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면위원장앞으로 걸어갔다.
《아니?!…》
룡진을 뒤늦게 알아본 면위원장과 조영모는 당황해하였다. 그러다가 황급히 건너뛰듯 마주달려오며 인사했다.
《도위원장동지, 여기 계신걸 모르고… 지금 군위원장동무와 협의회에 참가할 면내의 리위원장동무들이 모두 모여서 대기하고있습니다.》
《알겠소.》
그러자 평범한 길손으로 알고 룡진의 말을 탓하기도 하고 그에게 충고도 주었고 흉허물없이 잎초를 나누어피운 마차군과 마을사람들은 일시에 깜짝 놀랐다.
룡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거리는 농민들에게로 돌아섰다. 그는 깊숙이 눌러쓰고있던 밀짚농립모를 벗어들고 얼굴에 선량한 미소를 띠우면서 진정이 느껴지는 어조로 말했다.
《좋은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큼성큼 행길을 건너 리위원장들과 면내의 정권기관일군들이 모여있는 면인민위원회 회의실로 들어섰다. …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룡진은 도내 여러 부문 일군들의 각이한 회의를 지도하면서 자주 그렇게 한것처럼 이번에도 회의에 모인 리위원장들이 자기 리의 실정과 사업에 얼마만큼 정통하고있는가를 엄격하게 묻고 따지면서 료해하기 시작했다.

《도위원장이 리위원장들한테 시험을 받아낸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들을 정확하게 어김없이 집행관철하자면 모든 일군들이 자기가 맡은 직무에 정통하고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러는거요. 우산리위원장동무!—》

《네!》

회의실의 창가쪽에서 사람좋게 보이는 한 남자가 일어섰다.

《우선 동무네 리의 농경지가 얼마나 되는지 말해보오.》

《우리 우산리는 논이 대다수인데 농경지가 대략 760여정보가량 됩니다.》 하고 그는 례의 사람좋은 미소를 띠고 대답했다.

《정확한 수자를 말하오. 동무네 리는 760정보가 아니라 782정보요.》

룡진은 문서를 보지도 않은채 즉시에 틀린 수자를 정정했다.

《금년도 면에 올려보낸 총예상수확고는 얼마나 되오?》

《네, 금년도 종합된 예상수확고는 대략…》

《대략이란 말은 빼고 말하오. 정확한 수자를 말하라고 하지 않았소!》

정확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룡진의 엄격한 물음에 사람좋아보이는 리위원장은 굳어진듯 대답을 못하고 주춤거렸다.

《정확하지 못하면 진실하지 못한것으로 되오. 잘 모르면 대담하게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것이 훨씬 낫소. 앉으시오.》

룡진은 그가 자리에 앉자 약간 음성을 높여 말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정확하지 못한것과 비진실성은 동일한 개념이요. 정확하지 못하고 비진실한것은 우리 사업을 혼란케 하며 우리 인민정권의 권위를 저락시키는 행위로 되오. 누구나 잊지 마시오. … 다음, 동창리위원장동무!》

《네!—》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없이 일어섰다.
《동무네 리의 가축두수는 얼마요?》
《리내의 가축수는… 정확한 수자는 서기장동무가 통계를 잡고있습니다.》
두손을 앞으로 마주잡고선 그는 허둥거리면서 주눅이 들어 룡진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럼 동무는 지금까지 알아보지도 않고있었다는거요?》
《도위원장동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그 말투가 어찌나 어색하고 가련하였던지 룡진은 순간 그처럼 상급앞에서 비굴하게 행동하는 일군에 대한 수치감이 날카롭게 가슴을 쿡 찌르는것을 느꼈다. 몇순간 룡진은 말을 못했다.
《마주잡은 손을 내리시오.》
두드러지게 검은 눈섭을 미간으로 모으면서 룡진은 말을 계속했다.
《동무는 우선 누구요?》
《예?!…》
혼란에 빠진 소심한 리위원장은 어깨를 가늘게 떨면서 어쩔바를 몰라 허둥지둥했다. 당황한 눈길을 이곳저곳으로 돌리던 그는 이윽고 자기를 수습한듯 의외에도 힘차게 대답했다.
《리인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아니, 첫째로는 혁명전사요. 장군님의 전사란 말요!》
룡진은 격한 감정을 누르느라 조금 동안을 두었다가 낮으나 잘 들리는 맑고 명확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여기 모인 우리는 다같은 장군님의 전사이고 혁명동지요. 이왕 말이 난 기회에 군위원장동무와 면위원장동무에게도 충고하겠소. 정상적으로 하게 되여있는 길닦이공사를 어째서 못하고있다가 내가 온다고 서둘러대며 가을추수에 바쁜 사람들을 동원시켰소. 잘된 일이 아니요.》 하고 룡진은 리위원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리위원장동무, 자리에 앉으시오. 앉아서 혁명전사의 사명과 존엄에 대해 생각하여보시오!—》

4

밋밋하게 경사진 둔덕우에 논벌들사이로 흘러가는 서강을 굽어보며 면소재지인 석당마을이 솟아있다.

신재령나무리벌의 촌들중에서 가장 오랜 촌에 속하는 이 마을은 어느때부터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고장에서는 마을이름을 돌무지라고 불러온다. 린근의 촌들에서는 물론이고 군과 도내의 사람들속에서도 석당리라는 행정구역적인 명칭보다 돌무지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마을유래에 의하면 석당이란 말은 돌못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지만 몇백년전에는 이 마을에 큰 돌못이 있었다고 한다. 그 당시의 이 지방 사람들은 돌못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에서 돌못촌, 혹은 쉽게 돌못이라고 불렀는데 오랜 세월을 거쳐오는 사이에 돌못이라는 말이 어음변화되여 돌무지로 되였다는것이다. …

돌무지마을은 고스란히 전체가 무연한 논벌 한가운데 놓여있다. 돌무지의 맞은켠앞벌은 멀리에 오랜 농가들이 드문드문 서있는 작은 촌들에서 잠간 멈추는듯 하다가 다시 동쪽으로 까마득히 바라보이는 재령군소재지근처까지 물결쳐내닫고 뒤벌은 지경들을 넘어 서쪽지평선 저 멀리로 거침없이 뻗어나가 구월산밑에서 끝난다.

돌무지마을의 한복판을 가르고 지나간 행길은 남쪽 신천군소재지에서 북쪽인 안악군소재지로 뻗어있는 외통신작로인데 집들은 이 행길을 따라 처마를 잇대고 총총히 늘어서있다. 북쪽으로 마을을 벗어난 곳에는 왕골과 줄풀들이 자라는 크고작은 늪들과 거무스레한 감탕수렁이 있고 그 건너에 달구지며 차들이 다니는 오랜 넓은 방뚝이 서강과 나란히 멀리까지 뻗어있다. 방뚝밑의 이쪽과 서강건너쪽은 모두가 논벌이다.

갈색의 누런 벌에서는 파아란 하늘빛선을 두른 저 멀리 지평선까지 사람들이 벼가을하느라고 바글바글 끓었다. 잘 벼린 시퍼런 낫들이 해빛에 번쩍이는 논판에서 밑을 잘리운 벼대들이 스륵스륵 나가눕고 벌

은 베여놓은 벼단무지들로 얼룩져갔다.

앞벌 소로쪽에서 벼단싣고 마을로 들어가는 달구지군이 계절에 취해 한소리 멋들어지게 뽑아낸다.

신재—령나무리는 올벼풍년이 들었구요
시화나—년—풍에 년풍년이 들—었네
얼씨—구나 절씨구—지화자—좋다
…

동뚝너머 서강가논벌에서 벼가을하던 청좋은 농민이 구월산쪽을 바라보며 제꺽 늘어지게 받아넘긴다.

높고높은 산상봉인데 올라가보니 평산이라
에에헤—산이로구나
이산저산 량산간에 울고가느니 곡산이라
에헤 에헤— 산이로구나—
…

면소재지인 돌무지마을로부터 룡진을 따라 군위원장과 일군들 몇사람이 흥성거리는 논벌로 나오고있었다. 룡진은 소와 사람들의 발자국에 움푹움푹 패이고 으깨여진 울퉁불퉁한 좁은 논뚝길로 올라섰다. 그는 뒤따르는 어지간히 몸이 좋은 군위원장에게 다감한 목소리로 물었다.

《저 노래는 〈황해산가〉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직 회의기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듯 심각한 표정으로 걷던 군위원장이 얼핏 미소를 띠우며 대답했다.

《가을의 논벌에서 농민들의 흥겨운 노래소리를 듣느라면 나는 늘쌍 우리 도의 한 시인이 지은 시가 떠오르군 하오. 군위원장동무도 읽었을거요, 〈휘영청 가을달은 밝아〉라는 시 말이요.》 하고 룡진은 논벌의 작황들을 유심히 살피면서 역시 다감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저도 그 시를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활기를 회복한 군위원장이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을 띠우며 룡진에게로 한걸음 다가갔다. 그다음 그는 생동하고 정력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전 그 시에서 이런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들어 외우고있습니다.

…
가신 조상네 목마른 소원이며
우리 농민들의 뜻 어련히 엮어
ㅡ〈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토지는 자기의 로력으로
　　경작하는자만이 가질수 있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크나큰 이름으로 베푼
헌법이야기도 장히 하려니와
…

도위원장동지, 저는 시에 대해서 깊이는 모르지만 그 시인이 장군님 은덕으로 땅을 분여받은 우리 농민들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처럼 느끼면서 시를 썼다는 생각이 듭니다.》

《옳소, 내가 그 시인의 시들을 좋아하는것도 바로 그때문이요.》

룡진은 뒤따르는 군위원장의 말투와 어조에서 그가 활기를 회복한것을 기쁘게 의식하면서 벼가을하는 농민들쪽으로 걸어갔다.

《도위원장동지!ㅡ》

룡진의 뒤를 따라오던 일군들속에서 갑자기 면위원장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 강승한시인은 바로 이곳 우리 돌무지마을태생입니다.》

《그렇소? 동무네 마을에서 참 좋은 시인을 낳았구만.》

룡진은 소리내여 유쾌히 웃고 가슴뿌듯해지는 잘 여문 낟알향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면서 여러 사람이 모여선 논판쪽으로 내려섰다.

떠들썩한 그곳 논판에서는 현물세판정원들과 농민 몇사람이 저울, 자, 키, 홅개를 들고 수확고를 판정하면서 옳다거니 그렇지 않다거니

옥신각신 다투고있었다.

《농사군은 눈짐작으로 작황을 알아맞히지 않시꺄. 하니께이 내 말은 그라지 말고 다시 판정해보자는건데…》

성칼사납게 생긴 가무잡잡한 농민이 진득거리는 감탕논판에 힝—코를 풀어던지고나서 새된 소리를 질러댔다.

《그래 내가 티기는 말을 합니꺄?… 구리니지리니 아옹다옹 다툴것없이 다시 해보자구 하지 않시꺄?》

《예끼, 이 사람. 젠년에도 치사하게 그라더니… 겁년에 또 그릉하면 못써. 눈짐작이란 무슨 당치 않은 소린가 말야. 그래 이 저울이 임자 눈짐작보다 못하단 말인가!》

어리무던해보이는 중년의 판정원이 화가 나서 손에 든 저울을 흔들어대느라 어깨까지 떨면서 참다못해 소리쳤다.

《아니, 누가 저울을 어이십합니꺄? 평뜨기를 다시 하자구 그라지 않시꺄!》 하고 파랗게 질린 성칼사나운 농민이 못뽑이같은 두팔을 내흔들며 맞받아 소리를 질러댔다.

《쉬— 그만들 하라구. 도위원장동지가 이리로 온단 말야!—》

판정원곁에 서있던 면인민위원회의 한 일군이 가까이 다가오는 룡진일행을 먼저 알아보고 휘파람이라도 부는것 같은 빠른 속삭임으로 말했다. 낮으나 조급하게 울리는 그 말소리에 성이 나서 삿대질을 하며 떠들썩하니 다투던 사람들은 불시로 침묵하였다.

《수고들 합니다.》

룡진은 눌러썼던 농립모를 약간 우로 올리며 그들에게로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그들을 향해 스스럼없는 어조로 말했다.

《판정을 하던것 같은데 어서들 하오.》

《도위원장동지, 여기 논은… 방금전에 판정을 끝냈습니다.》 하고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면서 면일군이 긴장하여 꼿꼿이 서서 룡진에게 어물어물 보고했다.

《이 논의 주인은 누굽니까?》

잠잠히 서있는 사람들을 얼핏 둘러보던 룡진의 꿰뚫어보는듯 한 시선은 성칼사나와보이는 가무잡잡한 농민에게서 멎었다.

《녜, 저울시다.》
성칼사나운 농민은 자신도 모르는 자기 마음속 깊이까지 꿰뚫어보는듯 한 룡진의 정기있게 번쩍이는 시선을 마주보지 못하고 주춤거리다가 조금 앞으로 나섰다.
《수확고판정은 정확히 됐는가요?… 의견이 없습니까?》
《제 생각과는 좀…》 하고 흥분한 목소리로 참지 못하고 의견을 말하려던 성칼사나운 농민은 뒤에서 누군가 슬며시 잔등을 꾹 찌르는것을 느끼고 갑자기 말을 뚝 끊었다.
《판정에 의견이 있는것 같은데 주저하지 말고 말을 하오.》
룡진의 재촉에 성칼사나운 농민은 잠시 망설이는듯 주춤거렸으나 그래도 종시 자기 의견을 더듬더듬 피력했다.
《암만 생각해봐두 제 눈짐작하구는… 판정이 좀 티기는것 같아서…》
《티기다는것은 무슨 말입니까?》
룡진이 의아하여 난색을 짓고 서있는 일군들을 향해 나직이 물었다.
《틀린다는 말입니다.》 하고 룡진의 곁에서 몇걸음 떨어져 서있던 면위원장이 재빨리 앞으로 나서며 농민의 토배기사투리를 정정했다.
《쳇— 눈짐작을 아무렴 저울에 비길가!—》
어리무던한 판정원이 참지 못하고 아니꼬운 표정으로 왼고개를 틀면서 증을 내며 잘 들리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렇지 않소. 진짜농사군은 눈짐작으로 작황을 정확히 알아내오.》 하고 룡진은 벼이삭 하나를 뽑아들면서 말을 보탰다.
《이삭의 크기, 수정 안된 알, 한평에 몇대 섰는가 그리고 벼알의 여문상태와 천알무게를 눈으로 정확히 알아보는것이 진짜배기 농민이요. 그걸 목견판정이라고 하던가요?》
《녜, 그렇습지요!》
룡진의 앞에 긴장한 표정으로 서있던 성칼사나운 농민은 불시로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에 넘쳐 노상 어깨를 실룩실룩했다.
《이 벼이삭엔 몇알 열린것 같소?》
판정이 끝났다고 말한 면일군에게로 시선을 모으며 룡진이 빙그레 미소를 짓고 물었다. 면일군은 발을 저겨디디며 생각해보느라 머리를 기웃하고 벼이삭을 주의깊이 살폈다.

《한 70～80알쯤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불렀소. 물론 우리는 이제 앞으로 100～150알정도 그리고 그이상 열리는 벼종자를 연구해낼거요. 그러나 아직은… 이 벼이삭은 60알정도일거요!－》

《그참, 어쩌면 신통히도 내 눈짐작하고 꼭 같군…》 하고 성칼사나운 논주인이 어깨를 실룩거리며 혼자말로 중얼거렸다.

《강냉이는 한이삭에 몇알 달리오?》

룡진이 이번에는 군위원장과 면위원장을 바라보았다.

《…》

군위원장과 면위원장은 서로 마주보며 자신이 없는듯 침묵한채 선뜻 대답을 못했다.

《400알내외요. 수수는 잘해서 900～1 000알, 그러니 동무들은 네모깨와 여섯모깨의 알수는 아예 모르겠소?》

《아니, 네모깨와 여섯모깨의 알수까지?… 그러고보니 도위원장동지는 정말 농산박사갈구만요.》 하고 말을 못하고 난감한 낯색으로 서있던 군위원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감탄했다.

《그게 어디 농산박사들만 아는거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되오. 장군님께서는 농촌부문을 지도하는 우리 인민정권기관의 모든 일군들이 두엄빛과 흙빛까지도 정확히 가려볼줄 알아야 한다고 늘 가르치고 계시오. 그런데 난 아직 두엄빛과 흙빛을 자신있게 가려보지 못하오.》

룡진의 꾸밈없는 솔직하고 절절한 이야기에서 군위원장과 면일군들은 가슴을 쿡－ 찌르는듯 한 자책을 느꼈다.

《이제 수확고판정을 다시하도록 하면 별다른 의견이 없겠지요.》

룡진은 시원한 미소를 띠고 잘 울리는 목소리로 논주인에게 스스럼없이 물었다.

《네…네.》

성칼사나운 가무잡잡한 농민은 만족하여 어깨를 눈에 띄게 연방 실룩거리면서 빤빤히 깎은 머리를 꾸벅꾸벅했다.

《그럼 수고들 하오.》

룡진과 그를 따라선 일군들이 자리를 뜨려는데 말쑥한 차림의 딱 바라진 한 농민이 기다린듯이 앞으로 나섰다.

《저… 도위원장어른, 제가 한말씀 여쭈어도 되겠나요?》

룡진은 그 농민쪽으로 묵직해보이는 머리를 돌렸다. 그 농민의 말투며 어조가 하도 간사하고 역하게 들려서 한순간 그는 자기도 모르게 미간으로 두드러지게 검은 눈섭을 모았다. 그러나 룡진은 곧 정중한 어조로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안된 논배미는 애당초 보지도 않고 잘된 논배미만 꼭꼭 짚어서 판정하는건 어떻게 하나요?》

《그건 잘못된거요. 동무들이 그렇게 판정을 했소?》

눈이 엄해지면서 룡진이 판정원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잘 안된 논만 많다고 자꾸 우겨대서…》

판정을 책임졌던 면일군은 컴컴한 얼굴로 당황하여 더듬거리면서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뒤따라 말쑥한 차림의 딱 바라진 농민이 기세가 올라 침방울을 사방으로 튕기면서 기고만장하여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글쎄 내가 그렇다구 우기지 않게 됐시까?… 솔직한 말루 검년에 다른 집의 논들보다 우리 논은 잘 안된 논배미가 얼마나 많시꺄. 그런데두 막무가내로 애당초부터 보지두 않으려고 하지 않았시꺄. 내가 그래 지금 거짓말을 합니꺄. … 이래뵈두 난 푼수없이 그라지는 않시다요!》

룡진은 한껏 기세가 올라 장한듯이 떠들어대는 딱 바라진 농민의 별에 타지 않은 희멀쑥한 얼굴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묵묵히 주시했다.

《동무는 잘 짓지 못한 제 논 농사허물을 그렇게도 남한테 보이고 싶습니까?》

룡진은 조용히, 지어 정중하게 아무런 분격도 느껴지지 않는 어조로 말하였으나 한껏 흥분하여 떠들던 농민을 한순간에 침묵케 했다. 룡진은 말을 계속했다.

《우리는 근면하고 성실한 진짜농사군은 남한테 그런 논배미를 보이는걸 부끄럽게 여기는것으로 알고있소.》

기고만장하여 장한듯이 법석 떠들어대던 말쑥한 차림의 농민은 불시에 기가 꺾여 멋적은듯 연송 눈만 껌벅거렸고 판정원들도 슬며시 한숨짓고 잠잠했다.

《요구대로 판정을 다시 하오.》

룡진은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돌아서 석당리논벌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군위원장이 조금 떨어져서 얼굴을 찌프리고 면위원장에게 나직이 화를 냈다.

《도위원장동지앞에서 이게 무슨 망신이요? 여보 면위원장동무, 석당리논벌에서도 또 이런걸 보이겠소? 참…》

못마땅해하는 군위원장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면위원장은 갑작스레 무엇엔가 발을 걸채면서 성급히 옆의 논뚝을 훌쩍 넘어 돌진하는듯 한 걸음으로 먼저 앞질러나갔다. …

초가을의 부드러운 해별에 휩싸인 석당리논벌에서는 총이 센 머리칼이 뻣두룩이 일어선 리위원장 조영모가 무엇때문인지 서기장에게 성이 나서 큰소리를 질러대고있었다.

《여보, 그건 무슨 얼떨떨한 소린가 말이요?… 그렇게도 동정이 가오?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전선에 보내줘야 할 이런 때에 서기장이란 사람이 그래 투전군, 예수쟁이, 건달군들의 그따위 시비질에 머리를 기웃거리는게 옳소? 여보, 서기장동무, 사상이 안개속같은 그따위들은 움씰하면 반동놈들편으로 돌아선단 말이요. 아직두 동무는 그걸 모른단 말요?》

조영모의 볕에 탄 검붉은 목에는 굵다란 퍼런 피줄이 일어서고 시커먼 코구멍은 누를수 없는 분노로 벌름거렸다.

《너무 그러지 마시라요. 내가 언제 그들을 동정했시꺄. 판정이 일부 잘못됐다구 시비하기에 참작하자구 제기하지 않시꺄. …》 하고 논뚝밑에선 리서기장이 소심한 목소리로 응대하면서 다가온 면위원장을 흘끔 바라보았다.

《여기선 또 무슨 일이요?… 조동무, 왜 잔뜩 불쾌한 기분이요?》

면위원장이 저쯤 다가오는 룡진의 일행쪽을 뒤돌아보며 성급한 목소리로 다그쳐대듯 빠르게 물었다.

《기분이 불쾌할뿐아니라 이건 정말 기분이 더럽시다.》

성을 누르지 못한 조영모의 대답은 퉁명스럽고 거칠었다.

《여보 영모동무, 무슨 일인지 좀 참소. 그러지 않아도 저쪽 동창리에서 도위원장동지에게 말썽많은 판정현장만 눈에 띄였드랬는데… 조동무, 내 말뜻을 알겠소?》

그러는 사이에 논뚝을 넘어선 룡진이 그들의 가까이로 다가왔다.

조영모는 성큼성큼 크게 몇걸음 마주나가 말없이 뻣두룩이 일어선 머리를 꾸벅 숙였다. 룡진은 손을 내밀어 돌덩이같이 묵직하고 큼직한 조영모의 손을 잡았다.

《수고들 하오. 오면서 보니 석당리논벌이 작황은 아주 좋구만. 현물세판정사업은 리적으로 얼마나 됐소?》 하고 룡진이 류달리 좋은 기분으로 물었다.

《다 끝냈습니다.》

《좋은 일이요. 그런데 석당리에선 현물세판정에 의견있는 농민들은 없었소?》

《몇집이 돼먹지 못하게 따따부따 시비를 거는것을 짓눌러버렸습니다.》

《짓눌러버리다니?… 리위원장동무,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룡진은 엄격한 시선속에 조영모를 끌어넣으면서 놀라 물었다. 그러나 조영모는 끄떡않고 목이 쉰 소리로 태연히 응대했다.

《너절한 투전군, 예수쟁이, 건달군따위들이 지금까지도 〈판정이 잘못됐다, 과하다〉하면서 말썽입니다. 도위원장동지, 그런것들은 나라가 지금 피를 흘리며 어려운 전쟁을 겪고있는데도 오불관언하고 그저 줄창 제 리속만 차리려드는 사상이 안개속같은 분자들입니다!》 하고 그는 억센 손가락으로 으드득 소리를 내면서 주먹을 부르쥐고 말을 덧붙였다.

《무슨 일에건 매사에 시비를 걸지 못하면 배를 앓는 그런자들을 오늘 저녁 리총회에서 정신이 버쩍 들게 하겠습니다.》

《리위원장동무!—》

순간 상대편의 눈길을 서늘케 하는 룡진의 크고 검은 눈이 번쩍했다.

《현물세판정은 농민들에게서 더두 말고 덜 받지도 않는 원칙에서 부과해야 하는거요. 이건 장군님의 말씀이요!》

그의 목소리와 눈에서는 감출수 없는 불만과 유감과 눌러참고있는 노여움이 느껴졌다. 룡진은 잠시 침묵한채 조영모의 볕에 탄 시무룩한 얼굴을 면바로 쳐다보다가 이번에는 조금도 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리위원장동무, 어느때 어디서나 잊지 말고 명심하오. 우리들은 장군님의 말씀을 집행관철하는데서 단 한치도 제멋대로 어겨서는 안되오. 이건 그이의 혁명전사들인 우리모두의 신성한 의무이고 좌우명이요.》

그런 다음 그는 군위원장과 면위원장에게로 시선을 돌리면서 엄하게 그러나 여전히 어성은 높이지 않고 말했다.

《오늘 저녁에 열게 된 리총회들에는 군과 면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들이 한개 리단위씩 맡고 나가야겠소. 우선 내각전원회의에서 하신 장군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설하여주고 농민들속에 들어가 정치사업을 잘하도록 하시오. 군위원장동무, 여기 면소재지 마을인 석당리총회에는 내가 직접 나가겠소!》

《도위원장동지, 그렇게 곧 조직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우울한 낯색으로 잠잠히 서있던 군위원장이 번쩍 머리를 들면서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리 멀지 않은 논벌 소로길의 나지막한 언덕에서 달구지군이 벼단을 높이 싣고 힘겨워하는 소를 몰아대는 소리가 들렸다. 하루해는 저물어갔다. 이미 여름철의 여문 광채를 잃어버린 하늘은 희미하게 푸른빛을 띠고있었다. 잠자리들이 낮추 떠도는 대기중에는 마른쑥과 젖은 짚의 냄새가 풍겼다. 마을의 굴뚝들우로는 구수한 푸른 연기가 타래쳐오르고있었다.

5

리위원장 조영모와 룡진이 회의장으로 왔을 때는 이미 회의실은 모인 사람들로 가득차있었다. 로인, 중년남자, 녀자, 청년들과 처녀들이 누군가를 놀려주며 나직이 웃기도 하고 롱담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씩뚝깍뚝 떠들어대고있었다. 회의실문이 열릴 때마다 사람의 입김과 담배연기가 섞여서 구름처럼 흘러나왔다. 얼굴이 상기되고 입술이 튼 조영모가 얼마간 긴장되고 그러나 어깨를 쭉 펴고 꿋꿋한 자세로 왼쪽다리를 약간 절름거리며 선두에 서서 회의실안으로 들어섰다. 씁

쓸하고 질은 써레기담배냄새가 쿡— 코를 찔렀다.

군중은 잠잣해지기 시작했다. 크지 않은 회의실의 통로에까지 빼곡이 조여앉아있던 농민들은 길을 티워주면서 어줍게 그들을 바라보았다. 조영모의 뒤로 들어서는 룡진을 보자 회의장안의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옳군그래, 바로 그 어른이야!—》 하고 통로가까이에 앉은 코수염 노란 농민이 무릎을 철썩 두드리며 기쁜듯이 혼자소리로 중얼댔다.

《뭐, 자네가 도위원장어른을 언제 만나보기라도 했나?》

손끝까지 주름이 조글조글한 로인이 불꺼진 담배대로 그의 옆을 쿡 찌르며 그 나이에 꽤 쨍쨍한 목소리로 핀잔하듯 말했다.

《아따, 만나보지 않구요. 길닦이동원때 우린 행길가에 마주앉아 독한 잎초를 말아피우며 농사얘기를 했시다.》

《허, 그런 일이 있었나?… 참 무던한 어른이군.》

로인은 감탄하면서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모르는 소리웨다. 누가 그라는데 아주 엄한 사람이랍디다.》 하고 뒤쪽에서 누가 나직한 소리로 끼여들었다.

《그럴지도 모르지.》

《괜한 소리들 말라니, 소탈하구 무던한 어른이야. 술한 코흘리개 마을아이들이 저분이 타는 차를 탔댔어!—》

회의실의 맨앞에는 학교에서 쓰던 책상을 두개 합치고 하얀 무명천을 씌워놓은 회의집행석이 있고 그옆에는 널판자로 만든 연탁이 놓여있었다. 조영모와 룡진은 거기로 나가 자리에 앉았다.

리서기장이 그들의 뒤로 소리없이 조심조심 다가와 룡진을 향해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조영모에게 귀속말로 회의참가정형을 차근차근 보고했다. 회의에 빠진 농가들에 대한 서기장의 보고를 듣고 조영모의 얼굴은 불시에 이그러졌다.

《그래 왜들 빠졌소? 리유가 대체 뭔가 말이요? 집집에는 다니며 모두 알려주지 않았소?》 하고 조영모는 서기장을 마주보며 나직나직한 소리로 따졌다.

《글쎄 떠먹이듯이 집집마다 알렸는데… 곧 알아보겠습니다.》

쫓기듯 서기장은 초조하게 대답했다.

《알아보우, 무슨놈의 버르장머리들이야. 사상들이 틀려먹었거던… 회의를 시작합시다.》 하고 조영모는 나직하나 열기있게 속삭였다.
리서기장이 갑자기 가슴을 쭉 펴고 연탁으로 걸어나와 개회를 선언했다.
《오늘회의에서는 〈당면한 가을추수를 빨리 끝내며 다음해 영농준비를 잘하기 위한 과업〉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리위원장동무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리서기장의 말이 떨어지자 물가의 물결소리와 같던 군중의 말소리들이 쑥 잦아들고 조용해지기 시작했다.
조영모는 일어서서 말총처럼 총이 센 뻣두룩한 머리를 수습했다. 그는 연탁으로 걸어나와 반시간쯤 말했는데 여느 회의때에는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몇번씩 도중에 물을 마시군 하였지만 오늘은 쉬지 않고 말을 계속했다. 긴장했던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그의 목소리는 갈렸다.
장내는 침묵했다. 방공막을 빈틈없이 드리운 회의실은 점점 더 무더워지고 벌그레한 촉수낮은 전등빛속에서 사람들의 이마에 땀이 번득거렸다.
조영모는 리내 농가들의 현물세판정정형과 추수형편을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전시농업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명년도의 과업들에 대해서 말했다.
리위원장 조영모의 발언이 끝난 다음 모범농민 몇사람이 차례로 나와 가을추수를 빨리 끝내고 현물세를 기한전에 납부하며 명년도 영농준비를 실속있게 하는것으로 전선을 원호하겠다는 결의들을 피력했다.
《좋은 결의들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탄없이 제기를 하시오.》 하고 지금까지 침묵하고있던 룡진이 잘 울리는 목소리로 소탈하게 말하면서 장내를 둘러보았다.
잠잠하던 회의장은 갑자기 물목이 터진듯 이곳저곳 사방에서 일시에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활기를 띤 사람들은 서로 수군대거니, 어줍게 웃거니했다.
《조용들 못하겠소!》
조영모가 몸을 반쯤 일으키고 회의장을 휘둘러보며 무뚝뚝하게 소

리쳤다.

룡진은 미소를 띠고 가벼운 손짓으로 조영모를 제지시키며 말을 계속했다.

《현물세판정도 그렇고 당면한 추수와 가을밀보리파종에서도 애로되는 점이나 의견들이 있으면 주저말고 이야기들 하시오. 우선 먼저 현물세판정부터 의견을 듣겠습니다.》

회의장의 맨 앞자리에서 좀전에 결의토론을 한 중년농민이 선참으로 일어나 지금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쟁때인데 현물세가 다소 과하게 부과되였다 해도 전선을 원호하는셈치고 자기들은 의견이 없다고 듣기 좋은 저음의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선 안됩니다. 장군님께서는 바로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이 없다고 하여 현물세를 더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만큼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기하시오. 도위원장이 참가한 회의라고 별다르게 생각할것도 없고 격식도 필요없소.》

룡진의 말이 끝나자 장내는 다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없었다.

룡진은 앞줄의 왼켠쪽에 앉은 얼굴이 넙적하고 얽음얽음 얽은 농민에게 시선을 모으고 물었다.

《동무는 현물세판정에 의견이 없소?》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데요.》

얽음얽음 얽은 중로배의 농민은 자리에서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석쉼한 목소리로 뜨직뜨직 대답하면서 히죽이 웃었다. 그의 순박하고 천진해보이는 커다란 눈에는 능청스러운 농민적인 지혜가 엿보였다.

《그럼 도인민위원회나 군과 면, 리일군들의 사업에서 고쳤으면 하는 결함들은 어떤것이라고 생각하오?》

《뭐, 저같은 농군이 언제 그런 푼수에 어긋나는 생각을 할 겨를이 있나요.》 하고 중로배의 농민은 내키지 않는듯 한 웃음을 띠우면서 애매하게 대답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거요. 간부들은 다 군중속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또 정권기관의 지도일군들이 자기를 항상 비쳐보는 거울은 바로 군

중입니다.》 하고 룡진은 정색하여 진정이 느껴지는 어조로 말했다.
허리를 구부정하고 서있던 중로배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히죽이 웃었다.
《그렇시꺄. 그렇다면 간부들이 줄창 그 거울앞에 나서면 되지 않겠시꺄.》
불쑥 룡진은 중로배농민의 능청스러운 응대에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옳습니다. 그건 우리 정권기관의 일군들이 늘쌍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정당한 비판으로 되는 말입니다.》
장내에서도 폭소가 터지고 회의실은 한동안 법석했다. 얼마간 긴장했던 조영모는 자기의 크고 든든한 이발을 드러내보이며 시원한 미소를 띠였다. 그의 무뚝뚝하고 우락부락해보이는 검붉은 얼굴은 그 미소로 하여 곧 선량해보였다.
사람들은 스스럼없어져 목소리를 높여 자기들의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으며 결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회의가 끝나갈무렵에 어슴푸레한 회의장 뒤자리쪽에서 불평에 찬 누군가의 째는듯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가을추수도 빨리 하래, 가을밀보리파종도 벌써부터 서두르래, 래년도 영농준비도 다그치라지, 어디 그뿐입니꺄. 회의 오라, 동원 나오라, 무얼 내라… 너무 볶아라 닦아라 한단 말이웨다. 이건 어디 정신을 차리겠시꺄!—》
순간 회의집행석에 앉은 조영모는 갑자기 전기에 치우기라도 한듯 흠칫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거멓게 탄 얼굴은 불시에 분격으로 이그러졌으며 말총처럼 총이 센 머리칼은 뻣뻣이 일어서고 꽉 부르쥔 억센 두주먹에서는 으드득하는 소리가 났다.
《넉두리를 불어대는게 누구야?… 뭐 하라는것이 너무 많아서 정신을 못 차리겠다구? 썩 일어서라. 이 불평불만분자야! 내 너를 번쩍 정신을 차리게 해줄테다!—》
분노로 새까맣게 질린 조영모가 거친숨을 몰아쉬며 걸상에서 일어서려는것을 룡진이 엄한 시선으로 즉시 눌러앉혔다. 그런 다음 룡진은 눈을 번쩍이면서 말없이 어스레한 회의장뒤쪽을 유심히 주시했다.

《누군지 이제방금 공화국공민의 도리를 망각한 말을 했소. 원쑤놈들이 그런 말을 들었더라면 아주 좋아했을거요. 지금 나라는 전쟁을 하고있소. 그것도 세계 〈최강〉을 떠드는 미제와 15개 추종국가를 상대로 말이요. 지금까지 우리 조선민족이 겪어본적 없는 류례드문 이 가혹하고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자면 후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더 긴장하고 바쁘게 살아야 하지 않겠소!》

룡진의 침착한 목소리는 높지 않았으나 진실이 느껴지는 그의 말뜻은 사람들의 가슴속으로 깊숙이 뚫고 들어갔다. 룡진은 얼마간 목소리를 높여 절절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모든것을 다 바쳐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들의 희망이 있고 리상이 있고 우리의 정든 고향과 땅, 조국이 존재하는거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노예로 되오.》

그의 마지막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참아내지 못하고 혈기차게 소리를 질렀다.

《옳습니다!》

뒤따라 장내는 이구동성으로 《옳－소!》 하고 부르짖었다. …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왁자하니 떠들면서 골목들과 집집으로 흩어져갔다.

룡진은 회의장에 조영모와 단둘이 남게 되자 그에게 따져물었다.

《동무는 언제부터 관료가 됐소?》

《네?…》

조영모는 침을 꿀꺽 삼키고 어딘지 달빛이 스며드는 창가쪽으로 시선을 돌리면서 고열과 과로로 조갈이 든 두툼한 입술을 꾹 다물고 응대가 없었다.

《리위원장동무, 어느때부터 군중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호령하며 큰소리치게 됐는지 말해보라고 내가 묻지 않소?》

《도위원장동지, 그따위 불평불만분자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냥 참고있어야 합니까? 저는 피가 끓어올라 도저히 참을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누구든지 인민정권에 대고 삿대질하는걸 보구는 가만 놔두지 않겠습니다. 어느때든지…》

돌연 룡진의 숱많은 검은 눈섭이 떨어져나갈듯이 꿈틀했다. 그는 상

대의 가슴이 선뜩할만큼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조용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다.

《묻는 말의 뜻을 정말 아직도 리해하지 못하겠소?》

《…》

《명백히 말해두지만 동무의 그 거치른 사업작풍은 주관적의도와는 관계없이 우리의 인민정권에 해독을 주고있소. 이건 오늘회의에서 한 동무의 과격한 행동만을 념두에 둔 평가가 아니요. 그간 여러 면에서 동무를 료해한 나의 견해는 그렇소!…》

조영모는 금시 잠에서 깨여나기라도 한것처럼 몸을 흠칫했다. 룡진은 그의 거센 숨소리며 눈빛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주시하면서 잠시 침묵했다.

고요한 회의실의 어디선가 귀뚤— 귀뚤— 귀뚜라미 우는 소리가 들렸다.

《리위원장동무, 앞으로 사업작풍을 고칠수 있겠소?》

룡진은 조영모의 희끗희끗 희기 시작한 총이 센 머리를 바라보며 나직하니 그러나 여전히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

조영모는 신음소리처럼 괴롭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두툼한 입술을 철문처럼 무겁게 다물고 일언반구 대답이 없었다. 그러나 룡진에게는 조영모의 그러한 행동이 오히려 더 마음에 들고 기쁘게 생각되였다.

(상부앞에 잘 보이려고 서두르지도 않으며 호락호락 쉽게 굽어들지도 않는 이 사람은 성격이 강하고 솔직하며 안팎이 따로 없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꺾이거나 굽어들지 않는다.) 하고 룡진은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도내의 군과 면, 리들을 자주 다니면서 상부에 발라맞추기를 좋아하고 허리를 갑신거리며 추궁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잘못했습니다.》, 《당장 고치겠습니다.》 하고 굽어드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만나군 했다. 룡진은 그런 사람들의 입바른 맹세를 쉽게 믿지 않았으며 내심으로는 경계했다. 그런 사람들은 시련을 겪을 때에는 꺾이우고마는것이다. …

《나는 동무가 기필코 이제 사업작풍을 고칠것이라고 믿고싶은데… 어떻소, 영모동무!》
《도위원장동지, 저에게 왜 좀 더 된매를 치지 않습니까?》
《매란 자신이 때릴 때가 가장 아프다지 않소. 난 자주 자신을 매질하군 하오. 동무도 이제부터 그러리라고 믿소.》
조영모는 뻣두룩한 머리를 숙이고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부스럭거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한대 피우겠습니다.》
《피우오. 영모동무, 내 오늘 동무네 집에서 하루밤 신세를 질가 하는데… 재워주겠소?》
《아니, 저의 집에서요?》 하고 조영모는 천만뜻밖인듯 놀랬다.
《왜 그러오? 반갑지 않은 손님이요?》 하고 룡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조영모의 얼굴에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당황한 빛이 지나갔다.
《저희같은 벽촌집에서 어떻게 도위원장동지가 쉬겠습니까. 잠자리도 그렇고… 편히 쉴만 한 곳이 못됩니다.》
《영모동무, 그러지 마오. 도위원장은 사업에서 도위원장이지 침식에 무슨 관계가 있겠소. 자, 가기요.》
그들은 밖으로 나왔다. 마을상공에는 희읍스름한 달이 푸시시한 구름에 싸여있었다. 정적이 깃든 벌판쪽에서는 신선한 바람이 왕골이며 진펄이며 이슬에 젖은 풀에 뒤범벅이 된 냄새를 날라왔다.
룡진은 조영모의 뒤를 따라 달빛에 잠긴 고즈넉한 골목길을 걸어 그의 집 뜨락으로 들어섰다.
컴컴한 헛간쪽의 묵은 짚무지속에서 군데군데 검불이 묻은 강아지 한마리가 버스럭거리며 기여나와 종을 울리듯 콩콩 짖어댔다. 뒤따라 말승냥이같은 싯누런 어미개가 허연 이발을 번득거리며 물어제낄듯이 사납게 으르렁거리더니 주인을 알아보고는 즉시 온순해져서 실한 꼬리를 내저으며 마주 달려나왔다. …
그들은 주인마누라가 당황하여 덤벼치면서 쓸고 닦고 거둔 훈훈한 웃방으로 들어갔다. 방안에서는 구수한 메주냄새며 싹틔운 보리의 들크무레한 냄새가 풍겼다. 주인마누라는 방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뜨

락으로 부리나케 들락거리더니 잘 익은 탁배기와 말린 피새우, 삶은 고구마와 시원한 김치가 곁들린 소반을 들고 웃방으로 들어왔다.

룡진은 소반을 마주하고 입맛좋은 탁배기를 마시면서 조영모와 살아온 과거이야기며 가족들에 대한 일상사를 주고받았다.

얼마후에 그들은 푹신한 솜포단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다. 그러나 조영모는 종시 잠들지 못하고 부스럭거리며 일어나 앉았다. 그는 더듬더듬 잎담배를 찾아 굵직하게 말아 불을 붙였다. 회의뒤끝에 룡진에게서 받은 비판으로 아직도 가슴이 찢어지는듯 얼얼하여 잠들수 없었던것이다.

(내가 우리 인민정권에 해를 주다니…) 하고 그는 독한 잎초연기를 깊숙이 들이키며 괴롭게 생각했다.

(난 아직까지 누구를 속인 일도 없었고 누구에게 앙심을 품은적은 더욱 없었어. … 그렇지만 너절하고 시시한걸 보고는 자제하지 못하고 즉석에서 나도 모르게 험악한 욕설이 터져나오는걸 참지 못했거던. … 그걸 참는건 나에게 정말 힘든 일이지. …)

문득 어둠속에서 잠든줄 알았던 룡진의 말소리가 들렸다.

《영모동무, 너무 괴로워하지 마오. 이제부터 각성하고 고치면 되오.》

《도위원장동지, 피곤하시겠지만 제가 하고싶었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얘길 하오. 그렇잖아도 난 오늘밤 이야기를 나누고싶어 동무네 집에 들렸소.》 하고 룡진은 소탈하게 말했다.

《도위원장동지, 사실 여기 석당리는 이웃리들과 달라서 큰소리를 지르지 않고는 일하기가 아주 힘든 곳입니다.》

《다른건 뭐요?》

《도위원장동지, 〈돌무지경우〉라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그건 우리 도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성구처럼 쓰는 말이 아니요?》

《옳습니다. 경우도 모르고 무지막지하게 행동하거나 사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을 때 〈돌무지경우〉라고 합니다. 한데 그 돌무지가 바로 여기 석당리입니다. 말하자면 그 말의 발생지가 여기인데 얼마나 이곳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경우없이 무지막지하게 행동했으면 〈돌무지경우〉라는 말까지 도내에 퍼졌겠습니까!…》

그는 독한 잎초를 걸탐스레 한모금 깊숙이 빨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로인들의 말을 들으면 이 고장은 본래 갈대만 무성하고 장마때는 강물이 무섭게 범람하는 무인지경 정배지였는데 리조봉건시기에 방뚝공사를 하면서 이곳저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마을이 생기고 차츰 커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방뚝공사판에서 일을 시키는 봉건관료놈들과 불량배들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지나가는 결혼가마를 들이치고 신랑신부까지 며칠씩 부역을 시키고야 보냈답니다. … 아마 그 시절부터 〈돌무지경우〉라는 말이 생겨났을거라고들 합니다. 해방전 일본놈때도 이곳에서는 별별 일이 많았습니다. 어느땐가 호기심 많은 타고장사람이 여기를 지나게 됐답니다. 그 길손은 이곳 돌무지사람에게 〈돌무지경우〉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고 물어보았답니다. 그때 돌무지사람은 호기심 많은 타곳 길손에게 객주집을 가리키면서 술을 사주면 그 말뜻을 대주겠노라고 했답니다. …》
조영모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불쑥 하던 말을 뚝 그치고 룡진에게 물었다.
《제가 쓸데없이 얘기를 너무 많이 늘어놓는게 아닙니까?》
《아니, 계속하오. 재미있게 듣고있소.》
조영모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래 타고장길손은 돌무지사람을 객주집으로 데리고 들어가 술을 사주었지요. 그리고는 〈자, 이제는 술을 대접했으니 그 말의 뜻을 대주구려!〉하고 재촉했답니다. 그런데 술을 잔뜩 마신 그 돌무지사람은 시치미를 뚝 떼고 이번에는 국수까지 사주어야 말하겠다고 생억지를 들여대드랍니다. 호기심 많은 타고장사람은 화가 났지만 종당에는 하는수없이 언어도단인 돌무지사람에게 국수까지 대접했지요. 그런다음 타고장길손은 이제 〈돌무지경우〉라는 말의 뜻을 듣게 되려니 생각하고 국수집장판방에 앉아서 그에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요구대로 술과 국수까지 사주었으니 나에게 그 말의 뜻이 도대체 어떤것인지 가르쳐주시오!〉 그랬더니 국수 한그릇을 훌쩌덕 먹어버리고 이발을 쑤시던 돌무지사람은 다짜고짜 사정없이 타고장길손의 귀뺨을 때렸답니다.》
조영모는 독한 마라초담배연기에 사래가 들려 갑자기 무엇이 터지

는듯 한 소리를 내며 쿨럭쿨럭 기침을 했다. 그리고는 갈린 목소리로 서둘러 말을 이었다.

《생벼락맞듯 뺨을 얻어맞은 타곳 길손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 대들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무슨 몰상식한짓이요?… 술과 국수까지 사준 사람에게 약속은 지키지 않고 이렇게 무지막지한 행동을 한단 말이요? 길떠나 다니다가 이 고장에서처럼 터무니없는 무례한 경우를 당해보기는 난생처음이요!… 허, 세상에 별의별 고장두 다 있군.〉 한데 이때 무지스러운 돌무지사람은 오히려 제켠에서 주먹다짐이라도 할듯이 왈칵 성을 내며 분격한 목소리로 〈챠, 이런 돌대가리라구야!… 정말 아직두 모르겠시꺄?… 여보시오, 그런게 바로 당신이 알고싶어하는 돌무지경우란 말이요!〉 하고는 억이 막혀 눈만 꺼벅꺼벅하는 타고장길손의 대답도 듣지 않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지드랍니다.》

조영모의 토색질은 이야기가 끝나는 순간 룡진은 더는 참아내지 못하고 그만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보니 석당리위원장이 보통 익살군이 아니로구만.》

조영모는 시무룩이 웃었다.

《도위원장동지, 이건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고 그는 부스럭거리면서 담배불을 눌러꼈다.

《영모동무, 그렇지만 해방이 된지 다섯해가 지났는데 그동안 달라졌을게 아니요.》

《옳습니다. 퍼그나 변한것은 사실입니다. 해두 아직 사람들이 여간 드세구 말째지 않습니다. 오늘 리총회에 리유없이 빠진 집들만 봐두 문상국이란 사람은 지독한 술망나니구 강태순이라는 사람은 건달이면서 투전군이구 리음전이라는 녀성은…》

《리음전?!》

귀에 익은 이름을 듣고 룡진이가 얼마간 놀라며 물었다.

《네, 그는 평안도에서 이 고장으로 출가한 녀자인데 뭣때문인지 도위원장동지가 회의에 참가한다는 말을 듣고는 훌쩍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합니다. 드살이군인 그 녀자는 그렇게 버르장머리없는 녀성이고…》

룡진은 몇순간 자기의 사생활에서 일생동안 잊을수 없는 음전에 대

한 생각에 잠겼다.
(자존심이 류달리 강한 그 녀자의 성격으로는 그럴수 있는 일이지!…) 하는 생각이 룡진의 머리에 피뜩 떠올랐다.
《그다음 빠진 집이 임성욱목사인데 사상동향이 극히 불순하고…》
《영모동무!ㅡ》 하고 룡진이 불시에 그의 말을 막았다.
《임성욱목사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들었소. 영모동무가 그에게 반동행위를 한다고 무례한 모욕을 주었다는 반영이 있던데 이제보니 그게 사실인것 같구만.》
《네, 제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고 조영모는 태연히 인정했다.
《동무는 무슨 권리로 그렇게 자기 공민을 함부로 모욕하오?》
《자기 공민이라구요?… 모욕을요?… 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조영모는 지금까지 가슴속에 누르고눌렀던 울분이 다시 터져나오려는것을 억제하느라 거쉰숨을 몰아쉬면서 말을 더듬으며 임성욱목사는 도저히 믿을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완강하게 주장해나섰다.
그는 어느때든지 항상 사람들을 좋든가 나쁘든가 둘중의 하나로 명백하게 갈라보군 했다. 그리고 좋게 본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좋게 보고 일단 나쁘다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자기의 견해를 절대로 바꾸지 않았다. 임성욱목사에 대한 경우가 바로 그러했다.
《영모동무, 그러면 안되오. 인민정권은 자기의 공민들을 믿어야 하오. 믿음이 없으면 그건 벌써 경각성이 아니라 불신임이고 공포요. 나는 동무가 그를 모욕한데 대해 래일 낮에 찾아가서 사죄할걸 권고하오!》
룡진은 조금도 격하지 않고 평소의 침착하고 무게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제가 그를 찾아가서… 사죄하라구요?…》
조영모는 갑자기 경련이라도 인듯 몸을 부르르 떨면서 갈린 목소리로 떠듬거렸다.
《그렇소. 인민정권기관의 일군들이 때로 잘못하고 실수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중들에게 서슴지 말고 진정으로 사죄를 해야 하오.》
《그… 그렇게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조영모는 허굳은 소리로 떠듬거리면서 말을 삼켰다. 그는 온몸의 피

가 머리우로 치솟아오르는것을 느끼면서 차라리 리위원장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하려고 했던것이다.

《좋소. 그렇다면 동무대신 내가 임성욱목사를 찾아가 사죄하겠소.》 하고 룡진은 여전히 격하지도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시간은 한밤중을 훨씬 지났다. 날이 밝으려는지 달빛이 스러지고 창밖은 캄캄했다. 굴뚝모퉁이쪽에서 홰에 오른 수닭이 잘 울리는 목청으로 듣기 좋게 울어대자 뒤따라 이곳저곳에서 뭇닭들이 울기 시작했다.

(임목사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한건 내가 잘못 본건가?) 하고 조영모는 희끗희끗 희기 시작한 총이 센 머리를 푹 떨구고 난생처음으로 자기 눈에 눈물이 고여오르는것을 의식하면서 자기자신에게 물었다.

(아니, 내 일생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래도 좋은 사람으로 보게될수는 없을거야. …)

조영모의 내면에서 울리는 대답은 이렇게 확고부동했다.

6

날씨는 아침부터 찌는듯이 여름날처럼 무덥더니 정오무렵에 구월산쪽에서 번개가 하늘을 불태우고 우르르 우뢰소리가 땅을 짓눌렀다. 선뜩한 소나기라도 퍼부을것 같았으나 그저 작은 비방울들이 먼지이는 행길과 누렇게 황이 든 나무잎사귀우에 떨어지고는 그냥 무덥기만 했다.

임성욱목사는 방안문과 창문을 닫아놓고 창가림까지 내려놓아 한증탕처럼 화끈화끈한 방안에 까딱않고 홀로 누워 물끄러미 천정의 어딘가를 응시하고있었다.

그의 머리맡에는 어느때든지 항상 몸가까이에 붙어다니군 하는 신약성경이 펼쳐져있었고 한쪽에는 비취색문양의 사기물주전자와 같은 색갈의 고뿌가 놓여있었다. 지금 임성욱목사의 머리속에는 지꿎게도 줄곧 한가지 괴롭고도 불안한 생각이 파고들고있었다.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하고 임성욱은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수십번도 더 물었으나 종시 대답을 찾지 못했다. 그는 아직까지 전혀 느껴본적 없는 외로움을 느꼈고 자신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생각되여 괴로왔다. 어디선가 똑딱거리는 괘종소리를 어렴풋이 의식하면서 그는 누운채로 화끈화끈한 방안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묵직한 암록색의 창가림, 유리를 끼운 큰책장, 금박칠을 한 액틀에 넣은 그림들과 가족사진들, 이 모든것은 이전에 그에게 안정감과 자신심과 자기 존엄의식을 불러일으켜주던것이였으며 또한 자기를 존중하지 않던 사람들의 세계와 그를 갈라놓고있던것이였다. 그러나 지금 임목사는 자기자신이 끝없이 가련하게 생각되였다. 여러해를 두고 그는 군과 면내 자기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으로 되여왔으며 또 해방후에도 비록 은페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분명 존경의 대상이 되고있다고 믿어왔는데 이러한것이 실은 터무니없는 자기환상에 불과했다는것을 졸지에 깨닫게 된것이였다. 그는 서글펐다.

(내가 숱한 마을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리하게도 리위원장한테 반동이라고 심한 모욕을 받아도 누구 하나 두둔해나서는 사람은 없었지. … 그다음에 그 모욕과 감기까지 겹쳐서 자리에 누워 바깥출입을 하지 않아도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지 않는가. …)

임성욱목사의 귀전에는 엊그제 저녁에 그 소란스럽고 우락부락한 리위원장 조영모의 고함소리가 쟁쟁히 울리는듯 했다.

(반동행위란 도대체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떤 사변을 일으키기라도 했단 말인가?…)

임성욱은 사실 인민정권에 대해 아직까지 리해하지 못하는것도 있으리라고 자신이 스스로 인정하고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내가 몹쓸짓을 한것도 없지 않는가? 인륜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적도 없고… 그런데 무엇때문에 사람을 그토록 모욕한단 말인가?…)

한데 문제는 거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태도가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과는 맞지 않는것이였다. 이것은 그의 온몸에 지금까지 잠재해있던 감정을 불현듯 흔들어깨웠다. 그리하여 마음속의 균형이 한번 깨여지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목사의 온몸에서는 형체도 없고 마뜩지 않는 느낌을 자아내는 가련한 자기가 느껴졌던것이다.

임성욱목사는 갑자기 타는듯 한 목마름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취색문양의 사기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마셨다. 문득 머리말에 펼쳐

놓았던 신약성경의 신상설교대목이 눈에 띄였다.

임성욱은 조용히 맞은켠 창가로 다가서서 창가림을 활짝 제끼고 밖을 내다보았다. 뜨락의 꽃밭에는 흠뻑 내려쪼이는 해볕밑에서 갖가지 꽃들이 불타듯 활짝 피여있었고 담장곁의 크지 않은 감나무에는 빨간 감들이 총총히 열려있었다. 담너머 행길가에서는 수탉 한마리가 수많은 암닭들과 중병아리들을 거느리고 갓 쳐낸 두엄무지에서 먹을것을 찾고있었다. 마을의 하늘에는 새매 몇마리가 낮추 나돌고 빨래줄과 전기줄들에는 제비들이 줄을 지어 앉아있었다.

(제비들이 먼길 떠날 차비를 하고있군.)

임목사는 문득 해방직후에 남으로 나가자고 찾아왔던 동료목사들을 생각했다. 그들속에는 오랜 친우들도 있었으며 그저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임성욱에게 자기들과 함께 떠나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제 머지않아 여기서는 1801년 신유박대해와 1839년 기해박대해, 1868년 병인박대해(리조봉건정부가 카톨릭에 대한 탄압을 말함.)보다도 더 가혹하고 무서운 탄압이 있을것이라고 하면서 함께 떠나자고 했던것이다. 그러나 자기, 임목사는 그들모두의 간절한 권유와 애원, 강요도 다 물리치고 떠나지 않았었다. 그에게는 어떤 남다른 큰뜻이 있었던것도 아니였고 이 고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계획이 있은것도 아니였다. 오직 한가지 생각—그는 고향을 뜨고싶지 않았던것이다.

나서자란 고향을 버리는것은 조강지처를 버리는것과 다를바 없다.—이것은 임목사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생활신조였고 불문률이였다. 그리하여 임성욱은 종시 그들을 따르지 않았었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지? 낯선 고장에서 마음의 고통이나 쓰라린 모욕은 받고있지 않는지?…)

임성욱은 결코 그때 그들을 따라가지 않은 자신을 여직껏 후회한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또 떠나간 그들을 나무라고 탓하지도 않았다.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견해와 지향, 사고와 마음이 있는것이라고 그는 생각하고있었던것이다.

임성욱목사는 부엌쪽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을 느끼고 창가에서 돌아섰다.

(순애가 아직두 학교에 안 나갔는가?… 시간이 퍽 지났겠는데.)
임성욱은 분명 자기때문에 요즈음 상심하며 수심에 잠겨다니는 딸애에 대한 생각이 미치자 돌연 가슴이 쑤시는듯 한 아픔과 형언할수 없는 괴로움을 느꼈다.
《순애냐?…》 하고 그는 아픔과 괴로움을 지그시 누르며 애정에 찬 목소리로 조용히 불렀다.
부엌쪽에서 덜거덕거리던 소리가 뚝 멎더니 조금후에 흐느끼는듯 한 딸애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 저예요.》
창가에서 물러선 임성욱은 부엌쪽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눈물이 글썽한 딸이 밥상을 차리고있었다.
《웬 일이냐?》
그는 자신이 바라던것보다 더 조용히 물었으나 어조에는 질책이 섞여있었다. 눈물을 머금고 선 사랑하는 딸을 보는 순간 임성욱은 자기자신뿐아니라 딸애까지도 사람들속에서 소외당하고 버림받고있는듯이 생각되여 가슴쓰리고 마음속이 좋지 않았던것이다.
《학교에는 왜 아직도 안 나갔느냐? 학생애들이 기다릴터인데…》
《점심시간이예요.》
수심에 잠긴듯 한 딸의 목소리는 얼마간 구슬프게 울렸으나 교단에서처럼 맑고 정확하였으며 부드러웠다.
《그래…》
임목사는 무슨 말이든 해야겠다고 생각하였으나 웬일인지 적중한 말이 떠오르지 않아 모호하게 손짓하고 돌아서서 펴놓은 그대로 있는 자리에 다시 누워버렸다.
순애는 부엌에서 자기 눈에 어린 눈물을 손수건으로 꼼꼼히 눌러 닦았다. 그는 여느날에나 명절날 할것없이 1분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꼭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꼭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군 하는 아버지를 틀에 박힌 고정한분이라고 늘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가 다시 종전의 그런 규칙적인 생활로 되돌아갔으면 하고 순애는 바랐다. 그처럼 틀에 박힌 생활을 하던 아버지가 벌써 이틀째나 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않고 식사마저도 제때에 들지 않았던것이다.

순애는 밥상을 차려들고 소리없이 아버지방으로 들어섰다.

《아버지, 어서 점심을 드시고… 이제는 자리에서 그만 일어나세요.》

《고맙다. 거기 놓아라. 지금은 생각이 없는데… 후에 먹으련다.》

그때 밖에서 놓아기르는 게사니들이 대문쪽으로 몰려가며 덮쳐들듯이 사납게 울어대는 웅근소리가 들렸다.

《밖에 누가 찾아온게 아니냐?》 하고 임목사는 자리에 누운채 얼마간 활기를 띠면서 딸에게 물었다.

《나가보겠어요.》

순애는 아버지의 머리말에 밥상을 내려놓고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고나서 들어올 때처럼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임성욱은 여전히 자리에 누워 꼼짝않고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저리들 물러가거라!… 어서 가라는데…》 하고 뜨락에서 성난 게사니들을 쫓아대는 딸애의 맑은 목소리가 들리고 뒤이어 대문쪽에서 두런두런하는 어떤 남자의 분명치 않은 말소리가 들려왔다.

(아무렴, 물론 그럴테지. 내가 이처럼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누웠는데 집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도 없을수가 있을라구… 한데 병문안온 사람이 대체 누군가?…)

고독과 모욕당한 괴로움에 시달린 임성욱목사는 슬며시 자리에서 일어나 서두르지 않고 창가로 다가갔다. 창가림사이로 얼핏 밖을 내다보던 그의 볕에 타지 않은 흰 얼굴에 불현듯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뜨락에는 꽃밭을 등지고 새처럼 조그마한 얼굴에 천박한 웃음을 띤 상고머리청년이 무릎에 닿을만큼 기다란 팔을 드리우고 서있었다. 면내에서뿐아니라 군에까지 불량배로 소문난 청년이였다.

임성욱은 무슨 생각에선지 창가림을 제끼고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는 나직이 그러나 분명 불쾌한 어조가 느껴지는 음성으로 딸애를 향해 짤막하게 물었다.

《웬일이냐?》

《아버지를 만나 꼭 전할 말이 있다는군요.》

《나한테?…》

그는 히벌쭉이 천한 웃음을 띤 청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 청년이 나한테 전할 말이란 뭐요?》 하고 임성욱은 자기의

불쾌한 기분과는 전혀 다르게 평소처럼 정중히 물었다.
새처럼 얼굴이 자그마한 상고머리는 까닭모를 웃음을 띤채 저벅저벅 창가로 말없이 다가왔다. 청년은 무슨 말인지 하려다말고 딸국질을 하면서 저어하듯 흘끔흘끔 등뒤의 순애를 돌아보았다. 순애는 깔끔한 눈길을 던지고는 자기방으로 들어가버렸다.
《아버지가 그라는데… 오늘 저녁에 어두워지면 우리 집으로 좀 오시랍디다.》 하고 빽빽거리는 목소리로 재게 말하는 청년의 입에서 훅—지독한 소주냄새가 풍겼다.
임성욱은 미간을 찌프렸다.
《아버지가 무슨 일때문에 나를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소?》
《아무렴 해가 될 일로 목사님을 청하겠나요.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오시면 속시원한 소리를 듣게 되지요.》
《?!…》
임성욱은 맥을 짚어보는듯 하고 속내를 알고싶어하는것 같은 청년의 천박한 눈길과 여러번 마주쳤다.
임성욱은 불쑥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이 청년의 아버지란 사람은 안팎이 다르고 무엇인가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이다. 가까운 이웃집과도 늘 다툼질이고… 한데 속시원한 소리란건 무슨 뜻인가?…)
《그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점잖으신 목사님이 리위원장한테 그처럼 험악한 욕설을 들었으니 얼마나 분하겠시까!… 내가 다 속이 뒤집히는것 같습디다요.》 하고 청년은 침묵한 임성욱을 여겨보며 수군거리는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이거야 어디 참고있겠시까!… 정말 분통이 터져서.》
청년의 입에서는 역한 소주냄새가 지독스레 풍겼다.
(그만하오!—) 하고 말하려던 임목사는 자제했다. 그는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나 동정을 받는 존재란 말인가. … 아무리 교회의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해도…)
그는 당장 창문을 닫아버리고 돌아서 자리에 눕고싶었으나 눌러 참았다.

《나는 몸이 불편해서 바깥출입을 못하오.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전하오.》
《그릉하지 마시라요. 내내 속을 태우면서 그냥 누워만 있으면 뭘하겠나요.》
상고머리는 바로 누구를 훈계하듯이 수군거리면서 여전히 물러가지 않고 역한 소주냄새를 들씌우며 창가에 바투 서있었다. 그것은 청년과 상종하고싶지 않는 임성욱에게 서서히 들여대는 고문처럼 괴로운 것이였다.
(제발 이 청년이 빨리 제집으로 돌아가주었으면!…)
그러나 상고머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척에 버티고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이제 분풀이를 할 때가 곧 온다구들 해요!》 하고 불량배청년은 지나가는 말처럼 슬쩍 분명치 않게 재빨리 말했다.
《그건 무슨 소리요?》
금시 터져나오려는 화를 억제하느라 임성욱은 두손으로 창턱을 꽉 틀어잡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서 물었다.
《체, 누구를 코흘리개로 봅니까?… 임목사님, 너무 얏사하게 그라지 말라요!》
좁게 다가붙은 청년의 두눈이 싸늘해지면서 단박 표독해졌다. 그러더니 창가에서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래 정말 우리 집에 오지 않겠시꺄?》 하고 청년은 까만 눈을 표독스레 번뜩이면서 비웃음조로 심술궂게 다시 물었다.
《몸이 불편해서 그런다고 말하지 않았소.》
《그렇다면 좋시다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는 마시우. 체, 도와주려는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내는군. …》
상고머리는 신통히도 날아오르려는 수탉처럼 길다란 두팔을 휘저으며 뜨락을 지나 골목길로 나갔다.
(후!─) 임성욱은 청년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남한테 모욕을 받은것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나자신은 찾아온 남을 무례하게 대했군. 이렇든저렇든 그 청년은 내 집에 찾아온 사람이였는데…)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을 정중하게, 례절있게 대하는데 습관된 임목

사로서는 집에 찾아온 청년에게 불쾌한 내색을 그대로 내보인것을 자책하지 않을수 없었다.

(한데 앙갚음을 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건 무슨 말인가?)

그는 차츰 마음이 진정되자 청년이 한 말을 다시 생각했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로 앙갚음을 한단 말인가!ㅡ)

임성욱은 여직껏 그 누구에게 앙심을 품은 일도 없었고 더우기 그 갚음을 하려고 생각한적은 없었다. 자기를 심히 모욕한 리위원장 조영모에 대해서도 그가 먼저 찾아와 본의아닌 순간기분으로 그렇게 되였다고 진정으로 량해를 구한다면 임목사로서는 극상해야 점잖은 말로 몇마디 말해주는것으로 끝났을것이다.

(그런데 청년의 아버지가 어두워지면 집으로 오라고 한것은 무슨 일때문인가?… 그래, 그 청년은 속시원한 소식을 듣게 된다고 했었지, 속시원한 소식이란 무슨 뜻인가?…)

책장곁의 팔걸이걸상에 앉아 머리를 숙이고 방바닥을 내려다보면서 생각을 굴리던 임성욱은 스스로 쓰겁게 웃어버렸다. 면과 군내에서 불량배로 소문난 청년의 술취한 횡설수설을 그대로 듣고 이렇게저렇게 음미해보는 자신이 어리석고 가소롭게 생각되였던것이다.

《아버지!》

언제 들어왔는지 곁에서 딸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응, 순애냐…》 하고 임성욱은 서글픈 표정을 띤 얼굴을 번쩍 들었다.

《어서 점심을 드세요.》

《그래. 한데 이제 그 청년이 지금도 집에서 무직으로 놀고있느냐?》

《네. 신천고급중학교에서 출학당한 후 군대에도 나가지 않고 벌써 2년째나 하는 일없이 빈둥거리며 놀고있어요.》

《참, 어리석고 딱한 젊은이군.》 하고 임목사는 혼자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부탁이예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세요. 요새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들끼리 몰려다니며 수군거려요.》

《허, 이제는 네가 나를 훈계하게 됐구나. …》 하고 임성욱은 별에 타지 않은 흰 얼굴에 서글픈 미소를 띠고 딸애를 면바로 여겨보면서 말을 보탰다.

《네가 내 걱정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아직은 분별도 있고 내가 할바를 내가 대체로 판단할수 있으니까—》

자기 말이 좀 지나쳤다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딸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던 그는 뜨락의 울타리밖에서 누군가가 찾는 인기척이 들리자 미간을 찌프렸다.

《어서 나가보렴. 또 그런 사람이면 점잖고 례절바르게 돌려보내여라.》

딸이 뜨락으로 나간 다음 임성욱목사는 밥상을 한쪽으로 밀어놓고 펴놓은 자리에 누워버렸다. 뜨락에서 먼저 귀에 선 어떤 남자의 뭐라고 말하는 웅글은 소리가 들리더니 뒤따라 갑자기 《에그머니—》 하는 딸애의 질겁하는듯 한 음성이 들려왔다.

《?!…》

필경 무엇인가 심상찮은 일이 집안에 들이닥친것이라고 느낀 임성욱은 가슴이 후두두 뛰였다. 그는 자리에서 급히 일어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뜨락에서 껄껄 호탕하게 웃는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임성욱은 생활에서 각이한 매 사람의 웃음소리로 그 사람의 인간됨을 가려보고 판단할수 있다는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았다. 그러나 저토록 호탕하게 웃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속이 탁 트이고 대단히 너그러우며 도량이 큰 사람일것이라고 그는 피뜩 생각했다.

《아버지!—》

무엇때문인지 딸애가 소리쳐부르며 나는듯이 방안으로 뛰여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으로 몰라보리만큼 상기되여있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도위원장동지가 오셨어요!》

순간 임성욱목사는 내심 깜짝 놀랐으나 침착하게 자기를 수습하면서 집에 찾아온 도위원장을 정중히 맞으려고 문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러나 그의 눈과 얼굴에는 최대로 긴장한 기색이 력력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임목사는 어지간히 흥분한 목소리로 도위원장을 향해 례절있게 정중히 말했다.

묵직한 머리를 약간 숙이고 생각에 잠겨 뜨락의 꽃밭앞을 거닐던 리룡진은 화려하지는 않으나 정결한 임성욱목사의 방으로 들어섰다. 골격이 굵직하고 체대가 큰 룡진이 방에 들어서자 과히 작지 않은 방은

별스레 좁고 왜소해보였다.

《임목사님, 이전부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도위원장 리룡진입니다.》

《중요한 일들에 분망하실터인데 이처럼 제집에까지 찾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어서 편히 앉으십시오.》 하고 임성욱은 룡진에게 정중히 자리를 권했다.

룡진은 스스럼없이 초면의 임성욱목사와 마주앉았다.

《요사이 몸이 몹시 불편해하시다던데 좀 나으신가요?》

《네, 그저 좀…》

임성욱은 말끝을 흐리면서 모호하게 어물어물 대답했다.

그럴 때 부엌에서 순애가 먹음직하게 잘 익은 사과, 배, 감이 담긴 과일다반을 들고 소리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룡진의 앞에 과일다반을 조심히 놓으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명랑하게 말했다.

《도위원장동지, 들어보세요. 우리 집 앞뒤뜰의 과일이랍니다.》

《그렇소! 목사님, 들겠습니다. 전 감이라면 정신없이 먹군 합니다.》

임성욱은 그러는 룡진을 주의깊게 살폈다. 그는 도위원장의 얼굴에서 너그러운체 하는 기색이 없는가 살펴보았다. 그러나 티없이 소박한 미소외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임성욱은 이 직위가 높고 엄격해보이는 체격이 큰 사람이 방으로 들어올 때 강한 긴장과 불안을 느꼈었다. 그것은 자기 신상에 어떤 문제가 점점 험악하게 확대되여 응당한 추궁과 그 어떤 조치가 있고 뒤따라 딸애의 신상에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길수도 있다고 생각했던때문이였다. 그러나 룡진의 스스럼없는 소탈한 태도와 소박한 미소를 본 지금 임성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긴장이 풀리는것을 느꼈다.

《임목사님, 일전에 여기 석당리 리위원장동무가 무례한 욕설로 목사님을 노엽혔다고 하는데 넓게 리해하시고 노여움을 푸십시오. 그래 제가 이곳 석당리에 왔던 길에 목사님과 만나 이야기도 나눌겸 이렇게 대신 들렸습니다.》

《원, 그런 일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임성욱목사는 도량이 넓은 룡진의 솔직하면서도 진지한 사과에 갑자기 당황하여 머리를 깊이 숙였다.

룡진은 정수리에 눈을 들쓴듯이 새하얀 임목사의 반백의 머리를 피뜩 바라보고 허심탄회하게 말을 계속했다.

《영명하신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우리 인민정권기관일군들에게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고 충복이 되라고 늘쌍 간곡히 가르치고계십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일부 일군들이 수양이 부족해서 아직도 그렇게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만큼 때로 우리 일군들이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공민된 립장에서 의견을 주시군 해야 합니다. 내가 보건대 여기 리위원장동무도 안팎이 따로 있거나 누구에게 앙심을 품는 일은 없지만 때때로 과격하고 거치른 성격때문에 사람들앞에서 잘못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역시 누구에게 앙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아니지요.》 하고 임성욱은 흰 얼굴에 활기를 띠고 스스럼없이 응수했다.

그들은 기탄없이,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었다. 이따금 의견불일치로 론쟁도 하였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껄껄 웃으며 유쾌한 롱담도 했다.

임성욱은 룡진의 말들에서 더러 리해되지 않고 쉽게 공감할수 없는 것들도 있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룡진의 결백성과 솔직성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룡진은 임목사에게 최근의 전선형편이 아주 긴장하며 앞으로 조국과 인민앞에 크나큰 시련과 위험이 닥쳐올수 있다는데 대해서도 숨김없이 털어놓고 말했다.

《그러나 장군님주위에 하나로 뭉친 우리 인민의 힘을 꺾을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종국적으로는 우리 조국이 승리할것입니다. 옛말에도 〈정의앞에는 대항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임목사는 깊은 생각에 잠긴듯 오래동안 침묵하고 잠잠히 앉아있었다.

룡진은 계속하여 미제와의 전쟁은 단순한 두 국가, 두 제도간의 격투가 아니라 정의와 부정의, 진실과 허위, 참과 거짓과의 싸움이라고 임목사에게 말했다.

그때 방안으로 다부지게 생긴 면위원장이 조용히 들어와 도당에서 중요한 긴급회의가 있으니 급히 돌아오라는 전화련락이 왔다고 룡진에게 전했다.

잠시후 룡진은 임목사와 따뜻하게 작별인사를 나누고 뜨락을 나섰다. 벌써 웃장거리 행길에서는 발동을 건 승용차가 부르릉거리며 대기하고있었다. 다행하게도 이곳 신천군에서 수행하려고 계획했던 사업들은 만족하다고는 생각할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끝냈다. 그는 총총히 처마를 맞대고 다가붙은 집들사이로 오불꼬불 돌아간 좁은 골목길을 걸으면서 문득 실현하지 못한 자기 개인적인 계획을 생각했다. 룡진은 개인생활에서 잊을수 없는 옛벗이며 해방전 청년시절에 처음으로 사귀였던 불행한 녀성인 이곳 마을의 음전이와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나누려 했던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뒤로 미루는수밖에 없었다. 룡진은 여기서 지체할수 없었고 또 그럴 권리도 없었다.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이 그를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그는 늘 바삐 서둘러 왔고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던지 그렇게 개인적인것을 뒤로 미루어왔었다. 앞으로도 바쁘게 서두르고 만나지 못할것이고 그것을 후회하게 될것이며 그러면서도 그는 또다시 지금처럼 서두르게 될것이다.

룡진은 뛰여넘듯 성큼성큼 큰걸음으로 행길가의 승용차쪽으로 걸어갔다.

7

저녁어스름이 깃들기 시작하는 해안도시상공으로 공습경보해제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쥐죽은듯 고요하던 도시는 다시 각가지 소음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대피했던 자동차들이 큰길로 내닫고 골목길들에서 불쑥불쑥 짐실은 우마차들과 손수레, 사람들이 달려나와 분주히 오고갔다.

도인민위원회청사며 그곁의 집들이 빤히 내려다보이는 우중충한 수양산밑의 민틋한 언덕길로 책가방을 멘 8～9살가량의 소녀가 할딱거리며 줄달음쳐 올라왔다. 소녀는 어스름에 잠긴 컴컴한 집들과 방공호를 지나 해묵은 넝쿨나무로 뒤덮인 붉은 벽돌담장이 돌아간 집앞에 이르러 꽉 닫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흰모래를 깔아놓은 뜨락에서 캄캄한 방안을 향해 소녀가 챙챙한 목소리로 불렀으나 안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그러자 소녀는 실망한 얼굴로 조심조심 방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그다음 이방저방 문을 열고 갸웃이 들여다보고나서 키낮은 책상우에 책가방을 벗어놓았다. 소녀는 책상 한쪽에 쪽지편지가 눈에 띄우자 얼른 집어들었다. 거기에는 큼직큼직한 글자로 이렇게 씌여있었다.

《…명희 보아라. 어머니는 다리복구장에 나간다. 아버지는 아직 출장 가서 돌아오지 않으셨다. 네 동생 정립이는 앞집에 부탁했으니 거기서 놀고있을게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네가 데리고와서 같이 집에 있어라. 어머니가 올 때까지 밥을 짓지 말고 공부를 하면서 기다려라. 그리고 잊지 말고 방공막을 꼭 내리우고있어라. …》

소녀는 그제서야 생각이 든듯 방공막을 꼼꼼히 내리우고 부엌으로 나가 아궁에 불을 지폈다. 처음이 아닌모양 그 행동이 거침없고 익숙한 동작이였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나어린 소녀는 컴컴한 뜨락쪽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리자 얼른 반갑게 소리쳤다.

《어머니예요?》

《명희냐?…》

뜨락의 어둠속에서 되받아 묻는 웅글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니 희멀쑥한 얼굴에 도수높은 안경을 낀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이 부엌문앞으로 저벅저벅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묵직한 무슨 꾸레미가 들려있었다.

《아이, 아저씨네!―》 하고 소녀는 몹시 반가와했다.

《얘, 어머니는 안계시냐?》

《다리복구장에 나가셨어요. 어머니는 이제 곧 올거예요.》

《그래, 그런데 넌 부엌에서 무얼하느냐? 혹시 밥을 짓는게 아니냐?》

소녀는 아궁에 나무를 넣으면서 대답없이 방그레 웃기만 했다.

《얘, 그만두어라. 어서 우리 집으로 건너가자. 참, 네 동생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는 손에 든 묵직한 꾸레미를 부엌에 놓고는 나어린 소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니예요. 전 다리공사장에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오기 전에 밥을 지어놓겠어요.》

《허, 네가 고집이 여간 아니구나. 그래 정말 네가 꽤 밥을 지을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는 제가 지은 밥이 더 맛이 있다고 했는데요 뭐ㅡ》
《그래…》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인 박광훈은 사람좋은 선량한 미소를 띠고 기특한듯 소녀의 다박머리를 쓸어주며 애무했다. 주머니에서 담배갑을 꺼내느라 몸을 한쪽으로 기웃하던 그는 등뒤에서 들리는 인기척소리에 얼핏 뒤를 돌아보았다. 어느새 들어섰는지 부엌문가에 보위색 작업복차림의 녀인이 삽을 들고 서있었다.
《아니, 아주버니 오셨군요.》 하고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녀인은 반색하며 광훈을 향해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참 딱하기도 합니다. 아니, 도위원장 부인이 그래 꼭 다리복구장에 나가야 하우?… 그것도 이처럼 저녁늦게까지 말입니다. 나어린 명희가 밥을 짓는걸 보니 내 마음도 좋지를 않습디다.》
광훈은 도수높은 안경을 벗어들고 선량해보이는 우둥부둥한 얼굴을 흐리며 스스럼없이 녀인을 탓했다.
《원, 별말씀을 다하시는군요.》
녀인은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면서 퇴마루결에 삽을 세워놓고 뜨락의 수도가로 나가 손을 씻고는 재빨리 부엌으로 들어섰다.
《명희야, 밥을 짓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니?》 하고 유순한 목소리로 나직나직이 꾸짖던 녀인은 낯선 꾸레미를 눈여겨보며 딸애에게 물었다.
《이건 웬거냐?》
《아저씨가 방금 가져온거예요.》
그러자 녀인은 눈동자를 흐리면서 정색하여 광훈에게 말했다.
《이러지 마세요. 이런걸 들고다니면 애아버지가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너무 그러지 마우. 아니, 내가 뭐 도인민위원회 위원장댁이라고 들고온줄 아시우?… 그래 친구집에 이런걸 들구 다니면 안된답디까?》 하고 광훈은 사람좋게 큰소리로 껄껄 웃어댔다. 기실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인 광훈이와 룡진은 소년시절부터 한마을에서 자란 오랜 지우

였던것이다.
《자, 그러지 말고 이것두 받아놓으시우. 아주머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기나 하오? 잊고있을것이외다.》
광훈은 큼직한 가방에서 화려한 상표가 요란하게 번쩍거리는 술병들을 꺼내놓으며 큰소리로 떠들썩했다.
《오늘이 바로 10년전에 룡진동무하고 아주머니가 성례를 치른 날이오.》
《참, 그렇군요.》
《허, 어쩌면 룡진동무도 그렇고… 아주머니도 꼭 같습니까!》
광훈은 못마땅한듯 혀를 끌끌 찼다.
《아주머니, 마침 오늘 룡진동무가 신천군에서 돌아왔다던데 집에 들렸습디까?》
《도당회의에 곧바로 참가하셨다는군요. 좀전에 서기아저씨를 만났드랬어요.》
《음, 그렇지. 평양에 올라갔던 도당위원장동무가 내려왔으니까—》하고 광훈은 불시에 기분이 달라지면서 슬며시 한숨을 내쉬였다.
웬일인지 나직하니 한숨짓는 광훈의 우둥부둥한 혈색좋은 얼굴에 까닭모를 불안이 떠올랐다. 그는 침묵한채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었다.
《왜 무슨 일이 있어요?》 하고 녀인은 갑자기 자기도 모를 막연한 불안에 빠져들면서 긴장하여 물었다.
《전선의 정세가 최근에 몹시 악화됐다오. 얼마전 인천에 상륙한 적들이 서울지구에 침습하였고 인민군부대들은…》
광훈은 문득 말을 끊었다. 캄캄한 밤의 어둠속에 잠긴 해안도시 이곳저곳에서 미제비행대의 래습을 알리는 공습경보고동이 울리고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밖으로 나와 뜨락 한쪽의 깊숙한 방공호입구로 걸어갔다. …

불빛 한점 없는 캄캄한 도시의 밤거리 한복판으로 승용차 한대가 달리고있었다. 적비행기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아직 공습경보해제고동은 울리지 않고있었다. 때때로 어둠속에서 공습시에 은페하였던 순찰병들이 길 한복판을 내닫는 승용차를 세우려고 뛰여나와 호각

을 불었으나 차앞유리에 붙어있는 특별통행증을 보고는 얼른 길을 비켜주군 했다. 승용차의 앞자리에는 신천군에서 돌아오는 그길로 도당상무위원회에 참가했던 리룡진이 엄숙한 기분으로 무겁게 앉아있었다. 그가 참가한 도당상무위원회의에서는 각 도당위원장 협의회에서 하신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의 연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와 당단체들의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의정이 토의되였었다. 회의는 지금까지 그 어느 회의때에도 있어본적 없는 긴장하고 엄숙한 분위기속에서 시작하였고 또한 그런 분위기속에서 끝났었다.

룡진은 회의가 끝난 후 지금까지 내내 침묵한채 회의에서 토의결정된 문제들과 그 본질적요구들을 다시금 신중하게 더듬어보면서 이제부터 자기자신이 수행하여야 할 책임적이고도 결정적인 사업들을 생각하고있었다.

바다로부터 누눅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오고 이따금 도시의 곳곳에서 탐조등이 불시에 캄캄한 밤하늘을 벙끗—벙끗 비쳤다. 룡진은 조국앞에 닥쳐온 위험이 얼마나 크며 또한 그 위험이 어느만큼 급속히 다가오고있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최근, 즉 9월 28일 인천, 서울지구를 영웅적으로 방어하던 서해안방어사령부관하의 련합부대들과 인민군부대들은 그 지구에서 조직적으로 후퇴했다. 미제침략군 8군관하 미 1, 9군단과 괴뢰군 1, 2군단의 공격을 물리치고 시간을 쟁취하기 위해 적극적인 방어전을 벌리던 전선사령부관하 련합부대들도 락동강계선에서 새로운 계선에서의 방어를 목적으로 이동을 개시했다. 수적으로 비할바없이 우세한 력량으로 우리의 주력부대들을 《포위섬멸》 하려는 적들의 기도를 분쇄하면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 오른 인민군부대들의 령활한 전투행동에 대하여 부르죠아출판물들과 통신들까지도 놀라움을 금치못하고있었다. 일본의 《아사히신붕》 9월 28일호는 《북조선군의 행방 수수께끼》라는 표제로 에이피통신을 이렇게 전재했다.

《남부전선의 북조선군이 어떻게 유엔군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났는가 하는것은 전국의 하나의 수수께끼이다.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들은 거의 하루밤사이에 자취를 감추어 정찰기도 도로상에서 후퇴중의 북조선군의 대부대를 발견하지 못하고있다. 그리고 서울,

인천지구에 이동하고있는 징후도 없다. 문제는 장비를 갖춘 북조선군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데 있다.》

그러나 9월 27일 미합동참모본부는 맥아더에게 《유엔군》으로 하여금 38도선 이북에 대한 대대적인 침공을 감행할것과 그를 위한 《북조선침공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것을 지시했다. 맥아더는 이 지시에 따라 10월 1일 전선동부의 남조선괴뢰군에게 38도선을 돌파하고 북에 대한 침공을 개시할것을 명령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이른바 《일반명령 제2호》(유엔군명령 제2호)로써 38도선을 넘어 평양에로 침공해 들어갈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미제침략군 1군단에는 38도선을 넘어 평양으로 침공하여 들어갈 임무가 주어졌으며 10군단에는 인천, 서울지구에서 동해안으로 이동하여 원산에 상륙한 후 그곳으로부터 평양을 향하여 공격할 임무가 하달되였다. 적들은 《속전속결》로 공화국북반부지역을 단숨에 강점하려는 기도밑에 미제침략군 8군의 주타격을 전선서부의 개성―평양방향에 지향하면서 미1기병사단과 24보병사단, 영국침략군 27려단, 괴뢰군 1보병사단을 공격케 하고있었다. 그리고 이 주타격방향의 사단들로 하여금 원산에 상륙하는 10군단과 배합하여 38도선 계선의 아군방어를 돌파하고 큰길을 따라 방향별로 공격하여 평양지역에서 아군주력부대들을 《포위섬멸》하며 그다음 차후에 압록강과 두만강계선까지 깊숙이 침공하려고 시도하고있었다. …

캄캄한 해안도시상공으로 밤의 어둠을 잡아찢는듯 한 공습경보해제 고동소리가 울려갔다. 승용차는 미끄러지듯 시내의 광장앞을 최속으로 지나 인적드문 왼쪽 골목길로 꺾어들었다. 젊은 운전사는 수양산밑의 밋밋한 언덕길로 곧추 차를 내몰아 룡진의 집앞에서 세웠다. 지금까지 말 한마디없이 엄숙한 표정으로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룡진이 차에서 내렸다.

《내 30분후에는 나가야겠소.》

《알겠습니다.》 하고 운전사는 룡진의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긴장한 음성으로 짤막하게 대답했다.

승용차는 잦아들듯 어둠 저편으로 사라졌다. 룡진은 창문들을 빈틈없이 막아 불빛 하나 새여나오지 않는 컴컴한 뜨락을 지나 성큼성큼

방문앞으로 걸어갔다. 그가 방안으로 들어서자 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있던 안해가 유순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 마주나왔다.
《늦으셨군요.》
안해는 습관처럼 두손을 내밀어 가방을 받아들면서 룡진의 기색을 찬찬히 살폈다. 그는 남편이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에 그의 표정에서 무엇인가 중대한 일이 생겼다는것을 즉시 감촉했던것이다. 그러나 묻지는 않았다. 남편의 사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큰일이건 사소한 문제이건 일체 묻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데 그는 이미 습관되여있었다. 그는 웬일인지 까닭모를 불안에 빠져드는 자신을 다잡으면서 룡진의 가방을 책상우에 가져다놓았다.
《시장하시겠는데 어서 저녁식사를 들어요.》
룡진은 깊은 잠에 곯아떨어진 아이들을 말없이 살펴보며 잠시 서있다가 문득 생각난듯 밥상앞으로 다가와앉았다.
《아니, 당신도 아직 저녁밥을 먹지 않았소?… 애들하고 함께 먹지 않고…》
《저야 아무때든…》
《어서 오우.》
룡진은 안해와 마주앉아 서둘러 밥을 먹기 시작했다.
《아버지!―》
언제 깨여났는지 딸애가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 룡진의 목을 두팔로 끌어안으며 너무 좋아 발을 동동 굴렀다.
《오, 우리 명희로구나!―》
《아버지, 집에 들어온지 오랬나?》
《그럼, 오래지 않구. 잠꾸러기 명희는 쿨쿨 잠만 자느라고 그걸 몰랐지?》
《해해… 거짓말이야. 난 조금전에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들었댔는데두… 엄마, 그렇지?》 하고 딸애는 캐득거리며 웃어댔다.
《그랬댔어? 내가 그걸 몰랐구나!》
룡진은 시름을 잊고 껄껄 소리내여 웃었다. 그바람에 자던 정립이도 깨여나 룡진의 잔등으로 기여오르며 떠들썩했다.
《아버지, 그건 내가 지은 밥이야!》

《그래서 밥맛이 꿀처럼 달콤했구나. …》

귀여운 딸애의 오동통한 량볼과 이마, 눈을 애무하고나서 룡진은 얼핏 벽시계를 바라보았다. 차가 도착할 시간이 된것이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견한바대로 그때 밖의 골목길쪽에서 부르릉거리며 가까와오는 귀에 익은 승용차 발동소리가 들렸다.

《여보, 가방을 주오.》

《밤이 깊었는데 또 나가시는가요?… 무척 피곤하겠는데…》

《여보, 당신도 당원인만큼 알아두오. 오늘 도당에서는 장군님께서 주신 새 과업들을 집행관철하기 위한 중대한 회의가 있었소. 회의에서 토의결정한 문제들을 시급히 집행하려면 이제부터 낮과 밤이 따로 없어야 하오.》

그는 마치 한마디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듯 천천히 말하였다. 그리고는 눈을 번쩍이며 안해를 여겨보면서 조성된 준엄한 정세에 대해 간단히 알려준 다음 곧 밖으로 나갔다. 그가 발동을 건채로 대기하고있던 승용차에 올라타자 차는 소리없이 민틋한 언덕길을 내려갔다. 좁고 어둑컴컴한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오던 차는 큰길로 나서는 입구에서 제동을 걸었다. 군용화물차들과 포차, 땅크들이 우르릉거리면서 큰길을 꽉 메우며 지나가고 그뒤로 인민군병사들이 대렬을 지어 행군해가고있었다. 창문들을 막은 길가의 컴컴한 집들과 방공호에서 사람들이 큰길로 달려나와 불안과 기대를 안고 최전선으로 행군해가는 군대들의 움직임을 바라보고있었다.

인민군대렬이 지나간 다음 승용차는 큰길에 나서 속도있게 내닫기 시작했다. 어둠속에 잠겨있는 큰길가의 집들과 가로수들이 그림자처럼 얼핏얼핏 지나갔다. 도박물관, 시공원을 지나 옛전설과 풍치로 이름난 부용당결에서 오른쪽으로 꺾어든 승용차는 도인민위원회청사의 현관앞에 바싹 가서 섰다.

룡진은 빠른 걸음으로 현관계단을 올라가 출입문을 열고 복도에 들어섰다. 그는 이제부터 일생에서 새로운 시기, 더욱 책임적이고 불안한 시련기에 들어섰다는것을 뚜렷이 의식하면서 복도를 급히 걸어갔다.

8

그날밤 자정이 넘어서 미제침략군 비행대는 해주시를 두차례 폭격하였다. 저공하는 비행기소리, 고동소리, 련속되는 고사포소리, 요란한 폭탄소리들이 한데 뒤엉켜 해안도시는 무섭게 진동하였으나 룡진은 사무실을 떠나지 않고있었다. 시반항공지휘부에서 그에게 적비행기들이 전선으로 통하는 도시주변의 도로들과 다리를 폭격하고있다고 알려왔던것이다.

온밤 그는 시와 군들에 전화를 걸어 긴급히 과업을 주고 포치하고 추궁하고 따져묻고 승낙하면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와 관련하여주신 최고사령관동지의 과업들을 집행해나갔으며 도인민위원회 일군들을 불러 신속히 공장, 기업소들과 군으로 떠나보내기도 하였다. …

아침 8시경에 통화도중 전화가 끊어졌던 재령군인민위원회 위원장한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룡진은 급히 송수화기를 들었다.

《그렇소. 내 리룡진이요. 다시 반복하지 않겠으니 명심해 듣소. 우리들이 후퇴하게 된다는것을 알려주면 재령군내의 인민들속에서 혼란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동무의 생각은 아주 잘못된거요. 군위원장동무, 공민들을 믿으시오. 우리 인민정권은 인민들에게 어떤 정황에서든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항상 진실을 말해줘야 하오!》

룡진은 두드러지게 검은 눈섭을 미간으로 모으며 전선을 타고 울려오는 저쪽의 말을 듣고있다가 계속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정권기관일군들이 그들속으로 들어가서 일시전략적후퇴라는것과 최후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는 정치사상교양사업을 하라는거요!… 선전사업은 군과 면, 리의 정권기관일군모두가 해야 하오. 군위원장동무, 잊지 마시오. 이건 장군님께서 일시전략적후퇴와 관련하여 주신 과업들을 철저히, 드팀없이 집행관철하기 위해 도당상무위원회에서 취한 긴급조치요!》

걸상등받이에 몸을 기댄 그는 송수화기를 쥔채 잠시 말이 없더니 돌

연 날카롭고 준엄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게 하시오. 불순이색분자들과 반동놈들의 암해혼란책동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치시오. 인민정권의 힘, 인민독재의 무력으로 가차없이 분쇄처단하시오!-》

통화를 끝낸 룡진은 송수화기를 소리나게 놓고 일어서서 방공막을 걷어올린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에서는 채로 친듯 가느다란 마가을의 차거운 비가 소리없이 내리고있었다. 도인민위원회청사앞의 넓은 뜨락과 길은 물에 젖어 번들거리고 바람에 떨어진 젖은 락엽들이 구을러 다니고있었다. 밤을 새운 룡진의 눈은 수십개의 잔모래알이 들어간것처럼 뜨끔거렸다. 그는 돌아서서 천천히 책상앞으로 돌아와 걸상에 잠간 눈을 감고 앉았다가 눈을 번쩍 뜨고 탁상일지에 시선을 돌렸다. 거기에는 도당상무위원회에서 받은 분공들과 그가 당면하게 수행해야 할 주요사업내용들이 큼직큼직한 글씨로 적혀있었다.

△ 구월산인민유격대 조직문제(아침 첫시간에 도내무부 부부장동무를 만날것.)

△ 인민사단 조직사업

△ 도내 공장, 기업소들의 중요설비소개사업(철도를 비롯한 운수수단을 총동원할것.)

△ 현물세창고문제(농림처장에게 시급히 과업을 줄것.)

△ 인민군대에 보낼 겨울용군복과 모자를 결속할것.

△ 가을밀보리파종정형?

룡진은 탁상일지에 활달한 필치로 무엇인가 더 써넣으면서 서둘러 책상밑의 초인종단추를 눌렀다.

출입문에 서기가 나타나자 그는 즉시 명령조로 지시했다.

《도내무부 부부장동무가 도착했는지 곧 알아보시오!》

《방금 도착했습니다.》 하고 당돌해보이는 서기가 문가에 서서 대답했다.

《들여보내오.》

서기는 곧 문밖으로 사라졌다. 조금후에 누군가 침착하게 방으로 들어서는 기척을 느끼고 룡진은 탁상일지에서 출입문쪽으로 시선을 돌

렸다. 방문앞에는 전투가방을 어깨에 멘 젊은 내무상좌가 서있었다.
《도위원장동지, 선발대를 인솔하고 구월산으로 떠날 준비를 끝냈습니다.》 하고 그는 문가에 꼿꼿이 서서 명확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가까이 오시오.》
룡진은 젊은 상좌의 눈을 마주보면서 명령조로 말했다. 문앞에 차렷하고 서있던 도내무부 부부장은 어깨를 곧추 펴고 정확한 보조로 룡진의 책상앞으로 걸어왔다.
《지도를 가지고 왔소?》
《네.》
《꺼내놓소.》
철창을 건너지른듯 앞가슴이 탄탄한 젊은 상좌는 재빠른 동작으로 가방에서 지도를 꺼내 펼쳤다. 책상우에 지도가 펼쳐지자 룡진은 연구나 하듯이 한동안 묵묵히 주시했다.
《부부장동무, 여기가 구월산의 월정사이고 여기는 정곡사, 패협사요. 그리고 이곳은 산성이요.》 하고 룡진은 손가락으로 지도를 짚었다.
《동무들은 이제부터 여기 산성과 험한 골짜기들에 후방기지들을 꾸리시오. 많은 인원들을 수용할 병실들과 인쇄소, 병원, 정미소, 식량창고들을 될수록 빨리 지어야겠소. 다시 반복하지만 수많은 인원들이 구월산으로 들어올것이라는것을 예견해야 하오. 지금 은률, 신천, 재령, 안악군들에서 구월산으로 들어가 적들과 싸울 유격대들이 조직되고있소. 동무가 인솔하고 떠나는 선발대는 그들이 도착하면 여기서 군사훈련을 주는 한편 신속히 후방기지들을 꾸려놓아야 하오. 저축할 후방물자는… 쓰시오.》
수첩을 꺼내든 상좌는 걸상에 앉아 룡진이 불러주는 물품들과 수량들을 적어나갔다. 쌀, 건빵, 솜옷, 솜신, 전화기, 전화선, 의약품, 인쇄활자와 종이의 수량들을 불러준 룡진은 잠시 동안을 두었다가 말을 계속했다.
《이외 현지에서 앞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것들은 주저말고 즉시에 요구하시오. 현재 은률, 안악, 신천군의 소비조합상점들에 담배는 1만갑, 명태는 10톤이 있을거요. 이 수자는 내가 어제밤 직접 확인했소. 현지에 도착하면 즉시 인원들을 파견하여

접수하시오!… 부부장동무, 처음 해보는 생소한 임무인것만큼 어려운 일이 많을거요.》

그러나 도내무부 부부장은 신중한 표정으로 말없이 앉아있었다.

룡진은 한달전에 도내무부 부부장으로 제발된 스물다섯살의 젊은 상좌가 시종일관 침착성을 견지하면서 자기에게 부과된 새로운 과업이 어떤것인지 다 듣기 전에 자기의 성실성을 요란히 떠들지 않는것이 마음에 들었다.

《부부장동무, 우리는 앞으로 여기 구월산을 근거지로 하고 치렬한 유격투쟁을 전개하여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것이요.》

룡진은 엄숙한 표정으로 책상우에 펼쳐진 지도를 응시하면서 한마디한마디를 강조하듯이 천천히 말했다.

…산발들과 골짜기가 험한 구월산의 서쪽에는 멀리 남쪽 옹진이나 장산만, 몽금포방면에서 장연과 송화를 거쳐 은률군 소재지와 장연을 지나 대동강입구에 이르는 도로가 남북으로 가까이 관통하고있다. 동편에는 멀리 남쪽 해주에서나 사리원방면에서 재령군소재지, 안악군소재지를 거쳐 남포로 빠지는 도로가 구월산에서 멀리 떨어져 남쪽으로 뻗어있다. 동서 량면의 이 두 간선도로를 련결하는 선으로 은률군 장연에서 안악온천(은흥면)에 이르는 도로가 구월산의 북방을 돌았으며 은률군소재지에서 동남으로 달천온천을 거쳐 삼천 문화로 나가거나 혹은 신천을 거쳐 재령으로 접속하는 도로가 구월산의 서남방과 남방을 휘돌았다. 이외에 신천군소재지에서나 신천군문화면에서 옹진으로 와서 안악온천으로 빠지는 도로도 구월산의 동쪽기슭에 다가서서 남쪽으로 달리는 탄탄한 도로이다. 이러한 도로들은 모두 사리원에서 장연으로 나가는 철도선과 해주로 나가는 철도선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용이하게 련락할수 있는 중요도로들이다. 이 도로들을 제압차단함으로써 원쑤들의 수혈로를 끊고 기동성을 파괴하며 놈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것이다.

구월산은 고립된 산이라고는 하지만 안악, 신천, 은률 등 세개 군의 넓은 땅에 뻗쳐있는 황해도 서부일대의 가장 크고 험하고 깊은 산이다. 우리들은 이 구월산을 근거지로 하여 적들의 발악적인 침공을

저지하고 후퇴하는 우리 일군들과 로동당원들, 광범한 인민들을 모두 포용하여 미제침략자들로부터 보호하며 또한 령활성을 발휘하여 적들을 불의에 기습타격하며 주변의 도로들을 제압차단함으로써 적들의 기동성을 여지없이 파괴하게 될것이다. 그리하여 해방후 5년간 민주건설의 토대우에 이룩된 서부일대의 귀중한 향토와 인민의 재산과 재부들을 야만적인 원쑤들의 략탈만행으로부터 사수하게 될것이다. …

룡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듯 침묵하고있다가 걸상에서 일어섰다.

《부부장동무, 나는 동무가 맡은 과업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면밀하게 수행하리라고 믿소. 떠나오. 시간이 귀중하오. 그곳에서의 사업정형에 대해서는 동무자신이 직접 나에게 매일 보고하시오.》

《알겠습니다.》

젊은 상좌는 낮으나 힘이 느껴지는 침착한 목소리로 짤막하게 대답했다. 룡진은 구월산으로 떠나가는 그의 단단한 손을 억세게 잡았을뿐 특별한 작별의 말은 없었다.

문앞에까지 걸어나가 도내무부 부부장을 바래고난 그는 걸상으로 돌아와 앉아 허리를 쭉 펴고 눈을 감았다. 눈이 못 견디게 련속 뜨끔거리고 깔깔했다.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서기가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잠간 눈을 붙이고 휴식하는 룡진을 방해하지 않으려는듯 들어올 때처럼 소리없이 나가려고 슬며시 돌아섰다.

《경호동무, 무슨 일이요?》 하고 잠잠히 앉아있던 룡진이 어느새 번쩍 눈을 뜨고 서기에게 물었다.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동무가 찾아왔습니다. 별로 긴급한 일은 아닌것 같은데… 만나시겠습니까?》

《들여보내오.》

룡진은 책상우에 펼쳐놓았던 문건들과 서류철들을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방안으로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인 박광훈이 들어섰다. 그는 웬일인지 눈에 띄게 풀이 죽고 활기라고는 전혀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도위원장동지!》 하고 광훈은 용기를 내여 큰소리로 말하고는 어색한듯 빙그레 웃었다.

《오랜만이군, 앉게.》

룡진은 이상스레 허둥거리는 광훈의 우둥부둥한 얼굴을 얼핏 스쳐보면서 가까이에 걸상을 당겨주었다. 광훈은 우울한 기분으로 룡진의 곁에 무겁게 앉았다.

《한가지 부탁할게 있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에 찾아왔네.》

광훈은 도간도간 한숨을 쉬여가면서 자기는 일시적인 후퇴이후 시내에 남아 지하공작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금 도당에서 오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룡진동무도 아다십이 나는 눈이 몹시 나쁜데다가 야맹증이 심해서 밤에는 더욱 못 보지 않나. 사정은 그렇지만 어디 즉석에서 말하게 되더라구…》 하고 그는 도수높은 안경을 벗어들고 손수건으로 닦으면서 말을 덧붙였다.

《친구로서 부탁하는 말인데 나를 좀 도와주게. 내가 자신에 대해서 직접 말하자니 거북한데두 있지만 나의 사정을 잘 모르는 도당에서는 믿지 않을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되면 준엄한 시절에 과업을 회피한다고…》

룡진은 안경을 벗어 낯선 사람처럼 보이는 광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팔뚝뼈가 으드득 소리나게 두손을 꽉 쥐였다. 그러나 입을 꾹 다물고 말은 하지 않았다.

《어렵겠나?… 사실은 나도 남아서 보람있게 지하투쟁을 하고싶은데 이놈의 눈때문에… 룡진동무, 왜 그러나?》

《듣고있네.》

멀리서 뭐라고 중얼대는듯이 들리는 광훈의 말소리를 들으며 룡진은 억제할수없이 솟아오르는 분노와 가슴쓰림을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당장 욕설을 퍼붓고 거절하여 쫓아보내고싶었지만 그는 분격을 지그시 누르면서 랭정하게 생각하였다. 지하공작이란 적구에서 최대의 신중성과 민첩성외에 용감성과 강의한 의지가 필요한 어렵고도 간고한 투쟁이다. 누가 적들에게 변절, 고발할수도 있고 실수하여 적들에게 체포될수도 있다. 체포되는 경우 적들에게서 형언할수 없는 야수적인 고문과 악형을 받게 된다. 그런 때 의지가 약하면 그 고문을 이겨내지 못할수 있다. 그렇게 되면 지하조직은 만회할수 없는 파국

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광훈은?… 그가 과연 체포되는 경우 조직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혀를 이발로 끊을만 한 용기와 의지가 있는가?… 선량하고 무던하며 누구에게나 두루 춘풍인 광훈은 겁이 많은 사람이다. 그 비겁성으로 하여 그는 자기자신의 한몸만이 아닌 더 많은것, 더 큰것을 잃을수도 있다. 보통때, 평범한 날의 광훈은 의리도 있고 총명하며 령리하다. 사업에서도 그는 지금까지 능력있고 수준있는 일군으로 평가되였으며 사생활 역시 깨끗하고 흠잡을데 없다. 그러나 일단 시련이 오고 공포가 닥쳐들면 그는 부지불식간에 자기를 상실한다. 그의 내부에 깊이 잠재해있던 비겁성이 표면으로 부풀어오르고 밖으로 나와 총명, 의리, 량심… 모든것을 삼켜버리고마는것이다. 그렇게 되면 광훈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되여버린다.

《룡진동무, 몹시 불쾌해하는것 같은데… 사실 내 부탁은 들어줘도 좋고 뭣하면 그만둬도 나는 다르게 생각하지 않겠네. 만약 자네의 립장이 딱해진다면…》

오래동안 침묵하고 생각에 잠긴 룡진의 기분을 살피면서 광훈은 컴컴한 얼굴로 풀이 죽어 일어섰다. 얼핏 보기에는 지금 그가 태연한것같이 보였으나 실은 불안해하고있다는것을 룡진은 감각으로 정확히 느끼고있었다.

《광훈동무, 부탁을 명심해서 들었네.》 하고 룡진은 그의 시선을 피하면서 괴로운 어조로 나직이 말했다. 그리고는 이제 즉시 도당에 전화를 걸어주려고 손을 내밀어 송수화기를 잡으려다가 생각을 달리했다.

(내가 직접 도당위원회에 찾아가서 구체적인 나의 의견을 말하고 신중하게 료해하지 못한채 선발한 광훈이를 시내에 남게 될 지하조직원 명단에서 취소시켜야 한다.)

《룡진동무, 바쁜 시간에 이렇게 뛰여들어 미안하게 됐네.》

광훈은 무슨 말인지 더 하려다가 단념하고 문앞으로 걸어갔다.

룡진은 그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도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있었다.

(내가 어째서 지금까지 광훈이를 되게 채찍질하고 드세게 단련시키지 못했는가?… 분망한 사업에 몰려서?…)

항상 룡진은 모든 개인적인 일들은 뒤로 미루면서 살아왔다. 후에… 후에 그럴 사이가 없다는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미루어왔었다. 황해도

벽성근방태생인 광훈이는 소년시절에 일가식솔들과 함께 만주로 살길을 찾아가던중 아버지의 병환으로 룡진의 고향마을에 정착했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 한마을에서 살았다. 그런만큼 룡진은 생활을 통해 그 누구보다 광훈에 대해서 잘 알고있었다. …그런데 과연 광훈의 비겁성이 사업과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였던가?… 룡진은 소년시절부터 한마을에서 함께 성장한 광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무거웠다.

(나는 이제 도당으로 가서 광훈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긴박한 문제인만큼 시간을 끌어선 안될것이다.)

문득 대기실쪽에서 누군가 벅적 다투면서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

아직은 정숙한 대기실에서 이처럼 조심성없이 떠드는 일은 별로 있어본적 없었다.

룡진의 방문앞에 못마땅한 표정으로 서기가 나타났다.

《위원장동지, 옥계국수집에서 찾아왔다는 웬 낯모를 사람이 막무가내로 꼭 만나 신소할 일이 있다면서…》

서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몸이 다부지고 강직해보이는 낯선 중년남자가 격한 기분으로 따라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도위원장어른을 꼭 만나서 직접 신소할게 있어 찾아왔습니다. 제 옥계국수집주인입니다.》 하고 그는 얼마간 긴장하여 온몸을 꼿꼿이 펴고서서 흥분한 목소리로 자기를 소개했다.

《앉으시오.》

찾아들어온 중년남자에게 룡진이 걸상을 당겨주었으나 그는 색이 바랜 허름한 회색모자를 두손으로 움켜쥔채 걸상앞에 그대로 꼿꼿이 서있었다.

당돌한 룡진의 서기는 질서도 례절도 안중에 없이 마구 방으로 들어온 그를 미간을 쪼프리고 흘겨보며 총총히 방을 나갔다.

《그래 신소할 일이란 뭡니까?》

룡진이 주의깊게 그를 살펴보면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다.

《도내무부에서 저의 집 마차를 몰수해 끌어갔습니다.》

옥계국수집주인은 챙챙한 음성으로 주저없이 응대했다.

《주인의 생각에는 그럴만한 리유가 전혀 없습니까?》

《글쎄 동원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제때에 응하지 않았다는게 그 리유지요. 하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룡진의 눈이 갑자기 엄해지면서 그를 찬찬히 주시했다.

《그건 신소할것이 못됩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나라가 생사존망을 판가리하는 어려운 전쟁을 겪고있는데 공화국공민된 도리로 한달에 한두번 있는 우마차동원을 회피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주 잘못했습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의 사정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곳 시내에는 우리가 후퇴한다는 헛소문이 온통 쫙 퍼졌습니다. 그통에 밀가루, 메밀장사군들이 정신없이 가루들을 마구 끌어내다가 눅은 값으로 팔아치우고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들이느라고 제가 그만 짬이 없었지요. 공화국정권의 승리를 믿지 못하는 그런 너절한 장사군들의 물건은 사실 거저 가져도 시원치 않겠지만… 글쎄 우리가 후퇴를 한다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데두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허무맹랑한 그 랑설을 진짜로 믿는단 말입니다. 한데 이것 보십시오. 그따위 무식한 장사군들은 그렇다치고 제 집의 마차를 몰수해 끌고가는 내무원까지도 한다는 소리가 후퇴의 엄혹한 시기에 개인의 눈앞 리익밖에 모르는 해독분자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그려. 내무원이 어쩌면 떠돌아가는 헛소문을 듣고 그런 소리를 탕탕 하는지 억이 막히드란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실은 그래서…》

한참 챙챙한 목소리로 흥분하여 떠들어대던 옥계국수집주인은 룡진이가 찬찬하고 엄격한 시선으로 자기를 쳐다보고있는것을 알자 곧 말을 끊었다. 그는 자기가 쓸데없이 말을 너무 길게 늘어놓았으며 틀림없이 큰 권력을 쥐고있는 도위원장이 자기 방에서 당장 내보내라고 서기에게 명령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룡진은 내내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어떤 때 무슨 일에나 덤비는 일이 없었고 자신이나 아래일군들에 대해서 요구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였다. 바로 이러한 높은 요구성이 그로 하여금 도내에 살고있는 백수십만의 공민들앞에 지닌 자기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가를 똑똑히 자각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금도 바로 그런 요구성이 긴장하고 바쁜 자기앞에서 두서없는 말을 떠들어대는 한 공민의 이야기를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듣도

록 했던것이다.

《실례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그만 정신없이… 실은 진실을 확인하고저 도위원장어른을 찾아왔었는데… 후퇴한다는, 시내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물론 틀림없이 그건 헛소문일테지만…》 하고 국수집주인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잘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꽉 다물었던 룡진의 입에서 나직한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그건 사실입니다.》

짤막한 룡진의 실무적인 한마디말에 중년의 국수집주인은 불현듯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되였다. 그는 룡진의 말을 착각해서 잘못들었는가 하여 머리를 조금 앞으로 기웃하고 더듬거리며 다시 물었다.

《저… 무슨… 말씀인지요?》

《우리는 최후승리를 위해 일시 전략적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노랑머리 미국놈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단 말이지요?》

국수집주인은 까딱않고 서있었다. 그러나 방금전처럼 온몸을 꼿꼿이 펴고 서있는것이 아니라 갑자기 늙은이처럼 구부정해서 팔을 맥없이 드리우고 서있었다. 돌연 그의 손에서 쥐고있던 회색모자가 방바닥에 툴렁 떨어졌다. 그는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힘겹게 모자를 주어든 다음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쇠사슬같은것이 목을 조여대여 그것을 풀어헤치고나싶은듯이 고개를 한번 휘돌리고나서 천천히 무너지듯 걸상에 주저앉았다. 지금까지 길거리에 어수선하게 떠도는 후퇴한다는 말을 랑설이라고 자신있게 믿었던것— 그가 제멋대로 품었던 기대는 순식간에 사라지고말았던것이다.

《그렇군. 인민공화국정부가 선 다음부터 우리 국수집이 더욱 커지고 흥했었는데… 허, 그 바다건너온 미국오랑캐놈들이 시내에 들어온다니 이젠 국수집도 페업이지…》

그는 드디여 자신을 수습하고 다잡은듯 겨우 알아들을 목소리로 웅얼웅얼했다.

룡진은 우리 공화국정권하에서 자기네 국수집이 커지고 흥하게 됐었다는 그의 소박하고 진실한 고백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지는것을 느꼈다.

(옥계국수집이라고 했던가. 가만, 옥계국수집?… 이 사람에 대한 말을 언제인가 분명 들은적이 있는데…)

룡진은 문득 전쟁전 어느날 김제원농민에게서 들었던 말을 기억해냈다. 김제원농민과 가까운 사이인 이 중년의 국수집주인은 장군님께서 국수를 좋아하신다는것을 전해듣고는 못내 기뻐 어쩔줄을 몰라하며 장군님께서 우리 도에 오시면 꼭 자기가 최상으로 정성껏 만든 국수를 대접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자기의 필생의 소원임을 도인민위원회에 제기했던 바로 그 옥계국수집주인이였다. 기억속에 살아있는 이 생생한 일화는 한순간 룡진을 과거에로, 평화시기에로 이끌어갔다. 그러나 다음순간 그는 또다시 현실로 되돌아왔다.

(이 사람에게 국수집을 종전그대로 열게 하고 적구에서 투쟁할 지하조직성원들에게 방조를 주도록 할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룡진의 머리속에 피끗 떠올랐다 사라졌다.

《실례했습니다, 바쁘실텐데…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중년의 옥계국수집주인은 어줍게 웃으며 걸상에서 일어섰다.

《잠간만 기다리십시오.》

룡진은 그에게 정중한 어조로 말하면서 책상우의 송수화기를 들었다.

《마차를 곧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만두십시오.》

국수집주인은 펄쩍 놀라며 홱— 단호하게 손을 내흔들었다.

《좀전에도 제 속심을 솔직히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후퇴한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곳까지 찾아온것이지 그까짓 마차따위가 대체 뭐겠습니까! 공화국정권하에서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사실말이지…》

자기의 생각을 보다 명백하고 설득력이 강하게, 생동하게 표현할수 있는 적중한 말을 고르느라고 잠시 입을 다물었던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다.

《공화국정권은 우리들이 늘쌍 숨쉬는 공기와 같고 하늘과 같고 땅과 같은것이라고 느끼며 살았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애당초 다른 생활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다건너 미국악마들이 들어온다니…》

국수집주인은 치솟아오르는 격한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한가지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룡진은 걸상에서 일어나 뚜걱뚜걱 그의 곁으로 가까이 걸어갔다.
《저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옥계국수집이라는 간판을 종전처럼 그대로 걸어놓고 영업을 계속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뭐라구요?!… 아무렴 제가 그놈들밑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원, 천만의 말씀입니다그려!…》 하고 국수집주인은 격하여 부르짖듯 큰소리로 떠들썩했다.
《그런게 아닙니다.》
룡진은 그에게 지금 도내의 여러곳에서 유격대들이 신속히 조직되고있으며 적들이 강점한 시내에 남아 지하투쟁을 하게 될 사람들이 선발되고있는만큼 국수집을 그전처럼 열어놓고 놈들과 싸우는 그들을 도와줄수 있을것이라고 숨김없이 말해주었다.
《잘 생각하여보십시오. 그렇게 하는것은 우리 공화국정권의 종국적인 승리를 위한 보람있는 투쟁으로 될것입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같은것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밀가루니, 메밀이니, 반죽이니 하는것밖에 저는 모르는 사람이지요. 글쎄 혹시 국수를 맛있게 하는 일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생각이 없지만…》
그러나 룡진은 지하투쟁을 하는 일이 그 어떤 특수한 사람들만 할수 있는것이 절대로 아니며 나라를 사랑하고 적들을 증오하며 용감성이 있고 의지만 강하면 그 어느 공민이라도 할수 있다고 설복하였다.
《어떻습니까? 결심하고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룡진이 그토록 여러번 권고하였으나 중년의 국수집주인은 선뜻 응해나서지 않고 그냥 침묵하고있었다.
《하여튼 그렇게 믿어주시니 고맙습니다만 제가 그런 일을 꽤 해내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돌아가 생각해보겠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좋습니다.》
룡진은 자기의 권고에 곧 경솔스레 쉽게 동의를 표시하지 않고 깊이 생각해본 다음에 결심하려는 그의 신중한 태도가 오히려 더욱 마음에 들었다.

《돌아가서 잘 생각하여보십시오. 어쩐지 저는 이제 반드시 동의하게 되리라고 믿고싶습니다.》 하고 룡진은 내심 흡족한 기분으로 묵직한 머리를 끄덕였다.

《안녕히 계십시오. 전 돌아가보겠습니다.》

국수집주인은 들어올 때처럼 온몸을 꿋꿋이 펴고 출입문앞으로 걸어갔다. …

9

광훈의 문제로 즉시 도당위원회에 들렸던 룡진이 도당위원장과 진지한 의견을 나누고 방을 나섰을 때는 오후 5시경이였다.

룡진은 분주하게 복도로 오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기도 하고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는것으로 그들의 인사에 정중히 답례하면서 긴 복도를 지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궂은비가 내리다말다하면서 소리없이 내리고 있었다. 어딘가 저 멀리 남쪽의 도시교외에서 번개불이 꿈틀거리고 북쪽 수양산우의 하늘은 비구름의 검은 가장자리아래로 생기없는 노을이 훤했다. 도시는 가지각색의 온갖 소음과 축축한 습기로 가득차있었다. 룡진은 산란한 기분으로 현관앞에 잠시 서있다가 계단을 내려 비에 젖은 락엽들이 깔린 뜨락의 승용차쪽으로 묵묵히 걸어갔다.

도당정문곁의 접수실쪽에서 대기하고있던 운전사가 총총히 달려와 재빨리 발동을 걸었다. 그는 무거운 기분에 잠겨 침묵하고있는 룡진에게 조심히 물었다.

《위원장동지, 곧바로 도인민위원회에 가시렵니까?》

《옥계국수집에 들려가겠소.》 하고 룡진은 지시하는 말 같기도 하고 혼자생각 같기도 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사의 눈에 피끗 놀라운 빛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도당정문을 서서히 빠져나와 차를 오른켠으로 꺾었다. 사실 운전사가 내심 놀란것은 당연한것이였다. 룡진은 평소에 언제한번 승용차를 타고 사사로이 시내의 어떤 음식점이나 식당에 들려본적이 없었다. 그러던

그가 낮과 밤 따로없이 긴장하게 시간을 보내는 바로 지금 뜻밖에도 국수집으로 차를 몰라고 지시했던것이다.

운전사는 자기가 혹시 착각하여 그의 말을 잘못 들은것이나 아닌지 미타해서 흘끔 뒤를 돌아보기까지 했다. 그러나 룡진은 뒤좌석의 등받이에 무겁게 몸을 기댄채 입을 꾹 다물고 여전히 침묵하고있었다. 그는 지금 방금전에 도당위원장과 단둘이 마주앉아 토의한 광훈의 문제를 생각하고있었다. 광훈의 문제는 룡진이 생각했던것보다도 훨씬 더 간단히 해결되였었다. 도당위원장은 룡진의 의견을 듣고 적들이 강점한 시내에 남게 된 지하조직원들의 명단에서 광훈이를 즉시 제명할것을 동의했던것이다. 광훈의 문제를 그렇게 락착짓고 도당위원장방을 무거운 기분으로 나선 룡진은 어째선지 다시금 옥계국수집 주인을 만나고싶었다. 그리하여 룡진은 지금 그를 만나러 찾아가고있었다. 그러나 룡진은 후퇴의 엄혹한 시기가 눈앞에 닥쳐오자 겁을 먹고 풀이 죽어 도인민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왔던 광훈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연뎅이를 달아놓은듯 무거웠고 기분도 몹시 좋지 않았다. 결정적인 중요한 시각에 신념을 잃고 허둥거리는 그에 대한 분격과 함께 그를 그토록 현재까지 방임해두고있은 쓰디쓴 후회와 자책감이 무겁게 가슴을 짓누르고있었던것이다.… 이렇든 저렇든 광훈이는 사업상견지에서나 인간적으로나 오랜 기간 나의 가까이에서 살아왔고 생활해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어째서 왜 지금껏 나는 의지박약하고 신념의 대가 강하지 못한 그에게 신념의 굳센 대를 간직하도록 채찍질하지 못하였는가? 나는 인정에 앞서 누구보다 먼저 가까이에 있는 광훈의 그러한 약점을 타격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하여 그를 대가 선 강한 인간으로 단련시켰어야 했다. 평상시의 평온한 생활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광훈의 약점을 나는 잘 알고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는 이미 5년전에 벌써 이런 뼈아픈 체험을 한차례 겪지 않았던가!… 룡진의 머리속으로 5년전 그때에 있었던 가슴쓰린 추억이 얼핏 떠오르자 회상은 무서운 힘으로 그를 틀어잡았다. 승용차는 길가에 고인 비물을 사방으로 휘뿌리며 시내의 큰길로 내닫고있었다.

…해방된 그해 겨울, 룡진은 도인민위원회 량정부장직무를 수행

하고있었다. 그때 나라의 식량사정은 형언할수 없으리만큼 어려웠다. 물론 그것은 패망한 일제의 식민지략탈과 파괴에서 기인된것이였다. 그해에 함북도에서는 여느해보다 수확고가 50프로 줄어들었으며 함남도의 수확고는 40프로, 평남도는 30프로, 강원도는 10프로 이상씩 각각 감소되였다. 또한 평북도의 곡식은 제대로 여물지 못하였으며 황해도에서는 반동들이 남조선으로 식량을 빼돌리는 책동을 감행하였으므로 역시 식량문제가 매우 긴장되여있었다. 그 시기 북조선의 인구는 약 925만 7 000명에 달하였는데 알곡수확고는 불과 1 110여만석밖에 안되였다.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알곡생산량도 국가의 통제밑에 장악되지 못하고 개인상공업자들에게 많이 들어가있었으며 농촌에 분산적으로 잠겨있었다. 그런데다 이국땅에서 시달리던 수십만의 동포들이 조국에 돌아옴으로써 더 많은 식량이 요구되였으며 파괴된 공업을 건설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식량에 대한 수요는 급격히 늘어나고있었다. 그렇다고 하여 식량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할수도 없었다. 1945년에 심한 가물이 서유럽나라들을 휩쓸었고 동유럽나라들은 큰물로 농사를 망쳤으며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전쟁시기 겪던 식량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이러한 국제적형편과 나라의 사정을 깊이 헤아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우리 힘으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며 당면한 식량문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우선 일제놈들의 소유로 되였던 식량을 빼앗아내여 그것을 공급원천으로 삼는 한편 패망하여 도망친자들의 소유토지에서 생산된 그해 수확고가운데서 70프로는 그 토지를 소작한 농민들에게 남기고 나머지 30프로를 국가에 바치게 하여 식량공급에 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두가지 원천만으로는 기본식량에 대한 공급사업을 진행할수 없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당은 식량절약투쟁을 강화하는 동시에 농민들속에서 량곡성출운동을 널리 벌려 성출된 량곡을 식량공급의 기본적인 원천으로 삼게 하였다. 또한 량곡성출운동의 정치적의의와 중요성을 농민들속에 깊이 해설하기 위하여 우수한 일군들로 성출지도대를 무어 각 지방으로 파견하였다. 그러한 당의 조치에 따라 도인민위원회 량정부장직책에서 사업하던 리룡진은 한 군의 성출지도대

를 책임지고 파견되였다. 룡진은 성출지도대성원들과 함께 담당지역 농민들속으로 들어가 량곡성출운동의 정치적의의와 해방된 나라에 조성된 식량형편을 실감있게 해설선전하였다. 그러던 어느날이였다. 룡진은 군소재지 가까이에 있는 면의 농민들속에서 흉흉한 여론이 떠돌며 불평불만이 야기되고있다는 제기를 받고 그곳 면소재지로 급히 나갔다. 도착하는 즉시 그곳 농민들 몇명을 만나 료해한바에 의하면 면성출지도대에서 가가호호마다 성출미를 무조건 할당하고 집집을 뒤지기까지 하였다는것이였다. 그런데다 성출된 량곡에 대하여 지불하게 된 금액마저 제대로 물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바로 이런것을 기회로 지주들과 그와 야합한 일부 악질부농들은 성출운동이 일제때의 공출보다 더 가혹하다는 비방중상까지 퍼뜨리고있었다. 이러한 사태는 결국 성출운동에 대한 자원적인 농민들의 앙양된 열의를 식어버리게 하는것은 물론이고 당의 주위에서 농민들을 분리시킬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극좌경적인 행위였다. 그와 같은 실태에 분격을 금치 못한 룡진은 지체않고 면성출지도대본부로 들어가 광훈에게(도인민위원회 부원인 그는 면성출지도대의 책임자로 파견되였었다.) 따지고물으면서 추궁했다. 그러면서 지체말고 시급히 사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언명했다. 그러나 광훈은 중앙에서 면으로 곧장 내려온 중앙의 큰 간부의 지시를 그대로 집행하였을뿐이라고 오히려 당당한 태도로 나왔다.

《나를 추궁할 근거는 없네. 오히려 나는 룡진동무가 좀더 심사숙고하기를 진심으로 충고하는바이네. 지금 중앙에서 곧바로 여기 면에 내려와있는 그는 큰간부인데 권총까지 가지고 다니더구만. …》

《그러니 동무는 농민들의 자원성을 무시하고 그런 강압적인 방법으로 량곡성출을 하는것이 옳다고 진심으로 생각하나?… 그건 잘못된거야!》 하고 룡진은 흥분한 기색을 뚜렷이 보이면서 어성을 높였다.

《글쎄 이곳의 일부 농민들속에서 식량을 땅속에 숨기는 현상도 나타난것은 사실이거던. … 더구나 우리는 어쨌든 상부의 지시를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광훈은 잔뜩 볼이 부어 룡진에게 숙어들지 않고 대들었다.

《광훈이, 우리는 상부의 지시보다 당의 리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당원들이야!—》 하고 룡진은 높은 목소리로 설복하듯이 소리쳤다. 그런 다음 룡진은 밖으로 나와 농민들을 학교운동장에 모이도록 하였다. 면내의 농민들이 모여오자 룡진은 그들에게 가가호호마다 할당한 성출량곡을 취소한다고 선포하면서 자원적인 량곡성출의 절박성과 그 정치적의의를 해설하여주었다. 그리고 해방된 새 조국 건설을 위한 농민들의 애국적량심에 절절히 호소했다. 그 모임이 끝난지 30분도 채 못되여 룡진은 면당위원장방에서 중앙의 간부가 급히 부른다는 련락을 받았다. 룡진은 즉시 면당위원장방으로 갔다. 그가 방으로 들어서자 무슨 생각에 옴해있던 중앙간부는 재빨리 장발머리를 쳐들고 룡진의 눈을 정면으로 쏘아보았다. 눈이 얼음쪼각처럼 차겁게 번뜩였다. 그는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꺼내들고 마치도 치과의사가 대기하는 수많은 환자들중의 한사람을 진찰하듯이 실무적으로 따져물었다.

《동무의 성명과 현직무는 뭐요?》

룡진이 짤막하게 이름과 현직책을 말하자 그는 또박또박 적고나서 황소처럼 굵다란 목을 돌리며 거쉰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어느 당원이요?》

《공산당원입니다.》

《해방전에는 어디서 무엇을 했소? 기본직업을 말하시오.》

심문조의 물음에 룡진은 심히 불쾌하였으나 눌러참고 해방전의 기본직업은 농민이라고 사실대로 응답했다.

《농민출신! 여보, 내 그럴줄 알았소!》 하고 중앙간부는 무시무시한 눈길을 룡진에게 쏘아박으며 연필을 쥔 손으로 탕 책상을 내려쳤다. 입가의 근육이 경련이라도 일어난듯 씰룩거렸다. 그것은 흡사 먹이를 앞에 놓고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기색 그대로였다.

《혁명의 비렬한 배신자!… 소자산계급출신을 믿고 그래도 도간부로까지 등용했으면 감지덕지할 대신에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로동계급의 혁명을 도전해나서면 되는가!—》 하고 중앙의 큰 간부라는 사람은 이발을 갈면서 고함을 질러댔다.

《?!…》

너무나도 청천벽력과 같은 사나운 고함소리에 잠잠히 서있던 룡진은 술진 눈섭을 번쩍 쳐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혁명을 배신한적도 없고 반대해나선 때도 없습니다.》 하고 룡진은 온몸을 휘감는 흥분을 지그시 누르면서 가까스로 말했다.
《허튼소리 말아!… 로동계급을 위한 량곡성출을 반대하지 않았는가!…》
장발의 중앙간부는 말끝을 길게 뽑고 더듬거리면서 웨쳤다.
《혁명의 기본동력인 우리의 로동계급이 지금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있는 때에 성출운동이 어쨌다구?… 그게 반혁명이야!》
《명백히 말하지만 저는 량곡성출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량곡성출운동의 정확한 집행을 주장했고 현재도 저의 립장은 그렇습니다. 가가호호마다 할당하고 농민들의 집을 뒤지는 방법은 당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고 룡진은 얼굴이 해쓱해지면서 똑똑하게 말했다.
《뭐야? 그래 정말 나하고 끝내 맞서보겠는가?》
중앙에서 내려온 간부는 두입귀를 푸들푸들 떨며 두툼한 털슈바안주머니에 몽톡한 손을 쑥 밀어넣더니 거기에서 권총을 꺼내 책상우에 놓았다.
《우리 혁명이 반혁명분자들을 어떻게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매장해버리는지 아직도 모르는가!… 로동계급은 식량난을 겪고있구 지주놈들과 소자산계급나부랭이들은 여유량곡을 사처에 감추면서 의식적인 해독행위를 감행하고있는 이 준엄한 시기에 뭐 립장과 방법이라?…》
중앙간부는 타고앉았던 걸상을 와락 소리나게 뒤로 밀어제끼고 일어서더니 판사가 법정에서 죄수에게 선고하듯 웨쳐댔다.
《그따위 번지레한 말마디뒤에 자기의 반혁명적정체를 숨길수 있다고 어리석은 망상을 하지 말라. 혁명의 비렬한 배신자 리룡진, 이 시각부터 일체 모든 사업에서 손을 떼고 돌아가서 검토받을 준비를 하라. 출당과 철직은 물론이고 감옥이 기다릴것이다. 의견이 있는가?》
룡진은 확대된 억센 눈길로 찌르듯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류달리 조용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런 방법으로 량곡성출을 하여서는 우리 당의 존엄에 손상을 주게 된다는것이 저의 변함없는 의견입니다.》

《허튼소리, 그게 바로 투항주의적인 반혁명의 목소리야! 우리 당이 소자산계급따위들의 눈치나 보는 그런 허약한 당인줄 아는가? 썩 나가!—》 하고 그는 몽톡한 손으로 방문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룡진은 북받쳐오르는 분격을 억제하느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무엇엔가 발을 걸채면서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으로 도에 올라온 룡진은 도인민위원회에 출근하지 못했다. 일체 사업을 정지당했던것이다. 그리하여 주변에서는 그가 반혁명분자로서 곧 출당, 철직을 당하고 감옥에 갈것이라는 소문이 바람처럼 빠르게 퍼져갔다. 그런지 2일째 되는 눈내리는 날 고향에서 뜻밖에도 어머님이 불쑥 도의 룡진의 집으로 올라왔다. 온몸에 하얀 눈을 들쓰고 문득 집뜨락으로 들어서는 늙으신 어머니를 뵙자 룡진은 홀연 자기 눈에 눈물이 핑 도는것을 간신히 억제했다.

《어머님, 오신다는 소식도 없이 어떻게…》 하고 그는 낮은 소리로 말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머니는 한풀 꺾인듯 한 아들을 찬찬히 여겨보며 이윽토록 말 한마디 없었다.

《그래, 정녕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고 어머니는 목메인 소리로 물었다.

《…》

룡진은 말을 못하고 자애로운 어머니앞에 머리를 숙였다. 아들에 대한 불안스런 소문에 온밤 뜬눈으로 지새우고 눈내리는 먼길을 허덕허덕 찾아오신 어머님, 해방전 그 험악한 세월에 일찌기 남편을 잃고 농촌에서 5남매를 키우느라 눈물에 건건하게 간이 밴 어머니의 한생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했던가. 더덕더덕 흰천과 검은 천으로 기운 옷을 입어 동네부자집아이들한테 《얼룩수닭》이란 별명이 붙었다고 울면서 밤새껏 어머니를 잠 못들게 하던 어린시절도 생생히 떠오른다. 오직 자식들의 장래를 위해 인생의 온갖 고초를 묵묵히 겪으신 어머니를 언제한번 기쁘게 해드린적이 있었던가. … 룡진은 억제할수없이 솟아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소리없이 울었다.

《어서 속시원히 말을 하렴. 이 좋은 세월에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목이 갈린듯 한 어머니의 목소리는 절통하게 울렸다.

《어머니!…》

《네가 남들처럼 학교공부를 많이 하지 못했지. 학식이 모자라 그 높은 자리에서 일을 잘 보지 못하겠거든 어째서 고향으로 내려와 에미하고 농사지을 생각은 못했니. 높은 자리가 그렇게도 탐이 나더냐?…》

근심과 불안과 시름으로 며칠사이에 몰라보리만큼 늙은 어머님의 저으기 갈린 조용한 목소리는 룡진의 가슴을 아프게 두드렸다. 그렇다. 높은 직책에서 똑바로 일을 못하겠으면 같이 농사를 지었으면 좋았을게 아니냐는 어머니의 저 소박한 말에 큰 진실이 있다. 차라리 고향에서 어머니와 함께 농사나 지으며 살았더라면 인민의 원쑤로, 반혁명분자로 몰리는 일은 없었을것이다. 그런데… 이제 반당반혁명분자로 되여 감옥에 간단 말인가?… 룡진은 잠에서 깨여난 사람처럼 흠칫 놀랐다. 심장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까지 아직은 느껴보지 못했던 커다란 공포가 불시에 자기의 온몸을 휘감는것을 그는 느꼈다. 그러나 룡진은 문득 어머니가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생각했다. 그는 몸서리치는 공포를 애써 의지로 억누르며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말씀대로 이 좋은 세월에 아무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웬 소문이 고향마을에까지 그렇게 자자하니? 난 동네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고 나다니지 못하겠다.》

룡진은 아무 말도 못했다. 과연 무슨 말로 어머니의 불안하고 아픈 마음을 진정시킬수 있겠는가. … 어머니는 침묵한 아들을 이윽토록 말없이 바라보더니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나직나직하면서도 엄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가 정말 장군님께서 펴시는 정치를 반대했느냐?》

《어머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렴 제가 그럴리야 있습니까.》

《그래선 못쓴다. 옛적부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개짐승만도 못하다고 했느니라. 학교공부도 변변히 못하고 큰일군재목도 못되는 네가 뉘덕에 그런 높은 자리에서 일을 보게 됐느냐. 다시 말한다만 어느때든지 배은망덕이란 인간이 못할짓이니라!》

《어머님, 마음놓으십시오. 제가 절대로 그런 인간은 아닙니다. 혹

시 아는것이 부족해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대로 일을 잘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긴 하였지만…》

《모르겠다.》 하고 어머니는 꺼지게 무거운 한숨을 내쉬였다.

《이제 방금 오는길에 네 어릴적 친구인 광훈이란 사람을 만났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를 분명 알아보고는 슬쩍 멀리서부터 피하여 지나가더구나. 난 그 사람에게 돌아가는 너에 대한 소문이 정말인가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멀찌감치 피하는걸 보고는 헛소문이 아닌줄 생각했다. 반동의 에미를 만나서 그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때 내 가슴에서 무엇이 철렁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걷지 못하고 한참 주저앉았다가 일어섰다. …》

호곡소리와도 같은 어머니의 음성은 룡진의 가슴을 그 어떤 무딘 칼로 도려내는것처럼 아프게 들렸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이처럼 다 자라서까지도 어머님의 속을 태우게 하는 저를…)

어제 밤 룡진은 광훈이가 도에 성출지도대의 일로 올라왔다는것을 알고 처를 그 집으로 보냈었다. 그곳 소식이 궁금하여 만나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광훈은 종시 오지 않았었다. 어린시절부터 한마을에서 지금까지 함께 성장한 광훈이, 일제때 독서회사건으로 감옥살이도 같이하며 고생한 광훈이만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했던 룡진이였다. 그런데 어쩌면 광훈이까지 그럴수 있단 말인가?… 그가 정말 나를 반당반혁명분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럴리는 없을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광훈이는 그렇게 행동하는가. …

어머니도 오래동안 무거운 시름에 잠겨있었다. 그러다가 뒤늦게 생각난듯 가지고온 무명보꾸레미를 풀더니 대추, 밤, 삶은 고구마, 떡을 애들에게 주라며 내놓았다.

《이건 네가 좋아하는 수수엿이다.》 하고 어머니는 흰 종이에 따로 성의있게 꾸린것을 내놓으며 말을 보탰다.

《음전이가 보낸거다.》

《?!…》

《신재령 나무리벌근처로 출가한 음전이 말이다. 지금 고향친정집에 나들이와있는데 내가 여기로 떠나는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

로 찾아왔더구나. …》

《…》

《상심하는 나를 위로하면서 음전이는 네가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껏 꿋꿋이 마음의 고통과 쓰라림을 참고 이겨내던 어머니의 눈에 끝내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너한테는 제가 보내는것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만… 하도 그 마음이 눈물겨워서…》

어머니는 끝내 말을 끝맺지 못하고 눈굽을 눌렀다.

(음전이!—) 하고 룡진은 마음속으로 그 이름을 불렀다. 청춘시절에 고향마을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벗으로 처음 사귀였던 녀자, 부모의 강요에 항거하여 마을의 우물에도 빠져보고 느티나무에 목까지 매였었으나 종시 불우한 운명대로 먼곳의 낯모를 남자에게 시집간(룡진은 그때 독서회사건으로 서대문감옥에 있었는데 출옥후 그러한 사실을 자세히 들었다.) 그 녀자가 보낸 수수엿꾸레미를 물끄러미 추억을 더듬듯이 바라보면서 룡진은 침묵하고있었다. 그는 자기에 대한 애끓는 걱정과 상심으로 수척해지고 폭삭 늙으신 어머니앞에서 힘차게 듬직하니 이렇게 말하려 했다.

(어머님, 음전이는 가장 정확한 말을 했습니다. 백번을 죽어도 저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룡진은 커다란 내심의 흥분과 격정이 울컥 솟아올라 입술을 떨뿐 혀가 굳어져 말을 못했다.

문득 승용차가 멎어섰다. 차안의 뒤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있던 룡진은 무거운 생각에서 빠져나오며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자그마한 가게방들사이로 추녀가 번쩍 들린 옥계국수집이 눈에 띄였다. 젊은 운전사가 정확한 장소에 정확히 차를 세웠던것이다. 차문을 열고 내려선 룡진은 비물이 드문드문 고인 국수집뜨락앞으로 걸어갔다.

퇴색한 회색작업복을 입고 허름한 캡을 쓴 주인이 마침 찌거덕거리는 사다리우에서 비물에 얼룩진 국수집간판을 물걸레로 깨끗이 닦고 있었다.

룡진은 그가 자기의 권고에 응하기로 결심한것이라고 기쁘게 생각하면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공화국정권을 공기와 물, 하늘과 땅에 비교했었지. …) 하고 룡진은 빙그레 웃으며 위태롭게 흔들거리는 사다리를 밑에서 힘있게 꽉 붙잡았다.

《주인님, 수고합니다.》

《어이구, 오셨습니까. 놓으십시오. 일없습니다. 찌거덕대는 이 사닥다리에 습관이 됐는걸요. 이제는 그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말끔히 닦아야지요. 우선 간판부터 환해야 할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길목 좋고 국수맛 좋겠다, 간판까지 환하니 손님들이 쓸어들텐데 돈은 틀림없이 듬뿍 벌게 됐지요.》 하고 국수집주인은 사닥다리우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마차는 찾아왔습니까?… 내가 도내무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네. 얼마전에 찾아가라는 통지가 왔습디다. 그런걸 제가 가지 않았지요. 물자수송과 소개사업으로 쓸데가 많겠는데 거기서 쓰라지요.》

《아니,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국수집을 운영하는데도 그렇고… 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까짓 마차는 이제 또 구하게 되겠지요.》 하고 사닥다리우에서 고집스럽게 떠들어대던 국수집주인은 귀에 익은 말의 투레질소리에 흘끔 뒤를 돌아보았다.

새파랗게 젊은 내무원인 특무상사가 마차를 끌고와서 국수집뜨락에 세웠다. 낯익은 뜨락에 들어선 공골말은 불시에 앞발을 쳐들고 사닥다리우의 주인을 향해 반가운듯 소리쳐 울어댔다.

마차를 끌고온 특무상사는 사닥다리우의 국수집주인과 밑에 선 룡진을 경멸하는듯 한 눈길로 일별하고나서 공식적인 어조로 물었다.

《이 국수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네, 저올시다.》 하고 사닥다리우에서 주인이 챙챙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면 좀 내려와야겠습니다.》

젊은 내무원은 규정대로 단추 하나 벗기지 않은 단정한 차림으로 꼿꼿이 서서 엄격하게 말했다. 깍듯이 존칭어로 말하는 그의 어조와 표

정에는 후퇴의 준엄한 시기에 어울리지 않게 국수집간판을 닦으며 기분이 좋아서 떠들어대는 사람들에 대한 솟아오르는 분격을 눌러참는것이 뚜렷했다. 국수집주인이 손을 닦으며 사닥다리우에서 내려서자 내무원은 즉시 추궁조로 딱딱하게 물었다.

《오늘중으로 마차를 찾아가라는 통지를 받지 못했습니까?》

《통지를 받았지요.》 하고 국수집주인은 선선히 대답했다.

《그런데 어째서 마차를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새파랗게 젊은 특무상사는 역겨운듯 미간을 찌프리고 경멸에 찬 날카로운 눈초리로 국수집주인을 쏘아보았다.

《그건 사실…》 하고 국수집주인은 잦아드는듯 한 목소리로 어물어물 대답했다.

《좋습니다. 마차는 제가 끌고왔으니 받으십시오. 그러나 일단 내무서에 출두하여 해당한 교양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젊은 내무원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길을 국수집주인에게 쏘아박은채 랭혹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가야지요.》

어깨를 으쓱 춰올리며 국수집주인은 군말없이 선뜻 응해나섰다. 아무런 변명도 없이 내무원을 따라나서는 국수집주인의 행동이 하도 여유있고 활달하게 느껴져서 룡진은 부지중 빙그레 웃음을 띠우며 참견했다.

《가만 좀 있소. 특무상사동무, 내 도위원장이요. 이 집주인을 동무들대신 내가 교양을 하면 안되겠소?》

처음 보는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뜻밖에도 별스러운 정황에서 불의에 만난 젊은 내무원은 저으기 당황하여 꼿꼿이 차렷하고 정중히 례를 표시했다.

그다음 내무원은 주인에게서 마차를 되돌려받았다는 조서에 인증을 받아가지고 총총히 떠나갔다.

젊은 내무원이 돌아간 다음 국수집주인과 한시간 좋이 진지한 이야기를 나눈 룡진은 만족한 기분으로 뜨락을 지나 행길로 나왔다. 그는 머지않아 이제 누군가가 이곳으로 찾아와 조직적인 정식련계를 맺게 될것이며 국수집주인은 공화국공민으로서의 자기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리라는것을 확신했던것이다.

룡진이 좋은 기분으로 차안의 뒤좌석에 올라앉자 운전사는 발동을 걸면서 흘끔 뒤를 돌아보았다. 운전사의 눈길은 (옥계국수집주인과는 오래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군요?) 하고 묻는것 같았다.

(때로 생활에서는 일생을 두고 사귀여온 사람보다 한두시간동안에 사귄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 하고 룡진은 즉시 마음속으로 대답했다. 그러자 순간 우연히 피뜩 떠오른 마음속의 이 말은 그로 하여금 다시 해방직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게 했다. 그는 줄곧 과거에로 줄달음쳐가는 회상을 막을수 없었다. 부르릉— 발동이 걸린 승용차는 배기가스를 뿜으며 가볍게 진동하면서 도시의 큰길한복판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룡진은 해방직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한 생각으로 되돌아갔다.

10

별뜬 어두운 밤이 지나가자 빛나는 상쾌한 아침이 왔다. 온밤 돌처럼 무거운 몸을 이리저리 뒤채며 잠 못든 밤이 지나가고 또 하루가 시작된것이다.

출근마저 정지당한 룡진은 벌써 일주일째 몸서리치는 불안과 정신적고통을 의지로 누르며 이겨내고있었다. 지금까지 지나온 그 하루하루는 그에게 한세기처럼 길고 고통스러운 나날의 련속이였다.

그날 아침 9시경에 갑자기 나오라는 련락을 받고 룡진은 도인민위원회로 갔다. 그가 도위원장방으로 들어서니 보위색군복차림의 낯선 사람이 마주 일어서며 무엇때문인지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 아무런 영문도 모르고 보위색군복을 입은 사람을 따라 밖으로 나온 룡진은 들어올 때 무심히 스쳤던 승용차가 정문앞에 서있는것을 보았다. 보위색군복을 입은 과묵한 낯선 사람은 승용차가까이로 다가서며 룡진을 향해 례절바르게 깍듯한 존칭어로 말했다.

《타십시오. 장군님께서 부르십니다.》

룡진은 그 순간 분명 자기가 착각하여 잘못 들은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보위색군복의 낯선 사람을 마주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 지금 동무를 만나보시겠다고 부르십니다.》

군복차림의 낯선 사람이 두번다시 반복했을 때에야 룡진은 그 말의 뜻을 의식하였다. 그는 말없이 승용차에 올랐다. 운전사도, 군복을 입은 사람도 침묵하고 일체 말이 없었다. 룡진은 너무도 긴장하여 온몸이 꽛꽛이 굳어져 승용차가 언제 당중앙청사앞에 멎어섰는지도 몰랐다. 차에서 내린 그는 보위색군복을 입은 사람과 함께 청사의 현관앞으로 걸어갔다.

《출입증을 보여주십시오.》

부동자세로 선 애젊은 보초는 례절바르면서도 동시에 그런 장소에 어울리는 엄격한 소리로 말했다.

군복차림의 함께 온 사람이 나직이 뭐라고 말하자 보초는 즉시 그들을 통과시켰다. 룡진은 나무처럼 꼿꼿해진 다리로 긴장하여 계단을 올라가는데 2층 집무실쪽에서 항일빨찌산출신의 주요간부들이 내려오고있었다. 그들은 엄숙한 표정으로 조용조용 담소하며 룡진의 곁을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함께 2층으로 올라온 군복입은 사람이 룡진에게 대기실문을 열어주었다.

《네.》

룡진은 오래동안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수 없었다. 가슴속에서는 하나의 심장이 아니라 열, 스무개의 심장이 일시에 뛰는것 같았다. 그는 정숙한 대기실의 걸상에 앉았다가 진정 못하고 일어나 서성거렸다. 조금후에 군복입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 그를 2층 집무실문앞까지 안내하였다. 룡진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가림을 활짝 말아올린 밝은 창문앞에 서계셨다.

《장군님, 도인민위원회 량정부장 리룡진 부름을 받고 도착하였습니다.》 하고 룡진은 문가에 꼿꼿이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앉으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앞에서 무엇인가 하시던 무거운 생각을 계속하시는듯 약간 언짢은 어조로 말씀하시며 시선으로 가까이의 걸

상을 가리키시였다. 그 순간 룡진은 **김일성**동지께서 자기의 마음속을 죄다 꿰뚫어보고계신듯이 느껴졌다.

《앉으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긴장한채 주저하며 머뭇거리는 룡진에게 거듭 이르시고 창문앞에서 물러나 방을 거니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다.

《말해보시오. 동무는 어째서 우리 당정책을 반대하였소?》

최대로 긴장한 룡진의 의식과 사고력은 일시 머리속에서 무거운 덩어리로 얽히고 엉킨듯 굳어졌다. 그리하여 더욱 당황해진 그는 앞이 캄캄하였다.

(내가 정말 우리 당의 정책을 반대하였는가?) 하고 룡진은 얼핏 자신에게 물었다.

(그래, 과연 정말 내가…)

《왜 말이 없소?》

다시 **김일성**동지께서 물으시였다.

《대답하여보시오. 동무는 어째서 도인민위원회의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우리 당의 정책을 반대하였는지 말해보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였으나 어조에는 몸을 얼어들게 하는 엄격함이 있었다.

《장군님, 저는 공산당원입니다.》 하고 룡진은 당황한채로 말씀드렸다.

《그러니 더욱 리해할수 없는게 아니요. 당원은 항상 당이 제시한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철저히 집행관철해야 하겠는데…》

여전히 나직하나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서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전화기들이 놓인 책상앞으로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책상우에 놓인 종이장을 들고 얼핏 훑어보신 다음 그것을 다시 놓으셨다.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동지께서는 의식의 다른 한끝으로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다른 사색을 거듭하시는듯 방을 거니시면서 말씀하시였다.

《도인민위원회 량정부장 리룡진은 우리 당에서 당면하게 내놓은 량곡성출운동을 정면으로 도전하여나섰다고 하였소. 룡진동무, 동무와는 내가 두번째 만나는것 같은데… 군인민위원회 위원장사업을 하던 그때

는 동무가 혁명성이 강하고 일도 아주 잘한것으로 기억하고있소.》
일순간 **김일성**동지의 얼굴에는 선량한 미소가 떠오르셨다. 그러나 그이의 얼굴은 곧 종전의 엄격하고도 긴장한 표정으로 되돌아가시였다. 그다음 **김일성**동지께서는 책상앞의 걸상을 손으로 가리키시였다.
《왜 그냥 서있소? 앉으시오. 앉아서 언제부터, 어떻게 동무가 그런 사람으로 되였는지 말해보시오!》
그때 돌연히 어떤 알수 없는 잠재의식이 룡진으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차리고 꽉 다물린 입을 열게 하였다.
《장군님, 저는 우리 당정책을 반대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룡진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튀여나온것이였다. 룡진은 그렇게 말하고나서 자기가 흥분과 긴장으로 지내 큰소리로 말씀드렸다는것을 느꼈다.
《반대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직하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엄하게 말씀하셨다.
《장군님, 저는 우리 당정책이 외곡집행되는것을… 저는 그렇게 판단하였기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과도한 긴장과 흥분으로 룡진의 말은 토막토막 끊어졌다.
《그러니까 동무의 말은 우리 당정책을 반대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곡집행되는 현상과 투쟁을 하였다 그런 뜻이요?》
《그렇습니다, 장군님!》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룡진에게로 다가오시더니 그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였다.
《룡진동무, 량곡성출지도대사업에서 있었던 일을 되도록 침착하게 요약하여 간단히 말하오. 그러나 공산당원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생각에 잠기신듯 방안을 조용히 거니시였다.
룡진은 긴장했던 자기의 마음이 얼마간 진정되는것을 의식했다. 그는 도내 량곡성출운동에서 나타난 일부 엄중한 편향들을 간단히 요약하려고 애썼다.… 일부 성출지도대에서는 개별적인 중앙간부의 《지시》로 매 농가에 량곡성출량을 할당하고 집집마다 뒤지면서 량곡값도 국가가 제정한것보다 훨씬 눅게 지불하거나 전혀 지불하지조차 않

고있다. 그러면서도 《반동》이요, 《은혜》를 모르는자들이라고 위협공갈까지 하고있다. 이것은 당이 제기한 량곡성출운동을 심히 외곡집행하는것이며 우리 당의 두리에서 농민대중을 떼여내려는 의식적인 행위로밖에 달리는 볼수 없는것이다.… 드디여 룡진은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보았고 겪었으며 체험한 이 모든 실태를 사실그대로 요약하여 침착하게 말씀드리기 시작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아무 말씀없이 룡진의 말을 중도에서 멈춰세우지 않으시고 계속 방을 거니시였다. 룡진은 **김일성**동지께서 자기의 말을 듣고계시는지 아니면 그 어떤 다른 깊으신 사색을 계속하고계시는지 알수 없었다. 때로 룡진은 생각에 잠기신 **김일성**동지께서 방의 한쪽끝으로 걸어가실 때는 자기의 말을 들으시지 않는듯이 생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룡진이 하던 말을 잠시 끊자 **김일성**동지께서는 곧 돌아보시며 다음말을 기다리고있다는 기색을 보이군 하시였다. 룡진의 말을 끝까지 다 들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창문가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다.

《최근 량곡성출운동에서 나타난 편향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있었소. 일부 반당반혁명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이 이 운동에 끼여들어 우리 당과 농민대중을 분리시키려는 암해책동에 대한 동무의 분석은 정확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진이 앉은 가까이의 걸상에 앉으시였다. 그제야 룡진은 갓 해방된 국가일로 수척해지신듯 한 장군님의 안색을 뵙게 되였다. 그러자 자신의 일로 그이께 걱정을 끼쳐드린 뒤늦은 죄책감이 무겁게 룡진의 가슴을 내려눌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진의 내면을 죄다 꿰뚫어보고계신듯 무한히 선량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시고는 룡진이 일생동안 잊을수 없는 그런 음성으로 나직나직이 말씀을 하시였다.

《룡진동무, 우리는 그 사람들이 동무에 대해서 제기한 자료를 그대로 믿었던것은 아니요. 다만 동무를 만나 구체적인 사실과 진실을 알고싶어 불렀던거요. 룡진동무, 성스러운 혁명의 이름으로, 고귀한 혁명의 기발밑에서 로동계급과 당의 이름으로 감행하는 비렬한 반당반혁명분자들의 책동은 가장 위험하고 간악한것이요.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이미 체험한바 있소. 세상에 유명한 〈민생단〉

사건이란거요. 그런 말을 들은적 있소?》

《네, 항일투사동지들한테서 들었습니다.》 하고 룡진은 침착하게 말씀드리며 정중히 걸상에서 일어섰다.

《앉소. 룡진동무, 지금 당내와 우리들의 곁에 양봉음위하면서 못된 짓을 하는자들이 있소. 공개된 반당반혁명분자들보다 더 위험한 놈들이요. 그런자들은 우리와 인민대중의 일심단합을 제일 두려워하오.》

김일성동지께서는 격하신 어조로 말씀하시며 또다시 방을 거니시였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가장 깨끗한 혁명적량심과 정의의 큰뜻을 가진 우리들의 전진을 막을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소. 룡진동무, 옛말에도 정의에 대항할 힘을 가진 적은 없다고 했소.》

창문쪽으로 걸어가시며 말씀하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손기척소리를 들으시고 얼핏 방문쪽으로 시선을 돌리시였다. 방문이 조심히 열리더니 별에 얼굴이 검실검실하게 된 김책이 정중한 자세로 문건을 들고 들어섰다.

《장군님, 주신 과업을 끝냈습니다.》 하고 김책은 **김일성**동지께 문건을 드리였다.

《김책동무, 수고했소. … 이 동무가 바로 도량정부장 리룡진이요.》

그이께서는 문건을 받으시고 김책에게 룡진을 소개하시였다.

《김책동무, 우리의 판단이 옳았소. 이 동무는 우리 당이 제기한 량곡성출운동을 도전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곡집행하라는 반동분자들의 요구와 강요에 도전했던거요. 그런데 룡진동무, 왜 그런 놈들과 끝까지 싸우지 못했소?》

《이 동무로서는 도전한것만도 대단한 용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자들은 당과 혁명의 이름으로 못된짓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김책이 미소를 지으며 대신 말씀드렸다.

그러나 **김일성**동지께서는 공감하시지 않는 표정을 지으셨다.

《문제가 신중한것만큼 룡진동무는 즉시 우리를 찾아올수 있지 않았소. 룡진동무, 우리 조선의 혁명가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인민, 자기 민족, 자기 조국을 사랑하며 큰뜻이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들에게는 두려울것이 아무것도 없소. 조선혁명에 대한 높은 자각과 신념은

언제나 용기와 힘을 주기때문이요. 혁명에 대한 자각과 신념이 없으면 아무리 강한 사람도 힘과 용기를 잃고 허둥거리며 가련해질수 있소.》

룡진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가슴속으로 흘러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있었다.

《그러나 어떤 정황과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신념, 신조를 지킨다는것은 말하기는 쉬운것이지만 실천하기란 결코 쉬운것이 아니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천천히 책상앞으로 걸어가시며 김책에게서 받으신 문건을 보시고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계속하시였다.

《룡진동무, 그래 반당반혁명분자로 몰리고 가슴이 떨리지 않았소?》

몇순간 룡진의 머리속으로 일찌기 겪어보지 못한 불안과 고통, 괴로움에 잠 못들던 밤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인민의 원쑤로 되여 당과 혁명을 배신한 루명을 쓰고 죽을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이 체험하였던 그 나날의 공포와 불안에 대해서 장군님께 솔직히 그대로 말씀올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문득 미간을 흐리시며 곧바로 룡진을 마주 보시였다. 그다음 아무 말씀없이 창문앞으로 걸어가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래동안 침묵하신채 창밖을 내다보시였다. 창밖의 나지막한 건물지붕우와 그너머 시내 길거리에는 함박눈이 신명나게 내리고있었다. 이윽하여 **김일성**동지께서는 생각깊으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김책동무도 여기 있지만 우리가 산에서 싸울 때 〈민생단〉에 몰려 희생된 혁명가들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잠이 오지 않소. 그들도 바로 그런 불안과 심한 정신적고통을 겪으며 희생됐소. 그러면서도 그들은 모두 〈조선혁명 만세!〉를 웨치면서 최후를 마쳤소.》

김일성동지께서는 또다시 침묵하시고 방을 거니시였다.

《룡진동무, 고향에서 어머님이 올라오셨다지?》

《네.》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고 걱정되였으면 고향에서 올라오셨겠소. 생각같아서는 내가 직접 만나 풀어드리고싶지만 시간을 낼수 없어 그러지 못하니 동무가 잘 풀어드리오. 얼마나 고생 많이 한 조선의 어머니들이요. 나는 산에서 왜놈들과 싸우느라고 한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어머님을 뵙지도 못하였소.》

룡진은 온몸을 휘감는 커다란 감격과 흥분으로 가볍게 떨며 숭고함과 자애와 겸허를 체현하신 장군님을 경건히 우러렀다. 그의 눈에는 아직은 자신도 알지 못했던 가슴속 맨밑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오르고있었다.

《룡진동무, 이제부터 돌아가서 마음놓고 일하시오. 그리고 언제나 명심하오. 준엄한 투쟁은 계속되며 혁명에는 우여곡절이 있을수도 있소. 그러나 항상 우리는 진리와 진실, 정의의 편에 서있다는것을 잊지 마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룡진의 앞으로 걸어오시며 활력과 뜨거운 정과 열을 주시는듯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동무가 새 조국건설과 인민대중을 위한 투쟁에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하리라는것을 믿소.》

룡진은 끓어오르는 감격과 흥분으로 목이 꽉 메여 자신의 충정과 결의를 말씀드릴수 없었다. 그는 눈물을 머금고 깊이 머리숙여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 엄숙한 기분으로 장군님의 집무실에서 나왔다. 현관쪽 어디선지 정오를 알리는 시계종소리가 은은히 울리고있었다.

도인민위원회에 들렸다가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룡진은 고향에서 올라와있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받아안은 감격과 영광에 대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는 고향에서 올라온 어머님에 대해서도 가슴뜨거운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흐느끼며 울었다.

《정말 하늘이 낸분이시다. 그분의 은혜와 자애를 난 죽어서도 잊지 못하겠다. … 애야, 에미의 부탁이다. 너도 살아서는 물론이고 죽어서라도 하늘이 내신 장군님의 은혜를 잊지 말어라!…》 하고 어머니는 눈물을 쏟으면서 룡진의 손을 꽉 잡았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룡진은 끝내 참지 못하고 흐느껴울었다.

×

룡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일시에 확연히 달라졌다. 만나는 사

람들마다 멀리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서 그가 받은 영광과 기쁨을 축하해주었다. 그럴 때마다 룡진은 자신의 사업과 생활에서 더 큰 책임감과 자각을 가슴속깊이 느끼군 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퇴근길에 광훈이가 집으로 찾아왔다. 그는 모든 일이 잘된 친구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찾아왔다면서 들고온 가방안에서 맥주병들을 꺼내놓았다.

룡진은 찾아온 광훈을 아무런 분노도 없이 흔연히 대했다.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찾아온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광훈의 얼굴에는 기뻐하는 표정을 짓고있었지만 어쩐지 서먹서먹해하는것 같았다. 그러다가 한두고뿌 맥주를 마신 후 그런 기분은 없어지고 말도 자연스러워졌으며 여느때처럼 스스럼없이 떠들어댔다.

《룡진동무, 사실 그때 말이요. 자네가 감옥에 가고 출당철직된다는 소문이 돌아가던 그때 내가 동무를 외면했던것은 정말 잘못되였어. 내 진심으로 사죄하네.》

룡진은 그 말이 나오자 정색해졌다. 건드리지 말아야 했던것을 광훈이가 제 먼저 드디여 꺼낸것이다.

《그때 나를 외면하고 오랜 친우의 우정마저 저버렸던것이 지금 와서 생각하여보니까 잘못되였단 말이지…》 하고 침묵끝에 룡진이가 혼자소리처럼 조용히 뇌였다. 그는 광훈이가 별안간 큰 목소리로 그때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변명하려고 하자 그를 막았다.

《그러나 앞으로 또 그런 일이 내게 생긴다면 그때는?…》 하고 룡진은 광훈이를 마주보면서 신중히 물었다.

《자네 나를 모욕하는군.》

광훈의 얼굴은 금시 시무룩해졌으며 도수높은 안경밑에서 짧은 살눈섭이 초조하게 깜박거렸다. 그러더니 불쑥 자리에서 일어섰다. 룡진은 그가 당장 모자를 쓰고 밖으로 나가버릴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차라리 그랬으면 좋을것이다. 모욕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면 더 깊은 자기 검토와 반성이 있는 법이니까. 그러나 광훈은 몇번인가 방안을 왔다갔다하면서 자신에게 던진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어깨를 으쓱해보였다.

(이제 나갈것이다.) 하고 룡진은 또다시 생각하였다. 그러나 룡진의 생각과는 반대로 광훈은 방문앞까지 갔다가 되돌아와 맥주병이 놓

인 상앞에 앉았다.

《좋도록 마음대로 생각하게.》 하고 광훈은 부어놓았던 맥주를 쭉 들이키고나서 내키지 않는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말을 자네가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네. 하지만 룡진동무, 이것만은 알아주게. 내 솔직한 말인데 그때 그 누가 뭐라고 말했든 나는 단 한순간도 룡진동무가 반당반혁명분자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네. 이것만은 솔직한 말이고 사실이네. 난 자네를 잘 알고있으니까…》

광훈은 룡진이가 자기의 말을 믿으리라는 희망을 거의 잃고 자신없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절망적이라고 할만큼 진실감을 자아냈기때문에 룡진은 저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룡진은 원래 광훈의 배신행위를 용서해주려고 마음먹었었다. 사실 광훈이가 그렇게 행동한것은 원체 그가 악당이거나 나쁜 인간이여서 그런것이 아니라 의지박약하고 겁을 먹었기때문이였다. 방금 광훈이가 그때 룡진이 인민의 원쑤이며 반당반혁명분자라는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 말은 사실일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는 더 잘못 행동한것이 아닌가! 인민의 원쑤가 아니고 반당반혁명분자가 아닌 친구가 터무니없이 그런 루명을 썼다면 물고뜯고 별짓을 다해서라도 그것을 해명하고 벗겨주려고 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사실은 그때 룡진이가 인민의 원쑤이며 반당반혁명분자라는것을 광훈은 자기도 모르게 믿었던것이다. 광훈의 머리를 혼돈시키고 기만하고 위협을 주니 결국 겁을 먹고 룡진이가 반당분자라는것을 믿었던것이다. 또한 그렇게 믿고나서 더욱 겁을 먹고 룡진을 외면했던것이다.

《그래, 종시 아직도 룡진동무는 내 말을 믿지 못하겠나?》

광훈이는 자그마한 밥상을 사이두고있어서 손을 내밀면 닿을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소리가 어딘지 먼곳에서 들려오는것 같았다.

《광훈동무, 그러니까 말이요.》 하고 룡진은 쓴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우리는 그만하면 오늘 충분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자기 할말은 서로 다한셈이요. 그러나 서로 리해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나는 생각하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한건 아니고 본질도 아니지. 지금 우리들

의 사업에서나 앞으로 생활에서는 더 중요한것들이 있을것 아닌가. 그런만큼 내앞에서 잘못 행동한것은 잊어버리라구. 그리고 내가 생각한대로 말하면 자네는 겁을 먹었던것에 대해서 용서해달라고 온게지? 그렇지 않나?》

《그건 그렇네.》 하고 광훈은 솔직히 인정하였다. 그런 면에서 보면 광훈은 보통때는 솔직하고 선량한 인간이다.

(사실 광훈이는 나쁜 사람은 아니다. 다만 의지가 약할뿐이다. 마음이 나래치지 못한다. 그의 선량성은 공포앞에서 비겁성으로 변한다.) 하고 룡진은 늘쌍 생각해오던 광훈에 대한 자기 견해를 다시 생각했다.

《광훈동무, 나쁜 놈들의 압력에 겁을 먹고 잘못 행동한것은 앞으로의 사업에서 일을 통해 씻어야 하지 않겠나?》

《…》

《나는 자네가 오기 전에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었네. 그러나 당조직앞에서, 조국앞에서 용서를 반드시 빌어야 하네.》

사실 룡진은 시련을 겪고있는 자기를 외면했던 광훈이를 용서해주기로 이미 마음먹었었다. 그러나 지금 룡진의 가슴속에서는 두개의 감정이 서로 싸웠다.

(용서해준다는것은 앞으로 호상간에 그만한 절대적인 믿음과 변함없는 강한 의리가 동반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런데 앞으로 그 어떤 난관과 시련속에서도 광훈이를 절대적으로 믿을수 있겠는가?…)

광훈은 한참동안 안경을 벗어 닦으며 눈을 게슴츠레 뜨고있었다. 그는 취하도록 마셨던 맥주기운이 말끔히 깬듯 말한마디없이 한숨을 내쉬며 앉아있었다. 광훈은 룡진이가 겁을 먹었었다고 조용히 말한것은 정확한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중앙에서 내려온 큰간부의 위협앞에서 떨었었다. 그때 광훈을 불러다놓고 장발의 중앙간부는 이렇게 위협공갈했었다.

《당신은 얼마 안되는 그의 좋은 측면만 보면서 보다 본질적인 그자의 배신적인 반혁명을 보지 못하고있단 말이요. 나는 당신에게서 상급이고 친우인 그자에게 맹종맹동하는듯 한 인상을 받았소. 그런 면에서 로숙한 직업적인 혁명가인 나의 감각은 아주 정확하오.… 어쨌

든, 요컨대 당신에게서도 혁명성이 전혀 안겨오지 않는단 말이요!》
그리고는 불건전한 친우관계때문에 파멸당한 수많은 력사적사실들을 장황하게 렬거하면서 성출미운동을 반대하고 도전한 룡진의 행동을 외곡과장하여 만든 조서에 광훈이 증인으로 수표하도록 강요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광훈의 확인수표가 있는 두툼한 조서가 작성되였으며 그것때문에 룡진은 더욱 불리한 립장에 빠졌던것이다. 룡진은 광훈이가 수표한 문건에 대해서는 일체 모르는것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광훈은 그가 모든것을 알고있다고 지금 생각하고있었다.
《그건 옳은 말이네.》 하고 오랜 후에 광훈은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룡진동무, 동무의 말이 천만번 정당하네. 나는 조국앞에서, 자신의 사업과 일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으려네.》
이렇게 말하고도 광훈은 한참동안 침묵하고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괴로운 얼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광훈이가 돌아간 후 룡진은 꼼짝 않고 앉아서 생각하였다.
(만약 광훈이가 진실로 나를 인민의 원쑤, 혁명의 배신자로, 반당반혁명분자로 믿었다면? 심장으로 그렇게 믿었다면?…)
그가 진정으로 그렇게 믿고 확신하였다면 외면할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서 자기 손으로 나의 귀뺨을 후려치든가 무자비하게 죽여버려야 했을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광훈은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는가!… 만약 반대로 내가 광훈이를 인민의 원쑤로, 혁명의 배신자로 확신하는 경우 나는 가차없이 그렇게 행동했을것이다. (그런데 광훈은…)
룡진은 광훈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러나 룡진은 오랜 신중한 생각끝에 광훈이가 일생토록 영원히 잊을수 없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니만큼 그는 반드시 자기를 피나게 채찍질하고 무섭게 자신을 단련하여나갈것이라고 마음속으로 믿었다.
캄캄한 창밖에서는 웅—웅 눈보라가 사납게 울부짖으며 태질하고있었다. 잠들수 없는 생각깊은 겨울밤이였다. 밤은 깊어갔다. …
그후 룡진은 영명하신 **김일성**동지께서 가르쳐주시고 격려하시던 그대로 건국사업에 모든 정력을 기울였다. 룡진에게는 뜻깊은 성장의 나날들이 흘러갔다. 그 성장의 매 갈피마다에는 장군님의 육친적사랑과

세심한 가르치심과 따뜻한 애정이 스며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다음해 여름부터 도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직책에서 사업하게 되였으며 또다시 2년후에는 장군님의 높으신 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중부조선의 곡창지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그곳 도에는 차례진 혁명과업들을 성실하게 책임적으로 수행하여 자기의 과오를 씻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광훈이가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으로 사업하고 있었다. …

11

10월의 음산한 아침에 널직한 리룡진의 방에서는 도급기관 책임자들과 시, 군위원장들의 협의회가 진행되고있었다. 마가을의 음울한 안개가 회색장막처럼 창문유리를 둘러싸고있어 방안은 밝지 못했다.

때때로 서기가 조용히 들어와 말없이 룡진에게 전보와 문건들을 넘겨주고 나가군 하였다. 룡진은 그 즉시에 전보와 문건들을 훑어보면서 협의회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묻기도 하고 동의하고 따지고 허락하면서 회의를 계속하였다.

그는 요 며칠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진듯 하였으나 말과 행동은 의연 정력적이였다. 하루에 눈을 붙이는 두세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룡진의 정신도 심장도 생각도 일시적인 전략적후퇴와 관련된 소개사업과 물자수송, 적후에서 싸울 인민유격대들의 조직사업에 집중되고있었다. 요사이 그를 지배하는 주되는 감정은 책임감이였다. 도위원장인 그는 도내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봐야 할 사람들중의 한사람이였다. 룡진은 도내의 백수십만사람들앞에 지닌 책임감을 리성으로뿐아니라 심장으로, 온몸으로 감득하고있었다. 때문에 그는 그들의 고통을 덜어줄뿐만아니라 그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려면 준엄한 시각인 지금 가능한것, 불가능한것을 가리지 말고 모든것을 다하여야 한다고 정확히 느끼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뿐만아니라 도당상무위원으로서 도당조직으로부터 받은 분공을 실행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룡진은 책상밑의 왼켠에 설치해놓은 초인종을 가볍게 눌렀다. 그러자 젊고 날파람있는 서기가 어느새 또다시 방문앞에 나타났다.

《구월산에 가있는 도내무부 강부부장한테서 아직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소?》 하고 룡진이 젊은 서기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나직하게 물었다.

서기는 방안을 급히 가로질러 룡진에게 다가서서 몸을 약간 굽히고 목소리를 낮추어서 잘 들리는 귀속말로 말했다.

《조금전에 구월산에서 부부장동무가 전화를 걸어왔드랬습니다. 그런데 회의중이여서 전화를 돌리지 못했습니다. 조금후에 다시 전화를 하겠답니다.》

《다시 전화가 걸려오면 지체말고 즉시 내게로 련결하시오!》

《알겠습니다.》

서기가 밖으로 나가자 룡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현재 조국앞에 조성된 엄혹한 정세를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의 당적, 공민적량심에 호소했다. 그의 진실한 말들은 준엄하게 울렸다.

《동무들, 명심하시오. 동무들에게는 한알의 쌀, 한방울의 물이라도 절대로 적들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이 말이 생소하지 않을것입니다. 지어는 너무나도 귀에 익은 여러번 들은 말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며칠사이에 몰라보게 변모된 회의참가자들의 낯익은 얼굴들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룡진은 그사이에 옷차림새며 용모들이 변한 이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쳤고 어느 정도의 시련을 이겨낼수 있는가를 잘 알고있었다. 그는 회의에 모인 이 사람들모두가 지금의 준엄한 시련앞에 자기들의 힘과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수 있는 당적, 공민적인 각오가 충분히 되여있기때문에 온갖 시련을 이겨내리라는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말을 계속했다.

《그러나 우리 도내의 일부 일군들은 한알의 쌀, 한방울의 물이라도 적들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이 말의 개념을 제멋대로, 순전히 상징적인 범주인것처럼 해석하면서 그렇게 주관주의적으로 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것은 정확한 군사적범주로 집행되여야 하며 정확한 수자와 정확한 량과 질에 의하여 즉 모든 시설, 모든 물자와 국가재산을 완전한 의미에서의 량적, 수적, 질에 의하여 관철집행

되여야 합니다. 최고사령관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방송연설로 주신 강령적인 과업관철에서는 조그마한 한치의 에누리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룡진은 신중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나서 회의에 참가한 매 사람이 들은바를 잘 생각하여볼 시간을 주려는듯이 잠시 입을 다물고 동안을 두었다가 다시 계속하였다.

《조그마한 에누리로 하여 그것을 적들이 리용할수 있게 된다면 당과 조국 그리고 우리들자신의 량심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아무것도 적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놈들에게 보탬을 주고 힘을 더해줄 그 무엇도 남겨두어서는 범죄로 될것입니다. 돌아가는 공장도, 들판의 곡식도, 가축들도 안됩니다. 소개할수 없는것은 폭파하고 주저없이 불태워야 합니다. 우리들이 적들을 격파하고 다시 진격할 때까지는 다른 출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꼭 놈들을 격파하고 몰아낼것입니다.》

그는 뜻밖에도 자기도 모르게 격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렇소. 오늘래일은 당장 아니지만 우리 인민군대는 기어이 놈들을 격파하고 몰아낼것이요. … 물자소개와 수송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기들 하시오!》

룡진은 자리에 앉았다. 분과 초가 빠르게 지나갔다.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각기 자기가 할 말들을 마음속으로 깊이 되새겨보고있었으며 방금 도위원장이 격한 어조로 한 말들을 곰곰히 생각하고있었다.

《제기되는 문제들을 기탄없이 말하시오.》

룡진은 회의참가자들을 향해 잘 울리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옹진군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선참으로 일어섰다. 그는 군내 기관기업소들의 소개정형을 자세히 말하고나서 현재 수송수단의 부족과 동원할 인원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단기일내에 소개사업을 빨리 결속하는데서 제기되는 불가능한 문제들을 렬거하였다.

룡진은 옹진군위원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을 잘랐다.

《아니요. 우리는 가능하고 쉬운것만 소개한다는 립장에 서서는 안되오. 우리는 우리에게 일찌기 없었던 류례없는 이 준엄한 시련의 시

기에 어느것은 할수 있고 어느것은 할수 없다는 그런 립장을 버려야 하오. 우리는 제기된 모든것을 다하고 실천해야 하는거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야 한단 말이요!》

《도위원장동지, 그렇지만 현재 우리 군의 형편에서는 당장 해결받아야 할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럽니다. 적들이 가까이 밀려들고있는 지금 시일은 급한데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해결받겠습니까?》 하고 옹진군위원장은 속이 타는듯 큰소리로 웨치듯이 말했다. 그리고는 도위원장에게 다시한번 호소하듯이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정말이지 어디 가서 누구한테 해결받겠습니까?…》

《옹진군위원장동무, 우는소리 하지 마오. 당조직과 인민정권이 해결하여줄것이요!》

룡진은 조금도 격하지 않고 평소때처럼 침착하게 말했다.

《군내 수천명의 로동당원들, 수만명의 공민들이, 공화국정권을 그 무엇보다 귀중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될것이요. 동무들, 평화시기의 행복한 날에도 인민들은 우리 인민정권을 바라보았고 지금 류례없는 시련의 날에도 우리 인민정권을 바라보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들은 우리들에게서 개인의 용감성뿐아니라 능숙한 지휘도 기대하며 바라고있소. 때문에 강하게 조직하고 동무자신이 선두에서 능숙하게, 헌신적으로 지휘하시오!—》

이때 룡진이가 마주앉은 책상우의 전화종이 울렸다. 룡진은 순간도 지체함없이 곧 송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도인민위원회 리룡진이요. 부부장동무요?… 그렇소. 지금 회의를 하고있소. 그곳 일은 어떻게 진척되오? 서슴지 말고 실태를 그대로 보고하시오!》 하고 룡진은 마치 그와 마주앉은듯 방안 어딘가를 응시하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룡진은 송수화기를 들어잡은채 잠시 전화선을 타고 울려오는 저쪽의 말을 들으며 잠잠히 앉아있었다.

《…도위원장동지, 훈련은 계획대로 잘 진척되고있습니다. 기지들도 기본적으로 계획한 그대로 꾸려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전화선의 저쪽에서 부부장이 난감한듯 말을 잇지 못하고 주저했다.

《그런데… 뭐요?》

룡진이 즉시 엄격한 목소리로 다그쳐물었다.
《난관이 제기되였습니다.》
《난관? 제기되였다는 난관이란 도대체 뭐요?… 지금 어디 그런 말을 하고있을 때요? 부부장동무!》
《도위원장동지, 그런게 아닙니다. 은률, 신천, 재령, 안악군들에서 현재까지 기지들에 올려보내게 된 식량과 기타 중요후방물자들을 지연시키고있습니다!》
순간 룡진의 눈에서 갑자기 무엇인가 섬광처럼 번쩍― 했다. 그는 몇마디 응대하고 송수화기를 놓았다. 그다음 쇠소리같은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재령, 신천, 안악, 은률군위원장동무들, 동무들은 어째서 구월산기지들에 올려보내게 된 물자들을 지연시키오? 어째서?…》
어째서?라는 날카롭고 엄격한 룡진의 질문이 회초리처럼 그들에게로 울려갔다.
《사실은… 그것은 도의…》 하고 재령군위원장이 룡진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서며 더듬거렸다.
《동무, 갑자기 왜서 어물거리오? 정확히 말하시오!》
《사실은 도의 책임적인 간부동지가 직접 우리 군에 내려와서 하는 말이 구월산은 독립산이 돼서 유격투쟁하기가 매우 불리하니까 곧 취소될것이라고 하였기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서…》 하고 재령군위원장은 자기의 흥분된 목소리를 억제하려고 애쓰면서 사연을 그대로 말했다.
《그렇게 말했다는 도의 책임적인 간부란 사람은 누구요? 정확하게 이름과 직위를 찍어서 말하오!》
격한 룡진의 목소리는 내려치듯이 강하게 들렸다. 재령군위원장은 그 목소리에 별안간 혀가 풀리기라도 한듯이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서서 명확한 소리로 도간부의 직위와 이름을 밝혔다.
룡진의 긴장한 얼굴에는 그 무엇인지 꿈틀하더니 일순간 커다란 두눈이 번득거렸으며 좀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변하였다.
《신천군위원장동무도 그런 말을 들었소?》
《그렇습니다.》 하고 어지간히 몸이 좋은 신천군위원장이 걸상

에서 일어섰다.

《동무들은 도대체 뭐요? 조선로동당원들이 아니요?》

룡진의 번쩍이는 엄한 시선을 마주보지 못하고 앉았던 재령군위원장도 다시 걸상에서 조심히 일어섰다. 몇초동안 격한 룡진은 말없이 그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하였다. 방안에는 긴장한 침묵이 흘렀다.

《동무들, 구월산에 인민유격대를 조직할데 대한 문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것이요!》

룡진은 흥분을 누르지 못하고 걸상을 소리나게 뒤로 밀어제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룡진이 그처럼 흥분한것을 아직까지 그 누구도 본적이 없었다. 그는 두주먹을 꽉 틀어쥐고 서있었으며 그의 얼굴은 참을수 없는 분격으로 하여 확확 달아오른듯 하였다.

《나는 로동당원으로서 솔직히 말하는데 습관되여있소. 더우기 우리의 최고사령관이신 장군님의 말씀과 그를 집행관철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과 관련한데서는 더욱 그렇소. 구월산에 인민유격대를 조직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는것은 반당반혁명분자들의 해독적인 잡소리요.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월산은 골짜기들도 많고 산세도 험하오. 산성도 있고 깊고 깊은 골짜기까지 물이 있어서 유격투쟁하기가 좋소.〉라고 가르치셨단 말이요!》

아직 흥분을 자제하지 못한채 룡진은 두주먹을 꽉 틀어쥐고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얼굴은 깊은 생각에 잠긴듯 엄숙했으며 숱진 눈섭은 미간에 쏠려있었다.

《재령, 은률, 안악, 신천군위원장동무, 동무들에게 경고하오. 그리고 동무들, 명심하시오. 다시한번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그 누구든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소. 앉으시오!》

룡진은 걸상에 앉지 않고 준엄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모두들 똑똑히 기억하여두시오. 여기 모인 우리는 서로 혁명동지이고 벗들이기는 하지만 장군님의 명령과 지시집행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책임져야 하오.》

룡진은 이 마지막말을 그렇게도 힘주어 준엄한 목소리로 말하였기때문에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서로 마주보고 도위원장은 실지로 그 누구

모든것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도 가리지 않고 서슴없이 처벌하리라는것을 다시한번 강하게 느꼈다.

룡진은 결코 자기의 위신때문에 그 어떤 회의에서든지 하부일군들의 의견을 억누르거나 자기에게 부여된 큰 권력을 행사한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문제가 장군님의 명령지시와 관련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된 문제들에서는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지금 바로 그러하였다. 그는 구월산일대의 군위원장들에게 회의를 끝내고 돌아가는 즉시 구월산기지들에 보내기로 된 후방물자들을 보장하여주라고 명령조로 지시하면서 걸상에 앉았다. 바로 그 순간에 책상우 전화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그것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정부전화였다. 룡진은 급히 일어서서 정중한 자세로 송수화기를 들었다.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리룡진 전화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고사령관동지, 녜, 저는 건강합니다. 녜, 그렇습니다.》

룡진이 정중히 서서 말씀드리기 시작하자 그가 송수화기에 손을 댄 그 순간부터 이미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조용해졌던 방안에는 한층 더 뚜렷한 정숙이 깃들었다.

《최고사령관동지, 추기맥류파종을 강하게 내밀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 녜, 반드시 명심하겠습니다. 녜, 저의 건강은 일없습니다. …》

그는 장군님의 말씀이 다 끝난 다음 조용히 송수화기를 놓고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어깨를 쭉 펴고 회의참가자들앞으로 돌아섰다.

《동무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될수록 빠른 시일내에 소개사업을 끝낼것과 도내의 인민유격대조직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에 대해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소.》

룡진은 엄숙한 표정으로 말없이 긴장해서 앉아있는 회의참가자들을 둘러보며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우리 도내의 맥류파종정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돌리셨소. 장군님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만큼 계획한대로 가을밀보리파종을 될수록 끝내고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소. 군위원장동무들, 군에 내려가면 각 면위원장들과 리위원장들에게 장군님의 전화교시를 정확히 전달하고 가을밀보리파종을

100프로 끝내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오.》
그는 말을 끝내고 천천히 자리에 돌아와 앉았으나 오래동안 침묵하고있었다. 지금 룡진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란히 놓은 걸상들이며 거기에 앉아있는 일군들도 그리고 커다란 방의 창문들도… 룡진은 온 정신을 최대로 긴장하여 장군님께서 전화로 주신 가르치심을 다시금 상기하고있었다. 그렇다, 그는 가을밀보리파종문제에 대해서는 주의를 돌리지 못했었다. 당면하게 긴급히 제기된 후퇴조직사업에 몰두하느라 미처 거기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것이다. 그리하여 지금 룡진은 자신을 뼈아프게 자책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한편으로 무엇인가 거대한 산악이 자기의 뒤를 받쳐주고있는듯 한 강력한 힘을 느꼈다. 적들이 가까이에 다가오고있는 엄혹한 지금 땅에 씨앗을 뿌린다는 바로 그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더욱 굳게 해줄것이며 무한한 힘을 주게 될것이다.
문열리는 소리도 없이 서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웬일인지 류달리 긴장한 표정으로 재빨리 룡진에게로 다가가 말없이 전보장을 넘겨주었다. 그것을 받아들고 무심히 읽어나가던 룡진은 별안간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는 긴장해지는 자신을 자제하면서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동무들, 더 제기할것이 없으면 오늘 협의회는 이상으로 끝냅시다. 곧 돌아들 가서 제기된 과업들을 서둘러 결속하시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회의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걸상에서 일어나 이제 당장 해야 할 긴급한 일들을 생각하면서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옹진군위원장동무는 남으시오.》 하고 룡진은 밖으로 나가려는 그를 멈춰세웠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간 다음 룡진은 그를 가까이로 불러 전보장을 보였다. 그러자 옹진군위원장의 온몸은 갑자기 굳어졌다. 전보에는 옹진군일대에서 적아간의 치렬한 전투가 벌어지고있으며 일부 바다가의 리들에는 벌써 적들이 침입하였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것이다. 일순간 당황하였던 옹진군위원장은 자신을 수습하면서 머리를 번쩍 쳐들고 룡진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도위원장동지, 그렇지만 제기된 과업들을 마지막끝까지 기어코 수

행해내겠습니다!》 하고 그는 눈을 번쩍이면서 흥분하여 웨치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군위원장동무, 어떤 정황에서든지 침착하게 행동하오. 그리고 군내의 전체 인민들을 모두 동원하여 식량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안전지대로 소개하시오. 그러나 만약 안전지대에로의 소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저하지 말고 단호하게 파괴소각해버리시오!》

룡진의 말은 그리 크지는 않았으나 마치 쇠망치로 모루를 두드리듯 무게있게 울렸다. 그는 걸상에서 일어서며 역시 무게있는 단호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먼저 빨리 내려가오. 나도 곧 그곳으로 내려가겠소.》

《알겠습니다.》

옹진군위원장은 군내에 침입한 적들을 맞받아 돌진하는듯 한 걸음으로 총총히 방을 나갔다.

룡진은 그가 나간 다음 즉시 책상우의 송수화기를 들었다. 교환수에게 도당위원장방을 부탁한 그는 수화기에서 도당위원장의 목소리가 들리자 방금 끝낸 협의회정형을 보고하였다. 그다음 룡진은 자기가 옹진군으로 가서 해야 할 사업계획을 말했다. 도당위원장과의 전화를 끝낸 그는 송수화기를 놓았다.

(미국놈들이 벌써 우리 도의 땅에 들어섰단 말인가?…) 룡진은 입안이 바짝 마른듯 한감을 돌연히 느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창문을 열었다.

12

서해안의 소도시인 옹진거리 상공에서는 굵직굵직한 비방울이 엇비듬히 쏟아져내리고있었다. 비는 행길우의 해빛냄새를 머금은, 하다분한 먼지를 때리면서 신선하고 싸늘한 찬기운을 풍겼다. 비물과 진창투성이의 옹진거리는 후퇴하는 군중대렬, 량곡과 광산설비, 각종 물자들을 가득 실은 우마차들로 꽉 메였다. 바다가쪽에서 쿵쿵… 쉼없이 포성이 울려오고 최전선으로 나가는 인민군병사들의 대렬이 시

내거리로 련속 지나갔다.
신작로가 빤히 내려다보이는 군인민위원회의 2층 위원장방에서는 전화기가 쉴새없이 찌르릉거리고 사람들이 복작거렸으며 담배연기가 자욱했다.
군위원장은 송수화기를 쥔채 쉴새없이 방으로 찾아들어온 사람들에게 긴급히 결론을 주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책상우에 놓인 문건들에 수표하면서 전화로 말하고있었다.
《그래서 지금 동무는 어떻게 하자는거요? 동무의 결심을 어서 말해보오.》
《군위원장동무, 내 몇번 얘기하라오? 배들을 금산포와 안동포기슭에 음폐시키겠다고 이미 몇번이나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전화선의 저쪽끝에서 화가 난 수산사업소 지배인의 거치른 목소리가 울려왔다.
《여보 지배인동무, 만약 적들이 음폐한 배들을 발견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소? 그런 경우에 동무는 어떤 돌이킬수 없는 후과가 발생하겠는지 생각해봤소?》
군위원장은 해풍에 절어 검실검실한 수산사업소 지배인의 얼굴을 마주보는듯 허공 어딘가를 응시하면서 고함을 질러댔다. 그러나 저쪽에서도 숙어들지 않고 맞받아 분격하여 웨쳐대는 목소리가 쩌렁쩌렁 송수화기에서 울렸다.
《어째서 문제를 자꾸만 그렇게까지 최악으로 끌고갑니까? 그래, 다른 출로는 우리에게 전혀 없단 말입니까?》
《여보 지배인동무, 무슨 말이 그렇게도 많소? 우리에게는 지금 다른 출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소. 폭파하란 말이요!―》
군위원장은 그 말을 하기가 몹시 괴로운듯 얼굴을 찌프리며 송수화기에 대고 큰소리로 또다시 반복하여 웨쳤다.
《폭파―하시오!》
《폭파!―폭파!― 그래, 군위원장동무는 그렇게도 쉽게 그런 몰인정한 말이 나옵니까?… 나는 내 몸을 폭파하면 폭파했지 배들은 죽어도 폭파 못하겠단 말이요!―》
탕!― 하고 분격하여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치는 소리가 송수화기에

서 똑똑하게 들렸다. 그러더니 조금후에 수화기에서 이번에는 목메인 지배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군위원장동무, 난 내 손으로 그렇게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마련된 배들입니까?… 리승만때는 바다에서 사자밥을 지고 진절머리나게 고생만 하던 우리가 아니요? 그때 군위원장동무도 나와 같이 선주놈의 쪽배를 타고다니며 몇번이나 풍랑사나운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드랬소? 그래, 이제는 벌써 그때를 다 잊어버렸소?… 해방후 우리 손으로 무슨… 우리들의 피와 땀이 스민 그 배들을 어떻게 우리들자신의 손으로 폭파한단 말이요?…》

전선을 타고 절절하게 울려오는 지배인의 목메인 말소리에 군위원장은 말문이 막힌듯 한참동안 잠잠히 서있었다.

《군위원장동무, 왜 말이 없소?… 여보시오, 군위원장동무!—》

송수화기를 땀배인 손으로 으스러지게 꽉 틀어쥐고 말없이 묵묵히 서있던 군위원장은 이윽고 나직이 목갈린 소리로 응대했다.

《좋소. 조금만 기다려보기요. 이제 도위원장동지가 도착하면 결론을 받아 행동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그대로 두오. … 그러나 폭파할 만단의 준비는 해놓고 대기하오.》

군위원장은 송수화기를 놓고 괴로운듯 찬비 쏟아지는 창밖을 내다보며 토막토막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이쪽저쪽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비에 흠뻑 젖은 룡진이 방안으로 들어섰다. 구름같은 담배연기가 그를 확 덮씌웠다.

《군위원장동무, 벽성군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처리하고 오느라고 좀 지체되여 늦었소. 소개정형은 어떻소?》 하고 룡진이 옹진군위원장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옹진군위원장은 군내주민들과 식량, 국가물자의 소개정형을 룡진에게 보고하였다. 적기의 무차별폭격속에서 밤과 낮 가림없이 2 300대의 우마차와 수만명의 군내 남녀로소가 일제히 동원되여 옹진광산 생산시설일체와 수만가마니의 량곡을 비롯한 기관기업소의 물자들을 안전지대로 소개하였다. 또한 1만여명의 청장년들은 앞을 다투어 인민사단에 인입되였는데 그들은 적들이 침입하기 전에 잠입침투시킨 간

첩분자들과 공모하여 민주질서를 교란파괴하려던 일부 면과 리의 악질반동놈들을 적발처단했다. …

《도위원장동지, 그런데 현재 한가지 곤난한 문제가 제기돼서 위원장동지의 결론을 받아 처리하려고 합니다.》

《무슨 문제요?》

《다름아니라 북상하던 우리의 수산사업소 배들이 적들에게 퇴로가 차단되여 어쩔수없이 되돌아왔습니다. 수산사업소 지배인동무는 배들을 금산포와 안동포일대의 으슥한 곳에 은밀히 음페시키겠다고 완강히 주장합니다.》

《안되오. 적들이 지금 남해리와 서해리에 침입했소. 그리고 지금 룡천리와 대기리쪽의 덕개봉에서 치렬한 전투가 진행되고있소. 시간이 없소. 무조건 폭파해야 하오!》 하고 룡진은 매 말마디의 무게를 달아보기나 하듯이 뚝뚝 끊어서 단호하게 말했다.

군위원장은 무슨 말을 하려다가 하는수없이 송수화기를 들고 수산사업소를 찾았으나 전화는 통하지 않았다. 그사이에 적들의 포사격으로 전화선이 끊어졌던것이다.

《도위원장동지, 수산사업소 지배인동무의 주장대로 배들을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곳에 은페시키면 안되겠습니까?》

옹진군위원장은 괴로와하는 표정으로 다시 제기하였다. 룡진은 말없이 앞에 마주서있는 그의 눈을 침착하게 찬찬히 바라보았다. 얼굴표정에 의하여 괴로와하는 옹진군위원장의 진정한 의사를 꿰뚫어보기 위해서였다.

《군위원장동무, 한알의 쌀, 한방울의 물, 돌아가는 공장이나 광산도, 성한채로 있는 교량도 배들도 적들에게 넘겨주는것은 용서할수 없는 범죄행위로 된다는것을 동문 아직 모르고있소? 주저하지 말고 빨리 배들을 폭파하고 소각해버리시오!－》

《그렇지만 만약…》

《만약이란 있을수 없소. 서두르시오.》

《도위원장동지!－》

군위원장은 더없이 아픈 수술을 받으려는 사람처럼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가장 험악한 정세하

에서도 도위원장만은 다른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중요한 해결책을 발견하고 조성된 정세로부터 출로를 찾아낼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었다. 그런데… 그 역시 폭파를 명령하고있는것이다.

룡진은 말없이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군위원장의 가슴속에서 지금 무엇이 벌어지고있는가를 알고있었다. 군내인민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이룩된 가장 크고 가장 이름있는 수산사업소 배들의 운명이 문제로 되고있는것이다. 더우기 그는 그곳 수산사업소출신의 군위원장이라는것도 룡진은 생각했다. 그러나 미제침략자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 이미 파괴하고 폭파하고 침수해버린 광산들과 염전, 공장들은 수천수만의 조선사람들이 오랜 기간 자기 로동, 자기 지혜, 믿음, 열정과 재능을 쏟아붓지 않았단 말인가!… 룡진은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워도 어차피 지금의 정세하에서는 배들을 파괴하고 소각하지 않을수 없다는것을 한순간도 의심치 않았다. 그는 오직 사업만이, 오직 정력적이며 목적의식적인 강한 활동만이 (특히 사태가 위태로운 순간일수록) 사람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안정을 잃지 않고 모든 힘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한다고 굳게 믿고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랭정하게 그러면서도 확고하게 군위원장을 향해 명령조로 말했다.

《동무는 아직까지 무엇을 주저하고있소? 무조건 폭파하라는 내 말을 듣지 못했소? 곧 집행하시오!》

옹진군위원장은 강한 요구성이 느껴지는 룡진의 말에 번쩍 정신을 차린듯 전화기가 놓인 책상앞으로 다가가 송수화기를 들고 다시 수산사업소를 찾았으나 여전히 응답이 없었다. 그러자 군위원장은 송수화기를 집어던지고 단호히 결심한듯 룡진의 앞으로 다가왔다.

《도위원장동지, 제가 이제 현지로 가서 위원장동지의 지시를 집행하고 오겠습니다.》

《좋소, 나도 함께 그곳으로 가겠소!》 하고 룡진은 큰소리로 말하고나서 먼저 성큼성큼 문밖으로 나왔다.

《도위원장동지!—》

옹진군위원장은 당황하여 뒤따라 덤비면서 나와 그를 막았다.

《안됩니다. 그곳에서는… 위험합니다. 적들이 가까이에…》

《내 걱정은 하지 마오.》 하고 룡진은 여전히 랭정한 어조로 말했다.

《도위원장동지, 안됩니다. 그곳으로 위원장동지가 가시면 안됩니다.》

그러나 이때 막아나서던 그는 룡진의 눈길과 마주쳤다. 군위원장은 그찰나에 룡진의 얼굴표정과 눈빛에서 그로 하여금 즉시 공손히 군말없이 순종하지 않을수 없게 하는 그 어떤 준엄한것을 감촉했다.

군위원장은 하는수없이 입을 다물고 묵묵히 룡진의 뒤를 따라 뚜걱뚜걱 목조계단을 내려왔다. 군인민위원회 앞뜨락에는 발동을 건 룡진의 승용차가 부르릉거리며 대기하고있었다.

《타오.》 하고 룡진은 먼저 차에 올라타면서 그에게 말했다. 군위원장은 입을 꾹 다물고 여전히 침묵한채 차안으로 들어와 앉았다. 그들을 태운 승용차는 옹진거리를 벗어나자 최대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수산사업소가 가까와올수록 포성은 점차 가깝게 들려왔다. 차는 얼마후 수산사업소가 자리잡은 바다가의 마을에 도착했다. 수산사업소주변에는 무장한 젊은 어로공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순찰하고있었다. 차에서 내려선 룡진은 언제인가 와본적이 있는 이곳 수산사업소의 지배인방쪽으로 곧바로 걸어갔다.

사람들의 얼굴을 가려보지 못할 지경으로 담배연기가 자욱하게 서린 지배인방에서는 수많은 어로공들과 일군들이 모여 떠들어대며 당면행동에 대해서 토의하고있었다.

《지배인동무!—》

방문을 불시에 열어제낀 군위원장이 얼굴을 찌프리며 소리쳤다. 벌둥지처럼 웅성거리던 방안은 일순간 잠잠해졌다.

《아니, 군위원장동무요?》

방안에서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그를 알아보고 놀라 소리나게 걸상을 밀어제끼며 문쪽으로 성급히 마주나왔다.

《여보 지배인동무, 도위원장동지가 여기 오셨소!》 하고 군위원장은 문앞에서 얼른 비켜서며 말했다.

《아니, 도위원장동지가 어떻게…》

수산사업소 지배인은 뜻밖에 불쑥 나타난 룡진에게 황급히 굽석 인사했다.

《수고하오, 지배인동무.》 하고 룡진은 지배인의 커다란 거무스레

한 손을 잡으며 방안으로 들어섰다. 방안의 사람들은 모두 일시에 일어서서 룡진에게 인사한 다음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룡진은 사람들이 다 나간 후 즉시 지배인에게 엄한 추궁조로 물었다.

《동무는 어째서 아직까지 배들을 폭파하지 않고있소?》

그러나 지배인은 머리를 숙인채 고집스럽게 입을 꾹 다물고 응대하지 않았다.

《내가 묻지 않소, 지배인동무!… 왜 배들을 폭파하지 않소?》

《도위원장동지!—》

지배인은 별안간 머리를 번쩍 들고 온몸을 흥분으로 떨면서 격한 목소리로 부르짖듯이 말했다. 그 순간 룡진은 자기 면전에서 서슬푸른 그의 눈을 보았다.

《도위원장동지, 저희들은 사업소의 배들과 양식장들을 폭파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간악한 적들과 마지막 피 한방울이 남을 때까지 싸우다가 죽을 각오가 되여있습니다. 차라리 우리는 그게 마음편할것입니다!》

목메인 소리로 부르짖는 장대한 지배인의 몸은 격정으로 부르르 떨었다. 룡진은 그의 참을수 없는 내심의 고통을 눈으로 보았다기보다 온몸으로 느꼈다.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열정과 애정, 재능과 지혜가 속속들이 깃든 배들, 양식장들을 자기 손으로 폭파한다는것은 무쇠같은 심장도 터질만큼 괴로운 과업이라는것을 룡진은 깊이 리해하고있었다. 그의 마음도 역시 괴로웠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괴롭게 몸을 떨고있는 장대한 체구의 사나이인 지배인을 다시 마주보는 한순간 룡진은 자기의 폭파명령을 취소하고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북으로 가는 바다통로가 열릴 때까지 금산포와 안동포의 으슥한 곳에 일시 은폐시키자는 지배인의 제의에 동의하고싶었다. 그렇게 하면 지배인도 룡진이자신도 이렇게까지 마음이 괴롭지는 않을것이다. 그러나 당원은, 일군은 아무리 어렵고 마음이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죽는 마지막순간까지 자기 임무를 다해야 한다는것이 룡진의 확고부동한 신념이였다. 그는 끝내 자기의 괴로운 마음을 다잡았다.

《지배인동무, 내 말을 명심해 듣소. 이제부터 1시간내에 모든 폭파준비를 끝내고 동무가 직접 나에게 보고하시오!》

나직나직한 룡진의 목소리가 준엄하게 방안에 울렸다.
《지배인동무, 동무는 명령집행에 대해서 직접 책임져야 하오. 그리고 그것을 어기는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하게 처벌한다는 것을 경고하오. 가보시오!》
룡진의 준엄한 목소리는 공화국의 종국적승리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고 단행하며, 그 어떠한 가슴아픈 희생도 달게 여기며 그 어떤 난관도 맞받아나간다는것을 도내에 침입해들어오고있는 적들에게 선언하는것 같았다.
《동무는 왜 아직도 거기에 서있소? 적들에게 배를 넘겨주고 돕자는거요? 빨리 나가 폭파준비를 하오. 지배인동무, 마음을 다잡으시오. 옷의 단추를 채우시오.》
지배인은 손이 덜덜 떨려 풀어진 옷의 단추를 똑바로 채우지 못했다. 그는 쓰러질듯이 몸을 허청거렸다.
《도위원장동지, 저의 생각에는 배들만은… 양식장은 폭파하더라도…》 하고 보다못해 군위원장이 눈물을 머금고 참견했다.
《동무는 뭐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지휘하고있소!》
룡진은 가슴이 터지는듯 한 군위원장의 더듬거리는 말을 무자비하게 꺾어버리고 단호한 어조로 말을 덧붙였다.
《공화국정권의 이름으로 말이요. 나의 명령을 신속히 집행하시오!》
지배인은 괴로움과 고통으로 몸을 떨며 어딘가 문설주에 머리를 쫏고 평지건만 발을 걸채면서 포성이 가깝게 들려오는 부두로 나갔다. 군위원장은 지배인의 책상 한끝을 꽉 틀어잡고 조용히 이발을 갈았다. 인간으로서의 룡진의 마음도 역시 그들처럼 괴로왔다. 그가 왜 모르랴! 폭파해야 할 배들과 김, 곤포, 미역양식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허나 룡진은 그들앞에서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낼수 없었고 또 그래선 안되였다. 괴로운 침묵이 서린 방안으로 지팽이에 몸을 의지한 웬 낯모를 늙은 로인이 기우뚱거리며 지축지축 들어섰다. 로인은 문가에 서서 연방 채머리를 흔들며 색이 바랜 뿌연 눈을 쪼프리고 방안의 두사람을 이쪽저쪽 쳐다보더니 그 나이에 꽤 크고 챙챙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도의 제일 웃어른인가?…》

《네, 제가 도위원장입니다.》

룡진은 마주걸어나가 로인을 부축하고 걸상에 앉히였다.

《도위원장자리를 내놓게!》 하고 로인은 채머리를 흔들면서 밑도 끝도 없이 룡진을 향해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로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래 배들과 양식장을 도위원장이 폭파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몰라묻는건가?… 허, 정말 기막힌노릇이군.》

로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여 벙긋이 벌린 입에 이발빠진 자리를 시꺼멓게 드러내보이며 분노하여 말을 더듬거리면서 지팽이로 방바닥을 두드렸다.

《이보라구 도위원장, 내 한일생을 바다에서 사자밥을 지고 이날까지 살아온 사람이야! 한데 인민정권이 선 다음 우리 손으로 마련한… 그래, 제 혈육같은 배들을 우리들 손으로 폭파한단 말인가! 그건 차마 못할짓이야! 암, 못할노릇이지…》

선이 뚜렷한 룡진의 검은 눈섭이 한순간 곤두섰다. 그러나 그는 의지의 힘으로 그 기분을 누르고 조금도 자기의 감정을 내색하지 않았다. 룡진은 스스로 바라던것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로인에게 차근차근 어쩔수 없는 목전의 정세를 상세히 설명해주었다.

《로인님, **김일성**장군님께서 하신 방송연설을 들으셨겠지요? 그 말씀의 사상은 단 한척의 배도, 단 한개의 양식장도 성한채로 적들에게 넘겨주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것입니다. 단 한잎의 김이나 미역이라도 말입니다.》

로인은 그냥 채머리를 흔들면서 몸을 기웃한채 침묵하고있었다.

《로인님, 물론 우리 인민들의 피나는 커다란 노력으로 이루어놓은 것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파괴하는것은 무척 괴롭고 가슴쓰린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적들에게 넘겨주는가 아니면 제 손으로 파괴해버리는가 하는것이 제기되면 사소한 동요가 있어서는 안되고 또 있을수도 없습니다. 장군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길에서는 조그마한 드팀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룡진은 로인에게가 아니라 괴로와하는 자기자신을 설복하고 타이르는듯 한 어조로 말하고있음을 문득 깨닫고 말을 끊었다.

《음… 그렇단 말이지.》
로인은 연방 채머리를 흔들어대며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허, 내 일생에 이렇게까지 가슴이 쓰리고 아파보긴 처음이로군.》
하고 로인은 혼자소리로 중얼중얼하면서 후들후들 손을 떨며 긴장죽에 담배를 쟁였다.
《로인님, 이제 우리가 놈들을 쳐부시며 다시 돌아와 더 큰 배들과 더 좋은 양식장들을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그때 제가 다시 로인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로인은 룡진의 진심과 신심에 넘친 힘있는 말을 새겨들으며 머리를 끄떡끄떡했다.
《도위원장, 고맙네.》
그러는 사이에 폭파준비를 끝낸 지배인이 방으로 들어왔다.
《도위원장동지, 폭파준비를 기본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수습한듯 어지간히 침착해진 지배인은 입술을 깨물며 똑똑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룡진은 그를 따라 밖으로 나왔다. 그는 폭파장치가 설치된 두두룩한 언덕우에 올라서서 마지막으로 수산사업소구내를 내려다보았다.
(많이 건설해놓았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룡진의 뇌리를 스쳐지나갔다. 도내에서는 가장 모범적이고 훌륭한 수산사업소로 되여있었는데 최후의 순간은 드디여 닥쳐온것이다.
바다는 배들과 양식장들, 사업소와 혼연일체가 되고싶어하는듯 파도치며 술렁거리고있었다. 언덕우에 사람들이 련속 나타나서 룡진의 곁에 서있는 지배인에게 분공받은 대상의 폭파준비를 끝냈다고 보고했다. 그때마다 지배인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머리를 끄덕이군 했다.
(저 사람이 누구보다도 가슴이 제일 아플것이다. 사업소의 모든 양식장들과 배들이 자기 자식같을테니까—) 하고 룡진은 지배인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갑자기 련민의 정이 치솟아오른 룡진은 고통에 시달리는 지배인을 끌어안고싶은 충동을 겨우 억제하였다.
《지배인동무, 담배 한대 주오.》
룡진은 담배갑에서 담배를 꺼내고 지배인이 켜준 성냥불을 받아 담

배를 붙일 때 자기의 손이 가늘게 떨리는것을 느꼈다.
얼마후에 요란한 폭음이 울렸다. 그렇게도 커다란 굉음이 있은 후에 닥쳐온 정적은 그 굉음보다 더 사람들의 귀를 메게 하는것 같았다. …

13

잔잔한 강물처럼 조용히 흘러가던 돌무지마을의 생활은 10월 초순이 지나서부터 장애가 심한 여울목에 이른것처럼 소용돌이치기 시작하였다. 로동당원들은 후퇴와 관련된 수많은 과업들을 놓고 련이어 며칠밤 회의들을 하였으며 대부분의 농민들은 불안하고 어수선한 심정으로 들판과 집들, 골목들에 모여서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에 대하여 론쟁하고 예측들을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다수의 농민들은 탈곡도 하고 리인민위원회에서 조직하는대로 물자들과 량곡소개사업에 우마차를 끌고 적극 동원되군 하였다. 일손이 부족한 농가들에서는 서로 품앗이로 가을밀보리파종도 하고 콩마당질도 했다.
한편 청산된 지주, 일부 부농, 교화소 출소자, 건달군, 불평불만을 숨기고있던 사람들은 저희들끼리 모여 수군거리기도 하고 회심의 미소를 띠우고 남모르게 이집저집 은밀히 찾아다니기도 하였다.
그들은 으슥한 뒤골방에나 깊숙한 방공호에 라지오를 틀어놓고 저쪽의 방송을 듣군 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로 싸다니며 미군이 어디까지 왔다느니, 빨갱이들이 도망칠 준비를 한다느니 하는 소문을 퍼뜨려 온 마을을 뒤숭숭하게 만들었다. 저녁마다 그들은 악질부농이며 인민군대 기피자인 홍태국의 집에 모이군 하였는데 저마다 사람들의 눈에 띄우거나 주의를 받지 않도록 골목길과 뒤길로 해서 슬며시 찾아들었다.
오늘 밤에도 홍태국의 집에서는 로모의 생일이라고 술상을 차리고 동네사람들을 불러들였다. 내내가 끄리고 쥐똥들이 널린 음침한 뒤골방의 어지러운 방바닥에는 담배꽁초, 내버린 성냥가치, 구겨진 휴지, 콩깍지들이 널려있었고 녹아흐르는 마라초연기가 술상우에 헤염쳤다. 바깥방에서 위장으로 생일손님들을 겪고나서 밤이 이슥한 때에 몇사람이 뒤골방에 따로 모였다. 거기에는 생일로 알고왔던 임성욱목사도

사람들속에 앉아있었다. 모두 술에 거나하게 취하였을 때 홍태국이 의미있는 눈길로 좌중을 둘러보며 짓눌린듯 한 목소리로 조용조용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분들은 모두다 내가 자신처럼 철석같이 믿고 있기때문에 털어놓고 솔직히 말하는바이지만 오늘 생일놀이는 사실 위장이였수다.》 하고 그는 고기국물이 묻은 반지르한 입술을 두루 빨고나서 말을 계속했다.

《지금현재 강대한 미군이 당당하게 우리 도의 땅에 들어섰고 이 고장 가까이로 물밀듯이 진격해오고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리는바요. 그렇소, 우리가 지금까지 무겁게 들쓰고있던 괴로운 멍에를 벗어던질 중대한 시각이 다가온다는것을 기쁜 마음으로 전하는바이요!》

인민군대 기피자인 홍태국은 동가슴을 불쑥 내밀고 희떠운 목소리로 말했다. 히죽이 웃는 그의 입에서 이발들이 시퍼런 칼날처럼 번뜩했다.

《바로 그런즉 우리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해방자인 미군을 맞이하겠소. 그럴수는 없는거요. 지금 빨갱이들은 정신없이 도망칠 준비를 하고있소. 현재 군에서는 뜻있는 사람들이 거사준비를 착착 해나가고있는데… 일이 뜻대로 잘되여나간다고 하오.》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마치 땅속에서 스며나오는듯이 나직한 음성으로 말하며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군소재지에서는 명망높으신 김목사님이 벌써 군내 각곳의 26개 교회에 망라된 교직자들을 거의다 묶어세웠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소.》 하고 홍태국은 덤덤히 앉아있는 임성욱목사를 의미있게 바라보며 말을 덧붙였다.

《그들은 벌써 군내에 결사조직을 뭇고 거사계획을 주도세밀하게 세워놓았소. 군내의 각곳에는 땅을 빼앗겼던 지주 117명, 부농 464명, 상기업가 353명 그리고 숱한 교인들이 있다고 하오. 그들을 전부 묶어서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빨갱이전부를 처단해버리자는거요. 그래야 미군앞에 면목이 서기때문이요. 그런만큼 여기서도 우리들이 일시에 들고일어나 빨갱이들을 처단해야 하지 않겠소.》

《옳은 말이요. 빨갱이새끼들의 씨종자를 없애야 해!》

안악군소재지에서 청산되여 이곳으로 이주해온 늙은 지주가 술에 취해 불쾌해진 얼굴로 담배진에 거멓게 된 이발을 부득부득 갈며 쾅하고 술상을 내려쳤다. 말해골처럼 뼈만 앙상한 그의 은빛머리카락은 좀먹은듯 군데군데 빠지고 턱수염은 버성겨진데다 가장자리는 온통 새하얀것이 비누칠이라도 한것 같았다.

《5년동안… 그 지긋지긋한 5년동안 난 악의와 증오를 가슴속에 깊숙이 묻어두고 딴전을 부리지 않으면 이놈의 세상을 살아갈수 없었지. 이젠 안 그럴테야!—》 하고 그는 또다시 쾅— 술상을 내려치며 취기에 턱을 들까불었다.

《쉬!— 령감, 갑자기 도깨비가 붙었소? 아직은 그렇게 큰소리를 내놓고 질러댈 때가 아니란 말이요.》

불시에 놀랜 홍태국이 안악지주를 패롭게 흘겨보며 조용히 상스런 욕설을 퍼부었다.

《뭐라고? 도깨비가 붙었느냐구? 엣끼, 돌쌍놈의 자식같으니… 그래 날 아무 쓸모없는 늙다리라고 괄시하는건가? 이 날벼락맞아 죽을 놈아!…》 하고 그는 대들듯이 화닥닥 일어섰으나 몸을 가누지 못한채 모재비로 나무토막처럼 방바닥에 쓰러졌다.

《술기운에 광기를 부리는군.》

홍태국은 짐짓 놀란듯이 녀자같은 수염없는 맨숭맨숭한 얼굴을 찌프렸다. 그는 늙다리 안악지주따위는 개방귀만큼도 여기지 않는것 같았다. 홍태국은 술상밑으로 다리를 까드라뜨리더니 술상이 찌국거릴 정도로 습관처럼 한다리를 련속 흔들흔들 떨었다.

《령감, 진정하시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데 노여워할건 뭐요?》

《여보시오, 홍태국씨, 내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죽은 목숨처럼 살아왔는지 그래 알기나 하는가. … 난… 난…》

취기에 두눈이 게슴츠레 풀어진 안악지주령감은 시큼한 소주냄새를 온 방안에 풍기면서 흐느껴울었다.

《지금까지 난 개짐승처럼 멸시와 구박을 받으면서도 찍쨱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숨소리마저도 크게 못내고 굽신거리며 살아왔어! 개나 소처럼! 말 못하는 돼지처럼, 하늘소처럼!… 빨갱이, 쳐죽일 그 빨갱

이놈들이 내 땅, 내 집을 백주에 빼앗았단 말이여… 내 말을 막지 말구 들어보라구. 내 집은 여기서 30리도 못되는 안악에 있었지!—》 하고 그는 눈먼 증오심에 불타 이발을 갈면서 푸념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빼앗긴 내 집 뜨락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었어. 집을 빼앗기구 땅까지 몰수당한 후 내 집곁을 이따금 지나가면서 빨갛게 감들이 열린 감나무를 볼 때마다 내 가슴에 불이 일군 했지. 그래서 난 참다못해 어느날 밤에 그 감나무를 찍어넘기려고 도끼를 들고 담을 넘어갔댔어. 한데 도끼 한번 찍어보지도 못하고 하마트면 도적으로 몰려 죽을번 했단 말이요. 겨우 줄행랑을 쳐서 으슥한 산에 올라 밤새껏 소리없이 혼자 통곡을 했지!— 그래, 이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내가 여기서도 큰소리를 치지 못한단 말인가?—》

늙다리 안악지주는 지금껏 해해년년 가슴속에서 억눌려 묵새기던 분노의 격한 감정이 술기운에 활기를 편듯 몸을 꿈틀거리며 새된 소리를 질러댔다.

《여, 돌쌍놈 홍태국이!… 넌… 넌 아무것도, 빨갱이놈들한테 아무것도 빼앗긴게 없지!… 아무것도!…》

안악지주령감은 무엇을 견주기라도 하는것처럼 툭 불거진 한눈을 쪼프리고 울분을 참아내지 못하겠다는듯이 홍태국이를 가리키며 코맹맹이소리를 쳤다.

《그래 너는 인민군대 기피나 하구 자유가 없었다, 동원이 많다, 공채다, 원호사업이다, 회의들이 지긋지긋하게 많다 그러루한 시끄러운것들이 많았다는 그것뿐이겠지? 그게 다겠지? 여보시오, 난… 난…》

그는 또다시 말을 못하고 헉헉 숨지는 소리로 흐느끼며 울었다.

《과히 취했군.》

홍태국은 담배진에 누렇게 된 손가락으로 무전을 치듯 술상을 똑똑 두드리며 참지 못하고 증을 냈다.

《뭐, 취했다구?… 그래그래 난 정신없이 취했어. 하지만 너희 젊은것들은 내 심정을 전혀 몰라준단 말야.… 난 빨갱이놈들의 정권에 독을 품고 이제껏 살아왔어.… 이제야 때가 왔지. 이제 내 세상이 온다. … 온… 다.》 하고 안악지주령감은 중얼거리더니 취기에 노그라

진듯 그루터기만 남은 절반이나 떨어져나간 이발을 드러내고 쓰러져 코를 요란스레 골기 시작했다.

홍태국의 찌프린 맨숭맨숭한 얼굴에서 검고 짧은 살눈섭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술상 맨끝에 앉아있는 군고급중학교에서 술망나니 불량배로 출학당한 상고머리청년에게 빠르게 눈짓했다. 그러자 상고머리청년은 민첩하게 일어나 코를 고는 안악지주령감을 덥석 안고 밖의 어딘가로 나갔다. 밖에는 손을 내밀면 묻어날듯이 먹물처럼 새까만 10월밤의 어둠이 빽빽이 내려덮여있었다.

《얼뜨기같은 두상태기로군. 그 주제에 빨갱이놈들하고 뭐 결판을 내구 천대받아온 앙갚음을 해보겠다구?…》

홍태국은 짐짓 업수이 여기듯이 눈에 칼날을 세우고 돌연 듣는 사람들모두가 오싹 소름이 끼칠만큼 나직이 웃었다. 아낙네들처럼 반반한 그의 얼굴에 들창틈사이로 새여들어오는 바람결에 흔들리는 등잔불그림자가 얼른거렸다. 그때 밖에서 요란스럽게 개가 짖어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 누군가 신호처럼 몇번 문을 두드렸다.

홍태국은 긴장한 표정으로 숨소리를 죽이고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이고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조용히 말하면서 밖으로 나갔다.

그는 오래 지체하지 않고 상고머리청년과 함께 다시 방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방금 군에서 우리 사람이 련락을 왔드랬소. 준비를 서두르라는 긴급지시요!》 하고 그는 흥분으로 짧은 눈섭을 바르르 떨면서 수군거리듯 말했다.

그러자 지금껏 혼자 숨만 들이키던 험상하게 생긴 출소자인 한 부농이 신바람이라도 난듯 잰말로 물었다.

《그러니께이 이제부터 우리들은 뭘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여기 빨갱이놈들이 달아나기 전에 모조리 죽여버리는거요! 그러자면 사람들이 일시에 모두 들고일어나게 해야 하겠는데… 그게 제일 어렵거던…》

홍태국은 칼날처럼 날카로운 쪼프린 눈으로 한사람한사람 찬찬히 여겨보며 잠시 침묵했다. 그는 등잔불에 담배를 붙여 한모금 깊숙이 들이키고나서 눈을 번쩍거리며 이번에는 얼마간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될수록 빨리,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끌어당겨야 하겠소. 그런 다음 일시에 들고일어나서 이곳 빨갱이놈들의 집에다 불을 지르구 모조리 쳐죽여야 하오. … 임목사님, 목사님은 여기의 교인들이 한꺼번에 풍우처럼 일어나게 해주슈!》

그러나 말 한마디없이 침묵하고 앉아있던 임성욱목사는 못마땅한듯 낯을 찌프리며 홍태국의 말을 막아버리기라도 하려는것 같은 몸짓을 하더니 이윽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오늘 저녁에 생일집인줄 알고 왔었는데… 여기는 내가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였소.》 하고 임성욱목사는 평소때처럼 흥분하지 않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임목사님, 왜 그러시우?… 이게 진정인가요?》

홍태국은 놀램과 노기를 품고 날카롭게 임목사를 쏘아보았다. 그러나 임성욱목사는 침착하게 홍태국을 마주보면서 역시 잔잔하면서도 정확한 어조로 응대했다.

《나는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보는것을 질색하는 사람이요. 그런만큼 나는 교인들을 그런 일에 나서라고 권유할 의향이 전혀 없소.

오히려 나는 그런 일에 따라다니는 교인들이 생기면 찾아가 만류할 생각이요.》

《여보시오, 그따위 개방귀같은 소리는 걷어치워. … 겁이 나서 그러는가!—》 하고 누군가 뒤에서 임목사를 향해 사납게 내쏘았다.

《임목사, 난 그래두 지금까지 그 하찮은 무식쟁이 욕설군인 조영모놈한테 모욕을 당하구 수모를 받아온 임목사가 무슨 큰뜻을 품고 참아오는줄로 생각하고있었수다. 한데 그렇게도 뼈대가 없는 사람이였소?》

홍태국은 죽은 사람모양으로 혈색이라고는 전혀 없이 새하얗게 질려서 임성욱을 흘겨보며 화를 냈다.

《아니, 나는 현정권에 대한 나대로의 견해가 있소.》 하고 임목사는 서슴없이 신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는 한마을에서 살아온 같은 동포끼리 빨갱이니, 뭐니 하고 사람들을 죽이는것은 반대요. 당신들에게 진심으로 권고하오. 그런 끔찍한 살륙이 우리 마을, 우리 사람들속에서 감행돼서는 절대로 안되오!》

《허튼수작 말아. 여기가 례배당인줄로 알구 설교인가?》
거쉰 목소리로 누군가 야비하게 비웃었다. 좌중은 놀라 설레이기 시작했다.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린 임성욱목사는 모자를 쓰고 량옆을 둘러보면서 침착하게 방문앞으로 걸어갔다. 억병으로 만취한 안악지주령감을 방공호에 처넣고 돌아온 상고머리청년이 별안간 화닥닥 일어나 임성욱의 앞을 막아나섰다. 그리고는 임목사의 얼굴에 물씬 소주냄새가 풍기는 더운 입김을 불어대며 악에 받쳐 소리쳤다.
《임목사! 밀고하러 가는가!ㅡ》
《청년!ㅡ》
임성욱은 무슨 말인가를 하려다가 단념하고 마치 페스트에 걸린 사람을 피하듯이 청년에게서 비켜섰다.
《개새끼, 목사구 개똥이구 쳐죽여버리고말겠어!》
바투 다가붙은 조그마한 두눈을 미친 사람처럼 희번득거리면서 상고머리는 임성욱목사의 턱수염 높이까지 주먹을 쳐들고 물어뜯듯이 차겁게 내쏘았다.
《청년… 말버릇이 고약하군.》
임목사는 막아나선 상고머리청년을 침착하게 밀고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저 개새끼같은 목사놈을 그냥 가게 하면 나중에 어떻게들 하려고 가만있시까? 당장 따라가서 저놈을 죽여버려야 하지 않겠시까? 쥐도 새도 모르게…》 하고 상고머리청년이 홱 돌아서서 누구에게라없이 몰풍스레 물었다.
《옳소.》
《죽여버려야 해!》
《후환을 미리 없애는건 좋은 일이지.》
뒤골방안의 여기저기서 부추기듯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댔다.
《내가 감쪽같이 처리하고 오겠시다.》
눈에 피발이 선 상고머리는 또다시 미친 사람처럼 희번득거리면서 칼을 빼들더니 당장 뛰여나가려 했다.
《재필이ㅡ》

잠잠히 앉아있던 홍태국이가 그 순간에 나직이 소리쳐 청년을 멈춰세웠다. 홍태국의 일찌기 병적으로 벗어지기 시작한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흘러내렸다.

《왜 그러나요? 잘못하다가는 그 개목사놈의 밀고에 여기 모인 우리모두가 멸살하지 않겠시까… 그 새끼를 죽여버려야 해요!》

독이 오른 상고머리는 칼을 틀어잡은채 으드득 어깨를 떨었다.

《지금은 안돼!》 하고 홍태국은 떨리는 목소리로 훈계했다. 그런 다음 무슨 생각에선지 급히 밖으로 달려나갔다.

《설마 임목사가 밀고까지야… 그런짓은 하지 않을게야!》 하고 뒤골방의 구석쪽에서 누군가 입재게 나직이 소리쳤다.

《허, 그것 참 일이 더럽게도 꼬이는군. 임목사가 그렇게 나올줄이야 누구도 몰랐지.》

험상스럽게 생긴 중년의 부농인 교화소 출소자가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담배불을 붙이며 쑤왈거렸다.

방안에는 한동안 불안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마을의 집들에서 컹컹 개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마후 홍태국이 긴장한 얼굴로 침묵이 서린 방에 조용히 들어섰다. 그는 못 견디게 속이 타는듯 아무말없이 술상에 마주앉아 연거퍼 술을 따라마셨다.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속수무책으로 앉아있다가는?…》

상고머리는 부풀어오른 피줄이 보일만큼 칼을 꽉 틀어쥐고 침묵하고있는 홍태국에게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재필이, 너무 걱정하지는 말라구. 임성욱이는 내무서에 찾아가 고발할 위인은 못돼. 그런데다 내가 방금 그 사람에게 으름장을 놓았어. 만약 밀고하는 경우에는 딸년까지 박살을 내서 무참하게 죽여버리겠다고… 미군이 곧 들어온다는걸 그 사람도 알고있을테니까!—》

《그래두 만약에…》 하고 상고머리는 미심쩍어했다.

《임성욱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고있어. 피를 싫어한다는 그 사람의 뇌까림은 사실그대로야. 그렇지만 만약경우를 생각하는 자네의 말도 옳아!》

술기운이 오른 홍태국은 상고머리청년을 넌지시 바라보면서 말을 덧

붙였다.
《이제부터 자네는 일체 다른 일은 하지 말고 임목사네 집을 감시하게. 그의 일거일동을 살피면서 어디로 가든지 뒤를 따라가보게!》
《알겠시다.》
불안한 마음이 얼마간 진정된듯 상고머리는 칼을 품속에 쑥 밀어넣고 안도의 한숨을 토막토막 내쉬였다. 그리고는 술생각이 나는 모양 흘끔 술상쪽을 바라보았다.
《재필이, 술은 이제 머지않아 실컷 마시게 될거네. 이따위 초라한 술상이 아니라 푸짐하게 소를 잡아놓고 밤을 새우며 맘껏 마셔야지. 어서 나가보라구!》 하고 홍태국은 히죽이 웃으며 눈을 슴벅거렸다.
상고머리는 잠시 술상앞에 서서 손가락을 뚝뚝 울리고있다가 홱 돌아서더니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캄캄한 밖에서는 바람이 터진듯 전선줄이 윙윙 울고 지붕우의 이영이 버석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라초연기가 자욱한 방안에는 또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디선지 붕붕 불안하게 문풍지가 울었다.
홍태국은 바싹 마른 입술을 혀로 추기고나서 불안속에 침묵하고있는 사람들에게 독기어린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내가 당신들이 행동할바를 알려주겠소!》

14

이해의 첫서리가 하얗게 내린 도인민위원회청사 앞거리로 각종 소개물자들을 가득 실은 화물차들과 우마차들이 꼬리를 물고 련속 지나가고있었다. 부르릉거리는 자동차들의 엔징소리, 말들의 투레질소리,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한데 어울려 그침없이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자동차들은 늦가을 아침의 차거운 대기속으로 배기가스를 내뿜으며 우마차대렬을 앞질러 북쪽으로 천천히 움직이고있었다.
사람들은 짐실은 우마차대렬에 바싹 붙어 떠들썩 혼잡을 이루면서 지나갔다. 신작로에는 바리케트를 높이 쌓고 한가운데만 수송기재들과 사람들이 다닐수 있게 통로를 내놓았다. 거리주변의 집들과 공

공건물벽에는 인쇄하였거나 손으로 쓴 구호들이 곳곳에 나붙어있었다. 그 구호들은 《미제에게 죽음을!》, 《우리들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적들에게 한알의 쌀, 한방울의 물도 주지 말라!》, 《조국의 촌토를 피로써 사수하자!》라고 호소하고있었다.

도인민위원회청사의 정문으로는 숱한 군인들과 사민들이 총총히 들어오기도 하고 나서기도 했다. 계단밑의 뜨락에 발동을 걸어놓은채로 대기하고있던 몇대의 자동차들은 무장한 자위대원들을 싣고 후퇴해들어오는 대렬을 맞받아 남쪽으로 급히 달려나가기도 하였다.

옹진, 벽성지구에서 어제 깊은 밤에 돌아온 룡진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넓다란 자기 사무실에 앉아있었다. 그는 어제 옹진, 벽성지구에서 돌아오는 그길로 도당위원회에 자기가 그곳에서 수행한 사업정형을 상세하게 보고했다. 그다음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 온밤 세개의 전화기를 앞에 놓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황들을 각 군들에 묻고 침착하게 해당한 결론을 주었으며 때로는 즉시 긴급대책을 취하기도 했다.

아침 8시경에 서기가 방으로 들어와 룡진에게 서해안방어사령부관하의 한 보병련대 참모장이 만나러 왔다고 알렸다. 방금 벽성군위원장과의 통화를 끝낸 룡진은 곧 그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서기가 나가자 즉시 방안으로 온몸에서 전투적인 기분이 확 풍기는 날파람있게 생긴 젊은 소좌가 들어왔다. 중키의 소좌는 방문앞에서 정중한 태도로 례를 표한 다음 희한하게 빠른 걸음으로 룡진에게 다가섰다.

룡진은 전투적인 그의 탄탄한 손을 힘있게 잡고 가까이에 걸상을 당겨주었다. 젊은 소좌는 사양하지 않고 거기에 앉았다. 그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군말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없이 간단명료하게 구분대의 명칭과 자신의 직무를 정확히 밝힌 다음 서해안방어사령부로부터 련대가 받은 전투명령에 대해서 말했다.

《도위원장동지, 우리 련대는 차지한 현계선을 래일 밤 0시까지 방어하고 곧 다음계선으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런만큼 현재 시내에 남아있는 일체 기관들과 인원들은 속히 이곳을 떠나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서해안방어사령부관하 아군부대들의 작전적움직임에 대해서 이미부

터 정확히 알고있던 룡진은 소좌에게 말없이 머리를 끄덕여보였다. 벌써 그러한 조치들은 이미 취해졌고 강력히 집행되고있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도인민위원회를 비롯한 시내 기관들의 가족대렬은 오늘 아침까지 전부 떠나기로 결정되여있었고 뒤따라 모든 기관의 일군들도 래일 새벽까지는 도시에서 완전히 철수하도록 조직되여있었다.

《그럼 전 돌아가겠습니다.》

전투적인 젊은 소좌는 탄력있게 걸상에서 일어섰다.

《소좌동무, 우리들이 격전을 벌리는 동무들에게 도울 일은 혹시 없겠소? 요구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하오.》 하고 룡진은 며칠밤을 새운 눈이 뜨끔거리는것을 느끼면서 물었다.

련대참모장인 젊은 소좌는 식량을 방조받았으면 한다고 역시 짤막하게 말했다.

《소좌동무, 벽성군에서 마지막 량곡소개 화물차들이 오늘 낮 1시에 여기 시내를 통과하게 되오. 거기서 필요한 량을 인계받도록 하오. 그 동무들에게는 내가 그렇게 지시했다고 하면 될거요.》

《알겠습니다.》

다시 정중하게 례를 표한 다음 소좌는 들어올 때처럼 희한하게 빠른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가 문밖으로 나서기도 전에 기다리고나 있은듯이 책상우의 전화종이 요란하게 울렸다. 룡진은 송수화기를 들었다.

《리룡진입니다. 구월산? 부부장동무요?… 말하오. 뭐요? 그건 안되오. 그때는 벌써 늦소. 무조건 오늘중으로 린접군 소비조합상점들의 일체물품을 접수하시오. 여보, 부부장동무, 언제 수송기재만 기다리고있겠소. 인원들을 총동원하여 등짐으로라도 지고 산성으로 올려다놓으시오! 정미소들은 다 꾸려놓았소? 그건 잘했소. … 그다음 환자들을 치료할 병원은?…》

방안으로 문건들을 안고 키가 껑충한 도인민위원회 농림부장이 조심히 들어서자 송수화기를 든 룡진은 시선으로 걸상쪽을 가리켜보이면서 전화를 계속하였다.

《부부장동무, 모든 면에서 빈틈이 없는가를 따져보고 또 따져보시오. 서둘러야 하오. 시간이 없소. 명심해서 들으시오. 동무는 매사에

단호하게, 견결하게 행동해야 하오.》
구월산에서 걸려온 전화를 끝낸 룡진은 힘이 느껴지게 송수화기를 놓고는 곧 농림부장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키가 껑충하고 강기있어보이는 농림부장은 웬일인지 그때까지 걸상에 앉지 않고 초조한 기색으로 꼿꼿이 서있었다.
《앉소.》
룡진은 얼마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흰 당목천을 씌운 맞은켠의 걸상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농림부장은 별스럽게 송구스러워하며 가까이로 걸어왔다.
《위원장동지, 방금전에 부서사업을 결속하였습니다.》
《수고했소. 여기서 해야 할 사업을 전반적으로 완결하고 떠날 준비가 끝났으면 돌아가 좀 쉬시오. 도인민위원회 직원들의 마지막후퇴대렬은 래일 새벽에 동무가 책임지고 떠나게 되오.》
룡진은 수면부족으로 얼굴이 부석부석한 농림부장의 눈에 까닭모를 불안과 초조감이 떠도는것을 피뜩 스쳐보면서 여전히 잘 울리는 목소리로 부드럽게 말했다.
《위원장동지, 그런데 한가지만은 채 마무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신천군에서 가을밀보리파종실적이 올라오지 않아 아직까지 도전반적인 집계를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일을 완강하게 내밀지 못한 결과입니다.》
《뭐요?!…》
갑자기 룡진의 부드럽던 얼굴표정은 엄해졌다. 문득 룡진은 그제야 비로소 항상 침착하고 깐깐한 농림부장이 무엇때문에 걸상에 앉지도 못하고 불안해하며 초조하게 서있었는가를 깨달았다. 그렇다, 가을밀보리파종문제는 장군님께서 특별한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도에 주신 중요과업들중의 하나인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무엇때문에 지금까지 신천군에 강하게 요구하지 못했소?》 하고 룡진은 낮으나 엄격한 목소리로 추궁했다.
《여러번 독촉전화를 하고 농산과 지도원동무까지 띄워보냈는데 현재까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룡진의 손은 벌써 책상우의 송수화기를 틀어잡았다.

《위원장동지, 신천군은 몇시간전부터 웬일인지 전화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하고 농림부장은 그것이 마치도 자기의 잘못이기라도 한것처럼 눈길을 떨구며 공손히 말했다.

바로 그때 무엇때문인지 흥분과 분격을 감추지 못한 서기가 성급히 방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곧바로 방을 가로질러 룡진이가 앉은 책상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굽히고 무엇인지 속삭이는듯 한 낮은 목소리로 보고하였다.

《뭘 간지럽게 소곤거리오. 크게 정확하게 보고하시오!》 하고 룡진이 미간을 좁히며 엄하게 서기를 질책했다. 그러자 서기는 크고 똑똑한 소리로 보고했다.

《도위원장동지, 신천군의 일부 지역에서 잠복해있던 반혁명불순분자들과 반동놈들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통보가 들어왔습니다. 악당놈들은 무분별한 소요를 확대하면서 우리 사업을 혼란케 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고 합니다.》

돌연 선이 뚜렷한 룡진의 검은 눈섭이 곤두서고 분노한 눈에서 섬광같은것이 번쩍했다. 그는 불시에 송수화기를 들었다.

《도내무부를 찾으시오!》

전화가 걸리자 룡진의 격한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울렸다.

《부장동무요? 내 도위원장이요, 어떻게 된거요? 신천군에서 소요를 일으킨 반혁명악당놈들의 책동에 대해서 묻는거요. 좋소, 무자비하게 격파하고 철저히 분쇄소탕하시오. 그러나 반혁명분자들의 협박공갈에 못이겨 어쩔수없이 말려든 사람들에 대해서 신중히 처리하시오!》

밤새껏 끊임없이 소란스럽던 도시는 날이 밝을무렵에 문득 이상하게 조용해졌다. 후퇴하는 대렬이 끊어진 거리에는 믿기 어려울만큼 고요한 정적이 깃들었다. 어둑어둑한 도시의 중심도로들과 골목들에 인민군군인들이 나타나 통신선을 늘이고 반땅크포들을 배치하였다. 높이 쌓은 바리케트 한가운데로 통하던 마지막통로마저 군인들이 막아버렸다.

마지막대렬이 떠나간 도인민위원회의 청사에는 룡진을 비롯한 몇사람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조금전에 사업분공을 최종적으로 끝마

친 다음 짤막하게 인사를 나누고 헤여졌다.
룡진은 자기 사무실에 앉아있었다. 그는 아직 전화로 명령하고 지시를 내리군 하였지만 차차 더 짙게 도시를 내려누르는 적막감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느끼는듯 하였다. 전화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룡진은 이름할수 없는 위구심과 함께 아직도 마지막통신조가 작업하고있으며 일부 지역들에서는 그곳 지역의 상태를 보고까지 해오고있다는 남모르는 기쁨을 안고 활기있게 송수화기를 들군 하였다. 잠잠하던 전화종이 또 울렸다. 룡진이 기쁨을 안고 송수화기를 들자 조급하고 불안에 찬 빠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내의 소개철수는 현재 완전히 끝났습니다. 군소재지거리로 적들의 땅크가 밀려들고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떠납니다. 구월산으로…》 하고 전화선의 다른 한끝에서 벽성군 부위원장이 자기의 긴장한 목소리를 억제하려고 공연히 애쓰면서 보고하였다. 그리고는 룡진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덜커덕 송수화기를 놓는 소리가 들렸다. 룡진은 송수화기를 내려놓고서도 손을 떼지 못하고 한참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들고 귀에 가져다댔다. 붕— 전류흐르는 소리가 신음소리처럼 귀청을 두드렸다. 그는 송수화기를 조심히 전화기에 올려놓고 걸상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동이 트기 전의 거리는 싸늘한 정적속에 잠겨있었다.
(어쩌면 도시가 이렇게까지도 조용할수 있는가!…)
룡진은 창문가에 서서 어둑컴컴한 앞거리를 내다보고있었다. 그의 기분은 무거웠다. 거리는 여전히 이상하리만큼 조용하였다. 룡진의 머리속으로 어제 낮 시내를 돌아본 광경이 불쑥 떠올랐다.… 도내에서 가장 크고 오랜 동물원이 적비행대의 야수적인 폭격에 무참히 파괴되여있었다. 미처 소개하지 못한 동물원의 동물들이 소이탄에 불타죽었고 살아남은 노루와 암사슴 몇마리가 불안에 싸여 이리저리 뛰면서 울부짖는것 같았다. 나이지숙한 관리원이 친지의 죽음앞에서처럼 눈물을 머금고 서있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룡진의 가슴은 쓰리고 아팠다. 미제가 강요한 참혹한 전쟁은 인간들뿐만아니라 조국의 자연과 동물들에게까지도 커다란 재난을 들씌우고있는것이다. 룡진은 살아남은 노루와 사슴들의 소개를 직접 조직해주고 돌아왔었다.…

룡진은 나라와 인민앞에, 공화국정권이 쌓은 위업앞에 치명적인 위험이 닥쳐왔다는것을 똑똑히 알고있었지만 인민공화국정권이 패배하고 종국적으로 미제국주의자들이 승리할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적들의 력량을 절대로 과소평가한때문이 아니였다. 최고사령관이신 강철의 령장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한 우리 국가와 인민군대가 미제를 최종적으로 타승하리라는 그의 신념은 사태를 정확하게 현실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고있었다. 그러나 이제 당장 도시를 떠나지 않으면 안되는 늦은가을의 이 음산한 새벽에 인간으로서의 룡진의 마음은 불안하고 어수선하였다. 물론 지금 룡진은 자기 개인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있었다. 그것은 그가 천성적으로 겁이 없거나 남달리 대담한것때문도 아니고 더우기는 죽음같은것을 완전히 무시한 그런 사람이기때문에 그런것은 아니였다. 도시를 떠나야 할 이 마지막시각에 룡진의 모든 생각은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들과 도내 수많은 인민들의 운명에 쏠리고있었던것이다. 누구나 자기 어깨에 다른 사람들의 운명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걸머지게 될 때면 벌써 자기자신의 운명은 다른 사람들의 운명과 결합되게 되며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곧 자기자신의 생명으로 되는것이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고통도 그자신의것으로 느껴지게 되는것이다. 때문에 룡진은 도내 수많은 인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최후승리의 신심을 안겨주며 가능한것과 불가능한것을 가리지 않고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했는가 하는것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룡진은 지금까지 자기는 부닥친 모든 육체적고통과 정신적고통 그리고 온갖 괴로움을 견결하게 이겨내면서 사람이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왔다고 마음속으로 믿어왔었다. 그런데… 떠나야 할 이 시각까지 신천지구의 가을밀보리파종정형이 장악집계되지 못한채 미결로 남아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다.

(신천지구!— 가을밀보리파종!—) 하는 소리가 그의 머리속에서 똑딱거리는 시계추처럼 련속 진동했다.

(적들이 현재 눈앞에 다가왔는데. … 그러나 그것은 장군님께서 큰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주신 중요한 과업이 아닌가.)

창가에 무겁게 서있는 그의 등뒤로 서기가 조심조심 다가와 이제 떠

날 시간이 됐다고 알렸다. 서기는 미군이 두개 방향에서 동시에 도시변두리로 신속히 접근해오고있다고 조성된 정황을 보고하였다.

《위원장동지, 떠나셔야 하겠습니다.》

창가에서 물러난 룡진은 책상앞으로 무겁게 걸어와 멈춰섰으나 생각에 잠겨 대답이 없었다. 서기는 피곤과 초조감에 싸여 침묵하고있는 룡진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그는 룡진이 지금 자기자신과 론쟁하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서기의 눈앞에는 아직은 단 한번도 본적없는 극도로 긴장하고 괴로움에 시달리는듯 한, 늘 보아오던 강의한 도위원장이 아닌 보통인간이 피끗 나타났던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룡진에게는 가장 엄격한 자기통제의 기능이 작용하였다. 그는 책임적인 위치에 선 그 시기부터 자기는 연약해지거나 피로를 느끼거나 더우기 공포를 느낄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있지 않으며 자기에게는 권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의무가 있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약한 사람들을 제때에 도와주어야 했으며 피로와하는 사람들에게는 즉시 힘을 주고 언제 어디서나 자기 주위 사람들의 심리상태, 정신상태, 준비정도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렇기때문에 룡진은 항상 엄격한 자기통제밑에서 말하고 행동하군 하였다. 지금도 바로 그러하였다. 그는 벌써 본래의 자기로 돌아와 일상생활에서처럼 서두르지 않고 침착한 목소리로 서기에게 물었다.

《운전사동무는 어디 있소?》

《도내무부동무들과 함께 뜨락에서 대기하고있습니다.》

《도내무부동무들이라니?… 그들이 왜 아직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와있소?》 하고 룡진이 의아해서 물었다.

《마지막처리를 하고 떠나는 몇동무들이 아마 위원장동지의 신변때문에 함께 떠나가기로 조직한것 같습니다. 무장한 소방대동무들도 차를 타고와서 대기하고있습니다.》

《경호동무, 그걸 왜 이제야 보고하오?》 하고 룡진은 서기를 뚫어지게 응시하며 어성을 높여 질책했다.

《저는 이미 위원장동지가 알고계시는줄로 생각했드랬습니다.》

서기는 약간 머리를 숙이면서, 그러나 똑똑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러는 서기에게서 엄한 눈길을 떼지 않고 룡진이 즉시 지시했다.

《경호동무, 빨리 먼저 내려가서 그들을 속히 떠나보내시오. 우리는 신천지구에 들려서 가야 하오.》

《네?!…》

서기의 얼굴에 놀램과 의혹이 일시에 떠올랐다. 적들이 코앞에까지 밀려드는 지금에 신천지구로 간다는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그것은 돌이킬수 없는 불행을 가져올지 모르는 천만번 위험한 모험이다.

《위원장동지! 그건 안됩니다. 지금 그쪽으로도 적들이 침입하고있는데… 위험합니다.》 하고 서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웨치다싶이 당돌하게 말했다.

그러나 룡진은 조금도 동요함없이 자기의 엄격한 시선을 서기에게로 모으면서 명령조로 확고하게 말했다.

《지시를 집행하오.》

서기는 도위원장이 위험속으로 뛰여들려는것을 막아야 할 자신의 의무를 강렬하게 느끼면서 뭐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룡진의 확고부동하고 견결한 시선앞에서 불시에 입을 다물고 어쩔수없이 밖으로 급히 나갔다.

룡진은 서기가 지시를 집행하려고 방을 나가자 가까이의 걸상에 앉았다. 쌓이고 겹친 육체적피곤과 정신적피로를 풀기 위해 단 몇분간이라도 눈을 감고 편안히 앉아 쉬고싶었던것이다.

(이제는 지체하지 말고 곧 신천지구로 떠나야 한다.) 하고 룡진은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눈을 번쩍 뜨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시계바늘은 10분전 5시를 가리키고있었다.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시작된 후부터 흔히 이 시간에는 먼곳의 군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시외전화가 쉴새없이 걸려오고 뒤따라 분주하게 사람들이 방으로 찾아들어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류달리 고요하였고 전화종소리도 울리지 않았으며 커다란 방안에는 룡진이 혼자 앉아있었다. 그리고 비스듬히 열어놓은 창문사이로는 마가을새벽의 습하고 차거운 바람이 새여들어오고있었다. …

별안간 방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는 소리를 듣고 머리를 돌린 룡진은 문턱에 흥분한 표정으로 서기가 나타나자 곧 떠나자는 뜻으로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서기는 크게 두세걸음 건너뛰듯 룡진의 앞으로 걸어나와 류달리 신중한 목소리로 보고하였다.

《위원장동지, 최고사령부에서 전권대표동지가 도착하였습니다.》
《?!…》
룡진은 결상에서 일어섰다. 활짝 열린 방문으로 장령복을 입은 나이지숙한 사람이 침착하고 무게있는 걸음으로 들어서고있었다. 그를 향해 룡진이 마주 걸어나갔다.
《최고사령부 전권대표입니다.》 하고 나이지숙해보이는 장령은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어조로 말하였다.
《도위원장 리룡진입니다.》
《도위원장동무,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께서는 이곳 도내의 전반적인 후퇴정형과 서부지구에 있는 인민군부대들의 이동정형을 료해하시기 위해 저를 파견하시였습니다.》
룡진은 정중한 자세로 전권대표의 말을 듣고나서 그에게 물었다.
《장군님께서는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하십니다. 도위원장동무,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저를 이곳 계선으로 파견하시면서 신천, 재령, 안악지구 가을밀보리밭들의 관개수문제를 두고 심려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도위원장 리룡진동무가 관개수때문에 늘쌍 속을 태우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재진격하여 돌아오면 곧 그 관개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이지숙한 장령은 이어 무게있는 웅근 목소리로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중앙의 해당부문 책임일군에게 재진격하여 돌아오는 즉시 그 관개공사를 착수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잘해두라는 과업을 직접 주시였다고 전달하였다.
(장군님!—) 하고 룡진은 마음속으로 뜨겁게 불렀다.
그 순간에 룡진은 무겁게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있던 중량물이 벗겨지면서 불현듯 힘이 용솟음쳐오르는것을 감촉하였다. 룡진이 그토록 새힘이 솟구쳐오름을 느낀것은 장군님께서 건강하시며 이전과 마찬가지로 당과 조국은 건재할뿐만아니라 가슴아픈 시련을 겪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공화국제도는 가증스런 미제침략자들과 여전히 드팀없는 신심을 가지고 맞서고있으며 우리 조선인민의 신심과 신념을 꺾고 굴복시킬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기

때문이였다.

룡진은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격정과 흥분을 지그시 누르면서 최고사령부 전권대표에게 도내 인민정권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의 후퇴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한 다음 자기는 이제 신천지구로 떠날 결심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고사령부에서 파견한 전권대표는 룡진이 앞으로 행동할 계획에 공감을 표시하지 않았다.

《도위원장동무!…》 하고 최고사령부 전권대표인 장령은 무게있게 천천히 방안을 거닐면서 심중한 표정으로 말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도위원장동무의 신변문제를 우려하시면서 저에게 룡진동무가 속히 평양으로 들어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런만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을 모험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지만 룡진이 역시 장령의 말에 쉽게 수긍할수 없었다. 그는 완강하게, 열렬히 자기의 립장을 주장했다.…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완전무결하게, 철저히 수행하지 못한 도위원장으로 도를 떠날수 없다. 더우기 조국과 민족, 인민의 운명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침식을 잊으시며 분망한 나날을 보내시는 장군님께서 우리 도내의 관개공사문제까지 심려하고계시는 지금 결속하지 못한 과업을 남겨놓고 떠난다는 것은 혁명전사의 량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신천지구를 직접 돌아보지 않고는 그 어디에 가든지 마음이 편안치 못할것이다. 심정을 리해하여주기 바란다… 이러한 룡진의 열정적인 호소를 최고사령부 전권대표는 마음속으로 깊이 리해하고있었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철저한 군사일군이였다. 오랜 군인인 장령은 정확하게 이곳 계선의 정세를 군사적범주에서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분석판단하였다. 때문에 전권대표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현정세와 정황을 군사적견지에서 분석하면서 룡진에게 신천지구로 떠나갈 계획을 이제라도 철회하고 즉시 평양을 향해 출발할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룡진은 이미 가슴속에 확고해진 자기의 결심을 굽히려고 하지 않았다.

《전권대표동무, 신천지구에서 정황이 급변하는 경우에 그곳에서 곧바로 구월산인민유격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때에는 저의 행동에 대해 현지에서 최고사령부에 즉시 통신으로 보고할것입니다.》

창문이 푸름해지기 시작하였다. 려명은 슬그머니, 그러나 완강한 힘

으로 차츰 방안을 차지하기 시작하였다. 날이 밝아오고있었던것이다. 몇순간 그들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웅글은 적포탄 터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창문들이 몸부림치듯 드르릉거렸다. 뒤따라 도시남쪽교외에서 드센 아군의 포성이 울리고 기관총이 뚜루룩거리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15

시내를 벗어난 룡진의 승용차는 최고사령부의 작전적방침에 따라 황주, 중화계선으로 이동하는 군용화물차, 포차, 군인대렬로 꽉 메인 북쪽교외의 도로로 나섰다. 승용차는 장애를 피하여 자주 길섶으로 붙으면서 달리다가 마침내 재령군소재지에서 신천군소재지로 꺾어드는 굽인돌이에 이르렀다. 거기는 조용하였다. 이따금 짐실은 마차들과 북으로 들어가는 달구지들이 마주오고있었다.

승용차안에 운전사와 나란히 앉아있던 서기는 재빨리 뒤좌석의 룡진을 피뜩 돌아보았다. 이제 여기서 차를 오른쪽으로 꺾으면 재령군소재지의 중심거리를 지나 사리원을 통과하여 두시간도 안되는 사이에 평양으로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반대방향인 왼쪽으로 꺾어 서남쪽으로 곧추 뻗어나간 큰길로 달리면 적들이 가까이로 침습하고있는 신천군소재지에 이르게 된다.

룡진은 얼핏 스치는 당돌한 서기의 눈빛에서 《차를 북쪽방향으로 돌리시오!》 하는 지시를 바라고있음을 감촉하였다. 물론 서기는 자기 개인의 한목숨이 두려워 공포에 벌벌 떨 그런 비겁하고 시시한 청년이 아니다. 서기는 이 시각까지도 어떤 위험이 닥쳐들지 모르는 곳으로 룡진이 찾아가는것을 내심 우려하고 불안스러워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룡진은 계속 침묵하고있었다. 승용차가 예정대로 신천군소재지쪽으로 방향을 꺾자 그는 의자등받이에 깊숙이 기댔던 몸을 일으키고 허리를 쭉 폈다. 그리고는 묵직한 머리를 번쩍 들고 운전사와 서기를 향해 말을 던졌다.

《최대속도를 놓소!》

《알겠습니다.》

승용차는 눈보라처럼 뽀얗게 일어나는 먼지기둥을 꽁무니에 달고 최속으로 달리기 시작하더니 20분후에는 벌써 신천군소재지에 들어섰다. 차는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곧바로 군인민위원회 앞마당까지 내달아 현관가까이에 바싹 다가서서 멎었다.

승용차에서 내려선 룡진은 서둘지 않고 침착하고 확고한 걸음으로 텅 빈 길다란 복도를 지나 낯익은 군위원장방 문을 열었다.

방안에는 떠날 준비를 갖춘 군위원장과 낯모를 두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전화기앞에 앉아 송수화기를 으스러지게 틀어잡고 누군가를 찾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던 군위원장은 문열리는 기척에 사납게 머리를 홱— 돌렸다. 그 순간 빠르게 도위원장을 알아본 그는 천만뜻밖인듯 놀랐다. 그다음 송수화기를 집어던지고 걸상에서 벌떡 일어섰다.

《아니, 도위원장동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뭘 그렇게 놀라오. 앉소, 군위원장동무!》

방안으로 들어선 룡진은 군위원장에게서 신천군내의 후퇴정형과 소개사업정형을 다시금 상세히 료해한 다음 가을밀보리 파종실적에 대해서 추궁조로 따지고 캐물었다. 군위원장은 가을밀보리파종이 가장 뒤떨어진 북부면에서 오늘 현재까지 아무러한 통계나 소식도 전혀 알려오지 않아서 종시 군전반적인 실적을 장악결속하지 못하였다고 솔직히 그대로 보고하였다. 부풀은 그의 입술모서리에는 비통한 주름살이 잡히고 두눈은 내려떴는데 눈시울이 푸른빛을 띠고 시꺼멓게 보였다. 그 역시 북부면의 가을밀보리파종실적때문에 아직 군을 떠나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도위원장동지, 북부면위원장 허명서동무는 전략적후퇴가 시작되자 삽시에 기가 죽어 사업을 포기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을밀보리파종문제도 그렇고 천봉리에 있는 목화창고도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한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그곳으로도 적들이 가까이 다가왔는데…》 하고 군위원장은 분노하여 어깨를 떨면서 말했다.

《천봉리? 거기는 남부면이 아니요?》

룡진이 검은 눈섭을 치켜뜨며 격분한 군위원장에게 물었다.

《옳습니다. 그런데 지대적으로 북부면은 모두 허허벌판이기때문에 전쟁이 일어난 즉시 식량들과 목화창고의 일부를 산간지대인 천봉리에 옮겨놓았드랬습니다. 그것때문에 방금 북부면에 전화를 걸던중인데…전화를 통 받지 않는것으로 보아 면인민위원회가 빈것 같습니다.》

《좋소, 동무들은 빨리 떠나시오. 내가 직접 북부면으로 나가보겠소. …》

룡진은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가 단념하고 돌아서 방문앞으로 걸어갔다.

《도위원장동지, 위험합니다. 거기는…》

군위원장은 펄쩍 놀라서 황급히 룡진을 막아나서며 다시 웨쳤다.

《위험합니다.》

《여보, 군위원장동무, 놀래우지 마오!》 하고 룡진은 코웃음쳤다.

《위험하다는것은 나도 모르는바 아니요. 그러나 미국놈들이 눈앞까지 달려들고있는 준엄한 시각에 그처럼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말공부만 하고있겠소? 다시한번 말하지만 동무들은 지체하지 말고 떠나시오!》

앞뜨락으로 걸어나온 룡진은 대기하고있는 차를 타고 북부면으로 나갔다. 군위원장의 말대로 조용한, 죽어버린듯 한 면인민위원회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얼마후에 룡진의 서기가 집에서 가족들과 떠날 준비를 하고있던 면위원장을 불러왔다.

면위원장 허명서는 룡진을 보자 미소를 지으려고 하였으나 얼굴이 병적으로 이그러지면서 그 미소는 그 어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되여버렸다. 그는 차츰 가까와오는 포성과 총소리에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룡진이 그에게 천봉리의 목화창고는 어떻게 처리하였는가고 묻자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슥하여 분명치 않는 소리로 누군가에게 과업을 주었는데 어디론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고 중언부언했다.

룡진은 치밀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누르고 이번에는 그에게 면내 가을밀보리파종실적에 대해서 캐물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요?… 밀보리파종실적이라니요?…》 하고 면위원장 허명서는 천만뜻밖이라는듯 한 표정을 지었다.

《동무, 그럼 그동안에 아무러한 조직사업도 장악도 못하고있었

단 말이요?》 하고 룡진은 분개했다.

면위원장 허명서는 미처 거기까지는 관심을 돌리지 못하였고 이것저것 후퇴와 관련한 당면사업에 뛰여다녔다고 허둥지둥하면서 장황하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룡진은 말로나 손짓으로 그의 장황하고 지루한 변명을 중도에서 꺾어버리지 않고 마치도 새삼스럽게 연구나 하듯이 면위원장 허명서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저 사람이 겁을 내고 당황망조하여 도무지 어쩔바를 모르며 공포에 질린것은 이미 우리 조국과 공화국정권은 패배하였다는 뜻이고 우리 공화국의 종국적인 승리를 믿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바로 저 사람은 자기 조국에 대한 믿음이 없고 신념이 없는 사람이다.)

룡진의 얼굴표정은 점점 달라지면서 짝 틀어쥔 두주먹의 피줄이 더욱더 뚜렷하게 살아났다. 긴장하고 분격한 그의 얼굴에서 일순간 그 무엇인가 꿈틀하더니 커다랗고 시커먼 두눈이 번쩍거렸다. 뒤따라 짝 다문 입귀가 부들부들 떨렸다. 그는 참을수 없는 분노와 경악이 뒤섞인 표정으로 면위원장 허명서를 응시했다.

《그래, 동무가 정말…》

룡진은 침착하게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것을 절감했다. 어떤 정황하에서도 아주 침착하고 능숙하게 행동할줄 아는 그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도저히 침착할수 없었다.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앞에서 어떻게 동무가 그렇게 행동할수 있소? 어쩌면… 동무는 로동당원이 아니요?》

그 어떤 구실이나 변명을 추호도 허용치 않을것 같은 엄격하고 딱딱한 룡진의 얼굴에 언뜻 전률이 스쳐지나갔다. 그러자 창백해진 그의 얼굴에 무엇인가 모질고 위압적인것이 나타났으며 그의 숱진 눈섭은 더 시꺼매진것 같았다.

《동무는… 동무는 면위원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요!》

룡진은 단호한 목소리로 그 자리에서 그에게 철직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그는 단 한번도 자기의 권한으로 하부일군들을 즉석에서 철직시킨적은 없었다. 그만큼 룡진은 도내의 정권기관들에서 사업하는 하부일군들에 대한 평가에서 신중하였고 심사숙고했다. 그러나 이번

만은 사정이 달랐다. 회복할 시간적여유가 없었으며 공포에 질려 적들을 돕는 행동을 한 일군에 대해 참을수 없었다. 더우기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줴버린 그를 조금도 용서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단호하게 즉석에서 철직을 선언한 룡진은 좀전까지 면위원장이였던 허명서에게는 눈길을 돌리지도 않고 분격에 찬 말투로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도 한목숨이 두렵거든 어디로든지 어서 빨리 떠나가보시오!… 동무는 승리의 신심을 잃고 허겁지겁하면서 가장 귀중한 과업마저 수행하지 않았소. 그러나 어디로 떠나가든지 똑똑히 알아두시오. 우리 조국과 공화국정권은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런 시시하고 나약한 정권이 아니요!》

허명서는 책상우에 올려놓았던 팔을 슬며시 내리웠다. 그의 팔은 채찍처럼 힘없이 축 늘어졌다. 그리고는 말 한마디없이 이제 또다시 받아야 할 그 어떤 타격을 기다리듯 머리를 떨구었으며 수치와 모욕감으로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허명서의 두팔은 넝쿨처럼 맥없이 드리워있었다.

(적들이 가까이로 다가오고있는 때에 자기들의 땅에다가 밀보리씨앗을 파종하고 떠나는것은 바로 공화국정권의 힘에 대한 신심의 표현이다. 그 신심을 다름아닌 면내 모든 사람들이 강렬히 느끼게 할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슨 과오를 저질렀는가! 목화창고도 그대로 놔둔채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 이 사람은 신심을 잃고 우리 공화국이 이제는 완전히 끝장난것으로 절망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면서 룡진은 괴로운듯 걸상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그런데 대체 어쩌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되였는가?)

룡진은 괴롭고 아픈 마음으로 생각을 계속하였다. 이전에 그는 면위원장 허명서를 민첩하고 패기가 있고 자기 주견이 서있으며 바른 말을 할줄 아는 일군으로 알고있었다. 물론 결함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였지만 성과를 과장하지도 않고 공명심에 사로잡히는 일도 없이 그만하면 자기가 담당한 면을 괜찮게 지도한다고 생각했었다. 한마디로 룡진은 그를 성실하고 총기있고 재빠른 일군으로 간주하고있었다. 용감성과 투지에 대해 말하더라도 그는 보통사람으로서 남보다 특별히 두드러질것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남에게 떨어질것도 없는 사람이였다.

총알처럼 빠른 말씨, 상고머리, 몸을 꼿꼿이 펴고 팔을 넓게 휘저으며 걸어가는 단단한 체구의 면위원장 허명서— 룡진의 뇌리에 남아있는 그의 모습은 이러했다.

(그런데 지금은?… 저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였는가?… 내가 이전에 잘못 보았던가?…) 룡진은 서글픈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그에게 신념이 없다는것이 드러났다. 신념이 없다는 여기에 근본문제가 있다. 인간을 지탱해주고 그로 하여금 그 어떤 시련도 두려움없이 마주볼수 있게 하여주는 그 주축이 없다. 그는 오늘까지 신념이 있는체 하면서 자기자신까지 속이며 살아온 사람이다. 사실 사람이란 남만 속이는것이 아니라 자기자신도 속일수 있는것이다.

(한데 이 사람은 그런줄을 지금 느끼고나 있는지. …)

가슴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워 룡진은 밖으로 나가려고 걸상에서 일어섰다. 그제서야 허명서는 머리를 들고 허청거리며 따라일어났다. 그는 룡진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듯 입을 힘없이 한두번 움직이였으나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가 룡진에게로 당황한 눈길을 돌리고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혀아래소리로 물었다.

《도위원장동지, 저… 저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랍니까?》

룡진은 말없이 초점을 잃고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염치는 허명서의 눈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여보, 허명서동무. 옛날시대의 사람들도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나라밥을 먹은 사람은 외적을 물리치는 나라일에 죽어야 한다.〉 고 하였소. 그런데 항차 인민정권일군이였던 로동당원이 그걸 나에게 묻소?… 동무는 조국앞에 저지른 죄를 목숨으로 속죄해야 하오!)

룡진은 마음속에 떠오른 이 준엄한 말을 입밖으로 소리내여 말하지는 않았다. 때로는 생활에서 말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는것이다.

《동무가 떠나가고싶은 곳으로 가시오.》 하고 룡진은 바라던것보다 더 조용히, 랭랭하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쿵— 쿵… 가까와오는 포소리를 들으며 행길건너 논벌쪽의 석당리인민위원회로 걸어갔다. 아직도 분격을 채 누르지 못한 룡진의 뒤를 서기가 조심히 따라갔다. 마침 석당리인민위원회쪽에서 몹시 지치고 피곤에 몰린듯 한 서기장이 행길로 나오고있었다.

《석당리 서기장동무 아니요?》 하고 룡진이 그에게로 성큼성큼 큰 걸음으로 마주걸어가며 물었다.

주춤거리며 멈춰선 구부정한 리서기장의 피곤이 쌓인 눈에 놀라움과 의혹의 짙은 그림자가 얼핏 지나갔다. 그러나 몇순간이 지나자 서기장은 자기앞으로 다가오고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똑똑히 알아차린듯 어깨를 곧추 펴고 전혀 그답지 않게 웨치듯이 큰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도위원장동지.》

《서기장동무, 동무네 리위원장은 지금 사무실에 있소?》

《아닙니다. 아침부터 당재언덕쪽의 밭에 나가있습니다!》

《밭에라니?》 하고 룡진이 의아하게 여기면서 되뇌였다.

리서기장은 리내농가의 밭들에 가을밀보리씨앗파종을 마지막으로 결속하기 위해서 리위원장이 로력부족을 느끼고있는 집들의 파종을 돕고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도 지금 거기로 나가던 길이라고 말했다.

《좋소,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오.》

룡진은 돌아서서 서기장의 뒤를 따라 뽕나무들이 듬성듬성 서있는 당재언덕쪽으로 올라갔다. 검붉은 땅이 밋밋하게 둔덕을 따라 멀리까지 뻗어나간 밀밭에서는 리위원장 조영모내외가 농민 몇사람과 함께 파종을 하고있었다. 조영모내외가 밭이랑에 거름을 뿌리고 복토를 하면서 걸차게 앞서나가면 그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알이 고른 밀종자를 훌훌 뿌리고 그우에 흙을 덮었다. 웃동을 훌쩍 벗어제낀 조영모의 온몸에서는 뜨거운 김이 확확 내뿜고 복사뼈까지 차오르는 푸실푸실한 밭이랑을 타고나가는 그의 발걸음은 지친듯 비칭거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줄기차게 일손을 놀리면서 앞으로 나가고있었다.

밭머리에 서서 뜨거운 눈길로 조영모를 바라보고있던 룡진은 공통된 지향과 리상 그리고 사업이 맺아준 뜨거운 우애의 정과 련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조영모동무!－》

《도위원장동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때에 여기까지 오실줄은…》

조영모는 훌쩍 밭이랑을 건너뛰며 성급히 걸어왔다. 가까이에 다가

선 그의 몸에서는 한낮의 해빛냄새, 풀향기, 구수하면서도 담담한 흙냄새가 엇섞여 강하게 풍겼다. 룡진은 적들이 다가오는 이 준엄한 정황에서도 꿋꿋하게 신념을 간직하고 과업을 끝낸 조영모를 와락 끌어안고싶은 심정을 겨우 억제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기도 모르게 여느때 생활에서 보통 쓰지 않던 최고의 찬사를 주저없이 표했다.

《감사하오!》

끓어오르는 기쁨을 금할수 없어 룡진은 다시한번 반복했다.

《훌륭하오. 동무와 같은 일군과는 평생을 함께 일하고싶소.》

감동한 룡진의 이러한 찬사를 듣고 조영모는 어색해하였다.

《도위원장동지, 너무 그러지 마시우. 장군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과업인데… 어떻게 씨앗두 묻지 않고 훌러덩 떠나겠시까!… 우리가 맡은 리내뿐만아니라 면내의 미진된 가을밀보리씨앗파종도 방금까지 전부 결속했습니다!》

《그렇소?… 그러니까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북부면적으로 완료되였단 말이지!…》 하고 룡진은 솟구쳐오르는 기쁨으로 웨치듯이 말했다.

《영모동무, 정말 감사하오!—》

룡진은 자기 리내뿐아니라 면내의 밀보리씨앗파종까지 책임적으로 끝낸 리위원장 조영모에게 또다시 감동적으로 찬사를 표했다. 그러자 조영모는 몹시 어색해하면서 무뚝뚝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도위원장동지, 응당한 일을 했는데 뭘 그러시우…》

룡진은 소리내여 껄껄 웃었다. 실로 리위원장 조영모의 성격은 특이한것이였다. 그는 어느때든지 더 큰 의의를 부여하는 말일수록 무뚝뚝하게 말하군 하였는데 얼핏 모르고 들으면 성을 내는것처럼 들을수도 있었다.

《영모동무, 발머리로 좀 나가지 않겠소? 동무에게 긴급히 맡길 과업이 있소.》

발머리의 황이 든 풀밭으로 걸어나온 룡진은 조영모에게 이제부터 북부면의 사업을 맡아보아야겠다고 말했다.

《영모동무, 지금 이 시각부터 동무는 면위원장임무를 맡아수행해야 하겠소. 물론 시간이 촉박하니만큼 이곳에 오래 지체할 필요는

없을거요. 그러나 면내에서 긴급히 처리할것들은 처리하고 곧 구월산으로 떠나오.》

풀밭에 주저앉아 담배를 말던 조영모는 펄쩍 놀라며 손을 내저었다.

《어떻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제힘에 부치는… 헛참, 제가 면위원장사업을 어떻게 감당해낸다고 그러십니까!》

《해야 하오. 난 뭐 도위원장사업이 힘겹지 않은줄 아오? 지금 그런 말을 하고있을 때가 아니요. 곧 사업에 착수하오!》

룡진은 고집을 쓰는 그를 엄하게 눌러놓고 풀밭에서 일어섰다. 그때 철직된 전 면위원장 허명서가 밭머리의 룡진에게로 소리없이 다가왔다. 침울하고 의기소침하며 얼빠진듯 하던 그의 내면에서 무엇인지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것을 룡진은 대뜸 보았다기보다 정확히 느꼈다. 앞으로 어찌할바를 모르고 혼란에 빠져 허둥거리던 그는 얼마간 자기를 수습한것 같았다.

《도위원장동지!》

룡진을 정면으로 마주 쳐다보는 허명서의 시선은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았으며 초점이 집중되여있었다.

《왜 아직도 떠나지 않았소?》

룡진의 말에서는 분격이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랭랭하였다.

《도위원장동지, 저에게 어떤 과업이든지 맡겨주십시오. 조국앞에, 공화국정권앞에 제가 진 죄를 목숨으로 씻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말로는 다 할수 없는 극도의 고뇌와 번민으로 이그러져있었으며 목소리는 비장하게 울려나왔다. 그러나 그는 일상때처럼 탄탄한 어깨를 곧추 펴고 무엇인가 심각한 결심과 각오를 품은 자세로 룡진의 앞에 서있었다.

몇초동안 룡진은 말없이 서서 생각했다.

(마지막순간까지 일군들에게 임무수행을 요구하고 값있는 위훈을 바랄수는 있으나 그들한테서 무의미한 희생이나 죽음을 요구할수는 없다. 그렇지만 때로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피로 씻어야 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는가!)

룡진은 번쩍이는 자기의 시선속에 그를 끌어넣으면서 그에게로 다가갔다.

《목화창고가 있는 천봉리로 가오. 거기에는 현재 적들이 침입했을수도 있소. 하지만 절대로 적들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어서는 안되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라도 불태워버리시오!》 하고 룡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도위원장동지, 알겠습니다!》

허명서의 말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짤막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더욱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겨남을 느끼는것 같았다.

《도위원장동지, 가족들과 작별하고 떠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오.》

《고맙습니다, 도위원장동지!》

그는 누렇게 황이 든 풀밭을 마구 가로지르고 밭고랑과 논벌쪽으로 흘러가는 수로를 뛰여건느면서 성급히 마을쪽으로 걸어갔다.

면내의 마지막처리를 조영모에게 다시 강조하고나서 룡진은 밀밭을 떠났다. 이제는 여기 북부면에서 그가 할일은 없었다. 하지만 적들이 침습했을수 있는 천봉리로 떠나갈 허명서와 그의 가족들에 대한 생각으로 룡진의 마음은 무겁고 답답하였다. 그는 행길가의 승용차앞으로 다가갔으나 종시 차에 오르지 못했다. 적들이 밀려드는 불안한 때에 남편과 작별하고 당황하여 어찌할바를 몰라하는 그의 안해와 나어린 아이들의 불안에 싸인 가긍한 모습이 가슴속으로 파고들어 룡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것이다. 그리하여 룡진은 끝내 다시 마을로 들어갔다. 면인민위원회앞을 지나 골목길에 들어선 그는 허명서의 집 대문가에 단정한 옷차림의 낮모를 녀인과 올망졸망한 아이들 다섯이 불안과 당황에 휩싸인채 서성거리며 서있는것을 띠여보았다. 그중에서 제일 어려보이는 막내인듯 한 사내애가 녀인의 치마자락을 꿍쳐잡고 애타게 칭얼대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아버지는 왜 혼자 가나? 난 아버지따라 갈래, 엄마!…》

대문가에 불안한 기색으로 서있던 녀인은 다가오는 룡진을 보더니 서둘러 마주 걸어왔다.

《도위원장동지!》

단정한 그 녀인의 얼굴은 참기 어려운 슬픔에 잠겨있었으나 수심에 찬 그의 목소리는 힘찼다. 룡진은 즉시에 그가 철직된 허명서의 안해

라는것을 깨달았다.

《아주머니!》

《저의 남편은 방금 천봉리로 떠나갔어요. 도위원장동지, 저도 천봉리로 같이 가서 그를 도울수는 없을가요? 저는 당원입니다.》

룡진은 긴장하게 울리는 녀인의 목소리와 눈길에서 그 녀자가 울음을 터뜨린것보다 더 큰 슬픔과 비통함을 느꼈다. 룡진은 슬픔에 잠긴 녀인에게 무슨 말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말할수가 없었다.

(나도 달리는 할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리해하십시오!)

말없는 룡진의 얼굴표정은 마치도 자기가 다르게는 행동할수 없었다는것을 그 녀인에게 리해시키려는것 같았다. 그는 모자를 벗어들고 아이들과 녀인앞에 서있었다. 이윽고 룡진은 갈린 목소리로 녀인에게 말했다.

《아주머니, 저도 당원으로서 당원인 아주머니에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의 피로 조국앞에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씻는 경우도 있는것입니다!》

이 말을 룡진은 자기를 질책하듯 그답지 않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 녀인은 아무말없이 머리를 깊이 숙였다. 그 녀인도 역시 룡진이가 얼마나 괴로와하고있는가를 심장으로,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던것이다.

《그가 어떻게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까지… 저는 그를 잘 돕지 못한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는것만 같아요.》

슬픔에 잠긴 그 녀인은 괴롭게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룡진에게로 서기가 다가와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나직이 말했다. 그러나 룡진은 서기의 말을 듣지 못한듯 머리를 숙이고 서있는 녀인에게로 다가서며 정중한 어조로 말했다.

《아주머니, 이제는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구월산으로 들어가십시오. 저기 행길가에는 우리가 타고온 승용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먼저 떠나십시오.》

녀인은 깜짝 놀라 숙였던 머리를 번쩍 들고 룡진을 바라보았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은 아무래도 일없지만 도위원장동지는… 그래서는 안됩니다.》 하고 그 녀인은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아주머니, 혼자서 이 애들을 다 이끌고 이제 어디로 떠나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꼭 제 말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야 저도 마음이 편할것 같습니다.》

그때 룡진의 뒤에 초조한 기색으로 서있던 서기는 그 어떤 좋지 않은 일을 예감이라도 하는것처럼 아래턱을 잘게 떨면서 잘 들리는 귀속말로 성급히 말했다.

《위원장동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여기 정황이 매우 긴박하고 위험한데 승용차까지 떠나보내고는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그건 안됩니다. 우리도 이제 당장 떠나야 하겠는데…》

룡진의 두눈이 번쩍 하고 빛났다. 그러나 그는 곧 자제하면서 뜻밖에도 따뜻이, 정겹게 서기의 어깨를 툭 쳤다.

《경호, 우리 어른들이야 아무런들 뭐라나. 애들을 생각해야지… 너무 걱정말라구. 다 잘될거요.》

그러고는 묵직한 몸을 돌려 너인의 치마자락을 움켜쥐고 철없이 떼를 쓰는 나어린 막내아이를 덥석 끌어안았다.

《자 애들아, 어서 큰길로 나가자. 아저씨가 차를 태워주지!…》

룡진은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나 좋아서 껑충껑충 뛰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앞세우고 행길쪽으로 걸어갔다. 그뒤로 서기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따라갔다. …

16

해가 떨어지고 날이 어둡자 한낮동안 쉴새없이 소란스럽게 불어대던 바람은 잤다. 밤은 차고 싸늘한 어둠속에 잠겨있었다. 컴컴한 농가들이 드문드문 널려있는 작은 마을앞을 지나간 행길로 마차, 소달구지, 손수레, 구월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지나갔다. 그러다가 자정가까이 되자 떠들썩하던 소리도 잔자누룩해지고 불빛 한점없는 마을은 어둠속에 녹아붙어버린듯 고요하였다. 마을너머 들판 물웅뎅이쪽으로 날아드는 물오리떼의 꽥꽥 자지러진 소리가 싸늘한 밤의 적막을 더욱 뚜렷하게 했다. 얼마동안 사위는 마술에 걸린 동화속의

성안같은 정적이 서렸다. 한시간쯤 지나 맨끝 행길에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고 담배불이 벙긋거리고 칭얼거리는 애들의 투정질소리며 달래는 아낙네의 증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들은 행길가의 후미진 야산밑에서 멎고 조금후에 거기서 모닥불이 타올랐다. 그러자 뒤떨어져 밤길을 걷던 사람들이 한사람두사람 모여들기 시작했다.

야산밑의 모닥불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 나직나직한 소리로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모닥불저쪽 행길너머에는 컴컴한 농가들과 두두룩한 밭들, 논들이 있고 이쪽의 야산에는 한덩어리로 되여버린듯 한 밤나무들과 소나무들이 빽빽이 죄여든 어둠속에 잠겨서있었다. 캄캄한 허공에서는 서리인지 혹은 안개인지 모를 가느다란 습기가 모닥불언저리에 끊임없이 내려오고있었다.

어둡고 한적한 행길로 불룩한 배낭을 지고 걸어오던 솜저고리를 입은 한사람이 먼길을 걸어온듯 절름거리면서 힘겨웁게 모닥불곁으로 걸어왔다. 그 사람은 퍽그나 지친듯 끙끙 신음소리를 내며 배낭을 진채 모닥불에서 좀 떨어진 잔디밭에 털썩 주저앉았다.

《여보시오, 당신은 어디서 오시우?… 먼길을 온것 같은데…》

푸접이 좋아보이는 밤색고르뎅당고바지를 입은 신수가 멀끔한 사람이 빙그레 웃으며 그에게 물었다.

《서울에서 옵니다.》

그는 노그라지듯 두다리를 쭉 펴고 배낭을 그냥 진채로 비스듬히 앉았다.

《서울이요? 참 번화한 도시에서 살았구려. 나도 몇번인가 거기에 다녀봐서 아는데 웬놈의 집들과 인총이 그렇게도 많겠소. 숱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더구만. …한데 서울에서 무슨 일을 하셨소?》 하고 고르뎅당고바지를 입은 신수가 멀끔한 사람이 푸접좋게 다시 물었다.

《은행에서 일했지요.》

무엇때문인지 서울에서 온다는 사람은 경계하는듯 한 눈길로 모닥불주위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마지못해 대답하였다. 고르뎅당고바지를 입은 사람은 순간 빠르게 그 사람의 불룩한 배낭에 시선을 박았다. 그리고는 까닭모를 웃음을 떠올리며 무엇을 긍정하는지 부정하는지 모르게 텁수룩한 머리를 끄덕끄덕했다.

《아주 괜찮은 직업을 붙잡았었군. 한데 거 배낭을 벗어놓구 좀 편하게 앉아서 쉬구려. 보아하니 어지간히 지친 모양인데…》
《뭐, 일없어요. 배낭이 오히려 잔등을 훈훈하게 덥혀주어 좋은걸요.》 하고 서울에서 후퇴해온다는 사람은 어설프게 웃었다.
《허, 그참 별난 량반이군.》
신수가 멀끔한 고르뎅바지를 입은 사람은 한쪽으로 몸을 기웃하고 새까맣게 때가 오른 손수건을 꺼내여 연기와 재티에 얼룩이 진 얼굴을 씻으며 혼자소리로 중얼댔다. 그리고는 아까부터 류달리 큼직한 배낭을 바싹 옆에 끼고앉은 중절모 쓴 사람에게 넌지시 물었다.
《여보슈, 거기서도 은행에서 일보셨수?… 차림이랑 배낭을 봐서는…》
《아니요.》
중절모 쓴 사람은 내내 무슨 생각에 옴해있다가 짤막하게 응대하고는 하던 생각을 계속하는것 같았다. 그의 몸가짐과 말에서는 이상하게도 소박한감이 느껴지기도 하고 류다르게 세련된감이 느껴지기도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중절모를 눌러쓴 그는 온몸을 으슥으슥 가볍게 떨고있었다.
《그렇다, 내가 잘못 보았군. 그럼 직업이 뭔가요?… 두루 갑갑해서 묻는거니 노여웁게 생각지는 마시우!》 하고 고르뎅바지를 입은 사람은 끈끈스레 물었다.
《글을 쓰지요.》
깊은 생각에 빠졌던 중절모 쓴 사람은 못 견디게 몸이 떨리는지 어깨를 으슥거리며 역시 짤막하니 대답했다.
《글을 쓴다구요? 핫하하, 그 어른이 슬그머니 사람을 웃기는걸!… 참으로 막연한 대답이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꽤 알아들을만 하오. 그런즉 사무원이란 말이겠지요?》
신수가 멀끔한 사람은 제나름대로 비위좋게 떠들어대며 껄껄 웃어제꼈다.
중절모 쓴 사람은 너털대는 그를 얼핏 스쳐보고는 상대하지 않고 어떤 생각에 다시 집중하는것 같았다. 그는 불시로 품속에서 파란 뚜껑의 수첩을 꺼내들고 무엇인가 급히 쓰기 시작했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다. 어딘가 멀리서 닭이 울자 가까운 농가의 닭

이 따라울었다. 닭울음소리는 선명하고 명료하게 련속 들려왔다. 평화스럽게 들리는 닭들의 울음소리는 모닥불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따스한 자기 집과 행복하고 즐거웠던 지나간 생활들을 생각케 하였다. 그들은 문득 저마다 자기의 생활에서 가장 훌륭하였고 가장 행복스러웠던 생활들을 토막토막 기억속에서 들추어냈다. 누구는 결혼식을, 어떤 사람은 소년시대를, 누구는 첫 성공을… 사람들은 저마다 침묵속에서 자기 일을 회상하였다.

스러져가는 모닥불에 나무가치들을 던져넣고있던 고르뎅당고바지를 입은 사람이 밑도끝도없이 생각에 잠긴 사람들을 둘러보며 별안간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캄캄한 마가을의 야밤, 야산밑에서 정말 기이한 모임인걸!…여보시오, 서울은행, 여기 모닥불가에 얼마나 각이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가 보우. 나로 말하면 연초공장 자재구입원이고 여기 내곁의 이 어른은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이시오. 아마 평화시기에도 이런 특이한 모임은 없었을거요.》

누군가 곁에서 그의 말을 받아 이런 때는 한잔 있었으면 제격일거라고 한마디 했다. 그러자 고르뎅당고바지를 입은 신수멀끔한 사람은 더욱 기세좋게 떠들어댔다.

《누구든지 여기서 돈만 푼푼히 내시우. 내 이제라도 30분내로 마을에 들어가 독한 곡주를 구해다가 여러분들을 흥겹게 해드리지요. 그건 내 직업이니까요.》

그의 재빠른 시선은 서울은행사람의 배낭과 중절모를 눌러쓴 사람의 큼직한 배낭사이를 분주히 오고갔다. 누구도 그의 말에 호응해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잠잠했다.

중절모를 눌러쓴 사람은 마치 추워서 떨듯이 눈에 띄게 온몸을 으쓱으쓱 떨기 시작하였다. 그는 외투깃을 머리우로 춰올리면서 두어깨를 바싹 움츠렸다. 그의 몸은 걷잡을수없이, 못 견디게 덜덜 떨리기만 하여 그자신으로는 도저히 억제할 힘이 없는 모양이였다. 그러면서도 중절모 쓴 사람은 계속 수첩에 무언가를 써넣기도 하고 컴컴한 허공을 한참씩 정신나간 사람처럼 바라보기도 하였다.

《뭘 그렇게 쓰시우? 혹시 돈계산을 하는게 아니요?》

고르뎅바지를 입은 연초공장 자재구입원이 속물다운 능글능글한 웃음을 떠올리고 눈을 슴벅거리면서 몸을 기웃하고 넌지시 물었다. 일순 중절모 쓴 사람의 예리한 칼날같은 시선이 번쩍—하였다. 그는 모닥불빛에 도금이라도 한것처럼 번들거리는 연초공장 자재구입원의 혈색좋은 얼굴을 경멸하듯이 일별하고는 외면했다. 비위좋은 연초공장 자재구입원은 모욕적인 시선을 받고서도 싱글벙글하였다. 그는 이번에는 서울에서 온다는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판을 벌려놓기 시작했다. 자재구입원은 원자탄이라는 무시무시한 무기를 소유한 미군과 《유엔군》의 어마어마한 무장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나서 전쟁은 곧 끝나게 될것이라고 자기 추측을 은근히 암시했다. 파묵해보이는 서울은행직원은 즉시 분격한 표정을 지었으나 말은 하지 않고 킁킁 총을 쏘듯 요란스레 코를 풀고 어둠 저쪽풀밭으로 가래침을 뱉고는 비스듬히 배낭에 기댄채 눈을 감아버렸다.

《어, 졸리는걸. 길을 또 걸으려면 나도 눈을 좀 붙여야겠군.》

연초공장 자재구입원이라는 고르뎅당고바지를 입은 사람은 시뻘건 입을 한입 벌리고 늘어지게 하품을 하고나서 모닥불곁에 눕더니 어느새 드렁드렁 코를 골기 시작했다. 이윽고 모닥불주위는 잠잠하였다. 모두 잠든것이다. 빨갛게 타오르던 모닥불은 차츰차츰 스러지면서 허옇게 되여갔다. 안개자욱한 밤하늘은 여전히 조용조용 땅우로 내려오고있는것 같았다. …

동이 틀무렵 모닥불곁에서 어렴풋이 잠들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놀라 떠드는 녀인의 목소리에 화닥닥 일어났다. 30대의 젊은 녀인이 중절모 쓴 사람곁에서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아주머니, 왜 그러시우?》 하고 누군가 감기들린 목소리로 물었다.

《주인의 배낭이 없어졌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여보!—》

락심한 녀인은 금시 울음이라도 터칠듯이 울먹거리며 중절모 쓴 사람을 쳐다보았다. 중절모 쓴 사람은 억이 막혀 그렇지 않아도 병색이 돌던 얼굴이 창백해져 말을 못했다. 그는 밤사이에 병세가 악화된듯 신음소리를 내며 으드득 몸을 떨었다. 앓는 몸에 배낭까지 잃어버린 그를 도우려고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 박광훈이 더운물이라도 얻어오겠다고 하면서 마을쪽으로 달려갔다.

《내외가 저토록 상심하는걸 보면 분명 배낭에는 귀한 물건이 들었던가보군.》 하고 누군가 동정했다.

《그 개자식이 한짓이야!》

성칼사납게 생긴 한 중년이 참지 못하고 분개하여 소리쳤다.

《그 개자식이라니? 그게 누군데?》

《누군 누구겠소, 신수멀끔한 그 고르뎅당고바지를 입은 작자지!》

《옳수다. 밤사이에 여기서 온다간다는 말도 없이 슬그머니 먼저 사라진건 그놈하구 서울사람 둘뿐이요!》

《그 개자식이 수상쩍게 연방 배낭을 넘겨다보더라니… 영낙없이 그놈의 작간이야!… 퉤 더러운 놈, 이런 때에 도둑질을 하다니…》

《아주머니, 배낭안에는 어떤 귀한 물건을 넣었드랬소?》 하고 성칼사납게 생긴 중년남자가 동정하며 물었다.

《주인이 쓴 서사시의 원고들이였어요.》

젊은 녀인은 너무 락심하여 금방이라도 쓰러질것만 같았다.

《서사시라니? 그건 무슨 말이요?》

《그건 문학작품이요!》 하고 누군가 대신 대답했다.

그때 뜻밖에도 마을로 달려갔던 박광훈이 잃어졌던 배낭을 찾아들고 돌아왔다. 마을로 들어가는 행길옆의 풀섶에서 아구리를 풀어헤쳐놓은 배낭을 발견했던것이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부위원장동무! 다행한 일이요.》

중절모 쓴 사람은 감격한 목소리로 도소비조합련맹부위원장에게 정중히 사의를 표했다. 그의 처인 녀인은 찾아온 배낭을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부위원장동지, 가련하기 그지없는 속물인 그놈은 이 원고배낭을 돈배낭으로 잘못 알았던 모양이요.》 하고 중절모를 쓴 사람은 입가에 쓴웃음을 짓고 말했다.

《강선생, 그놈이 원고들의 가치를 몰라서 내버린거지 아무러면 이 원고배낭을 돈에 비기겠소. 하긴 그 속물에게는 한갖 휴지장으로 보였을거요.》

그럴 때에 마을에서 아낙네들이 더운물을 가지고 야산밑의 후미진 곳으로 다가왔다. 녀인들 여럿중에서 어리무던하게 생긴 실팍한 아낙

네가 모닥불가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누구에게라없이 물었다.

《앓는다는분이 누구세요?》

《여기 이 선생인데…》 하고 광훈이가 중절모를 깊숙이 눌러쓴 사람을 가리키며 말을 덧붙였다.

《온 나라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시인 강승한선생이요!》

《에그머니나!－》

실팍한 아낙네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그 녀인은 병색이 짙은 시인을 찬찬히 여겨보더니 별안간 온다간다 말도 없이 돌아서 급히 마을쪽으로 달려갔다. 조금후에 실팍한 녀인은 집에서 약들과 갓 삶은 고구마를 정성껏 싸들고 헐떡거리며 되돌아왔다.

《강승한선생님, 비록 변변치는 못하지만 나무람마시고 드세요. 우리는 성인학교에서 밤마다 선생님의 시들을 읽었답니다. 우리 마을사람들은 모두다 선생님의 이름을 알고있어요!》 하고 그 녀인은 뜻밖의 상봉을 반가와하며 듣기 좋은 중음으로 말했다.

시인이 앓는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야산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시인은 천천히 힘겹게 몸을 일으키고 깊숙이 눌러썼던 중절모를 벗었다. 그는 모여선 마을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한 다음 품속에서 수첩을 꺼내들었다. 거기에는 시인이 어제 밤 심하게 앓으면서도 모닥불에 비쳐가며 쓴 전투적인 시편들이 또박또박 적혀있었다.

시인은 그 시들을 격동적으로 랑송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모여선 사람들은 물론이고 시인의 가족들까지도 방금 자기들의 눈앞에서 점차 힘과 활력으로 차넘쳐가며 격동과 흥분으로 몸을 떠는 그를 놀랍게 바라보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은 한자리에 굳어진듯 꼼짝않고 서서 가슴우에 두손을 얹고있었으며 로인들은 모자를 벗고 지팽이에 머리를 숙이고있었다. 시인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시를 계속 읊었다. 그는 자기의 격동적인 시로 선량한 마을사람들의 마음에, 신심을 잃지 않은 그들의 심장에 감사를 표했다. 시인이 랑송을 그치자 마을의 한 로인이 선뜻 앞으로 나섰다. 백발의 정정한 로인은 모여선 마을사람들을 엄숙한 표정으로 천천히 휘둘러보고나서 잔잔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이제부터 우리들이 앓고있는 시인선생을 보호하고 돌봐드리지 않

는다면 우리 공화국정권은 우리를 칭찬하지 않을것이요. 내 말이 어떤가?》

모여온 마을사람들이 떠들썩하게 소리치며 로인의 말에 진정으로 공감하자 백발의 로인은 시인을 향해 지척지척 다가섰다.

《시인선생은 우리와 함께 있어주오. 선생의 그 몸으로는 가족들과 함께 먼길을 가지 못하오.》 하고 로인은 정중히 말했다.

뒤이어 실팍하고 어리무던하게 생긴 마을녀인이 로인의 제의에 호응했다.

《선생님, 미국놈들이 마을에 들어와 아무리 별별 악한짓을 한다 해도 우리는 선생님을 지켜낼수 있어요!》

시인은 선량한 마을사람들앞에 깊숙이 머리를 숙이고 경의와 감사의 뜻을 표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구월산으로 가던 길입니다. 거기에서 제자신이 계획하였으며 목표로 삼은 일들이 기다리고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꼭 여기 마을에 와서 글도 쓰고 여러분들한테서 좋은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여선 마을사람들은 잠잠하였다. 시인의 진심에서 울려나온 정열적이며 진실한 말들이 그들을 설득시켰던것이다.

《그럼 그때는 꼭 오시우. 글도 짓고 휴식할 때는 낚시질도 하고… 여기의 오랜 늪들과 저수지에는 가물치, 메기, 붕어들이 죽끓듯 한다오!…》 하고 백발의 정정한 로인은 서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목메인 소리로 말했다.

잠잠하던 마을사람들은 시인과 그의 가족들이 길을 떠나려고 배낭을 지고 행길로 나서자 설레기 시작하였다.

《선생, 약속을 잊지 마시우.》

《기다리겠어요!》

《선생님, 부디 몸조심하세요!》

마을아낙네들은 눈물짓고 로인들은 슬며시 한숨쉬고 아이들은 영문도 모르고 녀인들을 따라 흐느끼면서 떠나가는 시인을 배웅하였다.

구월산으로 가는 그들의 행로는 조련치 않았다. 어린 딸애와 갓난

애를 업은 안해 그리고 시인자신의 몸이 불편한데다 더우기 그들은 적구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였다. 벌써 구월산으로 가는 곳곳에는 적들이 침입했던것이다. 이러한 정황에서 낮에는 으슥한 숲속이나 덤불속에 앉아 조용히 날이 어둡기를 기다려야 하였고 해가 지고 엷은 땅거미가 들판과 행길을 덮기 시작하면 그들은 길을 떠났다. 그들이 자지러진 총성과 불길이 곳곳에서 치솟는 신천군소재지를 에돌아 돌무지마을가까이의 행길에 들어선것은 어둑어둑한 새벽이였다. 이제 돌무지마을을 지나 석당교를 건느고 넓은 서강뚝을 따라 서남방향으로 70리가량 가면 구월산이다.

시인은 다감한 눈길로 낯익은 산천을 더듬으며 걷고있었다. 고향을 떠난지는 오래되였으나 어린시절의 가지가지 추억을 불러오는 서강기슭이 가까와오자 그의 가슴은 설레였다. 시인은 넓은 서강뚝의 풀밭들과 종다리 우짖는 들판에서 송아지매고 꼴을 베며 소년시절의 잔뼈를 가꾸었고 푸른 꿈을 키웠었다. 그리고 해방후에는 새땅의 주인이 되고 새생활의 주인이 된 고향사람들을 두고 가슴부풀게 자유와 행복과 환희의 노래를 부르던 곳이였다. 그러나 지금 그립던 고향마을은 무거운 정적속에 잠겨있었으며 꽉 막아버린 길가집들의 시커먼 창문들이 그를 내다보고있었다. 마을의 집들은 커다란 슬픔속에 묵묵히 잠겨있는듯 하였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불안하게 울리는 안해의 목소리에 그는 번쩍 정신을 차렸다. 갑자기 우르릉거리는 금속성의 동음이 육박해오듯 차츰 가까이 들려오고 어지러운 불빛들이 사방에서 번쩍거렸다. 그 순간 일행중의 누군가가 《적들이다!—》 하고 새된소리로 웨치며 논판으로 뛰여내려갔다. 불시에 새벽의 정적이 깨지고 사위가 오구탕치듯 떠들썩하고 우르릉거리며 달려오는 모터찌클, 찦차, 군용자동차소리로 가득찼다. 환한 전조등으로 행길을 비치면서 모터찌클과 군용차가 아츠러운 급정거소리를 질러대며 달려와 멎어서고 거기서 카키색군복을 입은 키가 껑충한 미군병사놈들이 장탄한 엠완총을 비껴들고 우당탕거리며 행길로 뛰여내렸다.

어딘지 앞쪽에서 누군가의 손목을 잡고 나어린 딸애가 내뛰는것을

띠여본 시인은 안해와 함께 급히 논뚝길로 내려서 달려갔다. 그들의 뒤로 알아듣지 못할 짐승같은 소리를 질러대며 미제침략군 병사놈들이 끈질기게 추격하여왔다. 자지러지게 울리는 총성, 고함소리, 아우성, 욕설, 번쩍거리는 전지불빛… 우당탕거리며 우르르 몰려온 놈들이 시인부부를 둘러쌌다.

《허, 이거 유명한 시인 강승한선생이 아니시오? 이렇게 만날줄은 몰랐는데요!》

미군병사놈들과 어울려 몰려온 《치안대》놈들중에서 홍태국이 그를 알아보고 기분이 들썽해서 빈정거리며 뇌까렸다. 시인과 홍태국의 시선이 한순간 비수처럼 부딪쳤다.

《쏘아보긴 개새끼! 시인이요 도대의원이요 뭐요 하면서 잘두 돌아치더니 마침 잘 만났다. 그건 뭐야?》

홍태국은 시인의 배낭을 아귀차게 나꿔채서 그속에 있는 원고들을 끄집어냈다.

《야, 이새끼, 다 망한판에 이따위것을 지고다녀? 빨갱이시인놈이 다르구나!…》

홍태국놈은 가차없이 원고뭉치를 잡아비틀어 토막치듯 악착하게 찢었다. 그러더니 바로 옆에서 욱욱 소리를 내며 참혹하게 불타고있는 벼짚낟가리로 획 집어던졌다.

시인의 얼굴에는 꿈틀꿈틀 경련이 지나갔다. 그는 철사로 칭칭 묶이운 두팔을 비틀며 이발을 사려물고 불속에 떨어진 원고앞으로 내달렸다. 동시에 시인의 안해는 땅에 떨어진 원고의 한뭉테기를 덮치듯이 끌어안았다. 얼마나 많은 나날 밤을 지새우며 심혈을 기울여 쓴 원고들인가!… 그 녀인을 내놓고 누가 과연 시인의 불면불휴의 숨은 노력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수 있었으랴! 미제의 무차별폭격의 폭음을 들으며 방공호에서 쓰던 장편서사시, 몸이 편찮을 때에도, 고달픈 깊은 밤에도, 남들이 떠들썩하게 웃으며 즐기는 명절날조차 쉬지 않고 넋을 바쳐 쓰던 시였다. 녀인은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분노로 몸을 떨면서 남편의 원고들을 끌어안았으나 놈들은 사정없이 다시 빼앗아 불속에 처넣었다.

《그거 멋지게 타는구만!…재미있는걸!—》 하고 뒤쪽에서 어느

놈이 히죽거리며 독살스럽게 지껄였다.
《여, 빨갱이시인, 맛이 어떤가?… 이렇게 될줄은 몰랐을테지? 똑바로 봐. 네새끼 시는 영원히 사라지고말았어!》
녀자들처럼 턱수염 한오리없는 맨숭맨숭한 얼굴에 차겁고 잔인한 비웃음을 띤 홍태국이 기고만장해서 장한듯이 빈정댔다.
시인의 얼굴은 심한 정신적고통과 괴로움과 증오로 이그러져있었다. 관자노리가 푸들푸들 떨렸다. 팔을 묶은 철사는 얼마나 빽빽이 조였던지 몸을 움직일 때마다 지근지근 살을 파고들었으나 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정신적고통과 증오에 사무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시인은 아주 유해롭고 협오스러운 동물의 새로운 변종을 연구나 하듯이 체소하고 희한스러울만큼 눈을 독살스럽게 깜박거리는 홍태국을 지그시 여겨보고있었다. 그다음 꽉 다물었던 그의 입에서 나직하나 분노와 경멸에 찬 말소리가 새여나왔다.
《역시 가련한 버러지들이군.》
《뭐야?… 뭐라구 지껄여댔어, 개새끼!—》 하고 홍태국은 독살스럽게 눈을 깜박거리며 소리를 질렀다.
《너희들은 내가 쓴 원고들을 불태울수는 있었지만 내 머리속의 시들은 불태울수도, 철사로 묶을수도 없다는것을 알지 못하고 또 알수도 없는 가련한 버러지들이란 말이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태국이 뼈다귀처럼 허옇게 칠이 벗겨진 총탁으로 시인의 얼굴을 내질렀다.
《아직도 살아서 지껄여대는 네놈의 골통을 산산이 바수어버릴테다, 개새끼!…네놈을 한고향사람이라고 내가 용서할줄 알아. 그래, 네새끼는 언제 한번이나 날 동정했댔어? 내가 인민군대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고 도에 있는 너를 찾아갔댔지. 그래도 한고향사람이 출세했으니 인정사정을 베풀가 하고 말이야, 그런데…네놈은 욕설을 퍼붓고 따지고 훈계해서 날 쫓아냈드랬지? 그런즉 이 개새끼야! 이제는 내게서도 인정사정을 바라지는 못하겠지! 어때? 내 말이 틀려!…》
승리자연하는 홍태국의 상판에는 허장성세와 비렬함이 뒤섞여있었으며 동시에 폭력과 살인에 쾌감을 느끼는 악한의 모든것이 그대로 나타나있었다.

《이 개새끼야! 왜 대답을 안해?…어디 턱주가리를 또 놀려봐…》
홍태국은 무지스런 폭력의 쾌감으로 열병환자처럼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다음 또다시 시인의 턱을 총탁으로 후려쳤다. 그러자 둘러싸고있던 놈들이 일시에 모다붙어 차고 줴지르고 잡아뜯기 시작했다.…
의식을 잃으면서 시인은 《가련한 버…러…지…들…》 하고 하얗게 서리가 내린 축축한 수렁논판에 괴롭게 머리를 젖히고 번듯이 나가넘어졌다.

17

희끄무레한 새벽어스름은 서서히 사라져가고있었으나 아직 날은 채 밝지 않았다. 하늘에는 검은구름이 흘러가고있었고 그 구름들사이로 스러져가는 희미한 별빛이 보였다. 하얗게 서리내린 들판 저쪽마을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솟아오르고 짜당탕거리는 모터찌클소리며 총성, 고함소리가 련속 들려오고있었다.
룡진은 힘겹게 발을 옮겨디디며 들판길을 걷고있었다. 그의 구두에는 검붉은 진흙과 감탕들이 잔뜩 들어붙었고 후줄근히 젖은 양복바지가랭이는 다리에 착 달라붙어있었다. 그의 뒤로 서기가 말없이 따라걸었다. 그들이 걸어가는 들판길상공에는 마을로부터 날아온 매캐한 연기들과 검고 번들거리는 재티들이 배회하고있었다.
《위원장동지!》
침묵하고 걷던 서기는 잰걸음으로 룡진에게 바싹 다가서며 불만과 불평이 뚜렷이 느껴지는 어조로 투정질하듯 말을 이었다.
《이제는 차가 오기는 영 코집이 틀린것 같습니다!…》
《경호동무, 지금 사방 곳곳에 적들이 욱실거리는데 차는 해서 뭘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게 좋겠소.》
질적질적하고 매끄러운 논판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룡진이 엄하게 대꾸했다.
《그래두 위원장동지가 이처럼 험한 들판을 힘들게 걷는걸 보니 제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그럽니다. 하긴 어제 승용차를 보내지 말도록 극

력 만류했어야 하는건데… 참, 내가 머저리짓을 했거던.》

서기는 불만을 스스로 억제하듯 띠염띠염 나직하니 말하였다. 그는 아직도 어제 낮 승용차에 전 면위원장 허명서의 가족들을 태워보낸데 대해 속이 알찌근해하고있었다. 사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룡진이 지금처럼 적구를 걷는것과 같은 위험한 처지에 놓이지도 않았을것이며 험한 길 아닌 길을 걷지도 않았을것이다.

당돌한 서기는 그때 자기가 완강하게 막지 못한것을 두고두고 마음속으로 자책하면서 룡진을 앞질러 논뚝너머 어렴풋이 바라보이는 자그마한 숲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이 그리 멀지 않은 숲변두리에 거의 다가갔을 때 어스름한 수풀속에서 별안간 이상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

두어걸음앞에서 걷던 서기는 흠칫 놀라며 멈춰서서 긴장하여 사방을 살펴보았다. 신음소리는 분명 키높이 자란 수풀속에서 들려오고있었지만 마치 어딘지 땅속에서 슴새여나오는것만 같았다.

서기와 룡진은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무성한 수풀속으로 들어섰다. 바싹 마른 풀대들이 발밑에서 와스삭거리고 어딘가 그들의 바로 곁에서 갑자기 놀란 이름도 모를 커다란 새가 푸드득 깃을 치며 하늘로 날아올랐다.

《위원장동지, 가만 좀 계시십시오.》 하고 서기는 룡진을 멈춰세웠다.

혼자서 앞으로 조심히 걸음을 내짚던 서기는 다시 와뜰 놀라 멎어섰다. 바로 그들의 대여섯걸음앞 우거진 풀숲에서 누군가 머리칼이 헝클어져내린 낯모를 사람이 팔을 짚고 겨우 상반신을 일으켰던것이다.

《누구요?》

담대한 서기는 룡진을 막아서며 긴장하면서도 담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신음소리를 내며 상반신을 일으킨 사람은 적의가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길로 마주보더니 이윽고 털썩 다시 쓰러졌다. 서기와 룡진은 동시에 말없이 쓰러진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다. 커다란 배낭을 진 낯선 사람의 온몸에는 진창과 나무잎들과 풀줄기들이 어지럽게 들어붙어있

었으며 험창하게 찢어진 지하족사이로 피가 흐르고있었다. 그는 분명 적들과 조우하면서 먼길을 걸어 여기까지 후퇴해온 사람이였다.

《동무, 정신차리오!》

룡진이 의식잃은 그 사람의 몸을 조심히 흔들었다.

《음…》

힘겨웁게 간신히 눈을 뜬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낭을 움켜잡으면서 경계하는 눈빛으로 룡진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문득 낮모를 그 사람의 시선은 룡진의 가슴에 단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휘장에 멎었다. 그 순간 모진 육체적고통과 그 어떤 남모르는 정신적고통에 시달려 흐릿하게 꺼져가던 그 사람의 눈빛은 불시에 생기를 회복한듯 번쩍였다. 그다음 낯선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마음속깊이 바라는 애절한 목소리로 룡진에게 말했다.

《실례이지만 한가지 물어도 일없겠습니까?》

룡진은 극도로 지쳤던 그 사람이 불시로 활기를 회복하는것을 이상하게 느끼면서 긍정한다는 뜻으로 묵직한 머리를 말없이 끄덕였다.

《동지는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동지이십니까?》

《그렇소.》하고 룡진은 그 사람의 눈을 마주보면서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다행한 일입니다.》

배낭을 진 사람은 끙끙거리며 간신히 일어나 앉았다. 그리고는 무엇때문인지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배낭을 벗어놓고는 례절바르게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밝혔다. 그는 해방된 서울의 한 지구은행 책임자로서 국가화폐를 가지고 수백리길을 걸어서 후퇴하던중 어제 밤 신천군소재지근처에서 적들의 추격을 받아 부상까지 당했다고 말했다.

《대의원동지, 저는 이제 더 걷지 못하겠습니다. 리해하여주십시오.》하고 그는 지고오던 배낭을 룡진의 앞으로 내놓으며 말을 이었다.

《대의원동지, 이 돈배낭을 인계받고 여기에 대의원동지의 수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룡진은 그가 내민 종이장을 받아들었다. 거기에는 몇월 몇일 어디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누구에게 돈 얼마를 바쳤다는 내용이 정자로 또박또박 적혀있었다. 무엇인가 밑에 받칠것을 두루 찾다가 하는수없이

룡진은 그 종이장을 무릎우에 그냥 놓고 만년필끝으로 몇번인가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가면서 거기에 자기의 성명을 쓰고 수표하였다.

《대의원동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는 편히 마음놓고 죽을수 있게 됐습니다.》

나직하면서도 안도감이 느껴지는 그 사람의 말소리에 룡진은 엄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동무, 여기서 마음편히 죽을수 있게 됐다는건 무슨 소리요?… 그런 나약한 말은 하지 마오!》

그러나 서울에서부터 돈배낭을 지고 후퇴해온다는 그 사람은 태연히 룡진의 엄한 눈길을 마주보면서 역시 태연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대의원동지, 리해하여주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서 더 걷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죽기 전에 여기서 놈들에게 체포된다 해도 저는 마음놓고 당당하게 최후를 마칠것입니다. 물론 그전에 이곳에서 눈을 감게 되겠지만…》

룡진은 나이듬직해보이는 그를 주의깊이 여겨보면서 말이 없었다. 그는 생각했다. … 이 사람은 공화국정권의 종국적승리를 굳게 믿고있는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이처럼 죽음을 각오한 마지막순간까지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의 육체는 지금 참혹하게 피로했고 지쳤으며 부상까지 당했다. 그렇다. 수백리길을 걸어오면서 차거운 비바람과 굶주림, 부상으로 하여 기력이 진하고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졌다. 하지만 이 사람이 쓰러지면서도 돈배낭을 지고 여기까지 걸어온것은 그 어떤 기적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화국정권이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과 믿음, 자기가 맡은 직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의 힘이였을것이다. 바로 조국앞에 진 책임감, 강렬한 의무의 힘이 이 사람을 쓰러지면서도 여기까지 지탱하며 걷게 했을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한테서 그러한 돈배낭을 인계받게 되면 그는 안도감과 함께 폴싹 기운을 잃고 이름모를 이 수풀속에 쓰러져 영영 일어서지 못할것이다. 그런만큼 이 사람에게 계속 힘을 잃지 않게 하고 끝까지 책임감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러자면 이 사람자신이 자기의 돈배낭을 가지고 구월산까지 가도록 해야 할것이다. …

그리하여 룡진은 그 사람앞에서 자신이 방금 수표한 종이를 이번에

는 그앞에서 스스로 찢어버렸다.

《동무, 난 여기에 수표를 못하겠소. 동무의 돈배낭은 동무자신이 마지막까지 책임을 져야 하오. 다시 반복하지만 나는 동무의 돈배낭을 맡지 못하겠소.》

이 모든 말을 룡진은 조금도 주저하거나 망설임없이 오히려 가혹하다고 느껴질만큼 랭랭하고 무뚝뚝한 어조로 말했다.

《아니!… 대의원동지!…》

급변한 룡진의 가혹한 태도에 깜짝 놀란 낯선 사람은 불쑥 상반신을 일으키더니 비칭거리며 엉거주춤 일어섰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놀란것은 룡진의 서기였다.

서기는 검붉어진 얼굴을 찡그리고 어쩔줄을 몰라하면서 룡진에게 나직한 귀속말로 말했다.

《위원장동지, 그건 너무한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부상까지 당하고…》

《동무는 참견하지 마시오!》 하고 룡진은 엄한 시선으로 서기를 응시하면서 그의 말을 무자비하게 눌러버렸다. 그다음 룡진은 서기와 낯모를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 동무의 배낭을 경호동무가 대신 지고가는것은 허락하오. 그러나 이 동무가 바라는대로 돈배낭을 인계받고 수표하는 책임은 질수 없소. 걸으시오. 구월산에는 우리 사람들이 있소. 거기까지는 100리도 못되오.》

《대의원동지, 좋습니다. 책임질수 없다면 수표구 뭐구 다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지금 아무리 어려운 때라고 하여도… 동지는 전승의 그날에 오늘에 있은 일을 두고 반드시…》 하고 낯모를 사람은 무슨 말을 더하려다가 단념한듯 입을 다물었다. 그는 분개하여 이발을 사려물고 허리를 쭉 펴더니 서기의 앞으로 다가섰다.

《그 배낭을 이리 주시오!》

낯모를 사람은 서기한테서 나꾸어채듯이 돈배낭을 빼앗아들고 신음소리를 씹어 삼키며 어깨에 둘러메였다. 괴롭게 끙끙거리면서 비칭거리는 나이 듬직한 그를 보다못해 룡진의 서기가 도우려고 막아나섰다.

《아바이, 이리 주십시오. 그 배낭을 제가 지고 걷겠습니다.》

《젊은이, 고맙소만 그렇게는 할수 없소. 이 배낭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맡길수는 없는거요.》 하고 그는 준렬하게 내쏘고는 힘겹게 비청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풀숲과 오솔길은 아직 어스레하였으나 하늘은 희붐히 밝아오고있었다. 마가을의 차거운 바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쪽저쪽에서 갈팡질팡하며 불어대고있었다. 그들이 조그마한 숲변두리의 풀숲을 벗어나 가을하지 못한 수수밭가까이로 다가갔을 때에 베여놓기만 하고 거둬들이지 않은 밭을 지나 마을쪽에서 한 소녀가 새된 소리를 질러대며 달려왔다. 치마자락이 무엇에 걸채여 군데군데 찢어져나간 소녀는 맨발로 달려오면서 정신없이 《아…아…아…》 하고 연방 애처롭게 고함을 질렀다. 그 소녀는 룡진의 일행을 눈여겨보고 서너걸음앞에서 갑자기 멈춰서더니 고함소리를 뚝 그쳤다. 열두세살가량 되여보이는 소녀는 희한하게 커보이는 새까만 눈에 절망과 공포와 불안을 담고 룡진을 쳐다보았다.

룡진은 크게 두세걸음 소녀의 앞으로 다가가 실성한 사람처럼 두눈을 희번득거리는 그 애를 끌어안으려 하였다. 그러나 소녀는 뒤로 한걸음 흠칫 몸을 떨며 물러났다. 단발머리소녀의 파랗게 질린 입술은 떨리고 얼굴은 무서운 공포로 까맣게 질려있었다. 소녀는 조금후에 겨우 숨을 돌리면서 《아저씨ㅡ》 하고 흐느끼며 애절하게 불렀다.

《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려고 끌고가요. 아저씨, 잡혀가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를 구원해주세요!》

단발머리소녀는 룡진의 손에 매달리며 마을쪽으로 잡아끌었다.

《아저씨, 왜 그냥 가만있어요? 좀 구원해주어요!》

공포에 질린 소녀의 애처로운 흐느낌과 애절한 호소를 듣고 룡진은 불현듯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순간 그는 품속에서 권총을 꺼내 꽉 틀어잡았다.

《위원장동지, 안됩니다. 마을에는 지금 미군놈들이 욱실거립니다!》 하고 서기가 룡진의 앞을 견결하게 막아나섰다.

룡진은 문득 자기가 소녀와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는 안되며 따라서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는 소녀를 도와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렇다, 그것은 무모한 행동이다.

《왜 그러나요? 아저씨!—》
소녀는 멈춰선 룡진의 손을 세차게 잡아끌었다. 그리고는 그 무엇을 바라는듯이 룡진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소녀의 두볼은 들먹들먹 떨리였다. 그러다가 단념한듯 룡진의 손을 뿌리치고 마을쪽으로 다시 달려가며 《아…아…》 하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기가 성큼성큼 뛰여가서 소녀를 붙잡으며 웨쳤다.
《얘야!—》
그러나 소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정신없이 소리쳤다.
《놔요! 날 붙잡지 말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잡혀가요!—》
《얘야, 마을로 들어가면 너도 잡혀간다. 가면 안된대두…》
《놓아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 아…》
단발머리소녀의 목소리가 어떻게나 애처롭고 절망에 찼던지 룡진은 나중에는 무엇이 어떻게 되든 당장 마을로 달려가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리성은 자기를 억제하였다. 그러는 사이에 소녀는 나직이, 조용히 흐느끼며 울었다.
《얘야, 너 저 마을에 사느냐?》 하고 서기가 목메인 소리로 물었다.
《아니예요. 우리는 해주에서 사는데… 구월산으로 가던 길이였어요!》
《해주라고?… 그래 아버지는 거기서 무슨 일을 하니?》
《우리 아버지는 시를 써요!…》 하고 소녀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시를 쓴다고? 그러니 시인이구나.》
룡진이 애처롭게 흐느끼는 소녀를 가슴쓰린듯이 와락 끌어안았다.
《아버지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
《강승한이라고 해요.》
《시인 강승한!—》 하고 룡진은 고통스럽게 얼굴을 흐리며 뇌이였다.
《아저씨, 우리 아버지를 아시나요?》
《안다. 너의 아버지이름은 온 나라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와서 룡진은 몇순간 마치 무엇에 물린것처럼 가슴을 우그리며 지그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럴 때 불쑥 곁에서 뿜어대는듯 한 서기의 짧은 웨침소리가 들렸다.

《위원장동지! 적들입니다!—》

룡진은 번쩍 정신을 차리고 묵직한 머리를 들었다. 마을쪽에서 한개 소대가량의 미군병사놈들이 수수밭쪽으로 달려오고있었다. 뒤미처 어디선가 기관총이 련발로 뚜루룩거리고 총알들이 윙윙거리며 머리우를 스치듯이 날아지나갔다.

룡진은 당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되였다. 그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자신의 결심에 따라 서기에게 나직하니, 그러나 침착한 명령조로 소리쳤다.

《경호, 소녀와 은행책임자를 데리고 오른켠늪쪽으로 빠져나가오! 그다음 앞으로 곧추 걸어가면 구월산이요!—》

《위원장동지!—》

《뭘 어물거려! 빨리 행동하오!》

룡진은 권총의 격철을 올리고 반대편인 지나온 자그마한 숲쪽으로 달려갔다. 그는 서리가 하얗게 내린 수풀속에서 다가오는 적들을 향해 권총을 발사했다. 어딘지 그가 엎드린 옆쪽에서 후드득후드득 적들이 일제히 사격하는 탄알이 키높이 자란 마른 풀대들을 쓸어눕혔다. 바람에 흔들리는 풀대들사이로 속보로 접근해오는 적들이 희미하게 바라보였다. 룡진은 권총을 조준하여 가까이 다가온 놈을 쓸어눕히고 숲으로 달려올라갔다. 그의 발밑에서 삭정이들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숲으로 달려올라가던 룡진은 돌연 무엇인가 쇠몽둥이로 오른쪽다리를 후려치는듯 한 타격에 비틀거리며 멈춰섰다. 바른쪽 무릎근처의 양복바지가 갈기갈기 찢기여 너풀거리고 검붉은 피가 걷잡을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입안이 바짝 말라드는것을 감촉하였다. 뒤따라 불시에 타는듯 한 목마름을 느꼈다. 그리고 눈앞이 갑자기 흐릿해지면서 의식이 가물거렸다.

(여기서 쓰러져서는 안된다!) 하는 확고한 의식이 그의 머리속으로 섬광처럼 지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서 주위를 살폈다. 그가 올라선 자그마한 숲뒤에는 골짜기를 건너 빽빽이 자란 가느다란 애소나무들과 갖가지 잡관목들이 꽉 들어찬 큰 숲이 가까이에 있었다. 룡진은 권총을 틀어잡고 오른쪽다리의 강한 동통을 느끼면서 앞으로 걸음을 내짚었다. …

18

선홍색저녁노을은 학교의 좁은 창문으로 새여들어 맞은켠 흰 담벽을 잠시 엇비듬히 핥더니 어느새 저 멀리 구월산뒤로 사라졌다. 스산한 바람이 차고 눅눅한 저녁어스름을 흔들며 야산너머에서 포성과 자지러진 총성을 실어오고있었다. 총성과 포성은 잠시도 쉬임없이 련속적으로 들려왔다.

순애는 길 떠날 차림으로 불룩한 남색배낭을 지고 본교의 현관앞에 서있었다. 그는 본래 유순하면서도 침착한 처녀였으나 지금은 초조와 불안과 긴장으로 금시 울음이라도 터칠듯 한 기분이였다. 운동장 한가운데는 동식물표본들과 지구의, 화분, 갖가지 교구비품들이 쌓여있었다. 학교직원들의 기본대렬이 전부 후퇴해간 지금 순애는 마차를 구해오겠다며 마을로 떠난 학교경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벌써 한시간나마 흘러갔는데 왜 아직도 나타나지 않는담…)

학교비품들을 싣고갈 마차를 얻으러 떠나가면서 학교의 경리원은 만약 자기가 한시간이내로 도착하지 못하면 순애더러 먼저 그냥 떠나가라고 했었다. 그래 순애는 벌써 몇번이나 결심하고 훌쩍 떠나가려고 하였으나 어쩐지 낯익은 학교비품들을 운동장에 버리고가는것이 죄를 짓는것만 같아서 차마 떠나지 못하고 매번 되돌아서군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속타는 일이 많고 머리가 무거운 순애였다. 웬일인지 그 처녀의 일은 매사에 뒤틀리고 어긋나고 깨지고 꼬이기만 했다. 집에는 아버지가 홀로 남아있었다. 아버지는 강박하지는 않았지만 순애에게 처녀의 몸으로 집을 뜨는것은 좋은 일이 못되며 또 낯선 객지에서 좋은 일을 기대할수도 없으니 떠나지 말라고 하였다. 그는 미군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들도 사람이고 더우기 예수와 하느님을 숭앙하는 그들인만큼 무례한짓이나 분별없는 류혈은 없을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아버지는 그래도 종시 집을 떠나려는 순애에게 어성을 높이거나 화를 내지는 않았다. 언제나 조용하고 차근차근 론리적

으로 부드럽게 설복하는 아버지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무슨 일에서든 아버지의 의사를 존중하였고 늘쌍 순종해온 순애였지만 이번만은 따를수 없었다. 순애는 학교의 교직원들과 함께 행동하기로 한 자기의 결심을 끝내 굽히지 않았던것이다. 그리하여 기본대렬이 떠나간 지금 그들을 뒤따라서 학교경리와 같이 남은 비품들을 싣고 구월산으로 떠나려는것이였다. 그런데 정작 집을 떠나고보니 마음에 걸리는것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그동안 홀로 있을 아버지는 어떻게 지낼가? 또한 언제 어느때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것이다. 정갈한것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진지는 누가 지어드리며 빨래들은 또한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다고 이제 다시 집으로, 아버지곁으로 돌아갈수도 없었다. 그런데다 머리가 이처럼 무겁고 복잡한 속에서도 의식의 다른 한끝으로는 줄곧 철수를 생각했다. 무사히 후퇴하고있는지, 그도 역시 구월산으로 들어갔을가? 아니면… 아니면 지금 북으로 후퇴하고있는지? 이제 구월산에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만 된다면 운명에 감사를 드리련만… 순애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는 않으면서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다. …

저녁어둠은 차츰 짙어가고 불안한 총소리는 시시각각으로 가까와오고있었다. 어딘지 멀지 않은 곳에서 불빛들이 번쩍거리고 아츠러운 소리를 내며 날아와 작렬하는 총탄과 포탄에 무엇이 깨지고 부서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마차를 얻으려고 떠난 학교경리원은 아직도 돌아오는 기척이 없었다.

순애는 이제 더는 기다릴 경황이 없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단신으로 떠나려고 결심하였다.

(그에게 무슨 불행이라도 닥친 모양인가?… 참, 어쩌면 나는 일마다 뒤틀리고 이렇게 만사가 어긋나고 꼬이기만 한담…)

그때 어둠에 잠긴 주위를 한찰나 환히 드러내며 날카로운 섬광이 번개처럼 번끗하더니 뒤따라 포탄 작렬하는 소리가 지척에서 울렸다. 박살난 학교의 유리창들이 우박처럼 와수수 쏟아져내리고 운동장에 쌓아놓았던 학교비품들이 사방으로 날려갔다.

순애는 부지불식간에 비명을 지르며 학교의 현관안으로 뛰여들어가 엎드렸다. 포탄은 연방 날아와 터지고 학교근방에서 총소리가 소란하

게 울리기 시작하였다. 뒤이어 현관앞의 운동장으로 얼핏얼핏 총쥔 인민군병사들이 달려가고 증오에 찬 웨침소리가 가까이에서 들렸다. 최종계선에서 적들의 발악적인 공격을 완강하게 저지격퇴시키던 인민군병사들이 피의 격전을 벌리면서 드디여 철수하고있었던것이다.

온몸에 흙먼지를 들쓰고 엎드렸던 순애는 덤벼치며 벌떡 일어났다. 짙은 매캐한 화약냄새와 자욱하게 서린 먼지로 콱콱 숨이 막히고 입안에서는 서걱서걱 흙이 씹혔다. 허겁지겁 현관안에서 달려나와 무섭게 파헤쳐진 캄캄한 운동장으로 내달리던 순애는 무엇엔가 걸채고 질겁하여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졌다.

《에그머니!—》

그가 걸채여 쓰러진 바로 곁에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던것이다. 순애는 경련을 일으킨듯 몸을 떨면서 그쪽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어딘가에 부상을 당한 인민군병사가 의식잃고 운동장 한가운데 쓰러져있었다.

《여보세요!… 군인동무!》

순애는 놀라고 당황했던 자신을 얼마간 수습하고 쓰러진 병사에게로 조심히 다가가 그를 흔들었다.

《누구얏!》

쓰러졌던 병사는 드디여 정신을 차린듯 신음소리를 뚝 그치면서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저는… 여기 학교의 교원이예요!》 하고 순애는 놀라 성급히 대답했다.

《교원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었소?》

《같이 떠날 사람을 기다리던중이였어요.》

《빨리 여기를 떠나시오. 적들이 가까운 지점까지 접근했소!》 하고 병사는 신음소리를 삼키면서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어둠 저편의 적들을 향해 고함을 질러대며 뚜루룩뚜루룩 총탄을 퍼부었다. 사방에서 정신이 나갈 지경으로 총성이 퉁탕거리고 섬광들이 번쩍거렸으며 무언가 우지끈 들부시며 우릉우릉 땅크가 다가오고 있었다.

부상당한 병사는 탄약이 떨어지자 수류탄을 뿌려던지고는 다시 그

자리에 정신없이 풀썩 주저앉았다. 오도가도 못하고 굳어진듯 겁에 질려 엎드려있던 순애는 언뜻 몸을 일으키고 또다시 의식잃은 병사를 황급히 흔들었다.

《여보세요!… 군인동무!—》

그러나 병사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우르릉거리며 적들의 땅크가 다가오고 여기저기서 뭐라고 떠들어대는 귀에 선 목소리들이 들려오고있었다.

순애는 정신잃고 쓰러진 병사를 어쨌으면 좋을지 몰라서 당황하여 갈팡질팡하였다. 이윽고 그는 자기를 다잡고 부상당한 병사를 간신히 이끌면서 학교운동장 한쪽구석의 방공호안으로 들어갔다. 깊숙한 방공호안에 들어서자 의식잃은 병사는 열에 뜬 목소리로 뭐라고 헛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순애는 어림짐작으로 배낭안을 들추어 내의를 찾아내여 찢어서 부상당한 병사의 상처를 싸매였다. 쫘르릉거리며 적들의 땅크들이 지나가고 사방에서 벅작 고아대는 고함소리들이 련속 들려왔다. 굴속처럼 캄캄하고 눅눅한 방공호입구가 문득 환히 밝아지고 화광이 비껴들어와 순애는 허둥지둥 입구로 다가갔다.

학교가 불타고있었다. 휘발유를 뿌리며 희열에 들떠 껑충껑충 미군병사놈들이 이쪽저쪽으로 뛰여다니고있었다. 불그레한 화광에 비친 그놈들의 얼굴은 괴상한 가면같아보였다. 시뻘건 불길은 윽—윽 소리를 내면서 담벽처럼 일어섰다. 캄캄한 밤의 어둠을 뚫고 불길은 별빛마저 지워버리며 하늘높이 치솟고있었다. 하늘까지도 연기의 그을음으로 새까매지는듯 했다.

순애는 정든 자기 집이 불타는것을 바라보는 아픈 심정으로 방공호입구에 서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자기의 얼굴에 축축한 물기가 흐르는것을 감촉했다. 그 처녀는 자기도 모르게 울고있었던것이다. 순애는 조용히 흐느끼며 울었다. 하얀 창문들이 빛나던 곳, 한때 자기의 생애가 흘러갔으며 아이들의 희망과 리상이 망울지고 지혜가 꽃펴나던 학교가 눈앞에서 금시 사라져가고있는것이다.

(세상에 악몽같은 이런 일도 생기는가. …)

그 처녀는 분함과 슬픔을 억제할수 없었다.

(야수들, 현대의 추악하고 가장 잔인한 야만들이다!)

그는 아직까지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가슴속밑에서 억제할수 없는 분노가 끓어오르는것을 느꼈다.

(정말 누군지 언제인가 말했듯이 이 전쟁은 야수와 인간과의 싸움이며 선과 악, 거짓과 진실 그리고 인간적인것과 동물적인것과의 치렬한 격투이구나!) 하고 그 처녀는 흐느껴울면서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시뻘건 불길은 확— 피여오르기도 하고 또 이따금 가라앉기도 하면서 눈깜짝할사이에 급속히 사방으로 번져가고있었다. 무연한 들판쪽에서 거침없이 불어오는 바람은 불길에 키질하였고 불타버린 자리들에서 검고 번들거리는 재티들을 멀리로 날라갔다.

소란스러운 세상과 인연을 끊고싶은듯 임성욱목사는 창문까지 닫아걸고 캄캄한 방안에 목각처럼 까딱않고 앉아 앞의 어둠속을 곧추 바라보고있었다. 임목사는 이 어수선한 동란의 세월에 자기곁을 떠나간 딸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렇게도 절절히 설복하였고 비탄을 금치 못하며 만류했건만 딸은 끝내 탈가하여 어디론가 후퇴해가는 사람들과 함께 떠나가고말았다. 임성욱에게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딸애, 딸자식이자 벗이였고 희망이였고 동시에 기쁨이고 행복이였던 딸애가 떠나가자 갑자기 세상 한끝의 낯설고 외진 무인도에 외로이 홀로 있는것만 같았다.

(그런즉 이제는 부모의 권한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결국 다른 권한이 작용한단 말이군. 서글프고 쓸쓸하지만 어쩔수 없는 일이지. …) 하고 임성욱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생각했다.

(물론 이전에도 형식적으로나 부모의 권한이 작용했을것이니까. … 그러니까 한탄할것도 없지. 생활이란 언제나 그러했고 세월이 소란스러워진 지금에도 그런것이지. …)

임목사는 사태를 론리적으로 정확하게 사고하였다. 그러나 론리와 리성의 목소리는 이러하였지만 어쩐지 무정하게 자기곁을 떠나간 딸애의 행동이 서운하고 노여웁고 섭섭하였다.

《음…》 하고 그는 어둠속 한곳을 응시하면서 괴롭게 얼굴을 찌프렸다.

(하는수없는 일이지.)

임성욱은 또다시 자기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그는 돌연 밖에서 들려오는 총소리, 비명소리에 놀랐다. 닫아건 창문으로 번쩍번쩍 빨건 불길이 비쳐들고 매캐한 연기와 벼짚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외겹창문너머에서 상스러운 욕설과 몸서리치는 비명소리에 그는 소스라치듯 일어나 창문을 열어제끼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속에서 이리뛰고 저리뛰며 아우성치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불타는 집들과 헛간들사이로 꿈속처럼 얼핏얼핏 지나갔다. 철갑모를 쓰고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들과 길다란 몽둥이며 쇠스랑, 날창과 총을 쥐고 팔에 무슨 완장을 두른자들이 사람들을 치고 찌르고 두들겨패면서 집들에 불을 지르고있었다. 임목사는 비로소 그제서야 마을에 미군이 들어왔음을 현실감각으로 깨달았다. 창문너머 눈앞에서 감행되는 잔악한 살륙과 략탈과 방화의 참상은 무시무시한 지옥을 보는것처럼 온몸에 닭의살이 내돋고 소름이 끼쳤다. 문득 청년시절에 어느 나라 소설책에서 읽은 식인종들의 피의 향연 장면이 떠올랐다.

(저것이 미국《신사》들이고 《하느님의 사도》들인가?)

임성욱은 련속되는 악몽속에 있는것처럼 정신이 얼떨떨하여 꼼짝 못하고 서있었다. 그는 얼마전까지도 아무리 가혹한 전쟁이라고 해도 미군이 평화적주민들은 죽이지 않을것이며 그들이 비록 피부색과 인종은 다르지만 《문명》과 《민주주의》, 《자선》과 《박애》와 《인권》을 표방하는 사람들인만큼 절대로 중세기적인 무분별한 살륙이나 략탈은 하지 않을것으로 믿고있었다. 임목사는 지어 미군비행기가 례배당과 적십자표식이 뚜렷한 병원을 무참히 폭격했을 때조차 그것은 틀림없이 무슨 착각이거나 우발적인것이며 그런 실수는 특수상황인 전쟁시기에 흔히 있을수 있는 실수들이라고 자기나름대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모든 생각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이였으며 자기야말로 엄청난 착각을 하고있었다는것을 임성욱목사는 지금 리성이나 론리로만 아니라 피부로, 감각으로, 온몸으로 절통하게 느끼고있었다.

(저 사람들은 하느님과 인도주의와 박애를 마치나도 저희들의 전매특허처럼 떠들어대지 않았던가!…)

몸서리치는 비명소리, 아우성소리, 고함소리, 총성, 구타, 미친듯 한 살륙과 광기어린 방화는 계속되고있었다.

(저 야만적인 살륙을 내 힘으로는 막지 못하겠는가?… 하지만 내 딸애의 운명 하나에도 권한이 작용 못하는 내가 무슨 힘으로 저런 무시무시한 참변을 막을수 있단 말인가!)

임성욱은 자기의 무력함을 통탄했다. 그는 창가에서 물러나 다시 캄캄한 방안에 주저앉았다. 차라리 이 모든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절해고도에 가서 살고싶었다. 그러자 그는 문득 집을 떠나간 딸애가 생각났다. 그러고보면 그 애가 천만번 옳게 행동한것 같았다. 임성욱은 이제는 노여움이나 서운함이 아니라 딸애의 생사가 걱정되여 불안하였다.

(그 애는 지금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고있을가?…)

불안한 임목사는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면서 딸애를 걱정했다.

(이 란리통에 그 연약하고 착하기만 한 애가 객지에서 참변이나 겪지 않는지…)

돌연 누군가 들부시듯 쾅쾅 문두드리는 소리에 임성욱은 흠칫 몸을 떨었다.

《누구요?》 하고 그는 바짝 말라버린 입술을 추기고 긴장하여 물었다.

《임목사님, 어서 마음놓고 문을 열라구요. 저웨다.》

밖에서 희열에 뜬 째는듯 한 목소리가 방으로 들려왔다.

《저라는건 도대체 누군가 말이요?》

《챠, 이런… 목소리를 듣구서도 모르겠시꺄?… 재필이라니깐요!》

상고머리는 무엇때문인지 마구 대문을 들부실것처럼 흔들어대며 희열에 부픈 목소리로 꺼리낌없이 떠들썩했다.

임목사는 어둠속에서 더듬더듬 신을 찾아신고 어둑컴컴한 뜨락으로 나와 떨리는 손으로 덜컥 빗장을 뽑고 대문을 열었다.

《웬일이요?》 하고 임목사는 조금 뒤로 물러서며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가구요?… 우리에게 무척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지요.》

대문밖에선 상고머리가 장가가는 신랑처럼 들뜬 기분으로 싱글벙글대며 신바람이 나서 어깨를 실룩거렸다.

《목사님, 치안대장어른이 빨리 나오시래요. 의논할 일이 있다

치안대

구요!》

《?!…》

임성욱은 떠들어대는 상고머리의 말에 어리둥절했다.

《아니, 왜 박아놓은 말뚝처럼 서있시꺄? 목사님을 치안대장어른이 찾는다니깐요?》

《치안대장이라니?!… 그가 누구요?》 하고 임성욱은 영문을 몰라 놀라며 물었다.

《챠, 누군 누구겠시꺄! 그거야 홍태국대장이지요. 목사님은 깜깜하구만요. 벌써 면과 리에 치안대가 조직되고 미군들과 함께 빨갱이집들에 불을 지르고 그 가족들과 애새끼들까지 모조리 쳐죽이고있는데요. 참, 목사님한테 기쁜 소식을 전할게 있시다요.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 십년묵은 체증이라도 시원하게 뚝 떨어지겠시다!》

상고머리는 무엇이 그렇게 기쁜지 의기양양해서 연방 떠들어댔다.

《?!…》

《리위원장 하던 조영모놈 있지 않시꺄. 그놈이 우리한테 붙잡혔지요. 무슨 문건인지 개똥인지 하는걸 못 가져간것이 있어서 다시 기여들어온것을 우리가 에워싸고 달려드니까 제꺽 문건들을 불속에 처넣드구만요. 그 개새끼는 아주 지독스러운 빨갱이놈인데 지금 치안대본부에 끌려와 죽도록 얻어맞고 반죽음이 됐지요. 목사님, 그 개새끼하구는 그전부터 척진 사이가 아니였시꺄. 그러니 얼른 가서 분풀이를 해야지 않겠시꺄!》

연방 희열이 북받치는듯 상고머리는 침방울을 사방으로 튕기면서 발광적인 눈을 이상스레 번쩍거렸다.

임성욱은 사람들을, 그것도 한동네에서 함께 살아온 사람들을 순간의 기분과 화풀이삼아 마구 몽둥이로 때리고 살인하는데서 희열을 느끼고있는 짐승같은자와 마주선 자신이 역겨웁게 느껴졌다. 피비린내가 풍겨오는것만 같았다. 임목사는 구토할것만 같아 자기도 모르게 미간을 찌프리면서 한걸음 뒤로 물러났다.

《목사님, 갑자기 왜 그러나요? 어디 몸이라도 편치 않시꺄?》

《그렇소. 속이 메슥메슥하고 못 견디게 오한이 나는구만. …》

《그럼 치안대장어른이 부르는데도 못 가겠시꺄?…》

《그에게 못 간다고 전하오, 지금 몸이 좋지 않아 하더라고. …》
상고머리는 슬금슬금 임목사앞으로 바싹 다가서더니 풍구처럼 숨을 씩씩 몰아쉬면서 위협조로 뇌까렸다.
《그러다간 화를 당할줄 아슈. 그전하구는 다르게 처리한다는걸 모르겠시꺄? 괜히 우리 일을 돕지 않는 사람은 빨갱이로 몰아서 때려죽이구말아요. 그렇지 않아도 홍태국치안대장어른도 그렇구 모두들 목사님을 좋지 않게 보구들 있다는걸 아시라구요. 사실 나도 목사님을 그리 좋게는 보지 않시다. 하지만 나는 이 집 딸 순애를 생각해서 알려주는거니까 조심하시우!—》
상고머리는 경고나 하듯이 발광이 된 눈을 희번득거리며 거무스레 때가 오른 총을 벗어들고 공연스레 절커덕거렸다.
《목사님, 지금 순애는 집에 있시꺄?》 하고 상고머리는 일부러스럽다고 여길만큼 너그러운 어조로 물었다.
《그 애는… 집에 없소.》
어느때 누구에게나 거짓말을 할줄 모르는 임성욱은 묻는 말에 마지못해 정직히 대답했다.
《그래요, 혹시 순애가 빨갱이들을 따라가지는 않았시꺄?》
《그건 나도 모르겠소. 그 애도 어린애가 아닌만큼 제가 알아서 행동할테니까—》
《혹시 순애가 들어오면 조심하라구 말해주시우. 그리구 목사님도 빨리 나와서 미군환영회연설준비를 해야 하우. 이건 홍태국치안대장어른의 지시웨다.》
제법 누구를 훈계하고 호령하는 투로 말한 다음 상고머리는 컴컴한 뜨락과 방안쪽을 휘둘러보고나서 절커덕 총탁을 대문턱에 부딪치며 횡하니 골목길로 나갔다.
임성욱목사는 어둠속의 한 부분으로라도 화한듯 꼼짝않고 대문가에 서있었다.
(《미군환영회》라니?!…)
벌써부터 미군과 한짝이 되여 제 동족, 더우기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한동네사람들을 찔러죽이고 때려죽이고 이웃집에 불을 지르는 그들이 과연 인간들인가? 인간들이 어떻게 인간들을 그렇게까지 참혹하

게 죽일수 있는가!… 임목사는 후들후들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닫고 든든히 빗장을 지른 다음 어두운 방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캄캄한 방안에 다시 앉아 기도를 할 때처럼 엄숙한 기분으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악할수 있는가?)

고향마을에서 감행되고있는 몸서리치는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을 목격한 목사는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인생의 환멸과 허무와 서글픔을 통절히 느꼈다. 인간이란 본성이 선량하고 어진것이라고 임성욱은 늘쌍 믿어왔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루동안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무지하고 참혹한 야수로 화할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불가사의한것이 인생인가?… 그는 속이 떨리고 머리속이 온통 뒤죽박죽되여 진정할수가 없었다. 혼란되고 뒤엉킨 목사의 머리속으로 한가지 이상한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며칠전에 건너편집의 로인에게서 들었던 이야기였다. 독실한 신자인 로인은 서강가의 동뚝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의 까치둥지들에서 수십마리의 까치들이 일시에 하늘로 떠올라 서로 깍깍거리며 싸우는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그 로인이 직접 강가에서 본바에 의하면 저희들끼리 싸우던 까치들은 한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땅바닥에 하얗게 무리로 떨어져서 죽더라는것이였다. 그러면서 로인은 이러한 재난이 닥쳐올 징조가 하늘의 뜻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었다. …

임목사는 불시에 무서운 공포심이 등골을 차겁게 기여가는듯 한것을 느꼈다. 그는 몸서리쳤다.

(일찌기 보지 못했던, 제 동족 특히나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한동네사람들을 마구 찔러죽이고 때려죽이는 야수적인 행동이 과연 하느님의 뜻이란 말인가? 그렇지는 않을것이다. 공정한 하느님께서 어찌하여 선량한 사람들의 머리우에 이런 참혹한 재난과 불행을 들씌우겠는가!… 그처럼 생각하는것은 하느님께 죄를 짓는것으로 될것이다.)

임목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다음 그는 엄숙한 표정으로 십자가앞에 다가가섰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빌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시여! 이 땅, 이곳에서 벌어지는 참변을 굽어살펴주십시오. 이 참혹한 재난을 제발 어서 빨리 막아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때 무엇인지 뒤창문쪽에서 똑똑 두드리는 소리와 딸애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감촉하였으나 그는 꼼짝않고 서있었다. 뒤뜨락창문쪽에서 《아버지!—》 하고 찾는 딸애의 나직한 말소리가 꿈속에서처럼 들리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것인지 임성욱은 분간하지 못했다.

(음, 착각일테지. 하도 끔찍스런 참변을 몸서리치며 목격했으니 마음도 눈도 귀도 감각도 죄다 이상하게 헝클어진 모양인가. …)

이윽고 잠잠하던 뒤뜨락창문쪽에서 또다시 딸애의 귀에 익은 목소리가 이번에는 뚜렷하게 들렸다.

《아버지!—》

《?!…》

그것은 환각이 아니라 현실적인 딸애의 목소리가 분명했다.

《아버지, 저예요. 빨리 문을 열어요!》

그러자 임성욱은 소스라치듯 뒤뜨락창문쪽으로 몸을 돌렸다.

《순애냐?》 하고 그는 죽었다가 살아온 딸애를 만난듯 놀라며 소리쳤다.

《녜, 저예요.》

《오냐, 좀 있어라. 내 이제 불을 켜겠다.》

임목사는 활기를 띠고 전에없이 마구 덤벼치며 성냥을 찾느라고 눈먼 사람처럼 방안을 두루 손더듬했다.

《아버지, 불을 켜지 말아요!》

딸애의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는 임목사를 퍼뜩 정신차리게 했다.

(그렇지, 지금이 어느때라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였군.)

《그래그래, 알겠다!》

성냥을 찾느라고 더듬거리던 임성욱은 서둘러대며 허청허청 뜨락으로 나와 묵직한 빗장을 잡아뽑고 대문을 열었다.

《어서 들어오렴, 아니?…》

임목사는 흠칫 놀라며 한쪽으로 비켜섰다. 딸애의 등에는 누군가 괴롭게 신음소리를 내며 업혀있었다.

《아니 얘야, 그 사람은…》

《쉬— 아버지, 조용하세요. 심하게 부상당한 인민군대예요!》

《뭐라구?!…》

임성욱에게는 실로 천만뜻밖의 일이였다. 자기의 애타는 설복과 절절한 권고에도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엔가 떠나간다고 집을 나섰던 딸애가 생판 알지 못하는 의식잃은 부상자를 업고 들어오다니?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겠지만. …

《어서 문을 닫아요, 아버지!》

《그래, 어서 들어가거라!》

임성욱은 빗장을 든든히 지르고 사위를 깐깐히 살피고나서 덤비지 않고 딸애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갔다.

(어쨌든 이 무시무시한 란리통에 딸애가 무사히 돌아왔으니 다행한 일이다. 그래, 아버지곁으로 돌아온건 고마운 일이야!…)

임목사는 한편 기쁘기도 하고 한편 이상한 불안을 느끼며 서글프게 생각했다. …

19

음전은 자기 집 뜨락에 서있었다. 좁고 길다란 뜨락에는 늙은 살구나무가지로 뒤덮인 토담이 둘러있고 그끝에 붙은 가시나무울타리를 경계로 무연한 벌판이 잇닿아있었다. 좁은 뜨락의 좌우편에는 이랑을 짓고 남새를 심은 터밭이 있고 맨끝에 소구유통이 있었는데 그앞에는 누런 황소가 주물로 부어낸듯 한 실한 발통을 뜨락의 만문한 땅에 못이 낡아빠진 편자자욱을 력력히 찍으며 떡 버티고 서있었다. 헛간 겸 창고로 쓰는 구유통옆의 거기에는 헌쇠붙이며 빈 술병들과 사용하지 않는 녹쓴 농쟁기따위들이 있고 그밖에도 용도를 알수 없는 자자부레한 것들이 잔뜩 먼지속에 파묻혀있었다.

음전은 답답하기 그지없는 방안에 들어가기 싫어 공연히 뜨락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뜨락으로 들락거리며 토담너머로 마을의 집들을 살펴보군 했다. 어느 집에서도 인기척이라고는 전혀 없고 온 마을은 불안과 공포에 싸여있었다. 그 녀자는 답답하고 불안하였으며 속이 탔다.

(이 바보는 어디 가서 남의 충동질에 악한짓이나 하고있지 않는지?…)

음전은 부실하면서도 잔인한 남편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짜증을 냈다.

음전은 지금까지 자기 집에 들어오면 묘지와 같이 도가집처럼 쓸쓸함과 고독, 불행을 느끼며 살아온 녀자였다. 그 녀자는 항시 마실을 나가 웃고 떠들었으며 일감을 가지고 동네의 이웃집들로 나가군 했었다. 어리석고 부실한데다가 포악하기까지 한 남편을 보기가 역겨울만큼 싫었던것이다. 해방전 결혼초시기부터 시작된 이러한 생활은 해방이 되자 더욱 그러하였다. 그 녀자는 마을회의에도 자기가 갔으며 집에서 밖으로 나갈 일은 스스로 도맡아했다. 이런 그 녀자를 두고 처음 마을에서는 부실한 남편에게는 지내 복잡한 녀자이며 집안에서 녀자가 남자보다 똑똑하면 좋지 않은 법이라고 말들 했었다. 그리고 녀자가 지나치게 드세고 치마바람을 휘두른다고 뒤소리를 하였지만 차츰 세월과 함께 잦아들고 얼마 지나서는 응당 그러려니 했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것으로 이상하게 여기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눈물을 가슴속에 묻고사는 그 녀자의 슬픔과 아픔을 리해하는 사람은 많지 못했다. 그는 결코 자기의 비애를 털어놓을 친구를 구하려 하거나 그 누구의 동정을 바라는 그런 녀자가 아니였다.

그 녀자는 남모르게 마음속으로 자기의 비애를 되풀이했으며 혼자서 마음고생하며 피눈물을 흘렸다.

해방이 되고 좋은 세월이 시작되자 그 녀자의 슬픔, 마음에 없는 결혼을 하고 부실하고 모자라는 남자와 함께 사는 슬픔과 괴로움은 더 컸었다. 마을사람들은 해방이 되여 춤을 추고 웃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 녀자는 마음속의 슬픔을 도저히 누를길이 없었다. 남들과 같이 춤추고 노래할 때에도, 마을의 잔치집과 생일집에서 웃고떠들 때에도, 녀맹써클에서 춤을 출 때에도, 가마니를 짜며 혼자서 노래를 부를 때에도 그 녀자의 가슴속밑에는 남들에게 하소 못하는 슬픔이 서리서리 엉켜있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비애를 그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지만 오직 한 녀성, 임성욱목사의 딸인 순애에게만은 슬픔이 고인 자기의 마음속을 이따금 열어보이군 하였다. 그 녀자는 마음씨 곱고 순결한 순애를 친동생처럼, 벗으로 대했고 순애 역시 그 녀자를 언니로, 벗으로 따랐던것이다. 그처럼 그들이 가까왔던것은 음전이가

보다 남성적이며 격렬하고 충동적인 성격이면서도 리지적인 측면이 약한 반면에 순애는 녀성적이며 온순하고 동정심이 많고 리지적인 녀자이기때문이였는지도 모른다. 음전은 처녀인 순애의 장래를 부러워하였고 도와주려 하였으며 그 처녀의 지식과 리지, 공명정대와 외유내강을 부러워하고 좋아하였으며 한편 순애는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 명백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바쳐도 서슴지 않고 바칠 음전의 격렬하고 헌신적인 성격을 좋아했고 부러워했으며 존경하였다. 그리하여 음전은 자기의 처녀시절에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그리고 부모들이 지금의 부실한 남편에게 시집보내려는것을 알고 두번이나 죽으려고 결심하였던 사연, 한번은 뒤산에 올라가 목을 매였었고 또 한번은 우물에 몸을 던졌으나 매번 다 불행하게 실패했던 쓰라린 운명을 순애에게 전부 말했던것이다. 그 녀자는 지금까지 순애와 리위원장집의 철수사이가 두 집 아버지들이 서로 반목하고 지내면서 아들과 딸의 결합을 반대하고있다는것도 잘 알고있었다. (순애한테서 자세히 들었다.) 그러나 음전은 순애의 고민을 동정과 련민의 정으로 대하고 도우려고 전심전력으로 애쓰면서도 한편 어쨌든 순애에게는 아직 희망이, 래일이 있지 않는가 하고 마음속으로 그를 무척 부러워했다. …

뜨락의 서리맞은 남새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서있던 음전은 뜨락 한쪽끝으로 걸어가서 멀지 않은 순애의 집쪽을 살펴보았다. 임목사네 집은 창문까지 꼭 닫아걸고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무슨 말소리라도 새여나오지 않을가 하고 귀를 강구었으나 옛말같은 무거운 정적에 싸여있었다. 그는 집으로 찾아가볼 생각도 하였으나 순애가 집에 있는지 아니면 어디론가 떠나갔는지 알수 없었다. 아마도 학교에서 교원들과 함께 후퇴해갔을것이다.

문득 까마귀 한마리가 뜨락의 늙은 살구나무가지에 날아와앉더니 방정맞게 트집을 걸듯이 까욱—까욱 울어댔다. 그 녀자는 남새밭에서 푸실푸실한 흙덩이를 집어들고 심술사납게 두눈알을 디룩거리며 살구나무우에서 내려다보는 흉측스런 까마귀를 향해 내던졌다.

까마귀는 벌판쪽으로 까만 날개를 번득거리며 날아가고 흙먼지를 안은 눅눅한 바람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뜨락안으로 몰려들었다. 음전은 답답한 방안에 앉아있고싶지 않았으나 살벌한 공포

가 떠도는 마을의 어느 집에 찾아갈수도 없었다. 하는수없이 그 녀자는 쓸쓸한 기분으로 방안에 들어섰다.

넓고 깨끗한 방안에는 이불장이며 모양좋은 옷장, 재봉기 별로 부족한것 없이 다 갖추어져있었지만 그 모든것은 예나 지금에나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위안도 안정도 주지 못했다. 그러한 가장집물에라도 정을 붙여보려고 그 녀자가 극성스럽게 사들인것이였으나 불행하게도 그는 거기에마저 정을 붙이지 못했던것이다.

속이 답답한 방안에서 음전은 뜨개질감을 붙잡고 거기에 정신을 쏟으려고 장갑을 뜨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피뜩 아무런 계기도 없이 그의 머리속으로 돌아가신 어머님이 이 고장에 찾아오셨던 오래적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음전이가 시집온 첫해의 바람불고 비내리는 어느 여름날이였다. 그때 어머니는 시집보낸 딸이 어떻게 사는가 보고싶어 려비도 없이 그 머나먼 몇백리길을 허덕허덕 걸어서 찾아왔었다. 그렇게 찾아온 어머니였지만 딸이 입을 걱정, 먹을 걱정 모르고 사는것을 보고는 못내 기뻐하였다. 그러나 딸의 얼굴에는 한시도 우울과 번민이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전혀 몰랐던것은 아니였지만 지내보니 사위라는 사람이 딸에 비해서 너무도 모자라고 부족하다는것을 어머니는 깨달았다기보다 본능적으로 느끼고있었다. 때문에 어머니 역시 마음속으로 가난을 저주하면서 꺼지게 한숨을 쉬였다. 하지만 번민하고 우울해하는 딸에게는 조용히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사람의 팔자란 스스로는 어쩌지 못하는것이니라. 그래도 넌 헐벗고 굶주리는 서러움은 없지 않니. 세상에 무슨 설음, 무슨 설음해야 헐벗고 굶주리는 서러움보다 더한 설음은 없느니라.…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를 먹을 걱정, 입을 걱정 모르고 살도록 하는것이 소원이였지. 그래서 너를 이 집으로 시집보낸것이란다.

그러니 꾹 참고 살아가느라면 정도 들고 마음이 편해질게다.》

음전은 이러한 어머니의 말을 처음 듣는것도 아니였고 또한 딸을 위하는 어머니의 눈물겨운 마음을 모르는바도 아니였다. 그 녀자는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밥을 실컷 대접하고싶어 큰 버치에 한가득 담아서 들여갔다. 큰방의 시아버지 저녁시중을 끝내고 음전이가 사랑방의 친정어머니에게로 들어가니 어머니는 버치에 담은 밥 한귀퉁이를 겨

우 허물고 숟가락을 놓고있었다. 음전은 쏟아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삼키며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밥을 왜 그렇게밖에 잡수지 못하셨어요?》
《난 오랜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밥을 실컷 먹었다. 사람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니?》
《어머니!ㅡ》 하고 음전은 끝내 참지 못하고 흐느끼며 울었다.
《어머니, 그렇지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얼마나 먹어요? 옷을 입으면 얼마나 입구요. 그런데두 어머니는 저를 이런데로 시집을 보냈나요?… 네? 어머니!…》
《얘야!… 가난이 원쑤구나!ㅡ》
어머니도 가슴아프게 탄식하면서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셨었다.
《어머니!ㅡ》
그 녀자는 머나먼 길을 걸어서 허덕허덕 찾아온 어머니의 엷은 가슴을 아프게 허비는줄 알면서도 울음을 참을수 없었다.
《어머니, 용서하세요!》
음전이는 쓰러지듯 어머니의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울음을 터쳤다. 지금껏 홀로 참고참아왔으며 누르고눌렀던 분함과 비애와 한탄이 한꺼번에 뿜어나왔던것이다.
《얘야!》
어머니는 눈물을 삼키면서 딸애의 머리를 끌어안았다.
《음전아, 그만하려무나. 큰방에서 시부모들이 듣겠다. 다 사나운 세월탓이구 네가 부모를 잘못 만난탓이지.》
목메인 어머니의 목소리는 통곡소리보다 더 처참하게 울렸다.
《어…머…니…》
눈물의 뚝을 터친 음전은 토막토막 울음을 씹어삼키며 소리없이 울었다. 그날 그들 모녀는 날이 밝을 때까지 누구도 모르게 밤새껏 울었다. 창밖에선 비도 내리고 바람도 세차게 불고있었다. 그해 가을에 어머니는 고향에서 돌아가셨다. 사랑하는 딸에게 헐벗지 않고 밥을 실컷 먹도록 하는것이 평생 소원이던 불쌍한 어머니는 불행한 딸의 마음속 고통을 생각하면서 괴롭게 눈을 감았었다. 한평생을 고역과 수난과 재액속에 고생스럽게 살다가 딸마저 마음고생시키는 그 가슴속

아픔과 한탄을 가시지 못한채 그대로 안고 돌아가신것이다. …

그러나 음전에게는 짧았지만 행복하였던 처녀시절이 있었다. 가난은 부끄러운것이 아니며 옳지 않은것이 부끄러운것임을 명심하고 굳세게 살아나가야 한다는 마을청년 룡진의 말을 잊지 않고 지낸 처녀시절이였다. 그들은 달밝은 밤이면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없이 풀벌레 우는 소리를 즐겨 들으며 마을의 오랜 동뚝길을 걷군 하였다. 그때는 절반 굶다싶이 지내는 가난한 생활이였지만 어쨌든 즐거웠었다. 부푸는 푸른 꿈과 희망, 즐거운 래일이 있었던것이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하였던 그 처녀시절은 한순간의 꿈처럼,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처럼 지나가버렸다. 하지만 그 녀자는 평생 잊지 않고 있었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 추억을 잊지 못할것이다.

뜨락에서 저벅저벅 발자국소리가 들렸다. 뜨개질을 하던 그 녀자는 방문에 붙인 손바닥만 한 유리창으로 재빨리 뜨락쪽을 내다보았다. 머리칼을 손질하지 않아 거푸수수하게 군데군데 일어서고 수염이 텁수룩한 남편이 총을 둘러메고 무엇인가 묵직한것을 싸들고 뜨락을 지나 방문앞으로 걸어오고있었다.

음전은 얼른 돌아앉아 본체만체 하고 뜨개질을 계속했다. 문이 버스석 열리더니 그가 방안으로 터벅터벅 들어섰다.

《응? 집에 있었어? 집안이 조용하길래 난 또 어디 나갔다구?…》 하고 그는 까닭모를 헤식은 웃음을 띠고 떠듬떠듬 말했다.

《아니? 그건 뭐예요?》

음전은 눈을 치뜨고 시꺼멓게 때가 오른 총가목을 놀랍게 여겨보면서 가볍게 몸을 떨었다.

《흥, 총두 몰라? 이건 땅!— 하는 총이란 말이여!…》

《누가 그걸 몰라서 묻는줄 알아요?… 당신 〈치안대〉에 들었소?》

치뜬 그 녀자의 새까만 눈이 별안간 바르르 떨었다.

《들었어. 다들 치안대에 들면 좋다구 나더러 자꾸만 들라고 해서 들었지. …》

그는 울바자우에 올라선 수탉처럼 장한듯이 총멘 어깨를 실룩거리면서 버드렁이발을 드러내고 벙싯벙싯 웃었다.

《당장 그만두라요! 그 총두 내버리구. 제 밥 먹구 할짓이 없어 그

따위짓을 해요?》
그 녀자는 벌떡 일어서며 선뜩하게 느껴지는 총탁을 아귀차게 잡아 쥐고 나꿔챘다.
《어…어 총알 나가면 어쩔려구!》
버드렁이는 펄쩍 놀라며 뒤로 물러났다. 그 서슬에 우지직— 하고 총구에 부딪쳐 뒤창문이 깨져나갔다.
《여보, 당신 정말 정신나가지 않았어요? 당장 그만두라요! 그 총두 내버리구요.》
《헤, 누가 집안녀자들 말을 듣는대?… 치안대에 드니 좋은 일만 생기는데두?… 돈 안내구 술두 줄창 먹구. 이것 보라구, 이건 시계야, 스위스제 목종이라던가… 헤, 좋지 않아?》
그는 총을 둘러멘채로 엉거주춤하니 서서 새까맣게 때가 오르고 군데군데 찢어진 무명보자기를 끙끙거리며 풀었다.
《이건 빨갱이몰수품이야. 남들두 이것저것 가져가길래 나두 꿍쳐왔지. 지금 리위원장 하던 빨갱이 조영모네 소두 끌어다가 잡구 재산두 마구들 가져가고있어!… 헤, 아무것두 모르구있으면서 뭘 그래. … 이젠 우리 부농들의 세상이 다시 왔단 말야.》
음전은 경멸과 멸시로 이발을 악물고 그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만일 눈총으로 사람을 죽일수만 있다면 그 녀자는 《치안대》완장을 팔에 걸고 들어온 그를 벌써 죽여버렸을것이다. 음전의 얼굴은 무섭게 이그러졌고 쏘아보는 눈초리에서는 독을 뿜는것 같았다.
《총을 당장 내버리지 못하겠어요?》
그 녀자는 차디찬 경멸과 이제까지 그렇게 한적 없는 천대와 멸시조로 내쏘듯 말했다.
《엉?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된거요?》
그는 대단히 놀랍거나 화가 날 때 자주 이렇게 말하군 하였는데 그것은 너무 놀라서 다른 말이 늘쌍 생각나지 않았던것이다. 그는 습관처럼 눈만 섬벅거렸다.
음전은 방바닥에서 번들거리는 벽시계를 와락 집어들고 방문을 밀어제꼈다. 그리고는 두말없이 뜨락 어딘가로 그것을 힘껏 내던졌다. 챙가랑!— 벽시계는 몇해째나 뜨락안에서 굴러다니는 도끼자리가

많이 난 옹이투성이의 나무토막에 떨어져 박산이 났다.

《엉?… 이게 정말… 죽여버릴테야!》

버드렁이는 본시 자기가 늘쌍 눌려지낸 울화가 터진때문인지 아니면 벽시계가 아까와서인지 성이 머리끝까지 나서 정신병자의 발작처럼 꽥 고함을 질러댔다.

《쏠테야! 난 죽인다면 죽여!…》 하고 버드렁이는 총을 벗어들고 겨냥이라도 하는것처럼 한쪽눈을 지그시 찌프렸다.

음전은 기가 막혔다. 짤막한 경련이 그의 온몸을 타고 흘렀다. 가슴이 찢어지는것 같았고 심장도 어딘가 아래쪽으로 곤두박히듯 굴러떨어지는것처럼 느껴졌다. 그처럼 천박하고 어리석고 잔인스러운 남편에 대한 새삼스러운 경멸과 모멸감이 치솟아올랐다. 그래도 오늘까지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그날그날 눈물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자기, 그러면서도 저 인간과 한지붕아래서 참고참으며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녀자는 흐흑… 하고 아직까지 남앞에서 울어본적 없는 울음을 쏟았다.

(나의 운명은 어쩌면 이렇게도 기구하고 불행할가?… 세상에 한번 태여나서 남들처럼 가정의 행복이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 이것이 어머니가 말한 팔자란것인가. …)

《여보, 웬 울음이여? 아무렴 내가 총을 쏠줄 알구그래?… 헤, 그저 그래본거래두!ㅡ》

버드렁이는 그 녀자의 어깨를 흔들며 중얼댔다.

음전은 나직이 울었다. 그러나 오랜만에 터친 울분과 슬픔에 찬 그 녀자의 울음소리는 힘찼다. …

20

마을의 모든 집들처럼 임성욱목사의 집에도 무시무시한 공포의 검은 그림자가 깃들어있었다. 더구나 그의 집에는 인민군부상자까지 있어 더욱 불안하였다. 집도 이제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지 못했다. 자물쇠나 든든한 빗장도 지금은 사람들의 재산과 목숨을 지켜줄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집에서도 모두 움속이나 깊숙한 방공호, 허청간에 숨어있었다. 그들은 징박힌 미군병사놈들의 구두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몸을 흠칠흠칠 떨었다. 이제는 법이란 전혀 없었다. 재판도 법률도 질서도 제도도 없었다. 다만 명령이 있을뿐인데 곳곳에 붙은 어느 명령문이나 포고를 막론하고 모두 총살이란 문구로 위협하고있었다. 그보다 가벼운 형벌은 미점령군에게는 없는것이다. 그것도 총을 쥔 어떤 병사든지 즉석에서 제멋대로 내릴수 있고 집행할수 있는 명령이였다. 총쥔 놈이 《저놈 죽이라!》, 《저새끼를 잡아라!》 하고 웨치기만 하면 곧 즉석에서 총살되고 잡혀가는것이다. 리유와 근거나 까닭이란 특별히 없었다. 하고싶은것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수 있는것이 점령한 미제침략군의 《권리》인것이다. …

(너는 도대체 무엇하려고 이 땅에 아직까지 살아있는것이냐?… 무엇을 하려고?)

임성욱목사는 며칠째 방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생각하던 끝에 밖으로 나가볼것을 결심하였다. 그는 원래 온화하면서도 원기있고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였으나 지금의 그는 그자신도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련하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마침내 임성욱은 며칠간의 두문불출을 끝내고 스스로 집을 나섰다.

마을로 나온 그를 새로운 낯선 무시무시한 세계가 에워싸고있었다. 이전에 깨끗하고 풍요하였으며 질서정연하던 정든 마을은 더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의 목소리와는 전혀 비슷하지도 않는 괴이한 미군병사놈들의 고함소리가 이쪽저쪽에서 들려오고있었다. 임성욱목사는 문득 자기가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어떤 딴나라에라도 온듯 한 착각을 느꼈다.

(모든것이 달라졌구나!) 하고 임목사는 비통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큰길쪽에서 총을 쥔 미군병사놈들이 수십명의 로인들과 녀인들, 아이들을 석당교로 끌어가고있었다. 놀랄대로 놀라고 눌릴대로 눌린 사람들은 총부리에 포위되여 끌려가면서도 자기들을 어디로 무엇하려고 몰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알려고도 하는것 같지 않았다.

죽이려는것인지 아니면 고문하려는것인지 혹은 고역을 시키려는것인지… 그들은 공순한 양처럼 몰고가는대로 허둥지둥 걸어갈뿐이다.

울음소리마저도 들리지 않는다. 습기머금은 눅눅하고 차거운 강바람이 사람들을 후려친다. 어질고 착하고 순박한 사람들을 살륙하려고 미군병사놈들이 끌고가는것이다. …

임성욱은 참을수 없는 모욕감과 가슴이 터질것만 같은 사무친 감정을 누르며 골목길을 걸어갔다.

마을은 미국강점군의 감시하에 놓여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 하찮은 웨침, 바람소리, 온갖것에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랬고 고양이의 울음소리, 처마밑에서 푸릉푸릉 날아나는 새소리를 듣고도 전률할 지경이였다.

(악마들이야!—) 하고 임목사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그가 할수 있었던 가장 혹독한 분노의 욕설은 《악마》라는 말이였는데 임성욱은 이런 말을 극도의 증오심이 치솟을 때 입속말로 하는 최대의 욕설이였다. 그는 불쑥 골목들과 큰길에 나다니는 사람이 없음을 깨달았다. 마을은 텅 빈것처럼 조용하였다. 마치도 마을에 있는것이 아니라 공동묘지들이 있는 산속처럼 무시무시한 정적이 숨가쁘게 느껴졌다. 마을은 혀를 뭉청 잘리우고 간신히 신음하고있는것만 같았다. 이따금 무슨 그림자들이 수수대울타리근방에서 얼른거리다가 골목을 급급히 달려가 대문뒤로 사라져버리군 하였다. 어딘지 저편 닫혀있는 창문안에서는 삶이 꿈틀거리고있으련만 사람의 목소리들은 그 어느 문틈도 뚫고 밖으로 흘러나오지 못하고있었다. 굴뚝들의 연기조차 여위고 희미했다. 연기는 소스라쳐 허공에서 맴돌다가 놀랜듯 급급히 사라져버린다. 문득 임목사의 곁으로 낯익은 사람 몇이 달려지나갔다. 그는 웬일인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귀속말로 불렀다. 그도 역시 어느덧 거리의 괴로운 침묵속에 삼키워 정든 자기의 마을에서도 귀속말로 불렀던것이다. 그러나 마을사람들은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한듯 그냥 지나쳐버렸다. 그 사람들은 저 멀리로 뛰여가면서 이상하고 괴이한 동작을 해보였다. 그러한 행동을 아직 임목사는 일찌기 이 마을사람들속에서 본 일이 없었다. 무엇이든 주의해보기를 겁내듯이 멀리 지나쳐서 흘끔 돌아보고는 금시 전기에 닿은듯이 홱— 고개를 돌리더니 울타리안으로 사라졌다. 사람들은 서로 만나보고 마주서서 말하는것조차도 두려워하고있는것이다.

임성욱은 혼자서 걸었다. 낮익은 골목들과 거리에서 울리는 그의 발자국소리는 가지가지 추억들을 불러오는듯 했다. 그 추억들은 마치 산울림처럼 골목들과 거리와 언덕들, 서강가와 내가들… 곳곳마다에서 날아들었다. 임성욱은 여기서 출생했다. 그는 여기서 자랐고 이곳에서 장가들었다. 여기서 그는 아장아장 걷는 딸애의 손목을 잡고 산보를 하였으며 여기 례배당에서 설교를 했었다. 이곳에서 부모님들이 돌아가셨고 딸애가 성장하였으며 임목사 역시 여기서 지금까지 한생을 살아온것이다.

그러나 지금 모든것은 죽은듯 고요했다. 마을의 주인은 점령한 이방인—미군병사놈들인것이다. 마을사람들의 떠들썩한 흥겨운 생활은 압살되여버렸으며 웃음소리는 간곳없이 사라져버렸다.

임목사는 어느사이 자기도 모르게 장거리까지 더듬어왔다.

(장날이면 여기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흥성거렸던가!)

안악, 재령, 신천을 련결하는 길목좋은 이 장거리는 어느 큰 군소재지의 장마당보다 더 풍성했고 흥성거렸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이 장거리에서는 마차며 달구지들이 길목이 메이게 삐걱거리며 오고갔으며 멀고 가까운 마을들에서 장보러 온 사람들로 일종의 흥겨운 수라장을 이루군 했었다. 서강가의 나루에는 멀리 평양에서까지 배로 물건들을 싣고와서 쌀을 실어갔었다. 물산 많은 풍성한 장거리, 무늬가 아롱아롱한 수박과 참외들을 쌓은 탑들이, 김이 무럭무럭 나는 삶은 소고기, 돼지발쪽, 생선들과 경쟁하듯 나란히 솟아있었고 유기점, 질그릇장터는 잘 구워 윤기나는 질그릇, 질동이, 오지그릇 그리고 세수대야, 놋그릇들이 해빛에 번쩍거렸었다. 장난감장사가 여러가지 소리로 불어대는 천진란만한 호르래기소리는 장마당의 혼잡한 합성속에 뒤섞여 간신히 들리군 하였다. 더우기 닭장터에서 유쾌하게 들리는 수닭의 울음소리들은 얼마나 듣기 흥겨웠던가! 닭울음소리를 제일 좋아하는 임성욱은 그때 청좋고 잘생긴 수닭을 골라서 사가군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장거리가 텅 비고 쓸쓸했다. …

임목사는 장거리를 지나 불타버린, 풀대만 무성한 례배당근처에서 마침 전쟁전에 세상 떠난 자기의 안해를 지성껏 치료해준 최주부를 만났다. 그 역시 오래동안 중병에 시달린 사람처럼 누렇게 뜨고 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멍청해보였다. 며칠사이에 온통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된 그를 처음에는 몰라볼 지경이였다.

《최주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임목사는 놀라면서 목메인 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백발이 된 최주부는 갑자기 벙어리라도 된듯 잔뜩 공포와 수심에 눌려 멍청히 바라볼뿐 말이 없었다.

《최주부, 왜 그러시오?… 혹시 집에 무슨 큰 참사라도 있은게 아니요?》

《임목사,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일곱이 한꺼번에 죽었소그려!—》 하고 최주부는 입속말로 중얼중얼했다.

《최주부, 그런데 무슨 죄로 죽였소?》

《죄는 무슨 죄겠소. 아들녀석이 현물세판정원을 늘쌍 했는데… 과하게 부과하도록 했다는거지요. … 그런데 죽은 시체마저 어디 있는지 대주지 않는구려. 차라리 이 늙은게 죽었드라면… 한데 이것 보우, 임목사, 나는 저희놈들 병을 봐야겠기에 살려준다는구려.》

엄청난 재난을 겪은 최주부는 넋빠진 사람처럼 평지에서도 허청거리고 발을 걸채면서 련속 온몸을 흠칫흠칫 떨고있었다.

《허—》 하고 임성욱목사는 머리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세상에 살다가 이런 참혹한 일도 보는가! 인간의 가죽을 썼다면 인간의 마음이 쪼각만큼이라도 있으련만… 참으로 짐승도 낯을 붉힐 일이요!…》

《임목사, 말을 조심하우. 그런 말을 하면 저놈들이 가만놔두지 않을텐데. 조심하지 않으면… 파리처럼 죽고마우!》

최주부는 사방을 둘러보며 경계하듯 수군수군했다. 하지만 임성욱목사는 통곡하듯 분노하여 줄곧 탄식했다.

《악착한 짐승들보다도 더 잔악한 무리들이 아닌가. 사람죽이기를 파리죽이듯, 풀베듯이 하고있으니 그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소.》

《임목사, 진정하시우. 지금이 어떤 때인지 모르고 그러오? 지금 세상이 온통 무법천지로 돼버렸소. 〈저놈 잡아 죽여라!〉 하면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잡아다가 죽이는 형편이요. 시방 저기 서강은 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피와 시체가 흐르고있소. 석당교우에서 찌르고 쏘아죽

이고 강물에 처넣어서… 난 지금 거기로 가족들 시체라도 찾아볼가 해서 가던길이라오. 그럼 임목사, 몸조심하시우—》

최주부는 허청허청 평지에 발을 자꾸 걸채면서 석당교쪽으로 걸어갔다. 쫘르릉… 신작로와 미처 가을하지 못한 행길가의 목화밭을 마구 짓뭉개고 물어뜯으며 미군땅크들이 지나가고있었다. 그뒤로 미친듯이 달려가는 군용차우에서 상스런 미군병사 한놈이 껄껄 웃어대며 길바닥에다 버젓이 오줌을 내갈기고있었다.

《허—》 임목사는 혼자서 또다시 괴롭게 탄식했다. 큰길가에는 뻣뻣한 시체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몸뚱이가 그냥 드러나있었고 코며 볼이며 머리가 온통 상처투성이였다. 지금 목사의 눈앞에는 마치 꾸며낸듯 한 비인간세계— 아무런 죄도 없이 죽은 사람들과 공포에 질려 숨어다니는 산 사람, 호탕하게 웃어대며 아무렇게 짓밟고 쏘아대는 카키색군복의 미군병사놈들이 펼쳐져있었다. 임목사의 곁으로 공포를 머금은 사람들이 달려지나갔다. 아무러한 죄도 없음을 자신들이 뻔히 알면서도 죄를 짓고 숨어다니는 사람들처럼 덤비며 도망치듯 내닫고있었다. 모든 죄는 그들이 사람이라는데 있는것 같았다.

멀지 않은 곳에서 임목사는 별안간 웨치는듯 한 괴이한 소리에 와뜰 놀랐다. 마을의 웃쪽등성이에는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받는 낡은 풍차가 서있었다. 바로 그 조금 못미처 둔덕의 밭고랑에 두명의 꺽두룩한 미군병사놈이 독실한 기독교신자였던 로파와 그의 두 손자를 향해 총을 겨누고 고함을 질러대고있었던것이다. 커다란 검붉은 구뎅이가 입을 하늘로 쳐든 앞에서 나어린 손자들은 질겁하여 자지러지게 숨넘어가는 소리로 울고있었다. 공포와 절망으로 굳어진 로파는 미처 말을 못하고 임목사를 향해 구원을 바라듯 안타깝게 손만 허우적거리고있었다.

임성욱은 불시에 달려들어 미군병사놈들의 총을 빼앗을수는 없을가 하고 자기로서는 도저히 하지도 못하고 할수도 없는 일을 엉뚱하게 생각했다.

미군병사놈들은 허연 이발을 드러내고 히물히물 웃고있었는데 그놈들은 두 아이의 자지러진 울음과 군화발밑에서 절망적으로 이발을 떡

떡 쪼으며 턱을 떠는 로파를 보는것이 대단히 유쾌하고 즐거운 모양이였다. 미군병사놈들은 좀더 놀려보려고 총을 쏘는 시늉을 하면서 히죽거리며 물끄러미 바라보고있었다. 총구앞의 로파의 얼굴 주름살에는 공포와 애원이 묻혀있었고 벌겋게 충혈된 눈에는 증오가 엿보였다.

임성욱은 무작정 뚜걱뚜걱 그쪽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로파는 목사가 자기를 구원하러 오는줄로 알고 손을 허우적거리며 마주 달려오려다가 미군병사놈의 발길에 채워 풀썩 모재비로 쓰러졌다. 그러나 로파는 쓰러지면서 임목사를 향해 절규하듯 소리를 질렀다.

《목사님, 불쌍한 우리 애들을 좀 살려주시우! 세상에 이런 악착한 놈들이 어디 또 있습니까! 목사님ㅡ》

《할머니,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임목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천하에 이처럼 악착하고 흉악한 놈들이 어디 있시갸. 두 손자녀석들중에 한 녀석을 내 손으로 생매장하면 한 녀석만은 살려주겠다는구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셋을 일시에 죽이겠다는구려!》

《할머니, 혹시 무슨 죄라도 지었는가요?》

《죄는 무슨 죄를 지었겠시갸! 이 애들의 애비가 인민군대에 나갔다는게 죄라는거지요, 목사님!…》

로파는 절망한 목소리로 애타게 호소했다.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굽어보시겠는데 어찌하여 이런 악마들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시갸? 목사님!ㅡ》

임목사는 뭐라고 말하려 하였으나 너무도 억이 막혀 말을 못했다.

그는 모호하게 손짓하며 미군병사놈들에게로 다가섰으나 우악스런 발길에 걷어채워 비칠거렸다. 미군병사들은 뭐라고 목사에게 고함을 질러대더니 곧바로 그의 눈앞에서 두 어린아이를 향해 겨냥도 하지 않고 총을 쏘아댔다. 그다음 로파에게 련발로 사격했다.

《하느님, 이 악귀같은 놈들을…》

로파는 비참하게 쓰러지면서도 두 손자를 끌어안으려고 두손을 내뻗쳤으나 허공을 그러쥐며 허우적거렸다. 그리고는 잠잠해졌다.

임목사는 눈먼 사람처럼 허청거리며 둔덕에서 내려섰다.

(목사님, 하느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악마들에게 천벌을 내리지 않

시까?…) 하는 로파의 마지막웨침이 그냥 들려오는듯 했다. 하얗게 질린 그가 비칭거리며 집쪽으로 돌아오는데 맞은켠 길에서 20～30명가량의 아낙네들과 로인들이 새끼줄에 묶이워 끌려오고있었다. 임성욱은 그들이 가까이로 마주오자 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었다. 그들속에는 낯익은 마을사람들과 교인들도 있었다. 임목사는 마을사람들을 어디로인가 끌고가는 총멘 《치안대》놈에게 다가서며 물었다.

《여보시오, 이 숱한 사람들을 도대체 뭣하러 끌고가오?》

《그런건 알아서 뭘해? 잔치집에 몰구가서 술대접시킬가봐 그래? 석당교로 끌고가서 저승으로 보내주자는거야!—》

《치안대》놈은 열에 떠서 제정신이 아닌 모양 턱을 들까불며 사납게 소리쳤다.

임목사는 목을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 비통한 목소리로 길게 탄식했다.

《허— 인간세상이 망하려는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면 하늘이 무심할가?—》

《뭐야? 이새끼, 빨갱물이 단단히 들었댔구나!》 하고 《치안대》놈은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무지막지하게 임성욱의 턱을 내질렀다.

《뭐야, 무슨 일인가?》

뒤따라오던 《치안대》대장 홍태국이 반들반들한 얼굴에 살기를 띠고 따지듯 물었다.

《대장님, 이 개새끼같은 목사놈이 빨갱이들을 죽인다고 하늘이 무심치 않을거라니, 뭐니 하고 개수작질을 하지 않겠시까!》

《그래? 그놈 잘 만났다. 우리 일에 협력은 안하고 뭐 하늘이 어째서? 당장 묶으라!…그게 빨갱이들이 하는 선전과 같은 수작이야!》 하고 홍태국이 눈을 깜박거리며 독살스럽게 웨쳐댔다.

순식간에 우르르 술에 취한듯 한 《치안대》놈들이 달려들어 임성욱목사를 둘러싸고는 무작정 치고 발길로 차고 두들겨패면서 꽁꽁 온몸을 새끼줄로 묶었다.

《살륙만행을 당장 중지하시오. 비인간적인 이런짓을 감행해서는 절대로 안되오. 이건 일찌기 있어본적 없는 야만적인 행위요!—》 하고 목사는 묶이운채 소리쳤다.

《닥치지 못하겠어? 빨갱이들처럼 그따위 수작질을 하면 총살이야!》

한 《치안대》놈이 발길질을 하면서 코맹맹이소리로 위협했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소? 살륙을 당장 그만두시오. 제 동포, 제 마을사람들을 이렇게 죽이는건 일찌기 없었소. 이래선 안되오! 이러지 말아야 하오!—》

온몸이 피투성이 되여 어디론가 끌려가면서 임성욱목사는 피타는 목소리로 절규하고 또 절규했다.

21

쪼각난 검은구름장들이 숲상공우로 흘러가고 벌판쪽에서 불어오는 차고 싸늘한 바람이 룡진의 달아오른 잔등을 후려치며 벌써 오래전에 잎들이 떨어져나간 잡관목들사이에서 휘파람소리를 울리고있었다. 그는 지금 혼수상태에 있는것 같았다. 의식도 감각도 다 흐리마리하였다. 숲속에는 어느덧 누습한 황혼의 장막이 커다랗고 부드러운 천처럼 사위를 기분좋게 감싸려고 하였으나 공기는 포연과 안개로 꺼분꺼분하였다.

룡진은 늙은 소나무밑에서 울부짖는 찌르는듯 한 날카로운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화약냄새가 입안에서 씁쓸하게 느껴졌다. 그는 숲속을 빠져나가 구월산쪽으로 걸어가려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단지 자기 개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혼자 숲속에 숨어있을수는 없었던것이다. 희미하고 어슴푸레한 그의 의식속으로 어딘가 맞은켠쪽에서 발자국소리같은것이 아슴푸레 들렸다. 그 소리는 어딘지 아득히 멀리서 들리는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지척에서 들려오는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였다.

(환각인가?…)

그런것 같지는 않았다. 룡진은 권총을 꺼내들었다. 탄알을 전부 소모해버린 빈 권총이였다. 그것을 무엇때문에 꺼내들었는지는 그도 딱히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꺼내들고 꽉 틀어잡았다. 그런데 홀연 꿈속에서처럼 누군가를 찾는듯 한 부름소리가 들려왔다.

《위원장동지!—》

(나를 찾는 소린가?)
룡진은 정신을 가다듬고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다. 다시금 찾는 소리가 이번에는 가까이에서 분명하게 들렸다. 나지막한 소리였으나 어딘가 귀에 익은 서기의 목소리같았다.
(경호인가?…)
룡진은 앞을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조금씩조금씩 마주 걸어나갔다. 잎떨어진 빽빽한 오리나무들사이로 당돌한 서기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경호!》
《위원장동지, 여기 계신걸 모르고 온 숲속을 다 헤매면서 찾았습니다.》
《그렇소?… 한데 동무는 왜 제멋대로 행동하오? 시인의 딸애와 부상당한 은행책임자는 어떻게 하고 이곳에 나타났소?》
룡진의 엄격한 추궁에 서기는 일상때처럼 당돌한 표정으로 태연하게 보고했다.
《위원장동지, 념려마십시오. 지시는 정확히 집행했습니다. 그들을 무사히 구월산밑에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즉시 되돌아오는길입니다. 위원장동지, 그런데 제가 그만 차를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차라니? 그건 무슨 소리요?》 하고 룡진이 얼마간 놀라며 물었다.
《운전사동무가 보이지 않기에 구월산에서부터 제가 혼자서 위원장동지의 차를 몰고오드랬는데… 그만 놈들의 추격을 받고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서기는 그 어떤 책벌이나 엄한 추궁이라도 받으려는듯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경호, 차는 해서 뭘하오. 적들이 사방에서 득실거리는판에…》
《그래두… 놈들 포탄에 깨여진게 분해서 그럽니다.》
《차걱정은 하지 말라구… 하지만 경호, 그런 모험을 해서는 안돼.》
당돌한 서기는 벌죽벌죽 웃었다.
《위원장동지, 제가 구월산밑에서부터 차를 타고 오느라니까 놈들은 처음에는 눈치를 못 채고 저희놈들 차인줄로 알더군요. 어떤 놈은 깍듯이 경례까지 하던데요.》

《경호!》
룡진은 적들이 욱실거리는 삼엄한 정황속에서도 당황함이 없이 태연하고 대담하게 행동하는 당돌한 젊은 서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고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엄한 목소리로 추궁했다.
《자기 목숨을 가지고 그런짓을 해서는 안돼. 목숨은 자기의것만이 아니라는걸 어느때든지 결코 잊어서는 안되오. 명심하라구, 경호!》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동지!》
서기는 나무람을 타지 않고 선선히 웃으면서 대답하였다.
《한데 위원장동지, 놈들이 위원장동지가 여기 어딘가에 남아있는것을 눈치차린것 같습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야겠습니다. 이제 놈들이 여기를 포위하고 수색할수 있습니다.》
《음, 이젠 떠나자구.》
룡진은 나무가지들을 붙잡고 신음소리를 삼키며 절름거리면서 앞으로 걸어나갔다.
《아니 위원장동지, 다치셨구만요!》
룡진의 오른쪽양복바지가랭이가 찢기고 거기에 피자국이 내배인것을 발견하고 서기가 놀라 소리쳤다.
《안되겠습니다. 위원장동지, 그 몸으로는 걷지 못합니다. 에이참, 내가 곁에 있어야 하는건데 그만…》
서기는 자기가 곁에 없어서 룡진이가 부상이라도 당한것처럼 불만을 터뜨리며 분해하였다.
《일없소. 경호, 내 걱정은 하지 마오. 여기 잠간만 앉자구.》
룡진은 점점 다리가 부어오르면서 못 견디게 쑤셔대고 온몸이 불로 지지는듯 한 동통을 느꼈다.
《위원장동지, 제게 업히십시오.》
《아니, 그만두오. 이제 동무는 혼자서 빨리 구월산으로 떠나야 하겠소.》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입니까? 부상당한 위원장동지를 홀로 남겨두고 저더러 떠나라는것입니까?… 그만두십시오!》
《나의 명령을 듣소. 동무는 될수록 빨리 구월산에 도착하여 나의 지시를 전달해야 하오. 최고사령부에 즉시 무전으로 다음과 같은 나

의 보고를 올리도록 해야겠소. 경호동무, 쓸것이 있소?》
《녜.》
서기는 재빨리 품속에서 늘 가지고다니던 자그마한 수첩과 만년필을 꺼내들고 침착하게 기다리면서 생각깊은 시선으로 룡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에는 그 어떤 어렵고 바쁜 정황속에서도 자기가 수행한 사업과 일거일동에 대해 장군님께 보고올리는것을 철칙으로 삼으며 생활에서 드팀없이 실천하는 룡진에 대한 존경과 경의와 감동이 어려있었다.
《준비가 됐으면 받아쓰시오. 최고사령부에 올리는 무전의 전문은 다음과 같소!》 하고 룡진은 마음을 가다듬는듯 잠시 침묵했다.
《쓰시오.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 점. 정확히 썼소?》
《썼습니다.》
《장군님께서 도내에 주신 과업들은 집행완료하였음, 점. 현재 도내의 곳곳에는 적들이 침입하였음, 점. 장군님께서 주신 강령적인 말씀을 받들고 구월산을 비롯한 도내의 각 지구들에 인민유격대를 조직하고 적들과 싸울 목적으로 당원들과 애국적인민들이 집결되고있음, 점. 현지의 정황이 급변하여 구월산으로 들어가려고 함, 점. 이곳에서 도내 각 지구 인민들의 유격투쟁을 장군님께서 주신 지침대로 이끌어나가겠음, 점. 우리 공화국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장군님께서 옥체건강하실것을 삼가 기원하면서 리룡진 보고 드림, 점. 정확히 다 받아썼소? 동무가 쓴것을 한번 읽어보오.》
서기는 룡진이 엄숙한 기분으로 또박또박 불러준 무전문을 그도 역시 경건한 표정으로 점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확히 단숨에 외우듯이 내려읽었다.
《좋소. 그럼 이제는 지체말고 곧 구월산으로 떠나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동지, 저기 보이는 외딴집까지만이라도 위원장동지를 부축해드리고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제 발걸음이 가벼울것 같습니다.》
승낙을 기다리지도 않고 당돌한 서기는 룡진을 일으켜 부축하고는 산기슭의 외딴집앞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그들이 외딴집 가까이로 접근할수록 벌떼가 붕붕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오고 향기 그윽하고

달작지근한 꿀냄새가 풍겨왔다. 서기는 부근부근한 풀밭에 룡진을 앉히고 민첩하게 문앞으로 다가갔다.

《주인님 계십니까?》

집안에서는 일체 응대하는 소리도 없고 인기척도 없었다. 그러더니 잠잠하던 집안에서 정정한 백발의 로인이 조용히 문가에 나타났다. 그 로인은 놀라는 기색도 없이 서기에게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다.

《누구를 찾으시오?》

《로인님! 한가지 중요한 부탁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서기는 로인에게로 다가가 집안의 형편을 료해하고나서 찾아온 사유를 숨김없이 그대로 밝혔다. 그러자 백발의 로인은 서기를 나무람하며 증을 냈다.

《참, 젊은 사람이 어쩌면 궁냥이 그런가. … 어서 빨리 부상당한 그 어른을 모셔오라구, 몹시 괴로워하고있을게 아닌가. …》

《로인님, 곧 모시고 오겠습니다.》

서기는 얼른 되돌아와 룡진을 부축하고 벌치는 집으로 들어섰다. 마주나오는 주인로인의 얼굴은 온통 틈새기같은 주름살이 그물처럼 덮여있었으나 허리는 곧고 혈색도 좋았으며 몸도 정정했다. 그 로인과 동갑쯤 되여보이나 재빠른 동작으로 보아서는 훨씬 젊었음직한 작달막하고 민첩한 로파가 방안에서 인사하며 룡진을 극진하게 맞이하였다. 그때 불쑥 어둑컴컴한 웃방문이 벌컥 열리고 거기서 뜻밖에도 도소비조합련맹 부위원장인 박광훈이 반색을 하며 뛰여나왔다.

《도위원장동무!》

《광훈동무가 아니요?》

광훈은 시인일가와 함께 구월산으로 들어가던 도중 갑자기 적들이 달려들어 여기에 피신하였었다고 전후사연을 자세히 말했다. 서기는 때마침 이곳에서 만난 광훈이와 양봉장로인내외에게 부상당한 도위원장의 상처를 잘 치료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위원장동지, 그럼 떠나겠습니다.》

서기는 아직도 마음이 놓이지 않는 모양 룡진의 고열로 상기된 얼굴과 부상당한 다리를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경호동무, 부득이한 경우라 해도 목숨을 가지고 모험하는것은 삼

가하오!》 하고 룡진이 서기를 엄한 시선으로 응시하면서 말을 덧붙였다.

《목숨은 자기 개인의것만이 아니라는것을 항상 잊지 마시오!》

《위원장동지, 제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시를 집행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저 치료를 잘하면서 계시십시오.》

당돌하고 담대한 서기는 무슨 말인가를 더 하려다가 고쳐생각한듯 훌쩍 돌아서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숲속길로 사라졌다.

과묵하고 조용한 주인내외는 말없이 룡진의 독을 쓰기 시작한 상처를 소금물로 씻고 손수 만든 고약을 붙이고나서 흰 무명천으로 정성껏 싸매였다. 한평생을 한적하기 그지없는 이 외딴집에서 살아온 로인이였지만 불의에 들이닥친 사변에 조금도 놀라와하지 않고 태연하였다. 양봉장로인은 원래 세상에는 별일이 다 있고 사람의 생활에 무슨 일인들 없겠는가고 생각하는것 같았다. …

밤도 이슥했다. 양봉장주인내외는 저녁식사를 끝내고 금시 정해놓은 자리에 눕더니 굳잠이 들고, 불안한 목소리로 도간도간 한숨을 쉬여가며 끝없이 이야기를 늘어놓던 광훈이도 지쳐버린듯 잠잠하였다.

룡진은 파도처럼 몰려드는 다리의 동통때문에 잠들지 못하고있었다.

(경호가 적들과 조우만 하지 않았으면 지금쯤은 무사히 도착했겠는데…)

불현듯 룡진은 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긴장했다.

《저건 무슨 소리요?… 룡진동무, 자오?》 하고 불안을 감추지 못하면서 어느새 광훈이가 벌떡 일어났다.

《가만 좀 있소, 차의 발동소리같은데…》

룡진의 침착한 목소리는 잔잔했다. 산밑에서 부르릉거리던 발동소리는 차츰차츰 커지더니 양봉장 가까이에 와서 뚝 멎었다. 누군가 차에서 내려서는 기척이 들리고 이어 외딴집의 뜨락으로 다가오다가 털썩 땅에 쓰러지면서 신음소리처럼 가느다란 목소리로 《위…원장…동…지》 하는 부름소리가 들렸다.

《경호!》

긴장했던 룡진이 불시에 방문을 열어제끼며 뜨락으로 달려나갔다.

캄캄한 뜨락에는 서기가 쓰러져 모지름을 쓰며 괴롭게 신음하고있

었다.

《경호!… 경호동무!—》

룡진은 목메이게 소리쳐 불렀으나 의식잃은 서기는 숨져가고있었다. 광훈이와 양봉장로인이 젊은 서기를 안고 조심조심 방안으로 옮겨갔다. 방안의 등잔불빛에 비친 서기의 가슴에는 탄알자국들과 피자욱이 얼룩져있었다.

《경호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경호, 말 좀 하라구!—》

룡진이 목메여 애타게 불렀다. 무거운 불안에 잠긴 어스레한 방안에는 숨막힐듯 한 정적이 흐르고있었다.

서기의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감긴 눈이 가늘게 떨리였다. 그리고 또 한동안 아무 기척도 없었다. 두눈을 꽉 감고있는 그의 찌프린 창백한 얼굴은 마치 지금 고통과 싸우고있는 사람같았다. 그러더니 잠잠하던 서기의 눈이 다시 가늘게 떨리였다. 그다음 힘들게 눈을 떴다. 서기의 시선은 조금후에 룡진을 알아본듯 하였다.

《경호동무!…》

룡진은 목이 꽉 메여올라 말을 못하고 서기의 싸늘한 손을 틀어잡았다. 서기의 얼굴은 투명하다고 할만치 창백하였고 눈시울밑에는 퍼런 빛이 돌았다.

《도위원장…동지, 저때문에 너무 걱정 마…마십…시오. 구월산으로 가는 길옆에 적들의 군용찦차가 서있기에… 무전기까지… 있는… 그래 빼앗아몰고 여기까지…》

고통을 참으며 힘들게 말하는 창백한 서기의 얼굴에 꿈틀꿈틀 경련이 지나갔다. 그는 괴롭게 모지름쓰더니 비통한 표정인 룡진에게 미소를 지어보이려 했다.

《제가 또 참아내지 못하고 모험을 해서… 위원장동지한테 추궁을 받게 되였구만요. 하지만 과업은 수행했습니다. 빼앗은… 로획한 적들의 무전기로… 최고사령부에…》

마지막최후의 힘을 모으는듯 그는 후— 길게 숨을 내쉬고 힘겹게 말을 계속했다.

《위원장동지의 보고를 전했습니다. … 도내에 주신 과업들은 집행완료되였음. 전… 우리 공화국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장군님께서

부디 옥체건강하실것을 삼가 기원하면서…》

서기는 창백한 얼굴에 웃음까지 띄워보려고 애썼으나 말은 종시 끝맺지 못했다. 그리고는 괴로운듯 길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쭉 몸을 뻗치더니 잠잠해졌다. 몇시간전까지만 하여도 살아서 약동하였고 지시를 수행하려고 담대하고 쾌활하게 뛰여다니던 젊은 서기는 숨을 거둔것이다. 무엇인가 못다한 말을 하고싶은듯 벙싯이 열린 그의 입귀에서는 검붉은 피가 가느다랗게 줄지어 흘러내리고있었다.

《경호!—》

룡진은 입술을 푸들푸들 떨었다. 옆에서 광훈이 소리없이 주먹으로 눈물을 씻었고 양봉장로인은 꺼지게 한숨지었다.

(나는 끝내, 경호에게 끝내 따뜻한 말 한마디 못해주고말았구나! 때로 너무도 기특하고 만족해서 칭찬해주고싶은 때조차 찬양은 뒤로 미루고… 젊은 그에게 함께 일해온 오늘까지 엄하게만 늘 대했었지. …) 하고 룡진은 소리없이 울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정말 원통하게도 아까운 청년을 잃었구나!… 그는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였으며 또 방금전에는 얼마나 귀중한 과업을 수행하였는가를 알기나 했을지?…)

그는 희생된 젊은 서기의 얼굴을 차마 다시 들여다볼수가 없었다. 룡진의 온몸은 돌처럼 굳어져 감각을 잃어버린것 같았고 목안은 꽉 메여올랐으며 눈앞의 모든것은 흐릿하였다.

주인집로인이 말 한마디없이 방안의 농짝문을 열고 묵묵히 깨끗한 백포를 꺼내였다. 분명 그것으로 서기의 시신을 싸려는것 같았다.

룡진은 자기가 항상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칭찬해온 서기의 시신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깨끗한 백포로 감쌌다. 그런 다음 그는 주인집로인과 광훈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심조심 서기의 시신을 들고 밖으로 나와 산으로 올라갔다. …

어딘가 멀지 않는 곳에서 밤새의 가슴을 찢는듯 한 처량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인듯 한 어두운 숲속에는 꺼분꺼분하게 느껴지는 밤안개가 자욱하였다.

룡진은 억제할수 없는 비분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서기의 봉분앞에

묵묵히 머리를 숙이고 서있었다.
(고이 잠드오, 경호동무. 동무는 조국이 가장 큰 시련을 겪는 시절에 조선의 청년답게 최후를 마쳤소. 조국은 언제나 자기의 훌륭한 아들들을 기억할것이요.)
가슴을 찢는듯 한 밤새소리, 뒤따라 어디선지 접동새가 구슬피 울었다.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이윽고 룡진은 묵직한 머리를 들었다. 그는 양봉장로인에게 조용히 부탁하였다.
《로인님, 묘를 잘 돌봐주십시오. 우리가 놈들을 몰아내고 다시 돌아와서 시신을 옮겨가겠습니다.》
《도위원장어른, 친자식처럼 보살펴줄터이니 마음을 놓으슈. 내가 살아있는 한 나라위해 한목숨 바친 저 용감한 젊은이는 여기에 편안히 잠들어있을거웨다.》
《고맙습니다. 로인님!》
룡진은 눈물을 머금고 서있었다. 무수한 그림자들이 한덩어리로 빽빽이 뭉친 숲우에는 희읍스름한 달이 서리처럼 하얀빛을 뿌리며 덩두렷이 솟아있었다.
《광훈동무, 이제는 떠나야 할것 같소!》 하고 룡진은 혼자소리처럼 나직이 말하고 돌아서 걸었다.
《다리는 좀 나은가?… 힘들것 같은데…》
광훈은 절름거리는 룡진에게 침울한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은 퍽 나은것 같소.》
그러나 그는 다리가 점점 더 아파나서 억지로라도 아픔을 덜어보려고 필사적으로 안깐힘을 쓰고있었다.
《룡진동무, 안되겠소. 그 다리로는… 좀더 여기서 치료하고 떠나는게 좋을것 같구만.》
《아니요, 난 여기 숨어있을수 없소. 구월산으로 가야 하오.》 하고 룡진은 광훈을 돌아보지 않고 확고부동하게 말했다.
《참, 성미두… 지금 사방에 적들이 싸다니는데 그 몸으로… 가만, 이게 무슨 소리요?》
어딘지 숲아래쪽에서 물어뜯는듯 한 땅크의 우르릉대는 동음이 뚜

렷이 들려왔다. 그리고 어둠속 이쪽저쪽에서 버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탕— 조명탄이 하늘로 터져올랐다.

《룡진동무, 적들이요!—》 하고 광훈이가 외딴집 아래켠에서 욱실거리는 적들의 검은 그림자를 가리키며 불시에 몸을 떨면서 불안한 목소리로 웨쳤다.

그찰나 룡진의 가슴속에 서리서리 엉키였던 비분과 슬픔은 단숨에 가뭇없이 날려갔다. 그는 광훈이가 가리키는쪽으로 번쩍이는 시선을 돌렸다.

희미하게 드러나보이는 성긴 나무들사이로 미제침략군 병사놈들이 이쪽을 향하여 접근해오는것이 내다보였다. 탕— 또다시 숲상공에서 조명탄이 터졌다. 이제는 카키색군복을 입은 놈들을 똑똑히 볼수 있었다. 미군병사놈들의 시커먼 그림자가 뚜렷하게 사방에서 얼씬거렸다. 놈들은 꺼부정하게 허리를 굽힌채 엠완총을 배허벅에 눌러붙이고 포위환을 좁히면서 육박해오고있었다.

《룡진동무, 숲우로 달리자구!》

당황한 광훈이가 휘파람불듯 하는 잰 귀속말로 속삭였다.

《이제는 늦었소!》 하고 룡진이 긴장한 목소리로 짤막하게 응대했다. 그는 양봉장집의 뜨락가까이에 서기가 적들에게서 로획하여 몰고온 군용찝차가 서있는것을 눈여겨보고있었다.

광훈은 룡진의 등뒤에서 불의에 덮치듯이 닥쳐온 체포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바싹 말라든 입술을 혀로 추기며 당학질을 앓는 사람처럼 몸을 떨고있었다.

《룡진동무, 그럼 이제… 이제… 우리들은 여기에서…》 하고 광훈은 이발을 떡떡 소리나게 짓쪼으며 턱을 덜덜 떨면서 무슨 말인지 모호하게 더듬거렸다.

룡진은 제정신을 잃은듯 한 광훈의 공포가 불시에 그대로 자기에게 전류처럼 감전되면서 심장이 후드득 떨리는것을 감촉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무서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특별히 창조된 사람인듯 한 자기의 드세고 강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다.

《찝차쪽으로!—》

룡진의 침착한 이 짧은 웨침소리는 정신없이 허둥거리던 광훈을 불

시에 번쩍— 정신차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다음 그는 구령이라도 들은듯 앞에서 다리의 아픔을 참으며 내닫는 룡진을 뒤따라 찦차쪽으로 달려갔다.

룡진이 힘겨웁게 먼저 찦차안으로 들어서자 헐떡거리며 뒤이어 광훈이도 올라탔다. 부상당한 룡진의 다리는 모닥불이라도 디디고 선것처럼 화끈화끈 달아올랐다. 그 아픔을 이겨내며 운전대를 틀어잡은 룡진의 손바닥에는 진득진득한 액체라도 바른것처럼 땀이 즐벅하였다. 그는 주저없이 성한 왼쪽발로 힘껏 가속기를 밟았다. 발동이 걸렸다.

찦차가 부릉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자 룡진은 단호하게 속도를 높여 신속히 차를 앞으로 내몰았다. 찦차는 처음에는 길을 가리지 않고 황이 든 풀밭과 개울쪽으로 마구 내달렸다. 그러자 북이라도 두드리는것 같은 급사격이 자지러지게 탕탕 울리고 어둠속에 무수한 구멍을 뚫으면서 찦차우로 탄알들이 날아갔다. 그러나 찦차는 덜커덩거리면서 무사히 신작로까지 나왔다. 적들이 란사하는 탄알들은 련속 어둠속에 포물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옆으로 핑핑 소리를 내며 지나갔다. 뒤이어 포탄이 날아오고 사방에서 벙긋벙긋 불빛이 번쩍거렸다. 밤의 요란한 그 소음은 의식도 지각도 일시에 모두 뽑아버릴듯 하였다.

광훈은 얼굴이 까맣게 질려 우들우들 몸을 떨며 눈을 감고있었다. 어딘지 옆쪽에서 적기관총이 뚜루룩거리고 총알들은 길가의 잎떨어진 앙상한 아카시아나무며 전보대를 때리고 행길의 돌들을 까부시며 모질게 들추어댔다. 적땅크가 포화를 들씌우며 뒤따르고있었다.

찦차는 행길을 최속으로 내달렸다. 새까만 차창밖으로 끝날 때가 없을듯 한 어두운 밤이 휙휙 지나갔다. 신작로의 앞과 좌우의 논벌에서는 적포탄이 땅을 분수처럼 날려올리고있었다. 긴장하여 앞을 주시하며 차를 몰아가던 룡진은 죽은 사람처럼 굳어진채 말 한마디 없는 뒤의 광훈을 얼핏 돌아보았다.

《광훈이, 왜 그래. 어디 다쳤나?》

《아… 아니…》

공포에 질린 광훈이는 자신을 다잡으려고 애쓰면서 간신히 대답했다.

《떨리는가?…》 하고 룡진은 일부러 롱을 걸듯 다시 말을 던졌다.

《정신이 얼떨떨해져서…》

《공포에 눌려 정신을 못 차리면 멍텅구리가 되고말아.… 이제 저기 석당교를 건너 구월산밑에까지만 가면 돼!… 기운을 내라구!—》

룡진은 가슴이 못 견디게 답답한듯 웃옷을 벗어던졌다. 적땅크는 달리는 찝차가까이로 차츰 접근해오면서 련속 포탄을 쏘아댔다. 사람의 넋을 뽑는듯 한 작렬하는 포탄의 섬광, 땅이 깨지는 진동, 자욱한 먼지… 그러나 룡진은 주변의 삼엄한 정황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의식속에서 일체 무시해버리는지 와이샤쯔바람으로 장난군청년운전사들처럼 활기있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하였다. 문득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멀지 않은 행길앞의 검문소에서 총을 쥔 미군병사놈들이 무리를 지어 찝차를 정지시키려고 서성거리며 대기하고있었다.

《개놈들!》

룡진의 눈에서 무섭게 불이 일었다. 육박하듯 그는 찝차를 놈들의 한복판으로 그냥 내몰았다. 질겁한 미군병사놈들은 튕겨치듯 헤쳐져서 찝차를 향해 일제사격으로 총을 쏘아댔다. 차창이 불시에 깨져나가고 무엇인가 부서지면서 아츠러운 소리를 냈다. 룡진은 선뜩— 면도칼날같은 예리한 유리쪼각이 오른쪽이마를 째면서 날아가 떨어지고 피가 흘러내리는것을 감촉하였다.

(어림없는 수작말아, 차를 멈춰세우지는 못해!—) 하고 그는 완강하게 마음속으로 웨치면서 운전대를 틀어잡고 그대로 차를 몰아갔다. 저기 앞의 거뭇하게 보이는 석당교를 건느고 차를 왼쪽으로 꺾어 넓은 제방뚝을 따라 달려가면 한시간내로 구월산밑에 도착하게 될것이다. 바로 그 순간에 차앞에서 번쩍— 섬광이 일고 포탄이 작렬했다. 푸실푸실한 흙들이 분수처럼 솟아오르고 찝차는 행길밑의 가을한 논판으로 굴러떨어져나갔다.

포탄은 연방 날아와 터지고 총알들이 휙휙 날아갔다.

《룡진…동무!》

논판에 굴러떨어져 곤두박혔던 광훈이가 얼혼이 나간듯 한 거쉰 목소리로 불렀다. 문짝들과 차바퀴들이 떨어져나가고 만신창이 된 찝차곁에는 룡진이 의식을 잃고 피흘리며 쓰러져있었다.

《룡진동무!…》

광훈이가 허청거리며 다가와 몸을 대구 흔들며 불렀으나 그는 가느

다란 신음소리만 낼뿐 대답이 없었다. 광훈은 의식이 없는 룡진을 업고 물웅뎅이들이 창문처럼 보이는 진펄을 지나 거뭇거뭇한 벼동가리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비청거리며 걸어갔다.

22

광훈은 캄캄한 논벌의 벼동가리속에서 높아지는 룡진의 신음소리를 듣고있었다. 이제 여기서 빠져나갈 가망이 없다는 생각에 시달린 그의 마음은 더욱 괴로왔고 불안하였다. 다행하게도 별로 크게 부상당한 곳은 없었지만 그 역시 온몸이 어디라없이 사방 부어오르고 쑤시고 아픈데다 산만한 정신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는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여보, 광훈동무!》

그칠새없이 신음소리를 내던 룡진이 고열에 뜬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룡진동무, 좀 정신이 드오?》

《음, 난 일없소. 내 걱정은 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빠져나가오. 이제 곧 날이 밝겠는데… 그때는 더 위험하오.》

《어디로 간다고 그러오? 지금 놈들이 사처에 득실거리며 수색중인데…》

한풀 죽은 광훈이가 얼나간 사람처럼 분명치 않는 침울한 목소리로 속삭이듯 중얼거렸다. 룡진은 가물거리며 사라지려는 의식을 강한 의지의 힘으로 간신히 다잡으며 무슨 말인지 하려고 애썼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는 《광훈동무, 힘을 내서 구월산으로 빨리 가오.》 하고 말하려 하였지만 종시 말을 하지 못하고 또 정신을 잃고말았다.

광훈은 룡진의 말대로 혼자서 떠날 생각도 해보았지만 차마 그렇게야 어떻게… 하고 끝내 결심을 못했다. 심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신음하는 룡진을 허허벌판 벼동가리속에 남겨두고 떠날수는 없었다. 그런데다 사방 곳곳에 적들이 피워놓은 모닥불들이 보이고 어지러운 총성들이 간간이 들려오는 캄캄한 이밤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는지 그

방향도 결심도 확고하지 못했다.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의 혼탁된 머리속으로 홀연 가장 무서운 환영이 획—스쳐지나갔다. 그것은 자기가 체포되여 총살당하는,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쳐지는 그런 환영이였다.

광훈은 그런 환영을 털어버리려는듯 고개를 길게 내밀면서 지척을 가릴수조차 없는 밤안개속에 무엇인가를 분간해보려고 헛되이 애썼다. 사위는 여전히 허깨비같은 밤의 공간만이 펼쳐져있었고 때로는 가까운 곳에서 때로는 멀리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컹컹 개짖는 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불안하고 무시무시한 밤이였다.

(나에게는 이밤이 마지막일수 있다!…) 광훈은 자신이 이렇게 중얼거린것 같기도 하였고 생각만 한것 같기도 하였다.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인가?) 하는 느낌이 돌덩이처럼 긴장한 광훈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그러자 무서운 공포가 그의 정신을 물어뜯기 시작하였으며 심장은 동물적공포심에 옥죄여들었다.

광훈은 어깨를 으드득 떨며 망연자실과 자포자기상태에 빠졌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기진맥진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깜박 잠들었다. 몇분후 광훈은 소스라쳐 깨여나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는 그 짧은 잠속에서 미군병사놈들에게 자기가 총살당하여 벌레들이 우글거리는 더럽고 어지러운 시궁창속으로 구겨박힌 꿈을 꾸었던것이다. 한순간 선뜻하게 등골을 달리는 소름이 광훈의 머리를 찍어 눌렀다.

그는 정신나간 사람처럼 괴상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마침내 꿈이였음을 깨닫고 온몸의 맥이 쭉 빠져 앉아있을 힘도 없었다. 그는 쓰러지듯 누웠다. 그런데 무엇인가 알지 못할 불투명한것이 그의 눈을 가리워 앞이 보이지 않았다. 광훈은 자기 안경을 무엇이 가리웠는가 하여 안경을 얼른 벗어보았다. 그래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문득 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눈물을 씻었다.

(그런데 어째서?… 어째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광훈은 그 몸서리쳐지는 무시무시한 꿈을 다시 회상하고 공포를 느끼며 생각했다. 그는 도저히 막을수 없는 힘으로 몰려드는 공포를 이겨내려고 무진 애를 썼다. 광훈은 무섭게 덮쳐드는 공포심을 이겨내

고심었다.
(그러나 이제 날이 밝으면 이 허허벌판은 샅샅이 드러나겠는데…)
하는 생각에 또다시 가슴이 섬찍하였고 눈앞이 캄캄했다.
그리하여 광훈은 드디여 물어뜯는듯 한 공포와의 내심의 싸움을 포기하고말았다. 그는 그 싸움에서 자신을 끝까지 이겨내려고 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런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해! 생각하지 않는게 좋아!)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명령했으나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어째서 나는 죽어야 하는가? 어째서? 어째서?…) 하는 소리가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그냥 울려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저절로 쏟아져내렸다. 반시간쯤 나약한 생각에 잠겨있던 광훈은 조금 머리가 맑아지는것을 느끼며 진정했다. 새벽이 가까와오고있었다.
(이제 곧 날이 밝겠구나!…)
광훈은 무시무시한 현실을 생각하는것이 지긋지긋하게 두려웠다. 그런데다 룡진이마저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 신음하고있었다. 그의 신음소리는 (광훈이, 나를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어서 빠져나가오. 주저하다가는 둘이 다 죽소!) 하고 광훈에게 깨우쳐주는것처럼 들리였다.
(그래, 주저하다가는 안되겠어. 인가에라도 들어가서 형편을 자세히 알아보고 그다음에… 가만있자. 여기 어딘가 돌무지마을에 음전이네 집이 있겠는데…)
광훈은 문득 한고향마을에서 자라 여기로 출가한 외가켠으로 친척인 음전을 생각하였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50년도 5.1절 무렵에 이곳 군과 면들의 소비조합상점들을 돌아보려고 나왔던 출장길에 음전의 집에서 이틀밤 묵고간것을 기억하고있었다.
《룡진동무!—》
광훈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룡진의 이마를 짚으며 귀속말로 성급히 불렀다.
《음, 광훈인가?… 왜 아직두 떠나지 못했소?》 하고 어렴풋하게 정신이 들자 룡진은 광훈이를 걱정했다.

《룡진동무, 너무 걱정말라구. 내 이제 돌무지마을에 들어가 약도 구해보고 형편도 살펴보고는 곧 돌아오겠소.》
광훈은 화끈화끈 달아오른 룡진의 손을 쥐고 한참동안 눈물을 머금고 앉아있었다.
《광훈이, 애당초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오. 여기 벌판은 어디서나 환히 드러나보여서 아주 위험하오.》
《룡진동무, 너무 그러지 말라구. 내가 아무렴… 동무를 여기에 홀로 남겨놓고 혼자서 살겠다고 빠져나갈수는 없지 않나. … 아무 걱정말고 나를 기다리라구!》
《쓸데없는… 괜한 고집을 쓰는구만. 혼자라도 빠져나가라는데…》 하고 룡진은 숨가쁜 소리로 겨우 말하였다.
《룡진동무, 몹시 괴로웁나? 이거 정말 야단이로군.》
《견딜만 하오.》
《조금만 더 참으라구, 내가 여기로 돌아올 때까지…》
광훈은 허허벌판의 벼단동가리속에서 기여나와 엉거주춤 일어섰다.
어슴푸레하고 차거운 새벽이 각일각 다가오고있었다. 벼동가리앞에 잠간 서있는 사이에 저으기 숨을 돌리고 마음이 가라앉자 이른새벽의 랭기와 추위가 엄습했다. 논판의 여기저기에 고인 물들은 별처럼 반짝이는 살얼음으로 덮여있었다.
광훈은 미궁속을 더듬듯이 조심조심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어제 밤 찝차를 타고 악몽속처럼 달려오던 외줄기 행길이 희미한 별빛아래 희뿌연 강줄기처럼 보였다. 행길을 건느고 남새밭을 지나 골목길에 들어선 광훈은 마을입구의 어느 집 울타리곁으로 다가갔다. 그 집의 뒤창문에서 밤새껏 술을 처마시고 곯아떨어진 어느놈이 뭐라고 중얼중얼 잠꼬대하는 소리가 똑똑하게 들렸다. 골목길건너 불타버린 초가집앞에는 허옇게 사그러져가는 불무지곁에서 미군병사놈들과 《치안대》보초놈이 총을 끌어안고 끄덕끄덕 고개방아를 찧으며 졸고있었다.
극도로 긴장한 광훈의 가슴속에서 쿵—쿵— 심장의 박동이 높아지고 무릎이 후두두 떨렸다. 그는 드디여 용단을 내려 훌쩍 골목길을 뛰여 건너갔다. 그다음 발자국소리를 죽이고 시큼한 냄새가 풍기는 외양간을 돌아 음전이네 집 뜨락으로 재빨리 들어섰다.

뜨락에는 이른새벽의 싸늘한 랭기가 감돌고 귀뚜라미들이 울어대는 헛간은 짙은 그늘을 던지고있었다. 그쪽에서 갑자기 시커먼 개가 왈칵 짖으며 물어제낄듯이 달려나왔다.

《쉬— 이놈의 개새끼!—》

광훈은 질겁하여 흠칫 뒤로 물러서며 나직하니 소리쳤다. 그러나 개는 허연 이발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며 그에게로 다가왔다.

《누구예요?》

방안에서 잠을 깬 녀인의 불안한 목소리가 울렸다.

《음전이, 나요!》 하고 광훈이 다가드는 개를 경계하며 황급히 대답했다.

캄캄한 방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방문이 열리고 담기있어보이는 30대의 풍만한 녀인이 토방으로 나왔다.

《누구세요?》 하고 녀인은 뜨락에 엉거주춤 서있는 광훈을 찬찬히 여겨보며 다시 물었다.

《음전이, 나요! 날 모르겠소?》

《아이, 광훈오라버니였군요.》

뜻밖인듯 음전은 맨발로 마주달려나오며 으르렁거리는 개를 쫓았다.

《어서 방안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예요?》 하고 음전은 놀랬다.

광훈의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볼품없이 처참하게 찢어져있었다.

《음, 그저 그렇게 됐지.》

서글픈 웃음을 지으며 광훈은 녀인을 따라 훈훈한 방안으로 들어섰다. 화끈한 온기에 안경이 흐려져 광훈은 그것을 벗어 물기를 옷자락으로 닦았다.

《한데, 그 사람은 왜 안 보이나?》 하고 광훈은 어스레한 방안을 두루 살피면서 음전의 남편에 대해 물었다.

《부실한 그 사람은 남들의 충동질에 이끌려 〈치안대〉경비를 선다우.》

《〈치안대〉?…》

광훈은 펄쩍 놀라며 음전이쪽으로 홱 시선을 돌렸다.

《네, 벌써 며칠째 따라다니고있어요.》

음전은 짧고도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그리고는 으드득 어깨를 떨고있는 광훈을 찬찬히 바라보면서 물었다.

《오라버니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형님이랑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가족들은 먼저 북으로 후퇴해갔지. … 그러나저러나 랑패로군, 이 집에도 잠시 은신할 형편이 못되니…》

《걱정말아요.》 하고 음전은 주저치 않고 담차게 말했다.

《그 바보가 눈치를 못 차리게 저기 움속에 있으면 돼요!》

《음… 그렇지만…》

《너무 상심 말래두요. 내 이제 솜옷이랑 두툼한 겨울내의를 드리겠어요.》

음전은 서슴없이 열쇠묶음을 찾아들고 커다란 장농앞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내 걱정도 걱정이지만 지금 도위원장이 저기 논벌에 정신 잃고 쓰러져있으니… 참, 음전이도 잘 알지? 룡진동무 말이다.》

그러자 돌연 방바닥에 철썩— 장농자물쇠와 열쇠묶음이 떨어지고 놀랜 음전의 드세찬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구요? 지금 도위원장이 어디에 있다구요?!—》

《심한 부상을 입고 논벌 벼단동가리속에…》

《그럼 함께 오지 못하고 왜 혼자서 왔어요. 어쩌면 오라버니두!…》 하고 음전은 활랑거리는 가슴을 진정 못하고 어성을 높였다.

《형편을 알아보느라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잘못한것 같군.》

광훈은 허둥거리며 안경을 벗어들고 혼자소리처럼 중얼중얼하였다.

《오라버니, 빨리 가서 그이를 날밝기 전에 여기로 옮겨와야겠어요. 나도 함께 가겠어요!》

《그게 좋겠어.》

그럴 때 밖에서 개짖는 소리가 들리더니 뚝 그치고 누군가 저벅저벅 뜨락으로 들어서는 기척이 들렸다. 엉거주춤 일어섰던 광훈은 전률하듯 몸을 떨며 음전에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가 오지 않았어?》

《우리 집 바보인것 같아요.》 하고 음전은 경멸하듯 독하게 대답했다.

《엑, 추워. 여… 여보, 아직두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

방문앞에서 술취한 사나이의 분명치 않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어 방문이 벌컥 열리였다. 차거운 새벽의 랭기가 씽—하니 방안으로 몰려들었다.

《헤, 남은 밖에서 온밤 우들우들 떨다가 오는데… 팔자가 늘어졌다니—》

그가 꾸무럭거리며 느리게 방안으로 들어서자 역한 소주냄새가 확 풍겼다.

《엉? 이건 누구여?… 헤헤, 도소비조합련맹인지 뭔지에서 한자리 한다던… 그렇지 옳아, 거기 부위원장님이 아니시우?》

《허, 그동안… 무고했소?》

당황함과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광훈은 굳어진채 턱을 잘게 떨었다.

《헤헤… 무고했느냐구? 난 요즘 줄창 술먹구 고기먹고 산다우.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우리 집에 왔시꺄?… 옳아, 달아나질 모… 못해서…》

그는 버드렁금이발을 드러내며 연방 딸꾹질을 했다.

《헉… 하니께이 이젠 치안대에 가서 자수를 하지 않겠시꺄?… 뭣하면 나하고 같이 가던지… 어떻게 하겠시꺄?》

《아니, 난 그렇게는… 그럴수 없소.》 하고 광훈은 설레설레 머리를 내저었다.

《둥지가 뒤집혔는데두?…》 버드렁이는 왼쪽눈을 쪼프리고 히죽거리더니 불시에 발끈하여 소리쳤다.

《헉, 그럴 생각 없으면 우리 집에서… 헉, 나가우! 썩 나가란 말이여!》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고 음전이가 앞으로 나서며 차겁게 내쏘듯이 말했다.

《찾아온 제 친척까지 내쫓는단 말이요? 당신 지금 정신 나가지 않았어요!》

음전은 독을 쓰며 술취한 버드렁이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헤헤… 친척이 어떻다구?… 홍태국치안대장은 빨갱이라구 제 삼촌을 총으로 쏘았는데두!》 하고 버드렁이는 갑자기 사나와지면

서 떠들썩했다.

《그럼… 난 가겠소.》

광훈은 공포에 눌릴 때마다 언제나 그러하듯이 순식간에 자기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할 능력도 의지도 다 잃고 황망히 뜨락으로 나갔다.

《오라버니!—》

음전이가 총총히 뒤따라 뜨락으로 나오면서 그를 불렀다.

《날이 밝았는데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가면 안돼요!》

《그러니 어쩌는수 없지 않나. 저 사람이 이럴줄은 차마…》 하고 광훈은 울가망이 되여 절망적으로 말했다.

《뭣들 수군대구있어? 당장 떠나지 않으면 내 손으로 끌구 갈테야!》

뜨락으로 버드렁이가 따라나오면서 술취한 소리로 고아댔다.

광훈은 흠칫흠칫 몸을 떨며 허둥지둥 골목길로 나섰다. 이제는 날이 밝아 서리가 하얗게 깔린 미끄러운 길이 환히 내다보였다.

《누구야!—》

앞길에서 《치안대》완장을 두른 앙바틈한 놈이 째는듯 한 고함을 지르며 마주걸어왔다.

광훈은 화닥닥 놀라 홱 몸을 돌려 뒤골목으로 내달렸다.

《서라!—》

《치안대》놈이 따라오며 총을 쏘아댔다. 총알이 길바닥의 돌부리를 깨며 튕겨났다. 미끄러운 뒤골목으로 정신없이 내달리던 광훈은 철갑모를 쓴 건장한 미군병사놈이 앞을 막아서며 면상을 향해 후려치는 타격을 피하려고 픽 몸을 비꼈다. 그러나 우당탕거리며 몰려온 미군병사놈들이 일시에 덮쳐들어 그를 쓰러뜨렸다. …

얼마후에 광훈은 술병들이 널린 어지러운 창고로 끌려갔다. 거기서는 독살스럽게 눈을 깜박거리는 《치안대》대장 홍태국이 기다리고있었다. 그리고 얼핏 보아서는 눈에 띄우지 않는 어스레한 벽 한쪽의 탁자를 마주하고 미군소위가 앉아있었다.

《넌 어제 밤 미군의 찝차를 빼앗아타고 도망치던 놈인가?》 하고 《치안대》대장 홍태국이 걸상에 앉아 길다란 다리를 흔들거리며 악에 받쳐 물었다.

《난 아… 아니요.》
광훈은 얼결에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면서 부정했다.
《개새끼, 거짓말을 할테야!—》
홍태국은 불시에 화닥닥 일어서며 무작정 구두발로 흠칫흠칫 떨며 서있는 광훈의 무릎을 힘껏 걷어찼다.
《으음…》
광훈은 풀썩 무릎을 꺾으며 밑잘린 나무처럼 어지러운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홍태국놈은 잔인하게 광훈의 덜미를 잡아 일으켜세웠다.
《서있어, 개새끼. 똑바로 말하지 못하겠어? 우리는 다 알고있단 말야! 우리 눈으로 뒤에 앉아있던 네놈을 봤단 말야!…》
아픔과 공포로 얼굴이 이그러진 광훈은 더는 부정하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응대했다.
《그… 렇소.》
《다른 놈은 지금 어디에 있어?》 하고 홍태국이 몰아쳐대듯 꽥 고함을 질러댔다.
《난… 혼자… 였소.》
《또 허튼수작인가!》
홍태국은 두말없이 이번에는 총탁으로 광훈의 얼굴을 가차없이 내질렀다.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광훈의 머리칼을 움켜잡고 쳐들면서 홍태국놈은 독살스럽게 눈을 깜박거렸다.
《보라, 솔직히 말하지 않으면 너도 저렇게 된단 말야!》
창고의 어스레한 한쪽에 짝짝이 굳어진 낯모를 시체가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고 광훈을 마주보고있었다.
《그래, 저렇게 되고싶은가?》
《혼자는 아니였소. 그렇지만…》 하고 광훈은 총탁에 짓쪼여 찌부러진 코방울을 벌름거리면서 이번에는 애매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다시 묻는다. 짚차를 몰고가던 놈은 누구야? 그놈이 지금 어디 있어?》
홍태국놈은 위협조로 다시 물었다. 그러나 광훈은 입을 꾹 다물고 침묵했다.
《개새끼, 정말 그러겠어?… 좋아, 네놈을 죽여버리겠어. 어디… 영

원히 침묵하게 해주지!―》

홍태국은 악에 받쳐 달려들어 광훈을 한쪽구석으로 떠박질렀다.

《저기 가 서라! 총살해버리겠다!》 하고 놈은 절컥 총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당기기만 하면 한순간에 광훈은 총에 맞아 쓰러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것이다.

그 순간 절망감이 먹이를 향해 내려꽂는 매의 발톱처럼 갑작스레 광훈의 가슴을 꽉 거머쥐였다. 그러자 죽음의 공포가 그의 의식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가만… 내 이제…》

그는 공포로 이상하게 된 눈을 번득거리며 홍태국과 그뒤의 미군소위놈을 쳐다보았다. 파랑눈의 미군소위는 일체 무표정으로 시종 말 한마디없이 잠잠히 앉아있었다.

홍태국이 여전히 손가락을 방아쇠에 걸고 위협조로 뇌까렸다.

《말하겠는가?… 살고싶거든 이제라도 말해!―》

광훈은 일순간 룡진의 이름을 대는것이 옳은가 하고 회의했다. 그것은 순간이였다. 그는 이미 그 무엇도 생각지 않았고 또 생각도 못했다. 자기 생명에 대한, 현실적인 죽음의 공포가 일체의것을 밀어낸것이다. 인생에서 쌓은 체험, 생활의 교훈들, 정직성과 총명, 인정, 의리― 이 모든것이 그에게는 불시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겨졌던것이다.

《그는 도의 간부요.》 하고 광훈은 남의 목소리같은 갈린 음성으로 중얼거렸다.

《그 사람은 도위원장이였지?》 하고 지금까지 말 한마디없이 앉아있던 미군소위가 조용히 탁자에서 일어서며 확신하는듯 한 어조로 물었다. 미군소위의 음흉하게 번쩍이는 눈은 희한하게 파르스름한 빛을 뿜고있었다.

《…》

광훈은 침묵했다. 무엇인가 자기도 알수 없는 그 무엇이 아프게 심장을 찔렀다.

(안된다, 그를 팔아먹어서는 안된다!) 하는 량심의 목소리가 공포에 눌린 그를 후려쳤던것이다. 순간 광훈은 번쩍 정신을 차렸다.

《아니요. 그는 이미 북으로 후퇴했소.》 하고 광훈은 뚜걱뚜걱 다가오는 미군소위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없이 말했다.
눈이 희한하게 파르스름한 미군소위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다. 그러더니 불시에 사납게 탕―하고 탁자를 내려치며 고함을 질러댔다.
《도위원장이 후퇴했다구?… 너는 아주 고약한 놈이다. 우리는 그 사람이 신천군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정보를 쥐고있다. 이건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준거다.》
미군소위는 광훈의 눈을 마주보며 확정적으로 말했다.
《우리는 어제 밤 찦차를 운전한 사람이 바로 도위원장이라는것도 이미 알고있다. 그건 어제 밤 길목을 지키던 치안대들이 직접 목격하고 나에게 보고한것이다. 그런데두 속여?… 어리석은 놀음은 그만해!》
《…》
광훈은 불시에 말문이 막혔다. 그는 퍼렇게 질린 입술을 떨뿐 부정도 긍정도 못했다.
파랑눈의 미군소위는 광훈의 코앞까지 바싹 다가서더니 이번에는 하얀 이발을 드러내고 히죽이 웃으면서 소름이 끼칠만큼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탔던 찦차를 운전한건 바로 도위원장이야. … 우리를 속이지는 못해!》
광훈은 몸을 꿈틀하더니 풀썩 머리를 떨구었다. 이제 그로서는 완강히 부정할 용기가 없었다.
《그렇다면 왜 다 알고있는 사실을 나한테…》
광훈은 분명치 않은 입안의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자 홍태국이 벌떡 일어서며 흥분한 목소리로 웨치듯 다그쳐물었다.
《야, 도위원장이 지금 어디에 숨어있는가?》
광훈은 머리를 숙인채 응대가 없었다.
《이새끼, 아직두 뻗칠테야!…》 하고 홍태국이 총구를 광훈의 턱밑에 들여댔다.
그러나 광훈은 머리를 떨군채 침묵하고있었다.
《좋소, 당신이 도위원장의 행처를 불지 않는데 대해서 나는 나쁘

다고만 생각지는 않소.》 하고 이번에는 미군소위가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는 광훈의 주위를 천천히 거닐면서 말을 계속했다.

《요컨대 당신의 괴로운 립장을 나는 리해하오. 그건 사실 괴로운 일이요.》

미군소위는 광훈의 괴로운 심정을 십분 리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광훈에게 걸상까지 권했다.

《앉으시오. 나는 당신을 이제 곧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석방하도록 하겠소!》

미군소위의 말이 떨어지자 광훈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리뻥뻥하였고 홍태국은 깜짝 놀라 눈을 깜빡거렸다.

《소위님, 그건 어떻게 하는 말씀이신지… 이 빨갱이놈을 놓아주다니요?》

《여기엔 그렇게 놀랄것도 없고 의아해할것도 없소!》 하고 미군소위는 홍태국이와 광훈을 슬며시 바라보며 여전히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덧붙였다.

《솔직하게 말하지만 이 불행한 사람은 지금 어디든 갈곳이 없을거요. 북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미군사단들이 차단하였고 구월산으로 가는 길은 벌써 미군병사들과 치안대들이 이미 길목마다, 요소마다 삼엄한 경계를 펴고있소.》

파랑눈의 미군소위는 30분나마 장황하게 지껄인 다음 광훈을 석방하였다.

《어디든지 당신이 가고싶은 곳으로 가서 자유롭게 마음놓고 사시오. 나는 모든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신이 우리를 반대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싸움에 뛰여들만큼 우둔하다고 생각하지 않소. 나에게는 당신이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롭게 생각하고 살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진단 말이요. 때문에 당신을 이렇게 순순히 석방하는거요. 자, 어서 가보시오! 가고싶은 곳으로 말이요.》 하고 미군소위는 정직한 표정을 짓고 출입문쪽을 손으로 가리켰다.

광훈은 무슨 고통스러운 꿈속에라도 빠져있는듯 괴롭게 얼굴을 찌프린채 선뜻 걸상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그러다가 슬며시 일어났다.

《자, 마음놓고 가보시오.》 미군소위가 재촉했다.

광훈은 얼떠름해 엉거주춤하니 서있다가 못미더운듯 뒤를 흘끔흘끔 돌아보며 출입문쪽으로 걸어갔다.

《소위님, 정말 저 빨갱이새끼를 놓아준단 말입니까?》 하고 홍태국이 잠에서 깨여난 사람처럼 놀라며 걸상에서 벌컥 일어섰다. 그러나 홍태국은 즉시에 옴짝 못하고 최면술에 걸린듯 굳어졌다. 희한하게 파르스름한 미군소위의 눈이 이상하게 파란빛을 내쏘며 말없이 그를 쏘아보았던것이다. …

밖으로 나온 광훈은 행길가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혼란된 그의 생각은 도무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이제는 어디로 간다? 무엇하려고?…)

행길 한복판으로 미군땅크들이 짜르릉거리며 지나가고 중무장한 미군병사놈들을 가득 태운 군용트럭들이 먼지를 차던지며 어디론가 미친듯이 달려가고있었다.

(그런즉 이제는 정말 모든것이 끝장났단 말인가?…)

광훈은 총탁에 맞아 으깨여지고 찌부러진 코방울을 벌름거리며 얼빠진 사람처럼 행길가에 서서 생각했다. 그러다가 그는 자기도 모르게 돌아서 마을로 다시 들어가기 시작했다. 무슨 분명한 결심이나 계획이 있어 그런것은 아니였다. 막연하고 혼란된 의식이 무의식중에 그를 그렇게 걷도록 한것이다. 그는 음전이네 집으로 들어갈가 하는 생각이 피뜩 떠올랐으나 웬일인지 그러고싶지는 않았다. 집집의 개들이 달려나와 짖어대는 골목길을 돌아 그는 마을뒤의 등성이로 올라갔다. 적토질의 등성이에는 잎떨어진 뽕나무 몇그루가 서있고 이전에 마을사람들이 동원되여 베여놓은 마초무지들이 듬성듬성 쌓여있었다. 광훈은 누렇게 뜬 마초무지에 등을 기대고 털썩 주저앉았다. 거기서는 벼단동가리들이 총총히 쌓여있는 앞벌이 빤히 바라보였다.

(의식잃었던 룡진동무는 어떻게 됐을가?… 상처가 심했는데…)

광훈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으스스 몸을 떨면서 괴롭게 생각했다. 그는 그 어떤 결심도 가질수 없는 자기자신과 심한 부상을 입고 벼단동가리속에 쓰러져있는 룡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기만 하였다. 시간은 벌써 한낮이 기울고 별로 따스한 기운도 없는 저녁해가 구월산봉우리를 넘어가고있었다.

(이제는 다른 길은 없다. 룡진동무를 만나서 의논하고 최종적인 결심을 해야지!) 하고 광훈은 마초무지에서 얼어든 몸을 일으키며 처음으로 확고한 결심을 했다.

(룡진동무, 이제는 어쩌는수가 없소. 모든 길은 차단되고 도처에 적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있소. 그 몸으로 여기를 빠져나간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요. 룡진동무, 우선 살고보는게 어떻소? 부상처도 치료받고 그다음 형편을 봐서 어디로든 피신하면 될게 아니요.)

광훈은 마치 자기곁에 지금 룡진이가 누워있기라도 한것처럼 내심 그에게 말을 걸며 혼자 생각했다.

(그래, 우선 우리는 살고봐야 해!) 하고 그는 자신에게 당조짐하듯 입속말로 중얼거렸다.

드디여 그는 이렇게 자기의 결심을 굳히고나서 룡진이가 누워있는 앞벌쪽을 향해 스적스적 걷기 시작했다. 어스름이 내리기 시작한 마을 한복판을 지나던 광훈은 누군가 자기뒤를 따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재빨리 불안한 시선으로 사위를 둘러보았다. 그런 기미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광훈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천천히 일부러 이 골목, 저 골목으로 에돌아 걸었다. 별로 이상한 징조는 눈에 띄우지 않았다.

(그런데 어째서 그 파란눈의 미군소위가 나를 놓아주었을가?) 하고 문득 걸음을 멈추고 광훈은 생각했다.

(승리한자의 관대성인가. … 슬픈 일이지.)

광훈은 서글프게 생각하면서 신작로를 건너 앞벌의 동뚝길로 나섰다. 앞벌은 벌써 어둑어둑하였고 이따금 벼단무지들속에서 들쥐들이 버스럭대는 소리가 들릴뿐 사위는 고요했다. 그는 앞으로 조심조심 발자국소리를 죽이며 걸어갔다.

룡진이가 누워있는 벼단동가리쪽으로 가까이 접근해가던 광훈은 갑자기 으쓱 머리칼이 곤두서는듯 한 공포를 느끼며 홱 돌아섰다. 그 순간에 동뚝뒤와 논판들에서 시커먼 그림자들이 일시에 일어섰다.

(적들이다!)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그의 머리속으로 지나갔다. 이제는 뛸 시간적여유도 없었다. 적들은 사방에서 그에게 다가들었던 것이다.

광훈은 파란눈의 미군소위놈에게 속았다는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은 벌써 뒤늦은것이였다.

《야, 이 근방의 벼단동가리들을 샅샅이 수색하라!》

미군소위놈은 파란눈을 번쩍거리며 희열에 들뜬 목소리로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

룡진은 광훈이가 비록 본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더럽게도 적들에게 자기의 위치를 알린것도 모르고 벼단동가리속에서 신음하고있었다. 그는 넓은 벌을 그러안기라도 한것처럼 두팔을 쭉 벌리고 쓰러져있었다. 어렴풋이 들리는 발자국소리에 그는 간신히 말을 했다.

《광훈인가? 혼자서라도 빠져나가랬는데… 왜 또 여기로 왔소?…》

《일어섯!－》

갑자기 채찍으로 후려치는듯 한 고함소리에 룡진은 조용히 눈을 떴다. 그는 빙 둘러선 미군병사놈들과 그 무리속에 죽어가는 사람처럼 꿈틀거리며 서있는 광훈을 별빛의 몽롱한 어둠속에서 알아보았다. 룡진은 신음소리도 없이 고요히 눈을 감아버렸다.

《이 사람이 당신이 잘 아는 도위원장인가? 똑똑히 보라!》

미군소위놈은 파란눈을 번쩍거리며 광훈을 룡진에게로 가까이 떠박지르며 희열에 떠서 고함쳤다.

오른쪽유리가 깨여져나간 안경을 벗어들고 룡진을 들여다보던 광훈은 꿈틀꿈틀 커다랗게 몸을 떨었다. 그 피흘린 창백한 얼굴은 틀림없이 룡진이였지만 어쩐지 순간 광훈에게는 전혀 처음보는 사람처럼 무섭게 생각되였던것이다.

《옳은가?》 하고 파란눈의 미군소위놈이 광훈을 쏘아보며 다시 확인하듯 물었다.

광훈은 별안간 실성한 사람처럼 헉헉 공기를 삼키며 자꾸만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비록 본의는 아니였지만 어쨌든 자기가 무엇인지 도저히 영영 회복할수 없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이 그를 무섭게 후려쳤던것이다. 광훈의 생애에서 가장 무시무시했던 밤, 그밤의 종말은 더 무섭게 끝났다.

차거운 늦가을의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들이 떨고 기러기떼가 구슬피 울며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면서 북쪽으로 날아가고있었다. …

23

정신이 드는 순간 조영모는 타는듯 한 목마름을 느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그는 못 견디게 물을 먹고싶어 실금이 간 콩크리트바람벽으로 얼굴을 가져다댔다. 선뜻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들었다. 매를 맞고 무지한 악형을 당해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비틀리고 머리며 얼굴이 으깨여진 조영모는 좀 편안하게 눕고싶었지만 몸을 뒤채일수가 없었다. 그는 감방의 저쪽구석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이상하게 말없이 조용히 지켜보고있음을 등뒤로 감촉하였지만 어쩐게나 몸이 무거운지 그쪽으로 돌아눕기 힘겨웠다.

(무엇때문에 줄곧 말 한마디없이 침묵한채 지켜보고만 있을가. … 별난 사람이군. 혹시 나를 전혀 모르는 타고장사람인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놈들의 감방안에서는 서로 가까와져야 할 동지고 한편 사람인데…)

조영모는 까딱않고 조용히 자기를 지켜보고있는듯 한 사람을 내심 불만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끙끙거리며 간신히 몸을 뒤채여 돌아누웠다.

(?!…)

순간 조영모는 아연했다. 맞은켠 바람벽에 비스듬히 몸을 기댄채 처참하게 터지고 피자욱이 력력한 모습으로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은 다름아닌 임성욱목사였던것이다. 조영모에게는 실로 천만뜻밖이였다.

(저 사람이 분명 임성욱목사가 옳은가?… 임성욱목사가 어쩧게 저런 모습으로 여기 스산한 놈들의 감방에 앉아있는가!…) 하고 조영모는 한참동안 그를 찬찬히 여겨보며 놀랍게 생각했다. 일상생활에서 임목사에 대한 조영모의 굳어진 인식과 판단에 의하면 미국놈들이 마을에 기여든 지금 그는 자기의 속내를 드러내고 제 세상을 만난듯 기고만장하여 돌아치고있을것이였다. 그런데… 뜻밖에도 조영모는 그를 감방안에서 만났던것이다. 얼굴이 성한 곳없이 으깨여지고 퉁퉁 부어오르고 늘쌍 단정하던 그의 옷이 처참할 지경으로 갈기갈기 찢어진것을 보면 필경 임성욱목사 역시 자기처럼 놈들한테서 무시무시한 모진 악

형을 당한것이 틀림없었다. 임목사는 여전히 눈을 감은채 마치 하느님에게 마음속으로 기도라도 하고있는듯 옴짝 않고 고요히 앉아있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이상하게도 지금의 그에게서는 평상시 생활에서 조영모를 분격케 하고 반감에 사로잡히게 하던 그런 위선적인 느낌이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보매 지금 임목사는 남몰래 견딜수 없는 고통을 조용히 이겨내고있는것 같았다. 그의 꾹 다문 입가에는 조영모를 당황케 하고 깊이 생각하게 하는 서글픈 기색이 맺혀있었다.

(한즉 임목사는 내가 해해년년 불신하고 반목하고 질시했으며 지어 위선자로 증오까지 하던 사상이 애매한 사람이 아니였단 말인가!—)

그 순간 조영모는 오랜 세월 자기의 가슴속에 그렇게도 확고부동한 것으로 굳어져있던 임목사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장벽이 삽시에 사라지는것을 느꼈다. 뒤따라 갑자기 무엇인가 아직은 느껴보지 못했던 뼈아픈 자책과 회오의 강한 충격이 조영모의 가슴을 두드렸다.

(음…)

그는 그 어떤 육체적아픔과도 비교할수 없는 정신적고통으로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오려는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슬며시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였다.

(사람이 한생을 살아가느라면 적어도 몇번은 망신도 하고 실책도 하기마련이라고들 말하지. … 그런즉 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제 아들녀석만큼도 인간들의 깊은 마음속을 들여다볼줄도 모르고 또 보려고도 안했거던. …) 하고 조영모는 괴롭게 마음속으로 탄식했다.

조영모는 웬일인지 자기 눈이 서서히 젖어드는것을 느끼며 번쩍 눈을 떴다. 그는 자기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있었던것이다.

임목사는 여전히 벽에 비스듬히 기댄채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있었다. 그를 젖어든 눈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조영모의 입술은 뭐라고 말하려는듯 실룩거렸으나 말을 못했다. 그는 최후를 앞둔 감방에서 비로소 임목사에 대한 평소의 자기판단이 극히 일면적이였음을 명백하게 깨달은 지금 자기자신에 대한 화증으로 하여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무엇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임목사를 옳바르게 보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렇게 뒤늦게야 그의 진속을…)

그는 불시에 일어나앉고싶었다. 놈들에게 악형을 당한 온몸이 더욱

못 견디게 쑤셔내고 괴로왔다.

조영모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수 없는것이 더욱 화가 났다. 놈들에게 욕설을 퍼붓고싶었다. 누를수 없는 분노와 증오가 솟구쳐올라 도저히 참아낼수 없었다. 생각같아선 놈들을 모조리 목매달아 죽여버리고싶었으나 어쩔수 없는 몸이 된 그것이 더욱 분하고 괴로왔다. 그는 놈들에게 걸쭉한 욕설이라도 퍼부어야 속이 시원할것 같았다. 그래 조영모는 팔에 의지하여 끙끙거리며 가까스로 일어나앉아 창고(감방으로 전환되였다.) 앞을 어슬렁거리면서 오락가락하는 《치안대》 보초놈에게 걸쭉한 욕지거리를 해댔다.

《야, 이 똥걸레같은 놈아! 먹고 할짓이 없어 그따위 개노릇을 해. 네놈들을 이제 미친개처럼 쳐죽일테다!—》

못 견디게 쑤셔대는 온몸의 아픔을 참아내느라고 한참동안 끙끙거리고나서 그는 다시 고래고래 욕설을 퍼부었다.

《야, 구데기같은 너절한 역적놈아! 네놈이 혀바닥을 한발이나 늘이고 뒈지게 목매달아 죽이고말겠다!》

조영모의 고함소리를 듣고 얼굴에 온통 흠집투성이인 꺽두룩한 《치안대》놈이 총을 절컥거리며 다가왔다.

《뭐야? 왜 또 고함을 질러대며 소동이야? 빨리 죽지 못해 몸살이 나서 그래?》 하고 험상한 상판을 살창에 대고 《치안대》 놈이 이죽거렸다.

《이 개놈아, 넌 옆집의 소를 도둑질해서 팔아먹은 죄로 3년동안 교화까지 받구서 이제는 또 나라를 반역한 놈들속에 끼여들었구나. 더러운 소도적놈아!》

조영모는 얼굴을 무섭게 이그러뜨리며 분격하여 욕설을 퍼부어댔다.

《이새끼, 리위원장을 몇년 해먹더니 되지 못하게 욕지거리솜씨만 늘었구나! 개새끼, 아직두 너희놈들 세상인줄 알아!》

험상궂게 생긴 《치안대》놈은 땅바닥에 퉤퉤 침을 뱉고나서 감방의 철창사이로 총을 들이밀고 조영모를 후려쳤다.

《개새끼, 아직두 아가리질을 하겠어? 턱주가리를 깨버리고말겠다!》

《야 이 소도적놈아, 내가 그때 네놈을 용서하고 우리 리에 다시 거

접시킨게 큰 파오였어. 그때 네놈의 거짓눈물에 속아서 내가 알바보, 멍텅구리짓을 했다. 교화받고 나온 네놈을 딴지경으로 쫓아내지 못한 게 분하고 원통하다, 이 소도적놈아!》

조영모는 총탁에 얻어맞아 명치끝이 쑤시고 눈앞이 가물거렸으나 걸쭉한 욕지거리가 연방 목구멍으로 솟아올랐다. 그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소도적놈아, 코구멍과 귀구멍과 온몸에 때와 도적놈의 오물을 들쓴 네놈을 다시는 용서치 않을테다!》

《야, 조영모. 용서?…》 하고 약이 오른 《치안대》놈은 떠나갈듯 고함을 질렀다.

《네놈들은 오늘 저녁 모조리 저기 당재언덕 땅속으로 들어가!… 저승에 가서 실컷 떠들어대라, 지독한 빨갱이놈아!》

흠집투성이의 시커먼 《치안대》놈은 악이 받칠대로 받쳐 지껄여대며 무지막지하게 총탁을 마구 휘둘러 내려쳤다.

조영모는 그침없이 욕설을 퍼부으며 분격하여 이발을 갈고 신음하면서 끄덕않고 버티였다. 그러다가 그는 기진맥진하여 끝내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이 흐리마리해지면서 눈앞에 별찌같은것들이 날아다니더니 그마저 없어지고 캄캄해졌다. 이제는 걸쭉한 욕설을 퍼부어댈 힘마저 깡그리 빼버린것이다.

《리위원장!ㅡ》

험상스런 《치안대》놈이 사라지자 누군가 바투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의 어깨를 조심히 흔들었다. 조영모는 귀에 익은 정중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 힘들게 눈을 떴다. 그는 매를 맞아 쇠빛이 된 험상하게 부어오른 임목사의 얼굴과 푸름푸름하게 멍이 들고 조그마하게 된 그의 두눈을 보았다. 임성욱목사의 오른쪽귀에서 흘러내린 한줄기의 피는 목근처에서 이미 말라붙어있었다.

(임목사, 이게 웬일이요?… 놈들이 임목사에게 무슨짓을 저질렀소?…)

조영모는 자기의 가슴 한구석에 돌덩이처럼 굳어져있던 그에 대한 반목과 불신이 이미 사라진 지금 뜨겁게 그의 손을 잡고싶은 련민의 정을 느꼈다. 그는 끙끙 신음소리를 내면서 자그마한 임목사의 손을 잡고 몸을 반쯤 일으켰으나 걷잡을수 없는 아픔으로 정신이 흐려져 다

시 쓰러지고말았다.

《리위원장, 정신을 차리오!》 하고 임목사는 조심히 흔들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조금만… 가만히 내버려두오.》

입술을 거의 놀리지 않고 조영모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응대했다. 그는 눈을 감고 신음소리를 냈다. 희뿌연 장막이 눈앞을 얼른거리며 지나갔다. 몸을 조금만 움직이여도 가슴이 빠개지고 온몸이 찢기는것만 같았으며 당장 숨이 넘어가는것처럼 아팠다.

(그까짓 죽음이란 별게 아닐거야!) 하고 조영모는 별스레 죽음의 공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것을 자신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조금후에 그는 다시 눈을 떴다. 누기가 차서 얼룩덜룩한 반점들이 내돋히고 거치른 희뿌연 콩크리트바람벽이 눈앞을 막아서고있었다. 그는 다시금 걷잡을수없이 분노가 끓어올라 속이 탔다. 또 욕설이라도 한바탕 퍼부어대고싶었다. 그래서 모질게 신음소리를 참고 몸을 뒤채였다.

《임목사, 나를 좀 일으켜주오. 욕설이라도 해야지 어디 참겠소.》

《그만하오, 리위원장.》 하고 고르로운 목소리로 임목사가 말을 덧붙였다.

《공연히 맥만 빼오. 저런 인간쓰레기들한테 욕설은 해서 뭘하겠소.》

《그렇기는 하지만 욕설이라도 해야지 어디 분통이 터져 살겠소.》

《리위원장, 난 너무도 더럽고 추악해서 욕설할 생각도 없소. … 하찮은 일로 이웃을 마구 죽이고 야만적행위를 서슴없이 감행하는 무지몽매한 악당들에게 난 일체 침묵했소!》

《임목사, 하지만 나는 못 참겠소. 남자들도 갈보같은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지오. 난 이제 죽을 때도 놈들에게 개쌍욕을 퍼부어대고 죽을테요!》

이발을 사려문 조영모의 터지고 피멍이 든 입술이 푸들푸들 떨렸다.

《임목사!》 하고 적들에 대한 증오로 몸을 뒤척거리던 그는 임성욱목사를 찬찬히 살펴보며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임성욱목사는 끙끙거리며 몸을 일으키는 그를 조심히 부축하면서 타이르듯 나직이 말했다.

《말을 하지 마오. 몸이 이 지경인데… 몸에 좋지 않소!…》

《아니, 난 놈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려는게 아니요. 임목사, 그전에는 우리가 왜 서로 잘 몰랐는지 그것을 말하고싶어서 그러오. 여보 임목사, 난 지금 정말이지 그게 이상하게만 생각된단 말이요! 임목사는 그런 생각이 안드오?》 하고 조영모는 자기의 특이한 성격 그대로 무뚝뚝하게 진심을 토로했다.

임성욱은 가슴이 뭉클했다. 그는 총이 센 머리칼들이 뻗두룩하게 일어선 조영모의 크고 묵직한 머리를 띠여보면서 늘쌍 그렇듯이 정중하고 고르로운, 그러면서도 특별히 감동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응대하였다.

《리위원장, 방금전에 나도 바로 그런 생각을 하였소.》

《여보, 정말 그렇소? 임목사, 그런즉 이 험악한 시련이 오히려 우리 두사람을 화해시키고 가깝게 해준셈이구려.》

(정의의 지향이 사람들을 가깝게 해주지!) 하고 임목사는 말하고싶었으나 《진실은 어느때건 밝혀지는 법이요.》라고 응대했다.

《임목사, 그런데 말이요, 사람들앞에서는 큰소리로 하느님과 선과 참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뒤에 가서는 온갖 못된짓을 하는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오? 그런 추악하고 너절하며 비렬한 놈들이 있소.》

《리위원장, 언제든지 잊지 마오. 그따위 교인은 탈을 쓴 가짜교인이요. 진실한 교인들은 그런짓을 절대로 하지 않소.》

《여보 임목사, 난 말이요, 원쑤놈들과 악한들에게는 귀뺨을 치라고 설교하는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소!》

조영모는 든든하고 큼직큼직한 이발을 드러내며 시원하게 웃고 등허리를 쭉 펴더니 맥이 빠진듯 스르르 눈을 감았다.

《임목사, 내가 노엽힌 지난 일들을 잊어주오.》 하고 그는 온몸이 못 견디게 쑤셔대는지 끙끙거리면서 스스럼없이 말했다.

《그만하오, 리위원장. 나는 벌써 잊은지 오래됐소.》

《그렇다면…정말…고…맙소.》

그는 고통을 참느라고 터져서 피가 내배인 입술을 꽉 다물면서 더

듬거렸다.
(나도 역시 리위원장한테서 소란스럽고 거치른 외형만을 보고 정직함과 솔직성, 깨끗하고 청백한 내심은 가려보지 못했었지. …) 하고 임성욱은 눈을 감고있는 조영모를 새삼스럽게 찬찬히 뜯어보며 따뜻한 애정을 품고 생각하였다. 학식은 비록 많지 못하고 얼핏 보면 소란스럽고 거칠기 그지없는 이 사람의 외형을 한꺼풀 벗기고보면 내심에는 얼마나 귀중하고 가치높은 보석들로 가득차있는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인간됨에 비교할 가치도 없는 몽매하고 비렬하며 너절한 인간추물들이 때를 만난것처럼 날뛰면서 이 사람을 모욕하고 폭행을 가하고 처형하려는것이다. 임목사는 그에게 시선을 모은채 생각을 계속했다.
(나는 누구를 증오하면 그저 잠자코 말없이 마음속으로 증오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참아내지 못하고 험한 욕설을 퍼붓군 하지. …)
그러나 조영모의 성격과 청백한 내심을 완전히 리해한 이제와서는 그의 거치른 고함소리며 욕설들이 푸짐하게 차린 료리상에 놓인 매운 양념처럼 얼얼하게 생각되였으며 없으면 오히려 심심할것 같았다.
《리위원장, 몹시 괴롭소?》 하고 임목사는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조영모를 측은하게 여겨보면서 조용히 잔잔한 목소리로 물었다.
《음… 견딜만 하오.》
《리위원장, 저놈들이 나를 빨갱이들의 숨은 앞잡이라고 한다오. 그래서 이제 나를 군감방으로 끌어간다는데… 아마 거기 가서 더 엄중히 문초하고 죽이려는 모양이요. 좀전에 저희놈들끼리 말하는걸 내가 들었댔소.》
《빨갱이들의 숨은 앞잡이라? 그참, 지나가던 소새끼도 기가 막혀 웃음을 터뜨릴노릇이군. 그까짓 누데기같은놈들이 무슨 개소린들 지껄이지 않겠소. 여보, 임목사!—》
조영모는 무슨 생각에선지 몸을 일으키더니 임성욱의 어깨를 그러잡았다. 그리고는 확대된 억센 눈으로 찌르듯이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별스럽게 이번에는 귀속말처럼 조용하고 잔잔한 목소리로 나직나직하니 말했다.
《여기서 죽든 군으로 끌려가서 죽든 우리는 죽을 때 개처럼 새된

비명을 지르며 벌벌 떨면서 가련하게 죽지 말아야 하오.》

그러는 조영모를 고요한 시선으로 태연히 마주보면서 임성욱은 비죽이 웃고 잠잠했다.

《임목사, 그런 가련한 사람들이 전혀 없는것이 아니여서 하는 말이니 노엽게 생각하지는 마오. 난 내 눈으로 직접 그런 가련하기 그지없는 인간들을 보았소!》 하고 조영모는 분개하여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그때 면과 군내에 불량배로 소문난 상고머리놈이 기웃하고 감방안을 들여다보며 느닷없이 꽥 소리를 질렀다.

《뭐야! 왜들 수군거리는거야? 목구멍들을 찢어버리겠어!—》

임성욱은 자기 집에 여러번 찾아왔던 불량배 상고머리를 입이 쓰겁고 역겨워서 외면해버렸다. 그러나 조영모는 종시 참아내지 못하고 얼굴을 홱 돌려 증오와 격분으로 이글거리는 눈길로 쏘아보면서 욕설을 퍼부어댔다.

《네놈같은 독풀들을 제때에 짓밟고 뽑아버려야 할 자기 소임을 끝까지 다 못한것이 유감이다. 그 생각을 하면 분통이 터진다. 하지만 이제 공화국정권이 톡톡히 값을 받아낼게다, 용서없이 톡톡히 말이다!—》

《뭐, 공화국정권? 그게 어디 있어?… 어서 실컷 떠들어대봐라! 오늘 밤 네새끼는 땅속에 들어가게 될테니까! 그때는 네새끼의 빨간 혀바닥도 끝장이야!》 하고 상고머리놈은 바투 다가붙은 자그마한 눈을 독살스럽게 깜박거리면서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다.

상고머리놈은 문득 뒤에서 들리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돌아섰다. 담배꽁초며 성냥가치, 휴지쪼박, 검불, 닭똥들이 너저분한 감방앞의 어지러운 뜨락으로 보꾸레미를 든 임목사의 딸 순애가 수심에 잠겨 총총히 다가오고있었다.

《응, 순애인가?》

상고머리놈은 무엇때문인지 히죽히죽 웃으며 순애의 온몸을 샅샅이 더듬듯이 징그러운 눈길로 바라보며 다가섰다.

《여긴 왜 왔어? 이런데는 예쁜 처녀들이 다닐 곳이 아닌데…》 하고 상고머리놈은 희떱게 시까스르며 웃어댔다.

《아버지를 만나보고싶어 왔어요.》

순애는 《치안대》완장을 팔에 두른 상고머리불량배놈의 천박하고 징그러운 시선과 마주치는것을 꺼리며 머리를 돌렸다.
《그건 안돼, 지금 면치안대본부에서는 임목사를 빨갱이들의 숨은 밀정이라고 딱지를 붙였어. 그래서 이제 군으로… 그런 놈을 만나는건 대장님의 직접 지시가 있어야 해!》 하고 상고머리놈은 딱 자르듯 랭혹하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긴 사람잡이에 미치고 환장한 놈들이 무슨 딱지인들 붙여 죽이지 않을가?)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살이 떨려 순애는 파랗게 얼굴이 질려 서있었다.
《어쩌면 한동네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럴수 있어요. … 아버지를 잠간 만나고 가겠어요. 그런 사정도 안 들어주겠단 말이예요?》
상고머리불량배놈은 눈을 깜박거리며 잠시 말이 없더니 그 천박하고 간악한 머리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기름때가 내배인 손바닥으로 순애의 어깨를 철썩 두드렸다.
《좋아, 그렇게 애공히 사정하니 잠간동안 만나도록 해주지. 하지만 이건 내가 순애를 생각해서 특별히 마음쓰는것이야!》
상고머리불량배놈은 장한듯이 히죽거리면서 또다시 그 천박하고 징그러운 눈길로 순애의 온몸을 더듬듯이 여겨보았다. 그러더니 까닭모르게 눈을 찡긋해보이고는 제흥에 겨워 중얼중얼 시시껄렁한 류행가를 부르면서 저편으로 치적치적 걸어갔다.
상고머리놈이 사라지자 순애는 지체없이 감방앞으로 재빨리 다가갔다.
《아버지!》 하고 순애는 낮으나 명확한 목소리로 성급히 불렀다.
《…》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들려올뿐 감방안에서는 아무런 응대가 없었다.
《아버지! 저예요!》
《응… 순애냐!》
그러고도 한참후에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임성욱은 비칭거리며 철창을 댄 창구앞으로 다가가 딸과 마주섰다.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도…》
전혀 몰라보리만큼 피멍이 들고 처참하게 터지고 이그러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순애는 몸서리를 치면서 흐흑… 참지 못하고 흐

느껴울었다. 10분전까지만 하여도 자기는 아버지앞에서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으리라고 마음다졌던 순애였지만 울컥 자신도 어쩔새없이 솟아오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했다.

《순애야, 어서 눈물을 거두어라. 이런 곳에서 그러면 안된다고 내 얼마나 말했느냐!》 하고 임성욱은 자기자신도 눈물을 머금으며 자애로운 목소리로 딸애를 타일렀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그렇게도 선량하고 그렇게도 착한 아버지를 저 악착한 야만의 무리들이 이렇게까지… 어쩌면 이럴수가 있어요?)

순애는 너무도 기가 막혀 어깨를 떨면서 흐느꼈다.

《아…버…지!—》

《오냐, 순애야. 너무 괴롭게 생각하지 말어라!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만큼 살았고 또 너도 알고있겠지만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남들에게나 하늘을 우러러도 결코 부끄러운짓을 한것이 없었다. 다만 저 미국이라는 나라의 야만들을 그래도 인간들이려니 잘못 생각했던것은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였다.》

마치 자기 생각의 실머리를 잃어버리기라도 한듯, 바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가를 놓쳐버린것처럼 임목사는 갑자기 말을 끊었다. 그러나 잠시후 그는 그 무슨 짐을 벗어던지기라도 하는듯이 머리를 흔들더니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말했다.

《이 가혹한 류례없는 동란의 대시련은 내가 50평생동안 깨닫지 못했던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하느님의 사도라고 자칭하는 저 미국놈들은 악마들이고 괴물이며 야수들이다. 그리고 순애야, 너의 가까이에도 마을의 이웃들에게도 인간쓰레기들이 있다는것을 잊지 말어라. 암매와 무지몽매로부터 저질러지는 악행, 몰리해와 질투, 남의 행복에 대한 시새움이 악행을 낳는다는것도 명심해두는것이 좋으리라고 너에게 말해둔다.》

《알겠어요, 아버지!》

불현듯 순애는 지금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꼭 하고싶었던 심중의 말을 하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더욱 흐느끼며 울었다.

《딸아, 또 하나 네가 꼭 명심해둘것이 있다. 지금은 일시 부정의와 악이 이기고 그 기회에 인간추물들과 미국야만들이 무고하고 선량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무참히 학살하고있지만 종당에는 정의와 선량한 사람들이 부정의와 악을 타승하게 될게다. 그것은 왜냐하면 옛말에도 있듯이 정의앞에는 대항할 적이 없기때문이다.》 하고 임성욱은 어느때인지 집에 들렸던 도위원장이 했던 말을 자기가 되풀이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도 비상한 정신적앙양을 느끼면서 말을 보탰다.

《순애야, 일시적인 기간에는 악이 승리하는 때도 가끔 있지만 전기간에는 항상 참과 선량함이 이기는 법이란다!》

《아버지!…》

《됐다, 난 너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했다. 한데 그건 무엇이냐?》

《식사예요, 아버지!》

《물은 없느냐?》

《여기 물도 있어요.》 하고 순애는 물병과 식사가 들어있는 보꾸레미를 들어보이면서 울음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물병만 주렴.》

임성욱은 딸애한테서 물병을 받아들고 순애의 얼굴을 새겨보며 한참동안 침묵했다. 그다음 평온하면서도 가슴을 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고맙다, 이제는 돌아가거라. 언제나 마음을 굳게 먹고 선량하고 참되게 살아라!》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서서 조영모에게로 다가갔다. 임성욱은 죽은듯이 맥이 빠져 꼼짝않고 잠잠한 조영모를 흔들었다. 그러나 조영모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눈을 뜨지 못했다.

《리위원장!ㅡ》

《음… 임목사, 왜 그러오?》

《어서 물을 좀 마시고 기운을 내오.》

《물?… 그건 어떻게 생긴거요? 혹시 더럽게 놈들한테 구걸한건 아니요?》

《그런게 아니요, 딸애가 왔드랬소.》

《뭐요? 딸애가?…》 하고 조영모는 눈을 번쩍 떴다.

《그게 정말이요?》

조영모는 놀라며 임목사의 무릎을 잡고 끙끙 신음하면서 일어나앉았다.

《그래 딸애는 갔소?》 하고 조영모는 별스럽게 무뚝뚝한 목소리로 물었다.

임성욱목사는 조영모의 그 특유한, 무뚝뚝하게 표현하는 목소리에서 뜨거운 애정의 감정을 느끼며 얼핏 창구쪽을 돌아보았다.

《그 애가 아직 돌아가지 않은것 같소.》

《날 좀 일으켜주오.》

임목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선 조영모는 더듬더듬 창구쪽으로 힘겹게 걸어갔다. 임목사와 조영모는 서로 의지하면서 창구앞에 선 순애에게로 다가섰다.

《리위원장아버님!―》

순애는 나직이 웨치며 돌덩이처럼 굳은 커다란 조영모의 손을 잡았다.

순간 그처럼 꿋꿋하고 강의하며 쇠덩이같이 굳센 조영모의 눈에 피끗 눈물이 고여오르는듯 했다. 그는 목이 메인듯 말을 못하고 눈물을 삼켰다.

《체니, 내 눈물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오. 이렇게 체니를 만나니 내 아들녀석을 보는것처럼 기뻐서 그러오.》

조영모의 무뚝뚝한 목소리는 기쁨과 격동으로 떨렸다.

《리위원장아버님!…》 하고 순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껴울었다.

(얼마나 대바르고 진실하며 참다운 인간인가! 그런데… 그런데…)

순애는 별안간 추악하고 비렬하기 그지없는 적들에 대한 증오가 솟구쳐오름을 느꼈다. 그는 불시에 울음을 그쳤다.

《체니, 내 아들녀석을 만나거든 잊지 말고 꼭 전하오. 애비는 비록 놈들에게 잡혀죽지만 더럽게 죽지는 않았다구 말이요. 그리고 내가 철수녀석에게… 원쑤놈들은 절대로 단 한놈도 용서해서는 안되며 무자비하게, 오직 무자비하게 죽여야 한다는것을 당부하고 또 당부하더라고 잊지 말고 전해달라구!…》

숨이 차오르고 가슴이 찢어지는듯 한 동통과 고열때문에 조영모는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면서 힘겹게 말했다.

오물들이 너저분하게 널린 뜨락 저쪽에서 상고머리불량배놈이 철썩거리며 다가오더니 몰풍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여, 가라. 울구불구해도 소용없어, 이제는 끝장이야!》

순애는 모질게 놈을 쏘아보고나서 조영모에게 정확한 어조로 말했다.

《리위원장아버님, 잊지 않고 꼭 그대로 전하겠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부탁하고싶은건 우리 집 그녀석하고…》

그러다가 조영모는 뜻밖에도 시원한 미소를 띠우고 너그럽게 순애의 손을 잡았다, 그것으로 의미있는 그 다음말을 대신하려는듯이.

《썩 사라지지 못하겠어? 치안대장님이 알면 순애두 좋지 않아! 이건 빈 으름장이 아니란 말이야!ㅡ》

상고머리불량배놈은 왈칵 순애를 무작정 떠박질렀다. 솟아오르려는 눈물을 억누르며 순애는 뜨락 한쪽으로 물러섰다.

(아버님들!ㅡ)

순애는 감방앞의 뜨락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뒤돌아보았다. 아직도 그들 두 아버지는 서로 의지한채 굳어진듯 묵묵히 서서 순애를 바라보고있었다.

24

돌무지마을 상공에는 만월에 가까운 창백한 달이 거의 별도 없는 검푸른 초겨울하늘에 높이 걸려있었다. 허허벌판에서 구슬픈 소리를 지르며 기승을 부리던 맵짠 바람은 마을로 거침없이 휘몰려와 농가들의 이영을 와스스 들추어대고 전선줄을 웅웅 울렸다. 바람은 세상의 모든 악마들에게 쫓기우듯 어디로 무엇때문에 가는지도 모르고 이쪽저쪽으로 분별없이 날아다녔다. 서강가의 버드나무들이 부러져나가고 호수와 늪들에서는 물이 기슭으로 몰려들었다. 바람이 많기로 유명한 이 고장에서도 여적 이런 바람은 누구도 본적이 없었다.

어디선지 불쑥불쑥 얼어붙은 밤의 어둠속에서 탕ㅡ 탕ㅡ 죽음의 씨

앗을 휘뿌리는듯 한 총소리가 들려온다. 몸도 얼어들고 마음도 얼어드는듯 한 불안하고 스산한 전란의 겨울밤이다.

이밤 순애는 캄캄한 방안에서 슬픔을 걷잡지 못하고 흐느껴울고있었다. 그는 옷을 입은채로 반듯이 누워 이불우에 두팔을 기운없이 내던지고 군감방으로 끌려간 아버지, 이 스산한 겨울밤 어디서 떨고계시는지 아니면 학살되여 어딘가 차디찬 땅에 묻혔을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슬피슬피 울었다.

(이러지 말아야 해!… 이래선 안돼!…)

의식의 다른 한쪽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들려오고있었지만 슬픔과 괴로움을 걷잡지 못했다. 그는 오래동안 울었다. 눈물은 막을수없이 흘러내렸다.

(언제 어느때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그지없이 선량하던 아버지, 그런 우리 아버지를 잡아가고 악형을 가하다니?… 비렬하고 악착하기 그지없는 원쑤놈들!…)

순애의 가슴속에는 피멍이 들고 온통 부어서 몰라보게 되였던, 마지막으로 감방에서 본 아버지의 처참한 모습이 맺혀있었다. 그는 쓰라린 슬픔과 괴로움, 닥쳐든 불행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쳤다. …

그 처녀의 생활은 뒤죽박죽되였다. 한때 행복한 생애가 흘러가던 고향마을은 야만적인 피의 살륙장으로 변하고 학교는 불타무너졌으며 아버지마저 악형을 당하고 그것도 시원치 않아 군감방으로 끌려갔다. 지금 아버지는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희생되였는지 생사조차 알길 없다.

(이 참혹한 악몽같은 현실에서 이제 나홀로 어떻게 지낼가?…)

캄캄한 방안에서 처녀는 슬픔과 불안으로 몸을 뒤채며 생각하였다. 처녀에게는 기실 가혹한 전란의 이 시절 혈육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더우기 그에게는 자기의 생각을 마음놓고 하소하고 믿고 의지할만 한 가까운 사람조차 곁에는 없었던것이다. 그런데다 그의 집에는 자주 헛소리를 지르며 신음하는 나이지숙한 부상병군인까지 있어서 처녀는 훌쩍 어디로 떠나갈수도 없는 난처한 형편이였다. 마을에서는 몸서리치는 무시무시한 학살만행의 광란이 계속되고있었다. 밤을 자고나면 여기저기 새로운 시체들이 늘어났다. 그 시체들속에는 마을사람들과 낯모를 타고장사람들도 있었다. …

뜨락의 컴컴한 울타리쪽에서 현줄을 튕기듯 고즈넉이 울어예는 이름모를 밤새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렇지만… 기운을 잃어선 안돼!)

이윽고 순애는 불안과 슬픔에 내맡겼던 자신을 달래기 시작했다.

(이래선 안돼… 안돼…)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이고 주먹을 꽉 쥐여 손가락마디들의 꺾이는 소리를 내였다. 그리고는 기운을 내여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림을 열려고 그리로 다가갔다.

창가림이 벗기자 달빛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키고서서 그러기를 기다리고나 있었던듯이 방안으로 흘러들었다.

축축한 습기와 랭기가 떠도는 뜨락은 훤하였다. 거기에는 한쪽이 검고 다른 한쪽은 은빛으로 환히 밝혀진, 가지들을 다스려주지 못한 양벗나무와 감나무가 사색에라도 잠긴듯이 서있고 그밑에는 꽃대신 줄기와 가지만 남은 꽃나무들이 은빛으로 번쩍이고있었다.

처녀는 문득 깊고도 짧은 한숨을 내쉬며 검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별찌 하나가 린빛의 꼬리를 끌면서 구월산쪽으로 살같이 떨어져내렸다.

(이런 때에, 이처럼 괴롭고 불안한 때에 철수동무가 곁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순애는 지금 실현될수 없는줄을 뻔히 알면서도 생각은 그렇게 했다.

(철수동무와 함께라면 그 무엇도 두려운것이 없으련만… 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을가? 무사히 살아서 싸우고있는지?…)

순애는 언뜻 부상병이 있는 옆방에서 무엇인가 쿵—하고 무거운것이 떨어져내리는듯 한 웅근 소리에 깜짝 놀랐다.

(갑자기 웬일인가? 혹시 무슨 불행한 일이라도?…)

황급히 창가에서 물러선 그는 재빨리 옆방으로 들어갔다.

나이지숙한 부상병은 웬일인지 방 한쪽에 세워놓았던 총을 짚고 방바닥에서 비틀거리며 힘겨웁게 일어서고있었다.

《아니, 왜 그러세요?》 하고 순애는 놀라며 조급히 물었다.

부상병은 침착하게, 주의깊이 순애를 살펴보고나서 조금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대답했다.

《별일 아니요. 그저… 흐느껴우는 소리가 들리는것 같아서 일어섰드랬는데… 도저히 뜻대로 되지 않는구만.》

(나의 흐느낌소리를 들었구나!…)

불시에 순애는 부끄러움과 미안스러움으로 나직이 한숨짓고 잠잠히 서있었다.

나이든 병사는 흘러든 달빛에 어슴푸레하게 드러난 순애의 울어서 부석부석한 눈을 다시 유심히 살펴보면서 물었다.

《처녀동무, 실례이지만 무슨 일로 그렇게도 괴로와하는지 내게 말해줄수 없겠소?》

《안예요, 안예요.》

순애는 자기에게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웃어보이려고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어색하게 얼굴을 찡그렸다. 그리고는 자기자신에게 마음속으로 화를 내면서 급히 말을 계속했다.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편히 누우세요. 그러다가는 상처가 심해질수 있어요.》

《처녀동무!》 하고 나이지숙한 병사는 듣기 좋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입대하기 전까지는 교단에 서있던 사람이요. 정확히 말하면 몇달전까지만 해도 나는 사리원에서 고급중학교학생들에게 조선력사와 조선지리를 가르쳐주었댔소. 처녀동무, 무슨 일로 그토록 괴로와하는지 말하오.》

《저… 그건…》

침착하고 강직하면서도 인정깊은 나이든 병사에게 따뜻한 친근감을 새삼스레 느끼면서 순애는 불현듯 다시 터져나오려는 흐느낌소리를 애써 삼켰다.

《처녀동무, 나는 나이든 사람이요. 그러니 동무보다는 생활을 잘 알거요. 어서 말하오, 슬픔은 털어놓으면 가벼워진다는 말이 있소.》

《아바이!…》 하고 순애는 끝내 소리없이 울었다.

조금후에 그는 군감방으로 끌려가 생사를 알길 없는 아버지며 어딘가에로 후퇴한 소식 모르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에게 털어놓고 속시원하게 이야기했다.

《그랬었군.》

부상당한 병사는 고통스럽게 비청거리면서 창가로 걸어갔다. 병

사는 거기서 총을 지팽이처럼 짚고 서서 달빛이 쏟아져내리는 창밖의 어딘가를 응시하며 오래동안 침묵하고있었다.

《처녀동무, 너무 괴로와하지 마오. 물론 군감방으로 끌려간 아버지의 생사를 알수 없는건 불행한 일이요. 그러나…》

병사는 아주 침착하게 말하면서 간신히 순애에게로 걸어와 힘겨운듯 펴놓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지금은 슬퍼만 하고있을 때가 아니요. 력사에 류례드문 이 큰 시련앞에서… 우리는 지금 증오로 불타야 하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노여워하지는 마오. 처녀동무, 나는 미국놈들의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에 늙으신 부모님과 처 그리고 세 아들딸들을 한날한시에 잃은 사람이요. 난 온 일가의 시체를 내 손으로 묻고 그날로 교단을 떠나 전선으로 나갔었소.》

마치 일상적인 보통말을 하듯이 그는 이 모든 말을 아주 침착하게, 아무러한 과장도 없이 평범하게 말하였다.

《처녀동무, 잘 기억해두오. 말로는 다 할수 없는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시련과 고통과 괴로움… 간난신고한 그 모든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닐거요. 내 말을 믿소. 이제 우리의 손으로 전쟁이 끝나면 또다시 창조와 행복한 생활이 조국땅 곳곳에서 타오르게 될거요!》

병사는 부상당한 다리가 못 견디게 쑤시는 모양 참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냈다.

《몹시 괴로운가요?》 하고 생각에 잠겼던 순애는 번쩍 머리를 들었다.

《난 일없소. 이제 며칠후면 구월산으로 떠날수 있을것 같은 생각이 드오.》

《어서 편히 누우세요.》

《좀 눕겠소, 처녀동무…》

부상병은 힘들게 쓰러지듯 자리에 누우면서 역시 침착하게 말했다.

《애인인 내무원청년도 지금 어딘가에 살아서 싸우고있다고 믿으시오!》

(옳아요! 저는 정말 믿고 기다리겠어요!) 하고 순애는 따스한 감동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웨쳤다. 인간은 믿어야 하며 기다려야 한다

는 말은 순애에게 전혀 새롭거나 처음으로 듣는 말도 아니였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장소에서 상기시켜준것이 무척 고마왔다. 그렇다, 생활은 정말 어느 책에서 읽은것처럼 어렵고 험난한 때일수록 기다리는것이고 희망하는것이고 믿는것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이 없고 믿음을 상실하고 희망을 잃으면 이 준엄하고 간고한 시절에 어떻게 살아가랴!…

《고마워요. 그럼 전 가보겠어요. 몸이 괴롭거나 부탁할 일이 있거든 미안해하지 말고 아무때나 저를 찾으세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어서 푹 쉬오. 밤이 깊은것 같은데… 가만, 이건 무슨 소리요? 누가 문을 두드리지 않소?》

불시에 병사는 익숙된 동작으로 민첩하게 머리맡에 세워놓았던 장탄한 총을 끌어당겨 틀어잡으면서 긴장했다. 순애도 긴장하여 밖의 동정에 귀를 기울였다.

《문을 빨리 열라!… 그렇지 않으면 문을 부셔버릴테다!》 하고 누군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며 법석대는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다.

(놈들이구나!—)

순애는 불시에 잔등으로 차디찬 뱀이 스르륵 지나가는것 같은 불길하고 상서롭지 못한 예감을 느꼈다.

《적들이 온것 같소!》 하고 부상병이 자리에서 힘들게 몸을 일으키며 조용히 속삭이듯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뒤따라 팽팽한 긴장과 불안이 무겁게 서린 어두운 방안에서 절컥!— 총의 격철을 올리는 쇠소리가 피의 격전을 예고하듯 뚜렷이 들렸다.

《처녀동무, 내 말을 명심해듣소. 이제 총소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동무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급히 뒤뜨락으로 나가시오. 그다음 밖으로 빠져나가 구월산쪽으로 내달려야 하오!》 하고 부상당한 병사는 어둠속에서 침착하게 명령조로 말했다.

《그러지 마세요!》

순애는 긴장으로 몸을 가볍게 떨면서 나직이 소리쳤다. 그는 지나치게 긴장한탓인지 관자노리가 툭툭 뛰면서 뻐근하게 아파나는것을 감촉하였다.

《그렇게 서두르지는 마시고 조용히 계세요. 제가 나가보겠어요.》

순애는 다시 나직나직이 말하고 활랑거리는 가슴을 지그시 누르면서 어스레한 뜨락으로 나왔다.

대문밖에서 전지불빛이 번쩍거리더니 독살스럽고 악의에 찬 목소리가 찌르듯이 날아왔다.

《왜 꾸물거려? 빨리 문을 열지 못하겠어?》

《무슨 일로 그래요?》

순애는 될수록 침착하고 태연하게 말하려고 하였지만 어쩐지 자기 목소리가 생소한 남의 말소리처럼 들렸다.

《지금 마을의 집들을 수색하는중이야!》 하고 대문밖에서 불량배인 상고머리 《치안대》놈이 표독스럽게 소리쳤다.

《우리 집에는 아무도 온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예요.》

《그래두 수색은 해야 돼!》

상고머리 《치안대》놈은 웬일인지 별안간 은근한 목소리로 뇌까렸다.

순애는 더듬더듬 대문의 빗장을 뽑고 흠칫 몸을 떨며 몇걸음 뒤로 물러섰다. 상고머리놈은 와락 문을 열어제끼면서 성큼 뜨락으로 들어왔다.

순간 달이 뜬 희푸름한 하늘을 배경으로 상고머리 《치안대》놈의 그림자가 먹그림처럼 떠올랐다.

어스레한 뜨락의 이곳저곳을 샅샅이 전지로 비쳐보던 상고머리놈은 이번에는 그 전지불빛으로 순애를 비쳤다. 전지불빛은 칼질하듯 날카로운 불빛으로 처녀의 다리에서 얼굴에로, 얼굴에서 다시 다리에로 옮겨가며 순애의 온몸을 두루 비쳤다. 그리고는 좋멘 어깨를 으쓱 솟구면서 허옇게 이발을 드러내며 싱긋 웃었다.

《겁을 낼건 없어. 온 마을의 집들을 일제히 불의에 수색하라는 미군사령부의 명령이 내렸단 말야. 난 이 주변의 집들을 맡았어!》

상고머리놈은 긴장하여 입을 꼭 다물고있는 순애곁으로 바싹 덮칠듯이 다가서더니 터무니없이 조그마한 쪼프린 눈으로 처녀의 드러난 흰목을 탐욕스레 들여다보며 어깨를 슬쩍 건드렸다. 그러자 역하고 진저리나는 술냄새가 훅— 순애의 코를 찔렀다. 잔인하고 악착한 인간백정인 이놈이 갑자기 흉물스럽게 왜 이럴가?…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빠르게 의식속을 스치고 지나가자 순애는 오싹 소름이 끼치는것을

느꼈다.

상고머리놈은 구역질나는 소주냄새를 물씬물씬 풍기면서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며 별스럽게 한쪽으로 머리를 기웃하고 속삭이듯 중얼중얼했다.

《뭐, 나두 순애가 요즘 외롭게 혼자 있는줄은 알고있어. 해두 집안까지 수색해봐야겠어, 명령이거던. …》

총을 훌쩍 벗어들고 상고머리 《치안대》놈은 길다란 검정외투자락을 펄럭거리면서 부상병이 있는 방문앞으로 저벅저벅 다가갔다.

《?!…》

《순애, 이 방은 왜 자물쇠를 채웠어?》

상고머리 《치안대》놈은 전지불로 방문을 비치면서 의심스럽게 물었다. 순애는 황급히 방문옆으로 다가섰다.

《그 방은 보나마나해요. 아버님의 방인데 벌써 문을 잠그어놓은지 오래 됐어요!》 하고 순애는 태연하려고 애쓰면서 침착하게 응대했다.

《그래?… 하지만 방안을 봐야겠어. 어서 문을 열어!》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서 찾아보라구.》 하고 상고머리놈은 또다시 탄탄한 순애의 어깨를 툭 건드렸다.

극도로 긴장한 순애는 상고머리놈의 싱거운 손짓에 흠칫 놀라며 몸을 가볍게 떨었다.

《열쇠는 제 방의 어딘지에 있겠는데… 캄캄해서 어디 찾겠어요.》

《응, 좋아. 내가 그럼 전지불로 비쳐주지. …》

순애는 할수없이 어스레한 자기 방으로 마지못해 들어와 역증스럽게 서랍도 열어보고 화장품함도 일부러 와르르 소리를 내여 뒤척거리면서 열쇠를 찾는것처럼 했다.

(만약 저 표독스럽고 악착한 인간쓰레기놈이 부상당한 병사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총성이 울리고 격투가 벌어지게 될것이다!)

초긴장한 순애의 가슴속으로 짤막한 전률이 지나갔다.

《못 찾겠어요, 어디에 두었는지…》

《좋아!》

문가에 비스듬히 기대서서 지꿎게 두루두루 전지불을 비치던 상고머리 《치안대》놈은 성큼 방안으로 들어섰다.
《순애!》 하고 상고머리놈은 느닷없이 다가서며 허리를 굽히더니 축축하게 땀이 배인 손을 내밀어 순애의 손을 덥석 그러잡았다.
불의적인 기습에 화닥닥 놀란 순애는 징그러운 벌레를 털어버리듯 상고머리놈의 손을 홱 뿌리치고 질겁하여 뒤로 물러섰다.
《한푼짜리 각시처럼 뭘 그래? 너무 비싸게 굴어도 좋지 않아, 매화도 한철이구 국화꽃두 한철이란 말을 못 들었어?》
수말이 울듯이 상고머리 《치안대》놈은 흥흥거리며 웃어댔다.
《순애, 며칠전에 감방보초를 서고있는 나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했댔지? 난 그때 순애의 사정을 들어줬어, 생각날테지?… 자, 나도 순애에게 사정하는거야. 들어주겠어, 안들어주겠어?》
상고머리 《치안대》놈은 응대를 바라지도 않고 불시에 덮치듯이 달려들었다. 놈은 순애의 두팔을 움켜잡고 와락 끌어당겼다. 역한 술냄새와 엇섞인 구역질나는 개비린냄새가 훅— 그물처럼 순애의 얼굴을 씌웠다.
《이걸 놔요, 더러운 놈!—》
진저리를 치며 처녀는 털어버리듯 상고머리놈을 힘껏 떠밀어치우고 문이 있는쪽으로 달려나가려 했다. 그러나 어느새 상고머리 《치안대》놈이 그를 막아섰다.
《뭐, 더러운 놈? 좋아, 내 더러운 놈이니 네년을 깔고앉아 네년도 더럽혀놓겠다!》 하고 상고머리놈은 북받치는 악과 미친듯 한 정욕에 사로잡혀 마구 지껄여댔다.
순애는 본능적인 공포와 혐오감으로 걷잡을수없이 전률하듯 흠칫 몸을 떨었으나 옆방의 부상병때문에 마음놓고 소리도 지르지 못했다. 그런데다 상고머리놈이 문앞을 떡 막아서고있어서 밖으로 빠져나갈수도 없었다.
《내 오늘 밤 네년을 소나무껍질 벗기듯 홀랑 벗기고말겠어, 네년의 새빨간 알몸뚱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창문으로 흘러드는 차거운 달빛이 어슴푸레하게 비친 상고머리놈의 이그러진 얼굴에서 바투 다가붙은 조그마한 두눈이 성난 야수의 눈처

럼 독살스럽게 번득거렸다. 그놈은 마치 자기가 억울하게 심한 모욕을 받고 가슴에 상처라도 입은듯이 분노로 씨근거리며 이발을 갈면서 한걸음한걸음 다가들었다.

순애는 공포와 울분으로 몸을 떨면서 뒤로 물러섰다. 쿵— 하고 바람벽에 붙여놓은 책상이 그의 등뒤로 부딪치면서 물주전자가 자빠지고 방바닥으로 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더는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 그러자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오려는것을 그는 겨우 눌러 참았다. 그리고는 울분으로 흐느끼면서 절벅거리는 책상우를 더듬어 물주전자를 아귀차게 틀어잡았다.

《더러운…놈! 인간…쓰레기!—》

순애의 격분한 목소리는 증오와 울분으로 토막토막 끊어졌다.

《이제는 그만 다 지껄였어?… 난 빨갱이놈들의 세월에도 네년을 손에 넣고싶어 안달복달했다. 그런데 그때 네년은 나를 헌걸레만큼두 여기지 않고 본척두 안했지? 좋아, 내 오늘 그 앙갚음을 톡톡히 할테야!》

이제는 눈앞에 바싹 다가선 놈의 입에서 구역질나는 더운 입김이 훅훅 날아왔다.

《내가 오늘은 네년을 깔구앉아 헌걸레짝으로 만들겠어. 세상이 바뀌였거던… 자, 이제는 귀신도 빠져나가지 못해!》 하고 상고머리 《치안대》놈은 잔인하게 이발을 갈면서 처녀를 와락 덮치려고 달려들었다.

그 순간 순애는 《으악!—》 하고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치면서 상고머리놈의 면상을 향해 물주전자를 힘껏 내던졌다.

《헉—》

지지는듯 한 정욕과 참을수 없는 학대욕에 사로잡혀 미친듯이 달려들던 상고머리놈은 괴상한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밑잘린 나무처럼 물흐르는 방바닥에 철썩 쓰러졌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잠잠했다. …

처녀는 실성한 사람처럼 옴짝않고 책상에 기댄채 서있었다. 그는 자기가 방금 어떤 정황에서 무슨 행동을 하였으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의식하지 못했다. 문득 어딘지 마을에서 꿈속에서처럼 개짖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처녀는 자기가 무서운 악몽속에 있는듯이 생각되였

다. 온몸의 힘이 쭉 빠졌다. 그는 웬일인지 눈앞이 캄캄하고 몸을 도저히 움직일수 없었다. 누군가 벌컥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는 기척을 느꼈으나 무엇인지 꿈속에서처럼 몽롱하고 어슴푸레하였으며 모든것이 명확치 않았다.

《처녀동무!》

부상병이 절름거리면서 굳어진듯 서있는 그에게로 다가섰다.

《처녀동무, 어떻게 된 일이요?》 하고 부상병은 처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처녀는 흠칫흠칫 몸을 떨었다.

《저놈이… 저놈이…》

순애는 무슨 말인지를 하려고 하였지만 목소리는 목안으로 잦아들었다. 새까맣게 질린 그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고있었다.

《저놈은… 이제… 깨여나면…》

《처녀동무, 두려워마오! 내가 이제 저놈을 뒤뜨락으로 끌어내다가 소리없이 처리하겠소. 그다음 매장해버리면 그만이요!》

나이든 병사는 무자비한 어조로 말하고나서 아직도 더럽게 꿈틀거리고있는 상고머리 《치안대》놈을 주저없이 뒤뜨락으로 끌어내갔다.

순애는 아직도 옴짝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굳어진듯 그대로 서있었다. 창문으로 달빛이 흘러드는 고요한 방안의 어딘가 지척에서 똑… 똑…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다. 그 처녀는 여전히 무거우면서도 남의것 같은 머리를 들어 방안을 둘러보았다. 물주전자가 쏟아졌던 책상우에서 방바닥으로 물방울이 줄지어 떨어져내리면서 조용히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있었다. 물방울 떨어지는 그 단조롭고 규칙적인 가느다란 소리는 돌연 그에게 방금 여기서 겪었던 무시무시한 일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했다. 온몸을 더듬듯이 두루 비치던 전지불빛, 허연 이발을 드러내고 웃어대던 징그러운 상고머리 《치안대》놈의 너털웃음, 짐승의 눈처럼 사납게 번득이는 그놈의 피발이 선 눈빛, 그다음… 얼굴에 그물처럼 들씌워지던 뜨겁고도 구역질나는 화끈 달아오른 입김과 개비린냄새… 순애는 오싹 몸서리를 쳤다. 등골을 달리는 선뜻한 소름이 그 처녀를 찍어눌렀다. 되살아난 그 더럽고 지긋지긋한 무서운 충격으로 그는 풀썩 무릎을 꺾으며 무너지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

다. 뒤뜨락쪽에서 새벽닭 우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있었던것이다.

25

물…물…

앞에도 뒤에도 사방 어디나 눈에 보이는것은 온통 물천지다. 먼곳, 가까운 곳에서 폭포들이 쏟아져내리고 차디찬 샘물이 솟아오르고 강물이 흐르고 호수가 넘쳐나고 시원한 분수가 하늘높이 뿜어오른다. …

신열로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오른 룡진은 자기가 지금 환각속에 빠져있다는것을 희미하게 의식하고있었다. 그는 꿈같기도 하고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몽롱한 의식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누구인지 자기 몸을 조심히 흔드는것을 감촉하면서 힘들게 눈을 떴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띈것은 피멍이 들고 눈물자욱이 력력한 시인 강승한의 얼굴이였다. 지금껏 시인은 자기를 지켜보고있은것 같았다. 시인의 왼쪽눈과 머리에는 내의를 찢어서 만든 붕대로 싸매여있었다. 그의 오른쪽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있었으며 엇비스듬히 싸매여 가리운 다른쪽눈언저리에도 젖은 반점이 내배였다. 천으로 싸맨 시인의 두번째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고있는것이다.

(그가 울다니? 설마…)

룡진은 내심 놀랍게 생각하면서 침착한 표정으로 그를 지그시 응시하고있었다.

《도위원장동무!…》 하고 시인이 먼저 비분에 찬 목소리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떨렸다.

《강선생, 왜 그러오?》

룡진은 신음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무거운 머리를 들고 힘들게 몸을 일으켰다.

《도위원장동무, 너무 분해서 그럽니다. 저따위 버러지같은 놈들한테 그렇게도 고상한 인간들이 겪는… 그리고…》

시인은 가슴이 찢어지는듯 한순간 말을 끊었다가 정신적고통이 더

욱 뚜렷하게 느껴지는 목소리로 흐느끼며 말했다.
《조국이 당하는 시련이 너무도 가슴아프고 고통스러워 그럽니다!》
그는 얼굴의 근육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소리없이 조용히 울었다.
(다정다감한 시인의 저 눈물은 흔히 볼수 있는 그런 보통눈물이 아니다.)
룡진은 자기의 긴장한 정신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강선생, 너무 괴로워하지 마오. 우리 조국은 미제가 들씌운 력사상 류례없는 이 피의 가혹한 시련을 이겨내고 반드시 승리할게 아니겠소. 》
룡진은 보통때처럼 평온하면서도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괴로움과 분격으로 떨리고있었다.
《도위원장동무,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도 가슴아파…》
《강선생, 조국이 종국적인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 눈물을 가슴속에 묻어두오. 》
정신적고통과 확확 달아오르는 고열로 입안이 타는듯 말라들어 룡진은 바람벽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그는 몸을 식히려고 철망을 덧붙인 자그마한 창구로 가까이 갔다. 찬바람이 몰려드는 작은 창구앞에서는 자락이 길다란 솜외투를 입고 닭똥이 잔뜩 묻은 솜신을 신은 텁수룩한 《치안대》한놈이 철석철석 발을 구르면서 왔다갔다하며 보초를 서고있었다. 그뒤의 조금 떨어진 곳에는 미군병사놈들과 《치안대》원 몇놈이 벽에다 총들을 세워놓고 끼리끼리 모여 시들한 이야기를 지껄여대면서 앉거나 혹은 선채로 담배도 피우고 무엇인지 질근질근 씹고있었다. 거기서 중년나이쯤 되여보이는 얼굴이 험상스런 한 《치안대》놈이 비굴한 표정을 짓고 새파란 미군병사놈의 시중을 들면서 던져주는 껌과 사탕따위를 주머니에 쑤셔넣고있었다.
《이리 오시오!》
룡진은 엄격한 목소리로 《치안대》보초놈을 가까이로 불렀다. 《치안대》보초놈은 분격한 룡진의 부름소리를 듣고 떨떠름하여 멍청하니 서서 바라보며 눈만 섬뻑거렸다. 그러더니 마침내 무지하고 천박한 머리에 그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지 피우던 담배를 닭똥이 잔뜩 들어붙

은 신바닥에 대고 분질러 꼈다. 그리고는 그 꽁초를 후후 불어 귀바퀴에 슬쩍 끼우더니 분격한 룡진을 경계하면서 주춤주춤 걸어왔다.

《왜 그러우?… 나를 속일 생각은 아예 하지두 마우!》 하고 《치안대》보초놈은 버드렁 금이발을 드러내며 분명치 않은 목소리로 중얼중얼했다.

룡진은 가까이로 다가온 그 보초놈을 몇순간 말없이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멍청하고 동작이 느린 텁수룩한 그자의 얼굴에는 무지와 몽매뿐만아니라 무엇인지 뒤틀린 심술궂음과 잔인성까지 잔뜩 내배여있었다.

룡진은 솟아오르는 분격을 지그시 누르고 엄격한 시선속에 보초놈을 끌어넣으면서 웅글은 목소리로 따지듯이 물었다.

《그래 당신은 우리 공화국정권에 무슨 의견이 있소?… 인민정권이 당신에게 준 피해는 도대체 뭐요? 말해보시오!》

더부룩한 머리를 이리저리 기웃거리면서 《치안대》보초놈은 무엇을 생각해보는 모양으로 한참동안 눈을 섭뻑거렸다.

《그런건 시끄럽게 왜 물어보면서 야단이우? 뭐 손해본걸 말하면 거기서 갚아라도 주겠시까?…》 하고 《치안대》놈은 눈을 섭뻑거렸다.

《여보, 당신은 무엇때문에, 어째서 침략자 미국놈들의 더러운 개노릇을 하오? 무슨 까닭으로 자기 조국과 공화국정권을 배반했는가 그걸 묻는거요.》

낮으나 저력있는 분개한 목소리로 룡진은 《치안대》놈을 질책했다.

《뭬릉하는지 모르겠시다. 내가 뭘 배반하구서 개노릇을 한다구?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가만 놔두지 않고 쏘겠수다. 난 뭐 밸이 없는 사람인줄 알우?》 하고 버드렁이는 짐짓 총을 절컥거리면서 증난 소리로 중얼댔다.

《이제는 둥지가 뒤집혔단 말이우! 그러니께 거기는 서리맞은 풀이란 말이요. 한데 거기선 나를 본 생각이 나지 않시까?》

코털이 구지레한 시커먼 코구멍을 벌름거리면서 《치안대》보초놈은 누런 버드렁이발을 드러내고 돌연 히죽이 웃었다.

《…》

룡진은 억이 막힌듯 입을 꾹 다물고 분명 바보같은 버드렁이를 지그시 응시하였다. 전혀 어디서든 본 기억이 없는 놈이였다.

《헤헤… 거기선 날 몰라보는것두 당연하지…》

버드렁이는 무지스러운 천박한 웃음을 떠올리고 웅얼웅얼 분명치 않은 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우리 농사군들은 벼이삭처럼 많으니께니 몰라본단 말이우. 그전때 난 거기를 여러번 봤단 말이여. … 그때는 사람들이 모두 도위원장은 좋은 사람이라구들 하기에 나두 그러나부다하고 생각하고있었는데… 세상이 뒤집히니께니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큰빨갱이라고 나한테 말해주길래 지금은 또 그러나부다 하구 알고있시다.》

(영낙없는 바보로군.)

룡진은 불쑥 터져나오려는 폭소를 간신히 눌러 참았다. 그는 자기의 무지와 몽매, 천박성, 정신적빈곤을 꺼리낌없이 스스로 드러내보이고는 제켠에서 장한듯이 좀멘 어깨를 으쓱 춰올리면서 누런 버드렁이를 드러내고 히죽거리는 《치안대》보초놈을 찬찬히 뜯어보며 침묵하고있었다.

《여보, 당신은 방금 자기를 농사군이라고 했소. 그렇다면 당신은 해방후 공화국정권하에서 땅도 분여받고 새생활을 시작했을거요. 그런데 어째서 지금 그런 너절한 몰골을 하고 다니오?… 당신은 자기가 지금 공화국정권앞에 어떤 죄를 짓고있는지 알기나 하오?》 하고 룡진은 분명 부실한 바보같아보이는 버드렁이에게 괴로움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체, 해방후에 땅을 분여받구 뭐 새생활을 시작했을거라구?…》

버드렁이는 갑자기 이상하게 표독해지면서 살기를 띠고 코웃음을 쳤다.

《난 해방덕을 쥐뿔두 받은게 없는데두? 체, 새생활은커녕 손톱이 닳도록 내 손으로 땅만 뚜지구… 이래뵈두 난 해방전에 집에다 머슴까지 두고 편안히 농사했댔어. 부농이였단 말이여! 그런데두 뭐 공화국정권이 어드랬다구?…》

어리숙하고 모자라보이던 《치안대》보초놈은 돌연 눈앞에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잔인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본성을 드러냈다.

룡진의 시커먼 눈에서 순간 섬광같은것이 번쩍— 했다.

(해방전 부농이였다구? 그래서 지금은 미국놈들의 개노릇을 한단 말이지…)

룡진은 가슴속에 걷잡을수 없는 분노가 타오르는것을 느꼈다.
《여보, 해방후 인민정권은 당신네 부농들에게 제재를 가할수도 있었고 수탈할수도 있었소. 그러나 우리 인민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소. 그런데두 당신은 공화국정권의 혜택을 입지 않았다는거요?… 하긴 당신처럼 미국놈의 개노릇을 하는 반역자들은 그런것을 생각할수도 없고 생각지도 못할거요!》
《정말 시끄럽게 자꾸만 그런 소릴 할테여?… 난 뭐 밸이 없는줄 알어, 쏘구말겠어!ㅡ》 하고 《치안대》보초놈은 어깨에서 더럽게 때가 오른 총을 벗어들고 발끈하여 소리를 질러댔다.
룡진은 경멸의 빛을 력력히 보이면서 태연하게 앉아있었다. 버드렁이는 무엇인가 가슴을 서늘케 하는 룡진의 위압적인 시선앞에서 감히 총을 쳐들지 못하고 주춤거리더니 고개를 돌려 코를 풀었다.
《체… 별소리를 다 듣는군.》 하고 버드렁이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비실비실 물러갔다.
지금까지 잠잠히 앉아있던 시인이 털써덕거리며 물러가는 버드렁이를 쏘아보며 쓰거운듯 한마디했다.
《바보이지만 악착한 놈이로군.》
《강선생, 저 무지하고 천박한 바보는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진리를 상기시켜주었소. 그렇소, 저런 어리숙하고 부실한 바보들까지도 결국 자기 계급의 본성을 버리지 않는다는걸 말이요!》 하고 룡진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밖에서 버드렁이가 느닷없이 아아아!ㅡ하고 벌에 쏘인 강아지처럼 머리를 대구 흔들면서 괴상한 소리를 질러댔다.
《?!…》
기다란 솜외투가 너풀거리는 버드렁이의 귀바퀴에 끼운 꽁초에서 불이 죽지 않아 연기가 슬슬 피여오르고있었다. 담배불에 데인 보초놈이 갑작스레 금시 죽는것처럼 고아대는 바람에 감방주변의 이곳저곳에서 미군병사놈들과 《치안대》놈들이 모여들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모여든 놈들은 개무리들이 싸움을 벌리기라도 한것처럼 저희들끼리

왁짝하니 고아대며 떠들썩했다.

룡진은 너무나도 시시하고 너절하여 보기가 역한듯 다시 눈을 감아버리고말았다. 그는 시원하면서도 선뜩하게 느껴지는 차디찬 담벽에 등을 돌려대고 오래동안 침묵하고있었다. 참아내기 어려운 모진 정신적고통을 조용히 이겨내고있는것이였다. …

시인 강승한은 괴로와하는 룡진을 말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시인의 가슴은 또다시 분노로 끓어올랐다.

(저 크고 고결한 인간이 그처럼 시시하고 너절한 인간쓰레기들한테 모욕당하고 폭행을 당한단 말인가? 인간의 가치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놈들!…)

이전에 전혀 몰랐던것은 아니였지만 시인은 다시금 제집안의 벼룩이나 빈대도 증오하고 소멸해야 한다는것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격분으로 몸을 떨었다.

《도위원장동무!》 하고 그는 괴로와하는 룡진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침묵하고있던 룡진은 침착하게 묵직한 머리를 들면서 유난히 반짝거리는 시인의 지성이 비낀 눈을 마주보았다.

《위원장동무, 나는 이 순간에 어느 한 혁명적인 작가의 이런 말을 회상했습니다. 〈…그것들은 눈먼 버러지들처럼 천년을 살라고 하라. 허나 그것들에 대해서는 전설도 노래도 불러지지 않으리!〉 …어떻습니까?》

《옳소. 아주 신랄하오. 저것들은 틀림없이 눈먼 버러지들이요!》

룡진은 처음으로 나직하니 의미있게 웃었다. 그는 정의로운 지혜와 슬기, 풍부하고 고상한 지성으로 번뜩이는 시인과 마주앉은것을 내심 기쁘게 생각하였으며 괴롭히던 정신적고통도 잊혀지는듯 했다.

《도위원장동무, 또 이런 말도 있지요. 〈…그들에게는 말조차 필요없나니.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라!〉 이건 몇백년전에 불우하게 타고장에서 자기 일생을 마친 이딸리아의 시인 단테가 한 말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럴수 없소. 그저 바라보고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하고 뜻밖에도 룡진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의식적으로 과오를 범한 사람들은 고쳐주고 이끌어주어야 하며 반역자, 반동들에 대해서는 용서없이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짓누르

고 소멸해치워야 합니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하고 시인은 즉시 열기있게 공감했다. 그리고는 예리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끝을 맺었다.
《뛰여든 미제강도놈들뿐만아니라 제집안의 빈대나 벼룩, 유해로운 버러지들은 때려잡고 없애버려야지요.》
룡진은 불꽃처럼 번쩍거리는 열정적인 시인의 눈을 마주보면서 가볍게 머리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시인선생. 지금 도처에서 우리 인민들, 로동당원들이 바로 그렇게 싸우고있을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놈들에게 체포된 몸이지만 여기 감방에서 각종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구호도 웨치고 노래도 부르고 하다못해 고함을 질러서라도… 강선생, 난 선생이 이제 여기 감방에서 놈들을 단죄하는 시도 웨치고 감방사람들에게 힘과 신심을 북돋아주는 좋은 작품을 쓰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철망을 덧붙인 창구밖에서 철썩철썩 다가오는 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잔뜩 술에 취한 중년나이의 《치안대》가 더부룩한 머리를 기웃하고 감방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가 룡진이의 엄한 시선과 마주치자 경의를 표하는 시늉을 하면서 머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하더니 어름어름 이렇게 말했다.
《도위원장어른, 어쩌다가 이렇게 됐시까?… 정말이지 천만뜻밖이구만요. …》
술취한 그의 말소리는 조롱하는것 같기도 하고 진담같기도 했다.
《?!…》
룡진은 놀란듯이 눈섭을 치켜올렸다. 분명 어디선가 만났던 사람이였으나 정확히 기억되지 않았다. 룡진은 경멸의 시선으로 뚫어지게 여겨보면서 침묵하고있었다.
《도위원장어른, 내 한잔 했수다. 이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취해있는게 그저 마음 편하지요. 그래서… 헉… 마셨지요. 날 나쁜 놈으로 생각지는 아예 마슈…》 하고 중년나이의 《치안대》는 이쪽저쪽 주머니를 더듬더니 담배쌈지를 꺼내 불쑥 창구로 내밀었다.
《퍽 괴로우시겠는데 한대 두툼하니 말아서 피우시우, 독한 잎초웨다. 아니, 왜 그러시우? 이전때… 바로 달포전에 저기 길가에서 길닦

이를 하다가 도랑창에 빠진 내 마차를 끌어내주고나서 도위원장어른이 피워본 그 독한 잎초인데… 괜히 거절하시는구려. …》

룡진은 어디가 심히 아프기라도 한듯이 낯을 찌프리고 한순간 눈까지 감았다. 드디여 룡진은 그를 알아본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 사람이였다. 해방전에 지지리 천대받고 고생하며 살면서 이곳 군수놈의 코가 개코인지 말코인지 보지도 못했다던 바로 그 마차군이였다. 그때 룡진은 소박하면서도 진지하게 울리는 마차군의 생활적인 농민투의 말에서 썩어빠진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질시, 경멸, 증오, 타매의 생동한 감정을 느꼈고 동시에 인민정권에 대한 그의 열렬한 긍정과 진실한 공감의 심정을 느끼며 통쾌하게 웃음을 터뜨렸었다. 그런데… 그렇게도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생활적으로, 페부로 느끼며 살던 저 사람이 어찌하여 일시적인 후퇴의 시기에 반역자들의 무리에 끼웠는가!…

룡진은 너무도 가슴이 쓰리고 괴로와 입을 꾹 다문채 말없이 그를 뚫어지게 찬찬히 여겨보았다. 그러자 얼근히 취한 그는 내밀었던 담배쌈지를 슬며시 주머니에 쑤셔넣더니 게면쩍은 웃음을 띠고 분명치 않은 입안의 소리로 두덜거리듯 중얼거렸다.

《날 아예 나쁜 놈으로 치부하는게 아니우?…》 하고 그는 흘끔 저편에서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며 지껄여대고있는 미군병사놈들과 《치안대》놈들쪽을 돌아보고나서 말을 덧붙였다.

《나두 다 생각이 있수다. 의리두 있구요. 까놓고말해서 도위원장어른을 빼낼 힘은 없지만… 그건 내가 할수 없는 일이죠. 해두 이것저것… 이전 일을 생각해서 좋은분을 위해 좀 도와드리리다. 우선 오늘 밤에 독한 술을 넣어드릴테니 받아 마시슈.》

《핫하하… 도위원장동무,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거참 의리가 굉장한 사람인데요!… 반역자놈들속에 끼여들기는 했지만 언젠가 도랑창에 빠졌던 마차를 꺼내준걸 잊지 않고… 그런즉 의리두 품앗이로군요!》 하고 시인은 룡진을 바라보며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렸다.

룡진의 얼굴에도 얼핏 어이없는 웃음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아니, 왜들 그러슈? 난 그래두 생각이 그렇지 않아서 그러는데…》 하고 얼근히 취한 중년의 《치안대》는 속이 언짢아서 게두덜거렸다.

룡진은 그러는 그에게 조용하면서도 통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그 누거리의리는 아무에게도 필요없소. 한푼의 가치도 없는거란 말이요!》

《도위원장어른, 그건… 무슨 말씀인지 난 모르겠시다.》

《내 하나 묻겠소. 당신은 해방전에 제땅이 있었소?》

《웬걸요. 일본놈때 나같은 가난뱅이한테 무슨 땅이 있었겠시꺄. …》

《해방후 토지개혁때는 땅을 얼마 분여받았소?》

《3 200평을 받았지요.》 하고 그는 입술모서리를 쭈빗하고 웃었다.

룡진의 얼굴에 보일가말가 한 경멸의 웃음이 비꼈다. 그러나 그는 곧 자기를 자제하면서 나직나직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그것 보시오. 공화국정권은 한쪼각의 땅도 없던 당신에게 옥답 3 200평을 무상으로 분여했소. 그리고 군수놈의 코가 개코인지 말코인지 한번 보지도 못하는 처지에서 짐승처럼 천대를 받으며 늘쌍 머리를 숙이고 살던 당신에게 공화국정권은 인간의 참된 삶을 찾아주었소. 인민정권은 당신들을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었단 말이요!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자기가 무슨짓을 하고있는지 알기나 하오? 당신은 자기에게 귀중한 땅과 새삶을 안겨준 공화국정권의 혜택과 온갖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조국반역의 길을 걷고있단 말이요. 인민정권을 배신한 당신이 어떻게 의리에 대해서 감히 이러쿵저러쿵 말할수가 있소? 그건 가소로운 일이요!》

룡진은 참을수 없는 경멸을 지그시 누르고 조용히, 그러나 가차없이 그를 타격하면서 말을 계속했다.

《여보, 미물인 짐승도 배은망덕은 못한다는 말이 있소! 그런데…》

《그만두시우!—》 하고 중년의 《치안대》는 발끈하여 불시에 내뱉듯이 말하고는 홱— 돌아서서 걸어갔다. 그러나 몇걸음 옮기다가 자기로도 알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주춤주춤 창구앞으로 되돌아왔다.

《도위원장어른… 너무 그러지 마시우… 난 뭐 이런짓이 마음에 들어 하는줄 아슈?… 치안대에 들지 않으면 좋지 않다고 강박하기에…》 하고 그는 말끔히 술이 깨여 푹 꺼진 눈으로 마치 괴로운 꿈속에서 깨여나기라도 한것처럼 고개를 들어 룡진을 바라보았다.

룡진은 좀 부드러워진 눈길로 그를 마주보며 잠시 침묵했다.
《동무의 이름은 뭐요?》
《네, 제 이름은… 박창국이라고 합니다.》 하고 그는 풀이 죽어 석쉼한 목소리로 응대하면서 옷자락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었다.
《여보 박창국동무, 정신을 차리오. 동무는 지금 아주 더러운 시궁창에 빠져있소.》
《네? 제가… 시궁창이라니요?!…》
중년의 《치안대》는 떨떠름하여 의아한 표정으로 발을 저겨디디며 서있었다.
《그렇소. 이전날 동무는 제 마차를 도랑창에 빠뜨렸었지만 지금은 자기자신을 시궁창에 빠뜨려놓았소. 조국배반의 너절한 시궁창 말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거기서 빠져나와야 하오. 미국놈들과 그 앞잡이 악당놈들에게 절대로 속아서는 안되오. 놈들은 바로 당신과 같이 일부 각성하지 못한 공화국공민들을 기만하고 위협하여 인민정권앞에 죄를 짓도록 별별 악착한짓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있소. 여보 창국동무, 공화국정권의 종국적승리를 믿고 제정신으로 살아야 하오!…》
중년의 《치안대》는 노상 괴로운 표정으로 룡진의 말을 듣고있었다. 뿌여니 광택이 없는 그의 얼굴에서는 실룩실룩 근육이 놀았다. 그는 불현듯 얼굴에 질펀히 배여나온 땀을 소매자락으로 훔쳤다. 어떤 놈이 저쪽에서 고래고래 찾는 소리에 그는 창구앞을 물러나 머리를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갔다. …
룡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는 노예가 스스로 노예인줄 모르는것보다 더 비참한것은 없다고 한 누군가의 말을 생각했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의 존엄을 찾아주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었는데 무엇때문에 저런짓을 하고있는가? 어쩌면 그렇게도 몽매하고 무지할수 있단 말인가?…)
룡진은 참을수 없는 정신적고통에 가슴이 갈가리 찢어지는듯 한 괴로움을 느꼈다.
(어째서 해방후 5년동안에 우리가 저런 사람들을 찾아내여 교양하지 못했는가, 왜?…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에게 정치의식, 문화학습, 지적교양을 주지 못하였는가?…)

룡진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고 생각했다.

(그러니 우리 공화국정권이 5년동안에 해놓은 일들이 적었단 말인가?… 아니, 결코 그렇지는 않을것이다. 우리는 해방후 5년이란 짧은 기간에 많은것을 이룩해놓았다. 물론 더할수 있었던것을 일부 미처 못한것도 있겠지만…)

룡진의 몸은 화토불우에 앉은것처럼 화끈화끈 달아오르고 상처는 련속 죄여들며 쑤셨다. 그러나 육체의 아픔보다도 서글픔이, 정신적고통이 더 괴로왔다. 그는 눈물이 나오려는것을 겨우 억제했다. …

초겨울의 짧은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감방안은(면식량창고) 더 컴컴해졌다. 세멘트바람벽의 퇴창도(통풍구) 빈약한 반사빛으로 알릴가말가 하게 보였다. 그래서 감방문이 열렸을 때조차 환하지 못했다. 《치안대》 두놈이 느닷없이 달려들어와 시인을 취조실로 끌어갔다. 거기에는 벌써 안해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었으며 그의 등에 업힌 두살짜리 어린애가 까맣게 질려 울음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숨이 막힌듯 울고있었다. 시인은 새까맣게 질려서 까무러치려는 딸애를 끌어안으려고 허리를 굽혔으나 두팔은 철사로 묶이워있어 어쩔수 없었다.

《맛이 어떠냐? 안고싶을테지?… 안을수 있게 해줄가?》

몽둥이를 들고 서있던 상통이 흠집투성이인 《치안대》놈이 느물거리며 감기들린 목소리로 쑤알거렸다. 그러자 격노한 시인의 얼굴에 꿈틀— 하고 경련이 지나갔다.

《어, 강선생이구려!…》

맞은켠쪽의 출입문이 열리더니 한놈이 들어오면서 과장된 어조로 소리쳤다. 면《치안대》대장 홍태국놈이였다.

《강선생, 이거 참 안됐구려. 이렇게까지 고생하는줄은 미처 몰랐는걸…》

《눈먼 버러지같은 놈!》

증오로 불타는 시인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이 튀여나오는듯 했다.

《나를 여전히 심하게 모욕하는군, 강선생…》 하고 홍태국은 꾸민 말투로 지껄이며 가까이로 다가왔다.

《하지만 나는 참겠소. 강선생, 이렇게 된것을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우. 솔직히 말해서 이제부터라도 나는 좋게 해드릴 생각이요. 어쨌든 우리는 모르는 사이가 아니니까!—》

홍태국놈의 입가에는 잔인하고 비렬한 웃음이 떠돌고있었다.

《지난날은 지난날이고 오늘은 또 오늘이 아니요. 털어놓고말해서 강선생은 무식한 농사군도 아닌데 이제는 그만큼 고생하셨으면 생각을 돌려보는게 어떠시오?》

《닥쳐라, 더럽고 께끈한 버러지놈!》

《공연히 성을 내시는구려. … 그건 너무하시는구만요. 사실 강선생으로 말하면 어느 세상에서나 시만 쓰며는 그만 아니겠소. 강선생, 내 솔직히 하는 말인데 방금 군주둔 미군사령부에서 독촉이 있었소. 선생을 당장 죽여 없애치우라는거요. 한데 나로서는 한동네에서 살던 인정으로 차마 그렇게는 못하겠더란 말이요! 내 말을 그대로 믿어주구려…》

(허튼수작 말아, 개자식…)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싶었지만 하도 너절해서 참고말았다.

《강선생, 이제라도 과히 늦지는 않았으니 미군과 리승만박사를 찬양하는 시를 쓰기만 한다면 선생을 부인과 딸애를 데리고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리다. 그리고 강선생이 원하신다면…》

상처입은 시인의 입가에는 경멸과 조소의 쓰거운 미소가 떠올랐다.

《어리석은 놈에게는 어리석은 망상뿐이로군.》 하고 시인은 경멸하듯 나직하니 혼자소리로 말했다.

《그럴 생각이 정말 없으시오? 강선생, 이래도 한세상이구 저래도 한세상이라는데 뭘 그러시우?…》

홍태국놈은 천박하기 그지없는 말투로 넉두리하듯 씨벌여댔다.

《똑똑히 기억해두라. 나의 시는 나의 넋이야. 그런데 나의 시를 그따위 버러지같은것들한테 바쳐? 백번을 죽어도 그런짓은 안해! 나는 우리 공화국정권을 위해서는 백번도 웃으며 죽을 각오가 되여있어. 너희들 인간쓰레기들은 백년을, 천년을 살아도 그걸 리해하지도 못하고 또 리해할 사고능력도 없어!》

《뭐야? 개수작 지껄여대겠어? 네놈의 온몸을 탕쳐버리겠다!》
머리끝까지 독이 오른 홍태국놈은 낯색이 질리여 물어뜯듯이 고함을 지르면서 불덩어리우에라도 앉은듯 안절부절 못했다.
《좋아, 너희 년놈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너같은게 세상에 하나 더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단 말인가! 이 빨갱이시인놈아!…》 하고 홍태국놈은 모가 선 달구지바퀴살을 거머쥐며 악착하게 소리를 내질렀다. 그다음 그것으로 시인을 마구 후려쳤다.
시인은 눈알이 빠져나오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쓰러졌다. 다시, 또 다시 차고 때리는 타격이 계속되였다. 그러나 벌써 가물거리는 그의 의식에는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자기가 어떤 통안에 들어있는데 놈들이 그 통을 발로 차고 짓밟고 때리는것처럼 전혀 아픔이 감각되지 않는것이였다. 그러다가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다. 사라지는 마지막힘과 의지력으로 시인은 부르짖었다.
《가련한 버러지들!…》
의식을 잃은 그를 뒤늦게 《치안대》 두놈이 감방으로 끌고와 내던지고 사라졌다.
시인은 얼음장처럼 차거운 세멘트바닥에 뜨겁게 달아오른 얼굴을 대고 엎드린채 꼼짝하지 못했다. 감방안의 사람들이 조심조심 그를 안아일으키고 온몸에 랑자하게 흐르는 피를 씻어주며 보살폈다.
얼마후에 시인은 의식을 회복하고 조용히 눈을 떴다. 그는 자기를 묵묵히 지켜보는 도위원장의 슬픔에 잠긴 커다란 눈을 보았다. 그 눈은 혹심한 고통을 당하는 사람처럼 정기를 잃고 흐려져있는듯 했다.
《도위원장동무!…》 하고 시인은 무엇에든지 몸을 좀 의지하고 일어나고싶은듯 손을 내밀면서 조용히 말했다.
룡진은 말없이 시인의 손을 잡았으나 그대로 누워있도록 했다. 그는 시인이 당하는 참혹한 불행이 너무나도 가슴쓰려 차마 뭐라고 말할수가 없었다.
《도위원장동무,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저는 이까짓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든지…》
《강선생!…》
목이 꽉 메인듯 한 룡진의 갈린 음성은 괴롭게 울렸다.

《도위원장동무!…》 하고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새여나오려는 신음소리를 삼키면서 문득 룡진을 향해 빙그레 미소했다.

《그처럼 잔악하고 천박한 저놈들이 나를 살려주겠다는군요. 그 값으로 제놈들에게 나의 시를 바치라는겁니다.》

《그래요. 거참, 괜찮은 장사거래군.》

룡진은 쓰겁게 랭소했다.

《역시 가련하기 그지없는 눈먼 버러지들의 어리석은 망상이지요. 정말이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앙천대소할 일입니다!》 하고 시인도 쓰거운듯 코웃음쳤다.

감방으로는 차거운 달빛이 흘러들고있었다. 시인 강승한은 흘러드는 신비로운 달빛에 시선을 모으고 오래동안 침묵하고있었다.

26

달은 밝으나 바람이 일어 몹시 추운 겨울밤이다. 멀지 않은 벌판쪽에서 호곡소리가 들려오는듯 하였다. 아마 그것은 착각일것이다. 지금은 땅도 하늘도, 온 산천이 울분과 분노로 치를 떠는 시절이니 그렇게 들렸을지도 모른다. 룡진은 담벽우의 통풍구로 흘러드는 달빛밑에서 무엇인가 정신없이 련속 쓰고있는 시인 강승한을 응시하고있었다. 보매 시인은 감방이라는것도, 밖에서 뚜거덕거리는 보초놈의 구두발소리도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놈들에게 끌려나가 희생될 최후가 각일각 다가오고있다는것도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있는것 같았다. 룡진에게는 현실감각을 초월한듯 한 시인이 지금 무엇인가 비할바 없는 거대한 정신력의 앙양과 상승으로 찢기고 상처입은 자신의 온몸을 활활 불태우고있는것 같이 생각되였다.

(저 예리하면서도 뜨거운 정의의 시인은 지금 무엇에 대해서 쓰고있는가? 이런 엄혹하고 비상한 정황하에서 그의 사색은?…)

환희로 조국땅이 들끓던 토지개혁때에는 땅을 분여받은 고향사람들의 기쁨, 대대로 내려오던 세기적숙망이 실현된 그들의 행복과 기쁨을 자신의 기쁨과 행복으로 느끼며 절절하게 노래했던 시인이다. 그

리고 애국미를 바치는 농민들의 경사로운 충정의 광경을 목격하고 체험하기 위해 신새벽부터 황주로, 재령으로 뛰여다니던 열정의 시인이다. 그때 쓴 그의 시구절들이 생각난다.

…
황주목에 가보자
은파목에 가보자
…
현물세가 들어온다
애국미가 들어온다
…
안악목에 가보자
재령목에 가보자
김일성장군님 노래
하늘땅에 울리고
…

그런데…룡진은 이제 머지않아 귀중한 시인을 잃게 된다는 박두한 불행이 불쑥 생각나자 심장이 어딘가 아래로 떨어져내리는듯 한 아픔을 느꼈다. 미제가 강요한 력사에 류례드문 이 가혹한 전쟁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것을 잃고있는가! 얼마나 많은 귀중한 재부와 아까운 재능을 잃고있는가!… 룡진은 가슴이 쓰렸다. 설사 나는 이제금시 죽는다 하여도 승리의 그날에 장군님을 받들어모시고 일할 도위원장들은 얼마든지 있을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대신하여 일을 더 잘할것이다. 그러나… 재능있는 열정적인 저 시인, 독특한 저 시인의 목소리는 누구든 대신할수 없을것이다. 그런만큼 뚜렷한 개성과 재능을 가진 저 시인의 희생은 조국의 큰 손실로 될것이다. 시인의 나이 서른두살, 인간의 한생에서 서른두해란 얼마나 짧은 세월인가. 원쑤놈들이 강점한 땅을 걸으면서도 신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쓸 방대한 새 작품을 구상했다는 정력적이며 승기있는 저 시인, 예술적천분을 타고난 재능있는 시인이며 혁명적인 당의 작가인 그가 앞으로 쓰고싶었던 시들은 얼마

나 많으랴!…
문득 시인이 머리를 들면서 희열에 뜬 목소리로 나직이, 그러나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뜨거워지게 웨쳤다.
《도위원장동무, 난 시를… 내 일생의 마지막시를 방금 끝냈습니다!》
《강선생!》
《이제 제가 랑송하겠으니… 도위원장동무 그리고 모두들 들어주십시오!》
흥분한 시인은 지체하지 않고 곧 자리에서 일어섰다. 달빛에 어린 시인의 그림자가 거인처럼 커보였다. 시인은 격동적으로, 그러나 갑자기 목이 메인듯 더듬거리며 절절하게 랑송하기 시작하였다.
감방안은 숨죽은듯 조용했다. 놈들의 야수적인 고문으로 심한 상처를 받고 신음소리를 내며 괴로와하던 사람들도 육체적인 고통을 잊어버린듯 잠잠히 있었다. 그러나 시인의 랑송이 끝나자 감방안은 더욱 고요하였고 정숙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강선생, 그 시를 이리 주오! 그 시는…》 하고 룡진은 숙연한 기분으로 빼앗듯이 시인에게서 시를 받아들었다.
룡진의 긴장하고 흥분한 얼굴에는 무엇인가 꿈틀하더니 일순간 아직까지 본적 없는 엄숙한 표정으로 변했다. 침묵한 그는 감방안의 어딘가를 응시하고있었는데 지금 그의 사색은 감방안의 범위를 멀리 벗어나고있는것 같았다.
《동무들, 이 시는 아주 귀중한거요! 나는 우리들의 친근한 벗이고 동지인 강승한선생이 최후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이 시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기에 감금된 우리모두가 죽은 후에라도 반드시 보관할것을 제기하오. 이 시는 하나의 훌륭한 시로써뿐만아니라 그보다도 더 큰 중요하고 귀중한 가치가 있소!》
룡진은 감방안의 다른 사람들이 결코 볼수도 없고 알수도 없는 깊은 그 무엇을 내다보고있는것 같았다.
《이 시를 누구든지 살아남는 사람은 아니, 그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말고 밖으로 내보내여 철저히 깊이 보관하거나 구월산에 보내도록 해야겠소. 이건 여기 감금된 공민모두의 의무이며 중요한 과업

이요.》
그다음 룡진은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이제 승리의 그날에 어머니조국은 우리들이 어떻게 놈들과 굴하지 않고 싸웠는가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나 선전관을 만들지도 모르오. 우리들이 죽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으며 무엇을 원했는가를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하오. 강승한시인이 마지막으로 쓴 이 시는 우리의 생각과 원하는바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소!》
감방안의 모든 사람들은 룡진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통절하게 심장으로 깨닫고있었다. 그들은 생의 최후를 눈앞에 두고 재능있는 시인이 감방에서 마지막으로 쓴 시를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낼 방도를 의논하였다. 이 의논에는 감방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참가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두가 머리속에 암기하였다가 살아남는 경우 전하기로 합의했다.
그때 별안간 밖에서 떠들썩 고아대는 놈들의 말소리, 개들이 사납게 짖어대는 소리가 들리고 사방에서 전지불빛이 벙긋거렸다.
절커덕—하는 소리를 내며 쇠창이 벗겨지고 감방문이 열리는것과 동시에 전지불빛들이 확 비쳤다. 뒤따라 우당탕거리며 문앞에 시커먼 놈들의 그림자가 막아서고 그중 한놈이 앞으로 나서더니 째는듯 한 소리로 고함을 질러댔다.
《강승한이 나왓! 그다음…》
놈들은 오늘 밤 처형하기로 이미 작정한 사람들을 불러내기 시작했다.
시인 강승한은 침착하게 감금된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태연히 일어섰다.
《도위원장동무, 저는 이제 조선로동당원으로서, 공화국공민으로서 어떻게 죽는가를 놈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고 시인은 영채도는 눈을 번쩍이며 말을 덧붙였다.
《저는 떳떳이 머리를 들고 장군님과 공화국만세를 부르며 죽을것입니다!》
《강선생!—》
룡진은 분격과 비분으로 몸을 떨면서 눈물을 삼켰다.
(이제 다시는 저 시인의 목소리도, 그의 새 노래도 영영 들을수 없

을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그가 남긴 시들과 함께 그의 불타는 신념, 꺾을수 없는 그의 깨끗한 절개는 사람들의 추억속에 길이 남아있을것이다. … 놈들은 시인이 흘린 피 한방울한방울, 마구 걷어차던 그 폭행 하나하나에 대한 값을 천백배로 치러야 할것이다. …)
룡진은 언뜻 자기 눈에 눈물이 고여오르는것을 감촉했다.
《도위원장동지, 그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습니다.》
강승한시인은 미소를 짓고 잘 들리는 귀속말로 말하면서 룡진의 손을 의미있게 꽉 틀어잡았다.
룡진은 눈물을 머금고 묵직한 머리를 들어 시인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강선생, 정말 분하오.》
《도위원장동무, 너무 가슴아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 조국은 놈들에게 천백배로 복수할것입니다!》
《그건 옳소,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것을 잃고있소!》
룡진의 웅글은 목소리는 뼈에 사무친듯 절통하게 울렸다.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얼마나 조용히 울렸던지 감방안의 사람들은 모두다 몸을 앞으로 내밀고 귀를 기울이면서 원쑤들에 대한 격분과 증오로 이빨을 갈았다.
《빨리 나왓! 뭘 꾸물거려!…》
문밖에서 《치안대》놈이 총을 절커덕거리며 독살스럽게 소리쳤다.
감방을 나서던 시인은 문앞에서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돌아보았다.
《도위원장동무!…》
《강선생!—》
그리하여 시인 강승한은 꿋꿋하고 태연하게 머리를 높이 들고 감방을 나갔다.
바람부는 밖은 달이 밝았다. 이곳저곳에서 끌려나온 사람들이 놈들의 총구앞에서 어디론가 걸어가고있었다. 거기에는 시인의 사랑하는 안해도 있었다.
시인 강승한은 길에서 벗어져나와 서리에 얼어붙은 푸실푸실한 풀우로 걸었다. 드디여 당재언덕우에 올라선 시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안해와 어린 딸애의 얼굴을 눈여겨본 다음 천천히 머리를 돌려 고

향의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미제침략자들의 군화발에 짓밟힌 논과 밭들, 애국자들의 더운 피에 젖어 굽이굽이 뻗어나간 서강개동뚝 그리고 이 모든것을 한가슴에 껴안고 복수를 다짐하며 아득한 창공으로 치솟은 구월산의 날카로운 봉우리들!…

사랑하는 고향땅은 원쑤놈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치욕을 겪으며 짓밟히고있다. 정든 마을은 불타고 거리는 재가 되여 바람에 날리고있으며 주검들이 땅우에 널리고 교수대에 매달려 흔들거리고있다. 석당교밑을 흐르는 서강은 피가 넘쳐흐르고 대지는 속속들이 피에 젖고 눈물에 잠겨있다. 그러나 기다리는 승리의 그날은 반드시 올것이며 대지는 다시 금빛 찬란한 태양아래 일어설것이다. 드넓은 서강과 재령강은 행복의 물결싣고 흐르게 될것이며 풍만한 강에는 물고기떼가 욱실거리고 물소리도 더욱 높아질것이다. 거세찬 물결이 대지에 넘쳐 추악하고 더러운것들을 깨끗이 씻어낼것이며 피에 물들었던 땅은 또다시 거창한 수확을 낼것이다. 이삭팬 논들이 일망무제한 바다를 이루고 목화밭들은 티없이 깨끗한 금빛으로 불탈것이며 터밭들에는 감자꽃이 피고 이랑마다에는 빨간 도마도가 탐스럽게 주렁질것이다. 대지는 다시 꽃피며 정갈하고 아름답게 단장할것이며 온갖 재부가 그득히 차넘칠것이다. 그렇다. 비옥한 땅에서 평화적로동은 들끓을것이며 광활한 전야는 노래로 흥성거릴것이다. …

시인은 또 멀리 북녘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았다. 장군님께서 계시는 우리 공화국정부와 최고사령부, 인민군대와 사랑하는 동지들이 재진격을 준비하고있는 그곳, 그곳에서는 함께 시를 론하며 긴긴밤을 지새우던 그리운 시우들이 인민들을 최후승리에로 고무하는 격동적인 시들을 쓰면서 때로 문득 펜을 멈추고 함께 후퇴하지 못한 벗의 이름을 부르기도 할것이다.

강승한은 가슴이 후련하게 신선한 공기를 들이켰다. 그는 밑으로부터 가슴까지 가느다란 떨림이 오면서 상쾌해지는것을 느꼈다.

밤은 고요하고 청신했다. 파랗고 뽀얀 연무에 싸인 별은 아득히 뻗어있었다. 검푸른 창공에서는 그 이름을 알수 없는 별의 파르무레하고 또렷하면서도 예리한 빛이 멀리서 돌연히 시인의 눈으로 비쳐들었다. 시인은 방금전에 감방에서 마지막으로 쓴 자기의 시를 생각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시를 읊었다.

…
우리 다시 여기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 일어나 부르고부르리라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행복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만세!

시인은 그 순간 어렴풋한 총소리를 들으면서, 나서자란 사랑하는 고향땅우에 비스감치 쓰러졌다. 이로써 불같은 심장을 지녔던 재능있는 시인의 육체적생은 끝났다. …

27

날이 밝을무렵에 잠에서 깨여난 룡진의 온몸은 뜻밖에도 땀으로 흠뻑 젖어있었다. 그렇게도 오래동안 그의 몸을 달아오르게 하던 고열은 식은땀을 솟구어내는 찬것으로 바뀌고말았다. 으슥으슥 어깨가 떨렸다. 그러나 다행하게도 머리는 좀 거뜬해진것 같았다. 그의 의식을 흐릿하게 하던 고열에서 오는 지각마비도 사라지고 기분상태는 한결 좋아졌다. 만일 뼈가 부서진듯 퉁퉁 부어오른 두팔과 한쪽다리만 아니라면(그것은 체포되기 전날 밤 찦차를 몰고 쾌속으로 질주하다가 적땅크들이 추격하며 미친듯이 쏘아대는 포탄에 맞아 신작로밑의 논판으로 굴러떨어지면서 입은 부상이였다.) 그는 아마 자기를 건강한 사람으로 생각할수도 있을것이다. 룡진의 육체에는 아직 힘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모진 정신적고통에 시달리면서 괴로와하고있었다. 그것은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도내 각지에 조직된 인민유격대들과 지하조직들의 활동정형을 전혀 들을수 없는 괴로움이였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 싸우고있으며 장군님의 말씀을 어느만큼 적극적으로, 정확하게 관철하고있는지?…) 이러한 생각은 룡진의 의식

속에서 단 한순간도 떠난적이 없었다.
감방안은 어둡고 고요하다. 모두들 깨여났을것이다. 그것은 긴장된 잦은 한숨소리와 부스럭거리는 소리들로 미루어 알수 있었다.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장군님의 말씀을 받들고 누구보다 앞장에서 적들과 싸워야 할 사람인 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가!…) 하고 룡진은 여전히 꼼짝 않고 괴롭게 생각했다.
(물론 나는 감방에서도, 그 어떤 고립무원한 속에서도 싸울것이다. 그러나…)
문득 밖에서 우르릉거리는 자동차의 발동소리가 들리고 뭐라고 떠들어대는 소음이 가까와오자 룡진은 긴장하여 문쪽을 주시했다.
절커덩—감방문이 열리고 시커먼 그림자들이 달려들며 고함을 질러댔다.
《모두 밖으로 나왓!… 빨리 나와 자동차에 올라타라!—》
룡진은 놈들이 이제 감방사람들을 어디로인지 실어가려고 한다는것을 불시에 깨달았다.
(죽이려는가?… 아니면 호송인가?…)
룡진은 지금이야말로 자기의 마지막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원쑤놈들에게서 애당초 다른것은 바랄수도 없고 또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를 놈들이 산몸으로 남겨둘리도 없고 또한 룡진이자신은 애당초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고있었던것이다.
그는 자기가 력사에 류례드문 가혹한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또한 이 준엄한 시련의 시각에 영예로운 죽음의 길을 선택한 수천수만 사람들중의 한사람일것이라고 생각하자 마음은 더욱 태연하고 침착하였다. 그러나 의식의 다른 한끝에서는 무엇인가 다른 생각이 그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혔다.
(나는 구월산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적들과의 투쟁을 계속할것을 최고사령부에 보고올린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룡진은 미제침략군놈들에게 끌리워 검불들과 오물들이 어지러이 널린 감방앞의 불결한 뜨락으로 나왔다. 지독하게 추운데다 바람까지 불어대는 날씨였다. 뜨락 한쪽에 서성거리며 서있던 머리가 더부룩한 중

년나이의 《치안대》가 룡진을 알아보고 기다렸던듯 조심히 다가왔다. 룡진은 그가 며칠전 잔뜩 술에 취해 창구로 담배쌈지를 넣어주던 마차군임을 순간에 알아보았다.

《도위원장어른, 조심하시우. 군감방으로 끌어갑니다. …》 하고 그는 낮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하고는 얼른 지나쳐 걸어갔다.

룡진은 그의 표정과 태도에서 내심의 뚜렷한 변화를 감촉하며 묵묵히 앞으로 걸어나갔다. 이곳저곳에서 놈들이 떠들썩 고아대는 소리가 들렸다.

두팔을 뒤로 묶이운 몇명의 사람들이 다른 감방에서 끌려나와 신작로 한복판에 세워놓은 군용차쪽으로 앞서 걸어가고있었다. 군용차가 서있는 신작로와 그 주변들에는 어마어마하게 완전전투준비를 갖춘 미군병사놈들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있었다. 말승냥이같은 사나운 군견들이 금시 달려들어 물어제낄듯이 짖어대며 사슬을 절렁거리면서 길길이 껑충껑충 뛰여오르고있었다.

하늘에는 별로 따스하지도 못한 누런 해가 솟아오르고있었다. 석당교쪽에서 살을 저며내는듯 한 차거운 강바람이 련속 행길을 핥으며 거침없이 불어왔다.

룡진은 누군가 연방 클럭클럭 마른 기침을 하면서 자기의 뒤를 바싹 따라오고있는것을 감촉했다. 돌아보니 긴머리칼이 마구 헝클어진 광훈이가 맥빠지고 수척하고 초췌한 모양으로 뒤따르고있었다. 그의 눈빛과 표정에는 아무런 생각도, 지향도, 뜻도, 의지도, 신념도 엿보이지 않았다. 오직 공포만이 그를 지배하고있는것 같았다.

룡진은 얼빠진 사람처럼 허청거리며 걷는 그를 보기가 너무도 가련하여 급히 얼굴을 돌려버렸다. 광훈이도 룡진을 알아보고 머리를 떨구었다.

룡진은 될수록 자기가 힘겨워하는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한걸음한걸음 행길가의 군용차쪽으로 걸어갔다. 미군병사놈들은 감방에서 끌어낸 사람들을 차에 빼곡이 몰아넣었다. 그리고는 잘 훈련된 군견들과 중무장한 한개 소대가량의 병사놈들을 차의 량쪽에 앉히고 감시케 하였다.

공교롭게도 룡진은 광훈이와 무릎을 마주하고 앉게 되였다. 광훈의

얼굴은 여전히 공포로 이그러지고 어쩔바를 몰라하는 표정이였다. 그는 제정신이 아닌듯 무턱대고 몸을 흠칫흠칫 떨고있었다. 룡진에게는 모든 인간적가치를 상실한듯 한 광훈이가 이전에 전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던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그러자 회상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애쓰면서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일, 광훈이가 신념이 없고 비겁한때문에 제정신을 잃고 허둥거리면서 본의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가 부상당하여 쓰러져있는 곳의 위치를 원쑤놈들이 알게 하여 체포당하도록 했던 일, 통분한 그날 밤의 광경이 생생히 되살아나 룡진은 갑자기 온몸이 오싹해지는것을 느꼈다.

(의지가 박약하고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일단 시련이 닥쳐오면 쉽게 꺾이우고만다. 그리고 일단 꺾이운 사람은 제정신을 잃고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원쑤놈들을 돕는 행동을 하게 되며 나중에는 별의별 배신과 반역까지도 다 저지를수 있는것이다.) 하고 룡진은 흠칫흠칫 떨고있는 광훈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생각하였다.

광훈이… 한때 이 사람은 선량하였고 누구보다 총명하였으며 인정도 많은 사람이였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평상시에는 남들의 눈에 잘 띄우지 않는 약점이 있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을수 있다. 누구에겐들 약점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 약점들의 성격과 질은 서로 각이하고 경중이 있는것이다. 한 인간에게 있는 수많은 약점들이 단 한가지의 그의 큰 장점으로 하여 지워질수도 있으며 그와는 정반대로 단 하나의 약점이 그 인간의 허다한 장점들을 일시에 삼켜버리며 아무런 가치도 없게 하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도 있는것이다. 광훈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일상시의 생활, 평화로운 생활에서 광훈에게는 좋은 점들이 많았다. 이 사람에게는 맡겨진 사업에 대한 헌신성도 있었고 진취성도 있었으며 지식욕이 강했고 뿐아니라 풍부한 인간성을 가진 누구에게나 좋은 무던한 사람이였다. 이런 허다한 장점들은 사업에서나 인간생활에서 보석과도 같이 아주 귀중한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광훈의 약점은 의지가 약한것이다. 그가 겁에 질려 허둥거리기 시작하면 비겁성이 부풀어올라 그 모든 보석과도 같은 장점들을 단번에 삼켜버린다. 그렇게 되면 광훈은 인정도, 의리도, 우정도, 사물현상을 재여보는 자막대기도 다 잊어버리고 눈이 먼 전혀 딴

사람이 되여버린다. …

룡진은 몹시도 들추어대며 미친듯이 달리는 차에 몸을 내맡긴채 묵묵히 앉아서 생각을 계속하였다.

(그렇다, 이 사람은 들이닥친 준엄한 시련앞에서 종시 자기를 견지해내지 못하고 무참히 꺾이우고 굽혀들고말았다. 마음속에 확고한 신념이 없고 의지가 박약한탓으로 적들앞에서 당황망조하여 넋을 잃고 허둥거리며 본의는 아니였지만 혁명동지가 체포당하도록 했고 원쑤놈들을 돕는 행동을 하였다. 그러한 행동은 혁명동지이며 벗에 대한 배신이며 공화국정권에 대한 배반으로밖에는 달리 분석될수 없다. 본의건 본의가 아니건 배신은 배신이다. 이것은 지조와 확실한 신념이 없고 그것을 지켜낼만 한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준엄한 정황속에서 흔히 차례지는 인간생활의 무자비한 판결이며 가혹한 징벌인것이다!)

룡진은 아득히 흘러간 철부지 소년시절에 마을의 자그마한 내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물장구 함께 치며 자란 광훈이, 지금은 남이 되여버린 그를 서글픈 눈빛으로 바라보고있었다.

군용차는 여전히 미친듯이 내달렸다. 사정없이 몰려드는 맵짠 바람은 보이지 않는 바늘로 온몸을 찔렀다.

룡진은 죄여드는 독한 추위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이마에 내돋은 식은땀은 차거운 바람에 인차 마르지 않았는데 그때문에 머리속까지 쑤시였다.

군용차는 신천군소재지쪽으로 질주하고있었다. 며칠전 별뜬 야밤에 놈들의 찦차를 몰고 휘파람을 불면서 어둠속을 쾌속으로 달리던 바로 그 길이였다. 그렇지만 그때와는 정반대방향으로 가고있으며 운전대를 틀어잡았던 그의 두손은 그때와는 다르게 철쇄로 묶이워있는것이다. …

실성한 사람처럼 무턱대고 몸을 흠칫흠칫 떨면서 머리를 푹 떨구고있던 광훈이가 느닷없이 뭐라고 중얼중얼 혼자소리처럼 분명치 않게 말을 걸었다. 룡진은 서글픈 심정으로 조용히 그를 다시 여겨보았다.

《룡진동무, 용서하라구. 나도… 내가 무슨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소. 사실 나는… 그 교활하고 음흉한 미군장교놈한테 기만당하는줄도 모르고 그만 실수했단 말이요. 그래서 룡진동무가 있는 곳을 놈들에

게 그만… 내가 당황하고 하도… 그렇지만…》 하고 바람을 등진 광훈은 턱을 덜덜 떨면서 여전히 분명치 않게 더듬거렸다.
 도간도간 끊어지는 그의 말을 듣고있는 룡진의 얼굴에는 분노보다도 서글픔이 력력했다.
 《광훈이, 설사 나는 그렇게 너절하게 행동한 광훈이를 관대히 용서한다 쳐도 광훈이의 늙으신 부모님들과 어린 자식들한테서는 용서를 받지 못할거야. 얼마나 가슴 쓰리고 괴로운 일인가!… 아마도 광훈이는 겁에 질려 본의아니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변명할테지. 아니야, 문제는 본의인가 아닌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중요한건 광훈이가 시련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꺾이운데 있는거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런 너절한짓을 한것이야!…》 하고 룡진은 말하고싶었지만 가련해보이는 그를 찬찬히 여겨보면서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아무리 정확하고 진실한 말이라 해도 때로는 구태여 말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진실도 입에 올리면 시시해지는 때가 있는것이다.
 광훈은 끊임없이 몰려오는 바람과 모진 추위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차에 실려가 참혹하게 총살당할수 있다는 공포의식때문인지 그냥 턱을 덜덜 떨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연방 중얼중얼했다.
 《룡진동무, 말 좀 하라구… 그래두 나는 지금까지 공화국정권을 위해서 뛰여다녔구… 사실 나도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누구보다도…》
 《뭐, 사랑하는 우리 조국이라고?!…》 하고 룡진은 끝내 참지 못하고 철문처럼 꾹 다물었던 입을 드디여 열었다.
 《광훈이, 그 고귀하고 신성한 조국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오. 지금까지 광훈이가 어머니조국을 사랑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자신까지도 속이는 무서운 거짓이요! 광훈이, 난 구태여 이런 말을 하고싶지 않았지만 이왕 시작한바에 말해두겠소. 내가 지내본바에 의하면 광훈이란 사람은 우정도 지키지 못하고 벗도 사랑할줄 모르는 사람이요. 명심하오, 우정조차도 지킬줄 모르고 한사람의 벗도 사랑할줄 모르는 인간은 절대로 더없이 크고 고귀하며 신성한 조국을 사랑하지 못하오. 또 사랑할수도 없는거요. 이건 틀림없는 확고한 진리요!》
 이상하리만큼 잔잔하면서도 의미심장하게 울리는 룡진의 침착한 말소리에 광훈은 금시 통곡이 터져나오려는것을 가까스로 참는듯 흐

흑… 하고 흐느끼면서 머리를 떨구었다. …

행길가의 먼지들을 차던지며 내달리는 차는 신천군 소재지로 들어서고있었다. 소도시 신천으로 들어서는 신작로는 작고도 협착한 반토굴들과 초가집들, 반나마 무너진 2층집을 지나 거리거리를 굽이쳐갔다. 길거리에는 어디를 보나 가마니에 싸인 시체, 깨여진 단지, 사기그릇, 내버린 신발, 해진 헝겊따위들이 너저분히 널려있었다. 길가에서 조금 떨어진 둔덕에는 불에 탄 커다란 집 한채가 텅 빈 창구멍들로 희멀건 하늘을 쳐다보고있었다.

중심거리의 텅 빈 길가에는 가지부러진 아카시아나무들이 량쪽으로 두줄로 서서 행길에 바싹 다가서있었다. 어깨에 물지게를 진 한 녀인이 내달리는 차의 앞쪽에서 거리를 가로질러 황급히 지나갔다. 인적없는 골목길에 들어선 녀인은 얼굴을 돌려 미군병사놈들이 두줄로 앉아있는 차쪽을 불안스럽게 쫓기듯이 흘끔 바라보았다. 그 이웃마당에서는 반토굴집에서 검정남자고무신을 신고 뛰여나온 맨머리바람의 처녀가 남새밭쪽에 가시물을 내버리고 문안으로 사라지기 전에 역시 불안한 눈길로 차를 돌아보았다.

헐뜯긴 거무스름한 아카시아나무의 앙상한 가지들에서는 머리털을 일으켜세우고 몸을 쫑그린 토실토실한 참새들이 을씨년스럽게 푸릉푸릉 날아예고있었다.

룡진은 온밤 식은땀을 흠뻑 흘리고나서 지금은 지독하게 몰려오는 모진 오한으로 못 견디게 몸이 떨리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는 강의한 의지로 점점 더 죄여드는듯 한 오한을 억누르며 참아내려고 애썼다.

신작로에서 자그마한 다리 하나를 건느자 네거리가 시작되였다. 룡진에게는 이 거리가 낯익은것이였지만 텅 비고 마치 죽은듯 한 네거리의 모든것이 이상하게도 지금 생소하고 처음 보는것처럼 느껴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흥성거리며 모여살던 중부평야지대의 오랜 이 소도시, 가지가지 토산물이 풍부하고 가까이에 이름난 온천까지 있어서 늘쌍 본고장사람들과 타곳에서 온 사람들로 붐비던 아름다운 소도시는 흔적없이 사라지고 그 대신 컴컴하고 무시무시한 공포에 짓눌린 페허의 작은 마을이 있을뿐이였다. 네거리에는 추위에 얼고 먼지오른 가느다란 어린 나무들이 맵짠 바람에 시달리며 늘어서있었다. 적막이 깃

든 한산한 네거리에는 개 한마리 얼씬거리지 않았다. 길가에는 여기저기 가마니를 씌웠거나 그대로 내버려둔 시체들이 수없이 눈에 띄웠고 거리의 곳곳에는 크고작은 종이장들이 나붙어있었다. 그것은 소도시를 강점한 미제침략군놈들이 주민들을 놀래우고 위협할 목적으로 내붙인 무슨 명령서이거나 포고장들일것이다.

차는 앞에 있는 밋밋한 언덕으로 치달아오르고있었다. 언덕우에는 얼마전까지 군당이 자리잡았던 2층집이 솟아있었는데 집가운데 현관우에는 커다란 미제침략군 성조기의 넓은 천쪽이 펄럭대고있었다. 아마 여기에는 지금 미제강점군의 지구사령부가 틀고앉은것이라고 룡진은 생각했다.

현관앞의 넓은 뜨락에는 미제침략군놈들과 앞잡이 경찰놈들, 《치안대》놈들이 우글거리고 사방에서 군견들이 사납게 짖어대고있었다. 뜨락에는 또한 강제로 몰아온듯 한 군내의 주민들이 긴장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성거리고있었다. 뜨락에서 조금 떨어진 크지 않은 둔덕과 2층건물의 옥상우에는 완전전투준비를 갖춘 미군병사놈들이 기관총을 걸어놓고 모여온 주민들의 일거일동을 엄중감시하고있었다.

《아니, 사람들이 왜서 저렇게 모여섰을가?… 이제 저 사람들앞에서 우리를 총살하려는게 안야?…》 하고 광훈이가 턱을 덜덜 떨며 얼빠진 사람처럼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일단 굽어들고 꺾이운자는 저렇게 어리뻥해지는것이지…)

룡진은 흠칫흠칫 련속적으로 몸을 커다랗게 떨고있는 가까이의 광훈을 역겨웁게 바라보았다.

《왜 저렇게 숱한 사람들이 모여섰을가?… 저기 둔덕과 옥상에는… 기관총을 걸어놓았어… 우리를 죽이려는게야…》

공포에 질려 벌써 반정신이 나간 광훈이가 여전히 덜덜 턱을 떨면서 혼자소리로 그냥 중얼대고있었다.

《썩 그만둬, 입을 다물어!》 하고 룡진은 소리를 지르려다가 가까스로 참았다. 룡진은 침묵했다. 그것은 혐오와 분격으로 맥박치는 침묵이였다. 그는 공포에 떠는 가련한 광훈의 목소리가 하도 듣기 역겨워 머리를 돌리고 넓은 뜨락에 모여선 군내주민들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그들의 대다수는 아낙네들이였고 나이지긋한 로인들과 로파들, 나

어린 아이들이였다. 간혹 그속에는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웠거나 머리수건을 푹 내려쓴 처녀들이 드문드문 섞여있었다.

차가 2층집뜨락으로 들어서자 웃층에서 뚜거덕거리는 소란한 군화발소리가 들리더니 눈두덩이 부석부석하고 등이 구부정한 미군장교놈이 현관으로 나왔다. 키가 들썩하게 크고 앞이마가 별스레 툭 튀여나온 30살정도의 우둔하고 미욱하게 생긴 놈이였다. 현관앞에 우뚝 버티고선 장교놈은 버릇인듯 두손을 등뒤로 모두어쥐고 거만한 눈길로 차우의 사람들을 쏘아보고있었다.

후에 가서 알게 된바에 의하면 장교놈은 신천지구주둔 미제침략군사령관 해리슨이였다. 우울한 얼굴에 직급표식이 없는 군용반외투를 어깨에 걸친 그놈은 해빛에 눈이 부신듯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리를 약간 벌리고 기세등등하여 지껄여대기 시작했다.

《여러분, 방금 여기에 큰 빨갱이가 실려왔다는것을 당신들에게 알린다. 철의 공산치하에서 당신들을 억누르고 호통치였으며 무제한한 권력을 휘두르던 이전 도위원장 리룡진이다. 똑똑히 보라!… 끌어내렷!―》

장교놈의 쥐여짜는듯 한 구령소리가 떨어지자 이미부터 대기하고있던 미군병사놈들이 우당탕거리며 달려들어 차우의 사람들을 구두발로 차고 후려치면서 밑으로 밀어던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방에서 군견들이 당장 물어제낄듯 길길이 뛰여오르며 소란스레 짖어댔다.

룡진은 긴장하여 몰켜서있는 주민들을 향해 머리를 들고 차에서 천천히 땅으로 내려섰다. 그는 퉁퉁 부어오른 한쪽다리가 못 견디게 쑤시였으나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끌려나온 주민들을 한사람한사람 눈여겨보며 천천히 그들의 앞을 지나갔다.

28

순애는 집떠날 차비를 하고있었다. 그는 별로 깊이 생각해보려고도하지 않고 이것저것 얼핏 떠오르는대로 배낭안에 싸넣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그는 부상당한 군인과 함께 구월산으로 떠나려는것이

다. 그런데 시간은 왜 이리도 굼뜨게 흘러가는지 아직 한낮도 못되였다. 그는 별스레 초조해지는 마음을 누르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습기를 머금은 하늘에서는 진눈까비가 푸득푸득 떨어지고있었다. 음산한 날이였다. 순애는 이런 날이면 까닭모르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군 했다. 차라리 비면 비, 눈이면 눈이지 축축하고 껍진껍진한 진눈까비는 정말이지 질색이였다.

마을의 행길로는 우르르 무엇을 위협하는듯 한 소리를 질러대며 신천쪽에서 달려온 미군차들이 쉴새없이 안악쪽으로 달려갔다.

순애는 진눈까비 내리는 창밖의 어딘가를 응시하고있었다. 그는 이때까지 겪은 쓰라린 정신적고통과 불행과 슬픔도 이겨낸 이상 이제 자기는 그 어떤 시련이라도 꿋꿋이 헤쳐나갈수 있으리만큼 굳세여졌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달포가 되나마나한 짧은 나날에 기실 그는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쳐지는 무시무시한 공포도 체험하였으며 온갖 슬픔과 가지가지의 불행도 겪었다. 그런 지금의 순애는 모든 면에서 자기가 판판 다른 사람으로 된것처럼 스스로 느끼고있었다.

오늘 아침 부상당한 군인에게 식사를 가져다주면서 얼핏 오랜만에 거울을 보았을 때 순애는 깜짝 놀랬었다. 거울에서 눈이 우묵하니 들어가고 머리도 제대로 형을 잡지 못한 어떤 중년의 녀성이 자기를 마주보고있었다. 그동안 겪은 도탄속의 파란곡절이 그를 외형적으로도 몰라보게 변모시킨것이다.

(혹시 구월산으로 들어가서 철수동무를 만나게 되면?…)

순애는 이제 구월산으로 들어가 거기서 그를 만나는 광경을 상상해보았다. 그러자 그는 말 못할 기쁨에 가슴이 설레이기도 하고 한편 몰라보게 변한 자기의 모습을 보고 놀라와할 그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들고 슬프기도 하였다. 기쁨과 슬픔이 한데 엉킨 복잡한 심정이 그를 사로잡았던것이다.

(그가 구월산에 있는지 아니면 혹시 북으로 후퇴했는지?…)

어느 하루도 순애는 마음속으로 그를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잠이 드는 순간에도 잠에서 깨여나는 순간에도 그는 철수를 생각하였다. 기실 이 세상에 꼭 만나야 할 사람,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그 희망과 지향마저 없었더라면 순애는 파란많은 그 나날을 견디여내지

못하고 절망하여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

순애는 길떠날 준비를 끝내고 (준비라고 특별한것도 없었지만) 조용히 아버지가 사용하던 걸상에 앉았다. 막상 떠나자고 결심하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그 처녀의 입에서 저절로 한숨소리가 새여나왔다. 군감방으로 끌려간 후 아직까지 생사를 알길 없는 아버지, 그렇게도 선량하고 남들의 불행을 자기 일처럼 걱정하던 아버지!… 순애는 눈물이 쏟아져나오려는것을 억제했다.

(그렇게 선량한 아버지에게 악형을 가한 그것만으로도 놈들은 벌써 천벌을 받았으련만…)

원한에 사무친 그 처녀는 마음속깊이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걸상에서 일어나 함께 떠날 부상병이 있는 옆방으로 들어갔다.

과묵한 중년의 병사는 윤기흐르게 닦아놓은 자동총을 틀어잡고 무엇인지 남모를 생각에 잠겨있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계세요?》 하고 순애는 얼마간 긴장해지는 자기의 기분을 누르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이지숙한 병사는 생각깊은 눈길로 순애를 여겨보면서 침묵하고있었다.

《아이, 어쩌면 그렇게 찬찬히 보세요? 그러단 제 얼굴이 뚫어지겠어요!》

별스럽게 정색해진 병사에게 순애는 롱담을 걸듯이 조금 어성을 높여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처녀동무!》 하고 부상당한 중년의 병사는 아직까지 그래본적 없는 신중하고 숙연한 기분으로 말했다.

《이 총을 잡고 철천지원쑤놈들과 다시 싸울수 있도록 나를 소생시켜준 동무에게 나는 진심으로 인사하고싶소. 정말 고맙소. 어느때나 처녀동무를 잊지 않겠소!》

나이지숙한 병사의 얼굴에는 감사와 고마움의 감정이 짙게 떠올라있었다. 그러자 순애는 자기도 모르게 눈에 눈물이 핑 도는것을 감촉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했을거예요.》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고 실천하는건 아니요. 그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의 조국이 력사에 류례드문 가혹한 시련을 겪고있는 지금 별별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이 제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놓고있소.》

(하긴 너절하고 비렬한 인간추물들이 없는건 아니지.) 하고 생각하면서 순애는 짧고도 깊은 한숨을 쉬였다. 병사가 방금 말한것은 정확하고 준엄한 말이다. 가혹한 시련의 날들이 폭풍처럼 흘러가는 지금 도처에서 각양각색의 인간들이 자기의 본성을 숨김없이 뚜렷하게 드러내고있다. 누구는 배신을, 누구는 신념과 절개를, 누구는 악하게, 누구는 량심을, 어떤 사람은 리기심을, 또 어떤 인간은 비렬함을, 누구는 선량함과 고상한 정신을 그대로 펼쳐놓고있는것이다. 지금은 위장도, 허물도, 탈도 여지없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그대로 적라라하게 드러내는 때인것이다. 그렇다. 모든 인간들이 스스로 본색을 나타내지 않을수 없는 시련의 시절이다.

《처녀동무, 구월산으로 들어가면 동무의 몫까지 내가 몇백배로 복수하겠소!》

생각에 잠겨있던 순애는 강렬하게 울리는 병사의 불타는 가슴속 맹세를 듣고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고마워요. 복수는 저도 하겠어요!》

한때는 그지없이 온순하고 쥐와 개구리를 무서워하는 처녀였던 그가 지금은 그 무엇에도 두려움 모르는 증오심에 꽉 차있었다. 고향땅을 유린하고 사랑하는 학교를 불살랐으며 선량한 아버지와 친지들과 이웃들에게 악형을 가하고 모욕한 원쑤놈들에 대한 증오심이 처녀의 심장에 차고넘쳤다. 그는 오직 한가지, 복수만을 원하고있었던것이다.

그때 뜨락밖에서 주인을 찾는듯 한 어떤 남자의 분명치 않은 목소리가 방안으로 들려왔다. 순애와 나이든 병사는 긴장하여 침묵하고있었다. 또다시 조심히 문을 두드리며 중얼중얼하는 소리가 들렸다.

《별일 아닐거예요. 아마 이웃에서 누가 찾아왔나봐요.》

웬일인지 순애는 이상하게 가슴이 설레이는것을 느꼈다.

(아이, 내가 불시에 왜 이럴가?…)

그는 무엇인가 섬광처럼 지나가는 예감을 의식하면서 뜨락으로 나왔다. 지꿎게 퍼붓던 진눈까비는 어느새 멎었다.

《누구세요?》 하고 순애는 대문앞으로 다가서며 물었다.

《이 란리통에 집을 잃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인데 하루밤 쉬여갈수 없겠는지요?…》

문밖에는 허름한 털모자를 이마 깊숙이 눌러쓴, 중로배로 보이는 낯모를 남자가 늙은이들처럼 허리를 구부정하고 서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온통 먼지로 거멓게 얼룩져있었다. 어쩐지 측은해보였다.

《안됐지만 우리 집에는 지금… 다른 집에 가서 부탁하세요.》

동정하듯 듣기 좋은 말로 응대하고 돌아서던 순애는 문밖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듯 한 귀익은 목소리를 들었다기보다 느꼈다. 그 순간 처녀는 불시에 머리를 홱 돌렸다.

《순애, 문을 열라구, 빨리!》

나직하게 구령을 치는듯 한 그 목소리에는 응하지 않을수 없는 강한 요구성이 울려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의 임자가 누구인가를 이미 깨닫고 느끼고 알게 된 그 처녀는 굳어진듯 뜨락 한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했다. 몇순간이 흐른 다음 순애는 정신없이 건너뛰듯 달려나가 문을 열었다.

어깨에 짐을 멘 중로배로 보이는 사나이는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보고나서 재빨리 뜨락으로 들어섰다.

《순애!―》 하고 그 남자는 속삭이듯 입속말로 웨치면서 늙은이처럼 구부정했던 허리를 쭉 폈다.

그는 철수였다.

《…》

순애는 홀연 말이 막혀버렸다. 눈섭은 우로 올라가고 입은 벌어져있었으며 놀람과 기쁨으로 눈이 빛났다.

《철수동무!―》

쿡― 찌르는듯 한 기쁨과 반가움의 눈물이 솟아오르는것을 감각하면서 순애는 한걸음 다가섰다.

《순애!》

그 처녀를 와락 포옹하려고 다가오던 철수는 자신의 흥분을 스스로 자제하고 멈춰서더니 불타는 시선으로 처녀의 얼굴을 찬찬히 더듬었다. 순애의 얼굴은 보면 볼수록 몰라보게 변하였다는것이 더욱 똑똑

히 알렸다.
《순애, 그사이 많이 변했구만.》
《동무도 영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 그런데 어찌된 일이예요? 이렇게 느닷없이…》
《순애, 난 구월산에서 정찰을 나왔소. 안에 누가 있소?》
《아무도…》
《그럼 방안으로 들어가자구!》
처녀의 방으로 들어선 철수는 왕골구럭을 문가에 벗어놓고 예리한 눈길로 방안을 둘러보고나서 곧 순애에게 물었다.
《순애, 여기 면과 리들에 놈들이 얼마나 있소?》
《미군 한개 중대가량과 면, 리의 경찰놈들, 〈치안대〉가 합쳐서 100여명 넘게 있어요.》
철수는 적들의 주야간고정보초소들과 검문소, 미군중대본부의 위치, 애국자들이 감금된 감방주위의 지형 등을 자세히 캐묻고 확인한 다음 성냥갑뒤등에 암호로 표시했다.
《순애, 도위원장동지가 갇혀있는 감방은 어느 창고요?》
《도위원장동지는 어제 아침에 놈들이 군감방으로…》
《한발 늦었구나!― 개새끼들!…》
방안 어딘가를 무섭게 쏘아보며 철수는 조용히 이발을 갈았다. 그러더니 한참후에 순애에게로 정겨운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물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소? 순애, 고생이 많았을테지?》
사랑하는 사람의 진정에 넘친 따뜻하고 애틋한 물음에 순애는 자기 가슴속에 맺히고맺힌 원한과 서러움, 누르고있던 울분의 눈물이 뚝을 터치려는것을 가까스로 눌렀다. 그런 다음 순애는 흐느끼면서 나직이 응대하였다.
《그저… 남들처럼…》
《순애, 아버님은 편안하오? 지금 어떻게 지내고계시오?》
《아버지는… 놈들에게서 악형을 당하시다가 군감방으로…》
《뭐요?!… 놈들이 임목사님을?… 무엇때문에?…》
철수는 나직이 소리치며 증오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무엇때문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저 사람이라는 그때문에…》

그 처녀는 끝내 참아내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끼며 울었다. 지금까지 자기는 그사이 굳세게 성장했으며 시련속에서 단련되였고 벼려졌다고 믿고있었던 순애였으나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도 마음속으로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자 눈물을 쏟고말았다. 처녀는 장렬하게 전사한 철수의 아버지가 감방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을 그에게 전하면서 슬피 울었다. 의식의 한끝에서 울어서는 안된다고 리성은 말하고있었지만 순애는 오래동안 흐느끼며 울었다. 리성의 목소리와는 관계없이 감성은 감성대로의 강한 자기 힘이 있었던것이다.

《순애, 그러지 마오!》

북받쳐오르는 분격을 지그시 누르면서 철수가 목갈린 소리로 말했다.

《혹시… 순애동무와 나만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요?》

《그런건 아니지만…》

《순애, 지금 전인민이, 온 조국이 엄혹한 시련과 재난을 겪고있소. 온 조국땅 곳곳에 말로는 다할수 없는 고통과 피가 흐르고있지 않소.》

《그래요. 저도 알고있어요. 우리들의 주위에는 너무도 슬프고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순애, 이 류례없는 가혹한 전쟁에서 우리 조국, 인민의 모진 고통과 가지가지 슬픔은 한매듭으로 꽉 맺혀있소. 전체의 재난과 원한도 개인의 불행과 원한도. …다만 한가지만이 즉 원쑤를 섬멸소탕한 우리의 승리만이 이 매듭을 풀수 있소. 그때에는 전체의 슬픔도 개인의 슬픔도 가셔지고 우리모두가 행복하게 될거요!》

흐느껴우는 순애의 가냘픈 어깨우에 아령처럼 묵직한 손을 얹으며 철수는 말을 계속했다.

《순애, 나는 마음의 상처와 슬픔을 고치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처방은 투쟁이라고 알고있소. 순애동무는 다른 처방을 알고있소?》

순애는 될수록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쓰면서 나직하니 이렇게 응대하였다.

《동무의 말이 옳아요. 하지만 저는 앞으로 적들과 싸우는 동안에

도 제가 겪은 슬픔과 아픔을 잊지 못하겠어요!》

《그렇소. 잊지는 못할거요. 다른 사람들은 투쟁속에서 자기의 아픔을 영 잊어버린다고 생각하오? 아니, 그들도 잊지 못하며 또 잊어버릴수도 없는것이요!》 하고 철수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순애, 그렇지만 원쑤놈들과 싸우느라면 그 아픔도 멎게 되리라고 나는 믿소.》

《철수동무, 알겠어요. 그런데…》

순애는 현재 자기곁에 철수를 내놓고는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이 없다는것 그리고 사람은 잃어버리는것이 클수록 불행을 더 강하게 느끼는것인데 지금 자기는 기다리고기다리던 철수, 그마저 잃지나 않을가 하는 무섭고도 참을수 없는 생각때문에 이제부터 언제 어느곳에나 함께 있었으면 한다고 말하고싶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처럼 준엄한 시절에조차 자신의 감정을 다잡을줄 모르는 감상적인 철부지로 보이지나 않을가 두려워했기때문이였다. 순애는 이미 전인민적재난의 크기를 알고있었으며 발톱까지 무장한 미제침략군놈들의 발굽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고있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

스스로 자기의 감정을 수습한 순애는 침착하게 사랑하는 철수의 변모된 얼굴을 주의깊이 살펴보았다.

(무엇인가 딴사람처럼 되였구나!… 어쩌면 사람들의 모습이 이다지도 변할가?…) 하고 순애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제일 많이 변한것이 자기자신이라는것을 그 처녀는 모르고있었다.

《철수동무, 저도 구월산으로 가겠어요. 거기서 총을 잡고 싸우겠어요!》

순애는 열렬하게 자기 심정을 토로하였으나 철수는 자기 생각에 잠겨 긍정하는것인지 아니면 부정하는지 모르게 머리를 끄덕거렸다.

《순애, 구월산에 들어가서 총을 잡는것만이 적들과 싸우는건 아니요.》

철수는 뜻밖에도 랭담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침착하게 띠염띠염 말했다. 이것은 생활의 가장 어려운 시기인 최근에 터득한 습성이였다. 이전에는 흥분부터 앞세우군 하여 내무원생활에서 가끔 충고를 받아

온 철수였다.

《아이,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예요? 그럼 여기서?… 아니예요, 아니예요! 어둠속에서, 공포속에서 벙어리처럼 구차하게 사는것도 삶이예요? 그렇게 살아서 뭘해요?》 하고 순애는 자기도 모르게 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순애,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오. 내 생각에는 오히려 여기 남아서 인민유격대를 돕는것이 좋을것 같은데…》

철수의 말은 여전히 침착하게 울렸다. 그러나 순애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다. 여기서 홀로 무엇으로, 어떻게 유격대를 도우며 적들과 싸운단 말인가!…

순애의 이러한 생각을 정확하게 간파한 철수는 즉시 말을 이었다.

《순애동무, 마을에서 믿을만 한 사람들을 묶어가지고 지하투쟁을 하면서 구월산인민유격대에 정찰자료들을 보내면 되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했다. 그러다가 그는 오늘 저녁에 실행하려던 계획, 부상당한 인민군병사와 함께 구월산으로 떠나려고 했던 행동계획을 철수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말을 신중히 들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겼던 철수는 이윽고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순애동무, 당분간 마을에 남아있소. 유격대본부와 당조직에 반영하고 결론을 받은 다음 행동하여도 늦지는 않을거요. 결과에 대해선 내가 오든지 우리 정찰조동무들이 곧 알려주도록 제기하겠소. 그리고 부상당한 인민군병사동무는 오늘 밤 나와 함께 떠나면 되오.》

그러나 순애는 야수같은 놈들이 욱실거리며 살판치는 이 스산한 곳에서 떠나고싶었다. 거기 가면 제 사람들속에서 얼마나 숨쉬기가 좋고 마음도 편할가. 더우기 거기에는 사랑하는 사람도 곁에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순애는 결심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럴 때 골목길 건너편집에서 법석 떠들며 싸우는 소리와 무엇이 깨져나가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

철수는 불시에 긴장하면서 묻는듯 한 시선으로 순애쪽을 바라보았다.

《마음 놓으세요. 집안싸움이예요. 벌써 며칠째 싸우고있는데 오늘은 결판이 날거예요!》 하고 순애는 그를 안심시켰다.

《순애, 저건 음전아주머니네 집이 아니요?》

《옳아요. 성미 드센 음전아주머니가 며칠전에 남편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댔어요!》

《뭐?…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철수는 깜짝 놀랐다.

《그럴만한 일이 있었어요.》

순애는 놀라와하는 철수에게 이미 음전에게서 들었던 사연, 중상당한 도위원장동지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에 집으로 찾아온 먼 친척인 광훈이란 사람과 그를 몰인정하게 쫓아내여 놈들한테 체포케 한 바보남편에 대해 자세히 말했다.

《일생 남모르는 눈물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음전언니는… 도위원장동지가 체포된 바로 그날 더는 참지 못하고 〈치안대〉대원인 남편을 죽이려고 대들었댔어요.》

《그랬었군. … 한데 어째서 그 개자식과 아직도 한집안에 있소?》 하고 철수는 분격을 참지 못하고 나직이 소리쳤다.

《음전언니는 곧 그 집에서 나올거예요. 그 성미에 아무렴 이제 또 같이 살겠어요?》

골목길 건너편에서는 여전히 무엇인가 깨여지고 부서져나가는 소리, 분명치 않은 남자의 고함소리, 독을 쓰는 녀자의 웨침소리가 떠들썩하게 들려오고있었다.

순애와 철수는 저마끔 자기 생각에 잠겨 침묵했다.

《순애, 이제 동무가 여기서 투쟁하게 되는 경우 음전아주머니같은 사람들을 도와주어 투쟁에 인입할수도 있을거요!》

순애는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앉아있었다. …

29

직급표식이 없는 카키색군용반외투를 어깨우에 걸친 해리슨은 군용지도앞에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월산을 쏘아보고있었다. 무엇인지 불쾌하고 못마땅한 기분으로 갑작스레 머리를 쳐든 그는 좁고 어스레한 방안을 휘둘러 살폈다. 파아란 담배연기가 구름처럼 움

직이지 않고 천정밑에 서려있었다. 해리슨은 늘쌍 느끼는 불만, 천정이 낮고 방이 작은데서 오는 불쾌감을 내심 또 느꼈다. 그러나 이 자그마하고 렬등한 나라에서, 더구나 전쟁시기라는 특수상황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자기를 위안했다. 발을 거의나 들지 않고 군화밑바닥으로 방바닥을 스륵스륵 쓸면서 방안을 왔다갔다 하던 그는 문서들과 자료들이 놓인 책상앞으로 다가가 걸상에 앉았다. 부어오른듯한 흰 목덜미는 군복의 깃우로 확연히 드러났고 몸에서는 향수내가 풍겼다. 지금 여기서 비렬하고 악착한 이 교형리의 용모를 원색그림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

…30세가량의 전형적인 양키, 몸은 육중하고 키는 큰편이다. 미욱하게 툭 나온 이마, 그밑에 활등처럼 휘여든 누런 눈섭, 눈확은 깊숙하고 눈알은 항상 충혈되여있으며 입술은 두툼하다. 코밑에는 군인에게 어울리지 않는 코수염이 있다. …

해리슨중위(중위라고 해두자.)에게는 하나의 야심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숨기지 않고 언제나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군 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우에 군림하려는 참을수 없는 욕망이였다. 아니, 그것은 단순히 지배하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머리우에 불을 지르고 총탄을 퍼붓고 거기서 들려오는 비명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것이였다. 때문에 군내의 감방들에 갇혀있는 수많은 조선인《빨갱이》들뿐아니라 아직은 감방에 처넣지 못한 신천지구 주민들의 운명도 자기 손아귀에 쥐여져있으며 언제든지 죽여버릴수 있다는 의식은 해리슨에게 가장 큰 만족을 주었다. 실지에 있어서 미제침략군 매 병사놈들은 교형리고 살인자였다. 그러나 해리슨은 광신적이고 야수적인 교형리였다. 그는 참된 행복을 부귀에서도, 성욕을 채우는데서도, 잘 먹고 마시는데서도 찾지 않고 바로 강점한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수 있는 무제한한 권리에서 그리고 그 어떤 보배와도 바꿀수 없는 백, 천, 만의 사람들을 단번에 사형하고 목매달고 찔러죽이는 권리에서 찾았다. 총탄을 퍼부어 사람들을 죽이고 또 죽이는것이 해리슨의 취미이고 기쁨이라는 것은 그를 아는 모두에게 잘 알려져있었다. 총성, 아우성, 비명, 방화, 불길, 연기는 실지 그를 흥분시켰고 남의 나라땅에서 그 주민들을 좌지우지하는 지배자가 되였다고 생각할 때 더없는 희열을 느끼

고있었다. …

지금 해리슨은 늘쌍 하던대로 책상우에 두손을 올려놓고 머리를 오른편 어깨쪽으로 약간 기울이고있었다. 부석부석한 눈두덩아래의 충혈된 눈은 거침없이 자신만만하게, 자기과신적인 거만한 시선으로 앞을 바라보고있었다. 한참동안 그러고 앉았던 해리슨은 책상우의 두툼한 문건들을 벌컥벌컥 뒤지였다. 그 문건은 군경찰서와 군《치안대》본부에서 제공한 《신천군 행정구역에 따르는 일반적인 정치경제적자료》였다. 해리슨은 뜨직뜨직 읽기 시작하였다.

…신천군은 력사가 오랜 군이다. 신천군은 고구려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승산군, 승주군, 화산군, 신안군, 신주군, 신성군, 신천군 등 여러차례에 걸쳐 군명칭을 변경하였다. 리조봉건통치시기의 행정구역은 15개 방으로 나누어져있었는바 즉 읍내방, 동변동부방, 대정방, 남면두라방, 서면서부방…

(이따위 곰팡내나는 자료가 도대체 무엇에 필요한가. 머저리들!…)

해리슨은 내심 짜증을 내고 욕설을 퍼부으면서 건숭건숭 건네뛰며 읽어나갔다.

…1890년 인구통계… 그다음에는 1940년 현재 신천군에서의 일본통치기구가 무엇무엇이라고 부르기도 까다로운 괴이한 이름으로 적혀있었다.

해리슨은 다시 건숭건숭 번져나갔다.

…1929년의 신천군 경지면적통계… 신천군 총농호수…

그는 일본사람들이 이미 1940년대초에 출판한 《신천지》에서 그대로 옮겨베낀 시시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는 자료들을 와락 꾸겨서 휴지통에 집어던졌다. 현재의 생생한 자료 즉 신천군내의 로동당원들과 기타 공화국정권에 협력했던 열성분자들, 그 가족들의 정확한 명단을 요구했었는데 이따위 시시하고 케케묵은 고문서를 옮겨다 바치는가!… 머저리들!… 바보들!…

해리슨은 몸이 매시시하고 걷잡을수 없는 온몸의 무력감을 느끼며 실팍한 어깨를 으쓱하고는 우울하게 상을 찌프렸다. 주기적으로 하루에 한두차례씩 오군 하는 이러한 증세를 군의들은 저혈압병에서 흔히 보게 되는 무력감이라고 진단하였다. 그는 군의들의 그런 진단을 믿

지 않았으며 도대체 의학이라는것을 통털어 무시하였다.
해리슨은 책상우에서 위스키병을 들어 몇모금 크게 마시고 마루바닥이 삐걱거릴 지경으로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그는 본국에서 이런 증세가 올 때는 총을 미친듯이 쏘아대며 사냥하는것으로 우울증과 무력감을 없애고 기분을 앙양시키군 하였다. …
방안으로 부관이 소리없이 들어와 신천지구의 군과 면경찰, 《치안대》대장들이 모여 지구주둔사령관을 기다리며 대기하고있는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해리슨은 어제 자기가 회의소집을 명령했었다는것을 문득 생각했다. 부관에게 알고있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여보이고 그는 으쓱 어깨를 떨었다.
부관은 해리슨의 낯익은 이 동작을 보면서 빨리 물러가는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다. 발작이 시작되고있는 이런 때 될수록 멀리 피해야 한다는것을 너무도 잘 알고있는 부관이였다. 자칫하다가는 까닭없이 해리슨한테서 무서운 봉변을 당할수 있는것이다.
《지구주둔사령관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부관은 재빨리 해리슨의 눈치를 살피면서 성급히 말했다.
해리슨은 연방 어깨를 떨면서 이번에는 혼자소리처럼 웅얼웅얼했다.
《나도… 곧 내려가겠소.》
부관이 서둘러 사라지자 해리슨은 다시 책상앞으로 다가가 위스키병을 쳐들고 크게 한모금 마셨다. 그다음 서류함쪽으로 걸어가 서류장문을 열어제꼈다. 육중한 강철문이 무거운 소리를 내며 열리고 보이지 않는 아구리에서 나오듯 검은 문건철이 저절로 미끄러져나왔다. 체포구금한 로동당원들, 국가기관의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명단 그리고 구월산인민유격대들이 래습한 지명들과 그 회수, 그 동향들을 장악기록한 비밀문건이였다.
해리슨은 통탕거리며 2층목조계단을 내려와 아래층의 회의실로 쓰는 방쪽으로 으쓱 어깨를 떨면서 걸어갔다.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관하의 각 군과 면에서 모여든 경찰, 《치안대》대장놈들은 걸상에 비스듬히 걸터앉거나 벽에 기대서서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을 주거니받거니 하면서 떠들어대고있었다. 놈들은 해리슨이 불쑥 들어서자 화닥닥 놀라 꽂꽂이 굳어진듯 일어섰다. 해

리슨은 큰 키에 해면처럼 부풀어오른 얼굴을 거만하게 쳐들고 좌우를 보는 일없이 곧바로 방의 맨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리고는 습관처럼 뒤짐을 지면서 발을 조금 벌렸다. 이것은 해리슨이 제일 좋아하는 자세였다.

《당신들은 어째서 빨갱이들을 숙청하는것을 질질 끌고있소? 나는 그게 불만이요. 그래서 당신들을 부른거요. 본관이 이미 언명한바도 있지만 우리 미군은 공산도배들로부터 당신들을 해방하러 왔소.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 미군을 협력하는데 힘을 내지 않고있단 말이요!》

해리슨은 충혈된 눈으로 모두를 쏘아보며 잠시 말을 끊었다. 그의 상은 분노로 하여 푸르딩딩해졌다. 그는 연방 어깨를 눈에 띄게 으쓱거리고 씨근거리면서 느닷없이 일어나는 또 한차례의 학대욕을 의식했다.

《본관은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관으로서 이미 포고를 낸바있소. 나의 명령은 신천지구에서 곧 법이요. 때문에 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자는 무조건 가차없이 총살할것이요. 그런데 왜, 무엇때문에 숙청이 늦어지고있는가!… 로동당원 그리고 낮모를 수상한자, 머리를 빤빤히 깎은자는 리유여하를 불문하고 모조리 체포하시오. 이걸 보란 말이요!―》 하고 해리슨은 가지고 내려온 서류를 들었다가 다시 탕― 하고 연탁우에 내던졌다.

《지금 신천지구에서 구월산인민유격대가 맹렬히 준동하고있단 말이요! 패배한자들이, 멸망에 직면한 놈들이 감히 우리들의 목을 거머쥐려고 소란을 피우며 돌아치고있소. 그런데 신천, 은률, 안악군의 경찰과 치안대는 무엇을 하고있는가!… 사방으로 뛰여다니며 벅작 고아대나 아무 일도 못 추는 병아리들처럼 그게 뭐야!―》

크고 핑핑한 몸뚱아리전체를 탁자우에다 내실은채 해리슨은 욕설을 퍼부어댔다.

《치안대》대장놈들과 경찰놈들속에서 수군거리는 가벼운 소음이 잔물결처럼 퍼져갔다. 그러나 어느 한놈도 감히 말 한마디 못하고 죄를 지은 어린 학생들처럼 겁에 질려 쪼그리고 앉아서 우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그때 조용한 연탁아래에서 눈섭이 검고 좀 얼빠진

듯 한, 얼굴이 숭숭 얽은 한놈이 부스럭대더니 슬며시 일어서서 공손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사령관님, 우리 면에서는 빨갱이놈들과 그 가족들을 수백명 죽여버리고 지금 또 그만큼 체포해놓았습니다.》

해리슨의 시커먼 코구멍이 그자를 깔보듯 벌름거렸다.

《그건 좋소. 그러나 만족해서는 안돼. 누가 은률군 북부면 치안대장인가?》

《녜, 제가…면치안대장올시다.》 하고 딱바라진자가 잔기침을 하면서 일어났다.

《당신은 어째서 체포한 빨갱이들을 놓아주었는가? 당신은 혹시 빨갱이놈들이 도망치면서 박아넣은 스파이가 아니요?》 하고 해리슨은 듣는 사람들이 오싹 소름이 끼칠만큼 낮으면서도 악의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게 아니올시다. 어제 밤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는지 귀신도 모를 구월산유격대놈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귀신도 모르게?… 몇놈이나 왔는가? 무장상태는?》

해리슨은 뚜걱뚜걱 딱바라진자에게로 다가서서 흰자위에 피기가 진 재빛눈을 크게 뜨면서 거쉰 소리로 물었다.

《밤이여서 정확한 수자와 무장상태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연스런 딱바라진자의 대답이 해리슨의 비위에 거슬렸다. 미간을 찌프린 해리슨은 미친듯이 눈을 부릅뜨고 고함을 질렀다.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하오. 목숨으로… 목숨으로 말이요!》

《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한번만…》

불시에 넝마로 만든 사람처럼 후줄근해진 딱바라진자는 와들와들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한번만 관대히 용서를 해주신다면… 그 은혜에 보답코저…》

《지금은 전시야, 용서 못해. 당신은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자를 끌어냇!—》

해리슨은 저도 알수 없는 동물적인 분노와 그 분노를 어디고 털어놓고싶은 충동에 몸을 불태우면서 명령했다. 즉시에 미군병사놈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딱바라진 면《치안대》 대장을 끌어내갔다. 방안

은 삽시에 무시무시한 침묵이 짝 눌렀다.

《공산도배들과의 싸움을 불철저하게 하는자는 누구든 저런 죽음에 처한다.》

동안을 두었다가 해리슨은 거쉰 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오늘 여기 모인 당신들에게 빨갱이놈들을 어떻게 가차없이 처형하는가를 본관이 직접 행동으로 보여줄것이다. 모두 밖으로 나오라!》

앞으로 있게 될 희열을 예감하면서 해리슨은 앞장서서 뚜걱뚜걱 군화발소리를 울리며 방을 나섰다. 그는 뒤따라 웅성거리며 회의실에서 달려나온 각 군, 면의 경찰대장들과 《치안대》 대장놈들에게 여러 감방안의 수감자들을 모두 끌어내여 이전 군당방공호에 처넣으라고 명령했다. 해리슨의 명령이 떨어지자 경찰, 《치안대》 대장놈들은 주인에게 충실한 사냥개가 목표를 향해 내달리듯 총을 절컥거리며 즉시 감방쪽으로 뛰여갔다.

여러 감방안에는 900여명의 로동당원, 국가기관에서 복무하던 공무원, 열성농민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감금되여있었다. 그들은 해리슨의 명령 즉 《나의 명령은 이 지구에서 곧 법이다. 이를 위반하는 자는 무조건 총살한다. 공산주의위협으로부터 북한을 구원하기 위하여 공산도배를 전멸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로동당원, 국가기관에서 복무한자, 그들의 가족까지 모조리 체포하라.》는 명령에 따라 체포구금한 사람들이였다. 이윽고 감방들에서 터지고 으깨여지고 피자욱이 랑자한 로인들과 녀인들, 남정들과 아이들이 끌려나오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부러져 절룩거렸고 눈알이 빠져버려 앞을 보지 못하고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겨우 걷는 사람도 있었다. 태반이 놈들의 중세기적인 야수적고문과 폭행으로 심한 상처를 입고있었다.

해리슨은 두손을 카키색군용반외투주머니에 찔러넣고 차거운 시선으로 그들을 한사람한사람 쏘아보며 침묵하고있었다. 그는 매를 맞아 터지고 얼굴들의 형체를 알아볼수 없는 그 사람들을 방공호에 쓸어넣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벌써부터 자기의 우울증이 가셔지고 내부로부터 희열이 끓어오르는것을 느끼고있었다.

《야 …야 빨리, 빨리! 쌍놈의 두상태기 얼음판에 들어선 소새끼처

럼 뭘 어정거려!》

《치안대》한놈이 비청거리는 로인의 정갱이며 사타구니며 어디라 가림없이 마구 걷어차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해리슨은 만족한 미소를 띠고 머리를 끄덕거렸다. 바로 그러한 야수적인 잔인성이 그를 흡족하게 했던것이다.

얼마후에 부관이 그에게로 달려왔다. 부관은 기분이 현저하게 좋아진 자기의 상관에게 꺼리낌없이 큰소리로 보고하였다.

《사령관님, 한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방공호에 쓸어넣었습니다!》

해리슨은 기분좋게 머리를 끄덕였다. 군용반외투주머니에 찔러넣은 그의 오른손가락들이 오슬토슬한 권총자루를 체온이 배일만큼 그러쥐고있었다. 해리슨은 도저히 그이상은 닦을수 없으리만큼 반들거리는 권총을 가지고 다니기를 즐겼다. 그는 광증의 매력과 쾌감을 느끼면서 천천히 덤비지 않고 방공호앞으로 걸어갔다.

해리슨은 이 방공호안을 잘 알고있었다. 한사람이 빠져나갈만 한 문을 열고 계단 10개를 내려가면 너비 2메터, 길이 18메터, 높이 2.5메터정도의 어둑컴컴한 방이 있고 안쪽에는 이와 평행하여 길이 10메터정도의 방이 또 하나 있었다. 지금 이 방공호안에는 900여명의 《빨갱이》들이 있는것이다. 해리슨은 방공호입구가까이에 다가섰다. 방공호입구에서는 증오에 찬 웨침소리들이 터져나오고 가래침이 홱—날아왔다. 얼마간의 간격이 있었기때문에 가래침은 해리슨의 군화에, 알른거리는 군화에 더러운 점을 찍으며 떨어졌다. 해리슨은 분노했다. 마땅히 죽어야 할자들, 체포된 《빨갱이》놈들은 공손히, 공포에 떨며 죽어야 할것이다. 그런데 이것들은 주제넘게 마지막순간까지 떠들어대면서 발악을 하는것이다.

해리슨은 홱 돌아섰다.

《본관이 이미 언명한대로 이 빨갱이놈들의 처형을 직접 지휘하겠다. 명령한다. 미군은 제일선으로!—》

대기하고있던 미군병사놈들이 전투서렬을 짓고 앞으로 걸어나왔다.

《미군은 방공호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라. 경찰과 치안대는 전투준비를 갖추고 대기할것!》 하고 해리슨은 희열이 북받치듯 목소리를 높였다.

즉시에 우당탕거리며 미군 10여명이 도람통에서 휘발유를 초롱들에 쏟아 방공호안으로 휘뿌려던졌다. 어떤 병사놈은 껌까지 질근질근 씹으면서 들놀이라도 나온것처럼 신바람이 나서 앞뒤로 왔다갔다 뛰여다니며 연방 휘발유를 휘뿌렸다.

《불을 질럿!—》

희열에 들뜬 목소리로 해리슨이 짤막하게 소리쳤다. 불뭉치를 들고 조금 떨어져서 명령을 기다리던 미군병사 몇놈이 수류탄을 던지듯이 방공호안으로 던졌다. 펑!— 방공호안은 순식간에 불길로 휩싸였다. 동시에 불길과 시커먼 연기가 방공호입구로부터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서운 비명과 고함소리, 웨침소리, 아이들의 아우성소리가 들려왔다. 전률할만 한, 짐승들까지도 몸서리칠 처참한 광경이였다. 새들은 놀라 멀리로 날아가고 잎떨어진 앙상한 나무가지들은 불길과 연기에 그슬리며 흔들거렸다. 얼어붙었던 방공호주변의 땅은 화기에 녹아 물기가 번들거리고 질척해졌다. 비명소리, 분노의 웨침소리는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무서운 불길과 연기를 헤치고 방공호에서 솟구쳐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자 미소를 띠고 서있던 해리슨이 명령했다.

《경찰과 치안대들은 뛰쳐나온 저놈들을 다시 방공호안에 처넣으라!》

이번에는 경찰놈들과 《치안대》놈들이 방공호입구앞으로 달려나갔다. 불길을 헤치고 솟아나온 사람들은 필사의 힘으로 달려드는 경찰놈들을 받아넘기기도 하고 발로 차고 물고뜯으며 어우러져 싸웠다. 방공호안에서도 고함소리와 함께 만세소리가 터져나왔다.

해리슨은 군용반외투주머니에서 반들거리는 권총을 꺼내들었다.

《방공호에서 뛰쳐나온 빨갱이들을 향해 사격준비!—》

해리슨은 무섭게 사방으로 눈알을 희번득거리며 목갈린 소리로 웨쳤다. 경련이라도 일어난듯 푸들거리는 그의 입귀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오고 두눈의 흰자위에는 점점 더 피독이 올랐다. 방공호안에서 나온 사람들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마구 갈겨대고있던 경찰과 《치안대》놈들이 화닥닥 뒤로 물러났다.

《일제히 사격!—》 하고 소리치면서 해리슨은 미칠듯 한 희열과 광

중에 들떠 권총을 련발로 쏘아댔다.
뒤따라 미군병사놈들이 일제사격으로 쏘아대는 총성이 자지러지게 울리고 기관총이 뚜루룩거리며 만행의 씨앗을 휘뿌렸다. 방공호안에서 뛰쳐나와 육탄으로 적들과 싸우던 사람들은 삽시에 쓰러지면서 방공호안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러나 아직도 불길과 연기가 솟구치는 방공호안에서는 웨침소리가 울려나오고있었다.
《저건 무슨 소린가? 아직도 살아남은 놈들이 있는가?…》
해리슨은 만족한 기분으로 곁에 서있는 신천군 경찰서장에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아직도 살아남은 놈들이 적지 않은것으로 추측됩니다. 사령관님, 그리고…》
《…》
해리슨은 다시 묻는듯 한 시선으로 군경찰서장을 쳐다보았다.
《사령관님, 저건 조선로동당 만세를 웨치는 소리인것 같습니다. 빨갱이놈들은 죽으면서 마지막순간까지…》
《흠…》 하고 해리슨은 조소했다.
《저건 정복당한 약자의 고통스러운 마지막울부짖음이요!》
천성이 잔악하고 포악한 해리슨은 기분이 좋을 때면 어떤 문제에서든지 이처럼 정의내리기를 좋아하였다.
《방공호입구를 흙으로 덮어버리라!》 하고 명령한 그는 담배를 꺼내물었다. 해리슨은 담배를 그리 즐기는 편은 아니였으나 특별히 기분이 좋을 때면 연거퍼 피우군 했다.
미군병사놈들과 경찰, 《치안대》놈들은 총을 어깨에 둘러메고 범잡은 포수처럼 기세등등하여 방공호입구를 막아버리기 시작하였다. 삽시에 방공호입구는 두터운 흙무지로 덮여졌다. 이리하여 그 무서운 불길속에서 요행 살아남았던 사람들마저 무참히 생매장을 당하고말았다. …
해리슨은 무고한 900여명의 인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한 미군병사들과 경찰, 《치안대》놈들앞에서 빨갱이들과의 투쟁은 바로 이처럼 무자비해야 하며 또 이렇게 철저히 해야 한다고 의기양양한 목소리로 력설했다. 그리고는 희열에 들뜬 앙양된 기분으로 가슴을 죽 펴고 자기 방인 2층으로 올라갔다.

후일 세월이 지나면 여기서 저지른 전대미문의 야수적인 학살만행은 미제의 신천대학살만행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인류의 규탄을 받을것이며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것이다. 그러나 해리슨은 그런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으며 또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일을 자기가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도 아니며 또 마지막사람도 아닐것이라고 피뜩 생각했을뿐이다. 그날 하루종일 해리슨의 기분은 좋았다. …

30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해리슨은 늘쌍 제정된 일과처럼 강한 수면제를 먹거나 혹은 많은 량의 위스키를 마신 다음 잠자리에 들군 하였다. 그런데 오늘 밤에는 보통때보다 더 많은 위스키를 들이키고 침대에 누웠으나 웬일인지 잠들지 못했다. 온몸을 서서히 조이는듯 한 자기로서도 알수 없는 압박감이 그를 괴롭히면서 잠들지 못하게 하였다. 해리슨은 오늘 아침 9시경에 부관이 가져온 암호무전문을 보는 그순간부터 지금까지 온종일 이러한 압박감을 느끼고있었다.

…미국무성이 파견한 비밀특사가 수일내에 그곳 지구를 시찰할 예정이다. 이 사실을 극비에 붙일것이다. 국무성특사의 신변안전에 최선을 다하라. 그곳 지구 모든 미군병사들은 특별경계태세에 진입할것을 명령한다. …

상급에서 보내온 암호무전문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도대체 이 지구에 극비밀로 온다는 국무성의 특사는 어떤 인물인가?… 그가 무엇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여기를 시찰하러 오는가? 나의 관할지구인 이 지역에 무슨 큰 변이라도 났단 말인가!…)

해리슨은 복잡한 생각으로 종시 잠들지 못하고 삐거덕거리는 침대에서 육중한 몸을 일으켰다. 그다음 탁상등을 켜고 방안의 이쪽끝에서 저쪽끝으로 왔다갔다하기 시작하였다.

(아직도 굴복시키지 못한 리룡진이때문인가?… 아니면 구월산에 틀고앉은 공산도배들의 준동을 특별히 중시하는것인가?…)

이러나저러나 국무성특사의 도착은 해리슨에게 불쾌하게 생각되였으며 상서롭지 못한 예감과 무엇인지 딱히 모를 압박감을 은근히 느끼게 했다. 그는 자기가 통치하는 이 지구가 특별히 소란스럽다는것을 괴롭지만 내심 인정하고있었다. 이곳 중부조선일대의 《군수》들이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리승만에게 구월산인민유격대를 《토벌》하여줄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는것을 해리슨은 이미 알고있었다. 그들이 보낸 《진정서》의 내용인즉 구월산인민유격대의 준동으로 발편잠을 잘수 없으며 줄에 앉은 새처럼 항시 불안하다는것이였다. 그래서 해리슨은 지금 구월산인민유격대 《토벌》작전을 은밀히 작성추진하고있었다. 그는 자기 관할지구의 군들과 면, 리의 《치안대》경찰, 《국방군》, 미군병사들의 대다수를 그 《토벌》작전에 투입할 계획을 상급에 제기하였으며 이미 동의까지 받았었다. 문제는 언제 《토벌》작전을 개시하는가 하는것이였는데 그것은 해리슨의 결심에 따라 진행될것이였다. 그러나 그런 일때문에 국무성의 비밀특사가 오는것은 아닐것이라고 해리슨은 생각했다. 현재 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계선 가까이로 깊숙이 북상하고있는 때에 얼마 되지도 않는 구월산인민유격대때문에 본국의 국무성에서까지 비밀특사를 파견하겠는가?… 해리슨은 그럼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도저히 가늠할수 없는것이 그에게는 기분나쁜 일이였고 그래서 더우기 불쾌감을 금할수 없었고 은근한 압박감을 느꼈던것이다.

해리슨의 이러한 불쾌감과 압박감은 암호무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를 줄곧 괴롭게 하였으나 그렇다고 받은 명령을 집행하지 않을수는 없었다. 물론 기분은 대단히 나빴다. 그러나 기분이 좋건 나쁘건 어차피 명령은 수행하여야 했다. 그리하여 그는 벌써 오늘 오전중에 각 군의 매 초소들과 검문차단소들에 인원을 증강하고 특별히 경계를 강화할것과 낯모를 류동인원들에 대해서는 엄중단속할것이며 조금이라도 수상한자는 즉시 체포하거나 가차없이 현지에서 발포하여 총살하라고 명령했었다. …

잠들지 못하고 뚜걱뚜걱 생각을 토막치듯 방을 걷는 지금 해리슨은 눈이 아파났고 신경질이 살아났으나 꾹 참는 수밖에 없었다. 그는 탁

상우의 위스키병을 들어 크게 두모금 마시고나서 단호히 잠을 단념하고는 각 초소들과 검문차단소들을 검열하여보려고 결심했다. 즉시 부관을 깨운 그는 운전사에게 차를 대기시킬것을 명령하였다.

얼마후에 부르릉거리는 발동소리가 들리자 그는 2층계단을 내려 뜨락으로 나갔다. 불시에 혈관까지 얼쿠는듯 한 겨울밤의 추위가 그를 휘감았다. 으쓱— 해리슨은 몸을 떨었다. 캄캄한 하늘에는 방금 채로 친듯 올찬 별들이 노한것처럼 불타며 떨고있었다. …

해리슨은 온밤 자기 관할지역인 은률, 안악, 재령, 신천군의 초소들을 검열하면서 돌아다녔다. 그는 초소들과 검문소, 군과 면들의 《치안대》경찰본부에 들려 해이되고 무경각한 현지경찰들과 미군병사들에게 명령위반죄로 총살하겠다고 고함을 질러대군 했다. 해리슨이 불의에 들이닥쳐드는 곳마다에서 그의 웨쳐대는 소리, 고함소리, 욕설이 무섭게 터져나왔다. 그가 떠나기 전부터 기분이 나빴던때문인지 아니면 가는 곳마다에서 그의 기분을 거슬렸는지 어쨌든 해리슨은 온밤 욕설과 위협으로 날을 밝혔다.

해리슨은 지구주둔 미군사령부로 돌아오는 길에 재령군과 신천군경계의 행길 검문차단소에서 차를 세웠다. 눈보라치는 겨울날의 이른 아침은 지독하게 추웠다. 눈덮인 들판에는 줄기만 남은 마른 풀대들이 가냘프게 흔들거리고있었다. 해리슨은 차에서 내렸다. 군화발밑에서 눈이 빠드득거렸다. 해는 아직 솟아오르지 않았으나 흰눈은 눈이 아프도록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다.

해리슨은 검문차단소앞에서 증오에 찬 시선으로 행길건너편의 마을을 바라보았다. 얼핏 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온한듯 하였다. 그 마을의 집들은 지붕마다 두툼한 눈모자를 쓰고있었는데 몇군데만은 바람에 이영이 드러나있었다. 마을에는 그 어떤 생명도 있는것 같지 않았다. 드문드문 미군병사들이 돌아치고있을뿐 더는 그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들리지 않고 죽음과 같은 정적이 깃들어있었다. 해리슨은 옛말에 나오는 마술에 걸린 성안처럼 조용한 이 마을에서 은근히 위협이 풍기고있음을 느꼈다. 그는 불쾌한 기분으로 검문차단소 가까이로 다가갔다.

검문차단소앞에는 벌써 미군병사들이 일렬로 꼿꼿이 서서 얼떨며 지구주둔 미군사령관을 기다리고있었다.

《밤사이에 류다른 정황은 없었는가?》 하고 해리슨은 추위에 퍼렇게 얼어든 턱을 쳐들고 시선으로 병사들을 위협하면서 물었다.

《특별한 징후는 없었습니다. 다만 신천쪽으로 가는 수상한 조선인을 방금 단속하고있던중입니다.》

검문차단소의 털보하사관이 빽빽거리는 목소리로 보고하였다.

《어떤 놈인가?… 끌어내라!…》

해리슨의 명령이 떨어지자 한 미군병사놈이 검문차단소안에서 소년티를 갓 벗어난 애젊은 청년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이놈이 수상쩍다는 근거는?》

해리슨이 충혈된 눈을 무섭게 번쩍거리며 털보하사관에게 물었다.

《사령관님, 이자가 일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벙어리라고 시늉합니다.》 하고 털보하사관은 재빨리 응대했다.

《벙어리?》

해리슨은 빠드득… 빠드득 눈밟는 소리를 내면서 그에게로 천천히 다가서더니 돌연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듯 그의 더부룩한 머리칼을 움켜잡고 광기어린 목소리로 웨쳤다.

《네놈이 정말 벙어린가?》

소년티를 갓 벗어난 애젊은 청년은 손을 휘적거리며 말을 못했다. 그러자 해리슨은 불시에 말없이 오른손을 자기의 군용반외투주머니에 쑥 밀어넣었다. 그다음 그 손이 다시 빠져나오는 순간 총성이 울렸다. 해리슨이 벙어리청년을 가차없이 총살해버린것이다. …

조폭한 해리슨의 갑작스러운 총성에 깜짝 놀랜 검문차단소 미군병사들은 긴장하여 숨소리를 죽이고 서있었다.

《저놈이 진짜벙어리든 거짓벙어리든 관계없이 이러한 총살을 가혹성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것은 필요성이다!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것을 너희들도 항상 명심하라. 이렇게 하는것은 또한 미합중국군인인 우리들의 기질이며 의무이기도 한것이다!》

해리슨은 검문차단소의 미군병사들에게 이렇게 훈시하고 행길가에 서있는 차안으로 들어가더니 탕— 하고 요란하게 차문을 닫았다. 차는 부르릉거리며 지구주둔 미군사령부가 있는 신천군소재지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다. 눈보라를 꽁무니에 달고 미친듯이 질주하던 차는 20분이 지나서 신천군소재지 거리로 들어섰다.

신천거리는 찌르는듯 한 차거운 대기속에 잠겨있었다. 해리슨은 차안에서 불쑥 머리에 떠오른 생각대로 군경찰서와 《치안대》에 비상소집명령을 내리리라고 결심했다. 국무성 비밀특사의 도착을 앞두고 그는 경계태세를 더욱 확립하는 동시에 이미 체포한 빨갱이들을 무자비하게 처형하는것으로 미합중국에 대한 자기의 충직성을 시위하고 싶었던것이다.

군경찰서본부앞에 차를 세운 해리슨은 결심한대로 비상소집을 명령했다. …

얼마 지나서 해리슨은 군경찰서장으로부터 전원이 모였다는 보고를 받고 서장방으로 들어갔다.

방에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달려나온 경찰대원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있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오.》

맨앞의 푹신한 걸상에 비스듬히 기대앉으며 해리슨이 손짓하였다. 숨소리를 죽이고 서있던 서장이하 경찰대원들이 조용히 앉았다.

《이른새벽에 비상소집하여… 당신들을 모이도록 한것은…》 하고 해리슨은 명령문을 읽듯 똑똑 끊으며 말했다.

《첫째로, 당신들의 전투동원상태를 검열하는것이였소. 불만족하오. 오합지졸처럼 느껴진단 말이요! 다음번 비상소집시에 또다시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그때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겠소. 다들 잊지 마시오.》

해리슨은 피빛이 더욱 력력한 눈으로 모두를 노려보며 계속 지껄여댔다.

《둘째로, 지금 군감방에 있는 빨갱이들과 그 가족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한꺼번에 처형하겠는가를 토의하자는것이요. 의견들을 서슴없이 말하시오!》

모두들 잠잠했다. 누구도 먼저 일어나는자가 없었다. 긴장한 침묵이 흘렀다.

입을 꾹 다물고있던 해리슨은 시선으로 군경찰서장을 일으켜세웠다.

군경찰서장은 해리슨의 눈총을 받고 자리에서 벌컥 일어났다.
《제 생각에는 그 빨갱이놈들을 모두 끌어내다가 세워놓고 집중사격으로 한꺼번에 몰살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나 해리슨은 우직한 군경찰서장의 말을 부정하듯 손을 홱 내저었다.
《그것들은 모두 몇명인가?》
《520여명이 됩니다.》
《좋소. 다른 의견들을 말하시오!》
해리슨이 조급히 독촉하자 이번에는 부서장이 엉거주춤 일어서서 코맹맹이소리로 자기의 의견을 말했다.
《그놈들을 군용트럭에 태우고 저수지로 끌고나가 물속에 처넣으면 시간도 끌지 않고 쉽게 처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시에 없애버리는 방법으로는 괜찮은 안이요. 면과 리들에서 그렇게 하도록 내가 이전에 지시한바도 있소. 그러나…》 하고 해리슨은 갑작스레 결심한듯 2메터나 실히 되는 육중한 몸을 쭉 펴더니 걸상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오!》
해리슨은 결론적으로 말했다.
《520명이 넘는 그놈들을 트럭에 태우고가서 죽인다면 시민들이 볼수 있소. 우리는 무자비하게 공산도배들을 처형하되 처형후 그것들을 빨갱이들이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한것으로 역선전을 하자는거요. 때문에 나는 현재 군감방에 있는 빨갱이놈들을 이전 군내무서 방공호에 쓸어넣고 단번에 죽여버릴 생각이요!》
《그것 참 묘안중의 희한한 묘안입니다.》
군경찰서장이 머리를 꾸벅거리면서 아부하는 어조로 찬성을 표시했다. 모두들 서장을 따라 저마끔 떠들썩하게 해리슨의 제안을 찬성하였다.
해리슨은 기분이 좋아서 미소를 지으며 담배를 피워물었다.
《그러니까 이전 군내무서 방공호에 몰아넣고 그놈들을 죽인다면 그 사실을 알 사람이 없을것이고 후일 그 시체들이 나타나면 공산도배들이 학살한것으로 역선전할수 있소. 그러자면 후일 시체가 누가 누군

지 모르게 전부 옷을 벗기고 방공호안에 몰아넣고 죽여야 하오.》

해리슨은 벌써부터 기분이 들떠 방을 앞뒤로 왔다갔다하면서 명령조로 떠들어댔다.

《경찰과 치안대는 그것들을 압송하여 한사람씩 옷을 벗기고 방공호안에 쓸어넣을것. 그다음은 두군데의 입구를 널판자로 밀폐하고 그우에 다시 흙을 덮어 질식시킬것. 미군은 최종적으로 다이나마이트에 불을 달아 폭파시킬것이다.》

해리슨의 이러한 명령은 그대로 집행되였고 만행은 묵묵히 감행되였다. 경찰놈들과 《치안대》놈들이 끌어온 감방사람들을 빼곡이 밀어넣고 방공호입구를 소나무널판자로 밀폐시켰다. 그우에 탕—탕 흙덩어리들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방공호입구의 밀페가 끝나자 해리슨은 뒤에 서있는 미군하사관에게 손짓하였다. 미군하사관은 그 손짓을 학수고대하고나 있은듯이 병사들과 함께 앞으로 달려나왔다. 미군병사들은 폭약상자를 날라오기도 하고 재빨리 도화선을 늘이기도 하면서 모두 오락이라도 하는것처럼 활기에 차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용수철우에서 걸어다니는것처럼 껑충껑충 뛰여들 다녔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해리슨이 마지막도장을 찍듯이 머리를 끄덕이자 미군하사관놈이 철컥— 라이타를 켜서 도화선에 불을 달았다. 그런 다음 미군병사놈들과 경찰, 《치안대》놈들은 해리슨을 따라 다시 군경찰서쪽으로 유유히 걸어갔다. …

요란한 폭음이 울린 후 해리슨은 비상소집으로 모인 경찰, 《치안대》원들에게 모두들 수고하였다고 간단히 치하하고나서 말보로라는 상표가 붙은 담배갑을 꺼내 한대씩 나누어주었다. 경찰, 《치안대》원들은 굽석거리며 황송해하면서 담배를 받았다. 이것으로 비상소집은 끝났다.

그날 신천군소재지의 많은 주민들이 폭음소리를 들었으나 그 요란한 폭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도 몰랐다. 그런 소리에는 오래전부터 익숙되여 거기에 아무런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어디선가 폭탄이 터지려니 하고 평범하게 생각했을것이다.

하늘에서는 눈꽃이 떨어지고있었다. 축축한 바람이 더러워진 눈의 씁쓸한 냄새를 머금은 땅우로 기여갔다. …

31

룡진은 벌써 몇시간동안 의식을 잃고 무시무시한 고문실에 쓰러져 있었다. 계속되는 잔인한 고문, 인간의 사고로써는 상상할수도 없는 육체적고통과 타격을 그는 여러차례 이겨냈다. 그러나 그러한 고문이 련속되자 그의 육체는 이겨내지 못했다. 그자신도 자기 육체가 오래동안 이겨낸데 놀라울 정도였다. 참으로 강한 육체였다.

얼마후에 가물거리는 의식이 되돌아오는것을 어렴풋이 느꼈지만 완전한 정신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고도의 정신적긴장이 파괴된 육체에 아직 남아있었다. 그는 완강한 의지의 힘으로 눈을 떴다. 모든것이 안개속처럼 흐리터분하고 뿌옇게 보였다. 그럴 때 갑자기 철썩 찬물이 얼굴에 쏟아지는것을 감촉하였다.

(환각인가?…)

분명 환각은 아니였다. 미군 두놈이 쓰러진 그의 얼굴에 바께쯔로 찬물을 쏟아붓고있었다. 이제는 거뭇거뭇한 형태로만 보이던 꺽두룩한 병졸놈들의 자태가 똑똑히 알렸다. 저희놈들끼리 뭐라고 쑤왈거리던 두놈은 요란스레 물바께쯔를 내던지고 우악스럽게 그를 잡아일으켜세웠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그를 또다시 끌고갔다.

놈들은 그를 어떤 방으로 떠박질러넣었다. 창문들이 여러개 있는 그 방은 퍼그나 깨끗하였고 훈훈했다. 룡진을 그런 방에 떠밀어넣은 미군병사 두놈은 어디론지 사라졌다.

룡진은 신음소리를 씹어삼키며 간신히 일어나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앉았다. 다리, 허리, 얼굴… 어디라없이 온몸이 쑤셔대고 천근만근 무거워 다시 또 정신을 잃을것 같아 벽에 기댄채 아픔을 이겨내려고 애썼다. 지독한 동통은 간간이 너누룩해졌다가는 불현듯 다시 시작되여 온몸을 불로 지지는듯 했다.

(놈들이 또 무슨짓을 하려는가?…)

룡진은 의지의 힘으로 머리를 들고 방안을 둘러보았다. 그리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깨끗한 방이였다. 출입문곁에 자그마한 탁상과 걸

상이 놓였고 탁상우에는 재털이와 흰 종이, 끝을 뾰족하게 깎은 연필 같은것들이 눈을 찌를듯이 똑똑하게 안겨왔다.

(이건 처음 보는 방이로군.)

룡진은 긴장하고 힘을 내려 하였으나 몸이 한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져 쓰러질것 같았다. 머리가 핑그르 돌면서 지진때처럼 온몸이 뒤흔들리고 천정이 무너져내리는듯 했다.

밖에서 뚜거덕거리는 군화발자국소리가 들리더니 벌컥 문이 열렸다. 방안으로 키가 크고 미욱하게 생긴 놈이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뒤따라 미군병사 몇놈이 차례로 들어와 탁상뒤의 바람벽에 일렬로 주런이 늘어섰다. 앞장서 들어온 놈은 직급표식이 없는 군용반외투를 실팍한 어깨우에 걸쳤는데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조폭하고도 우둔하게 뒤틀린 모양을 하고있었다. 그놈은 우직해보이는 뚝 나온 이마밑의 움푹 들어간 회색눈언저리속에 피빛이 된 두눈을 가늘게 쪼프리고 룡진이쪽을 말없이 응시했다.

(한번 피뜩 보기만 해도 일생을 두고 불쾌한 생각이 들게 하는 놈이군.) 하고 룡진은 그놈을 얼핏 스쳐보고 생각하였다.

《리룡진, 일어섯!—》

사열을 받는것처럼 차렷하고 바람벽에 서있던 미군병사 한놈이 느닷없이 총을 절컥거리며 룡진의 앞으로 다가서면서 웨쳐댔다.

《지구주둔 미군사령관 해리슨중위님이다!》

그 순간 선이 뚜렷한 룡진의 검은 눈섭이 곤두섰다.

(해리슨, 교형리 이놈!—) 하고 그는 생명이 흐르는것 같지 않은 해리슨의 해면처럼 부어오른 부석부석한 얼굴을 묵묵히 쏘아보았다. 잔인하고 포악한 교형리인 해리슨이라는 이 고기덩어리에 대해 룡진은 이미전부터 감방안에서 치떨리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이 교형리가 바로 신천지구를 강점한 첫날에 자기의 명령은 곧 법이라고 선언한 놈이다. 그리고 이 교형리가 야수적으로 학살한 우리 인민의 수는 몇천을 넘고있으며 여기 신천지구는 피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룡진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로 가슴이 터져버리는것 같았다. 그는 자기 생애에서 지금처럼 치떨리는 증오와 분격을 느껴본적은 아직

없었다.
《일어섯!－》
미군병졸놈은 악에 받쳐 격철을 울리면서 다시 고함을 질렀다. 룡진은 개방귀만도 못한 병졸놈의 고함소리따위에는 주의도 돌리지 않고 될수록 편안하게 잔등을 벽에 기대고 비스듬히 앉아서 침묵했다.
《그만두라! 어지간히 맞았을테니까!－》 하고 해리슨은 거만하게 뻗치고서서 거의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였다.
명령하고 호령하고 위협하는데 버릇된 해리슨은 몇초동안 잔인무도한 시선으로 룡진을 노려보더니 갑자기 어깨를 으쓱했다. 그리고는 고개를 아무렇게나 끄덕이고 룡진을 또다시 훑어본 다음 탁상앞의 걸상에 앉았다. 얼마동안 말이 없던 해리슨은 이윽고 탁상우의 사기커피잔을 들어 요란스레 마시면서 무슨 기묘한 요술이라도 보여줄것처럼 손가락끝으로 커피잔을 뱅글뱅글 돌렸다.
《주의해 들으시오, 도위원장!》
해리슨은 여전히 거의 입을 벌리지 않고 안면근육만 움직이면서 말했다.
《당신과 류사한 처지에 빠져있던 한 빨갱이에게 우리는 긴요하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는 세가지를 물었댔소. 면내 로동당원들의 명단, 식량을 매몰한 장소, 그다음 구월산으로 들어가는 통로… 우리는 첫번째 질문에 침묵으로 대하자 더 묻지 않고 그 공산도배의 한쪽눈을 빼냈소. 그다음 질문에 욕설로 응해나서자 그자의 다른쪽눈을 마저 빼냈소. 또 그다음 마지막질문에 침을 뱉자 우리는 그자의 이발과 혀를 뽑았소. 우리로 말하면 거짓말을 하며 불손한 그자에 비하면 아주 결백하고 정정당당한편이란 말이요. 우리를 비난할 근거는 없는거요. 도위원장, 우리를 나쁘다고 생각마오!》
침묵하고있는 룡진을 찬찬히 살피고나서 해리슨은 말을 계속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바라오.》
해리슨은 불시에 까닭모를 미소를 지으면서 육중한 몸을 걸상에서 일으켰다. 그리고는 두팔을 뒤로 모두어잡고 자기 몸의 육중함을 시위라도 하려는듯이 몸을 구부정하고 방의 한끝에서 한끝으로 왔다갔다하였다.

《도위원장, 내가 이제부터 묻겠소. 첫째로, 당신이 이미 조직한 구월산인민유격대의 정확한 규모와 무장상태는 어느 정도요?》

방안을 왔다갔다하던 해리슨은 걸음을 뚝 멈추고 룡진이쪽으로 엇비듬히 눈을 뜬채 대답을 기다렸다. 룡진은 경멸의 눈빛으로 얼핏 해리슨을 스쳐보고는 스르르 눈을 감아버렸다. 룡진의 이러한 태도는 해리슨의 질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서 대상할 존재가 아니라고 가소롭게 여기는것 같았다.

(이 악착한 교형리놈이 어째서 이토록 구월산인민유격대의 규모와 무장상태를 알고싶어 날뛰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고 룡진은 눈을 감은채 생각했다. 그의 가슴은 불현듯 자신도 모르게 쿵쿵 울리기 시작하였다. 구월산인민유격대의 투쟁과 활동정형에 대해서는 룡진이자신도 감방에서 지금까지 그토록 안타까이 알고싶어하는 가장 절박한 소식이였던것이다.

방안에는 침묵이 닥쳐왔다. 이윽고 해리슨의 뚜거덕거리는 군화발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

《좋소. 처음 한 질문은 반복하지 않겠소. 다음 둘째로, 구월산인민유격대 지휘성원들의 이름과 그들의 경력을 말하오!》

《…》

룡진의 두툼한 입술은 일직선으로 단단히 다물려있었으며 눈은 여전히 감겨져있었다. … 이 교형리 해리슨놈이 그토록 구월산인민유격대에 대해 알고싶어 발광하는것은 바로 그곳의 우리 동무들이 원쑤놈들을 불안과 공포로 떨게 하고있으며 잘 싸우고있다는것을 의미한다. …

룡진은 지금 해리슨이 알지 못하는, 알수도 없는 커다란 기쁨과 환희를 마음속으로 흐뭇하게 느끼고있었다.

(이 인간백정 교형리놈아, 네놈은 스스로 나에게 가장 귀중한 소식을 알려주었다. 네놈은 지금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깨달을수도 없을테지. …) 하고 룡진은 침묵한채 통쾌하게 생각했다.

해리슨은 뚜걱뚜걱 방안을 거닐면서 침묵하고있는 룡진을 쏘아보고있었다. 그러다가 불시에 후려칠듯 룡진의 곁으로 바싹 다가서더니 갑자기 빙그레 웃었다. 소름끼치는 잔인한 웃음이였다.

《그렇다. … 그렇단 말이지?》 하고 해리슨은 묻는지 단언하는지 모르게 악의에 차서 비웃듯이 중얼댔다.

《마지막으로 셋째, 당신이 알고있는 도내 지하조직성원들의 이름과 그 행처를 말하겠소?… 도위원장, 당신에게 다시한번 상기시키오. 두눈과 이발과 혀를 뽑은 그 이야기 말이요!》

해면처럼 부석부석한 해리슨의 얼굴에는 오만하다고 할지, 자만자족하다고 할지 모를 표정이 떠올라있었다.

룡진은 슬며시 눈을 떴다. 그는 지금 못 견디게 쑤셔대는 육체의 심한 동통을 이겨내려고 무진 애를 쓰고있었다.

《공연한 놀음을 그만두라. 그따위 시시한 공포로 나를 위협하는것은 어리석은짓이야!…》

나직하면서도 위엄있게 울리는 룡진의 태연한 말은 채찍처럼 해리슨을 후려갈겼다. 해리슨은 얻어맞은듯이 눈섭을 치떠올리고 살진 어깨를 흠칫 떨었다. 그러나 곧 조폭하고 뒤틀린 표정으로 육박하듯 룡진에게로 다가섰다.

《그래, 당신은 살고싶지 않는가?》 하고 해리슨은 마치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말하듯 위협조로 물었다.

룡진은 태연자약한 태도로 조소하듯이 조용히 응대했다.

《그래서?… 살려주겠는가?》

《살려주면?…》 하고 해리슨은 악에 받쳐 씩씩거리며 물었다.

《그러면 나는 네놈들을 용서없이 미친개처럼 죽여버리겠다. 피흘리며 쓰러진 우리 인민들과 애국자들의 이름으로 말이다!》

《허튼소리!… 우리가 너를 죽여버려!—》

해리슨은 더는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그는 탁상앞의 걸상으로 돌아와앉아 등받이에 몸을 젖히더니 느닷없이 거품을 물고 기가 올라 광적으로 부르짖었다.

《너희들 공산도배를 한놈도 남기지 않겠다. … 그렇다, 우리는 문명한 야만인이 되자는거다. 그건 강자에게 알맞는 칭호지. 우리는 강대한 미합중국의 력사적인 사명과 구상대로 온 세계를 그렇게 개조하자는것이고 또 그렇게 개조하고야말것이다!》

이렇게 짤막짤막 토막을 친것 같은 말을 터치고는 목이 타는 모양

사기커피잔을 들어 한모금 크게 마셨다. 그다음 이번에는 갑자기 속삭이는듯 한 잔잔한 목소리로 한마디한마디를 내뱉듯이 잔인하게 중얼댔다.

《네놈을 총살하게 될거다. 아니, 그러나 그전에 우리는 네놈의 두눈을 먼저 빼버리고 이발을 모조리 뽑겠다. 그다음 코를 베고… 그다음엔 길가의 전주대에 매달아놓고 신천시민들이 떨쳐나와 네놈한테 돌을 던져 탕을 치도록 하겠다. 이건 틀림없이 그대로 될거다.》

룡진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파도처럼 끊임없이 몰려오는 상처의 심한 아픔과 동통으로 정신이 희미해지고 눈앞이 흐릿하였다. 걷잡지 못하게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부어오른 얼굴은 삽시에 땀에 젖었다.

(저놈이 악에 받쳐 떠들어대는것은 빈 으름장이 아니다.) 하고 룡진은 가물가물 사라지려는 의식을 걷잡아보려고 애쓰면서 생각하였다. 놈들은 별별짓을 서슴지 않고 감행하는 야수들이다. 저놈들은 초보적인 인간생활의 규범마저도 없는 현대야만들이다. …

해리슨은 갑작스레 광적으로 걸상에서 벌떡 일어나 탁상에 두손을 짚더니 룡진의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네놈에게 최종적으로 묻겠다. 이제라도 대지 않겠는가?…》

포악한 눈초리를 룡진에게 쏘아박고 해리슨은 몇순간 긴장하여 대답을 기다렸다. 그러나 룡진은 말이 없었다. 그는 또다시 의식이 혼미해졌다. 모든것이 꿈속처럼 어렴풋하였다.

(이놈앞에서 쓰러지지 말아야겠는데…)

룡진은 꿈같기도 하고 현실같기도 한 의식속에서 자기 몸이 한쪽으로 자꾸만 기울어지는것을 희미하게 감촉하고 바로잡으려고 애썼다.

해리슨은 지금 룡진이의 몸상태가 말이 아니지만 여러가지 징조로 보아 그가 철벽처럼 태연자약하다는것을 눈치챘다. 그것이 더 해리슨의 분격을 자아냈다. 그리하여 해리슨은 군용반외투를 걸상등받이에 와락 벗어던지고 몸을 굽히더니 룡진을 뚫어지게 쏘아보며 천천히 한마디한마디를 떼여가면서 포악스레 소리쳤다.

《도위원장!… 당신을… 마구 탕을… 친 다음 총살하겠다!》

그다음 해리슨은 꽝!— 하고 탁상을 내리쳤는데 그것은 이 무시무시한 선언의 마지막종지부를 찍는것과 같았다.

《끌어내라!-》 하는 해리슨의 고함소리를 룡진은 의식을 잃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메아리처럼 들었다.

미군병사들이 즉시 의식잃은 룡진을 껴들고 밖으로 나갔다. 해리슨은 홱 돌아서서 이발을 갈면서 따라나가다가 성급히 찾아들어오는 부관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사령관님!》

《무슨 일인가?》

《긴급무전입니다.》

해리슨은 부관이 내민 무전테프를 두말없이 낚아채서 재빨리 훑어보고는 신경질적으로 어깨를 으쓱 추어올렸다. 상급에서 보내온 긴급무전문에는 체포한 전도위원장 리룡진의 처형을 서두르지 말라는 명령이 찍혀있었다.

《리룡진의 처형을 당분간 중지하라!》 하고 해리슨은 불쾌한 목소리로 부관에게 화풀이하듯 명령했다.

우둥퉁하고 미욱한 해리슨의 얼굴은 경련이라도 일어난듯 푸르르 눈에 띄게 떨렸다.

하얀 눈을 들쓴 승용차 한대가 최속으로 해주-재령사이의 신작로를 지나 신천군소재지에 들어서고있었다. 차는 전쟁시기에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하고 수수한 군용찝차였다. 그러나 그 평범한 군용찝차가 들어서는 신천거리는 이제까지 볼수 없었던 살벌하고 삼엄한 경계속에 있었다. 거리거리와 골목들에는 완전전투준비를 갖춘 증강된 미군순찰병들이 싸다녔으며 사방에서 군견들이 사납게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모든 차단소들과 검문소들에서는 엄격한 통행단속이 실행되고있었다.

속도를 죽이고 조용히 중심거리에 들어선 평범한 군용찝차는 좁다란 골목길을 돌아 잠시후에 야산언덕우의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 2층앞에서 소리없이 멎어섰다.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의 현관입구에는 엠완총으로 무장한 미군 쌍보초가 서있었다.

새파랗게 젊은 미군소위가 현관앞에 멎어선 군용찝차의 운전사옆자리에서 민첩하게 뛰여내려 뒤좌석문을 열었다. 그러자 차안에서 사복

차림의 한 미국인이 내렸다. 그가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의 현관으로 들어갈 때 보초들은 긴장하여 차렷자세를 취했다.

현관안에 들어선 사복한 미국인을 향해 해리슨이 얼마간 긴장한 표정으로 큼직큼직하게 댓걸음 마주걸어가 깍듯이 경례하였다.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관 해리슨입니다. 무사히 도착하신것을 축하합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현관안에 들어선 사복차림의 미국인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해리슨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였다. 사복차림의 미국인은 군사직급표식이 없는 군용반외투를 입은 해리슨을 얼핏 띠여보고 아무런 말도 없이 묵묵히 안내하는대로 방안으로 따라들어갔다.

방문턱을 넘어서 두세걸음 걸어가던 사복한 미국인은 부지중 멈춰섰다. 방이 별로 음침하게 느껴진때문이였다. 맞은켠 바람벽근처의 책상과 쏘파는 어지러워보였다. 갓을 씌운 탁상등은 대낮인데도 켜져있었고 방은 이상스레 어둑컴컴하였다. 하나밖에 없는 창문에는 창가림이 드리워있어 해빛이 거의 스며들지 못했다.

사복한 미국인은 모든것이 비위에 거슬리는 모양이였다. 컴컴한 방안도 그렇고 해리슨이 밖에서 마중하지 않은것도(도착시간을 일체 비밀에 붙이기는 하였지만) 그렇고 오는 도중 차가 빠졌던것도 기분나쁘게 회상되였던것이다. 그는 아무말없이 창가로 천천히 걸어가 창가림을 제끼고 신천거리를 내다보았다. 동방의 파괴된 작은 도시에는 믿기 어려운 정도의 고요와 무시무시한 침묵이 군림해있었다.

사복차림의 미국인은 문가에 말없이 서있는 해리슨을 등뒤로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앉으시오.》 하고 사복한 미국인은 가까이에 있는 걸상을 시선으로 가리키면서 좀 불쾌한 어조로 말했다.

해리슨은 그쪽으로 걸어가 말없이 걸상에 앉았다.

《신천지구주둔사령관, 당신의 군사직위는 어떻게 불러야 하오?》

사복한 미국인은 저으기 엄하게, 뚜렷이 불만이 느껴지는 어조로 말을 던졌다.

《저의 공식적인 직위는…》 하고 해리슨은 트집을 잡고 걸고드는듯 한 그의 엄격한 물음에 별로 놀라거나 당황해하는 기색도 없이 당

당하게 대답하였다.

《륙군중위입니다.》

《당신관할하의 재령군과 안악군주둔 미군사령관들은 모두 소좌가 아니요?》

사복한 미국인의 눈에 알릴듯말듯 한 비웃음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는 사이를 두지 않고 빠르게 말을 이었다.

《또한 당신관할하의 송화, 은률군주둔 사령관들은 대위라고 알고있는데… 내 말이 틀리오?》

《정확합니다.》

해리슨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없이 즉시에 응대했다.

(그런데 미국무성의 비밀특사는 무엇때문에 이따위 담화로부터 시작하는가? 나를 심문하는건가?… 도대체 어떤 특수임무를 띠고 대양을 건너 날아든자인가?…)

《해리슨중위,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째서 전시의 군률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 군사직급표식이 없는 군용반외투를 입고다니오?》

미국무성의 비밀특사는 쌀쌀한 눈초리로 파고들듯이 엄하게 물었다. 해리슨은 내심 불쾌하게 생각하며 미국무성 비밀특사의 찌르는듯한 눈초리를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이번에도 당당한 말투로 이렇게 대답했다.

《그건 저의 직접적인 상급으로부터 이미 승인된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활동에는 필요하기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쌍 그런 복장으로 다녔겠소?》

미국무성의 특사는 투박하고 우둔해보이면서도 결단성이 있어보이는 해리슨을 주의깊이 살펴보며 야릇한 미소를 지었다.

(그런즉 이 우둔해보이는자는 미중앙정보부계통이군.)

《그렇다면 좋소. 해리슨중위, 이제부터 나를 그저 챨스라고 부르시오. 나는 미국무성의 파견으로 미군이 점령한 북한지역들의 정치, 경제, 문화, 민심… 기타 모든것을 현지에서 직접 료해장악하려고 날아왔소. 물론 이건 당신 혼자만 알고있어야 하겠소. 내 말을 알만 하오?》

《알겠습니다, 챨스각하!》

《좋소. 그럼 지금부터 일에 착수해야겠소. 시간은 절대로 기다려주는 법이 없소. 이곳지구의 민심, 동향 그리고 점령이후 나타난 특징적인 정세를 말하시오!》
찰스는 쏘파쪽으로 걸어가 등받이에 등을 기대고 깊숙이 앉았다.
해리슨은 점령이후 현재까지 이곳 신천지구의 정세를 나름대로 종합하여 말했다. 그다음 《공산도배》들을 숙청처단하는데서 거둔 《혁혁한 성과》들과 거기서 찾은 교훈들에 대해 언급한 다음 아직도 저항을 멈추지 않고있는 지하조직들, 특히 구월산인민유격대의 준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며 보고했다.
《찰스각하, 제가 현재까지 관찰한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빨갱이놈은 저항하는것이 전혀 무의미한 경우조차 발악적으로 대들고 저항하고 소란하게 달려들고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무자비한 소탕과 처형을 가하고있습니다.》
해리슨은 자기의 말에 자신이 점점 흥분하면서 주저없이 주민들을 일시에 집단적으로 학살처형한 사실들과 그 정확한 수자를 렬거한 다음 이렇게 말을 덧붙였다.
《찰스각하, 구월산공비들에 대한 토벌도 이미 승인되였고 곧 토벌에 착수할것입니다.》
《그건 알고있소. 이곳 도지사가 리승만에게 진정서를 낸것은 벌써 세상에 공개된거요. 그런데…》
찰스는 한껏 나직한 목소리로 말하였는데 그는 자기의 목소리자체로써 한껏 흥분한 해리슨을 진정시키려는것 같았다.
《해리슨중위, 어째서 당신과 미군병사들이 이곳 빨갱이들을 숙청하는 현장에 앞장서서 행동하오? 그건 졸렬한거요!》
여전히 나직하면서도 침착한 찰스의 말소리에는 무엇인가 찌르는듯한것이 있었다.
《찰스각하! 그건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지…》 하고 해리슨은 찰스의 추궁을 리해할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빨갱이들… 공산도배들을 이 세상에서 축출소멸하는것이 우리 미합중국의 력사적사명이 아닙니까!—》
《해리슨중위! 당신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겠소?… 우리는 될수

록 저희들 조선사람끼리 죽이고 싸우도록 만들어야 한단 말이요. 당신은 어부지리란 말을 들은적 있소?…》 하고 챨스는 해리슨의 대답도 듣지 않고 의미있게 말을 덧붙였다.
《우리는 여기 북한에서 세계의 흉흉한 여론을 집중시켜서는 안되오. 우리 미군은 강점군이 아니라 해방자로 되여야 하오.》
쏘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 챨스의 얼굴은 이때 알수 없는 미소로 빛났다.
《챨스각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따위 세계여론이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대한 우리 미국이 무엇때문에 그런데다 신경을 쓰는지, 어째서 그런 숨박곡질이 필요한것인지 전 모르겠습니다!》
해리슨은 주저없이 자기 견해의 정당성을 확신하고있는 사람이 그러듯 당당한 어조로 말했다. 사실 해리슨에게는 세계여론이니, 민심이니, 뭐니 하는따위의 말이 도무지 성가시고 시끄럽게만 생각되였다. 그런 미묘한 놀음을 그는 항상 시시하고 보잘것없는것으로 경멸하고 있었다.
《당신은 틀림없는 백치요!》 하고 챨스는 혀끝까지 말이 나왔으나 눌러버렸다. 그다음 말없이 슬쩍 바라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해리슨이라는자는 워낙 거칠고 조폭하고 잔인한데다 단순하게 생겨먹은 사나이로군.)
혈색좋은 챨스의 너부죽한 얼굴에는 상관인체 하는 미소가 아니라 얕보며 깔보는듯 한 미소가 떠올라있었다.
《해리슨중위, 나의 말을 명심해서 들으시오. 앞으로 우리 미군은 두번다시 그런 학살장소에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오. 철저히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종하시오!》
랭정하면서도 무뚝뚝한 실무적인 어조로, 마치도 꽉 다물린 입술에서 내뱉듯이 챨스는 띠염띠염 말했다.
《챨스각하! 저는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교가 무엇때문에 필요한지… 더구나 지금은 전쟁시기가 아닙니까!—》
해리슨은 풍구처럼 숨을 씩씩거렸다. 그러나 챨스는 어린애같은 해리슨의 말에 침묵했다. 그는 다만 유치한 해리슨의 말에는 대답할수

없다는 표정을 로골적으로 지어보였다. 부아가 치민 챨스는 순수 군사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그치고 정치적으로 사색할줄 모르는 해리슨을 무능한 백정으로 내심 규정해버렸다.

《해리슨중위! 당신은 혹시 전쟁을 총을 든 군인들만 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요?》

챨스의 노한듯 한 이 질문은 고요속에서 총성이 울리는것 같았다. 그 목소리가 하도 쌀쌀하고 빈정대는듯 하여 해리슨은 곧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 몸을 핥고있는 챨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고 눈을 들었으나 그것은 한순간이고 곧 떨어졌다.

《전쟁이란 복잡한거요, 해리슨중위!—》

《말공부를 그만하오!》 하고 해리슨은 소리치고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해리슨은 자기가 턱없이 애매하고 억울하게 모욕이라도 당한것 같은 심한 불쾌감을 느끼고있었다. 무엇인가 속을 허비는듯 하면서도 약이 오르는 아픔이 해리슨을 괴롭혔다.

《당신은 아직도 나의 말뜻을 리해하지 못하는것이 아니요?… 해리슨중위?》

《정직하게 말씀드리지만…》

해리슨은 챨스의 비웃고 얕보는듯 한 로골적인 표정과 웃음에 모진 노여움으로 눌리여 목소리가 갈리였다.

《저는 미합중국의 군인으로서 자기 의무에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챨스각하!》

챨스는 폭신한 쏘파에 깊숙이 묻었던 허리를 쭉 폈다.

《지구주둔사령관! 나는 당신의 빨갱이숙청투쟁 그자체를 가지고 시비하는건 아니요.》

그다음 챨스는 우매하고 암둔한 학생을 대하는 로련한 선생처럼 침착하게 그루를 박아가며 말을 계속했다.

《그 방법과 수법에 대해서 말하는거요. 불필요한 행동은 불필요한 결과를 낳소. 다시 말하지만 우리 미군은 세계의 면전에 강점자, 조폭한 살인자로 나타나서는 안되오. 저희들끼리 물고뜯고 개싸움을 벌려 죽도록 만들어야 하오.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워싱톤의 정책이요.

지구주둔사령관, 이젠 알만하오?》

《네－》

해리슨은 마지못해 어물거리며 입안의 소리로 대답했다. 그는 자기를 철없는 어린 학생 다루듯 하는 챨스에게서 참을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으며 그 모욕감은 원한으로 변하였다. 전투마당에서, 백병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죽었고 땅크들이 불탔었다. 과연 지금까지 이 작은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냈는가. 지금도 곳곳에서 미군병사들이 죽고있다. 또 얼마나 많은 위험속을 헤치며 왔고 현재는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위험속에 있는가! 그런데 이런 나를, 전투적인 장교를 현지에서 군사재판이라도 집행하려고 날아왔는가?… 도대체 이따위 위인들은 화약냄새를 맡은적이 없고 머리칼이 곤두서는 아슬아슬한 격전장에 서본적이 없으니 그저 말공부나 늘어놓기를 좋아한다. 싸움에서 승리하는것이 그저 말처럼 헐한 일인줄로 아는 모양인가?… 해리슨은 잔뜩 볼이 부어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있었다. 그는 원래 미국무성의 비밀특사가 도착하기 전부터 별스레 기분이 나빴었다. 자기를 믿지 않고 도착시간도 도착목적도 알려주지 않은채로 그가 오기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는지, 기분이 좋지 않아서 그의 도착을 불만스럽게 느꼈는지 어쨌든 해리슨의 기분은 좋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해리슨은 눈을 맞으며 신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군소재지와 그 주변들의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돌아보려고 큰길과 골목들을 직접 검열하면서 돌아다녔었다. 그런데 이런 모욕을 받을줄이야…

챨스 역시 침묵하고있었다. 그는 창가쪽에 시선을 모으고 담배를 피웠다.

(어딘가 미치광이같은 인상을 주는 해리슨이란자는 잔인성과 포악한 방법외에 자기의 충성을 나타낼줄 모르는 역시 무능한 백정이군. 그런데 어떻게 되여 이자는 전시군률을 위반하면서 직급표식이 없는 군용반외투를 망나니처럼 걸치고다닐 권리가 있는가?… 분명 이자는 중위가 아닐것이며 어떤 특수임무를 수행하고있음이 틀림없다.) 하고 챨스는 자기의 판단이 틀림없을것이라고 생각했다.

해리슨은 사실 특별한 지혜가 있는것도 아니고 문제를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형의 인물도 아니였다. 그의 사고는 어느것이나 극히

단순하고 외곬이였는데 그나마 조폭한 생각이 지배적이였다. 항상 자기중심으로 사고하는 해리슨은 자기 기분에 거슬리는것은 부정해버리기가 일쑤였고 더우기 착잡한 문제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파고드는것을 귀찮게 여겼다. 그는 순간에 직감적으로 판단해버린 다음 주관적인 자기의 생각이 가장 정확하다고 확신해버리군 하였다. 자기 판단의 정확성여부에 대한 자체검토나 두번다시 생각해보는 일이란 없었다. 그리고 흔히 자기의 직선적이고 직감적인 판단이 모순되는 객관적사실들에 충분한 설명을 주지 못하는 경우에 해리슨은 그 문제들을 서슴없이 무시해버렸다. 이번에도 그는 바로 그렇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해리슨은 더욱 기분이 불쾌하고 심한 원한까지 느꼈는지도 모른다. …

찰스는 침묵하고있는 해리슨을 마치 어른이 장난을 지나치게 한 아이를 보는듯 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쏘파에서 불쑥 일어났다. 그는 발자국소리도 없이 조용조용 방을 거닐었다.

《지구주둔사령관, 내가 그저 당신과 같은 격하기 쉬운 군인성격이나 젊음을 즐겨보려고 여기로 온줄 아오? 아니요. 지금 우리는 온 세계의 주시속에서 전쟁을 하고있소.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되오. 나는 당신이 이제는 충분히 리해하였으리라고 믿소!》

해리슨은 찰스에게서 받은 모욕과 여전히 입을 벌린채 가슴속에 도사리고있는 분노의 의식때문에 아무런 말도 없이 뿌루퉁한 얼굴로 서 있었다.

《지구주둔사령관, 일을 시작해야겠소. 여기 군감방에 감금되여있는 북한의 이전 도위원장 리룡진을 끌어오시오!》 하고 찰스는 불이 부은 해리슨에게 시선을 모으면서 지시했다.

해리슨은 문득 찰스가 이곳으로 달려온 목적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찰스각하, 곧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의견에는 만나보나마나 소득은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자는 호락호락 쉽게 열리는 자물쇠가 아닙니다!》

해리슨은 자기에게서 찰스를 떼여버리기나 하듯이 손을 쳐들어 말리는 시늉을 하였다.

찰스는 그러는 해리슨에게 말없이 빙그레 웃어보였다. 그것은 침착

하면서도 자신있는 웃음이였다.

《이제 그 자물쇠는 드디여 열리게 될거요. 나는 그 불행한 사람과 신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소.》

《챨스각하, 그 공산도배는 각하의 신사적인 태도마저 멸시할것입니다. 그에게는 각하가 고작 미제국주의의 산물에 불과할테니까요. … 만나도 별로 소득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해리슨은 찬성할수 없다는듯이 입술을 씹었다.

(우직한자는 역시 우직한 사고외에 달리는 생각할수 없지.) 챨스는 오묘한 미소를 지으며 해리슨을 피끗 스쳐보았다.

《지구주둔사령관, 그건 공연한 걱정이요. … 이제 결과가 말해줄거요. 우선 군내 감방들의 위치와 현재 구금되여있는 빨갱이들의 명단을 가져오시오!》

해리슨은 마지못해 돌아서 나가더니 잠시후에 챨스가 요구한 문건들을 걷어안고 씩씩거리며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챨스각하, 이건 지금까지 감방으로 전환시킨 건물들과 창고들이고… 이 문건은 현재 이곳들에 구금한 빨갱이들의 명단입니다.》

챨스는 알릴듯말듯 가볍게 머리를 끄덕이면서 아무말없이 그것을 받아들고 쏘파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쏘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무슨 연구나 하듯이 오래동안 침묵한채 문건들을 벌컥벌컥 넘기면서 거기에 주의를 집중했다. …

32

룡진은 눈가루가 날아들고 희미한 해빛이 스며드는 뙤창을 올려다보고있었다. 그는 해리슨이라는 교형리가 지껄인 그대로 무시무시한 악형을 가한 다음 자기를 죽일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육체적고통이나 죽음은 이미 각오한 이상 별로 두려울것이 없었다. 룡진은 이미 인간의 강인성, 인간의 의지는 그 어떤 육체적고통도 이겨낼수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여왔고 또한 그렇게 지금까지 이겨냈다. 그러나 그에게는 자기의 그처럼 강의한 의지로도 이겨내기 힘겨운, 참을수 없

는 괴로움이 있었다. 그것은 조국이 가장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는 때에 자신의 힘, 정열, 사색,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야 할 가장 긴급하고 절박하며 가장 중요한 투쟁과 사업들로부터 유리되여있는 괴로움이였다. 이러한 정신적고통을 그는 놈들에게 체포된 그 시각부터 지금까지 내내 겪고있었다. 룡진에게는 기실 그것이 놈들의 그 어떤 악착하고 야만적인 육체적고문보다도 비할바없이 괴로왔고 이겨내기 힘겨운것이였다. 바로 지금 룡진은 교형리 해리슨놈이 발악적인 심문을 들이대며 지껄이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그러한 정신적고통을 느끼고있었다.

(교형리 해리슨놈이 그처럼 미친듯이 발악하는것은 구월산의 우리 동무들이 원쑤놈들을 공포와 불안속에 몰아넣으며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고있음을 말해주는것이다. 그렇다, 그들은 장군님의 강령적 말씀을 받들고 적후에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가하고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는가!…)

룡진은 해방직후부터 지금까지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그이께서 주신 교시를 관철하기 위해 대중속에서 일해온 정권기관 일군의 한사람이였다.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교시들과 과업들을 무조건 제때에 정확하게 집행하는것—그것은 룡진의 생의 목표였고 신조였으며 삶의 전부이기도 하였다. 또한 그것은 장군님의 육친적인 사랑과 은덕속에서 성장한 인간 룡진의 량심이였고 의리였으며 도덕이였다. 그는 거기서 생의 희열과 행복, 긍지, 기쁨을 느꼈었다. 그렇기때문에 룡진에게는 어버이장군님께서 주신 과업들을 집행관철하기 위한 보람찬 사업을 떠난 생활이란 존재하지 않았고 또 있을수도 없었다. 그는 그러한 보람차고 영예로운 사업과 관련이 없는 생활, 삶은 일체 무의미한것으로 생각하였다. 바로 그런 룡진이였기때문에 가장 긴급하며 절박한 투쟁과 사업들로부터 유리되여있는 지금 그토록 참기 어려운 정신적고통을 느끼고있는것이였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싸우고있다. 단지 체포된 상태에서 적들과 싸우는것이 다를뿐이지… 나는 심장이 뛰는 한 앞으로도 놈들과 싸울것이다!) 하고 룡진은 희미한 해빛이 스며드는 뙤창을 지그시 올려다보면서 자기의 정신적괴로움과 고통을 스스로 위로하였다.

사실 룡진은 놈들에게 체포된 그 순간부터 오늘까지 단 하루도 적들과의 투쟁을 멈춘적이 없었다. 그는 감방에서 할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 놈들과 싸웠다. 함께 있는 감방안의 사람들에게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그자신이 실천행동으로 적들의 온갖 위협, 회유, 중세기적인 고문을 이겨내면서 변함없는 자기의 투철한 신념과 지조를 보여주었다.

룡진이 감금되여있는 감방안에는 모두 22명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마구 닥치는대로 체포구금한 교형리놈들에게는 감방이 엄청나게 모자랐다.) 가마니짜기경기에서 도적으로 1등을 한 모범농민, 중학교 교장, 군수도사업소 배관공, 임성욱목사… 각이한 직업과 각이한 년령, 각이한 성격의 사람들이였다.

《도위원장동지!—》 하고 지독하게 춥고 컴컴한 감방의 저편 구석에서 누군가가 룡진을 스스럼없이 불렀다.

룡진은 내심의 자기 고통을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건너편에서 끙끙거리며 신음소리를 내던 중로배의 농민이 임성욱목사의 부축을 받으면서 힘겨웁게 일어나 바람벽에 기대여 비스듬히 앉았다. 그는 전선원호 가마니짜기 도경기에서 1등을 한 남부면의 모범농민이였는데 천성이 쾌활하여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롱담으로 사람들을 잘 웃기군 했다.

《봉희동무, 왜 그러오? 몸이 몹시 불편하오?》 하고 룡진이 정색해서 물었다.

《그런게 아닙니다. 도위원장동지, 나는… 방금 별난 생각을 했지요. 한데 그 생각을 정작 말하자고 하니 좀…》

중로배의 모범농민은 감방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능청스럽게 빙그레 웃었다. 그런 다음 짐짓 정색한 어조로 말했다.

《이렇게 같이 있고보니 사실 세상에 그처럼 무던하고 선량하며 인정이 많은분인데… 그전에 만났을 때는 웬일인지 도위원장동지를 엄하게만 여기고 얼굴을 마주보지두 못했었지요. 이제 방금 그때를 생각하니 글쎄 내가 영낙없는 바보, 멍텅구리로 느껴지드란 말입니다.》

《봉희동무, 또 입담이 시작되누만. 여보, 그전에 어느때 동무가 나를 만났든적 있소?》 하고 룡진은 어쩔수없이 벙긋이 웃었다.

《챠, 그라지 마시라요. 내가 전선원호 가마니짜기 도경기에서 1등을 했을적에 도위원장동지가 표창장까지 수여하지 않았습니까?…이래두 꽝포라구 하겠시꺄?…》

《옳소, 생각나오. 그때 동무의 이름만 보고는 녀자인줄로 착각했던것이 기억되오.》

룡진은 나직이 소리내여 웃었다.

《도위원장동지, 솔직히 말하면 봉희라는 이름때문에 내 일생에서는 별별 터무니없는 오해가 많았지요. 글쎄 도신문에 난 내 이름만 보고 련애편지까지 보내온 싱검둥이 총각녀석도 있었지요. … 그런데 이번에는 놈들까지도 나를 녀자인줄로 알고 녀인들이 있는 감방에 넣으려구 하지 않겠시꺄! 나중에 내가 남자라는걸 알구서 놈들은 소동을 일으키더니 이름마저도 더럽다구 나를 두들겨패더구만요, 돼지내포같은 개놈들이. … 한데 임목사님, 한가지 물어볼테니 대답해주시우. 그래 정말 부모들이 지어준 봉희라는 내 이름이 틀려먹은 이름이우?》

수염이 더부룩한 임성욱은 모범농민의 익살에 말없이 빙그레 미소했다. 그는 놈들에게 감금된지 달포가 되나마나한 사이에 폴싹 늙었다. 그러나 임성욱은 자기 몸이 온통 상처투성이로 되였지만 평생에 지금처럼 각이한 직업과 각이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흉허물없이 친숙하게 터놓고 지낸적은 없었다고 생각했다. 기실 온갖 고초를 같이 겪는것처럼 사람들을 가깝게 하는것은 없는것이다.

감방안의 누군가가 으깨여진 머리의 아픔을 잊으려고 익살군인 모범농민에게 노래를 듣고싶다고 했다. 그러자 그는 서슴지 않고 이번에는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백두산 말기에 백학이 너울너울
해방된 강산에 뻐꾸기 뻐꾹 뻐꾹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떨쳐나
밭갈이 가세
…

나직하면서도 은은하게 흐르는 선률은 감방사람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면서 즐거웁고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케 했다.

룡진은 눈을 감고있었다. 그는 불현듯 정신적고통이 괴롭게 가슴속으로 또다시 파고드는것을 느꼈던것이다. 그는 활동하고싶었으며 싸우는 인민유격대원들과 함께 적들을 무장으로 족치는 격전장에 뛰여들고싶었다. 룡진은 여전히 자기의 괴로움을 내색하지 않고 눈을 감은채 참기 어려운 정신적고통을 스스로 조용히 이겨내고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문득 쇠창살을 댄 감방앞의 창구쪽에서 누군지 이상하게 조심히 자기를 부르는듯 한 목소리를 어렴풋이 들었다기보다 감각했다. 룡진은 번쩍 눈을 뜨고 창구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거기에는 까닭모를 근심과 불안에 잔뜩 눌린 낯익은 중년나이의 《치안대》가 웬일인지 초조한 눈길로 컴컴한 감방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고있었다. 그는 얼마전 면감방의 뜨락으로 끌려나온 룡진에게 군으로 이송된다고 슬며시 알려준 바로 그 사람이였다. 그때 룡진은 반역의 더러운 시궁창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한다는 자기의 엄격한 질책과 충고를 그가 분명 잊지 않고있을뿐만아니라 실지행동으로 옮기고있음을 뚜렷이 느꼈었다.

(이전에 소박한 마차군이였던 저 사람은 자기 이름을 박창국이라고 말했었지. …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여기 군감방에 불쑥 나타났는가?… 그 무슨 범상치 않은 일이라도 혹시…)

룡진은 까닭모를 고뇌에 이그러진 텁수룩한 그 사람의 얼굴에서 무엇인가 심상찮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면서 힘겨웁게 간신히 창구가까이로 다가갔다.

《그새 고생이 정말 많았겠시다. 몸이 몰라보게 상했구만요.》 하고 중년의 《치안대》는 잘 들리는 귀속말로 말하면서 어줍게 인사했다.

《걱정해줘서 고맙소. … 여보, 난 당신이 지금쯤은 그 너절한 시궁창에서 빠져나왔으리라고 믿고있었소. 한데 그게 뭐요?… 어째서 아직 그런 꼴을 하고 다니오?》

룡진은 자기의 엄한 시선속에 그를 끌어넣으면서 나직하나 명확하게 말했다.

《두루… 그렇게 됐지요.》 중년의 《치안대》는 당황함을 감추지 못하고 허둥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왔소?》 하고 룡진은 수심에 눌린듯 한 그를 찬찬히 여겨보면서 역시 조용히 물었다.

《군에 나온길에… 모진 고생을 겪는 도위원장어른에게 혹시 하찮은것이라도 도와드릴것이 있지 않을가 해서… 마침 제가 이전부터 잘 아는 녀석이 지금 여기 감방경비를 서고있습디다. 그래 들어왔지요. 부탁할것이 있으면 어서 하시우, 저는 오늘 밤…》

중년의 《치안대》는 흘끔 주위를 살피면서 웬일인지 꺼지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통이 느껴지는 목소리로 떠듬떠듬 말을 이었다.

《개죽음을… 당할 곳으로 떠나가는데… 그전에 뭐든지 적은것이나마 도와드리고 떠나겠수다.》

《여보, 그건 도대체 무슨 소리요? 개죽음할 곳으로 떠난다는건?》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에서 구월산유격대를 〈토벌〉하는데 저도 동원되게 됐지요. 그래 오늘 밤 하는수없이 예비집결장소인 달천으로 떠나갑니다. …》

순간 룡진은 내심 깜짝 놀랬다.

(놈들이 구월산인민유격대를 《토벌》하려 출동한다고?!…)

만일 그 순간에 룡진에게 이미 습관된 엄격한 자기 통제의 기능이 작용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기도 모르게 큰소리로 웨쳤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룡진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였던것이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얼마나 무서운 소식을 전하고있는지 알고나 있는가!…)

평상시에 룡진은 대중들속에서 경탄할만큼 과묵하고 침착한 지휘일군으로 인정되고있었다. 사실 그는 어느때나 절대로 덤비는적이 없고 어떤 정황에서도 자기 감정, 자기 흥분을 누르고 자제할줄 아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였다. 그런 룡진이였지만 지금 활랑거리는 가슴을 도저히 진정할수가 없었다.

《여보, 정확하게 다시 말하오. 지금 놈들이 구월산인민유격대에 대한 〈토벌〉작전을 벌리려고 하는것이 사실이요?》 하고 조금후에 룡진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사실이지요. … 지금 리, 면의 〈치안대〉들까지도 온통 여기 군소재지로 모여왔는데요. 그래서 저두 오늘 아침 군으로 나온걸요.》
《놈들의 〈토벌〉 규모는 어느 정도요?》
《글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신천지구내의 각 군, 면, 리의 경찰, 〈치안대〉는 물론이고 타지방에서두 오고 미군, 〈국군〉들도 동원된다구들 합디다요.》
룡진은 손가락들에서 으드득 뼈마디소리가 나도록 으스러지게 주먹을 틀어쥐고 침묵했다. … 악착한 원쑤놈들의 대병력은 은밀하게 구월산으로 접근해갈것이다. 그런데 지금 구월산인민유격대의 본부에서는 이러한 정보를 알고있는가? 만약 현재까지 모르고있다면?… 모를수도 있다. 그런 경우 구월산인민유격대앞에는 뜻밖에 불리한 정황이 조성될수 있으며 가슴아픈 희생은 더욱 많을것이다. …
룡진은 온몸의 피가 일시에 얼어드는것 같은 불안과 긴장을 느꼈다. 그찰나 룡진의 의식속으로 (그래선 안된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위험한 정보를 구월산인민유격대 본부에 알려야 한다!) 하는 확고한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갔다.
《여보 창국동무, 비록 하찮은 작은것이라도 도와주려고 다시 나를 찾아온데 대해서 나는 고맙게 생각하오. 그런데 나를 도와주려고 여기까지 찾아온 당신이 무엇때문에 놈들의 악랄한 〈토벌〉작전에는 끌려가오? 어째서 인민정권앞에 영원히 씻을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려는가 묻는거요.》 하고 룡진은 침착하면서도 진지하게 울리는 자기의 목소리를 기쁘게 의식하면서 이상하리만큼 잔잔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자 중년나이의 《치안대》는 고뇌에 눌린 표정으로 얼핏 룡진을 쳐다보았다.
《그러니 할수 없지 않나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판인데… 저두 어제 밤에 한잠도 못 자구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 허청거리며 군으로 나온걸요. …》
그러자 웬일인지 불시에 룡진의 눈은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여보 창국동무, 동무는 지금 인민정권앞에 영원히 씻지 못할 죄를 짓고 파멸되느냐 아니면 재생하느냐 하는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있

소. 이런 때 동무는 주저말고 단호하게 행동해야 하오!》

《단호하게라니요?…》 하고 중년의 《치안대》는 달달 마른 입술을 떨며 성급히 물었다.

《동무는 이제 곧바로 구월산인민유격대를 찾아가서 놈들의 〈토벌〉이 있다는걸 알려야 하오.》

《저두 무슨 생각인들 해보지 않았겠나요. … 그런데 거기 가면 〈치안대〉에 들었던 나를 용서하겠는지…》 하고 중년의 《치안대》는 머리를 떨구며 꺼지게 한숨 쉬였다.

《여보 창국동무, 내 말을 명심해 듣소. 공화국정권은 자기 죄를 반성하고 인민의 편으로 돌아온 공민을 처벌하지 않소!》

《도위원장어른… 정말 구월산에 가면 그들이…》

《창국동무, 걱정마오. 가서 그들에게 내가 보냈다고 말하시오. 문제는 동무가 단 몇분이라도 속히 그곳에 도착하는데 있소. 그러나 덤비지는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오. …》

《도위원장어른, 그럼…》 하고 중년의 《치안대》는 말을 맺지 못한채 불쑥 경계하듯 뒤를 돌아보았다.

키가 껑충하고 얼굴에 여드름이 내돋은 《치안대》보초놈이 황황히 달려오더니 발끈 성을 내며 게두덜거렸다.

《이 사람 정신이 나갔나? 뭘 그렇게 오래동안 저것들하고 어자지자하고있어. 어서빨리 여기서 물러가라구. 지금 미군어른들이 이리로 온단 말야!—》

중년의 《치안대》는 의미있는 시선으로 자기를 지그시 바라보고있는 룡진을 얼핏 뒤돌아보고 급히 떠나갔다. 감방주위는 잠시 고요했다. 조금후에 감방밖에서 불시에 우당탕거리는 군화발자국소리가 어지럽게 들려오더니 절커덕 감방문이 요란스레 열렸다.

《임성욱목사가 누구요?》 하고 감방문을 열어제낀 미군하사관놈이 별스레 히죽거리면서 소리쳐물었다.

《나요!》

수염이 더부룩한 임성욱목사는 우악스럽게 생긴 미군하사관놈을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미군하사관은 수염이 더부룩한 그를 말없이 한동안 뜯어보며 히죽히죽 웃었다.

《나오시오. 지금까지 하느님을 착실히 믿어온 당신을 석방하기로 했소. 지구주둔 미군사령부의 결정이요!》

순간 임성욱목사는 흠칫 회초리에 얻어맞은듯 어깨를 떨었다. 너무도 천만뜻밖이였던것이다. 그는 얼떠름하여 한동안 감방안의 사람들을 둘러보며 엉거주춤하고 서있었다.

《뭘 어물거려? 빨리 나왓!―》 하고 감방문앞에서 미군하사관놈이 참지 못하고 꽥 고함을 질러댔다.

《허,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군.》

임성욱목사는 입속말로 중얼거리며 감방문쪽으로 걸어갔다.

《목사님을 특별히 봐서 석방하는 모양인데 모를게 없시다. 임목사님, 부탁인데 밖에 나가거든 우리 공화국의 승리를 위해 매일 하느님께 기도나 드려주시우!―》 하고 익살군 모범농민이 나직하니 소리쳤다.

감방문가까이로 걸어간 임성욱목사는 문득 룡진의 앞에서 멈춰섰다.

《사실 저두 어떻게 된 일인지 놀랍군요.》 하고 임목사는 퉁퉁 부은 룡진의 얼굴을 쳐다보며 미안쩍어했다.

룡진은 빙그레 웃으며 스스럼없이 임목사의 손을 잡았다.

《목사님, 어서 나가보십시오. 전 어쩐지 목사님이 항상 량심을 잃지 않고 인간답게 살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임성욱목사는 아무런 응대없이 룡진에게 머리를 숙여 정중히 례를 표했다. 그리고는 감방안의 사람들을 한사람한사람 둘러보더니 마치 마음속으로 경건하게 기도라도 하는듯 잠시 눈을 감고 서있었다. 그다음 어떤 환경에서나 늘쌍 그러하듯이 걸음을 재게 하지 않고 꼭 같은 보조로 조용히 밖으로 걸어나갔다. …

33

임성욱목사가 석방된지 한시간쯤 지나서 미군하사관놈이 병졸들을 인솔하고 달려와 또다시 불시에 감방문을 열어제꼈다. 놈들은 좀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처음부터 포악스레 떠들어댔다.

《리룡진, 일어섯!—》

느닷없이 고함을 고래고래 질러대며 미군병사 두놈이 룡진에게 곧바로 달려들어왔다. 그리고는 량쪽에서 룡진을 마구 붙잡고 조폭하게 무작정 일으켜세웠다.

《가자!—》

미군병사놈들은 가까스로 일어선 그를 앞으로 떠밀었다. 룡진은 비틀거리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몸은 한쪽으로 기울거리고 무엇인가 별찌같은 점들이 수없이 눈앞을 날아다녔다.

미군병사놈들은 한쪽으로 쓰러지려는 그를 량쪽에서 부축하였다. 룡진은 의지의 힘을 모아 량켠의 미군병사놈들을 밀어버리고 스스로 걸어나갔다. 감방을 나선 미군병사놈들은 긴 복도를 지나(룡진에게는 끝없이 긴것처럼 느껴졌다.) 어떤 방으로 그를 떠밀어넣었다.

룡진은 간신히 자기 몸을 지탱하고 문가에 서있었다. 창가림을 한 방안은 어스레하였고 아무도 없는것 같았다. 그런데 불쑥 방안의 한쪽구석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어서 들어오시오.》

그것은 나직하면서도 웅글은 저음의 귀에 선 목소리였다.

룡진은 언뜻 그쪽으로 시선을 모았다. 깨끗하게 면도한 혈색좋은 사복차림의 미국인 중년남자가 방의 한쪽구석에서 그에게로 위풍당당하게 마주 걸어왔다. 넓고 큰 이마에 얼굴이 유난히 희여보이는 중년의 남자는 수수한 검은색양복상의에 알릴락말락한 연한 회색줄이 간 양복바지를 입고있었다.

《자, 저리로 가서 앉으시오.》

사복차림의 중년남자는 친절한 어조로 말하면서 시선으로 쏘파쪽을 가리켰다. 룡진은 그 미국인 중년남자가 례절바르게 안내한 쏘파로 걸어가 앉았다. 뒤따라 사복차림의 미국인 중년남자도 가까이에 다가와서 앉았다. 물큰 향수내가 풍겼다. 그들사이에는 크지 않은 탄탄한 탁자가 놓여있었는데 거기에는 담배며 커피며 술병들과 깨끗한 유리잔들이 놓여있었다.

《나는 미국무성의 한 공무원이요. 챨스라고 하오.》

중년의 미국인은 별로 악의가 느껴지지 않는, 그렇다고 별로 친

절도 느껴지지 않는 담담한 어조로 룡진에게 먼저 자기를 소개하였다. 사복차림을 한 신사풍의 미국인은 고르로운 목소리로 말을 계속했다.

《나는 우선 매 인간들의 가치를 구별할줄 모르는 이곳 현지의 무지막지한 군인들이 당신에게 가한 무례하고 조폭한 행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것을 의무라고 생각하오. 폭넓게 리해하고 용서하시오.》

챨스의 부드러운, 지어 정중하기까지 한 말에는 그 어떤 자그마한 과장이나 간교도 없는듯이 자연스러웠다.

룡진은 챨스의 거울과 같은, 타인의 침습을 허용하지 않는듯 한 푸르스름한 눈을 주의깊게 바라보았다.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무슨 표정이든 비껴있는것이 상례인데 챨스의 얼굴에는 전혀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돌격이니, 약진이니, 포위니, 일제사격이니, 체포니 하는따위 군사상의 용어외에 다른 말은 모르고 사고 역시 그 한계인 군인들이니 어찌겠소. 전쟁이라는 특수정황의 특수심리라고 관대하게 리해할수밖에 없지요. 모든것을 리해하는 사람은 모든것을 용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챨스는 전혀 룡진의 기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듯 하였으나 실은 아래로 내려뜬 푸르스름한 눈길로 모든것을 샅샅이 살피고 세밀히 관찰하고있었다.

룡진은 침착하게 입을 꾹 다문채 쏘파에 등을 기대고 말없이 챨스를 응시하고있었다. 특징이란 전혀 없는 말쑥한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띠지 않은 챨스의 둘레를 무엇인가 모를 위험한것이 맴돌고있는듯이 룡진에게는 감촉되였다.

(어떤자인가?… 무슨 모략을 꾸미려는가? 보통 교활한 놈이 아닌것 같은데…) 하고 룡진은 생각했다. 웅글은 저음으로 말하는 매끈한 얼굴을 가진 챨스의 얼굴만 보고서는 아무것도 짐작할수 없었다. 아무리 통찰력있는 룡진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외부의 소식을 전혀 모르고 지낸 그였던만큼 챨스가 날아든 구체적인 배경과 목적을 정확히 알아낸다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한것이였다. 사실 극비밀리에 미국무성에서

파견한(리승만괴뢰도 모르고있었다.) 챨스의 행각에는 미제의 음흉한 정치군사적음모가 있었다.

…미제는 1950년 10월 4일 유엔총회에서 영국, 오스트랄리아, 필리핀을 비롯한 8개의 동맹국들과 추종국가들을 사촉하여 이른바 8개국 공동결의안을 강압통과시켰다. 이 비법적인 결의는 유엔의 감시밑에 조선을 《통일》시켜야 한다는 간판을 내걸고 《유엔군》의 전조선강점을 승인한것이였으며 남조선괴뢰정권을 조선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남조선의 반인민적통치제도를 공화국북반부에까지 연장시키기 위한 반동적이며 침략적인 결의였다. 유엔총회의 이 비법적인 결의에서 힘을 얻은 리승만역적은 파산된지 오랜 《북진통일》과 《실지회복》의 나발을 또다시 요란하게 불어대면서 괴뢰내무부장관이란 놈을 시켜 《북한에 대한 시정방침》이란것을 공포케 하고 5도의 《지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관들을 임명하는 소동까지 피웠다. 그러나 미제는 당분간 리승만도당이 정면에 나서 북반부지역을 통치하는것을 고려하였다. 미제는 이미 유엔의 결정으로 리승만괴뢰정권을 전조선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것을 선포하기는 하였으나 리승만의 조급한 행동이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하여 《북에 대한 그 어떤 령토적야심도 없다.》고 거듭 떠벌인 제놈들의 위선적가면을 발가놓는것으로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심히 우려하였다. 미제는 가뜩이나 《유엔군》의 38도선 침입으로 하여 국제여론의 항의가 높은 때에 북반부에 대한 령토적야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것은 어느모로 보나 제놈들의 량면전술에 불리하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리승만정권의 무능과 부패성을 잘 알고있었으므로 리승만졸개들에게 북조선의 통치권을 그대로 맡긴다는것은 믿을수 없는 모험이라고 판단하였다. 그것은 리승만도당의 힘으로는 북반부인민들의 반미투쟁을 막아낼수 없다고 믿고있었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미제는 이른바 총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유엔의 이름을 빌어 강점지역에 제놈들의 직접적인 군사통치제도를 세우려는 계책에 매달리게 되였다. 미제는 10월 12일에 유엔 《소총회》를 열어놓고 《유엔군이 점령한 지역의 행정에 관한 결의》라는것을 조작하였으며 이 결의에 의하여 북조선의 통치권이 《유엔군사령부》에 속한다는것을 규정하였다. 미제는 일

시적강점지역에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 수립된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무력으로 뒤집어엎고 침략자들에 항거하는 우리 인민을 폭력으로 탄압하며 식민지지배체제를 세우기 위한 지반을 마련하려고 획책하였다. 그리하여 백악관의 정책작성자들은 강점한 공화국북반부들에서의 민심과 동향들을 종합분석하고 앞으로 식민지통치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제반 자료들과 구체적인 실태를 현지에서 료해장악하며 종합분석하여 제출할것을 미국무성에 지령하였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 미국무성에서는 극비밀리에 강점지역으로 특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거기서 선발된 인물이 바로 미국무성 동아시아국의 챨스였다. 챨스는 미국무성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총명하고 통찰력이 있으며 남다른 수학적인 정확한 두뇌와 활동성이 강한 인물로 평가되고있었다. 거기에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가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은 로련하고 수완있는 외교관이라는 평판까지 붙어있었다. …

미국무성 비밀특사인 챨스가 날아든 이러한 배경과 그 인물에 대해서 룡진은 지금 알지 못하였고 또 알수도 없었던것이다.

《나는 당신에게 모든것을 털어놓고 솔직히 그대로 말하겠소. 명심해 들으시오.》 하고 챨스는 침묵하고있는 룡진을 향해 례의 그 웅글은 저음으로 말했다.

《나는 미국무성의 특별임무를 받고 북한의 점령지역들을 돌아보던중 얼마전에 불행에 빠진 당신에 대한 보고를 받았소. 겸해서 언급하여둘것은 당신문제를 내가 직접 맡아보라는 미국무성의 지시를 받았다는것이요. 때문에 나는 우리들이 신사들처럼 격이 높은 대화를 나누게 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기로 왔소.》

나직나직하면서도 웅글게 울리는 그의 말소리에는 거짓이란 털끝만큼도 없는것 같았다. 방에는 단 둘뿐이였는데 방문밖에서 뚜거덕거리는 미군병사놈들의 발자국소리만 들리지 않았더라면 례사로운 날의 어느 사무실에 앉아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도위원장, 나는 당신의 높은 인간적 및 사회적가치를 리해하지 못했던 우리 미군병사들과 장교들이 가한 모든 폭행들에 대해 다시 정식으로 당신에게 사과하오. 그러니 이제부터 그 불쾌한 일들에 대해서는 잊어주기를 바라오.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그렇게 대한 그들의

무지와 조폭성에 대해서 생각만 하여도 나는 현대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금할수 없소. 나는 조금전에 당신과 한감방에 있던 임성욱목사를 석방시키도록 해리슨에게 지시했소. 바로 여기 현지의 군인들은 그런 목사조차도 신사적으로 대할줄 모르는 무지하고 우매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룡진은 약간 알릴듯말듯 미간을 찌프렸다. 솔직하고 그지없이 정직한체 하는 챨스의 어조속에는 측량할수 없으리만큼 아득히 높은 곳에서 관대한 말을 던져주고있는듯이 느껴져 몹시 역스러웠던것이다.

《도위원장, 왜 그러오? 혹시 지금 몸이라도 불편해서 그러는건 아니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대화를 차후로 미룰가요?》

챨스는 전혀 무관심한체 하면서도 룡진의 손가락 하나, 눈섭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살피며 관찰하고있었던만큼 즉시에 이렇게 말했던것이다.

《견딜만 하오. 주의해서 듣고있으니 계속하오.》 하고 룡진은 챨스쪽은 보지도 않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렇다면 좋소.》

상대방의 속을 꿰뚫고 들여다보는듯 한 미묘한 미소를 띠우고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고나서 챨스는 말을 계속했다.

《도위원장, 나는 당신에게 이제부터 우리를 협력하고 우리와 손을 잡고 함께 일하자는것을 권고하오. 바로 지금 그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협의하여보자는거요. 나는 당신과 이 협의에 앞서 지금의 당신처지에 상관하지 않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나누고싶다는것을 먼저 말하오.》 하고 챨스는 여전히 미묘한 미소를 띠우고 자연스럽게 말을 보탰다.

《혹은 서로 높은 급의 상관을 받들고 일해온 관리로서 서로 터놓고 실무적으로 대화를 나누든지… 그건 당신이 요구하고 바라는대로 해주겠소. 나는 미국무성의 관리로, 당신은 이전 도위원장의 자격으로… 어떻소? 나의 생각에는 서로 직급이라는 간판을 떼버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하는것이 더 자유롭고 바람직한데… 하지만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겠소.》

룡진은 버쩍 정신을 차렸다. 응글은 챨스의 자연스러운 말에는 가

장 무서운것이 있었다. 그렇다. 보통놈이 아닌, 《비상히 총명》 하고 달갑지 않은 악의 지혜를 가진 로회한 놈과 맞다들었다는 생각이 룡진을 버쩍 정신차리게 하였다. 챨스는 룡진의 주위에 보이지 않는 거미줄을 늘여놓고 어떤 무서운 독소를 뿌려놓으면서 함정속으로 몰아가려고 하는것이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무시무시한 모략도 서슴지 않고 꾸밀수 있는 로회하고 파렴치한 교형리놈이다!…)

룡진은 차디찬 뱀이 빠르게 기여가는듯 잔등이 선뜻함을 느꼈다. 주위에 독을 뿌려놓는것 같은 챨스의 웅글은 목소리로 하여 방안은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겨웠다. 그렇지만 룡진은 태연하게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었다. 입을 꾹 다물고있는 그는 마치 결투장에 나서서도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대기하고있는 강의한 사람을 방불케했다. 그의 깜박이지 않는 크고 검은 눈은 여전히 침착하고 태연자약하였다.

(저놈은 자기가 임성욱목사를 석방시켰다고 말했지. 거기에도 분명 로회한 저 교형리놈의 검은 모략이 있을것이다.) 하고 룡진은 불안하게 생각했다.

《도위원장, 의견을 말하오. 서로 어떠한 립장에서 대화했으면 좋겠는지…》

《나는 그런 대화의 형식보다도 내용을 중시하오. 챨스씨, 나는 당신의 본론을 들었으면 하오.》

룡진은 자신도 모르게 빙그레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여유있고 태연함이 느껴지는 웃음이였다. 그러자 챨스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이 머리를 가볍게 끄덕이였다.

《본론이란 이미 서두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당신이 우리와 손잡고 일하자는 요구에 응하는것이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당신에게 높은 대우를 약속할수 있소.》

《그것이 본론이라면 당신은 엄청난 착오를 하고있소. 나한테서 그런것은 어느때든 기대하지 마오.》 하고 룡진은 얼마간 어성을 높여 분격한 어조로 말했다.

《미스터 리룡진, 프랑스의 저명한 작가 빅토르 유고는 자기의 유

명한 소설 〈93년〉에서 이렇게 쓴바 있소. 〈승리는 흥분을 동반하고 패배는 분노를 일으킨다.〉… 그러나 나는 분격한 당신에게 이렇게 충고하고싶소. 현대인에게는 그 명구가 낡아빠진것이라고!》

찰스는 쏘파에 몸을 젖히고 어딘지 허공을 바라보면서 말을 계속했다.

《문제는 반감이나 호감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사태에 있는것이요. 현사태 말이요. … 자, 담배를 피우시오.》 하고 찰스는 담배갑을 룡진이쪽으로 밀어주었다.

룡진은 담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거절했다.

《나는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요.》

찰스는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는듯이 담배갑에서 담배 한대를 끄집어내여 입에 물고 성냥을 그어대더니 한모금 깊숙이 삼켰다.

《미스터 리룡진, 맑스의 가장 가까운 벗이였던 엥겔스가 쓴 어느 책에서 나는 이런 문구를 기억해두었소. 〈인간은 우선 먹고 마신 후에 정치, 과학, 예술, 종교 등 사회활동에 종사하게 되는것이다.〉… 혹시 내가 엥겔스의 유명한 말을 틀리게 기억하고있지 않소?》

《아니요, 아주 정확하오.》

《그렇다면 기쁘오. 자, 그럼 우선 마시지 않겠소?》

찰스는 빙그레 웃음을 띠고 깨끗한 유리잔에 커피를 따르기 시작했다.

《항복이나 패전한 다음에는 항상 그에 따르는 불편이 있는거요, 도위원장!》 하고 찰스는 미묘한 미소를 띠고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깨우쳐주듯 말했다.

《여보 찰스씨, 당신은 이 전쟁에서 당신네가 승리했다고 생각하오?》

룡진은 커피잔을 소리나게 탁자우에 놓으면서 비웃듯이 말을 던졌다.

《아니,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찰스는 룡진의 단순함에 놀라듯 머리를 흔들며 빙그레 웃었다.

《도위원장, 당신처럼 식견있는 사람이 대낮처럼 명백한 현사태를 아직도 모른단 말이요? 아니면 역설이요?…》

이렇게 말한 챨스는 배속까지 꿰뚫어보는듯 한 민활한 눈초리로 룡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보면서 소리없이 웃었다. 룡진은 태연하게 그를 응시하고있었다.

《여보 챨스씨, 나는 진심으로 당신에게 묻는거요. 그래 당신들이 우리 조선로동당원들을 굴복시키고 이 전쟁에서 정말 이길수 있다고 믿소?》

룡진의 물음에 너무도 뜻밖인듯 챨스는 깜짝 놀랬다.

《도위원장, 그럼 우리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있소? 나는 현재 우리 미군이 북부 깊숙이 진격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종국적인 승리는 우리 공화국이 쟁취할것이요. 우리는 현재 전략상후퇴를 하고있소. 당신은 현실분석을 근시안적으로 하오.》 하고 룡진은 챨스에게 랭소했다.

《하…하…》 챨스는 참지 못하겠다는듯이 소리내여 웃었다.

《도위원장, 당신의 락관은 미신이요. 근거없는 락관이란 말이요. 당신네 공화국은 패했소. 나는 우리 군대와 마찬가지로 당신네 공화국군대가 몇개 사단인지 정확하게 기억하고있소. 당신들의 공화국군대는 몇개 사단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몇백배요!》

자기 말의 정당성과 미국의 《신화적인 힘》을 증명하려는 생각이 끊임없이 뇌리에 떠오르는듯 챨스는 활기있게 말을 계속했다.

《거기다 현대화된 군사장비들과 기술수단들은 비교할바도 아니요. 도위원장, 너무 모르는체 마시오. 미군은 현재 압록강근방에서 전투를 벌리고있소. 맥아더원수는 지난 10월 15일 태평양상의 웨이크섬에서 트루맨대통령과 회견했소. 그때 맥원수는 감은절(11월 23일)안으로 조선전쟁을 끝내며 늦어도 크리스마스(12월 25일)전까지는 미8군을 일본으로 철수하고 2개 사단만 조선에 남겨두어 〈총선거〉를 감독할수 있게 될것이라고 약속했소.》

자기 말은 죄다 진실이며 여기에 전혀 의심할것도 반박할 여지도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챨스는 력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미국과 자본주의나라들의 어용신문과 출판물들이 떠들어대는 문구들을 인용하였다. 그에 의하면 《전쟁의 전도가 이미 결정되였으며 미군의 완

전승리는 시간문제…》라는것이며 《북조선군은 완전히 패배하고 지금은 조직된 부대로서의 북조선군은 없다.》는것이였다.
《절대로 그럴수 없소!―》
룡진의 검은 눈섭이 꿈틀했다.
《그건 당신들의 광신적인 상상력에서 끄집어낸 망상이요!》
그 순간 챨스의 무표정한 얼굴에 언뜻 검은 그림자가 지나갔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힐가보아 무서워하는듯이 낯색을 흐리며 조용히 쏘파에서 일어섰다. 그리고는 한참동안 말없이 뚜걱뚜걱 방을 거닐기 시작했다.
《여보시오 도위원장, 나는 쉑스피어나 똘스또이 그리고 단테나 하이네를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과 리해에 도달한다는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잘 알고있소. 바로 저기 감방들에 있는 무식하고 몽매한 빨갱이들 말이요. 그러나 우리들사이에는 문명한 인간들처럼 대화를 나눌수가 있으리라고 나는 믿었드랬소. 유감이요. 그러나… 당신의 분노도 리해되오. 자기의 리상에 충실한다는것은 존경받을만 한것이요. 하지만 현명하고 문명한 사람들은 새시대가 오면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사고해야 하는것이요!》
챨스는 자기의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고르로운 걸음으로 창가로 걸어갔다.
《여보 챨스씨, 우리 인민을 함부로 모욕하지 마시오. 선량하고 고상한 우리 인민들은 당신들을 포악한 승냥이로, 잔인한 흡혈귀로, 미제야수들이라고 규탄하고있소!―》
룡진의 분격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챨스는 창가에서 갑작스레 홱 돌아섰다. 그찰나에 말쑥한 그의 얼굴에서 유리알같은 차디찬 눈이 날카롭게 번쩍했다.
《오늘은 그만하는게 좋을것 같소. 도위원장, 당신은 지금 병적인 분노에 떠있는것 같이 생각되오. 나는… 오늘 이 시각부터 당신에게 좋은 잠자리와 충분한 식사를 보장받도록 해주겠소. 도위원장, 현시대를 리성적으로 판단하기를 바라오!》
방문앞으로 걸어간 챨스는 문을 열고 미군병사들에게 웅글은 목소리로 나직하니 지시했다.

《오늘의 대화는 끝났소.》

밖에 긴장하여 서있던 미군하사관놈과 병졸 한놈이 즉시 방안으로 들어와 룡진이가 앉아있는 쏘파곁으로 다가갔다.

챨스는 쏘파에서 태연하게 천천히 일어서는 룡진에게 진지한 어조로 그루를 박듯이 또박또박 이렇게 말했다.

《나는 희망이 당신의 심장을 고무해주기를 바라오. 이슬람교 코란에는 이런 말이 있소. 〈자기자신을 도우라. 그러면 내 그대를 도우려니…〉. 잊지 말고 이 말을 기억해두시오. 그리고 잘 생각해보시오, 도위원장!》

룡진은 아무런 응대도 없이 태연자약하게 미소를 띠고 챨스의 앞을 지나 문밖으로 나갔다. 룡진의 미소는 《충고해줘서 고맙소, 챨스씨!》 하고 비웃는듯 했다.

챨스는 뚜걱뚜걱 생각을 토막치듯 창가로 걸어가 거기서 창밖을 내다보며 오래동안 생각에 잠겨 서있었다.

(어떻게 되여 비참히 패배당한 저 사람이 저토록 도고할수 있는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일시적인 자존심의 시위인가?… 아니면 체면유지를 위해 저러는가?…)

그는 해리슨이 보고한것처럼 룡진의 신념이 그렇게 철벽이라고는 믿지 않았다. 그것은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갖 사변들과 그속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한바에 의하면 인간이란 본래가 변하는 존재라는 의식이 굳어진때문이였다. 챨스는 항상 자기의 그러한 판단을 변함없이 믿고있었다. 때문에 그는 리룡진이 지나치게 도고하고 자신심을 가지고있는것을 코웃음쳤다.

(그 도고성이 얼마동안 견지되려는지 자못 흥미있는걸…)

그러나 지금 챨스는 이 세상의 도고성과 자신심이 다같은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지 못하고있었으며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 더구나 룡진의 내부에는 자기 당과 수령에 대한 믿음이라는 강한 힘이 있다는것을 챨스는 알지 못했고 알수도 없었다. 그리하여 이 《총명》한 미국무성의 관리는 체포된 룡진의 도고성과 자신심을 괴이하고 지어 우습게까지 느꼈던것이다.

34

구월산 《토벌》전투를 시작하기 전날 밤에 해리슨은 예비집합장소인 달천에서 《토벌》에 동원된 미군, 《국방군》, 경찰, 《치안대》 우두머리들의 모임을 소집하였다. 그 회의에서는 예비집결장소인 달천에서 작전지역인 구월산으로의 출발시간과 《토벌》전투개시시간, 각 부대들의 담당구간과 구체적인 전투임무들이 명령으로 하달되였다. 회의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토벌》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한잔씩 마시고 숙소로 헤여져갔다.

해리슨은 밤 2시가 넘어서 잠자리에 누웠다. 이제 몇시간후면 여기를 떠나 구월산을 포위하고 전투에 진입하게 될것이다. 흥분과 불면증으로 잠들지 못하리라는것을 느꼈지만 해리슨은 어떻게 해서든 잠간만이라도 눈을 붙이고싶었다. 그러나 좀처럼 잠들수 없었다. 눈이 깔깔하고 뜨끔거리며 아팠다. 잠 못드는 해리슨의 머리에는 별별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떠오르고있었다. 해리슨은 세상에 필요없는 조선이라는 이 작은 나라, 이 약소민족은 예속되여야 할뿐아니라 박멸되여야 하며 지도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마음속깊이 생각하고있는 자기의 견해가 앞으로 실현되리라고 믿고있었다. 그는 점령한 신천지구에서 자기의 무제한한 권력에 최대의 희열을 느끼고있었다. 이제 몇시간후에 시작될 《토벌》에서도 그런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하며 거기서 오는 희열을 맛보리라고 해리슨은 지금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구월산 《토벌》에 동원된 병사, 장교들에게 구월산《공비》들의 포로는 전혀 필요없으며 현장에서 즉시즉시 총살하라고 이미 명령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리슨은 병사, 장교들의 전투사기를 돋구어주며 그들의 용감성, 무자비성을 키워주리라고 생각했던것이다.

그는 요 며칠사이 구월산《토벌》전투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느라고 고달프게 이곳저곳으로 뛰여다녔으며 얼굴이 찬바람에 트기까지 하였다. 그렇지만 그는 이제 곧 맛보게 될 포성, 총성과 아우성, 총살, 비명, 방화, 불길, 연기는 그에게 충격적인 흥분과 희열을 가져다줌

으로써 더없는 보상을 받게 될것이라고 은근히 믿고있었다.
해리슨은 날이 밝을무렵에 깜박 잠들었다. 잠갈기도 하고 생시갈기도 한 기분나쁜 잠이였다. 그 짧은 잠속에서 그는 꿈까지 꾸었다. 온통 바위투성이인 어떤 산속에서 사냥을 하고있는데 갑자기 모든 바위돌들이 곰으로 변신하여 사방에서 달려드는 꿈이였다. 꿈속에서 해리슨은 질겁하여 총을 연방 쏘아댔으나 어쩐 일인지 총알이 발사되지 않았다. 그래 해리슨은 비명을 질러대며 들고뛰기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불시에 사방에서 터지는 총소리를 듣고 화닥닥 놀라 잠을 깨고 일어났다. 처음에 그는 무슨 영문인지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니 앉아있었다.
(꿈속인가?…)
총성은 차츰 자지러지게 울리고 핑— 핑— 탄알들이 날아와 무엇이 깨지고 박산나는 소리가 들렸다. 뒤따라 미군병사들의 고함소리,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토벌》전투를 앞두고 이건 무슨 벼락인가? 구월산의 《공비》들이?…)
해리슨은 사태를 정확히 알수 없었고 정황도 분명치 않았다. 누구 하나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들리는건 불의에 들이닥쳐 정신 못차리게 들부시는 총성과 비명소리, 아우성… 갈팡질팡 질겁하여 떠들어대는 웨침소리였다.
권총을 뽑아든 해리슨은 먼지를 들쓴채 창문으로 훤히 밝아오는 밖을 내다보았다. 그리 높지 않은 앞산에서 일제사격이 날아오고있었다. 앞뜨락쪽의 공지와 행길가에서 겁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미군병사들과 《국방군》들이 좌왕우왕하는 꼬락서니란 눈뜨고 못 볼 지경으로 비참했다. 무기를 손에 쥐고서도 사격할 생각을 못하고 허둥지둥 어디론가 달려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미군병사, 허부룩한 더러운 눈속에 정갱이까지 빠져들어 허우적대는 《국군》병사, 무턱대고 아무곳에나 총을 쏘아대는 반정신이 나간듯 한 경찰대원, 탄알에 얻어맞고 단말마적인 비명을 지르며 행길가에 쓰러지는 《치안대》… 실로 각양각색이였다. 불의적인 기습을 받고 무어가 무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총을 마구 갈겨대고는 제편의 부상자를 밟고 뛰여가기도 했

다. 차들이 불타고 모든것이 연기와 불길과 혼잡속에 휩싸여있었다.
해리슨의 등뒤에서 갑작스레 출입문이 와락 열리더니 죽은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부관이 정신없이 뛰여들었다. 총알에 부상을 당한 모양 부관의 머리에서는 피가 흐르고있었다. 그자신은 그것도 아직 모르고있는것 같았다.
《어떻게 된 일인가?… 부관!》 하고 해리슨은 목청껏 소리를 질러댔다.
얼혼이 빠진듯 부관은 피묻은 입술을 부르르 떨면서 뭐라고 중얼거렸으나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수가 없었다.
해리슨은 부관에게로 다가가 군복자락을 붙잡고 나꿔채였다.
《부관! 정신을 차리라!》
그러자 부관은 겁질린 분명치 않은 소리로 떠듬떠듬 사태를 보고했다.
《구월산인민유격대의… 기습입니다. … 우리의 예비집결장소를… 그놈들이 알아내고…》
비로소 해리슨은 뜻밖에 발생한 쓰라린 사태를 똑똑히 깨달았다. 구월산에 대한 《토벌》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그들이 먼저 앞질러 《토벌》대의 예비집결장소를 선제공격한것이다. 모든것이 꿈만 같았다.
총성은 시작될 때처럼 갑자기 뚝 멎었다.
구월산에 대한 《토벌》을 시작도 못해보고 실패한 사태앞에서 해리슨은 미칠 지경이였다. 그는 이발을 부득부득 갈았다.
(그처럼 면밀하게 준비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청천벽력인가!…)
사위는 아무일도 없었던듯, 이상하게 느껴질만큼 잠잠하고 고요했다.
해리슨은 밖으로 나왔다. 날은 완전히 밝았다. 눈보라가 일고있었다. 미군병사들과 《국방군》의 시체들이 먼지와 오물에 더러워진 눈더미우에 널려있었다. 해리슨은 조금전까지만 하여도 성한 사람이였을 죽은 병사의 얼빠진 눈이며 머리카락이 산산이 흩어지고 귀가 초로 찍어낸듯 한 병사의 머리를 으스스한 기분으로 바라보았다. 맞은켠의 농가들과 헛간들에서 절뚝거리거나 혹은 신음소리를 내면서 부상병들이 나오고있었다. 차들이 불타는 공지쪽에서는 장교들이 병

사들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후려치기도 하면서 이쪽저쪽으로 뛰여다니며 불타는 보급물자들을 들어내고있었다. 보매 그들은 지금 뒤늦게 정신을 차린듯 하였다. 실지 그들은 어느 누구도 구월산인민유격대를 보지도 못한채 불시에 불벼락을 맞은것이였다.

해리슨은 힘껏 달리다가 갑자기 보이지 않는 장애물에 부딪친 때처럼 좌절감을 느꼈다. 그는 먼지로 얼룩진 이마에 흥건히 내밴 땀을 훔치며 마주 달려오는 미군소좌를 띠여보았다. 안악군주둔 미군사령관이였다. 뒤따라 재령, 은률, 송화군주둔 미군사령관들이 불쑥불쑥 나타났다.

해리슨은 동물적인 분노와 그 분노를 어디고 털어놓고싶은 충동에 몸을 불태우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무의식중에 빠른걸음으로 모여선 군주둔 미군사령관들에게로 돌진하듯 다가갔다. 군주둔 미군사령관들은 차렷자세로 옴짝않고 긴장하여 서있었다.

해리슨은 약간 헝클어진 머리를 버쩍 들고 몇초동안 미처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듯 말없이 찬찬히 여겨보았다. 그다음 발작적으로 어깨를 실룩거리면서 성큼성큼 큰걸음으로 안악군주둔 미군사령관의 턱앞에까지 바싹 다가서서 악에 받쳐 미처 말을 못하고 숨을 헐떡거렸다.

《소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이게 무슨 일이요? 구월산빨갱이들이 여기에 어떻게 갑자기 나타났는가?》 하고 해리슨은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사실 각군의 《토벌》인원들이 극비밀리에 이동하여 예비집결장소인 이곳 달천으로 모여들었던만큼 구월산인민유격대의 불의적인 기습은 청천벽력이 아닐수 없었다.

《그것은 벌써 이미전에 구월산인민유격대 본부에서 우리의 〈토벌〉작전과 예비집결장소에 대해서 알고있은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이들어보이는 안악군주둔 미군사령관은 해리슨을 마주보면서 서두르지 않고 랭담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소좌, 그건 당신의 추측이요? 아니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있소?》

《믿을만 한 증거자료들로 명백히 확인되였습니다. 그것은…》

안악군주둔 미군사령관은 이 청천벽력같은 기습에 대해 해리슨에게 리해할 시간을 주려는듯 잠시 말을 끊었다가 계속했다.

《예비집결장소로 비밀리에 떠나기 바로전에 신천군 어느면에서 동원되였던 〈치안대〉원 한명이 어디론가 도주했습니다. 그놈이 구월산에 통보한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기 감방에 있는 빨갱이 소년의 실토에 의하면…》

《감방에서 그 아이놈을 끌어오라!》

울분과 증오로 하여 숨을 씩씩거리면서 해리슨이 명령했다. 즉시에 미군병사들이 달려가 장난군아이처럼 보이는 까까머리소년을 감방에서 끌어내왔다.

해리슨은 마치 시뻘겋게 단 땅을 딛기라도 하는듯이 겅둥겅둥 뛰는 걸음으로 까까머리소년에게 다가갔다.

《야, 구월산빨갱이들이 여기 예비집결장소를 이미 알고있었는가?》

해리슨의 살진 목은 무서운 경련을 일으킨듯 꿈틀꿈틀 떨렸다. 그러나 당돌해보이는 까까머리소년은 그렇다는 뜻으로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러자 분노와 악의로 이글거리는 시선으로 장난군소년을 노려보던 해리슨은 느닷없이 독수리가 병아리를 채듯 소년의 멱살을 움켜잡았다. 그는 끓어오르는 울분과 분노를 누구에게건 터치고싶었던것이다. 그러나 당돌한 소년은 독을 쓰며 대들어 해리슨의 손목을 이발로 물어뜯으려고 하였다. 까까머리소년의 불의적인 행동에 해리슨은 질겁하여 털어버리듯 소년을 뿌려던졌다. 그다음 총살해버리려고 윤기흐르는 권총을 꺼내들었으나 무슨 생각에선지 도로 군용반외투주머니에 쑥 밀어넣었다.

(바로 저런 놈을 국무성에서 날아온 챨스에게 산 증거로 제시해야지. 우리가 어떤 빨갱이놈들을 상대로 하고있는가를 보여줄테다.)

해리슨은 분격하여 이발을 떡떡 쪼으면서 까까머리소년을 자동차에 처실으라고 부관에게 명령하였다. 부관은 곧 당돌한 까까머리소년을 성한채로 남아있는 군용차로 끌고갔다.

《지구주둔 사령관님!…》

침울한 표정으로 옴짝않고 서있던 은률군주둔 미군사령관이 해리슨에게 의견을 말했다.

《저는 무엇이 저놈들을 추동하는지… 공포인지, 절망인지 그 누구의 강요로 저러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빨갱이들은 점령된 도

처에서 저항하고있습니다. 그들은 저항이 전혀 무의미한 때조차도 저항합니다. 제가 있는 은률군에서도 그렇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된노릇인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습니다.》

《여보 소좌, 무슨 소리를 하오? 그런다고 〈토벌〉이 실패한 책임을 면할줄 아오?… 천만에!…》

사납게 찍어당기듯이 쏘아보는 해리슨의 회색눈에서 파아란 불꽃이 튕겨났다.

《변명하거나 책임을 덜어보자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태에서…》

《여보, 소좌!》

순간 해리슨은 꽥— 소리를 질렀다. 그는 우울한 은률군주둔 미군사령관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갈기고싶기까지 하였다.

《소좌, 우리는 앞으로 빨갱이숙청에 더욱 무자비해야 하오. 생각해볼것도 없고 갈피를 잡을것도 없소. 우리에게는 무자비만이 필요하오. 나머지것들은 우리에게 다 필요가 없는거요. 부차적인, 보잘것 없단 말이요!》

해리슨은 곧바로 우울한 소좌의 면상에 대고 큰소리로 웨쳐댔다.

《우리는 빨갱이놈들이 모두 몸서리를 치게 무자비해야 한단 말이요. 우리는 이 나라 빨갱이들을 한놈도 남김없이 쓸어버려야 하오. 우리는 이제 꼭 그렇게 하고야말것이요. 먼지로, 재로, 빨갱이놈들의 피가 강물처럼, 폭포처럼 흐르고 쏟아지게 할것이요!》

해리슨은 숨이 차올라서 말을 끊은채 쳐올린 두주먹이 한동안 경련이 이는것처럼 쥐였다폈다 하였다. 그는 《토벌》이 시작되기도 전에 실패한 울분으로 하여 숨을 헐떡거렸다. 분김에 파랗게 질린 그의 입술에서 두서없는 말들이 마구 쏟아져나오고 목구멍에서는 가래끓는 소리가 그릉그릉하였다. 그리고는 주먹을 내흔들며 한동안 왔다갔다 하였는데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것 같았다. 그러나 터져올랐던 악과 분노는 드디여 점점 누그러지기 시작했다.

해리슨은 군주둔 미군사령관들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랭담하게 말했다.

《모두 나의 명령을 들으시오. 대렬을 수습하고 즉시 철수하시오.

전사한 장교, 병사들에 대해서는 신천에서 〈군장〉을 치르도록 하겠소. 엄숙하게 거행할것이요!》

그런 다음 해리슨은 현재 보유하고있는 포탄들을 단 한발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구월산에 퍼부으라고 소리쳤다. 잠시후에 눈먼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주위는 귀가 메일 지경으로 포성이 진동하고 포연으로 자욱했다. 이윽고 볼꼴없이 실패한 《토벌》대렬은 시작도 못해보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해리슨은 머리를 어깨죽지사이로 움츠리고 군용반외투의 카키색 깃우에 벌기우리한 두귀의 뾰족한 끝만을 내밀고 잔등을 구부린채 평지건만 발을 걸채면서 발동을 걸고 대기하고있는 찦차쪽으로 걸어갔다. …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로 돌아온 해리슨은 이 실패한 《토벌》전투를 두리뭉실하게 상급에 보고하였다. 그는 보고서에 구월산의 험준한 지형을 재삼 강조하였고 비행대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은근히 암시했다.

며칠후 신천군소재지에서는 구월산 《토벌》전투에서 《용맹을 떨치고 전사》한 장교, 병사, 경찰대원들의 《군장》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처음으로 (강점한 전기간에 처음이였다.) 중위의 직급표식이 붙은 군복을 입고 해리슨이 나타나서 일장 기염을 토했다. 연설도중 해리슨은 자기를 정면으로 사진찍으려는 촬영기자들에게 상욕을 퍼부어 제지시켰다. 무엇때문인지 해리슨은 항상 직급표식이 없는 군용반외투를 입고다녔으며 더우기 자기의 얼굴을 사진에 남기는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였다. 그 까닭을 알고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것은 늘쌍 사람들의 머리속에 의혹을 자아냈으며 수수께끼로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바로 그날도 촬영기자들과 사진사들은 투덜거리면서 하는수없이 등뒤로 돌아가 쓰거운 기분으로 해리슨의 구부정한 뒤등을 찍었던것이다.

그리하여 후일, 세월이 흐른뒤 미제의 신천대학살만행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인류의 규탄을 받고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를 때에도 이 포악한 살인귀이며 교형리인 해리슨은 그 더러운 상통을 숨기고 구부정한 뒤등만을 남기게 될것이다.

일장 연설을 끝낸 해리슨은 알릴듯말듯하게 으쓱 어깨를 떨면서 음울한 기분으로 뚜걱뚜걱 연단에서 내려왔다. 우르르 모여든 기자들의 묻는 말에 이발을 떡떡 울리면서 해리슨은 더듬더듬 몇마디 건숭 대답하고는 홱 돌아서서 눈먼 사람처럼 걸음을 옮겼다. …

35

두툼한 솜외투를 입고 바람 한점 들어오지 못하게 단추를 꼭꼭 채운채 깃을 세운 면《치안대》대장 홍태국은 잔뜩 술에 취해 군소재지에서 돌아오고있었다. 그는 구월산 《토벌》전투에 동원되였다가 달천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신천으로 철수하여 돌아왔었다. 신천에서 거행한 《군장》행사에 참가하여 기염을 토하는 지구주둔 미군사령관인 해리슨의 연설도 들었고 군《치안대》본부에서 차린 술판에도 한몫 끼였었다. 바로 그 술판에서 진종일 술을 마시다가 날이 어두운 다음 면소재지인 돌무지마을로 곧장 떠난것이다. 신천에서 면소재지인 돌무지마을까지는 20리인데 길가에는 집들이 이따금 한두채 있을뿐이고 대부분 인적없는 행길이 무연한 벌판의 한가운데로 뻗어있다. 홍태국은 약간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그는 늘 다니던 길인데다가 총까지 메였으니만큼 무서울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밤길을 떠났지만 정작 무인지경에 들어서고보니 더럭 겁이 났다. 길가의 나무들이 자기를 후려치려고 지켜선 사람으로 착각되기도 하고 불시에 컴컴한 벌판에서 빨갱이놈들이 덮치려 달려드는것만 같았다.

(그까짓 괜한 생각이야. … 구월산의 빨갱이놈들이 아무렴 여기까지 와서 날치지는 못해. …) 하고 홍태국은 취중에 생각했다. 그러나 웬일인지 달천에서 불의에 달려든 구월산빨갱이들의 습격에 처참하게 죽은 미군들과 《치안대》들의 시체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으스스 몸이 떨리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어깨에서 총을 벗어 손에 들고 비틀거리면서도 빨리 걷기 시작했다.

무연한 벌판의 이쪽저쪽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있었다. 가느다란 나무가지들이 신음소리를 내며 설레이는 행길에는 누눅한 벼짚

들과 나무잎들이 땅을 핥으며 날아다녔다. 눈이 내렸다. 눈이라기보다 가는 진눈까비였다. 벌판과 행길우에는 컴컴하고 흐리터분한 구름이 낮추 드리워있었다. 그래도 그 흐리터분한 구름우에는 달이나 별들이 떴는지 줄지어선 행길가의 나무들의 컴컴하고 역시 흐리터분한 어룽더룽한 그림자들이 우렷이 보였다.

홍태국은 축축한 진눈까비에 온몸이 후줄근히 젖었으나 아직 술이 깨지 않아 머리속이 흐리터분하였다. 그는 어디고 행길가에 앉아 쉬여가고싶었지만 취중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여 내처 걸었다. 면소재지인 돌무지마을이 가까와오자 얼마간 마음이 놓였다. 개짖는 소리들이 컹컹 들려오고 들판 저쪽에 누런 불빛들이 보였다. 거기 가면 마음놓고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잡아들이고 두들겨패고 죽일수 있는 무제한한 권력을 행사할수 있는것이다. 홍태국은 달천에서 겪은 무시무시한 봉변을 이제부터 면내의 빨갱이가족들에게 앙갚음을 하리라고 속다짐했다.

(그래, 빨갱이놈들의 사둔에 팔촌까지 모조리 잡아들여 쳐죽일테야!…)

그는 부드득 이발을 갈고나서 컴컴하고 축축한 행길에 엑— 가래침을 퉅아 내뱉았다. 그찰나에 홍태국은 누군가가 자기뒤로 바싹 다가서는것을 얼핏 감촉했다. 오싹 머리칼이 곤두서는듯 한 공포에 질린 그는 홱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뒤에서 어떤 손이 그의 목을 누르면서 입에 껄껄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양말짝을 틀어막았다. 뒤따라 여럿의 손들이 어둠속에서 그에게 축축히 젖은 자루같은것을 씌우고 자빠뜨렸다. 홍태국은 불시에 술이 깨여 버둥거렸지만 무언가 총탁으로 머리를 짓쪼아대는 타격에 정신을 잃고말았다. …

그가 정신이 들었을 때에는 손발을 묶이운채 깊숙한 방공호의 벽에 기대여있었다. 그의 량옆에는 얼굴을 가려볼수 없는 몇몇사람의 거밋거밋한 모습들이 서있었다. 방공호의 출입문에는 방광막이 꼼꼼히 드리워있었고 탁자가 놓인 안쪽에는 걸상들이 놓여있었는데 거기에는 낯모를 텁석부리중년과 돌무지마을의 최주부, 임목사의 딸인 순애, 음전이가 앉아있었다. 누군가의 억센 손이 홍태국의 입에서 자갈을 빼

주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인민재판을 시작하겠수다!—》 하고 낯모를 텁석부리중년이 등잔불앞에서 뜨직뜨직 말했다.

《저따위 너절하고 악착스런 반역자놈에게 재판이고 뭐고 할게 있겠시까! 그저 미친 개새끼처럼 목매달아 죽이면 그만이겠는데…》

《치안대》인 버드렁이 최만수와 얼마전에 대판으로 싸우고 종시 헤여져 집을 뛰쳐나온 성미 드센 음전녀인이 분격한 어조로 나직이 내쏘듯이 말했다.

《그래두 우리는 공화국법을 지켜야지…》

텁석부리중년이 석쉽한 목소리로 역시 뜨직뜨직 말했다.

홍태국은 추위와 축축한 습기에 몸이 꽁꽁 얼어들어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는 이 악몽같은 광경앞에서 이미 반정신이 나간듯 맨숭맨숭한 턱을 덜덜 떨면서 잠잠히 앉아있었다. 그러다가 털썩 쓰러지듯 사람들앞에 엎드려 애걸복걸 사정하기 시작했다.

《한번만 용서해주시우. 그러면 내 이제부터는 당신들을 도우리다. 관대히 목숨만 살려준다면… 살려만 준다면 내 무슨 일이라도 시키는대로 하리다. …》

《퉤, 메스꺼워라! 그 주제에 관대히 목숨만 살려달라구?》 하고 음전녀인이 먼지와 구정물에 구지레해진 홍태국의 상통을 매섭게 쏘아보며 소리쳤다.

《여러분들, 사실 제가 멋두 모르구 죽을죄를 지었수다. 하지만 한번만 용서해주신다면 이제라도 옳바른 길을 걷겠시다. 제가…》

이 사람, 저 사람앞에 머리를 주억거리며 홍태국은 절망적으로 중얼댔다.

《닥쳐라!—》 하고 이번에는 묵묵히 앉아있던 최주부가 탁자를 탕하고 내려치며 격노한 음성으로 말했다.

《네놈이 이제 옳은 길을 걷기에는 늦었어. 네놈의 손에 묻은 피는 씻지 못해. …난 네놈이 아이적에도 병을 보아주었지. 침도 놓아주고 약도 지어주고… 난 네놈이 그처럼 악착한 반역자가 되리라고는 그때 꿈에도 생각 못하고 병을 보아준걸 지금 뼈아프게 후회한다. 너같은 악착하고 더러운 반역자놈은 그때… 아이적에 벌써 죽었어야 하는거

야!―》
흰눈을 머리에 얹은듯 온통 머리칼이 하얗게 센 최주부는 채머리를 흔들면서 괴로와보일만큼 몹시 창백한 얼굴로 엄하게 홍태국을 쏘아보았다.
그때 텁석부리중년이 등잔불이 놓인 탁자에서 기록하고있는 순애에게 석쉼한 소리로 뜨직뜨직 말했다.
《그 판결문을 이리 주오.》
순애는 벌써 준비해놓았던 종이장을 탁자우에서 집어 그에게 넘겨주었다. 과묵해보이는 텁석부리중년은 판결문을 받아들고 걸상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반역자 홍태국이 일어서라!―》 하고 홍태국의 곁에 서있던 사람들이 그를 잡아일으켜세우며 엄하게 소리쳤다.
두발과 손을 바줄로 묶이운 면《치안대》대장 홍태국이 꿈틀꿈틀 커다랗게 몸을 떨면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텁석부리중년이 침착하게 솜옷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쓰더니 석쉼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악착하고 비렬한 반역자 홍태국은 조국이 시련을 겪는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인민의 철천지 원쑤인 미제침략자놈들의 앞잡이, 하수인으로 전락되여…》
듬직해보이는 텁석부리중년은 사랑하는 조국이 재난을 당하고있는 엄혹한 시절에 조국과 인민을 배신하고 무고한 인민들과 애국자들에게 야수적인 만행을 저지른 홍태국의 씻을수 없는 범죄를 낱낱이 렬거하고나서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엄숙히 판결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원쑤들에게 희생된 수많은 애국렬사들의 이름으로, 북부면지하조직의 이름으로 악착하고 비렬한 반역자 홍태국을 처단한다!》
판결이 끝나자 공포에 질린 홍태국놈이 짐승처럼 뭐라고 절망적으로 고함을 지르려고 하였다. 그때 누군가의 억센 손이 인간쓰레기인 반역자의 입을 재빨리 틀어막았다.

다음날 저녁이였다. 순애는 자기 집의 창가에 꼼짝않고 서서 음전

이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지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부풀어오르는 긴장과 불안감을 지그시 누르면서 밖의 동정을 살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진다. 사위는 차츰 어둠속에 잠겨들기 시작했다.

(필경 그에게 중대한 일이 생긴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오래동안 음전언니가 나타나지 않을리는 없겠는데…)

오후 2시경에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에서 군용찝차를 타고 달려온 미군놈들이 음전이가 사는 집에 (음전은 《치안대》 남편과 갈라진 후 집을 나와 독신자인 귀머거리로파와 함께 살았다.) 느닷없이 들이닥쳐 그를 면《치안대》본부로 끌고갔었다. 얼핏 보아 그것은 체포같지는 않았지만 포악하고 음흉한 놈들이 무슨 음모인들 꾸며대지 않겠는가!…

순애의 머리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떠올랐다.

(놈들이 혹시 어제 감쪽같이 처단한 면《치안대》대장놈때문에 저렇게 야단일가? 무슨 기미라도 차렸는가?… 아니면… 그런데 어째서 하필 음전언니를 끌어갔을가?)

시계를 보니 바늘은 벌써 저녁 7시를 가리키고있었다. 불안은 못 견디게 가슴을 옥죄인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행동하는것이 옳은가?… 순애는 결심을 못하고 불안과 싸우며 창가에 서있었다. 사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치도 않는데, 더구나 약속된 날도 아닌 때에 지하조직책임자를 찾아가는것은 조직규률위반으로 된다. 그러나 반드시 긴급히 보고해야 할 정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그렇지만 지하조직책임자를 찾아가 보고하기 전에 우선 음전언니를 면《치안대》본부로 끌어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신속히 알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순애는 마실을 다니는것처럼 마을의 이집저집들에 들려 음전의 소식을 알아보리라고 드디여 결심했다. 그는 옷장에서 목도리를 꺼내여들었다. 그때 밖에서 가볍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한번… 두번… 세번… 그것은 약속된 신호였다.

《들어오세요!》

불안과 긴장으로 자기 목소리가 얼마간 떨리는것을 감축하면서 순애는 명확한 어조로 응대했다.

조금후에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누군가가 캄캄한 방안으로 들어

왔다. 순애는 어둠속에서 그가 음전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기보다 즉시에 륙감으로 느꼈다.
《음전언니예요?》
《응…》
《몹시 기다렸어요!》 하고 순애는 불안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다가서며 음전의 손을 꽉 잡았다.
《음전언니, 그놈들이 무엇때문에 언니를 끌고갔댔어요?》
《순애, 놈들은 날더러 래일 군감방에서 도위원장을 만나야 한다더구만!》
음전은 한마디한마디를 쓰겁게 내뱉듯이 분격에 차서 말했다.
《도위원장동지를요?!》
순애는 그만 깜짝 놀랐다. 그것은 너무도 천만뜻밖의 일이였다. 그는 음전을 기다리는 동안 이런저런 상서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추측도 해보고 예상도 하여보았지만 놈들이 음전에게 그런 강요를 하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것이다.
《음전언니, 놈들이 무슨 모략을 꾸미는게 아니예요?》
순애는 어둠속에서 불안하게 울리는 자신의 목소리를 느끼며 말했다.
《뻔한 수작이야. 놈들은 날더러 도위원장을 설복하여 돌려세우는데 협력하라는것이지 뭐겠어. 그놈들은 내게 그걸 꺼리낌없이 내놓고 말하더라니깐. 별별 치사하고 더러운 유혹도 하고 무섭게 위협도 하면서…》
음전은 그때의 흥분과 분격이 되살아나는듯 차츰 숨소리가 높아졌다.
《포악하고… 천하에 교활한 놈들!…》 하고 순애는 혼자소리로 말하며 증오로 어깨를 떨었다.
《그래서… 이제 언니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긴?… 별수 없지 않니, 군감방으로 들어가 도위원장동지와 같이 죽든지 아니면 요행 내가 죽더라도 그이를 살려낼수 있다면… 차라리 나같은 인간에게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난 그런 사람과 함께 죽을수만 있다면 마음편히 웃으며 죽겠어. 내 마음은 지금까

지 은근히 그걸 바랜것만 같애!…》

가슴속 밑바닥에서 울려나오는듯 한 음전의 말에는 인생의 비애와 피로가 담겨져있었다. 그러나 그 말투에는 아무런 미련도 없이 삶의 모든것을 버리고 위험속으로 뛰여들어가 서슴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치려는 열망, 필요하다면 온 육체를 순식간에 와락 불태워버리려는 강렬한 지향과 열정이 느껴졌다. 강렬한 이 열정의 분출은 충동적인 그녀자의 성격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남모르는 비애와 슬픔을 가슴속에 묻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가 드디여 자기도 모르게 몸부림을 친것이였는지도 모른다.

《음전언니,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것이 좋겠어요!》

《순애, 걱정 말래두. 내가 아무렴 그놈들한테 굴복하여 놈들이 하라는대로 하겠어? 어림도 없지. 난 다만 불행한 그이를 만나고싶고 함께 있고싶은 생각뿐이야!…》

《언니,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예요. 전 음전언니를 나자신이나 다름없이 믿고있어요. 그렇기는 하지만…》 하고 순애는 어지간히 침착해진 목소리로 말을 보탰다.

《음전언니, 우리들은 지하조직의 한 성원이 아니나요. 그런만큼 자기의 기분이나 흥분대로 행동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순애, 그렇지만 이제는 어쩌는 수가 없지 않아.… 이제 만약 내가 어디로 피신하거나 사라진다면 놈들이 무슨 기미를 차릴수도 있고 … 그럴바에는 차라리…》

《그건 옳아요. 음전언니, 그럼 이렇게 하자요.》

순애는 흥분한 음전에게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그는 자기가 이제 곧 조직책임자를 찾아가 조언을 받고 오겠으니 밤 2시에 음전이와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음전은 두말없이 순애의 의견에 동의했다.…

순애는 그가 방을 나간 다음 양털목도리로 꼼꼼히 머리를 둘러감았다. 그리고는 얼핏 떠오른 생각대로 바구니에 빈 쌀자루며 언 배추 몇포기를 넣었다. 만약 놈들의 순찰병들과 만나는 경우 식량을 구하러 다닌다고 둘러댈 생각이였다.

그는 바구니를 옆에 끼고 마을을 벗어나 꽁꽁 언 캄캄한 벌판으로

나왔다. 저 멀리 서강쪽에서 차고 눅눅한 바람이 불어오고있었다. 그는 지하조직책임자가 있는 남철리의 비밀아지트쪽으로 조심조심 걸어갔다. 지금까지 순애가 면지하조직책임자를 직접 만난것은 단 한번뿐이였는데 그것도 지금 찾아가는 비밀아지트가 아니라 면《치안대》대장 홍태국놈을 조국의 이름으로 처단하려고 재판하던 곳이였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련락원을 통해 투쟁과업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군 하였었다. 그러나 이번에 돌발적으로 예상치 않게 발생한 음전의 문제는 련락원을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리하여 순애는 직접 그를 만나 조언을 받기로 결심했던것이다.

순애는 긴장하여 주위를 살피느라 추위도 느끼지 못하고 어느새 남철리에 도착했다. 그는 마을에서 논벌쪽으로 맨끝집, 대추나무가 두그루 서있는 농가로 다가갔다. 소리없이 뜨락으로 들어섰으나 캄캄한 방안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뜨락에는 구정물에 얼어붙은 눈더미가 희끗희끗 쌓여있었다. 어쩐지 사람이 사는것 같지 않게 느껴졌다. 그때 뜨락 한쪽의 어지러운 벼짚무지속에서 부스럭거리며 강아지 한마리가 기여나와 콩콩 종을 울리듯 짖어댔다.

《계십니까?》

순애는 나직하니 주인을 찾았다. 그러자 잠잠하던 캄캄한 방안에서 쿨럭쿨럭하는 쇠잔한 로인의 기침소리가 들렸다. 한참후에 방문이 버썩 열리더니 로인이 토방으로 나왔다.

《누구를 찾으시오?》

로인의 목소리는 의외에도 챙챙하였다.

《할아버지, 길 좀 묻겠어요. 우산리로 질러가는 길이 어디예요?》

《허, 이밤중에 우산리로 질러가는 길은 몹시 험하겠는데… 큰길로 가라구!－》

그것은 암호였다. 그럴 때 어둠속에서 솟아난듯 굴뚝모퉁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났다.

《이리 오시오!》

순애는 석쉼한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그가 면지하조직책임자라는것을 알았다기보다 느꼈다. 그를 따라 순애는 굴뚝모퉁이를 지나서

벼짚단들을 쌓아둔 헛간으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깊숙한 지하실로 들어가는 크지 않은 입구가 있었다.
《자, 순애동무, 먼저 들어가오.》 하고 그는 먼저 순애를 들여보내고 다음에 조용히 뒤따라 지하실로 들어왔다.
지하실은 그리 넓지는 않았지만 천정이 높고 훈훈하였다. 지하실의 한쪽구석에는 등잔불이 걸려있었는데 그밑에는 키낮은 책상이 놓여있었다. 그리고 한가운데 놓인 황동화로에서는 이글거리는 숯불이 확확 화기를 뿜어대고있었다.
《순애동무, 무슨 일이 생겼소?》
면지하조직책임자인 텁석부리중년이 지하실 입구의 틈새를 깐깐히 막고나서 석쉼한 목소리로 침착하게 물었다.
《네. 음전동무한테 갑자기 지구주둔 미군사령부에서 놈들이 달려들었댔어요!》
순애는 황동화로를 사이에 놓고 텁석부리중년과 마주앉아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조언을 받자고…》
텁석부리중년은 아무말없이 부스럭거리며 잎담배를 천천히 말았다.
《음흉하고 포악스런 그놈들이 별별짓을 다 꾸며대는군.》 하고 그는 조용히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그리고는 침착하게 이글거리는 화로불에 담배를 붙여물더니 한모금 폐부깊숙이 들이켰다.
《순애동무, 놈들이 강박하는대로 음전동무를 래일 군감방으로 보내는게 어떻겠소?》 하고 그는 묻는 말 같기도 하고 지시하는것 같기도 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면…》
순애는 얼마간 실망한 표정으로 말수 적은 그를 쳐다보았다.
《실망할건 없소. 우리는 부닥친 화를 오히려 복으로 만들자는거요!》
순애는 불현듯 마음이 훅— 놓이는것을 느끼면서 듬직하고 소박한 그를 미더웁게 바라보며 잠잠히 앉아있었다.
《순애동무, 우리는 이 기회에 음전동무를 통해서 적본부의 방들의 위치, 감방들의 정확한 구조를 정찰하여 구월산에 보내야겠소. 그리

고…》
텁석부리중년은 또다시 담배를 한모금 깊숙이 들이켰다. …

36

룡진은 미군병사놈이 날라온 아침식사를 건숭 보는둥마는둥하고 침대우에 앉아있었다. 무시무시하리만치 괴괴한 이 집은 룡진이가 갇혀있던 감방에서 얼마간 떨어진 군소재지 맨끝에 있었다. 벼락치듯 부랴부랴 꾸려놓은듯 한 방안은 엉성하기는 하였지만 누습하고 차디찬 감방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만큼 밝고 훈훈하였다. 만일 밖에서 뚜거덕거리며 규칙적으로 오가는 미군보초놈들의 군화발소리만 들리지 않았더라면 정상적인 어느 가정의 방안처럼 느껴졌을수도 있을것이다. 놈들이 룡진에게는 달갑지도 않은 이러한 침식조건을 지어준것은 물론 챨스의 지시에 의한것이였다.

룡진은 어제 온밤 잠들지 못했었다. … 극비밀리에 이곳 신천지구로 기여든 미국무성의 챨스놈은 지금 온갖 무서운 모략과 흉계를 꾸미면서 보이지 않는 막뒤에 앉아 여기 현지의 교형리들을 조종하고있다. 임성욱목사를 불시에 석방한것도 틀림없이 챨스놈의 책략일것이다. 챨스, 이놈은 가장 로회하고 가장 위험한 교형리다. 악의 지혜를 소유한 이 로회한 교형리놈은 장차 이곳 신천지구에 어떤 무서운 불행과 재난의 씨앗을 휘뿌릴것인가?… 이러한 생각은 잠시도 룡진의 의식속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불안속으로 몰아갔던것이다.

지금도 룡진은 그러한 내심의 불안을 누르지 못한채 침대우에 앉아 이제 곧 또다시 겪게 될 챨스와의 대결을 생각하고있었다. 그는 앞으로 챨스가 어떤 함정속으로 자기를 몰아갈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별별 흉계와 책략을 다 할것이지만) 별로 두렵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생쥐처럼 촉기 빠르고 예민한 챨스에게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마음속 불안을 감촉케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룡진을 초조하고 괴롭게 했다.

문득 밖의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군견들이 사납게 짖어대는 소리와 험악한 욕설을 마구 퍼부어대는 놈들의 고함소리가 들려왔다. 룡

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방 한켠의 자그마한 창가로 다가갔다. 거기서는 지붕에 포탄구멍이 숭숭하고 벽체가 절반나마 날아나고 불타버린 거리의 집들이 내다보였다. 깨지고 무너진 집들과 집들사이에는 여기저기 공지가 나있었다. 그 공지들중에서 그중 넒은 공지로 미군병사놈들과 《치안대》들이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가고있었다. 놈들은 그곳에서 누군가를 무참히 학살하면서 그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려는것 같았다. 폐허의 그 공지우에는 잔뜩 흐린 음울한 하늘이 펼쳐져있었다. 룡진은 창가에서 지그시 그쪽을 응시하면서 침묵하고있었다. 그것은 분노에 맥박치는 침묵이였다. 얼마나 많은 애국자들과 로동당원들, 무고한 공민들이 저렇게 피흘리며 쓰러지고있는가!… 그는 가슴이 찢어지는듯 한 모진 아픔을 느끼며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럴 때 미군하사관놈이 까닭모르게 히죽거리며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자, 어서 지구주둔 사령부로!… 지금 챨스각하가 당신을 기다린다!》

룡진은 미군하사관놈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창가에서 물러나 침착한 걸음으로 방을 나섰다. 행길에는 벌써 미군병사 다섯놈이 대기하고있었다. 완전무장한 미군병사 두놈이 룡진의 앞에 서고 뒤에는 다른 두놈과 하사관놈이 바싹 붙어 따라 걸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놈들은 신작로가 아니라 방금 애국자들을 학살한 공지쪽으로 뻗은 좁다란 길로 호송해갔다. 가소롭게도 보매 놈들은 금시 학살한 애국자들의 시체를 룡진에게 목격시킴으로써 무엇인가 은근히 위협하려는것 같았다.

(이것 역시 챨스의 각본에 의해 미리 준비했을것이다.) 룡진은 묵묵히 공지가까이로 다가갔다.

강제로 끌려나왔던 주민들이 금방 헤여져가기 시작한 공지에는 무참히 학살된 애국자들의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 룡진은 분노의 피가 끓어오르는것을 느끼면서 아프도록 주먹을 틀어쥐고 꿋꿋이 그곁을 지나갔다. 그가 놈들에게 끌려가는 공지곁의 좁은 길가에 서있던 로인들과 아이들, 녀인들이 황급히 길을 비켜주면서 불안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저기서 한숨소리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불쑥 앞에서 걷던 미군병사 두놈이 멈춰섰다. 밀가루이거나 메밀가루

로 짐작되는 포대들을 가득 실은 마차 한대가 좁은 길을 가로막고 서 있었던것이다. 그 량옆에는 도랑과 폭탄구뎅이들이 있어서 길을 에돌 수도 없었다.

《이건 뭐야?… 마차주인이 누구야, 빨리 비껴세우라!—》 하고 앞에서 걷던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놈이 사납게 고함을 질러댔다. 뒤따라 성미급한 미군하사관놈이 마차어방에 대고 총을 내갈기며 소리쳤다.

《빨리 비껴세우지 못하겠어!—》

그러자 모여섰던 사람들속에서 텁수룩한 차림의 마차주인이 달려와 조금도 당황하거나 덤비지 않고 침착하게 말의 고삐를 틀어잡고 마차를 공지쪽으로 비껴세웠다. 그런 다음 마차주인은 포악한 미군병사놈들쪽을 향해 경의를 표하는 시늉을 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거, 큰일하는 미군병정님들 지나가는 길을 막아 죄송합니다!》 하고 롱을 걸듯 한쪽눈을 끔쩍했다. 배포유한 그의 능청스러운 행동이 얼마나 여유있고 자연스러웠던지 당장 현장에서 총살이라도 할듯이 벅적 고아대던 미군하사관놈과 병사놈들은 잠시 얼떨떨해 서있었다.

텁수룩한 차림의 마차군을 무심히 바라보던 룡진은 깜짝 놀랐다. 마차주인은 뜻밖에도 달포전 도소재지에서 룡진이와 뜻깊은 담화를 한 옥계국수집주인이였던것이다. 너무나도 의외여서 룡진은 하마트면 자기를 잃고 그를 소리쳐 부를번 했다. 그러나 마지막순간에 룡진의 의식속에서는 그를 불러서는 안된다는 엄격한 자기통제의 기능이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룡진은 침묵속에서 뜨거운 눈길로 그를 쳐다보았다. 룡진의 시선과 부딪친 옥계국수집주인의 두눈에는 언뜻 물기가 스쳤다. 그 눈길은 (이게 웬일입니까, 도위원장어른.… 정말 분하고 원통합니다!…) 하고 통탄하는것 같았다.

《야, 넌 어디서 뭘하는 놈이야?》

미군하사관놈이 눈을 사납게 희번득거리며 옥계국수집주인에게로 다가서며 소리쳐 물었다.

옥계국수집주인은 능청스럽게 또다시 경의를 표하는 시늉을 하며 머리를 숙였다.

《예, 저는 해주에서 국수집을 운영하면서 미군어른들한테도 특별봉

사를 하고있지요. 그래 영업상관계로 자주 이쪽으로 다니는 사람인데 앞으로 잘 돌봐주시우. … 저도 인사는 차릴줄 아는 사람입니다요. …》

미군하사관놈은 마차군의 말투속에 섞인 비웃음을 느끼지 못하고 시끄러운듯 손을 홱— 내저었다.

《앞으로는 주의하라. 다시 그런짓을 할 때는 가차없이 총살이야. …자, 어서 가자!—》

옥계국수집주인은 놈들에게 떠밀리면서 앞으로 걸어지나가는 룡진을 눈물을 머금고 바라보고있었다. 그의 눈에는 말로는 다 할수 없는 많은 뜻과 기원이 담겨져있었다. 뜨거운 작별의 눈인사를 보내며 그의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룡진의 가슴은 설레였다.

(공화국정권을 하늘이며 땅이고 숨쉬는 공기처럼 여기는 저 소박한 옥계국수집은 분명 영업관계로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구입하려 다닌다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대고 구월산 린접군들에 다니면서 지하조직의 임무를 수행하고있을것이다. … 그렇다, 도내의 수많은 인민들이 산과 들, 도시와 농촌, 도처에서 놈들에게 굴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있다!)

꿋꿋이 머리를 들고 걸어가는 룡진의 눈은 환희와 기쁨으로 불탔다. 그는 남모르는 긍지와 기쁨을 혼자 마음속 깊이 흐뭇하게 느끼면서 앞으로 걸어갔다. …

챨스는 거미줄처럼 실금이 간 좁은 창턱에 팔굽을 내짚고 자못 유쾌한 기분으로 동방의 이름없는 낯선 페허의 소도시를 내다보고있었다. 그는 방이 협소하고 별로 정결하지도 못한데다가 잠자리도 불편하였으나 새벽녘에 몇시간 잠을 잘수 있었기때문에 자기가 아주 유쾌하고 그리고 결단력있고 왕성한 사업의욕으로 충만된 인간처럼 느껴졌다. 그의 건강한 몸에는 탄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정력이 넘쳐났으며 마음은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불탔다.

가소로운 일이지만 세상에는 앞으로 맞게 될 적수보다 자신을 더없이 현명하고 지혜있고 총명하며 문명하고 슬기로운 존재로 속단하는 그런 인물들이 있다. 챨스가 바로 그런 류형에 속하는 인물이였다.

지금 챨스의 혈색좋은 얼굴에는 뭐라고 말할수 없는 자족과 지어 행복한 기색이 은근히 빛나고있었다. 그는 이제 두번째로 다시 만나게

될 사람, 북조선의 이전 도위원장이였던 리룡진을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었다.

(터무니없이 도고하거던. 자기처지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하긴 그럴수도 있지.)

챨스는 제2차 세계대전시기 괴이할정도로 류달리 자존심이 강한 파쑈도이췰란드의 고관을 굴복시키던 때를 감회깊게 회상하였다.

(그녀석도 처음에는 수닭처럼 우쭐대며 자존심을 시위하군 했드랬지. 그다음에는 볼꼴없이 풀이 죽어 머리를 숙였었지만…)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빙그레 웃고 여러가지 즐거운 예측을 하면서 창가에서 물러나 방안을 왔다갔다 하였다. 그의 등뒤에서는 자동총으로 무장한 미군병사들이 사열을 받는듯 꼿꼿이 부동자세로 서있었다.

《물러들가시오.》

챨스는 손목을 들어 시계를 보면서 여유있는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지시했다. 부동자세로 렬을 지어 서있던 미군병사들은 즉시 바람에 불린듯 문밖으로 나갔다. 조금후에 찌뿌둥한 기분의 해리슨이 직접 룡진을 안내하며 방안으로 천천히 들어섰다.

《안녕하시오.》

챨스는 유쾌한 기분으로 먼저 고개를 끄덕이고 선선히 수인사를 했다.

《앉으시오. 어떻소? 잠자리며 식사대접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룡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쏘파에 앉았다.

챨스는 유쾌한 어조로 말을 던지고는 예리하게 룡진이가 지은 무표정의 뒤면을 들여다보려고 애썼다.

무엇인가 심히 못마땅한 기분으로 오만상을 찌프리고 방문곁에 서있던 해리슨은 갑작스레 방을 가로질러 챨스에게로 다가서더니 뭐라고 나직나직이 보고하였다. 챨스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자 해리슨은 서둘러대며 방을 나갔다. 그의 뚜거덕거리는 군화발자국소리가 차츰 멀어져가고 방은 고요했다.

《도위원장, 나는 오늘 우리 두사람의 대화가 좀더 진지하고 솔직할뿐만아니라 서로 리해에 도달할것을 바라마지않소.》 하고 챨스는 룡진의 곁에 다가와 앉으면서 자못 진지한 어조로 말을 덧붙였다.

《나는 그사이 총명한 당신이 많은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믿소.》
《무슨 생각을 말이요?… 하긴 많은 생각을 한것은 사실이요!》
폭신한 쏘파에 깊숙이 몸을 기댄채 룡진은 태연하게 말했다.
《도위원장, 나는 당신에게 우리 아메리카합중국을 위해 협력해 줄것을 제기했드랬소. 미리 말해두지만 그런 경우 당신에게는 높은 직위가 차례질거요. 털어놓고말하면 당신의 이전 직위보다 대등하거나 더 높은 자리일수도 있소!》
이렇게 말하는 챨스의 얼굴표정과 눈빛은 더없이 진지하고 솔직해 보였으며 지어 엄숙해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순간 무표정한 룡진의 얼굴에는 문득 조소하는듯 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다.
《여보, 그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그렇게도 벼슬자리를 줄 사람이 모자라오?… 당신들은 어째서 조선로동당원인 나에게 그처럼 높은 벼슬자리를 주려고 하는거요.》
챨스는 룡진의 말에서 뚜렷한 야유를 감촉하였지만 눌러참고 자제하며 모르는체 이렇게 응대하였다.
《도위원장, 실무적인 타산과 리해관계를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미국에는 특별히 규정해놓은 벗과 원쑤가 따로 없소. 리해관계에 따라 어제날의 원쑤가 오늘은 벗으로 될수도 있소.… 우리는 도지사로 임명된 당신을 통해서 보다 크고 보다 많은것을 얻자고 하오. 나는 모든것을 리해할수 있는 당신에게만은 아무것도 숨기는것없이 털어놓고말하오.》
그런 다음 챨스는 룡진을 통해 구월산유격대를 비롯한 도내 각 곳의 유격대들과 지하조직들을 색출, 와해소멸하자는것이고 어수선한 여기 중부조선일대의 민심을 수습장악하려는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 순간 룡진은 참다못해 폭소를 터뜨렸다.
《그건 어처구니없는 허황한 꿈이요!…》
《도위원장!…》
《여보, 내 당신한테 묻겠소. 정말 당신네 미국무성관리들은 **김일성**장군님의 전사인 리룡진이가 변절투항하리라고 믿고있소?》 하고 룡진은 챨스를 정면으로 마주보았다.
룡진의 시선과 마주친 챨스는 룡진의 검고 큰 눈이 번개라도 치는

것처럼 번뜩이는것을 보았다. 그러나 챨스는 리해할수 없다는듯이 어깨를 으쓱하였다.

《도위원장, 그래 당신은 어째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오? 그밖의 생활은 모르오?》

《여보, 당신은 내가 왜 지금의 정황에서 그걸 선택했는지 정말 모르겠소?》 하고 룡진은 여유있게 되물었다.

그러자 챨스는 말없이 빙그레 웃었는데 그것은 마치 자기가 인내성있게 자제하고있음을 시위하는듯 한 웃음이였다.

《너무 그러지 마오. 도위원장, 사멸해가는 나라는 늙어가는 녀자처럼 줴버려야 하오. 그런 속담이 서양에 있소!》

《우리 나라에는 송죽과 같은 절개라는 아주 훌륭한 말이 있소. 참대와 같이 곧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언제나 항상 푸르른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절개라는 뜻이요. 여보 챨스씨, 명심해두시오. 우리 조선로동당원들은 이런 절개와 아울러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의 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신념의 소유자들이요. 그러니 어리석은 꿈을 꾸지 마오!》

쏘파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룡진의 침착한 말에는 무엇인가 가슴을 섬찍하게 찌르는것이 있었다. 그러나 챨스는 전혀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게 듣고있는듯 한 표정을 지었다.

《도위원장, 위험은 인간의 리성을 천재적으로 만든다는 말이 있소. … 환상을 가진 사람은 위험이 닥쳐오면 랑만이 일어난다고 하오. 하긴 대담할수도 있지만 종종 황당무계한 생각에 빠지는거요. 나는… 이미 거듭 말했지만 당신이 처한 현사태를 똑바로 인식하기 바라오. 당신은 우리가 제기한것보다 더 큰것을 바랄수는 없을거요.》

《아니, 나는 당신들한테서 아무것도 바라는것이 없소!》 하고 룡진은 한번 더 다짐하듯 말을 덧붙였다.

《그렇소. 당신들한테서 바랄것도 없고 또 바라지도 않소.》

(이건 뭔가? 자기값을 올리자는건가?) 하고 챨스는 피뜩 생각했다.

《도위원장, 그건… 그건 현사태에 기초한 실제적인 사고가 아니요.》

얼마간 어성을 높이면서 챨스는 례의 그 웅근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프랑스가 마다가스까르를 병합할 때는 그 나라의 국왕을 레유니

온섬에 류배시키였고 미국이 하와이를 병합할 때는 그 녀왕인 리리오카라니를 일개 시민으로 떨구어 본인의 생활을 지탱할만 한 돈밖에 주지 않았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신을 종전과 동등한 도지사자리를 약속하였소. 이건 정말 류례드문 일이요! 깊이 생각하여보시오. 도위원장!》

이렇게 말하고나서 챨스는 룡진의 표정을 보려고 피뜩 그에게로 예리한 눈길을 돌렸다. 룡진은 폭신한 쏘파에 몸을 기댄채 눈을 감고 침묵하고있었다. 보매 그는 무엇인가 깊은 자기생각에 빠져있는듯 하였다. 침묵이 흘렀다. … 이슥고 룡진은 감고있던 눈을 떴다.

《여보 챨스씨, 이제부터 나의 말을 주의깊이 듣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듯 한 그의 목소리는 챨스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흥분과 감회에 젖어있었다.

《챨스씨, 나는 대대로 내려오는 미천한 소작농의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요. 궁벽하고 척박한 농촌에서 흘러간 내 소년시절은 비참한것이였소. 나는 거기서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운명이 그러했던것처럼 사회로부터 인간이하의 천대와 수모를 받으며 땅을 뒤지는 농군이였소. 그 시절에 나는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하찮은것에 울고 보잘것 없는것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는 무지렁뱅이였소.》

룡진은 그렇던 자기를 해방후에 **김일성**장군님께서 육친적사랑과 은정깊은 보살핌으로 한개 도를 책임진 도위원장으로, 국사를 의논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키워주신데 대해서 절절한 목소리로 꾸밈없이 말했다.

《**김일성**장군님은 내 잊을수 없는 은인이시고 위대한 스승이시며 어버이이시요. 나는 현재도 그분의 전사이고 죽어서도 그이의 전사요. 그분의 믿음과 사랑을 떠난 나의 존재는 무의미한거요. 난 꿈결에서도 내 인생의 스승이시고 어버이이신 그분을 그리군 하오. 당신들은 나를 죽일수는 있어도 절대로 굴복시키지는 못하오. 왜냐하면 자식은 자기를 키워준 어버이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기때문이요. 챨스씨, 이제는 알만 하오?》 하고 룡진은 눈을 빛내며 쏘파에 기대였던 허리를 쭉 폈다.

몇순간 챨스는 말없이 꿰뚫어보는듯 한 차디찬 시선으로 룡진을 주

의깊이 살펴보았다. 보매 리룡진은 지금 챨스, 자기의 마음을 차지하고있는 모든 관심과 권고를 하잘것 없는 가소로운것으로 느끼고있으며 천박한 허영심으로, 일시적승리의 희열에 들뜬 아무런 가치도 없는 작은 벌레의 존재로 생각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러나 챨스 역시 침착하였고 자기대로의 긍지가 있었으며 자기식 통찰력과 《총명한》사고와 판단, 분석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룡진의 그 어떤 격한 어조나 모욕에도 끄떡하지 않고 시종일관하게 태연해하였으며 침착했다.

《천만뜻밖이요. 도위원장, 당신은 끝내 자멸을 택하는군. 참으로 서글픈 일이요. 내 일생에 숱한 서글픈 일들을 보아왔지만 이토록 서글픈 일을 보는건 처음이요!》

쏘파에서 갑자기 몸을 일으킨 챨스는 괴로운 자기의 생각을 토막치듯 뚜걱뚜걱 방을 걷기 시작했다.

《도위원장,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관인 해리슨은 당신을 야수적으로 탕을 쳐서 죽이려고 하오. 그것도 당신네 조선사람들의 손으로 집행하도록 할거요. 해리슨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결단력있는 군인이요.》

챨스는 억양을 높이지 않고 잔잔히 말하면서도 은근히 무시무시한 위협을 풍겼다. 그는 그렇게 말할줄 아는 재간과 능력이 있었다.

《여보, 나를 위협할 생각은 하지 마오. 그건 더욱 어리석은 놀음이요. 나는 이미 교형리인 해리슨 본인에게서 직접 들은지 오래됐소. 난 각오하고있으니 걱정마오. 챨스씨, 마지막으로 내 당신한테 한가지 부탁하겠소. 돌아가거든 당신네 국무성관리들과 대통령에게 전하오. 우리 공화국은 청소하지만 굴복타승한다는것은 전혀 불가능한것이라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강점한 지역에서 당신들이 저지른 야수적인 만행은 반드시 준엄한 력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것이라고. …》

챨스는 룡진의 말을 중단시킴이 없이 마지막까지 인내성있게 다 들었다. 그리고는 서글픈듯 한 표정을 띠고 조용히 머리를 저었다.

《유감이요. 당신의 나이 34살, 아직은 젊었소. 젊음이란 얼마나 좋은거요. 젊음, 그이상 훌륭한것이 어디 있소. 난 정말 당신의 그 총명, 그 지혜, 그 젊음이 아깝소!》

자기 말에 스스로 심취된 챨스는 천천히 거닐면서 말을 계속하였다.

《이이상 정직하고 이이상 솔직한 말은 없을것이요. 랭정하게 판단해보시오. 당신이 죽은지 넉넉히 잡아 20일후면 아군은 완전승리할거요. 그런데 당신이 죽은 다음 남는건 뭐요? 패전한, 멸망한 나라에서 누가 기억이나 해주겠소?… 정말 쓸쓸한 일이요! 생활은 계속되오. 죽지 말아야 하오.》

방안을 앞뒤로 왔다갔다하며 거닐던 챨스는 룡진의 앞에 멈춰서서 그를 주의깊이 살폈다. 룡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조금도 변함없이 입을 꾹 다물고 앉아있었다. 한순간 챨스의 시선은 견결하고 강의한 룡진의 시선과 맞부딪쳤다. 챨스는 알릴가말가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룡진의 견결하고 내부 깊숙이 투시해보는듯 한 눈초리를 피해서 얼굴을 돌리고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자신이 초조해하고 자신심을 잃고있다는것을 스스로 보여주게 될것이였다.

(저 사람은 무엇으로 빚었는가. 저런 용기가 어디서 생긴것인가?)

챨스는 자기의 무력함을 통감하면서 초조한 마음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할수 없지. 이제부터는 해리슨이 당신을 취급하게 될거요. 이건 위협이 아니요. 난 더 여기서 지체할수 없소… 내가 떠난 다음에는 후회해도 그때는 늦소!》

챨스는 시선을 돌리고 걸어가 유리모서리들에 그려진 성에꽃들과 텅빈 거리를 내다보고나서 쏘파로 돌아와앉았다.

《도위원장, 정말 그렇다면 내 당신에게 간단한 요구를 하겠소.》 하고 챨스는 건너편에 눈길을 주었으나 실상은 룡진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면서 말했다.

《여기 신천군소재지의 주민들이 모인 집회에서 우리 미군이 압록강까지 전진하고있다는것을 당신자신이 말하면 되오. 이건 배신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사실 그대로요. 군소재지주민들의 집회에서 당신이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당신의 목숨은 살려주겠소. 그건 내가 직접 담보하오.》

배속까지 들여다보는듯 한 룡진의 앞에서 계교가 불필요하다는것을 깨달은 챨스는 강경하게 로골적으로 강박하기 시작했다.

룡진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이였다.

《여보, 그러니 나더러 당신들의 최후승리에 대해 선전해달라는

거요?…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단 말이지. 챨스씨, 시시하고 너절한 흥정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소?》

분노하고 격한 룡진의 얼굴에서 검은 눈섭이 떨어져나갈듯이 꿈틀했다.

《여보, 이 전쟁에서 종국적인 승리는 **김일성**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우리 공화국이 쟁취할것이요. 난 그것을 확신하오. 우리 인민은 지금 당신들이 일시 강점한 지역의 도처에서 저항하고있소. 당신이 보건대 강점당한 지역들이 죽음과 공포가 지배할것 같소? 천만에, 삶이 지배하오. 싸움과 투쟁이!―》

《그건 무모한 저항일뿐이요. 그 무모한 죽음의 저항이 나에게는 놀랍기만 하오!》

룡진은 즉시 거기에 놀라울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도처에서 미제침략군의 앞길을 막고있는것은 당과 조선인민 그리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의 사상이다. 바로 그 힘이 어디서나 미제침략자들과 맞서고있는것이다. 여기에 대해 미제침략자들은 비행기와 대포와 땅크, 우리 공화국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밖에 아무것도 대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침략자들에게는 악과 증오, 야수성이외에 다른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조선인민은 그 무엇으로써도 격파할수 없는 가장 위력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무장된 정의의 인민이다. 장군님사상의 힘, 정의의 힘― 그 힘을 꺾을자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것이다.…

챨스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리룡진의 말에 담겨진 뜻이 도무지 리해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총명》하고 《분석력》있는 국무성관리인 챨스는 여기서 론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수 없는 하나의 사태를 내심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구월산인민유격대의 준동, 점령한 도처에서 끊임없는 저항, 더우기 북상하던 미군부대들의 패전에 대한 최근의 불길한 소식들… 이 모든것을 챨스는 론리적으로 해석할수 없었다. 그는 신화같은 미국의 강대한 힘과 무장력의 절대적우월성에 대한 확신이 뼈속까지 굳어져있었다.

(그런데 이 빈약하고 락후한 무장력을 가진 작은 나라가 어떻게 되여 세계최대의 강국인 미국과 당당하게 맞서고있는가, 그 힘은 어디에 있으며 그것은 무엇인가.)

조선인민의 완강성에는 그 무엇인가 마술적인 이상한것이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챨스는 수천수백만의 조선사람들에게는 조국방위가 단순히 자기들의 정든 집과 도시와 마을을 위한 전투, 자기자신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전투일뿐아니라 그 모든것을 고무추동해주는 사상을 위한 전투로 된다는것을 미처 생각지 못하였으며 또 생각할수도 없었다. 그렇기때문에 챨스는 자신있게 당당하고도 거침없이 쏟아지는 룡진의 말들을 도저히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러나 바로 리해할수 없는 그것때문에, 또한 룡진의 바위처럼 끄떡않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때문에 내심 악에 받쳐있었다.

《좋소. 나는 당신의 그 무모하고 광신적인 고집을 꺾으려고 하지 않겠소. 그러나 마지막으로 묻겠소. 이제라도 생각을 돌려보지 않겠소?》

로골적인 위협조로 말한 챨스는 룡진의 얼굴을 주의깊게 살폈다. 그러나 룡진의 얼굴에서 볼수 있는 유일한 표정은 태연이였다.

《여보, 당신은 오늘 쓸데없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것 같지 않소?… 나 역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언명하오. 우리들, 장군님의 전사들은 변심이나 변절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장군님을 우러러모시는 충정은 일편단심이란 말이요!》

마치 채찍으로 후려치는듯 한 룡진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챨스는 몸을 흠칫 떨었다.

《그렇다?… 좋소. 이야기는 끝났소!》

챨스는 깊이 숨겨두었던 악의와 분노를 꺼리낌없이 드러내면서 웨쳐댔다.

《이자를 당장 끌어가시오!》

미군병사놈들이 방안으로 들어오자 룡진은 쏘파등받이에 기댔던 허리를 쭉 펴고 일어섰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스스로 걸어나갔다.

(지독하게 침착하고 완강한 놈이군. 감정이라고는 전혀 없는가, 아니면 완전히 의식의 통제속에서 사는가. …)

챨스는 증오에 불타는 눈으로 룡진의 뒤를 뚫어지게 쏘아보았다.

그는 심한 좌절감과 모욕감으로 하여 진정하지 못하고 괴롭게 방의 한쪽끝에서 한쪽끝으로 왔다갔다하였다. 자기의 예상이 왕청같이

틀려지고 어긋나 그는 아연실색할 지경이였다.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이 틀렸을 때 챨스처럼 그렇게도 괴로와하는 인물은 이 세상에 드물것이다. …

방안으로 해리슨이 챨스의 기분을 살피면서 어깨를 구부정하고 들어섰다.

《챨스각하, 어떻게 됐습니까? 그놈이 종시 굴복했는가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빨갱이놈이요!》 하고 챨스는 자기도 모르게 탄식했다.

《각하, 이제는 그만 단념하는게 어떻습니까?… 제가 그놈을 속시원하게 탕을 쳐서 없애버리겠습니다.》

《아니, 아직은 내가 인내성을 가지고 그자를 돌려세우던가… 도고한 그놈에게 골탕을 먹여보겠소!》

챨스의 내심에는 여전히 심한 좌절감과 모욕감이 그를 괴롭히고있었다. 그는 악의에 찬 자기의 시선속에 해리슨을 끌어넣으면서 역시 악의가 느껴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리룡진을 다시 감방에 처넣고 가혹하게, 지독하게 족쳐대시오. 그러나 아직 죽여서는 안되오. … 그다음은 내가…》

그럴 때 해리슨의 부관이 손기척을 하고 조심히 방으로 들어왔다. 부관은 챨스에게 먼저 례의를 표한 다음 해리슨에게로 다가가 목소리를 눌러가며 조용히 보고하였다.

《북부면에서 리룡진귀순공작에 리용할 음전이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알겠소.》 하고 해리슨은 시답잖게 머리를 끄덕거렸다.

《지구주둔사령관!》

돌연 챨스가 두눈을 날카롭게 번쩍거리며 해리슨의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그 녀자를 서둘러 룡진의 감방에 들여보내지 마시오. 더 좀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그 녀자를 잘 준비시켜야겠소.》

챨스의 말쑥한 얼굴에는 야릇하고 미묘한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그 녀인이 리룡진을 돌려세우는데 매우 큰 역할을 했으면 하오. 지구주둔사령관!… 무슨 말인지 알만 하오?…》

찰스는 목소리의 억양보다도 말자체에 훨씬 많은 뜻을 담아 소리치듯 말했다.

37

룡진은 군데군데 웃옷이 찢어져서 상처가 그대로 드러난 잔등을 감방의 차디찬 세멘트바닥에 무겁게 눌러대고 쓰러져있었다. 온몸이 피투성이로 된 그는 자기의 강한 의지로써도 도저히 이겨내기 힘겨운 육체적고통의 심연속에서 간신히 의식을 잃지 않고있었다. 파도처럼 쉬임없이 몰려오는 지독한 온몸의 동통과 고열로 하여 불시에 그는 의식을 잃었다가는 어렴풋이 정신이 들군 하였다. 그는 오늘까지 벌써 며칠째 교형리들의 무시무시한 인간의 리성으로써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야만적인 고문과 폭행을 련속 겪었다. 포악한 교형리들은 그를 고슴도치처럼 만들겠다고 지껄여대면서 팔과 다리, 얼굴… 온몸에 수많은 바늘을 꽂았고 그의 귀를 베여냈으며 눈을 찌르고 어깨에 쇠못을 박는 짐승들도 얼굴을 붉힐 야수적인 고문을 감행하였다. 룡진은 몇번이나 오래동안 의식을 잃었었다. 교형리들은 검질기게 룡진의 의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는 또다시 중세기적인 고문을 들이대군하였다. 실로 별별 풍상을 다 겪어본 사람들조차 몸서리치지 않을수 없는 이러한 중세기적인 고문을 당하는 전기간 룡진은 단 한마디의 신음소리도 입밖에 내지 않았고 시종일관한 침묵으로 교형리들을 아연케 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여직껏 견디여온 자기자신까지도 내심 놀라웁게 생각되리만큼 강하고 억세였던 자신의 육체가 이제 더는 견디여내지 못하리라는것을 스스로 감촉하고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인간의 강인성, 인간의 의지는 그 어떤 육체적고통도 이겨낼수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였고 그렇게 믿어왔으며 또한 그렇게 오늘까지 이겨냈다. 체포되는 그 순간부터 현재까지 룡진은 온갖 정신적고통과 육체적고통, 유혹, 회유, 위협, 공갈, 야만적인 고문을 이겨내면서 홀로 적들과 싸웠다. 때로는 감방안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신심을 북돋아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만세도 웨치고 노래도 부르면

서 적들을 공포에 빠뜨리기도 했다. 그러나 야수적인 교형리들의 거듭되는 잔인무도한 고문을 신음소리 한마디없이 이겨내면서 룡진은 마지막힘마저 깡그리 빼여버렸던것이다.

(이제 더 육체는 이겨내지 못할것이다. 그러면…) 하고 룡진은 지독한 온몸의 동통과 고열에 시달리면서 생각했다.

(만약 이제 내가 또다시 적들의 악착한 고문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적들앞에서 신음소리를 내거나 비명을 지를런지도 모른다. 그런 초라한 모습을 적들에게 보인다면… 그것은 더없는 수치로 될것이다. …)

그렇게 가련해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순간 룡진은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존엄에 대한 모욕감과 치욕감으로 몸서리를 쳤다. 그렇다. 그것은 룡진에게 죽음과는 대비할수조차 없는 가장 무서운것이였다.

(차라리 이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야 한다. 때로는 죽음이 살아있는것보다 유익한 경우도 있지 않는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정황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것이 가장 옳은것이라고 룡진은 생각했다. 일단 그렇게 결심하자 심한 동통과 고열로 흐릿하고 어렴풋하던 그의 의식은 한결 선명해진듯 하였다. 밝아진 룡진의 의식속으로 문득 지나온 생의 토막토막들이 떠올랐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 생의 보람을 가슴뿌듯이 느끼며 일하던 잊지 못할 나날들… 룡진은 자기를 키워주고 이끌어주신 인자한 스승이시고 은인이시며 어버이이신 장군님의 사랑속에 살아온 지난날들을 회상했다. 그것은 룡진에게 죽어서도 잊지 못할 영광넘친 인생의 나날들이였다. … 이러한 값높은 추억은 룡진의 가슴속깊은곳에서 눈물이 솟아오르게 하는 힘이 있었다.

(장군님, 제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렵니다.) 하고 룡진은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그이께 말씀드렸다.

그 순간 룡진은 의식속으로 갑자기 번쩍 정신을 차리게 하는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갔다.

(목숨을 끊는것은 몇순간이면 충분하다. 서둘지 말라!)

그리하여 참아내기 힘겨운 모진 정신육체적고통으로 잠시동안 안정을 잃어버렸던 룡진에게는 드디여 이미 습관된 엄격한 자기통제의 기능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죽는것이 가장 편안한 그런 때조차 죽어서는 안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내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그렇다. 수많은 감방안의 공화국공민들과 로동당원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있으며 원쑤들도 주시하고있다. 나는 나의 고통을 이겨내고 뛰여넘어 최후의 순간까지 감금된 우리 사람들에게는 신심과 용기를 주고 적들에게는 혁명전사의 기개를 보여주면서 싸울수 있는껏 싸워야 한다. 나의 혈관에 피가 흐르고 내 심장이 고동치는 한…

룡진의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내내 지그시 감고있던 눈을 떴다. 상처입은 눈이 쑤셔대듯 아팠다.

감방안의 천정에는 전선줄로 얽어맨 촉수낮은 희미한 전등이 매달려있었고 감방구석들에는 어둠이 서려있었다. 저녁이 분명했다. 감방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였다. 이따금 어디선지 껄껄 웃어대는 미군병사놈들의 웃음소리와 누군지 감방복도를 이리저리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때로는 몇놈이 총들을 절커덕거리면서 어지럽게 복도를 지나갔다. 그때 멀지 않은 놈들의 취조실쪽에서 갑자기 울부짖는듯 한 나어린 처녀의 몸서리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룡진의 곁에서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 룡진이도 겨우 감방의 바람벽에 의지하여 일어나 앉으려는데 누군가 그를 부축했다.

비명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룡진은 나어린 처녀에게 힘을 주려는듯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격한 소리로 웨쳤다.

《처녀야, 원쑤놈들에게 굴복하지 말라!—》

그러자 삽시에 감방의 여기저기서 웨침소리들이 터져나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와 신심을 북돋아주는 노래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

질겁한 교형리놈들은 이쪽저쪽으로 불맞은 짐승처럼 뛰여다니며 고함을 질러대고 후려치고 총창으로 찌르고 나중에는 마구 총까지 쏘아댔지만 노래는 오래동안 계속되였다. …

그날 늦은저녁에 룡진이가 있는 감방안에서는 또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며칠전에 무슨 리유로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교형리놈들이 갑자기 석방하였던 임성욱목사가 다시 체포되여 감방으로 들어온것이였다. 그전보다 얼굴이 더 창백해지고 수척해진 그가 감방안으로 묵묵히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임목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가 무슨 《죄》를 짓고 놈들에게 다시 체포됐는가?… 놀라고 의아한 감방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의 소나기를 퍼부어댔다.

《임목사님, 목사님은 놈들을 규탄하는 무슨 발언이라도 했시까?》 하고 룡문면의 한 모범농민이 피멍이 든 얼굴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임성욱목사는 고뇌에 찬 창백한 얼굴로 아니라는듯이 조용히 머리를 저을뿐 응대가 없었다. 그는 집에서 가지고 들어온 묵직한 수수엿덩어리를 아무말도 없이 사람들앞에 내여놓더니 감방안의 컴컴한 한쪽구석으로 가서 정좌로 앉았다.

《목사님, 그럼 혹시 남몰래 무슨 련락이라도 했는가요?》 하고 이번에는 누군가가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꺼지게 한숨을 내쉬면서 석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나 임목사는 여전히 침묵한채 알릴듯말듯 고요히 머리를 저었다. 며칠사이에 머리가 온통 백발이 된 그는 그동안 말을 잃어버리기라도 한것 같았다.

《임목사님,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럼 놈들의 어떤 추악한 요구를 거절한 모양이구만요!》

누구인지 성미급한 사람이 어찌 보면 좀 실성이라도 한것처럼 보이

는 임성욱목사를 향해 총알처럼 빠른 어조로 말했다.

어둠속 어딘가를 응시하며 어떤 생각에 옴해있던 임목사의 시선은 조용히 감방사람들에게로 향했다. 그러자 순간 사람들은 그의 눈에 고뇌와 그리고 말로는 다 할수 없는 서글픔과 괴로움이 뒤섞여있음을 알아보았다기보다 느꼈다.

임성욱목사는 드디여 철문처럼 꾹 다물고있던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놈들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분은 좋이 지난 뒤 례배당에서 신도들에게 설교할 때처럼 침착하고 무한히 정중한 어조로 조용조용 말을 계속했다.

《놈들은 저에게 미군의 승리를 기원하는 면내 교인들의 기도회를 열고 거기서 설교할것을 강요하였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침묵했던 임성욱목사의 말이 떨어지자 감방안은 불시에 물가의 물결소리처럼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임목사님!―》 하고 룡진은 평소의 자기답지 않은 갈린 목소리로 말하면서 임성욱목사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가슴속에서 강렬하게 치밀어오르는 련민의 정과 우애의 정을 느끼며 뜨거운 눈길로 임성욱목사를 바라보았다.

(모진 고뇌와 번민으로 단 며칠사이에 임목사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였구나!… 한생을 례배당에서 목사로 살아온 이 사람은 준엄한 이 시절에도 놈들의 손에 죽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수 있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문득 룡진의 눈앞에 로회한 교형리 챨스의 무표정한 얼굴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임목사님, 정말 옳게 행동하셨습니다!―》

《도위원장님, 어찌 인간의 량심으로 야만들이고 악마들인 미국놈들의 승리를 기원하여 기도회를 열며 또한 거기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건 교회를 모독하는것이고 인간을 모독하는것이지요. 그리고 저로 말하면 공화국의 공민입니다. 한데 어찌 제 나라, 제 조국을 침략한 침략자놈들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까!―》

임목사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지만 부드러우면서도 굳센 그의 의지와 깨끗한 량심이 력력히 느껴졌다. 량심을 버리고 침략자 미국놈들의 편

에 서서 조국을 배신하기보다는 차라리 깨끗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임성욱목사의 행동은 룡진의 가슴을 뜨겁게 했다.

(공화국공민, 그렇다. 임성욱목사는 공화국 공민들중의 한사람이며 당당한 조국의 한성원이다!) 하고 룡진은 가슴후더운 감동을 느끼며 생각했다.

(임성욱목사는 청소한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는 가장 어려운 때에 공화국공민답게 살았다. 그가 바로 그처럼 량심적으로 행동한것은 해방후 5년간 우리 공화국시책의 정당성과 진리성, 정의의 위업이 종교인인 그를 감화시키고 이끌어온 결과일것이다!) 룡진은 돌연 자기 눈에 크나큰 긍지와 기쁨의 눈물이 솟아오르는것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임성욱목사의 손을 힘이 느껴지게 꽉 잡았다. …

음전은 자기 일생에서 지금 이 시각처럼 진정으로 가슴을 설레이고 흥분해본적은 아직 없었다. 일찌기 체험하여보지 못한 그런 강한 련민의 정이 그 녀자의 가슴에 가득차올랐으며 마음속에는 자기희생의 긍지감과 흡사한 감정이 부풀어있었다. 그 녀자는 그토록 강렬하게 만나보고싶은 룡진을 이제 곧 만나게 되는것이다. 그 녀자는 감방으로 들어가는 복도입구에 서있었다. 이제 미군병사놈들이 나타나서 그를 룡진에게로 안내할것이였다. 그는 온몸을 사로잡는 흥분으로 진정하지 못하고 서성거리고있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룡진을 만날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그 녀자는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에서 2일동안이나 지긋지긋하고 구역질나는 《공작방법에 관한 강습》을 참아냈었다. (물론 그사이에 지하조직에서 준 정찰과업을 수행하였지만.) 그 녀자는 맨 마지막에 사복입은 미국인을 (그는 찰스였다.) 만났었다. 그 사복입은 미국인은 음전에게 조용조용 말하면서도 깐깐히 캐묻고 타진했다. 그는 룡진이가 미국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만 표시하면 이제라도 훌륭한 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으며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음을 차근차근 설복하라고 중언부언했다. 그다음 매끈한 미국인은 룡진이를 설복하기로 결심한 음전의 결단에 자기는 큰 고무를 받았다고 말했다. 사복한 미국인과의 대화는 간단히 끝났다.

《성공을 바라오, 부인!》 하고 사복한 미국인은 걸상에 앉은채 머리를 끄떡했다.

(개수작말아, 악랄한 승냥이놈아!) 음전은 마음속으로 웨치면서 복도로 나왔었다. 사실 룡진을 만나기로 결심한 음전의 결단은 그 녀자의 생활에서 중대한 변화를 의미하는것이였으며 진정한 새생활의 출발을 의미하는것이기도 했다. 그 녀자는 늘쌍 자기는 룡진을 만날 면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었다. 그렇기때문에 그 녀자는 해방후부터 룡진이가 인민정권기관들에서 책임일군으로 사업할 때에는 그를 만나기를 피하였으며 그에 대한 생각을 잊으려고 애썼으며 또한 자기자신도 은연중 잊고있다고 믿고있었다. 동시에 그는 자기의 하잘것 없는 생활은 이미 끝장난지 오래다고 생각하고있었다. 그런데 얼마전 룡진이가 체포되여 고문을 당하고 악형을 받고있다는 소문을 듣는 순간 전류같은것이 음전의 전신을 홱 돌았다. 어떤 무서운 힘이 아플 정도로 그 녀자의 심장을 때렸다. 그는 무서운 아픔을 느꼈다. 그러고보면 그 녀자가 잊으려고 하였고 또 잊었다고 믿었던 룡진에 대한 생각, 불우한 그 녀자의 인생에서 첫사랑이자 마지막사랑이였던 룡진에 대한 생각은 그자신도 모르게 오랜 세월 어딘가 가슴속 맨밑에 깊이 숨어있었던것이다.

(그가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울가?…) 하는 생각은 그 녀자를 줄곧 괴롭혔다. 룡진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 한몸을 바쳐 죽는것이 마음편하고 행복할것이라고 그 녀자는 스스로 생각하고있었다.

(그를 구원할수만 있다면… 나의 하찮고 괴롭기만 한 목숨을 바쳐도 아까울것이 없으련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그는 가만 앉아있을수가 없었다. 음전은 더욱더 걷잡을수없이 새삼스럽게 타오르는 련민의 정으로 속이 탔다. 그 녀자는 자기가 존경하며 잊을수 없는 그에게 악형을 가하고 고문하는 침략자들과 반역자들에 대한 분격이 터져오르는것을 참을수 없었다.

(그이를 구원할수만 있다면! 그이의 고통을 덜어줄수만 있다면!…)

그에게 악형을 가하는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강렬한 분노가 터져오르기 시작하자 지금까지 이미 오래전에 끝장났다고 생각하였던 그 녀

자의 생활은 눈을 떴다. 그리하여 음전은 잔인한 바보인 남편과 헤여졌으며 순애를 통해 지하조직에 망라되였던것이다. …

미군하사관놈이 복도로 나와 까닭모르게 히죽히죽 웃으면서 음전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하였다. 음전은 미군하사관놈을 따라 컴컴한 복도를 지나갔다. 복도의 량쪽으로는 감방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괴로운 신음소리며 치고 때리면서 고문하는 소리가 들렸다.

음전은 어둠에 익숙되지 못한채 더듬거리면서 걸어갔다. 어딘가 멀지 않은 앞쪽에서 쇠살창 벗겨지는 소리가 아츠럽게 들려왔다.

《리룡진!—》 하고 미군하사관놈이 째는듯 한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음전은 불시에 가슴이 후드득 뛰였다. 그는 흠칫 멈춰섰으나 자기를 다잡으려고 애쓰면서 정신없이 앞으로 걸어나갔다.

《자, 들어가서 마음껏 이야기하라!》

미군하사관놈은 다 알고있다는듯 음전에게 한눈을 찡긋해보이더니 무엇이 유쾌한지 껄껄 웃어대고는 뚜걱뚜걱 복도를 울리며 걸어갔다.

음전은 선뜻 감방안으로 들어서기는 하였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어두컴컴한 감방안에서는 전혀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조금후에 어둠이 익숙되자 그는 뒤창밑의 바람벽에 등을 기대고 누군가 조용히 앉아있는것을 보았다. 그 사람은 누가 누군지 전혀 알아볼수 없으리만큼 퉁퉁 부은 얼굴에 가느다랗게 뜬 눈으로 이쪽을 응시하고있었다.

음전은 그가 룡진인지 아니면 딴사람인지 알아볼수가 없었다.

(이건 무슨 일인가?!…)

갑자기 그 녀자의 가슴에 무서운 공포와 불안이 부풀어올랐다. 그런데 퉁퉁 부은 사람은 아무런 반응도 없이 꼼짝않고 그 녀자쪽을 묵묵히 주시하고있었다.

《저… 도위원장동지예요?》 하고 음전은 자신도 모르게 불안으로 몸을 떨면서 물었다.

《그렇소, 내가 리룡진이요.》

잘 울리는 그 목소리는 대뜸 그 녀자를 앞으로 이끌어갔다. 그것은 귀에 익은, 지금까지 음전이가 잊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잊지 않고있던

룡진의 목소리였다.

《저예요! 음전이예요!》 하고 그 녀자는 건너뛰듯 불시에 룡진의 앞으로 다가서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나직이 웨쳤다.

《어떻게 된 일이요? 음전동무!》

룡진은 여전히 까딱않고 그 녀자를 놀랍게 바라보았다. 조금전 교형리놈들이 불시에 달려들어 자기를 스산한 독감방으로 옮기게 했을때 그는 놈들이 이제 무엇인가 새로운 타격을 가해오리라고 이미 예견하고있었다. 그렇기는 하였지만 천만뜻밖에도 음전이가 나타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것이다.

《만나보고싶어서…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음전은 갑자기 룡진의 앞에 절을 하듯 무릎을 꺾으며 주저앉아 머리를 숙였다. 그는 생을 갱신한 밝고 힘찬 모습으로 룡진의 앞에 나서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 모든 생각은 뒤로 물러가고 몰라보게 터지고 으깨여지고 퉁퉁 부은 룡진의 얼굴만 보였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가? 그처럼 훌륭하고 그렇게 대바르고 그렇게도 선량하고 고상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그 녀자는 두손바닥으로 얼굴을 싸쥐고 소리없이 울었다. 그의 손가락짬사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녀자는 자기가 항상 잊으려고 하면서도 종시 잊지 못하였으며 또한 잊을수도 없는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든 원쑤놈들에 대한 분노와 증오와 울분을 누를수 없었다. 만약이 순간에 교형리놈들이 가까이에 있었더라면 나중에는 어찌되든지 그 녀자는 물고뜯어서라도 속시원히 보복하려고 놈들에게 무작정 달려들었을것이다.

《그만하오, 음전동무…》 하고 룡진은 돌연 목이 메여오르는것을 느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음전은 그냥 흐느끼며 울었다. 그 녀자의 진정에 찬 나직한 울음소리는 룡진의 눈앞에 아득히 흘러간 옛 추억들을 원색그림처럼 떠오르게 했다. … 청춘시절에 고향마을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없이 벗으로 처음 사귀였던 녀자, 허위와 진실, 부귀와 가난에 대해 이야기하며 푸른 꿈을 안고 걷던 파아란 달빛어린 고향의 동뚝길, 그때 접동새는 피를 짜내듯 목메이게 울었었지. … 그후 불우한 운명

의 희롱으로 낯모를 먼곳의 바보에게 시집갔던 음전이…
《음전이, 이젠 동무의 모습도 퍽 변했구만. …》
룡진은 자기도 모르게 나직이 한숨쉬고 빙그레 미소했다. 그 녀자는 가까스로 자신을 수습하면서 머리를 들었다.
《거기도… 변하셨어요.》
음전의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솟아오르고있었다.
《음전이, 그 행복하고 좋은 날들에는 어디 갔다가 이렇게 차디찬 감방으로 나를 찾아왔소?… 음전이!…》
서글픔과 괴로움을 눌러참는듯 한 룡진의 갈린 목소리는 그 녀자의 가슴을 쳤다. 음전은 예나 조금도 변함없는 진실과 정의와 열정의 인간인 룡진의 앞에서 울음이 터져나오려는것을 씹어삼키며 흐느꼈다.
《음전이, 난 일이 바쁘다보니 개인적인것들은 어쩔수없이 뒤로 미루어왔소. 한데 동무는 어째서 그렇게도… 하긴 음전이 잘못만도 아니지. …》
《아니예요!… 아니예요!—》 하고 음전은 흐느끼면서 조급히 말했다.
《모든것은 제가… 저의 생활은 끝났다고 생각한때문이였어요.》
그 녀자는 룡진에게 자신과 말하듯이 모든것을 숨김없이 말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정신적고민들과 번민, 괴로왔던 가정생활을 음전은 스스럼없이 털어놓았다. 그 녀자는 무슨 힘으로 일생을 두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할수 없을것 같던, 또 이야기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자신이 겪은 마음의 고통과 고민을 룡진에게, 감방에 있는 그에게 말하는지 자기도 놀라왔다.
《…이처럼 저에게는 그동안 어느 하루도 진정한 기쁨은 없었어요.》
침묵하고있는 룡진에게는 그 녀자의 말에서보다도 그 어조에서 더 큰 괴로움과 고통이 느껴지는듯 하였다.
음전은 치밀어오르는 오열을 겨우겨우 누르면서 말을 계속했다.
《그렇지만 요사이 저는 생활을 새로 시작한감을 느껴요. 저는 미국침략자놈들이 쥐여준 총을 메고 다니는 반역자가 된 그 사람과 얼마전에 영원결별했어요. 저는 집을 나왔고 지금은 저도 투쟁대오에 섰

어요!》

그다음 그 녀자는 적들이 자기를 강박하면서 도위원장을 돌려세우는데 협력하라고 지껄이던것을 알려주었다.

《음전이!—》 하고 룡진은 목이 꽉 메여오름을 느끼며 뜨겁게 불렀다.

음전은 고요히 머리를 들었다.

(음전이!—) 하는 룡진의 예전 그대로의 부름은 어딘가 아득히 흘러간 고향에서의 소년소녀시절들과 청춘시절을 단번에 회상시켰다. 그것은 아득히 먼 옛날에 있은 일같기도 하고 바로 어제 방금 있었던 일들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그러자 문득 오래동안 잃어버렸던 감각이 생생히 되살아나 그 녀자의 온몸을 휘감았다. 그리고 그 감각으로 하여 추억이며 희망이며 흥분이 마음속에 부풀어올랐다. 음전은 그토록 보고싶었던 룡진을 눈여겨 찬찬히 보았다. 룡진은 정말 무척 많이 변한것 같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음전에게는 그가 그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혀 변한데가 없는 예전의 그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동안 그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모진 고통을 겪었을가? 차라리 그 고통을 내가 겪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하자 음전의 눈에는 걷잡을수없이 눈물이 솟아올랐다.

(이보세요. 난 이 스산한 감방에서 위원장동무를 빼낼수만 있다면… 무슨짓이라도 하겠어요!)

룡진은 그 녀자의 눈빛에서 그러한 뜨거움과 열정을 감촉했다. 그는 음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싶었지만 생각과는 다르게 조용히 머리를 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눈물을 거두오. 놈들에게 절대로 우리의 눈물을 보여서는 안되오.》

《알겠어요. … 그런데 미국놈들의 고문은 별별 풍상을 다 겪어본 사람들까지도 몸서리를 치게 한다는데 어떻게 견디였어요. 저놈들은…》

음전은 전해들은 그 무서운 고문이야기를 차마 입밖에 내지 못했다. 그는 룡진이가 수없이 겪었을 그 고통을 생각하며 분노로 몸을 떨었다.

룡진은 자기가 어떻게 교형리놈들의 무시무시한 중세기적인 고문을 신음소리 한마디없이 이겨냈으며 그 힘이 무엇이였는지를 결코 말하지 않았다. 더우기 조국에 바치는 자기의 희생, 하려고 했던것, 실천한것들에 대해서는 일체 입밖에 내지 않았다. 요컨대 그는 자기자신에 대해서 말하는것을 극력 피했던것이다.

《그건 별로 큰문제가 아니요. 음전이, 이제는 헤여질 시간이 가까와오는데 내 말을 명심해서 듣소. 민족반역자놈과 결별한건 백번 잘한거요. 그리고 싸우는 대오에 서있다니 정말 기쁘오. 조국이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렇게 싸워주오. 음전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싸울수 없을가요? 감방을 탈출하여 구월산으로 가자요. 지금 우리 조직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고 음전은 간절한 마음으로 열기있게 속삭이듯 말했다.

룡진은 침착하게 빙그레 웃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요. 그곳 조직에도 그렇게 말해주오. 나는 보다싶이 빠져나갈수 없소. 이제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나는 여기서 싸울수 있는껏 싸우겠소.》

《아니예요, 빠져나갈수 있어요!》 하고 음전은 나직이 소리쳤다. 그리고는 절절한 소망과 열정으로 가슴을 설레이면서 조급히 열에 떠서 말을 계속했다.

《저놈들은 자기들을 협력하겠다고 한마디 말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말했어요. 놈들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거짓약속을 하고 그다음에 기회를 타서 구월산으로 들어가면 될게 아니예요. 악마들을 속이는건…》

《음전이!…》

불시에 룡진의 눈에서 섬광같은것이 번쩍—했다. 그러나 그는 자제하듯 한동안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있었다.

《부탁하오. 두번다시 그런 말은 입밖으로 내지 마오. 음전이, 내 말을 가슴에 새겨두오.》 하고 룡진은 음전이가 일생동안 잊을수 없을만큼 절절한 어조로 말을 보탰다.

《인간의 절개는 사랑과 우정에서도 중요한것이지만 자기 수령과 자기의 조국앞에서는 생명보다도 더 귀중한거요. 절개가 있어서 인간이고 신념이 있어서 당원인거요. 음전이, 명심하오. 절개를 꺾고 신념

을 버린 인간은 살아있어도 죽은 인간이지만 절개를 지키고 신념을 간직한 인간은 죽으면서도 영원히 사는것이요. 음전이, 원쑤놈들앞에서는 거짓변절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오. 그건 너절하고 수치스러운거요. 우리 조선사람들은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사는 존엄을 백분의 한순간도 더럽혀서는 절대로 안되오. … 믿음은 삶과 같은거요, 한번 꺼져버리면 다시 소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소. 음전동무…》

그 녀자는 자기 생애에서 결코 잊을수 없는 중대한 순간에 있음을 심장으로, 피부로, 온몸으로 느끼고있었다. 그는 무어라고 말할수 없는 감동으로 몸을 떨면서 룡진을 지그시 바라보고있었다. 그 녀자는 자기가 받은 무언가의 커다란 감동이 룡진에 대한 존경인지 부러움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큰것인지 그자신도 지금은 알수 없었다. 그 녀자는 자기의 눈에 눈물이 흐르고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있었다.

(알겠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드랬어요. 꼭 명심하겠어요!) 하고 음전은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음전이, 동무에게 내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있소.》

룡진은 그 녀자의 눈을 마주보면서 웬일인지 얼마간 목소리를 떨며 말했다.

《뭐예요! 어서 말씀하세요. 저는 뭐든지… 거기 부탁이라면 불속에라도 뛰여들겠어요!》 하고 그 녀자는 열기있게 나직이 웨쳤다.

《음전이, 구월산에서 싸우고있는 우리 동무들에게 나의 편지를 전해주오.》

《쓰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반드시 전하겠어요!》

룡진은 편지를 쓰기 시작하였다. 그에게는 지금의 정황에서 매일 매시간이 최후를 의미했다. 놈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 악형을 가할런지 모르는것이다.

룡진은 지금 최후를 앞둔 그렇듯 비상한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급히 써나갔다. 글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림잡고 썼다.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으로 하고싶었던 말들을 구월산인민유격대에 적어보내려는것이다. 그는 밖의 복도쪽에서 가까와오는 교형리들의 발자국소리를 들으며 서둘러 편지를 끝냈다.

《자 음전이, 이 편지를 빨리 품속깊이 간직하오!…》

음전은 눈물을 머금고 룡진의 편지를 받았다. 룡진이가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 그의 념원과 지향이 담긴 그 편지를 품속깊이 소중히 간직했다.

그 녀자는 억제할수 없는 힘으로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씻었다.

(그이는 놈들에게 눈물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했지. 그래, 눈물을 보여선 안돼. …)

철커덕!― 감방문이 열리더니 미군하사관놈이 멀쑥한 낯짝에 까닭모를 웃음을 띠고 째는듯 한 소리를 질러댔다.

《오늘은 그만하고 나왓!―》

그 녀자는 밖으로 나오려다가 문득 문앞에서 멈춰섰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룡진을 보고싶었다. 문앞에서 돌아선 음전은 뒤창밑에 침착하게 앉아있는 룡진의 모습을 가슴에 새겨두려는듯 오래동안 찬찬히 바라보았다.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음전은 눈앞에 안개라도 서린듯 차츰 뿌잇해져서 보이지 않았다. 그는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억제하느라고 입술에 피가 지도록 입을 사려물었다.

룡진은 태연히 몸을 일으키고 미소를 지으며 음전을 바래웠다. 그는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음전은 더욱 몰라보게 성장할것이라고 확신하고있었다. 일생을 두고 후회와 번민과 고통을 가슴속에 묻고 살아온 음전이, 이제는 그 번민과 슬픔, 고통을 이 시련속에서 시원히 터뜨리고 그는 보람차게 살며 싸워나갈것이다.

(음전이, 잘 싸워주오. 그리고 부디 행복하시오. 살아서 오래오래 행복을 누리오.)

룡진은 그 녀자의 인생에 행복이 있기를 마음속으로 바랐다. …

어느새 밤은 지나고 날이 밝아오고있었다. 이른새벽부터 온 하늘은 엷은 안개가 뽀얗게 끼여있었다. 안개 낀 그 하늘에는 해가 뜨기전에 저쪽등성이너머로 보이는 야산우에 눈부신 한 쪼각의 장미빛구름이 떠올랐을뿐 검은구름 한점 보이지 않았다. 동녘의 해살을 받은 그 구름

은 진홍색빛을 내뿜는것이 마치 피를 토하는것 같았다.

음전은 리룡진의 마지막부탁… 구월산인민유격대에 보내는 그의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신천읍의 골목길을 걷고있었다.

(내 일생에 잊을수 없는 그 사람!… 리룡진은 이제 희생될것이다. 만약 나의 죽음으로 그를 살릴수만 있다면!… 그래, 내가 죽고 그는 살아서 투쟁을 계속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하는 비통한 생각이 지금 음전의 가슴을 련속 아프게 찌르고있었다. 그는 이발을 사려물고 비통함을 누르면서 구월산을 향해 신천읍을 빠져나왔다.

이제부터 화산리쪽으로 해서 구월산으로 가는것이 가장 빠르다는것을 직감하면서 음전은 그 방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인적없는 길가와 벌판에는 사람사는 세상의것 같지 않은 침침하고 무거운 정적이 서려있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길가에 자란 다북쑥도 볼품없이 넘어지고 풀들은 된서리를 맞아 후줄근해졌다.

싸늘한 랭기가 온몸으로 파고드는 초겨울의 이른새벽이였다.

신천읍을 벗어나 벌판길을 걷는 지금 음전은 내심 무엇인가 자신이 한결 높이 올라서고 전진하였으며 달라진것처럼 생각되였다. 감방에서 만났던 리룡진의 투철한 신념과 고상한 인생관, 그의 행동과 언어에서 받은 충격과 감동은 음전을 강한 투쟁의욕뿐아니라 진정으로 참된 삶은 어떤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케 하는 힘이 있었다.

(그래, 그는 투철한 신념과 고상한 인생관을 가진 강의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너무도 일찌기 우리곁을 떠나가지 않는가!…)

음전은 줄곧 리룡진에 대한 생각에 옴한채 걷느라 어느새 화산리를 지나고 구월산가까이에 도착했는지도 몰랐다. 이따금 그는 자기의 등뒤쪽에서 이상한 인기척을 감촉하군 했으나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걸었다. 이제 그 어떤 놈과 맞다들어도 대결할만 한 배심이 있었다.

달구지바퀴자욱이 움푹움푹 패인 구월산밑의 길가에는 까마귀들이 겁도 없이 내려앉아서 소똥을 헤집고있었다. 음전은 피곤을 전혀 느끼지 않고 힘차게 구월산인민유격대본부가 있는 산성쪽의 산길을 오르기 시작하였다.

산길을 오를수록 험해지고 절벽들이 발밑에 아찔하게 내려다보였다.

바람에 흔들리는 솜터럭같은 엷은 안개가 소나무꽉대기들에 걸리면서 헤염치고 숲속의 공기우에 흘렀다.

음전은 문득 앞쪽 절벽우에서 이상하게 불쾌하고 메슥메슥한 냄새가 날아오는것을 느꼈다.

지금까지 맑고 신선하고 싸늘한 새벽공기를 호흡하며 여기까지 한번 쉬지 않고 뛰는듯 한 걸음으로 걸어온 음전이였다.

(이게 무슨 냄새인가?…)

잡관목숲을 꿰지른 오솔길을 빠져나온 음전은 앞의 자그마한 등성이에서 연기가 오르는것을 보았다. 고약한 냄새는 거기서 풍겨오고있었다.

음전은 내심 놀라며 우뚝 멎어섰다. 무드기 쌓아올린 언 흙우에서 젖은 삭정이들이 그물그물 타고있는데 그앞에서 누군가 땀과 습기로 젖은 어지러운 양말을 말리우고있었다. 더러운 양말을 말리우던 사람이 그물그물 타는 삭정이내내에 기침을 하며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음전은 다시한번 놀랐다. 뜻밖에도 그는 《치안대》완장을 두른 이전 남편인 만수였던것이다. 구지레한 코털이 비죽이 나오고 광대뼈가 두드러진 얼굴에 흡족한 웃음을 짓고 만수는 음전을 바라보고있었다.

《음전이!… 이 쌍년아, 넌 나를 여기서 만날줄 몰랐지?…》

《…》

음전은 너무도 기가 막혀 말을 못했다.

(이놈이 어떻게 여기에?)

《이 쌍년아, 네년은 내가 신천읍에서부터 뒤꿈치를 밟듯이 따르는걸 몰랐지, 헤헤. … 그러다가 내가 앞질러와서 네년을 기다렸어. 난 네년이 구월산빨갱이들한테로 갈줄 알았단 말야!…》 하고 만수는 장한듯이 총을 잡고 히죽거리며 불무지앞에서 일어섰다.

《이년아!… 너 지금 분명 구월산빨갱이들한테로 가지?》

《그렇다! 그럼 어쩔테냐, 이 악착한 놈아!》 하고 음전은 자기도 모르게 주저없이 내쏘았다.

《무슨 주둥아리질이야!—》

만수는 발끈 성을 내며 지하족코숭이로 타고있는 삭정이를 걷어찼다.

《네년이 빨갱이들과 밀려다닐줄 내가 알았어. … 그래서 넌 여기서 죽어야 한단 말이야!—》

만수는 제꺽 총을 음전에게로 겨누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나하고 같이 다시 살겠다고만 하면… 다 용서하고… 음전이,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고… 나하고 같이… 산을 내려가자구.》 하고 만수는 자신없이 말마디를 잡아뽑기라도 하는것처럼 떠뜸거렸다.

음전은 불이 붙는듯 한 번쩍이는 눈길로 놈을 쏘아보았다.

《개수작말아!… 너따위는 이 세상에 애당초 나오지부터 말았어야 할 쓰레기야!—》

《뭐야?… 아, 이 쌍년이!—》 하고 놈은 발밑에다 털모자를 벗어메여치고 가슴이 빠개지기라도 하는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그 서슬에 놈의 짐승의것처럼 삐죽한 이발에 침이 자개빛으로 어른거렸다.

《쏠테다!… 난 쏜다면 쏘는 사람이야!… 네년을 여기서 쏴죽일테다!—》

이발사이로 짜내듯이 악착하게 소리를 질러대며 놈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음전은 슬며시 눈을 감았다. 그러나 떨리지는 않았다.

(내 저따위 추물한테…)

그런데 순간 탕!… 야무진 총소리가 나면서 갑자기 만수가 비명을 질렀다.

《아이쿠… 아이구, 나 죽는다아—아…》 하고 쳐들었던 총을 철썩 떨어뜨린 놈은 쓰러져 이리저리 딩굴며 꿈틀거렸다.

(?!…)

음전은 눈을 번쩍 떴다.

그 순간 그는 벼랑이 있는 숲쪽에서 리인민위원장 조영모의 아들 철수와 임목사의 딸 순애가 뛰여나오는것을 보았다.

그들은 아마 돌무지 마을쪽에서 이곳 구월산으로 올라오던 모양이였다.

《음전언니, 얼마나 놀랬어요?》 하고 순애가 달려와 음전을 끌어안았다.

《순애선생… 고마와.》

음전은 눈물을 머금고 순애와 그곁의 총쥔 철수를 쳐다보았다. 그다음 즉시 쓰러져 딩구는 만수에게로 다가가 놈이 떨어뜨린 총을 잡았다.

《이 인간쓰레기야!… 일어서라, 썩!―》 하고 음전은 분노로 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음전이… 살려달라구, 제발 살려달라구!―》

만수는 피흐르는 오른손을 왼손으로 부여잡고 애걸복걸하며 몸을 꿈틀꿈틀 떨었다.

《이 악착한 바보야, 너는 이미전에 죽었어야 할 인간쓰레기야!―》

음전은 엄한 눈길로 놈을 쏘아보며 방아쇠를 당겼다. 총소리와 함께 만수는 짐승의 비명같은 괴이한 소리를 질러대며 절벽아래로 굴러떨어졌다. …

사위는 고요하였다. 바람에 안개가 서서히 걷히자 떠오르는 아침해가 비쳐드는 숲속의 나무들은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해빛은 총을 틀어잡고 서있는 음전의 모습을 환히 드러냈다.

《음전언니!―》

《음전아주머니!―》

순애와 철수가 깊은 생각에 잠겨 우뚝 서있는 음전에게로 다가왔다.

총잡고 선 음전은 침묵하고있었다. 이윽고 그는 구월산인민유격대 본부가 있는 산성쪽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의 뒤로 순애와 철수가 숲을 헤치며 따르고있었다. 잠을 깬 산새들이 이곳저곳에서 푸릉푸릉 날아예며 우짖고있었다. …

38

맵짜게 춥고 흐린 날이였다. 낮추 드리운 시커먼 하늘에서는 쿡쿡 찌르는 싸락눈이 내려꽂히듯 떨어지고있었다. 방향을 잡지 못한 바람은 갈팡질팡 이쪽저쪽으로 몰려가고 몰려오군 했다.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 앞뜨락에는 미군병사놈들이 고함을 질러대면서 감방안의 사

람들을 모두 끌어내고있었다. 얼어붙은 큰 뜨락을 꽉 채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감방에서 끌려나왔다. 뜨락 왼쪽의 둔덕에는 미군병사 몇놈이 기관총을 걸어놓고 긴장한 표정으로 감시하고있었으며 사방에서 군견들이 사납게 짖어대고있었다. 그뒤에는 완전무장한 미군병사들과 경찰, 《치안대》들이 삼엄하게 진을 치고있었다. 놈들은 혹독한 고문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사정없이 끌어내였다.

뜨락으로 끌려나온 모든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며 이제 무자비한 총성이 뚜루룩거리리라는것을 대뜸 느꼈다. 놈들은 뜨락으로 끌어낸 사람들을 모두 줄지어 서게 했다. 그런 다음 해리슨이 돌진이나 하는듯 한 걸음으로 어깨를 구부정하고 걸어나왔다. 현관계단우에서 문득 멎어선 해리슨은 부관에게 뭐라고 나직하니 명령하였다. 부관은 즉시 몸이 육중한 미군하사관을 손짓으로 불러 함께 어디론가 사라지더니 조금후에 룡진을 끌고 사람들앞으로 걸어왔다.

룡진은 눈을 뜨고는 차마 볼수 없을만큼 참혹하게 얼굴이 부어오르고 옷은 갈기갈기 찢어져 상처입은 맨살이 군데군데 드러나있었다.

두손을 늘 그러듯이 뒤에 모두어잡은 해리슨은 영문모를 잔인한 미소를 입가에 떠올리며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너희들은 오늘 모조리 총살된다.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것이다. 그에 앞서 죽음을 눈앞에 둔 너희들에게 한가지 말해둘것이 있다.》 하고 해리슨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말하는듯 한 어조로 웨쳐댔다.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부 2층앞의 뜨락에는 조그마한 소리도 잘 울려퍼지는 추위에 언 적막이 서려있었다. 해리슨은 그 회색의 잔인하고 포악한 시선으로 위협하듯 뜨락의 사람들을 쭉 살폈다. 그의 황소와 같은 굵다란 목은 여느때보다도 더 실하고 육중해보였다.

《너희들앞에 서있는 저 사람을 똑바로 보라. 그가 누군지 알겠는가?》 하고 해리슨은 두손을 뒤에 모두어잡은채 시선으로 룡진을 가리키면서 급히 말을 계속했다.

《바로 저 사람이 너희들의 도위원장이였던 리룡진이다.》

해리슨은 피뜩 2층창가에서 뜨락을 내려다보고있는 챨스의 차디찬 시선을 느끼며 그가 내린 지령대로 지껄여댔다.

《이 최후의 시각에 누구든지 이 사람의 면상에다 가래침을 뱉고싶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서라. 그러면 우리는 침을 뱉은 사람은 누구든 살려주겠다는것을 명백히 언명한다!》

조금 사이를 두었다가 해리슨은 억양을 높여 말을 계속했다.

《서슴지 말고 누구든지 나오라! 우리는 약속을 정확히 지키는 사람들이다!》

해리슨은 뜨락의 사람들을 긴장하게 살폈다. 그의 거만하고 살기띤 시선은 매번 뜨락에 서있는 사람들의 랭랭하고 증오에 찬 눈길들과 부딪쳤다. 뜨락에는 여전히 얼음장같은 차거운 정적이 깃들어있을뿐이였다.

《이 마지막기회를 놓치지 말라. 이제 5분간 여유를 주겠다. 만약 5분이 지나간 다음에는… 후회하여도 필요없을것이다!》

해리슨은 그 무엇을 단호히 경고하듯 우로 쳐들었던 허연 손바닥을 홱 내려쳤다.

뜨락으로 끌려나와 모여선 사람들속에서 누군가 꺼지게 한숨을 내쉬였다. 그는 광훈이였다. 퉁퉁 부어오르고 찢기여 몰라보게 된 룡진을 띠여본 그는 자신이 더욱 죄스럽게 느껴졌다. 그리고 죽음을 앞둔 룡진이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앞에서 무참한 모욕을 당할수도 있다는 생각에 걷잡을수없이 몸이 떨렸다.

(모든것은 내가 허둥거리며 잘못 행동한때문이다. 그때 내가 어쩌면 그렇게 행동했을가? 내가 어쩌면?…) 하는 생각이 두세번 광훈의 머리속에 떠올랐다 사라졌다.

(나자신도 모르게 신념을 잃고 공포에 눌려 허둥거린때문이였지. 그래서 내가…)

광훈은 서서히 달아오르는 불우에 서있는것 같았다.

《없는가?… 3분이 지나갔다. 이제 2분이 지나면 그때는 모든것이 끝장이다!》

단호하면서도 포악한 해리슨의 목소리는 마지막사형선언처럼 무시무시하게 울렸다.

바로 그 순간에 광훈의 머리속으로 한가지 확고한 생각이 섬광처럼 지나갔다.

(최후를 앞둔 룡진을 그 누구도 무참히 모욕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 이것은 신념을 잃고 가련하게 허둥거린 내가 룡진에게 사죄할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일것이다. …)

잠잠한 뜨락의 사람들속에서 광훈이가 간신히 몸을 비척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그에게로 뜨락의 모든 사람들의 증오와 경멸에 찬 시선이 일시에 집중되였다.

(무슨 일인가?… 설마 그런짓까지 감히 저지르려는가?…)

그때 해리슨이 토막토막 말을 끊으며 소리를 질러댔다.

《좋다— 네가 침을— 뱉겠는가?—》

취한 사람처럼 반반한 뜨락에 발을 걸채면서 비청거리며 걸어나온 광훈은 입을 꾹 다물고있었다.

광훈은 죽음을 앞둔 마지막시각에 룡진에게 무엇인가 말하고싶었다. 그래 그는 룡진의 앞으로 힘겹게 다가갔다.

《개자식, 더러운놈!—》 하고 누군지 이발을 갈면서 광훈이가 침을 뱉으려는줄로 잘못 알고 성급히 광훈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뒤따라 뜨락의 사람들속에서 분노에 찬 욕설들이 터져나오고 웨침소리가 들렸다.

《조용하라!》 하고 해리슨은 군용반외투주머니안의 권총을 틀어잡으면서 고함쳤다. 뒤이어 사방에서 군견들이 사납게 짖어대고 어딘지 멀지 않은 곳에서 뚜르룩거리며 위협하는 기관총소리가 들려왔다.

광훈은 죽음을 앞두고 룡진에게 무엇인가 말하려고 비청거리며 걸어나왔으나 선뜻 가까이로 다가서지 못했다. 그는 몰라보게 부어오르고 처참하게 찢기고 터진 룡진을 바라보면서 가늘게 온몸을 떨었다. 무엇인지 아직까지 자신도 모르고있던 가슴속 밑바닥에서 통곡이 터져나오려는것을 느꼈다. 그리고 웬일인지 룡진은 그의 지척에 서있었지만 광훈에게는 아득히 멀리에 서있는것처럼 생각되였다. 광훈은 이 최후의 시각에 친구였고 오랜 벗이였으며 상급일군이였던 그에게, 자기가 신념을 잃고 비겁하게 행동한때문에 체포된 룡진에게 마지막으로 사죄하고싶었다. 사실 그는 감방에서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에도 마

음이 괴롭지 않는 때가 없었다. 자기가 저지른 씻지 못할 죄를 두고 그는 번민하였으며 괴로와하였다.

그런데 이제 룡진이앞에 진 죄를 얼마간이라도 씻을 기회가 마침내 닥쳐왔다고 광훈은 생각했던것이다.

(나는 죽기 전에 그에게 인간답게 사죄해야 한다!)

룡진에게로 비청거리며 가까이 다가서던 광훈은 흠칫 몸을 떨면서 멈춰섰다. 그것은 부어오른 룡진의 얼굴, 가느다랗게 보이는 룡진의 시선속에서 무엇인가 전률할만 한것을 보았다기보다 느꼈던때문이였다. 몸을 곧추 펴고 태연히 서있는 룡진의 고요한 시선이 자기, 광훈을 조용히 주시하고있었다. 바로 그 고요한 시선속에 말로는 다 할수 없는 많은 뜻과 의미가 있었다.

《뭘 주춤거리는가!－》

채찍으로 잔인하게 후려치는듯 한 해리슨의 광기어린 호령소리가 날아와 광훈의 온몸에 칭칭 감기는듯 했다. 광훈은 번쩍 정신을 차렸다. 그는 마치도 속에서 무엇인가 끊어져나가는듯 한것을 느꼈다. 불현듯 치밀어오르는 오열에 온몸은 떨리고 목구멍은 쥐가 일어 죄여들었다.

광훈은 조급히 룡진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제는 그들 두사람이 불과 반발자국을 사이에 두고 마주섰다. 정작 룡진이와 마주서자 광훈의 입술은 뭐라고 말하려는듯 실룩거렸으나 말을 못했다. 그때 문득 강철문처럼 꽉 다물었던 룡진의 입이 열리더니 잔잔한 말소리가 울려나왔다.

《광훈이, 조그마한 인간적량심이라도 남아있다면 내 말을 명심해 들으라구… 내 얼굴에 침을 뱉는건 나를 백번천번 죽이는것보다 더 무서운짓이야. …》

그 어떤 분노도 악도 저주도 흥분도 느껴지지 않는듯 한 조용하고 나직나직하게 울리는 말소리였지만 광훈에게는 포탄이 날아와 터지는듯 했다. 광훈은 이 마지막순간마저 몰리해당한 절망감에 눈앞이 캄캄했다. 모든 사람들한테서 버림을 받고 량심의 가책으로 잠못이루며 고통속에 허덕이다가 마침내 결심품고 룡진을 도우려고 나왔건만… 광훈은 룡진의 앞에서 손을 휘저었다.

(룡진이… 그런게… 아니요. 나는 죽기 전에… 사람답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자고 했는데…)

그리하여 자기의 마지막 마음속 소원마저 이제는 몰리해당하고 사라졌다는 절망감이, 아직은 일생동안 들어본적도 없고 느껴보지도 못한 절망감이 무서운 힘으로 광훈을 후려쳤다.

《왜 어물거리는가?… 그래 네놈은 살고싶지 않는가!》

해리슨은 성급히 뚜걱거리며 다가서서 마치 잠을 깨지 못한 사람을 깨우기라도 하는듯 광훈의 멱살을 틀어잡고 마구 흔들어댔다.

광훈은 비청거리다가 쓰러졌다.

《일어섯! 이 가련한 놈아!—》

해리슨은 광적인 열기로 포악하게 광훈을 마구 짓밟기 시작했다.

그 순간 쓰러졌던 광훈이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듯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기를 짓밟은 해리슨을 무섭게 쏘아보았다. 빛이 꺼졌던 광훈의 눈에서는 이상한 빛이 번쩍거렸다. 불시에 몰라보게 달라진 광훈이가 독을 쓰며 쏘아보자 해리슨은 흠칫 놀라며 광적인 목소리로 웨쳐댔다.

《살고싶거든 어서 저놈의 면상에 침을 뱉아라!—》

《그래, 침을 뱉으마!—》 하고 광훈은 분명한 어조로 사납게 말했다. 그다음 광훈의 걸죽한 침이 해리슨에게로 곧추 날아갔다.

뜻밖의 봉변에 와뜰 놀랜 해리슨은 부르르 몸을 떨면서 군용반외투주머니에서 권총을 꺼내여 련발로 광훈을 쏘았다. 광훈은 몸을 비틀며 무엇을 잡기라도 하려는듯이 손을 뻗치고 비스감치 싸락눈우에 쓰러졌다. 그는 그렇게 숨졌다. 광훈의 감기지 않은 두 눈은 룡진을 바라보고있었는데 마치도 《룡진동무, 나를 용서하여주오!》 하고 말하는것 같았다. 룡진은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가 광훈의 눈을 감겨주었다. …

《또 나설 사람이 없는가?》

해리슨은 악에 받쳐 묵묵히 선 뜨락의 사람들을 쏘아보며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증오와 분격에 찬 눈길들이 해리슨을 마주 쏘아보고있었다.

《좋다, 끌어가라. 너희들모두는 이제 저놈처럼 무자비한 죽음과 고

통을 맛보게 될것이다. 모두 총살이다. 나의 이 명령은 결정적이며 최종적이다.》

자주 그런 일이 있듯이 갑자기 광적인 열기로부터 차거운 랭담한 태도로 변하면서 해리슨은 나직하게 듣는 사람들이 몸서리칠만큼 또박또박 촘촘하고 하얀 이발새로 내쏘듯이 말했다.

뜨락으로 미군병사들과 경찰, 《치안대》들이 와르르 달려와 사람들을 마구 후려치고 발로 차며 그들을 다시 감방으로 끌고갔다.

잠시후에 뜨락은 텅 비였다. 싸락눈이 깔린 뜨락에는 사람들의 무수한 발자국자취만 남아있었다. 아직은 눈보라를 일으킬만 한 힘이 없는 가는 바람이 떨어지는 싸락눈을 엇비듬히 사선으로 눕히면서 몰아갔다.

해리슨은 조금도 악의가 덜리지 않은 눈으로 얼핏 2층창가를 올려다보았다. 거기에는 찰스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리슨은 찰스에 대한 경멸감이 끓어오르는것을 느꼈다.

(흥, 이런 꼴을 보자구?… 이따위 시시껄렁한짓은 뭣에 필요한가!—)

해리슨은 이제 당장 찰스에게로 뛰여올라가 이렇게 쏘아주고싶었다.

《여보시오, 당신의 그 현명한 지혜라는것이 바로 이런것이였소? 이제는 여러 말 하지 말고 어서 썩 물러가기나 하시오, 현명한 국무성나리!—》

해리슨은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울분과 원한을 가까스로 눌렀다.

(이제 그 국무성나리의 낯짝에 대고 보기 좋게 비웃어줄테다. 말공부쟁이!… 엉터리신사!… 숙맥!…)

해리슨은 찰스가 있는 2층으로 자신만만하게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제 그 국무성나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지 참 흥미가 있는걸.…)

방금 자기가 겪은 쓴맛을 잊어버린 해리슨은 세상에 저혼자 현명한체 하며 남을 깔보고 업신여기는 찰스의 마지막계책이 실패한것을 깨고소하게 여기면서 찰스의 방문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39

챨스는 무섭게 피로가 몰려와 쏘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채 눈을 감고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뜨락에서 벌어진 광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히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하였었다. 결국 자기의 최후계획마저 여지없이 실패하였다는것을 괴롭지만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인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정신이 지배하는가?)

그는 자기가 여지없이 패했다는 그것보다도 (그까짓것은 될대로 되라지.) 지금 다른것이 더욱 그를 괴롭히고있었다.

(그것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그 무엇인가가 분명 있다.)

단순히 공산주의에 대한 광신이니, 무지니 하는것으로는 단언할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다. 분석력있고 통찰력있는 그에게는 일반적인 그런 말로 이 사태를 어물쩍해서 넘길수 없었다. 때문에 그는 괴롭기는 하였지만 현재까지 겪은것들, 눈앞에서 직접 목격한것들간의 호상련관과 그 현상들의 본질을 파악하려고 애썼다. 챨스의 눈앞에는 퉁퉁 부은 룡진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앞에서 침을 뱉지 못하고 눈먼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오히려 해리슨의 면상에 더러운 침을 뱉고는 마침내 총살당한 사람 그리고 뜨락에 까딱않고 서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원색그림처럼 떠올랐다. 결국 마지막으로 걸어보았던 계책마저 여지없이 무참하게 실패했던것이다. …

자기과신적이고 깐깐한 장사군처럼 실무적이며 통찰력있다는 챨스였지만 아연했다. 그의 얼굴은 죽은사람의 얼굴처럼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까딱 움직이지도 않았다. 퉁탕거리며 2층으로 올라오는 해리슨의 군화발소리도, 해리슨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도 전부 느끼고있었지만 챨스는 꼼짝않고있었다.

《챨스각하!》 하고 해리슨은 죽은듯이 꼼짝않고있는 그에게 다가섰으나 챨스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챨스각하! 이제는 리룡진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찰스는 번쩍 머리를 들었다. 해리슨의 물음이 깍듯하고 례절겨운 어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찰스는 괘씸하게 여겨졌다.

(실패한 나를 비웃는건가?)

그러나 찰스는 못 본체하였다. 사실 리룡진을 이제는 귀순하리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하며 처리해야 하는것이다.

(그래, 행동해야 하며 일해야 한다.)

찰스는 비꼬는듯 한 미소를 짓고 서있는 해리슨의 우직하고 조폭한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약이 올랐으나 눌러참았다.

《해리슨!－》

벌떡 쏘파에서 몸을 일으킨 찰스는 생각을 토막치듯 방을 걷기 시작했다.

《리룡진을 이제는 당신이 처리하시오.》 하고 찰스는 우직스런 해리슨을 넌지시 바라보며 말했다.

해리슨에게는 한없이 싹싹하고 명랑하다가도 순식간에 차겁고 사나와지군 하던 찰스의 파르스름한 눈빛이 이제는 빛이 꺼지고 멍청해진것처럼 느껴졌다.

《지구주둔사령관, 어디 당신의 전문인 야수성을 시원하게 실현해보시오.》

찰스의 이 말속에는 야유도 있고 진담도 있는듯 하였다.

해리슨은 잔인한 만족을 느꼈다. 무엇인가 경기에서 이긴 때의 기분으로 찰스의 우울해보이는 얼굴을 띠여보면서 해리슨은 빙그레 웃었다.

《그러니 이제는 저의 견해에 공감하신단 말이지요. 국무성나리, 당신은 비참하게 패했소.》 하고 혀끝까지 나왔던 말을 해리슨은 삼켜버렸다. 그러나 해리슨의 눈과 얼굴에는 《말공부쟁이!》, 《엉터리신사!》라고 비웃어주고싶은 심정을 숨길수없이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었다.

《여보, 해리슨!…》

찰스는 얼음쪼각을 내밷듯 차겁게 쏘아붙이며 해리슨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는 당장 권총을 뽑아들고 해리슨을 쏘아죽이고싶은 분노가 솟아오름을 느꼈다.

(저 우악하고 단순한 백정같은 작자까지 나의 실패를 드러내놓고 야유한단 말인가!…)

챨스는 무섭게 얼굴을 이그러뜨리고 해리슨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그는 지금까지 오직 인내성과 (그는 항상 자기의 인내성을 실험해보기를 즐겼다.) 그에게 고유한 사교성으로써 표면상의 침착을 유지해왔으나 지금은 분노를 누를길이 없었다. 챨스는 해리슨의 코앞에까지 다가갔으나 스스로 자기를 자제하였다. 그러나 금시 홱— 해리슨에게로 눈을 들어 이상하게 달라진 눈길로 찌르듯이 그의 동공을 들여다보면서 빠른 말로 내쏘았다.

《나는 당신사고의 치졸성과 미개성이 놀랍소!—》

챨스의 목소리와 눈에서는 감출수 없는 분노와 불만과 유감과 눌러참고있는 노여움이 느껴졌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해리슨을 등지고 말없이 오래동안 침묵했다. 해리슨은 이제 자기는 나가야 할지 아니면 챨스가 무슨 말을 더 하려는지 알수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챨스쪽에서는 해리슨의 존재따위는 잊어버린듯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한참후에 챨스는 해리슨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그러나 명령하는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룡진에 대해서 당신이 하고싶은대로 마음껏 해보오. 그러나 마지막에 총살할 때는 치안대나 경찰들을 내세우시오. 거기에 미군은 그림자도 보이지 말아야겠소. 신천지구주둔 사령관, 내 말을 알아듣겠소?》

《잘 알겠습니다, 챨스각하.》

희열을 감추지 못하고 해리슨은 서둘러대며 밖으로 나갔다.

창가쪽의 쏘파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챨스는 눈을 감았다. 그는 마치도 자기가 더운물과 찬물에 번갈아 들어갔다가 나온듯 한감을 느꼈다. 피곤이 일시에 몰려들고있었다.

(리룡진… 저런 특유한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힘은 과연 무엇인가?)

챨스는 문득 누군가 성급히 방으로 들어서는것을 감촉하고 눈을 떴다. 젊은 소위가 (그는 챨스의 호위원이였다.) 무전테프를 들고 챨스의 앞으로 다가섰다.

《각하, 무전입니다.》 하고 젊은 소위는 울적한 기분으로 보고했다.

챨스는 젊은 소위에게서 길다란 무전문을 받아 읽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북상하던 미군부대들의 패전소식과 퇴각을 시작했다는 전선정황이 요약되여있었다.

(허풍쟁이맥아더!… 대포쟁이!—) 하고 챨스는 속으로 맥아더에게 쌍욕을 퍼부었다. 그는 방금 읽은 무전문을 꿍쳐던지고 또 다른 무전문을 읽었다.… 점령지역들의 시찰정형과 리룡진에 대한 《회유, 포섭》결과를 속히 보고할것이며 최대한 빨리 결속하고 돌아오라는 국무성의 지령이였다.

챨스는 두번세번 읽고나서 잠잠히 서있었다.

《챨스각하, 답전을 보내겠습니까?》 하고 젊은 소위는 침묵하고있는 챨스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챨스의 입술은 떨리고있었다. 그는 침착하려고 애쓰면서 소위에게 이렇게 응대했다.

《답전을 이렇게 치시오… 보고서를 현지에서 작성하고 떠날것이다. 2일후에 출발할 예정임. …》

챨스의 목소리는 웬일인지 침울하게 울렸다. 그는 젊은 소위가 방을 나간 다음 천천히 또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는 창밖에서 엇비듬히 사선으로 떨어지는 싸락눈을 물끄러미 내다보았다. 챨스는 며칠전 아침에 건강하고 좋은 기분으로 사업의욕에 불타면서 오로지 일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을뿐아니라 정말 자기가 모든 일을 죄다 성공할수 있다는 신심과 행복스런 마음으로 차를 타고 여기 소도시를 향해 달려오던 때를 회상하였다. 승용차안에서 내다본 불타버린 조선의 도시들과 마을들, 땅에서 곧바로 솟아오른듯 한 굴뚝들, 포탄과 폭탄으로 짓이겨진 오랜 동방의 나라… 이미 수의를 입은것처럼 눈에 덮인채 아직 치우지 못한 꽁꽁 언 시체들도 보였다. 그러나 챨스는 그 모든것에 무관심하였었다. 오직 하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려는 일념뿐이였다. 그는 그때 희망과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꽉 차있었으며 모든것이 용이하고 어렵지 않는것으로 생각했었다. 챨스는 무엇보다 자기의 능력과 수완을 믿었고 멸망직전의 약소국 관리였던 리룡진이 처한 현재의 비참한 상태… 그것이면 손쉽게 굴복귀순시킬수 있으리라고 생각

했었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자신만만한, 지어 즐거운 기분으로 이 작은 도시에 도착했던것이다. 사실 그때 챨스에게 있어서 조선에 대한 표상이란 두세가지에 귀착되여있었다. 그에 의하면 조선사람들은 문명에 접해보지 못한 미개국의 국민이며 현대과학기술에 대해 전혀 무식한 사람들이였다. 이러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에 그리피스가 쓴 《은둔국 조선》에서 읽은 표상만이 아니였다. 그동안 그는 조선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들과 최근자료들, 저서들을 읽었었다. 그런데… 리룡진에 대한 귀순공작은 실패했다. 지금은 파국이 입을 쩍— 벌리고있는것이다.

챨스는 창가에서 물러나 쏘파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는 그 거리를 연장하고나싶은듯, 무한대로 확대하고싶기나한듯 천천히 걸어갔다.

(그런데…) 하고 챨스는 생각을 계속 더듬어나갔다. 현대의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미군은 북상에서 실패하고 퇴각을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순수 군사적요인외에 또 다른 요인은 무엇인가. 수수께끼같은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점령지역에서도 조선사람들은 저항이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정황에서조차 굴하지 않고 년령, 성별에 관계없이 도처에서 저항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챨스자신이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겪었던 사실들과 하나의 고리로 련결되면서 무엇인가 그를 련속 괴롭혔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수수께끼같은 신비한것은?…)

챨스는 쏘파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그는 좀해서는 랭철성과 객관성을 잃지 않는 철저히 실무적인 인물이였다. 뿐아니라 수학적인 정확한 두뇌를 가진 챨스는 감각적인 론리에 의하여 일단 생겨난 의문을 그저 물리쳐버리지 못하는 성미였다. 지금 챨스는 자기의 패배를 구체적으로 미국무성에 제출해야 할 보고서작성보다도 (보고서작성도 괴로운 일이였지만) 그 수수께끼가 더 괴롭히고있었다. 챨스의 이런 고통스런 사색은 사실 정확한 통찰력의 산물이였다. 이제 얼마후면 미군은 전전선에서 참패를 당할것이였다. 많은 병력을 살상포로당하고 수천수만정의 저격무기들과 각종 포들, 전투기재들을 잃어버릴것이며 300～350키로메터나 퇴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얼마후에

겪게 될 이러한 참패에 대해서 미국출판물들도 그 패배가 얼마나 참혹한것인가를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쓰게 될것이다.

《…그것은 미국이 겪은 패배가운데서도 최악의 패배였다.》

《…성탄절무렵, 저 멀리서 벌어지고있는 전쟁은 자기들이 치른 남북전쟁과는 성질이 다르다는 새로운 불안이 미국국민을 휩쓸었다.》

《국민은 이상스러우리만큼 조용히 〈한국〉으로부터의 무시무시한 소식을 받아들이고있다. 암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거절하는 혼란, 공포, 사실의 반신반의 등 묘한 태도로, 진주만의 뉴스… 그것은 종소리와 같이 울려왔었다. 그러나 감각을 잃은 〈한국〉의 사실은 어수선하게 신문과 공보판, 성명서 등에 의해 갈피를 잡을수 없게 돼있다. …》

또한 얼마후에 당할 침략자들의 참패에 대해서 영국의 《에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쓰게 될것이다.

《잘 무장하고 기술적으로 장비되였으며 제공권과 제해권을 잡고있는 2개 강국(미영제국주의를 말함.)의 군대가 경무장을 가진 보병부대(인민군대를 말함.)앞에서 퇴각하던 광경을 아시아도 유럽도 잊지 못할것이다.》

미국과 영국출판물들의 이런 비명소리는 이른바 《크리스마스총공세》의 참패, 미군부대들과 15개 추종국 군대들이 겪은 참패와 공포, 절망, 마비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게 될것이였다. …

바로 이러한 징조를 《통찰력》있는 챨스는 지금 벌써 여기 현지인 조선땅에서 먼저 앞당겨 고통스럽게 예감하고있었다. 그의 머리속에 불쑥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사람, 피투성이 된 룡진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역시 한때는 한개 도의 장관으로 별별 행복을 다 맛보며 살아왔을것이다. 그런데…)

챨스는 담배를 피워물고 자기자신이 직접 목격한 룡진의 행동, 그가 침착하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자신만만하게 던졌던 말들을 회상하면서 처음부터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더듬어나갔다. 룡진의 말들과 행동속에서 챨스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어떤 신비하고도 보이지 않는, 수수께끼같은것을 풀만 한 열쇠를 찾아보려는것이였다. 그는 문

득 룡진의 이런 말을 회상했다.

《여기에 놀라울것은 없다. 도처에서 너희들의 앞길을 막고있는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들이다. 장군님의 사상으로 무장한 우리 인민의 힘, 이것이 바로 어디서나 너희들에게 맞서고있는것이다. 이 힘에 대해 너희들은 대포와 땅크외에 우리 공화국제도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밖에 아무것도 대치시키지 못하고있다.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흠모와 믿음이, 정의의 위업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 조선로동당원들과 매 공민들, 지어 어린 꼬마공민들에게까지도 힘을 주고있다. 세상에 이 믿음의 힘을 꺾을자는 없다!》

챨스는 갑자기 몸이 오싹하였다. 하얗게 타들어간 담배재가 그의 알른알른한 구두코숭이에 떨어져 부서졌다. 그는 쏘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총명》한 챨스는 자기가 론리적으로 설명할수 없었던, 지금까지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던 이상한 사태가 어렴풋이 리해되는듯 하였다. 병적이다싶이 기억력이 발달한 그의 머리속에 무심히 들었던 룡진의 말들, 그의 행동이 새로운 의미를 띠면서 전부 회상되였다. 조선인민의 불패의 힘에 대하여, 꺾을수 없는 신념과 절개에 대해서 확신에 넘쳐 말하던 리룡진… 이 모든것이 생생히 떠올랐다. 그러자 돌연 챨스는 그 어떤 위험한 심연앞에 서있는듯 한감을 느꼈다. 낯설고 신비한 동방의 조선, 이 나라의 산들과 강, 들, 진펄, 숲… 며칠전 차를 타고 지나오면서 무심히 보았던 그 모든것이 무섭게 생각되였다. 챨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지고 왼쪽어깨가 연송 떨렸다.

(바로 그것이였구나.)

챨스는 지금껏 자기 머리를 괴롭히던 수수께끼가 드디여 풀렸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수수께끼를 본국의 국무성이나 백악관, 월가의 정치가들이 정확히 아니, 전혀 알지 못할것이라고 확신했다.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내걸고 싸움에 나서서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바쳐 지키려고 하는 그 사상의 힘, 그 리상의 힘이 얼마나 큰것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체험해보지 못한 관리들과 정치가들은 절대로 리해하지 못하고 또 리해할수도 없을것이라고 챨스는 생각했다.

(나자신도 지금까지, 바로 방금전까지도 리해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

찰스는 이제 자기가 미국무성에 제출하게 될 보고서에 이 모든것을, 이 움직일수 없는 확실한 론리적증거를 숨김없이 솔직히 기술하는것이 자기의 의무라고 믿었다. 이 순간 그는 오직 힘만이, 무력만이 세계를 제패할수 있다고 확고부동하게 생각하고있는 본국의 정치가들이 어리석고 가련하게 생각되였다. 또한 그는 비행기, 땅크대수, 군대수자따위의 자료만 제공하고 인간들의 심리, 정신력, 보이지 않는 힘을 꿰뚫어볼줄도 모르고 분석도 못하는 미중앙정보부의 직원들에게 내심 쌍욕을 퍼부었다.

(해리슨 같은것들이 미중앙정보부에 들어박혀 돈이나 타먹고 빵이나 축내고있겠지. …) 하고 그는 구슬피 어깨를 으쓱했다. 그렇다, 그것은 구슬프고 비참한 일이다. 어째서 지금까지 모르고있었는가?…

찰스는 자기가 현지에서 직접 보았고 겪었던(그것은 귀중한것이였다.) 생동한 사실들에 기초하여 깊이있고 무게가 있고 분석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리라고 다시 속다짐하였다. 그는 자신의 쓰라린 실패를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는 보고서를 이처럼 서슴없이, 지어 즐거운 마음으로 쓰려는것은 비단 공명심과 개인리기심에서만은 아니였다. 하바드대학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찰스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의무와 복무를 귀중히 여기고있었던것이다. 지금 찰스의 머리속에는 미합중국의 오유, 세계전략에서 (구체적으로는 대조선정책에서) 범하고있는 극심한 착오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았다. 비록 자기는 리룡진을 굴복귀순시키는데 여지없이 실패하였지만 (그것을 주저없이 사실그대로 기술할것이다.) 바로 자기의 그 실패는 아메리카합중국의 정책상 오유에 응당한 경종을 울릴것이며 대조선정책에서 가치있는 교훈으로 될것임이 명백하였다. 그 가치있는 교훈은 찰스, 자기 실패의 쓴맛에 대한 무상의 보상으로 될것이다. 그리하여 찰스는 침착하고 지어 엄숙하기까지 한 마음으로 미국무성에 제출할 보고서를 쓰기 위해 책상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책상에 마주앉아 천천히 랭철하게 객관성을 잃지 않고 사실자료들을 정확히 분석하면서 보고서를 기술하기 시작하였다.

…리룡진을 굴복귀순시키려던 우리의 시도는 여지없이 파탄되였다. 그를(리룡진) 우리가 굴복시키고 쟁취한다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아니, 굴복시킨다는것조차 도저히 불가능한것이다. 나는 그가(리룡진) 무수한 고문과 참을수 없는 육체적고통을 받고 겨울의 차디찬 (조선의 겨울은 지독하게 춥다.) 세멘트바닥에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면서 비참한 처지에 빠진 자신을 수없이 느꼈으리라고 믿었다. 나는 또한 의무에 충실한 그의 인내성과 강인성을 자살적인 자기 학대라고 설명함으로써 지나치게 도고한 그의 자신심을 비웃었다. 한편 나는 그에게 육체적고통도 가혹하게 주었고 참기 힘든 정신적괴로움을 련속 들이대기도 하였으며 강한 유혹, 돈과 권력을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리룡진은 끄떡 안하였으며 조그마한 동요의 기색도 없었다. 그의 표현대로 하면 죽어도 살아도 일편단심은 변함없다는것이다.

나는 그의 어떠한 모욕적인 발언, 격분한 규탄에도 지그시 참았다. 마지막까지 나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와 대화하였다. 그러나 리룡진의 어떤 정황에서도 아주 침착하게 행동할줄 아는 지적힘과 정신의 힘을 도저히 감당해내기 힘들었다. 그의 고요한 시선에는 어느때나 순결한 용기와 태연과 침착함이 담겨져있었다. 확실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실망이란 있을수 없다는 그런 자세였다. 이따금 나는 화제를 바꾸어 일상적인 이야기를 꺼냈지만 우리의 대화는 자꾸만 막히고 마침내는 더이상 말을 계속할수가 없을 정도로 긴 침묵이 계속되군 하였다. 나는 긴장의 무거운 침묵을 음미케 하는 수단도 써보았다. 그러나 나자신의 인내력의 한계를 깨닫고 곧 심문을 중지하군 하였다. 나는 리룡진의 지혜, 사고의 생동성, 통찰력, 강철같은 의지, 불굴의 의지에 대하여 내심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

리룡진은 아시아인으로는 큰 키에 속하며 강철같은 탄탄한 육체를 소유하고있었다. 미남자인 그는 머리가 좋은데다 의지가 류달리 강했다. 그에게는 사람을 위압하는 엄한 시선이 있었으며 큰 눈우에는 널

직하니 검은 눈섭이 자리잡고있었다. 그의 몸움직임은 인품이 있었고 그의 말은 언제나 간결하고 정확했다. 만일 그가 우리 미국사람이라면 탐을 내고싶을 정도였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와 대화하는 과정에 그의 인품과 성격에 반하기 시작한 자기를 보는 순간 내심 깜짝 놀라군 했다.

리룡진은 북조선군의 총사령관 **김일성**장군의 전사임을 항상 긍지에 넘쳐 말하군 하였다. 그는 북조선군의 총사령관 **김일성**장군을 자기의 어버이로, 대스승으로, 은인으로 불렀다. 보건대 리룡진은 북조선의 령수인 **김일성**장군에 의하여 해방후 직접 키워졌고 교양된 관리로 생각된다. 리룡진은 자기를 키워주고 사랑해준 **김일성**장군의 충신으로서 어떻게 자기의 생을 바쳐야 하는가를 이미전부터 자각하고 있었던것으로 짐작된다. 아니, 짐작된다기보다 그렇게 확신된다. 그는 자기의 생애에 **김일성**장군으로부터 받아온 신임과 사랑, 교양과 문화와 도덕, 의지를 고스란히 또다시 어버이이며 은인인 스승에게 바치려는것으로 느껴진다. 리룡진의 이러한 신념과 절개는 그 어떤 내적인 의리에 바탕을 두고있는것으로 추측된다. …

나는 기지있고 보통 경쾌하게 말하는 솜씨였지만 그와 말하는 때에 자주 표현의 부족을 느끼군 했다. 물론 나는 장례식에서처럼 무겁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푹 떨군 리룡진을 보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심문하고 회유협박하는 동안에 나는 종종 이상한 감을 받군 하였다. 왜냐하면 리룡진은 자기가 체포되였다는 위축감이나 상심 혹은 일부러 힘을 내려고 하거나 인위적인 활기를 보이려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기때문이다. 그는 체포되기 전과 조금도 변함없이 태연하였으며 침착했고 강직하였다. 정직히 말하면 나는 이런 사나이를 보면서 한편 내심 놀랐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사나이를 이제 굴복시키게 될것이라는 만족감도 동시에 느꼈었다. 나는 한다하는 활동가들이 자기 생애의 일대 시련기를 겪는것을 수많이 보았었다. 나는 강철의 의지를 가진것 같던 사람들이 파멸의 순간에는 눈뜨고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가련한 꼴이 되는것을 여러번 목격한바 있었다. 대통령 후보자들, 거지의 신세로 굴러떨어진 억만장자들, 은행가들, 기업가들이 바로 그러했다. 특히 나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도

이췰란드와 일본의 한다하는 정치가들, 고위급관리들, 장군, 장성들의 가련하기 짝이 없는 몰골들을 수없이 보았으며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리룡진에게서 내가 수없이 본 그런 실패한 자들의 기색과 같은것을 엿보려고 애썼다. 나는 룡진의 얼굴에서 공포의 흔적이나 불안한 기색을 알아내려고 하였으며 손가락들이 떨리는것을 보려고 했다.

그러나 죄다 허사였다. 그는 어느때나 태연자약하였으며 철벽이였다. 나는 그렇게도 모진 고문을 받은 리룡진이 존재하는것, 다시말해서 그가 말을 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는것은 오직 고도로 긴장한 정신력, 의지의 힘때문이라는것을 깨달았다. …

여기서 나는 그와 나눈 대화의 일부를 인용하려고 한다.

앞으로 나는 그와 나눈 대화를 삽입함으로써 이 보고서의 주요지향과 내가 보고하고저 하는 기본의도들을 보여줄것이다.

나(챨스)

《젊음이란 유감스럽게도 빨리 지나가기는 하지만 아름다운 선물이요. 도위원장, 당신은 서른네살이니 아직 이 선물을 가지고있는셈이요. 그밖의것은 모두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지 않소?》

그(리룡진)

《그건 한푼의 가치도 없는 시시하고 너절한 인생관이요.》

나(챨스)

《계몽시대의 선각자요 우상타파에 앞장섰던 프랑스의 백과전서학자이며 사상가였던 볼테르조차도 죽음의 두려움앞에서는 리성이 무력했다고 하오. 그래서 그는 죽을무렵 이제까지 그렇게 열렬히 주장하던 무신론을 부정하고 신부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함으로써 안심하고 눈을 감을수 있었다고 전해지오. 미지의 죽음 저편의 세계가 주는 공포때문이라고 분석되오. 그런데 도위원장, 당신은 죽음이 두렵지 않소?》

그(리룡진)

《하하…》 그다음 대답은 없었다.

나(챨스)

《터놓고 말하면 리념이니, 신념이니, 절개니 하는따위는 공산주의

광신자들이 만들어낸 허황한거요. 그 모든것은 부질없는 관념의 놀음이요. 인간에겐 오직 실용주의만이 필요한거요.》

그(리룡진)

《아니, 신념이나 절개는 구체적이고 또한 고상한 감정이요. 당신은 인간을 돈이나 권력의 노예로 생각하는게 아니요?… 그런데 챨스씨, 당신이 우리 공화국의 공민으로 되지 않겠는가고 묻는다면 당신의 답변이 아주 흥미있을것 같소. 여보, 나에게 부질없는 질문이나 유혹으로 그 무엇을 얻을 생각은 애당초에 하지 마시오. 잘 듣소. 나는 백번 죽었다가 다시 태여나도 나의 어버이이시고 스승이신 장군님을 위하여, 공화국정권을 위해서 싸울것이요. 나는 밥을 먹고 잠을 자는것까지도 모두 공화국정권을 위하는 일이였던것처럼 죽는것도 공화국정권을 위해 죽는것이요.》

지금까지 서술한 보고서의 구절들에서 나는 리룡진이가 단순히 북조선의 한개 관리이고 인간이라고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된다는것을 립증하려고 하였다. 기실 리룡진은 말하자면 북조선인민군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의 충복이고 충신이며 **김일성**사상의 철저한 옹호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앞에서 도대체 총탄은 무맥한것이다. …

나는 그의 신념을 광신적인 고집인가, 맹목적인 믿음이 언제나 모든 론리를 대신하는가 하는것을 의심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람이란 리성이 맹목적인 신뢰로 빠지는 때엔 현실적인 사실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평가할수 없게 되오. 당신의 경우가 지금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리룡진의 대답은 간단명료했다.

《유치한 질문이라고 생각되지 않소?》

나는 우리 미군이 압록강과 두만강가까이로 진격하고있는 이때에 체포된 그가 어떻게 되여 그러한 론조로 당당하게 말할수 있는지 사실 리해할수 없었다. 리룡진에게는 매일매일이 마지막날로 될수 있었다. 나는 그의 정신을 지배하는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에게는 자기를 키워준 수령과 자기 조국앞에 지닌 의무와 의리를 끝까지 지키려는 각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것 같았다. …

리룡진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바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강점한 지역을 지배하는것이 눈물과 죽음뿐이라고 생각하는가? 천만에, 아니요. 삶이 지배하오. 투쟁이 말이요.》

그는 이 말을 침착하게 아무러한 과장도 없이 (보건대 그는 과장하는것을 질색하는것 같았다.) 마치 일상적인 보통날에 하는 평범한 말처럼 말하였다. 그것이 나에게는 웬일인지 오히려 더 무시무시하게 들렸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

《지금 너희들이 이곳에서 저지르고있는 야수적만행은 어느 미군장교 개인이나 병사들에 의하여 감행되는 개별적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강점한 수많은 지역에서 감행되고있는 사건들과 내부적통일성을 가진 미제의 침략적책동의 일환으로서 감행되고있으며 그의 괴수는 월가전쟁방화자들이며 그들의 의도를 조선에서 직접 실현하고있는것이 맥아더이며 현지의 미침략군이다. … 너희들이 저지른 만행들은 머지 않아 인류력사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것이다. …》

바로 이러한 말들이 체포되여 무시무시하고 몸서리치는 고문과 폭행을 당한 상태에서 리룡진이가 나에게 던진 말이라는것을 참작하여 읽어주기 바란다. …

나는 리룡진의 변함없는 초인간적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그 힘은 어디서 오는것이며 그것은 무엇인가. 나는 오랜 생각끝에 총과 대포가 통하지 않으며 보이지도 않는 그 힘은 바로 **김일성**사상으로 무장한 리룡진의 신념의 힘이며 믿음의 힘이며 사랑과 의리의 힘이라는것을 깨달았다. …

나는 물론 점령지역의 모든 북조선사람들이 미군장교나 병사들의 시선에 부딪치기만 해도 벌벌 떨리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상상을 너무나 초월하여 아연할 지경이였다. 모든 당원들과 국가공무원들은 물론이고 로인들과 녀인들 지어 아이들까지도 싸늘한 증오의 눈길로 쏘아보았으며 저항하였다. 점령지역 북조선사람들의 맹렬한 저항은 나뿐만아니라 모든 미군장교, 병사들을 놀래웠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미합중국의 대다수 정치가들은 이러한것들을 알지 못하고 또 정확히 알려고도 하지 않고있다. 조선인민의 저항

은 일시적현상이며 그것은 강대한 무력과 힘의 도움으로 얼마든지 짓누를수 있다고 어리석게 생각하고있다. 여기 현지의 미군장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는바 이곳 신천지구주둔 미군사령관인 해리슨의 견해가 집중적으로 실증해주고있다. 물론 해리슨과 점령지역 미군장교들의 미국에 대한 충실성은 의심할바 없을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서투르고 조야하게 사고하며 행동하고있다. 그들은 보다 세련되고 음밀한 방법을 취해야 할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지를 첨부하여 상세히 보고하게 될것이다. …

조선인민의 맹렬한 저항, 그들의 증오심, 한마디로 특수한 체질을 가진 그들의 정신적 및 심리적특수성들과 불굴의 힘을 현지에서 직접 체험한 (직접 피부로, 감각으로, 눈으로 보지 않고는 리해하지 못한다.) 나는 대조선정책에서 미합중국의 의도와 현실간의 모순을 보지 않을수 없었다. 나는 오늘의 북조선이 미국력사가 그리피스가 《은둔국 조선》에서 쓴것처럼 무지하고 몽매한 인간들도 아니고 리승만을 괴뢰로 내세우던 그런 시절도 아니라는것을 명백히 말하고싶다. 북조선인들은 전혀 다른 특수한 인간들이라는것을 정직히 서술하는것을 나는 자기의 의무라고 간주하는바이다.

나는 전체 조선인민이 미군과 싸우게 되리라는것을 서슴없이 증언한다. 인민군병사가 단 한명도 없는 이런 곳에서까지 미군병사들은 죽어넘어지게 될것이다. 만일에 미군이 북조선의 전령토를 점령한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부닥치게 될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미국무성이나 펜타곤, 백악관에 이러한 문제들을 면밀히 타산할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못하다. 그리고 보다 깊이 관찰할줄 아는 사람도 매우 적다. 불행은 우리 미합중국의 정책작성자들이 북조선을 잘 모르면서 알고있는듯이 생각하고있는 바로 그것이다. 미합중국의 정치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시기 우리가 타승했던 도이췰란드나 일본사람들과는 전혀 비슷치도 않는 특수한 인간들을 상대로 하고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모르는 한 조선전쟁에서 미합중국은 쓰디쓴 참패를 반드시 당하리라고 나는 전망한다. 조선이 유미렬강들의 한날 거대한 남새밭에 불과했던 시대가 아득히 지나갔음을 모르는 미국정치가들은 이제라도 각성해야 할것이다.

나는 우리 미합중국이 정치적미숙성과 판단의 오유들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새로운, 보다 로숙한 정책작성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감히 주장한다. …

나는 이상의 보고서에 기술한 모든것에는 단 하나의 허구나 거짓, 과장이 없다는것을 미합중국의 정직하고 견실한 국민으로서, 자기의 복무와 의무를 귀중히 여기는 미국무성의 공직자로서 아메리카합중국앞에 엄숙히 서약하는바이다.

41

령하 20도의 건조하고 맵짠 겨울날의 아침이 밝아왔다. 나무가지들은 탁탁 소리를 내며 부러지고 땅은 두텁게 얼어붙었다. 추위에 빛을 잃은 자그마한 해가 솟아오르고 대기속에는 하얀 눈가루가 안개처럼 서려있었다.

새들은 벌써 지저귀며 노래하기 시작하였다. 감방안의 뙤창가에서는 새들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 소리만은 똑똑히 들리였다. 룡진은 새들이 아침해에 인사를 보내는듯 간간이 중단되는 경쾌한 지저귐소리를 듣고있었다. 참새들이 해를 향해 조그마한 머리를 추켜들고 지저귀는것이 눈에 보이는듯 하였다.

(이제 조금후면 교형리들이 나를 야수적인 방법으로 죽일것이다. 그런데 나는 조금도 공포를 느끼지 않으니 이상한걸… 내가 정말 옛말에 나오는 영웅호걸처럼 모든것을 초월했는가. …)

룡진은 뙤창가에서 흘러드는 새소리를 들으며 생의 마지막순간이 각일각 닥쳐오고있음을 느끼고있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자기의 전생애를 생각한다고 한다. 아마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룡진은 오직 **김일성**장군님과 전쟁승리만을 생각하였다. 또 죽음을 앞둔 사람은 단번에 많은것을 생각한다고 한다. 아마 그럴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룡진은 자신의 최후를 앞두고 장군님과 공화국정권의 종국적승리만을 생각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이 전쟁은 우리 인민에게 전대미문의 파괴와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준 무서운 재난이였다. 우리 인민이 이처럼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겪은 때는 일찌기 없었다. 우리 인민과 인민정권은, 우리의 청소한 공화국은 이 전쟁에서 많은것을 잃었다. 얼마나 많은것을 잃었으며 또 잃고있는가. 얼마나 큰 재난을 겪고있는가. …

그러나 청소한 우리 공화국은 이 력사에 류례드문 시련과 재난을 이겨내고 반드시 종국적으로 승리할것임에는 틀림없다. 지금처럼 그렇게도 우리모두가 전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벼려지고 성장한 때는 일찌기 없었을것이다. 1950년, 이해처럼 우리 인민이 많은 피를 흘리고 이해처럼 시련에 찬 해는 아직 없었다. 그러나 또한 이해처럼 우리 인민이 성장한 해는 없었다. 살아서 싸우고있는 사람들도 성장하였고 죽은 사람들도 성장하면서 전사하였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희생된 사람들의 몫까지 싸워 복수하고 승리를 이룩할것이며 파괴된 공화국의 도시들과 마을들을 다시 일으켜세울것이며 조국은 륭성번영할것이다. …

(그런데 이건 또 웬일인가. …)

룡진은 어느사이 자기 눈에 눈물이 고여오르는것을 느꼈다.

(내가 왜 이러는가? 살고싶어서?…)

그렇다, 룡진은 살고싶었다. 그가 겪은 이 며칠간의 나날들은 그의 일생에서 짧으면서도 가장 시련에 찬 날들이였다. 이 짧으면서도 준엄했던 날들에 겪은 체험을 가지고 살아서 일을 한다면… 공화국의 륭성과 번영을 위해 또다시 바쁘게 서두르며 뛰여다니고 밤을 새우면서 일하게 된다면!…

그러자 생에 대한 의욕이 일찌기 느껴보지 못한 생신한 힘으로 홀연 룡진의 앞에 솟아올라 그를 붙잡는것이였다.

룡진은 조용히 감방안을 소리없이 거닐었다. 새들의 환희에 찬 지저귐소리는 그침없이 들려오고있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러니 지금은 죽음으로 적들과 싸우는것이 조국을 위한 투쟁으로 될것이다. 그렇다, 지금은 나에게 어떻게 죽는가 하는것이 중요한것이다. …)

룡진은 생각하였다. 꿈을 꾸는것도 아니고 잘못 생각하는것도 아니

다. 죽음앞에 서니 모든것이 더욱 명백해진다. **김일성**장군님께 충실한 전사들인 우리들의 넋은 없어지지 않을것이다. 그 넋은 후대들의 정신속에 살아있을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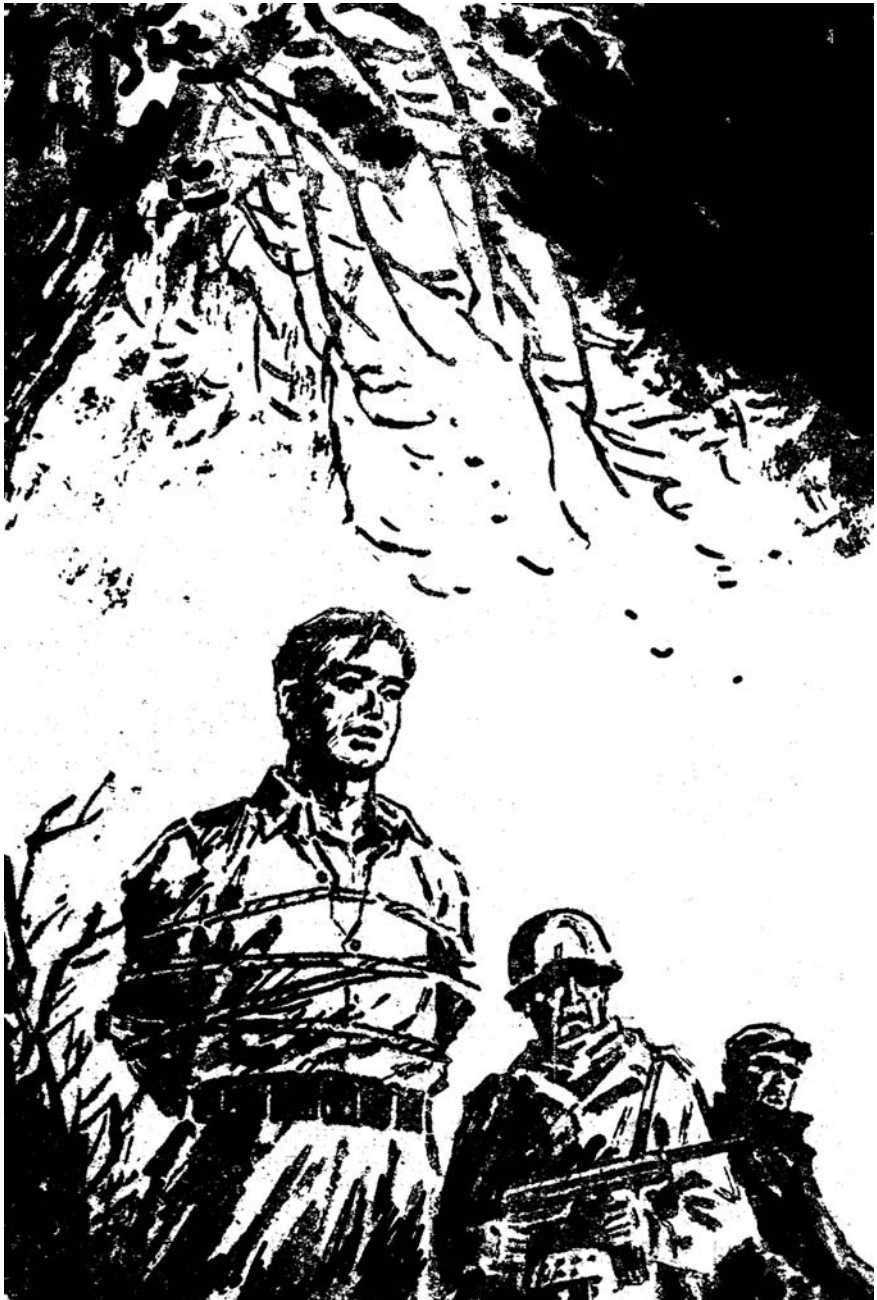
그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최후에 남긴 말들을 선명한 기억속에 더듬어본다. 세상의 유명한 학자, 이름높은 영웅들, 애국지사들 그리고 평범한 인간들… 그들이 최후의 순간에 남기고간 말들은 수없이 많다. 룡진의 머리속에는 자기가 최후의 순간에 웨치고싶은 말들이 떠오른다. …

룡진은 뚜거덕거리는 어지러운 군화발자국소리들과 군견들이 짖어대는 소리를 들었다. 교형리들이 다가오고있다. 죽음으로 적들과 싸워야 할 마지막생의 중대한 시각이 닥쳐온것이다. 그는 태연하게 교형리들을 향해 마주걸어나갔다. …

룡진은 컴컴한 복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가는 눈보라가 휙 앞으로 불어왔다. 반짝거리는 흰눈의 광선에 눈이 시였다. 그는 교형리들의 앞에 서서 걸어갔다. 눈덮인 언덕우에서 룡진은 걸음을 멈추고 은인이시며 스승이신 장군님께서 계실 북녘하늘을 우러러보았다. 장군님께서는 지금 최후의 승리를 위한 천재적인 작전을 구상하고계시리라!…

그는 북녘하늘을 우러러 숙연히 머리를 숙였다.

(어버이 **김일성**장군님, 장군님의 전사 리룡진은 마지막최후의 순간에 장군님 만세를 부르며 죽을것입니다. 장군님, 전사 리룡진은 장군님의 안녕과 공화국의 최후승리를 삼가 축원합니다!)

룡진은 조용히 머리를 들고 눈덮인 산과 얼어붙은 무연한 들을 바라보았다. 사랑하는 조국강토, 내 나라, 내 조국의 귀중한 땅이고 산천이고 강이고 들이였다. 세찬 바람이 눈을 날리며 지나간 눈덮인 들판의 곳곳에는 점토질의 불그레한 흙이 드러나있었다. 눈을 헤치고 솟아난 그 붉은 흙무지들은 침략자놈들의 군화발밑에서 속속들이 피에 젖고 눈물에 얼어붙은 대지가 필연코 다가올 봄을 벌써 선언하고있는것 같았다. 그렇다, 이제 머지않아 눈덮인 대지는 녹을것이며 얼어붙은 강은 풀리고 봄이 올것이며 산천은 푸르러질것이다. 봄이 오면 깊숙이 갈아엎은 비옥한 붉은 흙에서는 온갖 곡식들이 자라고 탐스런 열

매를 맺을것이며 거창한 수확을 내게 될것이다. 비옥하고 기름진 붉은 흙의 대지, 바로 거기서 평화적로동은 들끓을것이며 노래로 흥성거리게 될것이다.… 룡진의 눈은 신비로운 빛으로 번쩍거리고 가슴은 격정으로 설레였다.

…조국이여, 사랑하는 나의 조국이여, 후대들에게 전해다오. 우리들은 **김일성**장군님 전사의 절개와 지조를 지켜 이곳에서 죽었노라고.

흰눈이 풍성하게 쌓인 구월산의 숲속들에는 비스듬히 길게 내려 비치는 해빛이 흘러들고 새들의 지저귐소리가 들렸다. 해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숲속의 소나무, 잣나무들은 풍성한 숫눈을 배경으로 더욱 선명히 푸르러보였다.

구월산 산성앞의 넓은 공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그들속에는 방금 적구에서 전투를 치르고 돌아온 유격대원들도 있었고 이제 결전장으로 떠나가야 할 전투원들과 정찰병들도 있었다.

9련대, 10련대, 15련대, 군정학교 학생들… 총을 멘 사람도 있고 아직은 날창을 쥐고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사람들속에는 철수, 순애, 시인의 딸 그리고 면위원장직책에서 철직되였으나 자기의 과오를 피로 씻고 돌아온 허명서도 있었다. 방금 본부에서 조직한 남녀유격대원들의 전원총회가 끝났던것이다.

본부의 한 지휘관이 회의연단으로 나와서 목메인 목소리로 유격대원들에게 말했다.

《동무들, 조금전에 격동적인 편지가 본부에 왔습니다. 그 편지는 도위원장 리룡진동지가 감방에서 보내온것입니다. 적구에서 이 편지를 가지고 달려온 리음전동무가 이제 직접 읽겠습니다.》

모여선 남녀유격대원들은 갑자기 설레이면서 초조히 연단쪽을 바라보았다. 조금후에 검정치마에 보위색솜외투를 입은 한 녀성이 연단으로 나왔다. 남녀유격대원들은 숨을 죽이고 앞으로 빽빽이 죄여들기 시작했다.

음전은 편지를 펼쳐들기는 하였지만 흐느끼면서 읽지 못하였다. 그는 온몸을 떨면서 그냥 흐느꼈다.

(바로 여기 연단에 그가 직접 나섰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참

되고 훌륭한 사람은 어디 가고 하잘것 없는 내가 섰단 말인가. …)

이윽고 그는 흐느낌때문에 도간도간 끊으면서 감방에서 쓴 룡진의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뜻밖의 기회가 생겨 당신들에게 최후의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얼마후면 나는 죽을것입니다.

나는 최후의 시각에 교형리들에게 조선로동당원, 장군님의 전사는 어떻게 생의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보여줄것입니다. 나는 죽음도 적들과의 중대한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

동무들, 지금 나의 생각은 동무들에게로 달리고있습니다.

동무들, 매개 로동당원, 매 공민의 생애에는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심장을 검열받는 특별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나의 생애에서 그러한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나자신을 검열하고있습니다. 동무들, 만약 내가 또다시 생활을 시작한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걸은 길— 또다시 **김일성**장군님을 모시고 공화국의 번영을 위해 복무할것입니다. 나는 거듭 말합니다. 만일 내가 아직 정신적 및 육체적힘을 유지하고있다면 그것은 장군님을 믿고 당을 믿고 조국이 승리하리라는것을 믿고있기때문입니다. …

동무들, 나는 확고한 신념이 없이 희생되는 사람만을 가엾이,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

나는 우리들이 당한 어떤 희생이든지 모두가 헛된것이 아니고 따라서 우리의 희생은 헛된것이 아니라는것을 확신합니다.

동무들, **김일성**장군님께서 키워준 용기와 신념은 나에게 무비의 용기를 주며 강한 힘을 주고있습니다.

우리들을 고무하여주고있는 장군님의 사상과 공화국의 기치가 당신들의 가슴속에서 더욱 세차게, 거세게 불타오르고있으리라 믿습니다.

전체 유격대원동무들, 희생된 우리들을 애통하게 여기며 슬픔에 잠기지 말며 전투의 기치,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어야 합니다. 당신들은 교형리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원쑤를 백천배로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동무들, 나는 다시한번 말하고싶습니다. 나는 과거에도

김일성장군님을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하여 싸웠으며 앞으로도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게 싸울것입니다.

유격대원동무들, **김일성**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이 땅을 밟으며 이 하늘을 이고 살아온 당신들은 장군님의 존엄높은 전사임을 어느 한순간도 잊지 말라. 공화국의 공민임을 기억하라.

잘 싸우라 동무들, 잘 있으시라 나의 위대한 당이여, 잘 있으시라 나의 아름다운 조국이여! 나는 그대에게 경례를 올리면서 최후를 마칠것이다.

김일성장군 만세! 공화국 만세!

…

산성앞의 공지에 빽빽이 모여든 사람들속에서는 비분의 흐느낌소리가 파도쳐가고 분격의 웨침소리들이 터져올랐다.

《원쑤놈들에게 천백배의 복수를!》

《미제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소멸하자!》

복수의 일념으로 불타는 분노의 함성들은 구월산 굽이마다 메아리쳐갔다. …

그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오늘 조선인민군부대들은 전전선에 걸쳐 적들에게 결정적인 반타격을 가했다. 심대한 타격을 받은 미제침략자들은 수치스러운 참패를 거듭하면서 드디여 남으로 패주하기 시작하였다. …

장편소설 **붉은 흙**(증보판)

저 자	**김 청 남**
편 집	**김 송 봉**
표지, 삽화	**리 수 길**
편 성	**김 남 숙**
교 정	**박 춘 애**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2
인 쇄	주체100(2011)년 4월 20일
발 행	주체100(2011)년 4월 30일

ㄱ－06781 값 210원

D P R Korea

ISBN 978－9946－22－388－9